51
8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7 호 9 월 5 일

평양 근로자사 1965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7 호(279)

1965년 9월 (상)

차 례

— 당 창건 20 주년을 맞으며 —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와 군중 로선

김 덕 진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 문제

로동 계급이 주권을 쟁취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한 다음에 맑스-레닌주의당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를 옳게 해결하는 것이다. 레닌은 승리한 사회주의 혁명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과업이 경제 건설을 옳게 조직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지적하였다.

인민 경제의 지도 관리 문제는 실제에 있어서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 및 완성을 위한 투쟁의 기본 문제이며 그의 정확한 해결은 총체적으로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촉진하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

경제의 지도 관리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훌륭히 발양시킬 수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에 상응하는 높은 생산력과 로동 생산 능률을 창조하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제도의 결정적 우월성은 그것이 생산력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 주며 근로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에 기초하여 경제를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시킨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 하에서는 그 제도의 우월성으로 하여 생산력이 자동적으로 급속히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혁명을 통하여 앙양된 근로자들의 열성을 계속 견지하고 더욱 높이며 경제를 실제로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에 대한 지도 관리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한다.

경제 지도 관리 문제의 해결 과정은 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게 생산 관계를 더욱 완성하며 경제적 토대의 발전에 상부 구조를 적응시키는 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요구에 맞게 생산 관계의 개별적 측면들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하며 또 경제적 토대의 발전에 상부 구조의 개별적 환절들을 제때에, 정확히 적응시키고 그의 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경제의 지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에 의하여 실현된다.

경제 지도 관리 문제의 정확한 해결 여부는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인간으로 준비하는 사업에도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력사의 장구한 세기를 통하여 관리에서 제외되고 자립적 활동을 억압 당해 온 생산자 대중은 당이 경제의 지도 관리 문제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길 우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적극적인 건설자로 보다 훌륭히 육성되며 낡은 사회가 남긴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흩날려 버리게 된다.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은 또한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사회주의 경제는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나라의 모든 물자와 자원, 모든 공장과 기업소들 그리고 일체의 인적 자원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장악하고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발전을 옳게 련결시키며 그것을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은 실로 력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더우기 사회주의 경제는 계속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며 따라서 관리 형태와 방법을 현실 발전에 상응하게 개선하며 관리 일'군들의 지식과 숙련, 관리 능력을 경제 발전 속도에 따라 세우는 것은 매우 힘들다.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 문제의 해결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이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이 아직 많지 못하며 그리하여 그 어떤 사업보다도 창조적인 해결이 더욱 요구된다는 사정과도 관련되여 있다. 자본가들이 개별적 기업소들을 제멋대로 운영하는 자본주의적 관리 운영 방법도 수백 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수천만 대중의 생존에 필요한 생산물의 계획적 생산 및 분배를 진행하는 극히 복잡 세밀한 새로운 조직망(網)을 설정하는 적극적 또는 창조적인 사업》 (레닌 전집 제 27 권, 297 페지)인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된 이후 세월은 불과 반세기가 흘렀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는 의연히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천명한 원칙들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 행정에서 더욱 완성되여야 할 문제로 되고 있다.

각국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은 사회주의 경제를 창설하는 것도 어려운 과업이지만 그것을 훌륭히 관리 운영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특수한 조건들과 복잡한 정세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이 특별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으며 또 그의 해결은 헤아릴 수 없는 난관을 동반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당의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되게 훌륭하게 해결되였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의 지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가 자체의 민족 간부를 대대적으로 길러 내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생산자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들을 경제 관리에 적극 인입하는 데 있다고 인정하고 일관하게 혁명적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다.

특히 천리마 운동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심화 발전되였을 때에 당은 이 운동이 대중을 경제 관리에 참가시키는 매우 훌륭한 형태로 된다고 보았으며 그것을 무한히 귀중히 여기고 전력을 다하여 발전시켰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기본 특징은 일체 사업을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교양 개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 의식을 높임으로써 모두다 경제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시키고 생산과 기술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데 있다.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대중적으로 경제 관리에 참가하였으며 기업 관리 방법을 부단히 발전시켰다.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 농업 지도 체계를 창조하고 전면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당은 이 과정에서 경제 관리 사업을 더욱더 광범한 대중 속으로 끌고 들어갔으며 관리의 군중화를 결정적으로 심화시켰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대안의 사업 체계는 과거의 사업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공산주의적 기업 관리의 요소를 풍부하게 내포하고 있는 가장 우월한 사업 체계이다》**(《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대안 체계와 새 농업 지도 체계는 공업과 농업 협동 경리의 지도 관리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고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게 하였다.

그것은 당'적 영도를 강화하고 정치 사업을 선행하여 모든 군중을 자각적으로 움직이게 하며 기업 관리에 능동적으로 참가시키는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지도 형태이다.

그것은 또한 우가 아래에 내려 가서 정치 사상적으로, 물질 기술적으로 도와 주고 보장하여 줌으로써 대중의 창조력과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게 하였다.

이 체계들이 확립되고 정연하게 움직이게 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인 계획화 사업을 비롯하여 설비 관리, 로력 관리, 자재 관리, 후방 사업 등 기업 관리의 전반적 분야에서 근본적 변혁이 일어 났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 농업 지도 체계는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 가고 있다.

생활은 그것이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완전히 부합되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새로운 훌륭한 형태이며 대중의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켜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가장 우월한 지도 형태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는 방도를 찾았으며 그 리론을 더욱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다.

우리 당의 경험에서 고집어 낼 수 있는 귀중한 교훈과 결론은 사회주의 경제를 지도 관리하는 이 중대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오직 혁명적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길로 나아갈 때에만 훌륭히 해결된다는 것이다.

군중 로선의 관철은 사회주의 경제 지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

사회주의 경제를 훌륭히 지도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사회에서의 경제 운영 방법의 기본은 모든 사람들의 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그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것》(1964년, 전국 광업 부문 열성자 대회에서 한 연설)이라고 교시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한다는 것은 경제 관리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부단히 높이고 그들을 사회적 생산의 관리에 적극 참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자들의 자각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을 계획의 작성으로부터 생산 조직, 설비 관리, 원자재 관리, 로동 행정 사업, 재정 관리 등 경제 관리의 모든 측면에 전면적으로, 일상적으로 참가시키며 이 모든 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경제 지도 관리에서의 군중 로선의 관철,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적 특성 자체로부터 흘러 나오는 요구이다.

사회주의 경제는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경제 부문과 모든 기업소들이 전 사회의 리익을 위하는 하나의 목적 밑에 단일한 경제 체계에 포괄되여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하에서는 경제를 관리하는 주체와 관리의 목적, 관리 방법이 과거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은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생산 수단과 생산물의 완전한 주인이며 생산의 관리자이다.

과거에는 그들이 오직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되여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생산의 발전에 아무런 리해 관계도 가질 수 없었으며 생산력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근로자들의 힘과 지혜가 다 발휘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생산 수단은 인민의 소유로 되여 있으며 모든 생산물은 전적으로 인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리용된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은 생산 발전에 직접적인 리해 관계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관리의 목적이 근로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여 최대한의 리윤을 얻는 데 있으나 사회주의 하에서는 근로자들의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여 그들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는 력사 상 처음으로 근로 대중을 실제적인 관리자로 되게 하였으며 생산에서 노는 사람들의 능동적 역할은 이 제도 하에서 비로소 전면적으로 발현된다. 여기에서는 사람과의 사업—간부들과의 사업, 기술자들과의 사업, 로동자들과의 사업, 종업원 가족들과의 사업—을 잘 하여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들은 생산 발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하게 되며 경제 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관리 운영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근로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그들을 경제 관리에 적극 인입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한다. 이 길은 인민 경제의 지도 관리 문제를 사회주의 제도의 근본적 우월성을

리용하는 데 기초하여 해결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인민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할 데 대한 요구는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 절실하여진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더 대중의 자각적이고 창발적인 활동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경제 관리에서도 군중 로선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생산적 련계가 긴밀하여지며 또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생산자 대중에 적극 의거하는 관리 방법을 계속 발전시킬 때에만 더욱더 방대하여지는 생산의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모든 경제 활동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그것은 가장 적은 지출로써 생산을 어떻게 증대시키며, 모든 기계들과 생산 시설을 어떻게 더 잘 리용하며, 생산 과정에서 잠재력을 어떻게 남김 없이 동원 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생산자 대중이 잘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대중 속에는 참다운 조직자들—사회주의에 대한 헌신성과 풍부한 실천적 경험, 일을 훌륭히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일'군들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기계 설비와 원자재를 다루게 되고 협동 생산과 전문화가 더욱 심화되는 만큼 개별적 생산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것이 해당 단위의 범위에서, 나아가서는 전 사회적 범위에서 생산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사람과의 사업을 더 잘 하여 생산자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며 그들을 경제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 하에서는 경제가 생산자 대중에 의하여 관리되며 따라서 근로자들을 능숙한 경제 관리자로 육성하는 것은 로동 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건설 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로 된다.

생산자 대중을 능숙한 관리자로 되게 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은 모든 생산자들의 의식을 개변시켜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소유에 대한 진정으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며 또 그들이 생산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관리 지식도 소유하게 하고 생산의 어느 한 부문만 아니라 그의 전 체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조일석에 해결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생산자 대중이 경제를 자기의 수중에 장악하였다고 하여 낡은 사상의 잔재에서 단번에 벗어 날 수는 없다. 그들 속에서 소소유자적, 개인 리기주의적 사상의 잔재를 지워 버리며 고용되여 일

하던 때에 생긴 습성을 극복하고 그들 자신이 경제를 관리하는 데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꾸준히 사업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는 혁명적 열의와 높은 의식성, 조직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구체적인 지식이 요구되며 교양과 경험, 능력이 요구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착취 사회에서 생산자 대중은 경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없었으며 특히 로동에 대한 낡은 사회적 분공은 그들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게 하였다. 낡은 사회에서 생산자들은 《…어느 한 생산 부문에 종속되고 그것에 얽매이고…자기 능력의 다른 측면들을 희생시키고 한 측면만을 발전시키며, 전체 생산의 한 부문 또는 어떤 부문의 한 부문 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간》(엥겔스, 《공산주의 원리》)이였다.

우리는 이러한 낡은 전통을 타파하고 생산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이와 같이 생산자 대중의 사상 의식 수준과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며 그들이 생산의 전체 체계에 정통하고 풍부한 관리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당이 사상 교양, 기술 교양, 문화 교양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그들을 경제 관리에 실제적으로 참가시켜야 한다.

생산자 대중은 경제 관리에 직접 참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자각을 높이고 그들이 지닌 임무와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게 되며 동지적 협력과 호상 방조의 정신,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와 새로운 로동 규률을 훌륭히 배양하게 된다. 《…로동자, 기술자들이 생산 관리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로동자들은 생산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관료주의적인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는 한개의 고용자로서 행동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과 근본적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여서는 근로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시킬 수 없다》(김 일성,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또한 생산자들은 관리에 직접 참가할 때에 관리 지식과 기술 지식을 가장 쉽게 체득할 수 있다. 레닌은 《…관리의 예술은 사람의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레닌 전집 제 27 권, 305～306 폐지—방점은 인용자가 함)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것은 인민 경제 관리의 필수적 요구이며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로 된다.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 관철을 위한 기본 방법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청산리 방법과 대안 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 체계를 관철하여 온 우리의 경험은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기본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정치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이에 경제 기술적인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근로자들의 정치적 각성과 의식 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여기에 물질적 관심을 옳게 배합하는 것, 이것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중을 동원하는 우리 당의 기본 방법이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

하여≫).

이 방법은 대중을 경제의 지도 관리에 적극 동원하게 하는 데서도 그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 방법은 당의 령도를 강화하면서 정치 사업과 경제 기술적인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 그것은 경제 지도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것이 오직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에 의하여서만 원만히 해결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생산자 대중의 의식성과 조직성을 높이는 것이다.

당은 정치적 령도를 통하여 대중에게 나라와 혁명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주입시키고 그들의 자각성을 부단히 높이게 한다. 당의 령도를 통하여 높아지는 대중의 의식성은 강한 조직성을 낳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전반적 경제 관리를 개선하는 하나의 목적 밑에 일치하게, 정연하게 움직이게 한다.

경제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대중을 관리에 참가시키는 각종 행정적 및 사회적 형식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이 문제도 바로 당의 령도가 강화될 때에 원만히 해결된다.

생산자 대중은 행정 관리 체계와 근로 단체 조직을 통하여, 사회주의 경쟁 운동 특히 천리마 작업반 운동 등 여러 형식을 통하여 경제 관리에 참가한다.

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의 각종 대중 조직들에 대한 유일적 지도를 통하여 국가 경제 기관들, 근로 단체들의 사업에서도 군중에 의거하는 혁명적 방법을 부단히 발전시키며 경제 관리에 대중을 인입하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함으로써 그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것은 본질적 의의를 가진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대인 공산당은 비당원 로동자 대중을 지도하며 이 대중(처음에는 로동자, 이어서 농민)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양하여(공산주의의 ≪학교≫) 그 대중이 전체 인민 경제의 관리 사업을 자기의 수중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또 실지 집중하게 한다**≫(레닌 전집 제 32권, 43 페지).

우리 당은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당의 유일한 령도 밑에 모든 국가, 경제 기관들이 일치하게 움직이는 령도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생산 단위들에서 당 위원회를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되게 하고 그의 집체적 령도제를 확립하였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제는 경제 관리에 군중을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지도에서 주관주의를 배격하고 과학성을 보장한다.

특히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제는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경제 기술적 사업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데서 거대한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정치를 선행시킨다는 것은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당 정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이 혁명 과업 수행 방도를 대중적으로 토론하며 높은 정치적 각성을 가지고 혁명 과업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것이다》(《새 환경에 적응하게 근당 단체의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라고 교시하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며 당의 정책은 인민이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나갈 길을 규정한 것이다. 당의 사상과 의지가 대중 속에 침투되면 그것은 곧 대중 자신의 사상과 의지로 되며 당 정책의 수행 방도를 대중적으로 토의하면 군중은 그의 실현을 위하여 창발적으로 투쟁하게 된다.

사회주의 경제를 지도 관리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당에 고유한 이 위력한 사업 방법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의 자각적 열성을 높일 때에 근로자들은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은 기계를 돌리며 같은 원자재를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투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는 원칙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는 길은 오직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당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는 데 있다. 그것은 정치 사업이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이것이 당 사업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를 지도 관리하는 데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제가 가지는 가장 큰 우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당은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제를 확립하고 정치 사업을 선행하는 방침을 관철하는 행정에서 고귀한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 사업이 경제 과업의 해결과 긴밀히 결부되고 그것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사업은 반드시 당면한 경제 과업을 해결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며 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시키는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정치 사업은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 속에서 높은 열성과 창발성,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발양시킬 수 있으며 실제적인 물질적 성과를 낳게 할 수 있다.

우리 당의 경험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정치 사업을 문'자 그 대로 전 당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과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 있으며 그들의 사상 동태와 감정은 각이하며 또 그들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여러 가지 과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자각적으로 움직이게 하자면 전체 간부들과 당원들, 당 일'군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문화 기관 일'군들과 근로 단체 일'군들이 언제, 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정치 사업을 첫 공정에 놓고 대중을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정책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각성을 부단히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될 때에 경제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훌륭히 관철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제는 그것이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경제 관리 체계와 방법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비로소 그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양된다는 것을 증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는 엄밀한 과학적 타산에 기초하여 관리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기술적 지도를 떠나서는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과학적 타산, 기술적 지도가 가지는 의의는 더욱더 커진다.

그러므로 생산에서 최대의 효과를 낳도록 경제를 옳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철저한 타산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행 과정에서 생산 및 기술 지도, 자재의 보장이 생산을 중심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결합되고 생산의 모든 요소들이 빈틈없이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이러한 본질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반드시 현대적 생산의 기술적 요구와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요구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관리 체계와 방법을 가져야 한다. 문제는 경제 관리에서의 이러한 과학적 타산, 기술적 지도에 대한 요구가 당의 령도를 강화할 때에 가장 훌륭히 실현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 당은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제를 확립하면서 대안 체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 기술, 생산을 통일적,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참모 체계와 생산 조건을 보장하는 자재 공급 체계, 후방 공급 체계를 정연하게 수립하여 놓았다. 그리고 우가 아래를 도와 주고 보장해 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진정한 사회주의적 사업 원칙과 생활 원칙이 이 모든 체계를 관통하게 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립된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 관리 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으며 생산자 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에 기초하여 기계, 설비, 원자재들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고 더 잘 리용하면서 경제 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할 수 있게 되였다. 특히 생산 지도 기능과 기술 지도 기능의 통일은 생산 활동에서 기술 력량을 집중적으로, 기동적으로 리용하고 기술적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서 움직이는 대안의 사업 체계가 기업 관리 운영의 전 행정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혁명적 체계이며 유일적인 행정 지휘 계통의 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경제 관리에서 엄격한 타산과 기술적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는 과학적 체계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제, 정치 사업과 경제 기술적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킨 대안의 사업 체계의 우월성은 생산자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발성을 발양시킴으로써 경제 관리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 나가고 있는 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중이 계획화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된 결과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움직이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과학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였다.

설비 관리 사업도·군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정상적인 자검 자수 사업이 진행되고 설비의 가동이 정상화되였으며 그의 리용률이 계통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중 속에서 협동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창발적 대책들이 나왔으며 내부 채산제의 도입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도 대중의 힘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풀려 나갔다.

우리의 현실은 사회 생활에서 온갖 새것의 승리가 그러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 낡은 것의 잔재를 송두리째 청산한 혁명적 체계와 방법은 첨예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전면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그것은 어떤 개별적 부문과 단위에서가 아니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그리고 성(국)으로부터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빠짐 없이 수립되여야 하는 것 만큼 낡은 사상 잔재와 낡은 사업 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모든 일'군들 속에서 강력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대중의 위대한 창조력을 믿지 않는 낡은 사상과 대중에 의거할 줄 모르는 낡은 사업 방법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적 경제 관리 체계와 방법을 모든 부문에 전면적으로 확립하여 놓았다.

여기에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일 데 대한 문제는 거대한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일'군들이 당과 로동 계급, 인민 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철저한 혁명적 사상을 소유함이 없이는 혁명적 사업 방법을 체득할 수 없으며 이 때에는 아무리 혁명적인 경제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놓아도 제대로 움직일 수도, 그의 힘을 나타내게 할 수도 없다.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우리 일'군들은 오늘 대중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혁명적 사업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경제 기술적 사업을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대규모 사회주의 경제를 능숙하게 지도 관리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기본 방법의 다른 하나는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물질적 관심의 원칙을 옳게 배합하는 것**이다.

정치 사업을 통하여 높아지는 생산자 대중의 로력적 열성과 적극성을 공고히 하고 항구적으로 견지하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면 정치 사업과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는 사회주의 사회의 객관적 법칙이며 그의 요구를 위반할 때에는 생산자 대중의 열성을 결코 높일 수 없고 또 정치 사업 그 자체의 위력도 원만히 발휘시킬 수 없다.

이 두 가지 사업을 결합시키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은 매 시기 조성된 정세와 대중의 준비 정도 등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두 가지 사업을 계속 강화하면서 언제나 정치 사업을 선행하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 사업을 잘 하여 광범한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하며,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

장시킬 때에만 그들 속에서 진실로 대중적인 로력적 앙양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진실로 대중적인 영웅주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의 이러한 정치적 각성을 부단히 높이지 않고서는 로동에 대한 참다운 공산주의적 태도—레닌은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를 배양할 수도 없다.

특히 정치 사업을 선행하면서 물질적 관심의 원칙을 정확히 결합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생산자 대중이 경제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문제가 그들의 일시적인 충격으로부터 출발한 돌발적인 열성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확고한 정치적 각성에 기초한 꾸준한 열성과 영웅적 행동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사업에만 치중하고 물질적 관심을 홀시하여서는 안 되며 반대로 정치 사업을 홀시하면서 물질적 관심만 내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여기에서 우리 당은 생산의 결과에 대한 생산자들의 관심을 강력히 자극하는 방향에서 경제 부문의 구체적 특성에 맞는 각이한 형태들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집단주의 사상을 배양하도록 부단히 배려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작업반 우대제, 현물 평가제 등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분배 형태들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당의 방침은 생산자들의 로력적 열성을 고도로 높이면서 그들을 집단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동시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하는 것을 근로자들 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할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경험은 로동 정량 사업에 광범한 군중을 인입할 때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규정할 수 있으며 작업 수행에 대한 평가 사업도 대중 자신의 토론에 의거할 때 가장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더우기 이렇게 하는 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의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추동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정치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이에 경제 기술적인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근로자들의 정치적 각성을 부단히 높이면서 여기에 물질적 관심의 원칙을 정확히 결합시키는 방침이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가 계속 높이 발양되였으며 일'군들은 이 열성을 조직 동원하여 사회주의 경제를 능숙하게 지도 관리하고 있다.

* *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 문제가 창조적으로 해결된 것, 이것은 우리 당의 일체 활동을 관통하고 있는 철저한 혁명적 립장이 낳은 위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인정하고 일관하여 혁명적 군중 로선을 견지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 문제 해결에서도 바로 이러한 우리 당의 철저한 혁명적 립장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우리 당은 바로 여기에서 인민 경제의 지도 관리 문제를 옳게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촉진하는 담보를 찾았으며 그것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보다 심도 있게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를 더욱 개선 완성하여야 할 책임적인 임무가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지도 일'군들의 경제 지식을 더욱 높이며 대중의 기술 문화 수준을 계속 끌어 올리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경제 제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자체의 튼튼한 밑천—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가 있다. 또한 우리의 수중에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키고 천리마의 속도로 전진할 수 있는 위력한 무기—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가 튼튼히 쥐여져 있다.

이러한 튼튼한 밑천과 위력한 무기를 충분히 활용하고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가 전'적으로 지도 일'군들의 조직적 수완과 경제에 대한 구체적 지도 능력에 달려 있다.

일'군들의 경제 관리 지식을 획기적으로 높일 때 대안 체계와 새 농업 지도 체계는 더욱 큰 생활력을 나타낼 것이며 군중의 고조된 혁명적 열의는 보다 거창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환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때에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현시기 사회주의 분배 원칙 관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홍 종 걸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실현하는 것은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열성을 생산과 건설에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지난 시기의 실천적 경험과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이후 경제 건설의 새로운 고조는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실현하여 그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은 다같이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객관적 필연성이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반드시 근로자들 속에 집단과 사회를 위한 일이자 곧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자각을 배양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정치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수행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실시하여 생산 결과에 대한 그들의 물질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이러한 요구를 잘 실현하여야만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성과적으로 인입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발휘시킬 수 있다.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는 것은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정치 사업을 선행하여 근로자 대중으로 하여금 혁명 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만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정치 사업에 반드시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을 안받침해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공산주의 사회가 되여 모든 물품이 풍족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각자에게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보수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법칙이며 그것을 잘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정치이다»(«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사회주의 하에서는 정치 사업을 부단히 선행시키면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잘 실현하여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

성을 높여야만 그들의 열성을 계속 높일 수 있다. 또한 정치 사업에 물질적 자극을 안받침해야만 근로자들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로 교양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일'군들에게 더 큰 배려를 돌리며 물질적으로 고무해 주는 것은 그들의 열성을 더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되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자각적으로 일하려는 충동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로도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전 과정에서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 정치 교양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거기에 물질적 자극을 튼튼히 안받침하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여 왔다.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에서 정치 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부단히 강화하는 데 가장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구체적 실현 방도를 매개 부문 별로 정확히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데도 아주 깊은 관심을 돌려 왔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관철시키며 생산에 대한 기술 경제적 지도와 로동 행정 사업 등 경제 관리 운영 전반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현실에 맞게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더 밀접히 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거기에 물질적 자극을 정확히 결합시키는 우리 당의 조치들은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 운동을 발생 발전시킨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으며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혁명적 고조와 대중적 증산 절약 투쟁을 추동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 있다.

현실은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이에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을 결합하는 이 방법이 바로 사회주의 경제 제도 발전의 합법칙성에 가장 적응한 과학적인 방법이며 사회주의 경제 관리 운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는 혁명적 방법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실천에서 당의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매개 부문, 매개 단위에서 실정에 맞는 사상 정치 교양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는 한편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더욱더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

* *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에서는 이미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하는 데서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였으며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당의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에서는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과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수준, 인민 경제 매개 부문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분배 형태들이 설정되고 성과적으로 관철되여 왔으며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높이고 그들의 로력적 열성을 훌륭히 발양시켜 왔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공업 부문에서는 각종 도급제와 상금제 그리고 점수에 의한 분배 방법들이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건설 부문에서는 현물 평가제, 협동 농장들에서는 로력일에 의한 분배와 함께 작업반 우대제

가 일반화되고 있다. 작업반 우대제는 협동 농장들에서 뿐 아니라 광산, 탄광, 림업, 제염, 천해 양식 부문에도 도입되여 그 생활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적 경험에 근거하여, 인민 경제 매개 부문의 구체적 조건에 적응하게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배 형태들을 창조하고 일반화하여 왔다.

현시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이미 실천에서 그 생활력이 훌륭히 발휘된 이러한 분배 형태들의 특성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매개 부문, 단위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다.

분배 형태는 무엇보다도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생산적 특성에 부합되여야 한다. 한 부문에서 우월한 분배 형태라 하더라도 다른 모든 부문에 다 적응할 수는 없으며 심지어 같은 부문 내에서도 한 개 단위에 적응한 구체적 분배 형태를 다른 모든 단위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인민 경제 매개 부문, 매개 단위에서 기술의 발전 정도, 생산 공정과 로동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분배 형태를 적용하여 그것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문제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관철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특히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앙양과 기술적 진보의 촉진, 새로운 사업 체계의 전면적 확립 등 이 모든 객관적 조건은 부단히 발전하는 매개 단위의 구체적 현실에 상응하게 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배 방법을 더욱 더 개선 완성할 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인민 경제 매개 부문, 매개 단위에서의 분배 형태의 개선, 완성에서 중요한 것은 분배 형태가 매개 생산자들의 자기 로동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게 설정되도록 하는 문제이다.

매개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일한 것 만큼, 번 것 만큼 분배를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기본 요구이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정확한 실현이 생산 발전에 커다란 반작용을 놀게 되는 것도 그것이 개별적 근로자들의 로동의 량과 질에 엄격히 준하여 매개 일'군들에게 분배를 실시함으로써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방지하고 개별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높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하는 온갖 형태들은 그 어느 것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근로자들 개인의 몫으로 돌아 가는 부분을 분배하는 형태들이다. 개인 도급제에서는 더 말할 것 없고 반 도급제, 로력일에 의한 분배 등도 매개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투하한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정확히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며 우리 당이 창조한 새로운 분배 형태인 작업반 우대제도 역시 결국에는 생산자들이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을 고도로 높일 수 있게 매개 일'군들의 분배 몫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로동의 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도 제 1 차적으로는 자기 개인에게 돌아 오는 몫을 타산하는 데 기초한 것이며 기업소, 작업반 혹은 분조 등 집단의 생산 결과에 대한 매개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성의 기초도 역시 이 개인적 관심성이다. 따라서 분배가 개인

의 생산 성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명백히 의존하면 할수록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은 더욱더 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매개 부문, 매개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매개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더욱더 높이겠는가, 이를 위하여서는 자기 단위의 실정에서 어느 분배 형태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선차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개인 도급제가 개별적 일'군들의 로동의 량과 질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의거하여 개별 일'군들에게 분배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높이는 훌륭한 형태로 된다. 따라서 작업 결과를 개별적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례외 없이 개인 도급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오늘의 조건에서 개인 도급제를 능히 적용할 수 있는 곳에서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반 도급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릇된 편향으로 된다.

물론 생산 부문과 단위에 따라서는 작업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곳도 있다. 이러한 데서는 생산자 집단의 공동적 생산 성과를 평가하여 지불하는 분배 형태인 반 도급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농업을 비롯하여 탄광, 광산, 림업, 제염, 천해 양식 부문 등은 로동 대상이 자연 그 자체이고 가공 부문에 비하여 산 로동의 지출이 많고 로동의 협동적 성격이 강하다. 농업과 같은 부문은 생산 기간과 로동 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며 로동의 최종적 결과가 곧 나타나지 않으며 탄광, 광산, 림업 부문들도 매개 근로자들의 로동 결과를 개별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기 곤난하다. 또한 이 부문들은 사회적 생산의 첫 공정으로서 그것은 다른 부문에 선행되여 발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이 부문들의 이러한 특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여기에서는 작업반 우대제를 적용하여 왔다.

이 분배 형태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국가 계획의 초과 수행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게 하며 생산 장성에 대한 매개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더욱 높인다. 여기에서는 집단의 생산 성과에 대한 매개 근로자들의 관심을 높이게 함으로써 서로 협력하는 집단주의적 생활 기풍도 배양할 수 있게 한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작업반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강화하며 생산자들을 기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는 우월성도 가진다.

반 도급제와 작업반 우대제 등의 분배 형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개별적 생산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이 때에도 개별적 생산자들이 집단의 생산 성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매개 성원들의 로동의 량과 질을 잘 타산하여 개별 성원들의 분배 몫을 잘 규정함으로써만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반 도급제에서는 작업반적인 분배 몫을 개인들에게 분배할 때에는 그들의 기능 급수에 의한 분배와 작업반 성원들 자신이 집체적으로 평가 결정하는 점수에 의한 분배를 결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는 작업반 우대제와 결부시켜 분조 및 포전 별로 혹은 작업 대상 및 시기 별로 각종 도급제를 옳게 실시함으로써 매 시기, 매 작업에 대한 농장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높이

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현시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단위에서 자기 부문의 실정에 맞게 각종 분배 형태를 옳게 구체화함으로써 매개 근로자들의 생산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을 높이도록 자극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다음으로 오늘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관철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제품의 량 뿐 아니라 제품의 질, 실수률, 효률, 품위, 원단위 소비 기준 등 기술 경제적 지표의 수행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의거하여 분배를 실시하는 것이다.

생산 결과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로동의 량 뿐 아니라 질까지 잘 타산하여 분배를 실현할 데 대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본질적 요구의 하나이다.

물론 로임 조직에서는 로임 등급 제도에 의하여 로동의 질적 측면도 타산된다. 즉 기능 수준, 힘든 로동, 헐한 로동, 유해 로동 등을 타산한 데 기초하여 로임 기준액이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로임 등급 제도에 의해서는 일'군들이 로동 과정에서 지출한 로동의 질을 전면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기능 급수는 같지만 서로 다른 질의 제품을 내는 현상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으며 또 실수률, 효률, 소비 기준, 품위 등 기술 경제적 지표의 개선이 꼭 기능 수준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일'군들이 지출한 로동의 질은 제품의 질, 작업의 질에 의해서도 평가되여야 한다.

특히 생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선진 기술이 광범히 도입되여 기술 장비도가 높아졌으며 경제 관리 운영이 더욱더 째여지고 있는 오늘의 실정에서 생산 결과를 제품 또는 작업의 량 뿐 아니라 그 질, 실수률, 효률, 소비 기준 등 기술 경제적 지표의 수행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제기된다. 이렇게 하여야만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며 전반적인 제품의 질을 선진 수준으로 올릴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로 근로자들을 성과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공업 부문을 비롯하여 제품의 질을 기술 규격, 기술 기준에 의하여 등급 별로 구분할 수 있는 부문에서는 등급 별로 도급 단가를 각이하게 설정하며 화학, 선광, 제유, 제재, 금속 부문 등 실수률, 효률, 품위, 소비 기준 등 기술 경제적 지표의 수행 정형을 평가할 수 있는 부문에서는 제품의 량과 함께 이러한 기술 경제적 지표의 수행에 따라 도급 로동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수리 및 공무 동력 부문에서는 설비 리용률, 수리 기간 단축, 수리의 질 등을 평가 지표로 하는 정액 상금제를 잘 적용하여 전반적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며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 적극 기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로동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평가 기준을 옳게 선정하고 기술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그 수행을 제때에 평가하며 검사 사업 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제품의 질이 높아지는 데 따라서 기업소의 경영 활동을 더욱 유리하게 개선하고 생산자들에게 더 많은 보수가 차례질 수 있도록 가격, 리윤, 거래 수입금 등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오늘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이 사업에 광범한 군중을 인입하여 그것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는 것이다.

분배 척도인 로동 기준량의 제정으로부터 매개 일'군들의 작업 결과를 하나 하나 평가하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광범한 군중의 참가 하에 진행함으로써만 분배가 생산 발전에 더 큰 반작용을 놀게 할 수 있다.

물론 로동 기준량을 제정하며 로동 결과를 평가하고 로력 보수를 계산 지불하는 데는 과학적인 타산이 절대로 요구되며 기업 관리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는 모든 고리에서 그 과학적 지도 수준을 현실의 요구에 급속히 따라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의 광범한 지혜를 동원하여 그들의 자각적인 열성을 발동시키는 사업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분배는 생산자들의 리해 관계와 직접 관련된 사업이며 그들의 생산 열의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고리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중을 어떻게 인입하는가 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우선 로동 기준량 제정 사업을 광범한 군중 자신의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가 강조한 바와 같이 로동 기준량을 과학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관철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현실적이고 동원성 있는 로동 기준량이 있어야만 일'군들의 생산에 대한 열성도 높일 수 있고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도 보장할 수 있다.

로동 기준량의 제정에서는 과학 기술적인 타산과 광범한 군중 토의를 밀접히 결합시키며 낡은 로동 기준량을 갱신하고 새로운 로동 기준량을 부단히 창조하는 대중적 투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과학 기술적으로 면밀히 타산된 기준량도 대중 자신이 그것을 접수하지 못 한다면 그 동원성이 보장될 수 없다.

우리는 실지 생산 경험을 가진 핵심 로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경험과 과학 기술적 타산에 기초하여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협의한 후에 그것을 실지 대중 속에서 실천해 보며 그 경험에 근거하여 전반적 단위에 새로운 로동 기준량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로동 기준량 제정 사업을 주도 세밀하게 조직하여야만 그것이 훌륭한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적 경험은 잘 보여 주고 있다. 또 이렇게 로동 기준량 제정 사업을 군중 자신의 사업으로 만들어야만 각 부문 별, 직종 별, 작업 별 로임의 균형도 더 잘 보장할 수 있으며 표준 로동 기준량을 매개 단위, 매개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공업, 건설 부문 뿐 아니라 협동 농장들도 기준량 제정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협동 농장들에서는 실정에 맞게 농장적인 평균 작업 정량을 옳게 설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매 작업반 별로 구체화하며, 작업반에서는 이러저러한 작업 조건들을 세밀히 따져 포전 별, 대상 별로 작업 정량을 똑바로 주며 이에 기초하여 도급제를 실정에 맞게 널리 적용하고 매 개인의 기능과 소질에 따라 날'자 별로 일'감이 정확히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작업반 우대제를 실시하는 부문들에

서는 작업반 계획이 로동 결과에 대한 평가 척도로 된다. 따라서 이런 부문에서는 로동 기준량 뿐 아니라 작업반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업반 계획도 광범한 생산자 대중을 적극 인입하여 세움으로써만 자연 조건, 설비, 자재 등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현실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으로 될 수 있으며 그것을 군중 자신의 것으로 철저히 전환시켜야만 그 수행에서 대중의 열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작업반 계획은 우에서 내려 온 계획 지표를 반드시 완수 및 초과 완수하는 방향에서 작성되여야 하며 작업반간의 옳은 균형이 잡히게 작성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하는 사업에 대중을 인입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의 평가 척도를 대중의 광범한 창발성에 기초하여 작성할 뿐 아니라 로동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행정도 광범한 군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매개 일'군들이 로동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제일 잘 아는 것은 그와 함께 일상적으로 생활하며 일하는 근로자들 자신이다. 개별적 일'군들의 로동 결과를 수'자적으로 정확히 계산해 낼 수 없는 데서도 한 작업반 성원들이 모여 앉아 집체적으로 협의하기만 하면 매개 사람들의 활동 정형을 비교적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매개 일'군들의 로동에 대한 평가는 일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그것은 그 어떤 전문 일'군들의 노력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매개 부문, 단위에서는 작업반장, 분조장 등 초급 일'군들과 핵심적 역할을 노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매개 일'군들의 작업 수행 정형을 대중적으로 평가 계산하는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작업 결과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도 보장하는 한편 특히 이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 서로서로가 자극하면서 로동 기준량의 초과 수행에로 모든 사람들이 분발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로동의 평가 척도를 제정하며 로동 결과를 평가하는 실천적 사업에 광범한 대중을 인입하는 것은 기업 관리 운영에서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관철시키고 로동 행정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측면으로 된다. 기업 관리의 모든 고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하는 이 구체적인 분야에서도 그것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시키자면 지도 일'군들의 강한 책임성과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행정적 방법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꾸준하고 인내성 있는 정치 사업,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 사업과 면밀한 조직 사업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이 사업은 훌륭히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현시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구현하는 문제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이 사업에 광범한 군중을 적극적으로 인입함으로써 인민 경제 매개 부문, 단위마다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시키고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을 더욱 훌륭히 발양시켜야 할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와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

황 성 철

계급 교양은 그 내용에 있어서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그 중에서도 우선 중요한 것은 계급적 원쑤들과 착취 제도에 대한 증오심, 비타협적 투쟁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며 자기 계급, 자기 인민, 자기 제도를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다.

계급 의식에서 이 두 측면은 불가분적으로 통일되여 있다. 원쑤를 무한히 증오하며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은 자기 계급, 자기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며 또 자기 계급, 자기 인민을 열렬히 사랑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계급적 원쑤를 증오하는 정신을 발휘하게 된다.

혁명적 실천 활동에서 이 두 측면은 반드시 결합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에서는 계급적 원쑤를 증오하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을 배양하는 동시에 자기 조국, 자기 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로동 계급이 정권을 자기 손에 쥐고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한 다음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자기 조국, 자기 제도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절실한 문제로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계급 교양은 응당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조국, 자기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 데 중요하게 힘을 돌려야 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들어 서면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천리마의 속도로 경제를 건설하였으며 생산력을 발전시켰다.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더 잘 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뿐만 아니라 이미 마련된 사회적 재부를 더 잘 관리하고 실속 있게 리용하는 데서 근로자들의 높은 계급적 자각이 발현되여야 한다.

사회적 재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리용하는가 하는 것은 생산을 발전시키고 물질적 부를 증대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기 조국, 자기 제도를 사랑하도록 하는 교양은 생산에서 헌신성, 혁명성을 발휘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적

재부를 더 잘 관리하고 실속 있게 리용하는 데서 높은 책임성,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 계급 교양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근로자들을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교양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이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자면 무엇보다도 국토를 잘 보호 관리하며 나라의 모든 재부와 자원을 아끼고 더욱 효과 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주인으로서 참가하는 문제는 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사회주의 하에서 비로소 제기된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자기의 조국 산천과 자기 겨레를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여 왔다.

그러나 과거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지배 계급들이 사회적 재부와 자원을 독점함으로써 인민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 직접적인 관심을 가질 수 없게 하였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을 강점한 근 반세기 어간에는 더욱 더 그러하였다.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의 풍요한 자원과 재부가 그들의 소유로 되고 있던 시기에 있어서 우리 인민은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생각할 여지조차 없었다.

해방 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이 주권을 장악하고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생산 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대중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참가할 실제적 조건이 마련되였다. 사회적 재부가 인민의 소유로 된 사회주의 하에서 근로자들 자신이 그것을 주인답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나라의 살림살이 문제, 이것은 하나의 경제 실무적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사회주의 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공고 발전시키는 문제이니 만큼 그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제기되는 혁명 전반의 문제와 밀접히 결부된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투쟁은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며 인민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는 문제와 직접 련관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것은 우선 피로써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히 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투쟁은 항일 선렬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되찾은 조국, 우리 인민이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목숨으로 사수한 강토와 부원을 잘 보호 관리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자신들이 땀 흘리며 마련한 재부를 잘 리용하여 나라를 부강 발전시키는 투쟁이다.

우리 조국, 풍부한 부원을 가진 우리의 아름다운 산천을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하기까지에는 혁명 선렬들의 실로 간고한 투쟁이 아로 새겨져 있다.

또한 이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인민이 해방 후 20년 간 외래 제국

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조국을 부강 발전시키기 위한 로력 투쟁에서 실로 무비의 영웅주의와 열렬한 애국주의를 발휘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재부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늘의 조국 산천의 한 포기의 풀, 한 그루의 나무를 비롯하여 공장과 광산, 학교와 주택들에는 우리의 선렬들과 우리 자신들의 피땀이 스며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고귀한 것들을 잘 보호 관리하고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혁명 선렬들에 대한 의리가 높아야 하며 계급적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것은 또한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 하기 위한 투쟁과 직접 련관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진척 여부는 우리의 재부와 자원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합리적으로 조직 동원하고 리용하는 데 달려 있다. 결국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하는 것은 경제 건설 사업을 진척시키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공업과 농업의 장성은 로동자들이 자재와 설비를 아끼고 잘 관리 리용하며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달라 붙으며 협동농민들이 땅을 아끼고 더 얻어 내며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고 종자를 개량하며 집약 농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는 데 적지 않게 달려 있는 것이다.

모든 일'군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사업에 높은 계급적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 붙을 때 이 문제는 잘 풀릴 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 건설도 성과적으로 진척될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것은 또한 조국 남반부의 해방을 촉진하는 애국 운동의 일환으로, 웰남 인민들을 비롯한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 성원하는 숭고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된다.

오늘 근로 대중 속에서는 혁명 투쟁에서 쓰러진 남반부의 전우들, 웰남의 벗들을 자기 작업반 성원으로 등록하고 그들의 몫까지 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 하여 한 오리의 실, 한 개의 나사못도 더 아껴 써서 한 메터의 천, 한 대의 기계라도 더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애국 운동, 국제주의 운동은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더욱 높여 줌으로써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것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더 훌륭한 유산, 더 훌륭한 사회적 재부를 넘겨주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후대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넘겨 주는 것은 영예로운 임무이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세대들은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후대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넘겨 주어야 한다.

우리 조국은 금수강산으로서 산천이 아름다운 나라이며 《세계 광물의 표본실》이라고 불리리 만큼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이다. 우리가 잘 노력하면 이 땅 우에 참으로 훌륭한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투쟁은 이렇듯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이 투쟁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높은 계급적 각성과 혁명적 열정을 발

휘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는 문제가 가지는 본질적 의의와 그의 요구를 정확히 알고 이 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확립하는 것은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조건이다.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사상 관점과 사업 태도가 옳게 확립됨으로써만 이 사업에 목적 의식적으로 참가하며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투쟁은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우리 인민의 창조적 로동에 의해서 물질적 부가 부단히 증대됨에 따라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오늘 당의 령도 밑에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바친 헌신적인 로력은 빛나는 열매를 맺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며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였다. 우리들에게 있는 풍부한 밑천과 재부를 더 잘 관리하고 더 잘 리용하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빠른 속도로 진척시킬 수 있으며 인민 생활을 더 빨리 향상시킬 수 있다.

현시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체 근로자들이 이를 위하여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지혜를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투쟁은 현시기 근로자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중요한 징표로 된다.

오늘에 있어서 참된 애국자는 당 정책을 받들고 한 그람의 석탄, 한 와트시의 전력이라도 아껴 쓰기 위하여 노력하며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1 인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오늘에 있어서 참된 혁명가는 조국 산천을 오곡백과 무르익는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말 없이, 꾸준히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며 인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문명하게,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려는 일념으로 자기 일에 무한히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근로자들을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교양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철저한 자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게 되자면 사람들이 나라 살림살이의 주인으로서의 옳은 사상-도덕 풍모를 갖추어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나라 살림살이의 진정한 주인이다.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남의 일처럼 되는 대로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도 없고 자신들이 잘 살 수도 없다».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립장과 태도가 확고할수록 그들은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자기의 일, 자기의 살림처럼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며 모든 사회적 재부를 잘 보관하고 아껴 쓰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모든 근로자들이 이러한 립장에 섬으로써만 적은 지출로 더 많은 사회적 재부를 얻기 위하여 애쓰게 되며 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더 가치 있게, 더 효과 있게 쓰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의 주인으로서의 사상-도덕적 풍모를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력 갱생의 혁명 사상을 배양하는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체의 힘으로 우리의 살림을 부유하게 꾸려 나가는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자력 갱생의 사상을 요구한다.

자력 갱생의 혁명 사상이 있어야만 우리의 힘, 우리의 내부 예비를 가지고 우리의 살림을 알뜰히 꾸려 나갈 수 있다.

경험은 같은 자원, 같은 로력을 가지고 같은 조건에서도 일'군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자력 갱생의 정신이 있는 곳에서는 위대한 전변이 일어 나고 인민 생활이 향상되며 그렇지 못한 데서는 생산과 생활에서 개선이 없고 답보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데서 혁명가적 기풍을 옳게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서 살림살이에 대한 낡은 태도, 낡은 습성을 결정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계급 사회에서 인민들은 《노예살이》, 《하루살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재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또한 과거 사회에서는 개인 리기주의, 소부르죠아적 타산이 생활을 지배하였다.

나라의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낡은 관점, 낡은 생활 습성을 결정적으로 극복하여야 하는 것이다. 모든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 정신,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애국주의 사상이 발휘되여야 한다.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계급 교양은 근로자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 자라 나는 후대들 속에서 이를 강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새 세대들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일에서 미래는 물론 오늘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사회적 재부에 대하여 옳은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을 강화해야 한다.

계급 교양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체득한 계급 의식이 실천 활동에서 커다란 물질적 힘으로 나타나게 하자면 나라의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전면적인 지식을 폭 넓게 주어야 한다.

나라 살림살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즉 우리 나라의 강력한 경제적 밑천, 풍부한 자연 부원 그리고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대하여 그들에게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한다. 특히 자기 직장, 자기 협동 농장 그리고 자기 작업반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양을 함에 있어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대비적 교양은 자본주의 제도의 본질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할 때 근로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고향 산천에서 살지만 선조들은 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살았으며 해방 후 우리는 당의 령도 밑에 어떤 로정을 걸어 와서 잘 살게 되였는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제도를 더욱 살기 좋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려는 각오를 가지게 된다.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에서 자기 제도,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일에서 혁명적 열정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조국, 우리의 재부, 자원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확고히 고수할 수 있도록 계급적 각성, 원쑤에 대한 증오심을 배양하는 데 계속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근로자들을 계급적 원쑤를 증오하며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은 로동 계급이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혁명 활동 전 기간에 확고히 견지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계급 교양에서 계급적 원쑤들을 증오하며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진행하여 왔다. 이 측면에 대한 교양은 민주주의 혁명 시기,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사회주의 개조 시기에 있어서 제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위력한 힘으로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있어서도 계급적 원쑤에 대한 증오심, 비타협적 투쟁 정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 남반부는 미제가 강점하고 있고 일제가 재침을 기도하고 있으며 박 정희 역적의 매국적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들의 영웅적 투쟁으로 공화국 북반부가 살기 좋은 락원으로 되여 감에 따라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이 혁명의 재부를 삼켜 보려고 악랄하게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의 정세는 근로자들 속에서 계속 경각성을 높이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기지를 끝까지 보위하며 나아가서는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하여야 한다는 혁명 사상을 배양할 것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더욱 폭 넓게 진행하며 더욱 줄기차게 끌고 나감으로써 그들의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려는 계급적 자각과 혁명적 열정은 더욱 높이 발현될 것이다. 이러한 혁명가적 기풍이 높이 발현될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성과적으로 진척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향토애

최 순 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에 있어서 향토애 교양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애국주의는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 문화를 사랑함과 함께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심, 고향 사람들에 대한 생각, 부모처자들에 대한 애정에서도 표현되는 구체적이고 산 감정이다. 향토에 대한 사랑, 자기 향토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 물 한 줄기를 허수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며 향토의 살림살이와 장래 발전에 대하여 진정으로 념려하고 배려하며 고향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과 정열을 바쳐 일하려는 생각— 바로 여기로부터 애국주의는 흘러 나온다. 매개 지방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 향토를 사랑할 때 전국은 바로 인민들의 진정한 사랑 속에 있을 것이며 조국애는 꽃필 수 있다.

자기 향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결코 지방주의와는 인연이 없다.

사람들이 우선 자기 지방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나아가서 서로 다른 지방의 발전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여기에 바로 나라의 전체 사회주의 건설에 진정으로 이바지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있다고 당은 가르치고 있다.

북청군당 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근로자들 속에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공산주의 교양을 향토애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우리의 경험은 이러한 사상 사업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에서 위력 있는 방도로 된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었다.

* *

우리 군은 영예스럽게도 전후 네 차례에 걸쳐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를 받았다. 그 때마다 준 교시들의 주되는 내용은 치산 치수 사업을 잘 하고 토지 보호 관리 사업을 잘 하며, 산 경사지에 과수원을 확장하여 토지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 지방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며 원료 기지를 조성하여 지방 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 등이다.

특히 1961년 4월에 우리 군에서 열리였던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확대 상무 위원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군의 주민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 특히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사랑하며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하여 몸바쳐 일하도록 향토애 교양을 잘 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군당 위원회는 이 교시들을 지침으로 하여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으로 끌고 나간 것은 애국주의 교양, 향토애 교양이였다. 이것은 군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도록 주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출발점이였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향토애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우리의 력사와 과학, 문화 유산으로 교양하는 것이다.

애국주의 교양은 원리 해석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조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국의 자연과 력사, 과학, 문화 유산 등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과거를 잘 알며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통과 문화와 풍습을 잘 아는 데서만이 생기는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3 권, 1953년 판, 289 페지).

애국주의 교양의 본질적 요구의 하나가 바로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인바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사람들 속에서 조국에 대한 긍지와 민족적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력사, 문화 발전의 고귀한 유물들과 업적들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의 것을 잘 모르고는 그에 대한 사랑도 긍지도 나올 수 없다.

군당 위원회는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위하여 우리 나라 력사, 지리, 과학, 문화 유산으로 교양하면서 특히 향토의 력사와 과학, 문화 유산에 의한 교양에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향토에 있는 계급 투쟁의 력사 자료,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사료 특히 항일 무장 투쟁에 고무되여 일어 난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교양하였는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애국 지성, 용감성, 불굴의 투지, 슬기를 높이 간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근로자들 속에서 향토에 남아 있는 옛성지와 문화 유산들을 통하여 외래 침략자와 국내 반동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싸운 애국적 인민들의 고결한 정신과 창조적 활동의 력사를 알게 하였으며 오랜 시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 풍습, 도덕과 질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취미와 뛰여 난 재능, 지혜를 알게 함으로써 향토애와 애국심을 높이게 하였다.

군당 위원회는 향토의 문화 유산을 발굴하여 그것을 계승하도록 하는 데 큰 주의를 돌렸다.

군당 위원회는 《돈돌라리》를 비롯한 고전들을 발굴하여 그것을 개작 계승하도록 하였다. 결과 오늘 《돈돌라리》는 근로자들의 애국주의 사상 감정을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 있다.

군당 위원회는 군내에 남아 있는 문화 유산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근로자들 속에서 향토사와 향토의 자연, 문화 유산에 대한 교양은 그들이 자기 향토에 대하여 더욱 깊이 리해하고 향토에 대한 사랑과 높은 긍지를 가지게 할 수 있었으며 향토 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었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향토애 교양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

교양하는 것이다.

애국주의는 오직 사회주의 하에서만 전 사회적, 전 군중적 성격을 띠고 발현되며 발전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향토애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옳게 인식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 교양할 필요성은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남북 조선에 상반되는 두 제도가 대립되여 있고 적들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 제도를 반대하여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압박과 착취를 받아 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욱더 기본 력량으로 자라 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근로자들 속에서 자본주의 제도의 본질과 특히 남반부에 수립된 반동적 제도의 본질을 옳게 알려 주고 우리 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똑똑히 깨우쳐 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이 제도의 고수 발전을 위한 정신을 가지게 함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로 된다.

군당 위원회는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비 교양의 방침을 잘 리용하였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였고, 남북을 대비하였으며 또한 전체 자본주의 세계와 북반부의 현실을 대비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 교양에 있어서도 향토적인 것을 광범히 리용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심금을 더욱 울리게 하였다. 례하면 우리는 《오평리의 과거와 현재》, 《라흥리의 과거와 현재》 등 문제들을 제기하여 사람들을 교양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만 꽃 피여 가는 자기 마을을 더욱 똑똑히 인식케 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 제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이 제도 하에서 륭성하여 가는 자기 향토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였으며 혁명 위업에 대한 성실성과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군을 알뜰히 꾸리며 군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창조적 열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착취 계급과 착취 제도를 증오하고 계급적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조국과 향토를 보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사수하려는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향토애 교양에 있어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망에 대한 교양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군당 위원회는 근로자들 속에서 높은 리상과 생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고무 추동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리였다. 투쟁 목표를 확고히 가짐으로써만 사람들은 자기 위업의 미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우리의 혁명 선렬들은 항일 무장 투쟁의 간고한 나날에도 항상 광명한 조국의 앞날을 내다 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직 많은 혁명 과업들이 중첩되여 있고 더우기 조국 통일을 위한 혁명적 위업이 남아 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에게 래일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곤난을 이겨 나가도록 하는 교양은 절실한 문제로 된다.

전망 교양은 또한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로부터 필수적인 것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없어졌고 생산력 발전의 넓은 길이 열려져 있는 사회주의 하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행복한 오늘의 조국과 향토를 극진히 사랑하며 동시에 미래의 찬란한 공산주의 앞날의 향토를 무한히 사랑하게 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향토애 교양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망 교양이 가지는 이와 같은 의의로부터 출발하여 군당 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망 교양에 많은 관심을 돌렸다. 군당 위원회는 7개년 계획의 휘황한 전망과 10대 과업들을 주민들 속에 침투시킴에 있어서 계획 수'자의 라렬에만 그치지 않고 전망 수'자에 의하여 더욱 행복하고 유족하게 꾸려질 조국과 향토의 미래를 생동하게 그려 주었으며 앞날의 풍요할 생활을 그려 주었다. 우리 군에서 7개년 계획 말에 가서는 과수 면적이 2,000 정보에 도달하게 되며 그 중 결과 면적은 1,300 정보에 달하게 된다. 여기에서 생산될 1만 5,000 톤의 과실만 하여도 주민 1인 당 250 키로 그람씩 돌아 가게 되며 이 과실에 의한 농호 당 현금 수입은 857 원을 예견하게 된다. 이것은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않을 수 없다.

향토에 대한 전망 교양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 향토에 대한 긍지와 사랑을 더욱 깊게 하였으며 혁명 과업을 실현하는 행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부과된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도록 고무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향토애 교양에서 향토의 경제 문화 건설을 위한 실천 투쟁을 통하여 교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경제 건설 사업과 유리된 사상 사업은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인민 경제의 강화 발전에 구체적 도움을 줄 수 없다. 모든 선전 선동 사업은 반드시 경제 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하며 사상 사업의 결과는 경제 건설의 구체적 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향토애는 사람들의 실천 활동 과정에서 형성되며 그것은 다시 실천 활동에 반작용하여 조국과 향토의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물질적 힘으로 된다.

군당 위원회는 군의 농업과 지방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서는 집약적 영농 방법을 훌륭히 구현 발전시켜 1963년에는 《근위 1급 군》의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

군당 위원회는 군내 전체 근로자들이 진실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업소와 자기의 협동 농장을 알뜰히 꾸리며 국가 및 사회 재산을 애호 관리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절약하고 생산을 증대시키도록 교양하였다.

또한 군당 위원회는 당이 제시한 문화 혁명 과업 수행에 전체 근로자들을 조직 동원하였다.

군당 위원회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향토애 교양에서 실천을 통한 교양, 군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며 군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데 각별한 주목을 돌리였다. 군당 위원회는 군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는 사업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화적이고 행복한 생활의 전제로 된다는 것을 옳게 깨우쳐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관심을 높여 마을과 거리를 아름답게 꾸리게 하였다. 이리 하여 군의 위생 문화적 면모를 일신케 함으로써 우리 군은 《모범 위생군》의 영예로운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

체육 문화 분야에서도 우리 군은 당의 군중 체육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르는 곳마다에 체육장이 건설되였고 체육 사업이 생산 활동, 일상 생활과 밀접히 결부됨으로써 이 사업이 전 군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 사람들은 체육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였을 뿐 아니라 한층 명랑해지고 생산에도 열의가 올라 갔으며 국방에도 더 잘 준비되게 되였다.

경험은 향토애 교양이 실천과 밀접히 결합될 때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성과 있게 계발시킬 수 있으며 혁명 과업 수행에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군당 위원회는 향토애 교양을 혁명 과업의 실천과 결부시키면서 현지 교시와 당면한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감으로써 우리 군 발전의 위대한 전망 과업을 성과 있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 속에서 향토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청년들 속에서 향토 건설에 대한 관심과 열성이 높아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적지 않은 청년들이 농촌보다는 도시를, 농업 부문보다는 공업 부문을 동경하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에 진출하려는 현상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오평리를 비롯한 군내 많은 리들에서 청년들이 자기 농촌 진지를 꾸리고 지키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여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의 향토에 공산주의 지상 락원을 건설하겠다는 기세로 충만되여 있다.

특히 군내의 전체 농민들의 기세가 충천하고 있다. 산을 알뜰하게 가꾸는 운동이 더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 경사지를 잘 리용하여 1,650 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풍치 좋고 아름다운 고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확연히 눈에 뜨이고 있다. 중소 하천을 잘 정리하여 농경지를 보호하며 많은 새 땅을 쟁취하고 있다. 중소 하천을 정리함으로써 1,000여 정보의 농경지를 보호하며 300여 정보의 농경지를 새로 얻어 내였다. 중소 하천 제방을 리용하여 포도원을 조성하고 있는바 금년도만 하여도 17만 본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밖에도 양어장을 대대적으로 만들고 직장과 마을을 보다 아름답게 꾸리는 데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당'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초보적인 성과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전체 주민들이 진실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그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향토애 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사업이 계속 요구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주민들이 향토의 참된 주인으로서 나라와 향토의 살림살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자각적으로, 혁명적으로 나서도록 할 결심을 다지고 있다.

(필자는 북청군당 위원장임)

남조선에서 민족어의 순결성은 고수되여야 한다

김 금 석

유구한 력사를 창조하여 온 우리 인민은 일찍부터 아름다운 민족 문화와 더불어 자기의 훌륭한 민족어를 발전시켜 왔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이며 힘이다.

우리 민족의 주요 표징의 하나로 되는 조선말과 글에는 슬기로운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 생활이 반영되여 있으며 우리 인민의 정서적 특성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우리 말과 글을 통하여 선조들이 이룩하여 놓은 아름다운 문화와 도덕을 배우며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조국을 수호한 그들의 고상한 애국주의 정신을 배운다. 우리 인민의 사상 감정은 오직 우리 말을 통해서만 가장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 이 말과 글을 떠나서는 우리들의 일상 사업과 생활을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장래 번영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말과 글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풍부하게 발달시키며 전체 인민의 언어 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이고 이것을 더욱 세련시키는 것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또 민족 문화의 장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로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히 우리 조국이 남북으로 분렬되고 하나의 민족어가 같은 땅 우에서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길을 걷고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조국은 비록 일시적으로 분렬되여 있으나 우리 민족은 하나이며 우리의 민족어도 하나이다. 우리의 말과 글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공통된 생활과 유일한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였으며 발달하여 왔다. 우리 인민은 이런 통일된 민족어를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민족적 자부심이 높고 단결력도 강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통일된 조국에서 하나의 민족어로 살아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과 글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은 전체 남북 조선 인민 앞에 나서는 숭고한 민족적 과업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 사업은 우리 당의 정확한 언어 정책에 의하여 빛나게 수행되였으며 또 계속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당은 해방 직후부터 우리 말과 글을 발달시키기 위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 인민적 언어 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당은 자체의 언어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항상 조국이 통일된 후의 인민의 언어 생활 문제를 심중하게 고려하였으며 말과 글이 민족 문화의 급속한 발전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런 원칙적 립장에서 출발하여 언어 문화 운동에서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견지하여 언어의 인민성과 그 사회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 실시하여 왔다.

이리 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우리 인민의 언어 생활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였다. 과거 봉건 사회의 유물인 어려운 한'자 사용이 폐지되고 모든 출판물에서 국문이 전면적으로 사용되게 되였으며 처음으로 전체 인민이 서사 생활에 참가할 수 있게 되였다. 국문의 전면적 사용과 함께 인민 대중의 언어 생활에 깊이 침투되지 못 하고 있던 어려운 한문식 표현들과 불필요한 외래어들이 사라지고 우리 인민의 일상 생활에 보다 친숙한 고유 조선 어휘들과 인민적 표현들이 널리 쓰이게 되였다.

인민 대중의 언어 생활이 발전함에 따라 조선어의 규범화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졌고 민족어를 통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확고한 토대가 세워졌다.

또한 인민적 문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출판물들에서 글이 한결 쉽고 간결하게 씌여지면서 우리 인민의 정서적 특성을 더욱 훌륭하게 표현하게 되였다.

이리 하여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 우리 말과 글은 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적극 복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토 우에서 응당 통일적으로 발달되여야 할 우리의 민족어가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전혀 판이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 곳에서 우리 말과 글은 미 제국주의 강점자들에 의하여 자유롭고 자주적인 발전이 억제 당하고 있으며 민족어의 순결성은 여지 없이 더럽혀지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주요 고리로서 남조선 인민의 언어 생활을 극도로 혼란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어의 통일성을 파괴하고 남북을 통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 단결을 약화시키며 우리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악랄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언어의 공통성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민족적 단결심과 애국적 감정이 증대됨으로써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는 데 위험이 조성되리라는 것을 크게 우려하였던 것이다.

그리 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자부터 반동 통치배들과 어용 문필가들을 조종하여 조선말과 글을 천대시하는 허무주의 사상과 영어를 무조건 숭배케 하는 사대주의 사상을 계속 류포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놈들은 우리의 민족어를 공공연히 모독하며 남조선 인민의 언어 생활에 파렴치하게 간섭해 나서는 데까지 이르렀다. 일찌기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 땅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고 뻔뻔스럽게 선포했던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의 민족어를 모독하는 이런 오만한 행위는 미제의 침략적 본성을 드러내 놓는 것일 뿐 아니라 《영어의 우월성》을 떠들면서 《영어를 유일한 세계어로》 만들려는 그들의 반동적 세계 제패 사상에서 출발된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민족어를 고급의 언어와 하급의 언어로 나누면서 오직 영어가 유일한 세계어로 되여야 한다고 떠벌려 왔었다. 그들은 이런 낡아 빠진 구호 밑에서 바로 식민지 나라들과 예속 국가들에서 영어를 지령적으로 국가의 공용어로 만들 것을 획책하였던 것이다.

미제의 이와 같은 민족어 말살 정책으로 오늘 남조선에서의 언어 상태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우리 말과 글은 또다시 수난의 길을 걷게 되였다.

여기에서 바로 문제로 되는 것은 남조선의 반동 통치배들과 그들에게 아부 굴종하고 있는 어용 문필가들의 반

인민적이며 민족 허무주의적인 태도이다.

남조선에서 우리의 민족어가 오늘처럼 혼란 속에 빠져 들어 가게 된 엄중한 사태는 미제의 음모 책동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와 함께 남조선의 반동 통치배들과 어용 문필가들은 미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을 적극 추종하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데 직접 나섰다.

일찌기 남조선의 반동 통치배들이 《미국이나 영국 사람이 한국 글을 배워서 한국 신문을 읽으려고 하여도 한글이 어려워서 곤난하다》고 떠벌리면서 이른바 《한글 간소화 방안》이라는 것을 조작해 냈던 것은 그들이 미제의 민족어 말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발 벗고 나섰던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뚜렷한 실례의 하나이다. 그들은 이러한 책동으로 우리 말과 글을 우리 인민이 아니라 양키 침략자들을 위해서 편리한 것으로 만들려 하였던 것이다.

민족의 모든 리익을 팔다 못해 자기 민족의 말과 글까지 상전의 처분에 맡겨 버리려는 반동 통치배들의 저주로운 책동이 남조선 인민들의 언어 생활을 바로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우선 우리 말의 규범이 여지 없이 파괴되여 가고 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종 출판물들과 통신 보도, 국어 교육 등에서 우리 말과 글은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무질서와 혼란 속에 놓여 있다. 응당 엄격한 규범에 의하여 통일되여야 할 학교 교과서들에서조차 칠자법, 띄여 쓰기, 문법 체계들이 혼란되여 통일적인 모국어 교육이란 론의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조선어 규범에서의 혼란은 몇 개의 개별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기본 체계와 전체 내용에서 문제로 되고 있다. 학교마다 저마끔 개별적 학자들이 각이하게 써 낸 교과서에 의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형편이다. 교과서마다 언어 규범과 체계가 서로 다르고 제멋대로 만들어져 있다.

최근에 박 정희 도당이 음모와 사기의 방법으로 조작하여 낸 이른바 《편수 자료》라는 것도 그런 대표적 실례로 된다. 여기에는 수다한 규정들이 모순과 혼란에 빠져 있다.

이로부터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과 일반 사회 계층의 언어 생활은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실정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출판물까지도 다음과 같이 개탄하였다: 《표기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고 한 사람이라도 오늘과 래일이 같지 않고 또 하날 한때 쓴 것이라도 페이지가 달라지면 또 달리 써야 할 지경이다》.

언어 규범이 이렇게 혼란되여 있는 것을 리용하여 일부 반동 《학자》들은 우리 말 문법 교육의 《무용론》을 주장해 나서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 말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언어적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은 감각, 경험만이 유일하게 옳은 결정을 지을 수 있다는 《미국식 언어학》의 주관적 관념론을 맹목적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이들은 주관적 관념론자들의 궤변을 그 대로 되풀이하면서 언어의 본질을 개인의 감각과 경험에다 귀착시키며 언어의 사회적 성격, 언어 존재의 객관성을 거부해 나서고 있다. 이들은 또한 교제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전체 체계 속에서 고찰하지 않고 어휘 구성의 개별적 요소들 즉 직업어, 은어, 사교계의 언어, 서사어, 구두어 등을 각각 하나의 언어 체계라고 함으로써 우리 말의 단일성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자들이 조선어의 규범을 없애 버리고 민족어의 통일성을 파괴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에 적극 복무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배들의 이와 같은 반인민적 책동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는 것은 출판물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출판물이 인민 대중의 언어 생활에 주는 영향은 실로 크다. 언어 문화 운동도 우선 출판물에서부터 시작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진행된다. 출판물에서 쓰는 말과 글은 인민 대중의 언어 생활에서 본보기로 된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남조선의 반동 통치배들은 출판물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인민 대중의 언어 생활을 혼란에 빠뜨리며 민족어의 순결성을 여지 없이 파괴하는 용서 못할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의 반동 지배 계층은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하여 예속적인 식민지 사회 제도를 반영하는 말들, 부패 타락한 미국식 생활 양식에서 생기는 추잡하고 비속한 어휘들과 표현들을 분별 없이 사용케 함으로써 우리 말 발달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다.

미제와 반동 통치배들의 목적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감정을 거칠게 하고 사상을 타락시킴으로써 광범한 인민들의 단결과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사실 상 오늘 남조선 인민의 언어 생활 속에는 각종 야비한 표현들과 비속한 통용어들이 끼여 들어 사람들의 호상 접촉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자라나는 세대들의 정서 발전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와 같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이 심각화되고 각종 범죄가 횡행하며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탄압 받고 있는 곳에서 각종 비속하고 엽기적인 통용어들이 생겨 나는 것은 응당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남조선에서는 그런 통용어들이 결코 비밀 장소나 일부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만 쓰이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상인, 괴뢰 군대, 경찰과 《공무원》, 청소년 등 그야 말로 광범한 사회층 속에서 전염병처럼 만연되고 있다.

민족어의 순결성을 파괴하며 인민들의 언어 생활을 혼란에 빠뜨리는 반동 통치배들의 악랄한 책동은 그들이 출판물에서 대중이 알기 힘들어 하는 한'자와 한'자 어휘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반동 통치배들은 남조선 출판물들을 더욱더 한'자 투성이로 만들면서 지어 《投融資》, 《見當》, 《胃腸型 家族》 등 우리 말을 만드는 법칙과는 전혀 맞지 않게 한'자를 되는 대로 뜯어 맞춘 까다로운 어휘들, 일본식 한'자어, 옛날 한문투의 어휘들을 수다히 조작해 내고 있다. 그들은 저들의 이런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우리 말은 한'자 어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일상 언어 생활에서 한'자를 폐지하면 서사 생활이 마비된다는 것 등의 부당한 리론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자 사용을 억지로 내려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를 쓰지 않으려면 모든 한'자 어휘들을 고유 조선어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황당무계한 리유를 내걸고 있다.

그들의 이런 주장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

우리 말에는 풍부한 고유 어휘들이 있다. 우리는 될수록 고유 어휘들을 써야 한다.

우리 말에는 또한 한'자에서 유래한 어휘들도 있다.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계급》, 《혁명》, 《문화》, 《기술》, 《학교》 등과 같은 어휘들은 비록 한'자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벌써 우리 인민의 언어 생활에 깊이 침투되여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현대 조선어의 기본 어휘로 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기도 어렵고 또 바꿀 필요도 없다. 이런 어휘들은 우리 문'자로 표기하여도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남조선 출판물에서와 같이

엄연히 존재하는 고유어를 무시하고 남이 잘 알지도 못하는 괴벽한 '한'자어를 함부로 만들어 내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남조선 반동 통치배들이 우리 말 속에 한'자 어휘들이 있다는 리유로 우리 말이 한문에 의존되여 있다거나 우리 말의 자주성이 약하다고 떠벌리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대중이 알기 어려운 한'자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서사 생활에서 제외하고 결국은 저들의 통치를 말 없이 받아 들이는 몽매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는 반인민적인 책동이다.

우리 말은 자체의 확고한 내'적 발달 법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 말 가운데 들어 있는 한'자 어휘들은 한문 문법의 규칙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의 문법 규칙에 의거하여 쓰인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말의 문법 구조가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우리 말 가운데 비록 한'자 어휘가 적지 않게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대부분 변화성이 가장 많은 어휘 구성에 속한다. 우리 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기본 어휘들에는 고유 조선 어휘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것은 가장 견인성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민족어로서의 우리 말의 자주성을 뚜렷이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 말을 우리의 고유 문'자로 표기하는 것은 민족 문화와 민족어의 개화 발달을 위하여 응당히 견지하여야 할 주체적 립장이다. 더우기 우리의 선조들은 일찍부터 세계적으로 우수한 조선 문'자를 창제하였고 그것을 귀중한 민족 문화의 재부르서 우리들에게 물려 주었다. 이 문'자는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의 서사 생활에서 더 없이 친숙하다. 이 문'자를 더욱 발달시키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서사 생활을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애국주의적 립장이다. 이러한 립장이 남조선에서라고 결코 례외로 될 수 없다.

출판물을 통한 남조선 반동 통치배들의 언어 파괴 책동은 특히 외래어와 관련해서 더욱 파렴치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남조선 출판물에서는 우리 말을 가지고서도 능히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영어나 일본어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 말을 심히 더럽히고 있다. 외래어 람용 현상은 심지어 《리스턴이 패터슨을 원 라운드에서 K.O 시켰다》와 같이 문장 전체가 외국 어휘로 조성되고 우리 말은 토를 다는 데 불과한 문장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내용에서 이러할 뿐 아니라 론설이나 시의 제목까지 영어 그대로 쓴 것이 허다하다.

특히 최근에 박 정희 도당의 《한일 회담》 책동과 관련하여 일본 문화, 일본 서적을 대량적으로 수입해 온 결과 일본 어휘들이 또한 출판물에서 람용되고 있다.

외래어의 람용이 얼마나 혹심한 정도인가 하는 것은 수 많은 학교들의 이름까지 외국 말로 되여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짐작할 수 있다. 상표나 상점 간판도 영어로 써 붙여야 환영을 받는다.

민족적 량심을 송두리째 팔아 먹은 일부 반동 문필가들은 남이야 알거나 모르거나 어려운 한'자나 외래어를 되도록 많이 쓰는 것을 하나의 《권위》로,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족어의 발달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식민지 예속 사상과 외국 숭배 사상을 부식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남조선 반동 통치배들은 우리 말의 개별적인 단어나 표현들을 파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누구도 리해할 수 없는 반인민적 문풍을 출판물에서 적극

조장시킴으로써 언어의 혼란을 더욱 극도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 출판물에는 전혀 련관이 없는 개별적 단어들을 혼잡하게 라렬해 놓거나 문장을 아무런 론리적 련계도 없이 이어 나간 글들이 수 없이 게재되고 있다. 필자 이외에는 누구도 리해할 수 없는 극도로 이지러진 형식의 글이 때로는 훌륭한 작품으로 소개된다. 남조선 문학에 광범히 류포되고 있는 모더니즘 소설과 시들은 그 대표적인 례로 될 수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이와 같은 언어적 혼란은 전적으로 미제의 식민주의 정책과 그 주구배들의 반인민적 책동에 기인한다. 동시에 그것은 남조선 사회 제도의 극심한 부패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사태 하에서 남조선 인민들의 언어 생활은 북반부 인민들의 언어 생활과 점점 더 판이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 만일 이 대로만 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한 표징으로서의 민족어의 분렬이 초래될 것이며 그것은 민족의 분렬 상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처음부터 이것을 노리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인 조국 통일을 가로막으며 우리 민족의 장래 발전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수천 년의 력사를 통해서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인민의 민족성과 통일적인 민족어가 양키 문화에 동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강제적인 동화 정책과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반대하여 싸워 이긴 투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과 량심적인 지식인들 속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배들을 반대하는 투쟁 기세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미제의 민족어 말살 정책에 대처하여 민족어의 순결성과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량심적인 지식인들의 지향과 노력은 더욱 커 가고 있다.

량심적인 지식인들은 자기들의 과학적 연구로써 우리 말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발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인민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옳은 대책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혼란을 의식적으로 조성해 온 반동 통치배들의 반인민적 책동을 폭로 규탄하는 데 자기들의 날카로운 필봉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어를 분렬시키고 나아가서 민족을 영구히 분렬시키려는 책동의 진정한 원흉이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국이 통일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어의 진정한 통일적인 발달은 이룩될 수 없다.

우리의 민족 문화와 민족어의 통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 조선 인민의 거족적 투쟁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 땅에서 하루 빨리 몰아 내야 한다.

남조선의 량심적인 언어학자들과 진보적인 문필가들은 자기들의 날카로운 필봉으로써 미제를 반대하는 인민 대중의 반미 구국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민족어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은 진정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한국사》를 평함 (1)

—고대를 중심으로—

력사학 박사 리 지 린, 리 상 호

남조선의 한 학술 단체인 《진단 학회》는 1959년 이래 전부 7 분책으로 되는 《한국사》를 출판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력사의 전 시기를 포괄한 통사 형식으로 된 책이다.

모든 과학이 그러하듯이 력사 과학도 그 실천적 의의에서 평가되여야 한다. 과학으로서의 력사학은 지나 간 인류 사회의 발전 법칙을 찾아 내며 나아가서는 현대 사회가 전진하는 방향을 과학적으로 천명함으로써 해당 력사의 주인으로 되는 인민이 나아갈 길을 바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력사학이 지녀야 할 이와 같은 고상한 목적은 일찌기는 봉건 통치 집단에 의하여, 근세에 와서는 외래 침략자에 의하여 여지 없이 유린되였으며 그들의 악랄한 정치적 목적에 역리용되였다.

특히 과거 일제는 저들의 어용 사가들을 동원하여 직속 기관까지 설치하고 관영 사업의 하나로 자기들의 침략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어용 《조선사》를 조작함으로써 우리 조국 력사의 진실한 면모를 말살하고 감추기에 광분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력사적으로 인민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일체 봉건주의 력사관과 특히 일제 어용 사가들의 식민주의적 력사관으로 엮어진 《조선사》 체계를 무자비하게 쓸어 버리지 않는 한 과학적이며 진실한 우리의 력사를 찾을 수 없다.

과거 일제가 우리 력사 학계에 뿌려 놓은 이와 같은 범죄적인 독소를 깨끗이 청산하는 문제는 해방 후 우리 력사 학계에 부과된 숭고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던 것이다. 누구나 량심 있는 력사가라면 조국의 남북을 물론하고 응당 이 과업의 관철에 애국적인 열성을 다했어야 할 것이다.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의 력사 학계는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지도에 따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조국의 력사를 처음으로 우리 당의 주체 사상에 립각하여 과학적인 인민사 체계로 바로잡는 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국사》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해방 후 20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제의 식민주의적 력사관을 그 대로 추종하고 있으며 조선 민족의 긍지를 모독하고 조선 인민의 리익을 배반하는 일제의 날조된 《학설》을 그 대로 되풀이함으로써 우리 력사의 진실성과 과학성을 완전히 거세해 버렸다. 한 마디로 말하여 《한국사》는 또다시 오늘의 미제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리익에 봉사하는 또 하나의 어용 《조선사》로 편찬되였다.

이리하여 대부분의 연구 출판 사업이 미제의 문화 침략 도구로 리용되거나 모리배의 리윤 추구 수단으로 화하여 각종 불량 도서들이 범람하고 있는 오늘의 남조선 사회에서 《한국사》는 그 대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우기 이 책이 진실한 조국 력사를 갈망하고 있는 오늘의 남조선 사회계에서 우리 나라 력사로 표방되여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만 한심한 일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1

력사 서술에서 시대 구분은 근본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 시기 구분은 해당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상응하는 사회 경제 구성태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산 수단에 대한 원시적 공동 소유 관계에 기초한 사회를 《원시 공동체 사회》라고 하여 계급과 국가를 아직 모르던 이 시기를 인류 력사 발전의 첫 단계로 잡아 일반적으로 《원시 시대》라고 부른다.

생산 도구의 부단한 개선과 분업의 발전, 금속 도구의 발명과 생산력의 발전, 잉여 생산물의 생산과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제의 발생, 공동체 내부에서 빈부 차이의 발생과 발전, 생산의 지배적 부문에서 노예의 사역과 계급의 분화 및 대립—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쳐 원시 공동체 사회는 붕괴되고 생산에서 노예 로동을 기본으로 하는 첫 계급 사회 즉 노예 소유자 사회로 이행한다. 이르부터 피지배 계급인 노예 계급을 억압 착취하기 위한 지배 계급의 공'적 권력 기구로서의 국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노예 소유자 사회》에 해당하는 시기를 과학적 의미에서 《고대》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과학적 체계에 의하여 우리 나라 력사를 서술한다면 역시 맨 머리 부분은 원시 시대로부터 출발한다.

우리 나라에는 함경북도의 굴포 문화 (1963년 발굴)를 중심한 구석기 문화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널려 있는 신석기 문화와 일정한 시기까지의 청동기 문화를 포괄한 원시 공동체 사회가 오랜 세월을 두고 존속하였다. 조선족의 선조로 되는 종족들은 벌써 이 장구한 시기를 통하여 자기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 력사는 고대로 즉 노예 소유자 사회에로 발전의 길을 걸었다. 이미 "기원 전 5~4 세기 이전에 중국의 동북 지방 료하 류역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서북부까지를 포괄한 지역에서는 우리 력사 상 첫 국가인 고조선 국가가 형성되였다. 공통된 문화를 소유하였던 다른 한 종족 집단은 이보다 좀 늦은 시기에 오늘의 송화강 류역에서 부여 국가를, 또 다른 한 종족 집단은 대체로 같은 시기에 오늘의 우리 나라 령역 내에서 진국(삼한)을 형성하였다.

이 나라들의 력사가 과학적 의미에서 고대사에 속한다.

이 고대 국가들이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 등으로 교체되면서 우리 사회의 성격은 새로운 변혁을 가져 왔다.

그것은 보다 발전된 경제 구성태로의 이행 즉 봉건 사회로의 발전이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봉건 시대는 3국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이전 시기까지의 장구한 기간을 포괄한다.

이것은 인류 사회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이 그대로 우리 력사에도 순차적으로 구현되였으며 동시에 우리 력사의 시대 구분이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 우에 서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사》의 시대 구분 체계는 과연 어떤 원칙에서 세워졌는가?

《한국사》는 제 1 분책을 《고대편》이라는 명목에서 10 개 편으로 나누고 제 1 편 《사전(史前) 시대》로부터 제 10 편 《통일기의 신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원시 시대로부터 봉건 신라 왕조의 붕괴기까지의 관계 사료를 엮어 놓았다.

우리는 이 중에서 우선 원시 및 고대사에 대응되는 제 6 편 《한(韓)의 신형세》까지의 부분만 상대로 하고 제 7 편 이하 봉건 시대에 해당하는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한국사》는 우선 자기 체계의 설정에서 아무런 과학적 주견도, 과학적 원칙도, 리론적 기초도 없다.

소위 《유사 이전 시대》로부터 통합 신라 말기까지 이르는 전 기간을 《고대편》으로 묶는 편사 체계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창안한 체계인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술 상 비교적 편리한 방법을 취하였다》고 한 《한국사》 편자의 말은 완전한 기만이다. 《서술 상 비교적 편리한 방법》이 결코 편사 체계의 과학적 기준으로 될 수도 없지마는 이것은 바로 과거에 일제 어용 학술 단체인 《조선 사학회》가 편찬한 소위 《조선사 대계》의 체계를 그 대로 옮긴 데 불과하다. 여기에 다른 점이 있다면 《조선사 대계》가 이 부분을 《상세사(上世史)》로 부른 대신 《한국사》는 《고대편》으로 고쳐 부르고 있을 따름이다.

일제는 결코 이 체계를 《서술 상 편리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체계를 통하여 우로는 거의 3 국의 전반기까지를 《유사 이전》의 《원시 상태》 편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고대 국가들과 봉건 국가들의 첫 시기까지를 모조리 허물어 버리고저 시도하였으며 아래로는 통합 신라까지를 고대 국가로 만듦으로써 유구한 우리 력사를 보잘 것 없이 짧고 락후한 력사로 조작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일제의 어용 《조선사》는 바로 이런 목적을 추구하여 이 체계를 고안하지 않았던가. 이런 편사 체계를 그 대로 답습한 《한국사》는 역시 우리의 고대 국가인 진국은 물론 고구려는 태조왕 이전까지, 백제는 3 세기 중엽까지, 신라는 4 세기 말까지 모두 《몽매한 원시 시대》를 벗어 나지 못한 소위 《유사 이전의 부족 사회》로 만들어 놓았다.

진국은 기원 전 3 세기 경에 이미 철제 생산 도구를 널리 사용하였고 그것을 일본 렬도에까지 전파하였다. 또한 기원 전 2 세기 말에는 서쪽으로 6,000~7,000 리나 떨어져 있는 한(漢)의 주권자와 외교 문서를 통할 정도로 그 정치적 력량을 보여 주었다. 봉건 대국주의 사가들의 문헌 기록에 의하더라도 기원 전후 시기에는 국가 기구를 갖추고 대량적인 노예를 생산에 사역하였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진국이 이미 기원 전 시기에 벌써 발전된 생산력과 경제력을 가진 당당한 노예 소유자 국가였음을 말해 준다.

백제와 신라는 이 나라의 지방 세력으로부터 출발하여 진국의 중심 세력이였던 마한 왕조를 전복하고 일어 선 두 개의 봉건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3 세기 중엽까지, 신라는 4 세기 말까지 《몽매한 원시 시대》에 있었다는 《한국사》의 주장은 역시 일제 《조선사 대계》의 표절 이외에 다른 근거가 없을 것이다. 고구려도 고조선의 령역 내에서 그 발전된 문화를 계승하여 고조선의 멸망과 함께 일어 난 봉건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 형성이 여기서 새삼스럽게 문제로 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남조선 《진단 학회》는 오늘도 과거 일제의 《조선 사학회》 《학통》을 충실히 계승함으로써 자기 력사의 체계를 란폭하게 유린하였다. 하긴 이 《한국사》의 책임 집필자가 바로 일제 직영 기관이였던 《조선사 편수회》 성원의 한 사람이였다는 것을 알고 보면 그리 괴이한 일도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다. 《한국사》는 고대편 제 2 편에서 고조선을 소위 《서북 항렬의 사회와 그 변천》에, 제 4 편에서는 부여, 고구려, 옥저, 예 등은 《후방 항렬의 제 사회》에, 제 5 편에서는 진국(삼한)을 《남방 항렬의 제 사회》에 각각 포함시켜 서술하였다.

여기서 당장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시기 우리 력사 상 고대 국가들과 고구려를 서북 항렬, 후방 항렬, 남방 항렬 등 지역 별로 구분하여 《제

사회》로 체계를 세운 점이다. 《한국사》는 이와 같은 구분의 근거로서 지리적 조건이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이미 파산된 지 오랜 반동적 지정학 리론을 들고 있다.

과거에 일제 식민주의 사가들이 우리 력사 상 고대 조선족에 속하는 여러 종족들의 문화적 공통성과 그 친연성을 말살하려는 목적에서 이러한 무의미한 지역에 의한 체계를 구상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일제 어용 사가들은 발전한 문명을 가졌던 부여와 고구려가 남방의 한(韓)족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종족으로 규정하고 이를 우리 력사의 권외로 내몰아 후세의 말갈, 녀진족의 조상 계렬로 조작하면서 소위 《북방계》, 《남방계》를 요란스럽게 떠듦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종족적 공통성을 말살코저 흉책하였다. 심지어 과거 일제는 만주 침략 정책의 일환으로서 만주의 지리적 단위를 력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우리 력사의 고대 및 중세 국가들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에다가 력사 상 계통이 전혀 다른 종족이였던 녀진족의 료, 금, 청을 끌어다 붙여 소위 《만주사》라는 것을 따로 조작하였다. 이 맹랑한 《체계》를 만들어 낸 자들이 다름 아닌 바로 일제 《조선 사학회》의 대표적 《권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오늘 《한국사》가 우리 고대사를 서술하면서 서북 항렬, 후방 항렬, 남방 항렬 등 부당한 용어로 《체계화》하고 있음은 어찌 우연하다고 하겠는가.

뚜렷한 계승성으로 일관한 친연 종족들의 력사를 인위적 지역 관념으로써 분할할 수는 없다. 송화강 류역으로부터 오늘 우리 나라의 서남단에 이르기까지는 부여, 고구려, 백제의 건국 설화를 통하여 지리적으로 긴밀히 련결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료하 류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의 동남단에 이르기까지는 고조선인들의 집단적 이주와 아울러 고조선 유민들의 신라 건국에 직접 참가한 력사적 제 사실에 의하여 아무런 지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련결되였었다. 여기에 무슨 력사 체계로까지 구획할 수 있는 《남방》과 《북방》의 지역적 간격이 있었더란 말인가?

과거 일제 식민주의 사가들은 바로 이러한 종족적 친연성을 끊어 버리기 위하여 우리 력사를 발광적으로 위조하였다. 오늘 《한국사》가 소위 남방 항렬, 북방 항렬 체계로써 전일한 민족 력사의 공통성과 계승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시적 분렬을 영구화하고 조국의 남반부를 식민지화하려는 미제의 침략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조작한 《리론》이 아니란 말인가?

이 외에도 《한국사》에는 《한(漢)의 군현 설치 시대》라는 것이 제 3 편의 제목으로 등장한다. 《한 나라 군현 설치》가 누구의 력사이기에 이렇게 우리 력사의 한 단대(斷代)를 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편명(編名)까지도 그 대로 과거 일제가 우리 력사를 고대부터 식민지 력사로 꾸미기 위하여 소위 《미마나》 문제와 함께 기를 쓰고 달라붙던 제목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기에 일제 《조선사 대계》는 소위 《상세사》를 제 1 장 《원시 상태》, 제 2 장 《지나(중국) 통치 이전의 북선》, 제 3 장 《지나의 군현》으로 나누고 제 4 장에 와서야 고구려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 《한국사》는 이 부분에서 더 친절하게 《시대》라고까지 강조하면서 《지나》를 《한》으로 바꾼 것 밖에 다른 것이 없다.

만약 《한국사》의 편찬자가 털끝 만큼이라도 조선 사람이라는 립장에서 력사를 보았다면 이 시기를 《한의 군현 설치 시대》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한의 침략에 의하여 고조선이 강점된 것은 우리 력사 상 한 개 중대한 사변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당시 우리 고대 국가들의 한 부분이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변은 당연히 우리 력사를 서술하는 해당 부분에서 한 개의 재난으로나 처리되여야 할 것이다.

《한국사》는 한의 군현 설치를 우리 력사의 한 《시대》로 자리를 내여 주었

음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일제 식민주의 사가의 필법을 그 대로 본 따고 있다. 한의 군현 설치가 없었다면 우리 력사는 영원히 몽매한 야만 시대를 벗어 나지 못했을 것으로 단정하는 《한국사》의 기본 립장은 다음 절에서 따로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한국사》가 민족적 립장을 완전히 배반한 이와 같은 력사 체계의 설정이 누구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는가를 밝히기로 한다.

우선 《한국사》는 이 시기 한의 침략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의 식민 정책은 본 주민의 일부 사회(지식층)에 한의 언어, 풍속, 례의, 문학 등을 가르쳐 주고 혹은 말단 행정의 자치도 허여하였을 것이고…》(《한국사》 고대편, 165 페지)라는 식으로 허두를 떼 후 《인재도 등용》 하였다느니 염철(鹽鐵)은 관영으로 하였다느니 《군현 외의 주변 토착 사회》에 대해서는 관작과 인수(印綬)를 주었다느니 《고도로 발달된 한 문화에 대한 그들(주위의 민족—필자)의 호기심과 흠앙은 우리의 상상 이상》(우와 같은 책, 201 페지)이였다느니 하면서 한의 《식민 정책》을 그 어떤 《종주국》이 베풀어 주는 《문화적 시책》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국사》의 편자는 이 황당한 자료들을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날조하였으며 어찌하여 남의 나라, 그것도 당시의 침략 측 《식민 정권》의 《시정 방침》을 이렇게도 마치나 《문화적 시책》으로까지 분장시켜 가면서 그 대변에 열중하고 있는가.

고조선은 일찍부터 중국과 밀접한 문화 교류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문화에 대하여 언급한 중국 후한의 반고(班固)까지도 고조선의 문화 도덕을 리해하고 높이 평가하면서 자기 나라의 대표적 《성인》으로 떠 받드는 공자가 자기의 주장이 본국에서 실현 못됨을 개탄하면서 떼'목을 타고라도 조선으로 가려 했던 것은 까닭이 있는 일이라고 감탄까지 했던 것이다. 《한국사》는 어떻게 이와 같은 당시의 침략 측이 고백한 사료까지 무시하고 도리여 이 시기에 한인들이 일방적으로 원주민들에게 문화 도덕을 가르쳐 주었다고 흑백을 전도하여 력사를 위조할 수 있겠는가? 《한국사》 편찬자의 《상상 이상》 정도로 《흠앙》했다는 그 문화도 실상 중국의 문화가 아니라 분명히 고조선의 문화였으며 그 문화를 《흠앙》한 자도 실상은 《주위의 민족》이 아니라 바로 후한의 대표적 력사가였던 반고 자신이였던 것이다. 묻건대 《한국사》는 무엇에 팔려서, 누구의 리익을 위하여 2,000 년 전 침략자의 립장까지 이토록 두둔하여 대변하고 나서는가?

이 뿐만 아니라 《한국사》는 역시 선행한 모든 일제 어용 《조선사》가 그러했듯이 이 시기 력사, 지리를 근거 없이 날조하면서 소위 한 4 군의 위치 《고증》에 이상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국의 봉건 사가들보다도 더 관심을 가졌던 일제 식민주의 사가들이 제가끔 우리 나라 전 지역을 한의 군현으로 사분오렬해 가면서 력사 문제의 《연구》라기보다 그것을 일종 선전 깜빠니야로까지 리용했던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의 목적 쯤은 조선 사람으로서는 응당 알아야 할 상식이 아니겠는가? 만일 조금이라도 고조선의 령역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목적이였다면 응당 제 2 편 체계에서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취급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더구나 4 군의 연혁, 행정 체계, 군현의 관제와 아울러 소위 《락랑 문화》에 대하여 그렇게도 장황하게 서술하면서 분별 없이 찬미하고 있는 목적이 어데 있는가?

우연치 않게도 《한국사》는 표지 덤개까지 소위 《락랑 유물》로 이르는 채화칠협(彩畵漆篋)의 천연색 사진을 의장으로 한 종이로 쌌다. 한 마디로 침략자의 유물로써 포장까지 한 것이 《한국사》의 내용과 외관을 표현한 상징적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한 문화를 과소 평가하려는 것도 아니요 한의 4군 설치를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력사 편

찬에는 반드시 대상과 범위가 있으며 남의 력사가 있고 자기의 력사가 따로 있다. 조선사는 조선 사람의 력사이며 조선 인민의 력사이다. 그것은 《외국사》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며 또 구별되여야 한다. 그렇기에 공통된 사실에서도 남이 취할 측면이 있고 우리가 취할 측면이 따로 있다. 한의 고조선 침략 사건은 쌍방 력사에서 공인된 객관적 사실이지만 당시 침략측 국가의 력사에서는 《군현의 설치》가 주제로 될 수도 있다면 피침략측인 우리 력사에서는 응당 침략측의 군현 설치와 그 통치를 반대하는 고조선 인민들의 영웅한 반침략 투쟁이 주제로 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족적 립장으로 보아 력사 편찬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우리의 주체성인 동시에 초보적인 준칙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편찬 체계에서 《한의 군현 설치 시대》에 중요한 자리를 내여 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써도 《한국사》는 분명히 침략자의 리익을 대변하는 력사로는 될지언정 조선 민족과 조선 인민의 력사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2

●

《한국사》가 우리 력사의 문명에로의 이행에 대하여 서술한 부분은 더욱 간과할 수 없다. 이 부분도 그 론거는 물론 체계, 자료, 용어 심지어 서술 방법까지도 일제 어용 고고학자들이 조작한 《학설》의 복사판으로 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한국사》는 이렇게 말한다. 《석기 시대가 언제부터 우리 강토에서 시작되였는지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대개 기원 전 2,000 년 경에서부터 시작되였으리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까마득한 옛적에 시작된 석기 시대의 종언이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금속 문화가 동쪽으로 전파되여 오는 데 따라서 시작되였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우와 같은 책, 48 폐지).

《한국사》 편자는 우선 우리 나라 《석기 시대》의 상한을 기원 전 2,000 년 경으로 잡는다. 석기 시대 조선족 선조들의 문화 중심을 오늘의 조선 지역 내로 줄여 잡는다 하더라도 근년에 와서 함북 웅기군 굴포리에서 발견된 구석기는 늦게 잡아 구석기 시대의 상단인 10만 년 전의 유물들임을 우리 학자들은 감정하였다. 또 해방 후 새로 발견된 우리 나라 신석기 문화인 궁산 문화를 비롯하여 일련의 새로운 유적과 유물에 의하여 얻어진 결론은 그 상한을 늦게 잡아도 기원 전 5,000 년기라는 것이 판명되였다. 이것도 그 문화 종태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훨씬 더 올라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원 전 2,000 년기는 석기 시대의 상단이 아니라 벌써 청동기 시대로 들어 가던 시대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한국사》는 신석기 시대 이후 문화의 중요 표징으로 되는 토기들도 빗살무늬 토기는 씨비리에서, 붉은 간 그릇(단도 마연 토기)은 중국에서, 《원시 신라》 토기는 대륙에서부터의 수입품이니 하면서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근본적으로 부정코저 한 일본 고고학자들의 념불을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 신라 토기의 경우는 《너무나 고도로 발달된》(우와 같은 책, 40 폐지) 점이 대륙 계통으로 되여야 한다는 유일한 근거다.

조선족은 《고도로 발달된 토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 전제》처럼 믿고 있는 《한국사》 편자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 있으랴마는 이것은 문화 계통의 방향을 전도시키기 위하여 일제가 내린 망단에 불과한 것이다.

석기 시대의 문화는 그 종태의 특징에서 새로운 중심과 기원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북방 대륙》이니 《씨비리》니 하는 문화는 특히 이 시기에는 고대 조선족 문화의 지엽적 위치에 처하고 있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한심하기는 《한국사》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까지 생

각하는 문제로서 그것은 우리 나라 석기 시대의 종말이 중국의 금속 문화가 동쪽으로 전파되여 오는 데 따라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사》는 이 부분 서술에서 자못 흥분된 필치로 이 황당한 주장을 《외래 금속기 문명의 서광이 비치였던 것》(우와 같은 책, 202 페지)이라고 찬미하면서 저 악명 높은 《금석 병용기》설을 늘어 놓았다.

아무리 남의 말을 그 대로 옮겨 놓는 다기로서니 제 민족의 력사를 쓰면서 어찌 이런 필치로 붓대가 돌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력사는 결코 주관이나 감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길게 론의할 것 없이 다만 해당한 한 가지 자료만으로써 《문명의 서광》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 똑똑히 보여 주려 한다.

《한국사》는 제법 자기의 《주장》을 분석하면서 《평안도 지방이 대륙에서 넘어 온 금속 문화의 영향으로 이미 석기 시대를 리탈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함경도, 강원도 지방은 아직도 석기 시대의 깊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우와 같은 책, 6 페지)이라고 하였다.

1959년 2월 우리 고고학자들은 장소도 바로 함경북도 무산 범의 구석에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 세 시대의 문화층이 겹쳐 있는 유적을 발굴하였다. 그 중 청동기 시대의 집 자리 층 우에 여러 겹으로 겹쳐진 철기 시대의 집 자리에서는 기원 전 7～5 세기의 것으로 감정되는 쇠도끼, 칼, 용도 불명의 쇠쪼각, 쇠강지(鉛滓)가 나왔으며 철광석 덩어리까지 나왔다. 이 광석은 무산 광산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였다. 이 철기 유적은 유적 자체가 바로 자기의 청동기 시대를 직접 계승하고 있음을 확증까지 하여 주었다.

이 철기 문화는 일제와 《한국사》 편자들이 그렇게도 목청을 돋우어 합창하는 소위 한4군의 설치에 의하여 비치게 된 《외래 금속 문화의 서광》보다도 5～3 세기나 이른 시기의 문화인 동시에 소위 명도전과 함께 출토된 위원군 룡연리 유적 철기보다도 수세기 앞선 문화이다. 더우기 그것이 《한국사》 편자가 말하는 최후까지 《석기 시대의 깊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함경북도 변지에서 출토되였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 전 2 세기 고조선 왕의 태자가 외교 사절로 출동할 때에 한 나라 사신을 떨게 하였던, 만여명 호위병이 무장한 그 무기들을 석기로 생각했다면 큰 잘못이다. 다량 생산이 가능한 철제 무기가 아니고는 이와 같은 대부대가 일제히 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것은 태자의 의장병에 불과한 수효일 것이요 일방에는 한의 대군과 대치하고 있는 고조선의 주력 전투 부대가 가진 무기들이 따로 있었던 시기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아직도 일제 식민주의 력사관의 《깊은 꿈》을 깨지 못한 《한국사》의 편자는 고조선 초기부터 이미 광범한 지역에서 사용되였던 비파형 단검은 그만 두고라도 역시 한의 침략 이전 시기의 발달된 우리 철기 시대의 문화를 보여 주는 각종 철제 생산 도구를 비롯하여 좁은 놋 단검, 좁은 놋 창끝, 잔줄무늬 청동 거울(다뉴세문경), 팔[illegible]형 방울, 동탁 기타 정교한 장식 도구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구적인 《대륙 계통》의 것으로 줄을 대고 있다. 《한국사》는 파렴치한 날조에서 너무도 근거가 궁한 나머지 《이들 유물 가운데는 중국에서의 출토품에 비교하여 류사하면서도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전혀 중국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유물도 포함되여 있다. 결국 이러한 량자 간의 거리는 중국 문화가 우리 나라에 전파되여 오기 전에 일단 그 린접의 변두리 지역에서 머물렀을 동안에 그 지방적인 성격이 가미되면서 우리 나라로 류입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우와 같은 책, 58 페지)고 하였다. 결국 이 시기 우리 나라는 《중국 문화》를 수입하여 《지방적 성격》으로 소화할 능력마저

없는 변두리의 변두리, 문화적 불모지였다는 말이다. 여기로부터 일제 어용학자들은 소위 《금석 병용기》라는 괴이한 고고학 용어까지 조작했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과학 문제라기보다 사상 문제 즉 그들의 그릇된 사상에서 나온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예 근성과 사대 근성이 골수에 사무친 사고 방식이 아니고는 사물이 이렇게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유물들을 부어 만든 거푸집까지 오늘 우리 나라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어떤 외래 문화와도 구별되는 독창적인 특색을 가진 문화이다. 제 조상이 손수 만들어 사용한 유물들이 바로 제 나라 땅에서 출토되였건만 이 진실한 력사를 부정하기 위하여 《한국사》는 이렇듯 갖은 궤변을 늘어 놓았다. 자기가 꾸며낸 궤변에도 자신을 가지지 못한 《한국사》는 다시 계속하여 《그런데 이러한 설명만으로써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면을 락랑 시대 이전의 유물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우와 같은 책, 58 페지)라고 전제한 후 경북 영천 지방에서 출토한 때의 청동 띠고리(帶鉤)들을 들었다. 이 특이한 문화는 중국이나 대륙 계통의 《지방적 성격》으로도 감히 날조할 수 없을 정도의 독창성을 가졌으므로 이번은 수만 리 떨어진 까스삐해 북안의 소위 스키타이족 문화에 끌어다 붙였다. 동물형의 의장들이라 하여 어찌 모두가 스키타이족의 독점 문화로 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종류의 문화가 어찌 반드시 일원적인 기원으로 되여야 한단 말인가? 이것은 창세기적 미신에 부합되는 《리론》으로는 될 수 있으나 력사적 사실과는 아무런 인연도 가질 수 없다.

이리 하여 《한국사》는 필경 우리 나라에서 국가 형성의 요인과 동력을 한의 침략으로부터 찾았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사》는 《마지막 4 군 설치 이후로 직접 한(漢)나라 중원부터 다량으로 이식된 순 한족 소산의 금속 문화는 우리 나라 사전 시대에 크나큰 변혁을 가져 왔으며…마침내 한(韓), 예맥 동린접 지역의 원시 사회에 국가 륭기의 기운이 돋아 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우와 같은 책, 62 페지)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무제의 4 군 설치는 점차로 한반도를 완전한 력사 시대로 이끌어 넣었던 것이다》(우와 같은 책, 64 페지)라고 하였다.

《한국사》는 이와 같이 침략자의 역할에 대하여 로골적인 축복을 드리면서 조선족의 국가 형성을 마치 외족의 침략이 가져 온 선물처럼 묘사하였다. 이것은 바로 오늘 현실에서 남조선 괴뢰 정권을 만들어 놓은 미제 침략자들에게 축복을 드리는 《한국사》 편찬자들의 사상 관점의 직접적인 반영에 불과하며 력사적 사실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

이처럼 《한국사》 편찬자들은 미제 침략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력사 상 첫 국가를 이룩한 우리 선조들의 공적을 침략자들의 《공적》으로 바꾸어 놓은 용서 못할 반민족적 죄과를 범하고 있다. 만약 《한 무제의 4 군 설치》나 《한나라 중원으로부터 다량으로 이식된 순 한족 소산의 금속 문화》가 《국가 륭기의 기운이 돋아 나게》 하였다든가 《한반도》를 《완전한 력사 시대로 이끌어 넣었다》면 거기는 한의 식민지가 존재하였을 뿐, 조선족의 국가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력사적 사실은 이와 반대로 한 4 군이 설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에는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우리의 고대 국가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다.

이 력사적 사실을 오히려 한족의 고문헌들은 《한국사》와는 반대로 당사자인 자기들도 모르는 소위 《금속 문화의 이식》 시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있었던 우리 고대 국가들의 발전된 면모를 여러 군데 전하고 있다. 기원 전 7 세기 이래 이 고대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에 관한 사실은 《관자》와 《사기》에서, 기원 전 3 세기 이전 이 나라들이 가진

높은 수준의 문화, 도덕에 대하여는 《산해경》과 《한서》에서, 같은 시기 고조선 및 진국 정권들과의 외교 정치 관계는 《사기》에서, 기원 전 4 세기 고조선이 가진 강대한 정치 군사력과 아울러 침략적인 연 나라를 그 동침 이전부터 실력으로써 견제한 사실은 《염철론》, 《위략》, 《박물지》 등에서, 기원전 3 세기 이래 부여와 진국이 가진 조선족 고유의 발달된 관제를 비롯한 이 국가들의 성격들은 《삼국지》에서 각각 전하고 있다.

비록 이 문헌들이 외국의 것들이요, 주로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봉건 대국주의자들의 손에서 집필되였다는 그 사료적 성격으로 하여 오히려 그의 진실성이 이미 자체로 검열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력사를 장황하게 자기 목적과 부합되게 《분석》한 일제 어용 《조선사》류의 《리론》보다는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 력사를 옳게 천명함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사》는 자주 《국가 흥기의 기운》이니 《국가의 건립》이니 말하고 있지만 《국가》에 대한 과학적 개념부터 가지지 못 하고 있다. 대관절 《부족 련맹》은 무엇이기에 또 《부족 국가》라는 것이 있으며 또 《집권적인 통제적인 정치 태세》로서의 《국가》는 무엇을 의미하며 《고대식 국가 정치 단계》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국사》는 이와 류사한 말들로써 과학적 공통성을 추상하지 못한 국가 개념 표현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것은 력사 연구에서 과학적 방법론에 립각하지 못한 데로부터 오는 당연한 혼란이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우리의 고대 국가들은 소위 《부족 국가》나 《집권적 정치 태세》나 《고대식 국가 정치 단계》 같은 그런 애매 몽롱한 물건이 아니라 이미 일정한 단계로 발전한, 사회 생산력에 기초하여 생겨 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 착취하기 위한 공'적 권력 도구로서의 군대와 감옥과 법률 등 주요한 징표들을 갖춘 그러한 국가들이다. 이와 같은 조건과 아울러 자기의 독자적인 문화를 갖춘 고대 국가들이 우리 력사에는 한의 침략 이전 시기부터 엄연히 존재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의 침략 시기 이후에도 조선족은 선행한 자기의 고대 국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한족의 그것들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문화를 고수하였다. 그들이 주로 《도씨검(桃氏劍)》과 《과》를 사용할 때에 우리는 전통적인 좁은 놋 단검과 좁은 놋 창끝을 사용하였으며 그들이 《일광경》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잔줄 무늬 청동 거울을 사용하였으며 기타 다양한 장식품들도 례외로 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의 종태에서도 선명히 구별되여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의 웅대한 적석총이라든가 호화 찬란하면서도 그 독창적인 형식을 자랑하고 있는 안악 1, 2, 3 호 무덤 등 소위 《한식 고분》과는 근본적으로 그 류형을 달리 하는 후세의 무덤들까지도 저간의 사정을 잘 말하고 있다. 자기 문화의 주체가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조건에서는 색다른 외래 문화가 특별한 역할을 놀 수 없었던 것이며 다만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우리 문화에 흡수되였을 따름이다.

《한국사》는 이와 같이 독자적 전통을 가진 우리의 고대 문화를 여러 가지 외래 문화의 《이질적 요소》로 구성된 《금석 병용기》적인 혼합물로 만들기 위하여 그 《민족 구성》부터 《혼잡다이(混雜多異)한 복합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한국사》 서두에는 고대 조선족을 정체 불명의 혼혈종이 아니면 어느 다민족 국가의 기원을 서술하듯 《민족의 구성》이라는 표제 아래 이렇게 말한다. 《현재 발달된 민족은 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도 결코 온전한 단일 인종(협의)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역시 수개 이상의 다른 요소가 섞여 있다. 즉 한인, 몽고인, 만주인, 왜인 기타의

요소가 포함되여 있다》(우와 같은 책, 7 페지).

《한국사》는 이러한 전제를 내놓는 조건에서 비로소 큰 발견이나 한듯이 맥족—예맥족을 그 《근간적 요소》로 소개하였다.

어느 나라의 《민족 구성》이라는 말과 어느 민족의 《인종적 기원》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른 문제이다. 대관절 《한국사》 편자는 무슨 목적으로 《민족》이라는 말을 《협의의 인종》으로 대치시켜 가면서 우습게도 한인, 몽고인, 만주인, 왜인 등을 조선 민족의 《구성 요소》로 규정하는가? 《한국사》 편자가 무어라고 헐뜯든 간에 엄연한 단일 민족인 우리 나라 력사에 있어서는 《민족의 구성》이라는 말은 애당초 적용할 자리가 없다. 한인, 몽고인, 만주인, 왜인 기타 민족들이 조선 민족과 력사적으로 호상 접촉 관계 이외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력사 상 아무런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우연적, 산발적, 개별적 귀화민들이 간혹 있었다 하여 그것으로써 《민족 구성》을 운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면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 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민족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주의 사상을 류포하는 반민족적인 선전 공작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사》가 《현재 발달된 민족은 다 그렇다》고 한 그 《발달된 민족》은 대관절 그 어느 민족을 념두에 두었던가? 이것은 바로 앵글로싹손족의 죄악적 식민주의의 산아인 미국의 《민족(시민) 구성》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조국의 력사까지 미국식 력사로 구상하고 있는 《한국사》 편자들의 사고 체계 속에 무슨 조선 민족이고 조선 력사가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한국사》가 늘어 놓은 거의 모든 서술들이 그 어느 한 마디도 《한국사》의 창견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옳바른 립장에 서지 않고서는 진실한 력사가 보이지 않는다. 객관적인 력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을 누구의 립장에서 보느냐 하는 문제가 《한국사》로서는 깊이 반성하여야 할 문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체적 립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 독자적인 문화의 형성에서 린접 지역과의 문화 교류와 아울러 보다 우수한 문화의 흡수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남의 력사를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리용코저 하는 침략자들의 사상적 노예로는 될 수 없다. 따라서 나치스 독일의 파쑈즘 리론에 복무한 멘긴의 반동적인 문화 이동론과 아울러 사회 발전에서 내재적, 자률적, 주체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제 어용 사가들의 식민주의 력사 방법론을 단호히 배격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사》에는 이 외에도 일련의 력사, 지리 문제라든가 이러저러한 사료들에 대한 그릇된 해석들이 허다하게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론평을 보류한다.

* *

《한국사》는 자기의 서문에서 이 책의 출판을 위한 《연구비》를 미국의 대표적인 독점 재벌인 《록펠러》 재단에서 보조해 준 사실을 자랑 삼아 발표하면서 그 《후의》에 공손히 치사하였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써도 《한국사》가 누구의 필요에서 연구 편찬되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영광스러운 조국의 력사를 외래 침략자의 정치 자금에 의하여 출판한다는 것은 민족적 량심이 승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남조선 문화인의 수치로 될 뿐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다.

우리는 이 책을 대하면서 일찌기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시기에 일제 총독부가 직접 《국가 예산》을 지출하여 관제 《조선사》 30 책을 편찬하는 동시에 자기의 어용 학술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하여 일련의 어용 《조선사》들을 편찬한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침략자들은 이토록 남의 력사의 《연구》와 출판에 절대한 관심을 두었던가?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저들이 실시하는 범죄적인 식민 정책의

중요한 일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제는 저들이 조작한 《조선사》를 통하여 저들의 침략이 조선에 문명과 개화를 《이식》하였다는 사상을 적극 류포시켰다. 오늘의 미제는 저들의 남조선 강점 정책을 합리화하고 남조선의 사회 발전에서 《원조》와 외세의 역할을 절대화함으로써 자주 자립에 불타는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민족적 주체 의식을 거세하며 저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직접 복무할 수 있는 사상 리론 체계의 수립을 바로 이와 같은 《한국사》에 기대한 것이다. 《진단 학회》는 미제가 주문하는 이 과업을 《록펠러》 재단의 정치 자금에 의하여 충실히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는 조선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가 직접 조작한 또 하나의 어용 《조선사》로서 우리 인민들로부터 응당 준렬한 규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근 로 자 제 17 호 (루계 279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9월 3일 발 행 • 1965년 9월 5일

ㄱ—530483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8 호 9 월 20 일

평양 근로자사 1965

근로자

제18호 (280)
1965년 9월 (하)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 당 창건 20 주년을 맞으며 —

우리 당 대외 정책의 승리

김 영 남

오늘 우리는 당 창건 20 주년을 맞으며 국제 무대에서 우리 당이 걸어 온 길을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 보게 된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지난 20 년 간 국제 관계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오늘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국제적 지위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졌으며 대외 관계는 전례 없이 확대되였다.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25 개 나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3 개 나라와 총령사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수십 개 나라와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년간 수 많은 정부 대표단들과 경제 문화 대표단들의 호상 방문을 통하여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 국가 및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 관계는 더욱 강화 발전되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구라파 등 세계의 모든 곳에 공동 위업을 위하여 함께 나가는 수 많은 동맹자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에 굳건히 서 있는 자주 독립 국가로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평화 애호 국가들의 대렬에서 세계를 개조하는 진보적 인류의 공동 위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그것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있다.

세계 지도에서 오래 동안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새 힘이 솟는 나라, 천리마의 조선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이것은 우리 당 대외 정책의 빛나는 승리로 되며 우리를 고립 질식시키려던 원쑤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된다.

우리 당이 지난 20 년 간 국제 관계 분야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는 우리 당 대외 정책의 정당성과 함께 우리 인민이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튼튼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인민이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가진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한 것은 우리 대외 활동의 튼튼한 토대로 되였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의 대외적 위신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국제 관계에서 우리 당이 달성한 성과는 또한 조선 인민이 시종일관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이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

성을 발휘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 인민은 3 년 간의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침략자들에게 그의 력사 상 가장 큰 패배를 주었다.

이리 하여 우리 조선 인민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로부터 많은 동정과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해방 후 국내외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특히 미제 침략자들의 남조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혁명이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게 된 조건하에서 자기의 대외 정책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이미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서 제시된 대외 정책의 원칙을 새롭게 조성된 정세와 혁명 임무에 부합되게 발전시킨 것이다.

우리 당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은 첫째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친선 단결을 강화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 대외 정책의 초석이다.

둘째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과 자본주의 국가의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세째로,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 정상적인 국가적 관계를 설정하며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적 독립 국가들과의 우호적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네째로,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전쟁 정책과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며 극동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 당 대외 정책의 특징은 그것이 우리 조국 력사 상 가장 자주적인 대외 정책이며 또한 철두철미 국제주의적이며 반제국주의적인 데 있다.

우리 당 대외 정책은 지난 20 년 간 국제 혁명 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우리 혁명 승리를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당 대외 정책의 정당성은 그의 실천 과정에서 확증되였다.

* *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 간의 친선 단결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 위업의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수호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밀접히 결합시켰다.

김 일성 동지는 근로 인민이 국가 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는 자

게 조국에 대한 복무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중요한 과업은 우선 우리 나라 자체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자각적으로 동원되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의 애국적 의무이며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국제 사회주의 력량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김 일성 선집 제 5 권, 237 페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밀접히 결합시킨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조선 혁명이 국제 혁명의 일환이며 그 주인은 조선 인민이라는 철저한 주체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우리 당의 빛나는 전통이다.

우리 당은 지난 20 년 간 항상 주체적 립장에 확고히 서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왔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자체의 혁명 진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튼튼히 수호하고 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이 《반공》 깜빠니야를 발광적으로 전개하며 이에 발맞추어 국내외의 원쑤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악랄하게 공세를 취할 때에도 동요 없이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견결히 옹호하여 나섰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좌우경적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처음부터 독자적인 립장을 견지하여 왔다.

우리 당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 시종일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단결의 원칙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이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였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하여 우리 당은 또한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였다.

1957년과 1960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에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하여 원칙적인 립장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형제당, 형제 국가들 간의 관계에 관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사회주의 국가들과 형제당들 간의 관계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완전한 평등과 호혜, 령토 완정과 자주권의 존중, 내정 불간섭, 동지적 호상 원조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때에만 형

제당, 형제 나라들 간에 의식적이며 자원적이며 동지적인 단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형제당, 형제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평등과 내정 불간섭, 동지적 협조의 립장을 관철하여 왔다.

이리 하여 우리 당은 형제당, 형제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친선과 협조 관계를 강화 발전시킬 수 있었다.

모든 사실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고 자주성을 견지함으로써 전진 도상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 내고 국제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대렬에서 자기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　　*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거세찬 혁명의 폭풍에 휩싸여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치렬히 전개되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과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는 전반적 정세를 혁명적 인민들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 독립 국가들과의 우호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우리 당은 과거 오래 동안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억압과 착취를 받아 왔으며 오늘도 나라의 절반 땅을 미제에게 강점 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적 해방과 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모든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을 직접 자기의 일과 같이 간주하고 적극 지지 성원하였다.

조선 인민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알제리 인민의 영웅적 항쟁을 비롯하여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모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시종일관 백방으로 지지 성원하였다.

조선 인민은 1956년 제국주의자들이 애급을 반대하는 무력 침공을 개시하였을 때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애급 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였으며 미국을 괴수로 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무력 침공과 간섭을 반대하는 꾸바,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쟈 등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다.

우리 당은 오늘도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콩고(레),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 기네, 서남 아프리카 및 기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인민들을 전력을 다하여 지지 성원하고 있으며 그에 확고한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다같이 장기간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모진 고통을 강요 당하

였으며 오늘도 공동의 원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민족적 해방과 독립의 공고화를 위하여 함께 투쟁하여야 할 공통된 과업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처지와 공통된 과업으로부터 출발된 반제 투쟁에서의 호상 지지와 협조를 통하여 조선 인민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범한 인민들은 친근한 전우로, 형제로 되였다.

민족 해방 혁명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고 있는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잃어 버린 옛지위를 회복하며 해방된 인민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식민주의의 멍에를 들씌우기 위하여 무장 간섭, 경제적 압력, 파괴 전복 활동 등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모든 반제 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의 호상 협조와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년간 이 방면에 더욱 력량을 집중하였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반제적 립장이 강하고 민족적 독립의 공고화와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우리의 벗으로 되였으며 우리와 함께 손잡고 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인도네시아, 캄보쟈, 아련, 알제리, 기네, 말리, 가나, 콩고(브), 단자니아, 예멘, 모리따니 등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나라들은 미제 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발악하던 미제의 책동이 수치스럽게 파탄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리여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곳에서 미 제국주의자들 자신이 고립 배격 당하고 있으며 그의 주구 남조선 괴뢰 도당도 도처에서 증오를 받고 쫓겨 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 대외 정책의 거대한 승리이다.

지금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간에는 매년 수백 개의 각급 대표단들과 수 많은 인사들이 호상 래왕하고 있으며 국가적 관계는 날을 따라 더욱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년간 김 일성 동지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 동지가 아련, 알제리, 말리, 기네 및 캄보쟈를 방문하였으며 말리의 모디보 께이타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 콩고(브)의 알폰스 마쌈바 데바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것 등은 우리 나라와 이 나라들 간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 공동 전선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범한 신생 독립 국가들 간에는 또한 유무 상통하는 경제적 협조와 문화 교류가 확대 발전하고 있다.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아직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들에도 무역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다.

대왕과 교류를 통하여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의 벗들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주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얻은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있다. 우리 인민이 전후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 하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 경험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고무를 주고 있다.

말리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는 조선 인민이 《작고 가난한 인민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민들이 다 과학과 기술의 최고봉에 도달할 수 있고 문화의 최고봉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으며 모든 인민들이 다 휘황하고 화목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캄보쟈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는 우리 나라에서 달성된 성과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바로 제국주의 대렬강의 침략, 위협, 압력과 불법 행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비할 바 없는 모범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우리 당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과의 관계 발전을 위하여 기울인 진지한 노력과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로 하여 이 지역 인민들과 우리 인민들 간의 친선 단결은 확고 부동한 것으로 되였다.

이 모든 것은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적 독립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대외 정책의 정당성을 빛나게 확증하여 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평화 애호 국가들과 우리 나라 간에 나날이 강화 발전되고 있는 친선 협조 관계는 쌍방에 유익한 것이며 이 지역 나라들의 공동 위업에 대한 기여로 된다.

* *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철저한 반제국주의 로선을 견지하고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도발 정책을 반대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우리 당은 해방 후 첫날부터 철두철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로선을 견지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의 복잡한 국내 국제 정세 하에서 우리 당은 예리한 통찰력으로써 남조선에 상륙한 미제의 침략적 야망을 제때에 간파하고 우리 혁명의 장기성과 간고성을 예견하였으며 민주 기지 창설에 관한 로선을 제기하였다. 민주 기지 로선은 우리 당의 철저한 반제국주의 로선의 체현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을 때에 조선 인민은 추호의 동요 없이 미제를 괴수로 한 16 개국 무력 침략자들을 상대로 백절불굴의 영웅성과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투쟁하였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위대한 승리는 제국주의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민족 해방 운동의

모범으로 되였다.

생활은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 투쟁에 강력히 진출한다면 제국주의의 어떠한 침공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굳게 확신하고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여 부단히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리 당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국제 헌병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예봉을 집중시키며 동시에 기타 모든 제국주의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특히 우리 당은 아세아에서 침략 전쟁의 근원으로 되는 일본 군국주의 재생의 위험성을 첫날부터 경고하였으며 아세아와 남조선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기도와 그를 적극 추동하고 있는 미제의 범죄적 행위를 결정적으로 반대 배격하였다.

지금 미제는 일본의 핵 기지화와 일본 군국주의의 재무장을 촉진하면서 《한일 조약》을 통하여 일본 군국주의를 남조선에 다시 끌어 들이며 그를 핵심으로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함으로써 일본을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평화와 민주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단결할 수 있는 모든 반제 평화 애호 력량을 굳게 결속하는 립장을 견지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 국제 로동 계급,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운동, 전 세계 평화 애호 국가들과 인민들—이 모든 평화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더욱 튼튼히 단합하며 온갖 투쟁 방법을 배합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음모를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계속 전개할 때에 새로운 세계 대전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며 세계 평화는 유지 공고화될 것이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웰남, 콩고(레), 꾸바, 도미니카 등 세계 도처에서 더욱 발악적으로 침략과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웰남 인민이 전개하고 있는 영웅적 항전은 자신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의 동남방 초소를 수호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보위하는 정의의 투쟁이다.

조선 인민은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웰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첫날부터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형제적 웰남 인민과 생사 운명을 같이 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우리는 이것이 곧 자기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지구 상에서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멸망할 때까지 반제 혁명 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 *

우리 당은 지난 20년간 어떠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동요 없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정당한 대외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오늘 우리 당과 공화국의 대외적 위신은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국제 혁명 력량과의 단결이 일층 강화되였다.

조선 인민이 국제 혁명 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국제적으로 고립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 숙망인 조국의 통일, 조선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신생 독립 국가들과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을 적극 지지하고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로선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다.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구현

정 혁 남

《맑스-레닌주의당이 일단 정권을 잡은 이상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며 그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김 일성).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창건 첫날부터 가장 중요한 관심을 집중하여 온 문제이다.

당은 인민 생활에 대한 배려를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으면서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종일관 이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왔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근본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근로자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부유하고 문명한 새 생활에로 인도하는 것을 자기의 궁극적인 투쟁 목적으로 인정한다. 그들이 적과의 판가리 싸움에서 피흘리는 것도, 낡은 생산 관계를 개조하는 것도, 경제 건설을 진행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자는 것이다. 특히 주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향상시킬 의무를 내세운다. 그들은 과거 착취 사회에서 갖은 멸시와 빈궁 속에서 살아 온 근로자 대중을 하루 빨리 며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한다.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하면서 지난 20년간에 우리 나라에서 착취와 빈궁의 사회적 근원을 청산하고 경제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일신시켰다.

당은 혁명의 매 단계에서 낡은 생산 관계의 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 사회주의 제도를 확고히 수립하여 놓았으며 매 시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한 정확한 방침들을 제시하였다.

해방 후 평화적 건설 시기와 전후 복구 시기에 당은 인민 경제의 전반적인 복구와 함께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방침을 관철하였으며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과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의 기본적 해결을 전면에 제기하고 이를 철저히 관철하였다. 7개년 계획 기간에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문제를 기본 과업으로 내세우고 이미 그 상반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근심 걱정을 모르는 새 사회 건설자로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경제 토대의 건설과 인민 생활 문제를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로동자와 농민 간 그리고 그들의 각 계층 간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며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와 사회적 소비를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등으로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지난 시기 당이 취한 모든 방침들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

(1)

우리 당은 경제 건설에 착수하는 첫날부터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 하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건설하는 사업과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유기적으로 밀접히 결합시켜 해결하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이것은 자체의 생산적 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방침이였다. 자립적인 경제 토대를 하루 속히 축성함으로써만 사회 생산력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인민들의 당면한 생활을 성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경제 토대를 축성하는 모든 대책들이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대책들과 밀접히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당은 전후 시기에 나라의 생산력과 인민 생활이 다 같이 혹심하게 파괴된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경제 토대의 축성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결합시키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전후에 조성된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 형편과 생산 기술 조건에서 오직 이 로선만이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를 위한 생산 수단 생산 등 물질적 생산 부문의 전반적 발전과 종합적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경제 토대를 강화하면서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보장할 수 있었다.

중공업을 위주로 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경제 로선의 본질적 특징은 중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인민 생활 향상과 직접 관련된 부문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가 하려는 중공업은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 중공업이요, 앞으로 우리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중공업이요, 또한 오늘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공업이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365 페지).

우리 당의 이 중공업 발전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촉진하고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최대한으로 복무할 수 있는 강력한 중공업 기지가 축성되였다.

당은 중공업 건설에 많은 력량을 집중하면서도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도 그

에 확고히 따라 세웠다. 당은 중공업이 경공업과 농업에 최대한 복무하게 하면서 자립적 경공업의 토대를 짧은 기간 내에 튼튼히 축성하였으며 농업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농촌 경리를 흉년을 모르는 선진적인 물질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웠다.

과거 경공업이란 거의 없던 우리 나라는 오늘은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수 많은 중앙 경공업 공장들과 전국을 조밀한 그물로 뒤덮은 지방 공업 공장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소비품에 대한 국내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있다. 방직 공업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 전에 비하여 195 배나 더 많은 직물이 생산되고 인구 1 인 당 25 메터의 천이 차례짐으로써 입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는 전후 년간 빠른 속도로 제고된 주민들의 상품 수요를 전'적으로 국내 생산에 의하여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당은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지금 소비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우며 품종을 더욱 다양하게 하는 문제를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목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극히 어려웠던 식량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채소, 육류 그리고 목화, 담배, 잠견 등 공예 작물 생산을 매년 현저히 증가시킴으로써 주민들의 부식물과 경공업 원료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우리 당은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단시일 내에 강화하는 동시에 인민 생활을 급속히 안정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력의 발전 분야에서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 로선을 관철하는 한편 국민 소득의 리용 분야에서는 축적과 소비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고 생산된 국민 소득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리였다.

국민 소득의 분배 분야에서의 우리 당의 방침은 축적을 계통적으로 증가시키는 토대 우에서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키는 것이다. 이 방침의 기본은 생산의 장성과 인민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축적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매 시기마다 가능한 최대한의 몫을 당면한 소비에 충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것은 경제 토대의 강화와 인민 생활의 향상, 인민들의 장래의 리익과 당면한 리익, 사회 전체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결합하며 인민 경제의 전반적인 균형과 높은 발전 속도 등을 가장 정확히 보장하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였다.

우리 당은 로동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의 완전 취업을 보장하고 사회적 로동의 절대량을 증대시키는 기초 우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체계적으로 장성시키며 모든 생산 잠재력과 내부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는 등 생산 장성의 제반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틀어 쥐고 그것을 매 시기의 경제적 요구에 부합되게 리용하여 왔다.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생산이 계속 앙양됨에 따라 국민 소득은 1964년에 1953년에 비하여 6.9 배로 장성하였으며 그 대부분이 근로자들의 개인적 및 사회적 소비에 충당되였다.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공업화와 경제 토대 강화를 위한 축적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도 당면한 인민

소비를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부분을 돌릴 수 있었다.

이리 하여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제한된 자금으로 강력한 중공업 기지를 창설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유족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였다.

(2)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켜 물질적 조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분배, 교환 등 경제적 공간들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주민들의 각 계층 간, 개인적 소비와 사회적 소비 간에 생산물을 합리적으로 분배 공급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매 시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개인적 소비 폰드의 정확한 분배 및 그 실현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분배 및 교환의 공간을 가장 훌륭히 리용하여 왔다.

여기에서 우리 당이 확고히 견지한 원칙은 각 부문 로동자들의 임금 비률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각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장성시키는 동시에 통털어 로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였다.

이는 전체 인민의 생활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우리 당의 근본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한 원칙이며, 로농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앨 데 대한 원대한 과업을 점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였다.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들도 바로 이런 원칙에서 출발하여 취하여졌다.

당은 우선 이런 원칙에 확고히 서서 로동에 의한 분배와 각종 가격 체계 그리고 이것들과 밀접히 결합되여 있는 상품 류통 공간들을 전면적으로 리용하였으며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반 대책들을 동시에 강구하여 왔다.

여기에서 우리 당이 중요하게 주목을 돌린 것은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 임금을 계통적으로 증대시키며 농민들의 로력일에 의한 분배 몫을 또한 부단히 장성시키는 것이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 임금을 장성시키는 우리 당 정책의 중요 특징은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템포를 앞세우면서 그에 로임 장성 템포를 가장 가깝게 접근시켜 그들의 화폐 수입을 전반적으로 급속히 장성시키는 한편 인민 경제 각 부문 별로 로임 수준을 옳게 조절함으로써 로동자, 사무원 각 계층 간의 로임 수준을 현저히 접근시키는 것이였다.

당의 이 방침이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 생산력이 발전하고 로동 생산 능률이 부단히 장성함에 따라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은 체계적으로 장성하였으며 그들 각 계층 간의 로임 수준도 더욱 합리화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자, 사무원 1인당 년평균 화폐 임금은 1949년에 비하여 1960년에는 3.9배, 1964년에는 4.1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 수입을 전반적으로 급속히 증대시키며 각이한

계층의 생활 수준의 균형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또한 로동자, 사무원들의 세대 당 수입을 급속히 높이기 위한 당의 제 대책이였다. 당은 지방 공업을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부양 가족을 광범히 생산적 로동에 참가시키며 각 방면으로 녀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민 경제에서 녀성 로력의 비중을 급속히 높이는 동시에 매 세대 당 로력자 수를 급속히 장성시켰다. 결과 전체 인구 중에서 수입 있는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매개 근로자 세대 당 수입이 보다 빠른 속도로 장성함으로써 로동자, 사무원들의 세대 당 화폐 수입은 1958~1964년 간에만도 약 1.8 배로 장성하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 수입의 이러한 장성은 그들의 개인적 소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그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였으며 총체적으로 그들의 전반적 생활을 급속히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농민들의 생활 향상과 개인적 소비를 장성시키기 위하여 로력일에 의한 분배 몫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 농가 1 호 당 분배 몫은 1954년에 비하여 1964년에 알곡은 3.3 배, 현금은 15 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농민들의 개인적 소비 폰드를 장성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이 취한 모든 방침의 기저에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완전히 책임지며 로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 립장이 놓여 있다.

이런 원칙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하면서 당은 우선 농촌 경리에 대한 강력한 국가적 지원을 실현하여 협동 농장 공동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협동 농장 내부에서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도록 하였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물질 기술적 지원은 매개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은 자체 축적을 돌리고도 농업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켜 농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분배 몫을 현저히 증대시킬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당은 로동자와 농민 간의 생활상 균형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에서 가격 공간, 재정 신용 체계 등을 통하여 농민들의 수입을 보다 급속히 증대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침을 취하였다. 농촌에 공급되는 생산 수단의 가격과 각종 료금의 인하, 수매 가격의 인상, 농업 현물세의 체계적인 감면 및 대부의 상환 면제, 각종 상금의 지급 등 지난 시기 당이 취한 모든 조치들은 농민들의 수입의 증대와 개인적 소비 장성에서 커다란 작용을 놀았다.

우리 당은 이러한 제반 대책을 취함에 있어서 시종일관 자연 지리적 조건이 각이한 지대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생활 수준 상 차이를 축소하고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도 심중한 주의를 돌리였다. 특히 과거 생활이 곤난하였던 산간 벽지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이 지대에서 농업과 축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수입을 더 빨리 증대시키기 위한 대책을 정력적으로 강구하였다.

지난 시기 농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빈농

민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완전히 해결되였으며 오늘 우리 나라 농촌은 벌방 지대로부터 산간 지대에 이르는 모든 곳에서 그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제반 대책들이다. 국가적 부담에 의한 농촌 기본 건설과 문화 주택 건설의 실시, 현물세의 폐지 등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대책들은 우리 나라 농민들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국가적 부담에 의하여 생산적 건설과 문화 주택 건설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으며 대규모 농기계들 뿐 아니라 중소 농기계까지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작년 말까지 약 절반의 협동 농장들에 현물세가 면제된 데 뒤이어 1966년까지에는 모든 협동 농장들에 현물세가 면제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조세 부담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농민들의 실질 수입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이 취한 이 모든 조치들은 우리 당이 협동 농장들의 소비 폰드의 증대와 농민 수입의 장성 문제를 결코 협동 경리 내부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당은 만일 농민들의 수입 장성을 협동 경리 내부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게 된다면 로동자, 농민의 생활 수준 상 차이를 급속히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을 타산하고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나라의 전반적 소비 폰드를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농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뿐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책임지며, 전 인민적 소유의 발전 뿐 아니라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책임진다는 우리 당의 혁명적 립장을 반영한 것이며 농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분야에서의 새로운 획기적 대책으로 된다.

당은 인민 생활의 균형적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화폐 수입을 부단히 장성시키는 한편 소비품의 가격 공간을 최대한 리용하는 원칙에서 소비품의 가격을 체계적으로 인하하고 상품 호상간의 가격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당이 소비품의 가격 인하와 가격 수준 문제에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한 것은 그것이 로동자, 사무원 뿐 아니라 농민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믿음직한 방법이며 화폐 류통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 생활을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라는 데 있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실시된 소비품의 가격 인하에서는 그 품종의 포괄 범위가 넓고 인하의 폭이 크며 가격 수준의 조절에서는 인민 생활에서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소비품들의 가격 수준이 현저히 낮게 설정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7 차례에 걸쳐 가격 인하가 실시되였는바 1964년 물가 수준은 1953년에 비하여 근 절반으로 저하되였다. 이것은 원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그 구매 능력을 현저히 높임으

로써 주민들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공간으로 되였다.

근로자들의 화폐 수입의 장성과 물가의 계통적인 인하로 인한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증대는 아직 소비의 장성을 전제로 하는 인민 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민들의 소비를 실제적으로 장성시키려면 류통 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소비품을 잘 공급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교환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주의 상업을 개선하여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을 원만히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은 처음부터 사회주의 상업을 창설하고 국내 시장에서 그 지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제 대책과 함께 사회주의적 상품 공급 체계를 정비 완성하면서 그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도 큰 력량을 경주하였다. 한편 당은 우리 나라 시장 령역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들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하여 주민의 구매 폰드와 상품 폰드 간, 상품 류통과 상업망 간, 상업망과 상업 일'군들 간의 정확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상품 류통을 부단히 증대하고 모든 상품이 최대한 주민들의 수요에 의하여 골고루 계획적으로 공급되게 하는 데 최대의 주목을 돌리였다.

이리 하여 전후 년간 국가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액은 사회주의적 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지어 주는 유리한 조건과 주민들의 구매력의 급격한 증대에 기초하여 매년 비상히 높은 템포로 장성함으로써 1953년에 비하여 1964년에는 그 류통액이 12 배로 증대되였다. 소매 상품 류통액이 총체적으로 이와 같이 빨리 장성하였을 뿐 아니라 식료품 중에서는 영양가 높고 고급한 식료품들인 채소, 기름, 수산물, 육류, 과실 등의 소비가 더 빨리 장성하고 공업 상품에서는 각종 고급 직물과 의류, 신발, 가정 도구와 문화 용품의 소비가 보다 빨리 장성하였다. 이것은 오늘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상품 수요를 거의 전'적으로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망을 통하여 충족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인민들의 소비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개인적 소비 형성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로동에 의하여 분배되는 개인적 소비 폰드 부분이 기본을 이루면서도 국가에 의한 추가적인 혜택이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수입에서 근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있어서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그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적 부담에 의한 인민들의 개인적 소비가 로동에 의한 직접적인 소득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장성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개인적 소비 폰드의 분배 분야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와 추가적인 사회적 혜택 간의 호상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로동에 의한 개인적 소비 폰드의 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거의 접근하는 규모에서 추가적인 사회적 혜택을 밀접히 결합하는 독창적인 방침을 견지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단계에서 국가적 부담은 사회 성원들의 공동적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돌려지는 것이 보통 현상으로 되지만 우리 당은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인적 수요의 충족

명역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그것이 개인적 소비 형성에서 매우 큰 자리를 차지하게 하였다. 이 방침은 모든 주민들의 생활을 진정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출발하여 인민 소비 장성에서 긴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 당면한 수요와 전망적인 수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통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가장 훌륭히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한편 인민들의 생활 조건의 개선과 사회 생산력의 발전간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조절하고 사회적 리익과 근로자들의 개인적 리익을 또한 옳게 결합하는 가장 현명하고 예견성 있는 방침이였다.

당은 소비 폰드 분배에서 이 방침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 사회 생산력의 발전 수준과 로동 생산 능률의 도달된 수준, 인민 소비 발전의 객관적 추세 등을 전면적으로 타산하였으며 나아가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망도 예견하였다.

당의 이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수요와 생활 조건이 더욱 훌륭히 보장되여 왔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문제도 더욱 잘 해결되여 왔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 혜택이 무엇보다 먼저 인민 생활에서 기본을 이루는 의식주 문제의 해결에 돌려졌을 뿐 아니라 인민 생활에서 제1차적 생활 수단들인 식량, 연료, 피복 등등의 분배에 기본을 두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것은 또한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매 개인에게 분배되는 개인적 소비 폰드와는 달리 사회적 혜택에 의하여 분배되는 개인적 소비 폰드는 근로자들의 로력적 기여 정도를 인부 고려하지만 주로는 그것을 타산함이 없이 분배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혜택에 의하여 분배되는 개인적 소비 폰드의 이러한 리용 방법은 로동자, 사무원들의 가족 수, 화폐 수입의 크기에 의하여 생기는 각이한 세대들 간의 소비 수준상 간격을 균형적으로 조절하면서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보장하고 모두가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 사무원들과 도시 주민들은 국가적 혜택에 의하여 무료나 다름 없는 가격으로 충분한 량의 식량을 보장 받고 있다. 식량 공급제는 인민 생활에서 가장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적극적 대책이며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식량 공급제에 의하여서만도 매월 막대한 금액의 국가적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혜택은 근로자들의 입는 문제 해결에도 깊이 침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늘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 전문가들과 교원, 보건 일'군들 그리고 전체 학생들과 어린이들까지 철을 따라 국가로부터 무료 또는 극히 낮은 가격으로 옷을 공급 받고 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주택 문제에서도 막대한 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가는 원가의 절반도 못 되는 헐값으로 주민들에게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당은 주택 문제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 건전하고 문화적인 로동과 휴식의 보장, 아동들의 양육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결정적 력량을 돌리였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 그처럼 많은 자금이 요구되였을 때에도 당은 매해 국가 기본 건설 투자의 막대한 부분을 주택 건설에 배당하여 작년 말까지의 기간에 총 3천 817만 평방메터의 새로운 문화 주택을 건설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농민들까지 포함한 모든 주민들에게 보수비도 못 되는 극히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오늘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계비에서 식량 구입비, 주택 사용료, 연료비, 전등료, 수도 사용료는 모두 합쳐서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개인적 소비 폰드 분배에서 추가적 혜택을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의 령역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모든 인민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문제를 더욱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우리 당이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자기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을 돌린 문제는 의식주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개인적 소비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사회 문화적 시책을 강화하여 인민들의 사회적 소비를 급속히 장성시킨 것이였다.

사회주의 하에서 사회적 소비는 로동의 질과 량에는 관계 없이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것으로서 그것은 인민들의 사회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전반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점차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근로자들의 사회 문화적 수요의 충족과 관련된 사회적 소비를 보다 급속히 장성시키는 것은 특히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의 락후성을 하루 속히 극복하고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 문화 혁명의 전반적인 추진에 상응하게 전체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며 민족 기술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또한 사회 문화적 시책을 강화하여야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가정 부엌에만 얽매여 있었던 많은 녀성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광범히 인입하는 데 필요한 탁아소, 유치원 등 아동 시설망을 확대하며 공공 편의 후생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당은 이러한 요구를 잘 타산하여 인민들의 사회적 소비를 위한 국가적 혜택의 폭을 넓히고 그 심도를 계속 보장하면서 그것을 개인적 소비와 정확히 결합하여 장성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사회 문화적 혜택의 증대에서 우리 당이 가장 집중한 주의를 돌린 것은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 발맞추어 기술 문화 혁명을 급속히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민족 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며 과학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였다.

이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수 많은 과학 기관들과 교육 기관들이 창설 발전되고 근로자들과 그 후대들이 과학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광활한 대로가 열리게 되

였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1958년에 동방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게 된다. 특히 야간 및 통신 교육망, 공장 대학, 공산 대학 등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가 확대 발전함으로써 광범한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리탈되지 않고 중등 및 고등 기술 교육을 훌륭히 받게 되였다.

의무 교육제의 실시와 각종 교육망의 확장으로 지금 우리 나라에는 9,000여 개의 각급 학교들에서 전체 인구의 약 4 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피복과 장학금을 받아 가면서 무료로 공부하고 있으며 그 중 대학만 하여도 98 개로서 그 학생 수는 15만 6,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 인민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보통 교육으로부터 고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당은 인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대중 속에서 그 보급 발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대중적 문화 기관인 도서관, 극장, 영화관, 구락부 기타 문화 시설들이 근로자들의 문화 생활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고 있다.

의료 보건 기관과 탁아소, 유치원망의 확대, 사회 보험 및 사회 보장 등을 통한 국가적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또한 큰 범위에서 돌려지고 있다.

해방 후 우리 당은 인민 보건 제도를 확립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문화 혁명의 요구에 상응하게 예방을 치료에 선행시키며 로동 및 생활 환경을 위생 문화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무상 치료제의 혜택을 받으며, 불치의 질환들이 퇴치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무병 장수하게 되였다.

이와 함께 모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 시설이 현저히 확장됨으로써 현재 탁아소 해당 년령의 절대 다수의 어린이들이 국가의 배려를 받으면서 자라고 있다. 그리고 정휴양 시설의 대대적인 확대와 국가 사회 보험 부담의 증대에 의하여 매년 수십만의 근로자들이 무료로 정휴양을 받고 있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 탁아소 및 유치원 수는 1964년에 1953년에 비하여 110 배와 308 배로 각각 장성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휴양소 및 정양소 수는 9.6 배, 휴양 및 정양자 수는 12 배로 급격히 장성하였다.

또한 당은 근로자들의 생활 상 편의를 도모하는 각종 편의 후생 시설들을 도처에 건설하여 사회적 로동의 절약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보장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1956년에 비하여 6 배나 더 많은 2만여 개의 편의 후생 시설망들이 근로자들의 생활 상 편의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튼튼히 의거하여 나라의 기술 문화 혁명과 인민들의 절실한 생활 상 요구에 맞게 사회적 소비의 빠른 장성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신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왔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 *

이상의 모든 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과 소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문제를 가장 밀접히 결합시켜 단시일 내에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온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준다.

우리 당은 인민 생활 향상 분야에서 이미 조성하여 놓은 모든 유리한 조건들과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남은 7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생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을 성숙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사회주의 시대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에 급속히 도달시킬 것이며 전체 근로자들은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관철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와 휘황한 전망은 근로자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당과 대중과의 불패의 통일을 강화하였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더욱 높은 로력적 앙양에로 그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늘 모든 근로자들은 자기 앞에 펼쳐진 휘황한 래일을 내다 보면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 7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한 사람 같이 일떠서고 있다.

경제 지도에서의 모범 창조

리 재 영

사회주의 경제는 그에 고유한 일련의 법칙들에 의하여 발전한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하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의 법칙,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의연히 일정한 작용을 하는 가치 법칙,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법칙 등은 사람들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작용한다.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을 다방면적으로 심오하게 연구하며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을 각이한 구체적 조건에 맞게 능동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법칙들은 인민 경제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들을 무시하고 주관적 판단과 독단적 결론으로써 이에 대치한다면 경제 발전에서 혼란과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며 지어는 위험한 국면들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의 객관적 법칙들을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력사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경제 문화 건설에서의 높은 속도와 그 균형적 발전 그리고 나라의 자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리용에서 귀중한 경험과 특출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의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인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키는 방침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과 물질적 자극의 옳바른 결합 특히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의 선행을 철저히 견지하는 원칙, 공업 부문에서 대규모의 생산과 함께 중소 규모의 생산을 병진시키는 원칙 그리고 인민 경제의 부문별 발전 방향을 규정한 당의 모든 정책과 방침들의 위대한 생활력과 훌륭한 결실들은 당 정책의 현명성을 남김 없이 실증하고 있다.

당의 경제 정책들은 우리 나라에 잠재하고 있는 모든 인적 및 물질적 예비와 자원들을 합리적으로 동원 리용하여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가장 빠르고 옳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당의 모든 정책과 의도들은 누구에게나 다 리해되고 접수될 수 있으며 그들의 정력과 지혜를 발양시키며 언제나 확고한 신심과 명확한 전망을 가지고 천리마의 기세로 내닫게

하는 동대로 되고 있다.

경제 지도 일'군들과 전체 당원들의 과업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 법칙들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그에 기초하여 수립된 당의 모든 정책들과 그 의도를 자기가 처한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정치 실무적 자질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 인민 경제의 규모가 방대하여지고 그 기술 장비가 현대화됨에 따라 인민 경제의 관리 운영은 복잡하여졌으며 일'군들의 조직자적 역할과 지도 수준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아졌다.

사회주의 경제는 집단적 관리에 기초한 계획 경제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모든 고리들은 긴밀히 련관되여 있으며 호상 의존하고 있다.

인민 경제의 각이한 부문, 각이한 고리들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과 나라의 경제의 위력을 증강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적 지향으로 통일되여 있으며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으로 선포된 유일적인 계획과 그것을 어김없이 완수하고야 마는 혁명적 규률에 의하여 통일되여 있다. 리윤과 시장의 동태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조절》되는 자본주의 경제에 비한 사회주의 경제의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양하기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의 모든 련쇄된 고리들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한다. 이것은 경제 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당 정책 집행을 조직하는 경제 지도 일'군들의 높은 책임성과 능숙한 지휘 능력을 요구한다.

중요한 것은 경제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조국의 륭성 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 정력적으로 일하려는 정치적 각오 정도를 높이며 자기의 당성 단련과 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기 위한 사상 수양을 강화하며 경영 활동의 복잡한 문제들을 솜씨 있게 해결할 줄 아는 관리 운영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으로 자신을 꾸준히 무장하도록 지도하며 방조하는 것이다.

경제 지도 일'군들의 정치 실무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 방법과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일정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실물로써 그들을 교양하며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이 방법이 리론 학습과 실무 학습을 결합시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며 당 정책의 정당성과 그 실행 방도에 대하여 각 방면에 걸친 다양한 분석 자료와 객관적인 실물로써 그들의 리해를 쉽게 하기 때문이다.

이 전형적인 모범 창조와 그의 일반화는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을 교양하는 유력한 무기로서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우리 당이 전통적으로 발전시켜 온 과학적인 지도 방법의 하나이다.

특히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청산리와 대안 전기 공장, 창성군, 숙천군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에 의하여 창조된 모범은 실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하에 창조되였으며 체계화된 위대한 사상,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 대안의 공업 지도 체계와 숙천의

농업 지도 체계, 창성의 산간 경리 운영 경험은 전 당의 지도적 리론으로, 행동의 지침으로 되였다.

경험은 전형적 모범의 창조와 현지에서의 그 경험의 일반화가 사무실에서의 수십 번의 강의나 결정서, 지시문의 하달보다 비할 바 없는 위력을 발휘하며 당 정책에 대한 일'군들의 인식과 그 구체화를 위한 조직 지도 사업의 정확성, 신속성을 다른 모든 방법에 비하여 수배로 촉진시킨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및 제 11 차 전원 회의는 인민 경제의 관리 운영을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상응하게 더욱 개선할 과업을 제기하면서 모범 창조와 그 일반화를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다시 강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1 차 전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전반적인 기업 관리 운영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범을 창조하여 그 경험을 널리 보급하며 기업소 관리 일'군들에게 관리 운영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소에 문서만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지배인, 당 위원장, 기사장, 부지배인, 직장장들에게 기업 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선 지배인 상학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다…

상들이 공장에 내려 가서 지배인과 같이 몇 달 동안 일을 하면서 기업소 일'군들을 가르쳐 주는 동시에 그들에게서 배우기도 한다면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기업 관리 운영의 훌륭한 모범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배인들의 상학조를 지도할 수 있는 생동한 제강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

경제 지도에서 모범 창조와 그 일반화는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며 포치된 사업을 총화하고 재포치하여 사업 조직을 계속 심화시킬 데 대한 당 지도 원칙의 구현으로서 커다란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이며 특수적인 것들은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있으며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

례를 들어 개별적인 제철 제강소들은 그 자체에 고유한 일련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매개 제철 제강소들의 기술 장비와 생산 공정들은 꼭 같지 않으며 기업소의 규모와 생산물의 량과 질이 동일하지 않다. 근로자들의 구성과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다르며 원료, 연료 조건과 그 수송 조건 그리고 후방 공급 조건과 자연 지리적 조건들이 각이하다. 이러한 개개의 제철 제강소들을 떠나서는 흑색 야금 공업 일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각이한 제철 제강소들은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부류의 원료, 연료들을 사용하며 방대한 물동을 취급하며 고열 작업 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야금 공업 기업소의 설비들도 모두 같지는 않으나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 기업소들은 경영 활동 상, 기술 관리 상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내부 예비의 최대한 동원 리용, 설비의 예방 보수 체계의 확립, 3 개월분 예비 부속품과 원료, 연료의 1 개월분 예비 확보 등 관리 운영 상에서의

원칙적 문제들은 어느 기업소에서나 공통적인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어느 한 재철 제강소도 흑색 야금 공업 기업소라는 일반적 개념 밖에 있는 특수한 존재로는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 기업소들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민 경제의 관리 운영을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이 두 측면 즉 공장, 기업소들이 처하고 있는 구체적 특성과 일반적인 공통성을 다같이 심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장, 기업소의 각이한 실태를 잘 모르고 생산 계획을 시달하거나 원료, 자재 공급과 기술 지도를 준다면 그것이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커다란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 지도만으로써는 결코 그런 기업소들의 구체적 요구에 맞는 생동한 지도를 보장할 수 없다. 일반적 지도에 치우치고 그에 개별적 지도를 배합하지 않는다면 형식주의와 나아가서는 관료주의적 작풍을 산생케 하며 문제 처리에서 주관주의를 면하기 어렵다.

일반적 지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들은 결정, 지시를 시달하며 하부 일'군들을 소집하여 회의, 강습, 지시 전달 등으로 당 정책과 상급 기관의 의도를 동시에 알려 주며 지도 성원들을 많은 공장, 기업소에 파견하여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공장, 기업소의 일반적 실태들을 료해 종합하는 등이다. 이러한 일반적 지도는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기업소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한다 하여 일반적 지도를 하지 않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공통적으로,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소홀히 한다면 경제 지도에서 목적 지향성을 잃게 되며 인민 경제에 대한 중앙 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과업은 경제 지도에서 일반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이를 짜고 들어 구체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당 정책 집행에서의 통일성과 기동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일반적 지도의 방법 상 제한성과 부족점을 개별적 단위에 대한 구체적 지도로써 극복하며 더 나아가서는 모범적 단위의 창조와 창조된 경험에 의한 하부 일'군들의 교양으로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더욱 능숙하게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였다: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결합시켜 당의 정책을 인민 대중의 실지 생활과 투쟁에 결부시키며 인민 대중이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조건을 지어 주며 대중의 투쟁 경험을 다시 일반화하는 것이 당의 진정한 령도 방법이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1960년 판, 249~250 페지).

성, 관리국을 비롯한 모든 경제 기관들은 공장, 기업소에 대한 일반적 지도를 끊임 없이 조직하면서 개별적 단위에 깊이 들어 가 구체적 지도를 조직하여 모범을 창조하는 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책임 일'군들이 지도 사업의 선두에 나서는 것이며 지도 대상의 선정, 지도 목적과 방침, 그에 근거한 지도 요강의 작성, 지도 력량의 편성, 지도 방법과 절차의 규정, 지도의 결속, 창조된 모범에 의

한 상학의 조직과 운영 등 지도의 정확성을 책임 간부들이 직접 장악하는 것이다. 또한 모범 창조를 위한 지도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당 조직의 정치적 지도와 통제 하에서 진행하며 이 사업에 광범한 대중을 조직적으로 망라시키며 지도 성원들과 지도를 받는 기업소 일'군들 간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지도 성원들이 해당 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을 대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주동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창조된 경험의 확고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모범 창조는 기업 관리의 전반을 개선하여 대안의 사업 체계의 전면적 확립을 지도 방조하는 방향에서 광범히 조직할 수 있으며 전력 관리, 열 관리를 비롯한 경영 활동의 개별적 측면들에 국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경험은 단번에 많은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모범 창조 그 자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경험 보급을 위한 상학의 내용을 복잡하게 하며 참가자들의 리해를 곤난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 번에 한 문제라도 실속 있게 취급하는 것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게 한다.

＊ ＊

전형적 모범의 창조와 그 경험의 일반화는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결합시키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구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의 하나이다.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혁명적 사업 방법이다.

어떤 사업을 새로 조직하고 전개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업에 망라될 간부들과 당원 및 비당원 대중에게 당 정책과 당면한 사업의 의의, 그 집행 방법들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데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 단계를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사업의 성과를 기대한다면 집행 상의 지연은 비롯한 예상치 못한 난관들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당 정책과 그 수행 방도들을 초급 및 중견 간부들과 전체 대중에게 신속 정확히 인식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간부들의 준비 정도가 각이하다. 간단한 지시 전달이나 한두 번의 강연, 해설로써 모두가 다 당의 의도와 수행 방도들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추게 할 수는 없다.

또한 당 정책을 집행하는 공장, 기업소들의 환경 조건도 각이하다. 아무리 구체적으로 조직된 강습이나 강연에서도 각이한 실정에 있는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과업을 일일이 다 해설하여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사업은 가장 창조적인 사업이며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요구하는 복잡한 사업이다.

경험은 당 정책 침투 사업을 각이한 형식과 방법으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조직 진행함으로써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그 내용을 전체 간부들에게 상세히 전달하며 그것을 다시 리론적으로 분석하여 더욱 알기 쉽게 해석하여 주며 더 나아가서는 한두 개 단위에서 직접 구현하여 현지에서 실물 교양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사업을 반복하여

야 한다. 이리 하여 정치 사업은 경제 사업의 구체적 문제들과 결합되여야 하며 대상의 준비 정도와 그들의 사업 및 생활 상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년간의 혁명 사업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

그러나 정치 사업을 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소에서 정치 사업은 당면한 경제 과업의 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전형적 단위에서의 모범 창조와 그 경험에 의한 방식 상학의 운영은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결합에서 매우 효과적인 형태이다.

당 조직들과 경제 기관들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창조된 생동한 모범은 가장 훌륭한 정치 사업의 산 자료이다. 창조된 모범은 리론과 실천의 결합체이며 당 정책의 본질적 요구와 그 집행 방법을 알기 쉽게 뚜렷이 보여 주는 표본으로 된다.

이 현실적 모범은 당 정책에 대한 간부들의 인식을 심화시킬 것이며 사업 조직에서 신심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공장, 기업소의 당 위원장, 지배인, 기사장, 부지배인, 직장장 등 당 정책 집행의 직접적인 조직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 많은 부문에 창조된 위대한 모범들은 얼마나 많은 간부들과 대중을 교양하였는가. 창조된 모범을 현지에서 목격한 전체 간부들은 당의 의도를 더욱 깊이 깨닫고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였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투쟁하였다. 이리 하여 창조된 모범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급속히 보급되여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작용을 놀았으며 또 놀고 있다.

례를 들어 대안 전기 공장에서 창조된 모범은 모든 공업 기업소들은 물론 인민 경제 전반에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 체계를 수립하며 기업 관리 수준을 새로운 단계에로 제고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이렇듯 모범 창조와 그 경험의 일반화는 간부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당 정책의 진수를 파악케 하며 자기의 전투 임무 수행에서 더욱 확고한 신심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모범 창조는 결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모범 창조가 거대한 교양적 역할을 수행하며 모범 단위가 정치 사업의 거점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당 조직들과 경제 기관 일군들이 그 준비 사업에 정력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모범 창조와 그에 근거한 방식 상학이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방식 상학은 당 정책 집행에서 얻은 경험에 대한 심오한 리론적 분석과 기업 관리 운영에서 실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결합되여야 하며 생동한 구체적 자료들로서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방식 상학에서는 우선 당 정책 집행 방법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창조된 경험은 인반화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았던 일련의 후과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상, 부상 등 책임 간부들이 공장, 기업소에 내려 가 기업 관리 운영을 실지 해 보면서 모범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학에서 취급될 강의 제강을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직접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방식 상학에서 취급되는 실무적 문제들도 당 정책과 국가 법규에 립각하여 선명하게 해석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방식 상학의 준비에 해당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인입시켜 어느 한 실무 기술적 문제도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스쳐 지나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방식 상학은 창조된 모범에 의한 경험을 일반화하는 강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에는 반드시 실물 교양이 배합되여야 한다.

례하면 각종 창의 고안과 새로운 시제품, 선진적으로 개조된 생산 공정, 새로운 로력 조직 방법, 공구, 부속품, 반제품, 원료, 연료, 자재 등의 보관 취급 방법, 합숙, 탁아소, 유치원들과 부업 농장, 목장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견학, 실물에 의한 해설, 기술 문건과 통계 자료 등은 상학에서 취급한 내용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자료들로 될 것이다.

이 모든 자료들의 준비는 면밀한 계획에 의하여 빈틈 없이 진행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방식 상학이 평범한 《구경》으로가 아니라 당 정책에 대한 일'군들의 인식을 깊게 하며 그 집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추동하는 훌륭한 학교로 되게 하여야 한다.

* *

모범 창조와 그 경험의 일반화는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며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된다.

모범 창조는 경제 기관들의 지도와 대중의 경험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모범은 몇몇 지도 일'군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 하에서만 창조될 수 있다. 따라서 모범 창조는 경제 기관들의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는 것을 촉진시킬 것이며 하부 실정에 더욱 정통케 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특히 성, 관리국을 비롯한 경제 기관들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사업의 성과는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의 노력만으로써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성, 관리국을 비롯한 경제 기관들의 행정 기술적 지도와 물질적 보장이 이와 배합되여야 한다.

경제 기관들의 지도 사업과 보장 사업은 생산 공정들에서 시시각각으로 제기되는 복잡한 요구에 민감하여야 하며 생산 계획의 승리적 수행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 동시에 경제 기관들의 지도적 활동은 생산 전선에서의 긴장한 투쟁과 조화롭게 일치되여야 하며 혈연적인 긴밀성을 상시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모범 창조와 방식 상학의 운영은 결코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의 교양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모범 창조는 경제 기관 일'군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호소, 명령, 지시에 대한 지나친 기대, 하부 일'군들의 빈번한 소집 등 사무실적 사업 작풍의 모든 잔재들을 더욱 철저히 퇴치할 필요성을 심각히 체험케 할 것이며 자기들의 행정 기술적 지

도와 원료, 연료, 자재들과 설비 및 부속품 등의 보장 사업에서 아직 얼마나 많은 빈틈이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생산의 정상화와 그 부단한 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약동하는 현실 속에서 진지하게 배우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범 창조는 일시적인 깜빠니야로서 한두 번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한 모범이 새로운 모범을 낳고 그것은 점차 보편화하며 련이어 새로운 모범을 창조하여 련속적인 앙양과 고조를 일으켜야 한다.

모범 창조와 방식 상학의 운영은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하는 좋은 계기를 열어 놓고 있다.

지도 일'군들은 단순한 지시 전달자가 아니다. 그들의 활동은 결코 일반적 호소나 강조로써 대치될 수 없다. 당 정책의 직접적인 조직자들인 경제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 집행의 선두에 서야 하며 솔선 시범하며 어렵고 복잡한 문제 해결에서 항상 주동적인 참가자로 되여야 한다.

모범 창조는 지도 일'군들이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들을 전달 침투할 뿐아니라 자신이 직접 생산 단위에 침투되여 그 집행을 조직하며 생생한 물질적 결과를 가지고 하부 일'군들을 재교양하는 혁명적인 사업 방법의 중요한 형태이다. 모든 지도 일'군들이 각이한 부문, 각이한 단위에서 이렇게 사업한다면 우리의 경제 전선들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모범들이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창조될 것이며 상하 간부들이 서로 배우고 배워 주는 생기발랄한 혁명적 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될 것이 명백하다.

전체 지도 일'군들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및 제 11 차 전원 회의 문헌 학습을 심화시키면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한 지난 기간의 경험을 심도 깊게 총화하고 이 사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구체적 방안들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리 하여 7 개년 계획의 방대한 전투적 과업 수행에서 전체 간부들과 군중이 한덩이리가 되여 높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며 이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모두다 선구자로 되게 하며 모든 초소들이 모범 단위로 되게 하여야 한다.

기업소에서의 기술 혁신에 대한 당'적 지도

김 능 일

지난 기간 우리 성진 제강소 당 위원회는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실현하는 길에서 일정한 성과와 경험을 얻었다.

당 사업 일반이 모두 그러하지만 기술 혁신에 대한 당'적 지도도 역시 창조적인 사업이며 거기에는 일반적인 틀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기의 실천적인 경험을 통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고리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였다.

즉 그것은 공장당 위원회가 기술 혁신에 대한 당의 방침과 의도를 기업소의 모든 성원들에게 칠저히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이 기술 혁신을 중요한 혁명 과업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며, 기술 발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며, 로동자와 기술자들 간의 창조적 협조를 잘 조직하며 전체 성원들로 하여금 과학 기술 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소유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제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여 보려고 한다.

기술 발전 계획을 틀어 쥐는 것이 중요하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이 기술 발전 계획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작성하며 칠저히 집행하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 발전 계획은 기술 혁신의 과제를 구체화한 당과 정부의 지령이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목적 지향성 있게 끌고 나가기 위한 지침이다.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 계획 뿐 아니라 기술 발전 계획을 수행하여야 생산과 기술을 전망성 있게 부단히 발전시킬 수 있으며 로동 생산 능률과 설비 리용률, 제품의 원가 등 기업소의 전반적인 질적 지표들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소의 모든 일'군들 속에서 기술 발전 계획도 생산 계획이나 다른 모든 계획과 같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당'적, 국가적 의무이며 또한 그것을 잘 수행하여야 생산 계획도 훌륭히 완수하며 기업 활동의 모든 측면들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설 침

투시키면서 이 계획을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세우게 하는 데 중요한 당'적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장당 위원회가 얻은 중요한 교훈은 일'군들로 하여금 기술 발전 계획 작성에서 주관주의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시기의 우리 공장 경험을 보면 기술 발전 계획을 작성하는 일부 일'군들이 기업소와 직장 또는 매 작업반의 구체적인 실정과 전망을 세밀히 조사 연구함이 없이 주관적 욕망에 끌려 계획을 세우려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를테면 기술 발전 계획 작성에서 선후차와 중심 고리를 잘 구분하지 못 하거나 계획에 예견한 대상들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과 가능성, 그 경제적 효과성 등 문제들을 충분히 타산하지 못 하는 례가 일부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극복하자면 반드시 기술 발전 계획 작성에서 일'군들이 주관주의를 극복하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였다.

공장당 위원회는 계획 및 기술 일'군들 속에서 기술 발전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기술 혁명 실천에서 기술 발전 계획 수행이 가지는 의의를 정확히 인식시키는 한편 당원들과 전체 로동자들의 집체적 의견을 종합하여 기업소가 현재 처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술 실태를 장악하며 기술 발전 계획 작성의 중심 방향과 고리들을 확정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장당 위원회는 일'군들로 하여금 기술 발전 계획 작성의 중심을 힘들고 품이 많이 들며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부문부터 먼저 기계화하는 데 두도록 할 수 있었으며 큰 대상들과 함께 작은 대상들도 모두 계획에 예견하여 집행하도록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기술 발전 계획을 생산 계획과 원가, 품질 제고 계획 등과도 직접 련계시킴으로써 이 계획들의 집행 과정이 서로 맞물려 돌아 가도록 하는 데 주목을 돌렸다.

오늘 우리 공장에서는 아직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생산 계획과 기술 발전 계획이 동떨어져 진행되는 일은 없게 되였으며 기술 발전 계획의 수행률도 비교적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해에 우리 공장에서 국가 기술 발전 계획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은 것도 이 계획에 대한 일'군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계획 작성에서의 주관주의가 현저히 극복된 것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기술 발전 계획 수행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군들 속에서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여 자체의 힘으로 현존 기계 설비들을 기술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급속히 발전하는 것 만큼 새 기술의 도입과 함께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 설비들을 기술적으로 부단히 개조하는 것은 기술 혁신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오늘 우리 당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현존 기계 설비들을 부단히 개조하여 나간다면 중요한 기계 설비들의 수명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으며 그 능력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은 잘 실증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군들 속에서 자기 공장의 설비를 자기들의 힘으로 개조하여 내겠다는 자력 갱생의 정신이 높이 발양될 때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공장당 위원회는 생산자 대중에게 현존 설비를 기술적으로 부단히 개조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서 기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인식시키면서 로동자들의 발기에 의하여 전개되기 시작한 《설비의 기술적 개조 운동》을 적극 지지해 주고 조직화하며 확대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주목을 돌렸다.

우리는 로동자들의 대중적인 설비 개조 운동을 조장 발전시키는 한편 기술 발전 계획도 주로 현존 기계 설비의 기술적 개조를 추진시키는 방향에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생산 공정의 종합적인 기계화와 자동화에 필요한 개별적 기대들을 능력에 맞게 하나하나 만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소의 기술 발전 계획을 수행하는 데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면에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우리 공장의 보수 직장 로동자들이 《설비 갱신 돌격대》를 조직하여 공장 기술 발전 계획에 예견된 강철 직장의 전기로와 압연기의 기계화 설비를 맡고 기술적 개조에 달라붙은 것도 그 하나의 례로 된다. 이러한 실례들은 공작 기계 직장을 비롯한 우리 공장의 모든 직장들에서 다 찾아 볼 수 있다.

그리 하여 최근 기간에만도 우리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기계화 설비 제작에 필요한 600 톤 프레스며 반자동 기대들을 만들어 냈으며 설비의 기술적 개조 사업을 활발히 추진시키고 있다.

기술 발전 계획 수행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공장 참모부 특히 기술 부서의 기술적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 혁신에 대한 대중의 창발성과 열성이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그들의 앙양된 열의에 지도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사업에서 큰 성과를 얻기 힘들다.

공장당 위원회는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적극 추진시키면서 공장 참모부와 기술 부서들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현장에 직접 접근시켜 모든 생산자들이 기술 관리를 개선하며 기술 지표들을 선진 수준에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방조를 주며 일단 작성되고 비준된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수행하는 강한 기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창의 고안, 측정 사업, 기술 통보 및 과학 기술 통보 사업 등도 모두 놓치지 말고 지도하여 나가도록 투쟁하고 있다. 또한 일부 책임 경제 일'군들과 기술 일'군들이 기술 혁신을 위하여 채점하여 주어야 할 일련의 보장 조건들에 대하여 잘 돌보아 주지 않거나 로동자들에게 《자체 해결》의 원칙만을 내세우는 안일한 사업 태도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당 조직들이 기업소의 기술 발전 계획의 작성과 그 집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세심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보장하는 것이 기술 혁신 운동을 줄기차게 끌고 나가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기술 소조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 혁신 과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선봉적이며 책임적 역할을 놀 수 있는 일정한 집단을 잘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술 혁신 운동에서의 이러한 집단은 기업소적 범위에서만 아니라 직장, 작업반의 범위에도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지난 기간 우리 공장당 위원회는 이러한 면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 하였다. 그리 하여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공장에서는 기업소적 범위에서만 아니라 직장, 작업반들에 이르기까지도 기술 혁신 운동을 진행하는 데서 선봉적, 책임적 역할을 놀 수 있는 일'군들의 조직된 력량이 없었다.

우리는 실제 경험을 통하여 직장이나 작업반들에도 기술 혁신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협의하고 책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일정한 집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였다. 이러한 집단을 꾸리는 것은 생산자 대중의 창발적이며 자각적인 열성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기술 혁신 운동을 더욱 목적 지향성 있게, 끝까지 추진시켜 나가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이후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기술 그루빠들이 조직되여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기업소적으로 조직된 기술 그루빠 외에 매개 직장과 작업반들에도 138 개의 기술 소조들이 조직되여 있다. 이 기술 소조는 직장내의 우수한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고급 기능공들을 망라하여 조직되여 있다.

공장당 위원회는 기술 소조에 망라된 핵심 일'군들과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거기에 망라되여 있는 전체 성원들이 직장과 작업반에 부과된 기술 발전 계획의 수행과 생산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보다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중요한 당'적 주목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또한 공장 기술 그루빠와 기술 부서들이 기술 소조들에서 제기하는 분석 사업, 측정 사업 등 기술적 문제들을 도와 주며 소조 성원들의 활동과 기술 연구에 필요한 기술 자료들과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도록 하는 데도 중요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기술 소조 성원들의 활동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기술 혁신 운동에서 기술 일'군들 특히 당원인 기술자들과 고급 기능공들의 역할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오래 동안 풀리지 않고 있던 기술적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여 나가고 있다.

우리 공장 제 2 조강 직장에서 압연롤의 공형을 개조하여 강재 생산 능력을 1.6 배로 높인 것을 비롯하여 중공강의 실수률 제고, 합금강 및 탄소 공구강의 탈환 방지 등과 같은 다년간 풀리지 않고 있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된 것은 이 기술 소조들의 활동과 직접 관련되여 있다.

기술 소조들의 역할을 높이며 기술 혁신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자면 기업소의 매 생산 단위들에서도 현대적인 측정 수단, 시험 기자재 및 시험 기구

들을 잘 갖추는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군들 속에서 우만 쳐다보려는 의존심을 없애며 매개 생산 단위들에서 기술 혁신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달라붙도록 하는 기풍을 수립하는 것이다.

경험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라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대담하게 분공을 주고 적극 방조하여 준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근 우리 공장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고온 측정계, 각종 분석기, 록고주파 유도로 등 적지 않은 현대적 실험 측정 수단들과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는 데서 우리는 그것을 절실히 체험하고 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모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알고 기술 혁신 운동에 책임적으로 참가하며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주동적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기풍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지혜를 내고 힘을 합치도록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에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는 것이다.

낡은 생산 방법을 타파하고 현대 과학 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도입하며 현실이 제기하는 복잡한 기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술 혁신 운동은 필연적으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과의 사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 중에서도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간의 호상 관계를 잘 설정하며 그들이 진심으로 창조적인 협조를 진행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인민 경제의 기술 장비가 비상히 강화되고 생산품에 대한 질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오늘 로동자들의 기능 하나만으로는 높은 생산 성과를 이룩할 수 없으며, 높은 기능과 숙련을 요구하는 현대적 기술 공정은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 기술 지식만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로동자와 기술자, 과학자들 간의 창조적 협조를 통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일'군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경험주의와 기술 신비주의, 보수성과 소극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꾸준하고 인내성 있는 투쟁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일부 로동자들 특히 오랜 일'군들 속에서는 협소한 경험주의로부터 새 기술 도입에서 기술 일'군들에게 적극 의거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나올 수 있으며 기술자들 속에서는 기술 문헌이나 리론 상으로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대담하게 책임적으로 접어 들지 못하는 부족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정으로 하여 그것은 더욱 그러하다.

우리 공장당 위원회는 이러한 면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지난 시기 생산 경험을 통하여 우리 공장의 용해공들은 변압기용 강의 생산 공정을 보다 단순하게 할 수 없겠는가를 오랜 기간 생각하여 왔으며 실지 적지 않은 시험도 해보았으나 성공하지 못 하였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술자

들에게 적극 의거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이것을 본 기술자들 측에서는 그 문제가 문헌에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하여 로동자들을 또한 대담하게 도와 나서지 못 하였다.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측에서 나타난 이러한 편향들은 그들 속에서 다같이 협소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없애고 진정으로 합작을 할 수 있도록 당 조직들이 꾸준히 방조하고 지도함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었다. 변압기용 강 생산에서 로동자들이 착안한 새로운 방법은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완성되였으며 그 후 성과적으로 생산에 도입되였다.

공장당 위원회는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속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당의 방침과 우리 공장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수차에 걸치는 현지 교시를 계속 반복 침투시키면서 협소한 경험주의나 소극성이 기술 혁명 과업 수행에 주는 장애를 산 경험을 가지고 납득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동시에 로동자들에게는 기술자들에게 적극 의거하여 새 기술을 힘써 배울 것을 언제나 강조하였으며, 기술자들에 대하여서는 책임 일'군들이 개별적으로 만나 그들의 의견도 듣고 전공 부문이 무엇인가도 직접 알아 보면서 기술 혁신 운동에서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백방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었다. 이 모든 것은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속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당의 방침과 의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며 그들 모두가 서로 믿고 서로 배우며 힘을 합치게 하는 데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 공장에서 도입된 창의 고안 및 합리화안 중 약 60%가 로동자들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은 요인의 하나도 기술 일'군들의 진심으로 되는 협조와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간의 창조적인 협조가 강화됨에 따라 이들 속에서는 우리 나라 제강 공업의 특성에 부합되게 주체적 립장에 서서 공장의 기술 관리와 기술 문제를 풀어 나가는 창조적인 사업 태도도 더 많이 찾아 볼 수 있게 되였다.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기술 혁신 운동에 최대한 동원하자면 그들의 자질을 부단히 높이며 선진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가 또한 절실하게 제기된다.

기술 혁신 운동을 공고한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며 우리 공업을 더욱 선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생산에 참가하는 성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자들이 현재의 기술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최신 과학 기술을 꾸준히 연구 체득하도록 당'적 주목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기술자들로 하여금 기술 발전의 세계적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그 성과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섭취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면 기술자들 속에서 외국어 학습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모든 기술자들이 외국어를 능숙하게 소유하여야 과학 기술 발전의 세계적 추세를 더 잘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다.

공장당 위원회는 기업소적으로 이미 외국어를 소유하고 있는 일'군들을 료해 장악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외국어 학습반을 광범히 조직 운영하는 한편

공장 도서실의 기술 도서 리용률을 높이며 기술 참고 문헌들을 더욱 보충 정리하여 나가는 사업을 조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기술자들이 자기의 전망적인 자질 향상 목표를 명확히 세우게 하며 전공과 직종에 따라 그들에게 현행 기술 공정에 대한 연구 과제를 구체적으로 주어 전망 연구 사업과 현행 기술 학습을 동시에 추진시키는 데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물론 기술자들의 자질을 짧은 기간에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초보적인 사업에 지나지 않으나 그들이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 사업의 중심을 찾는 데 도움을 주며 일'군들의 연구 사업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케 하는 데 일정한 의의가 있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기술 혁신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함에 있어서 우리 공장 당 위원회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 운동을 당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보다 철저히 전환시킴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당면한 생산 과제의 수행에 대하여서만 아니라 전망적인 기술 발전 계획 수행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책임성을 가지도록 지도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들, 당 일'군들 자신이 현행 기술 문제에 대하여 깊이 료해하고 분석할 줄 알며 기업소 경영 활동의 전반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투쟁에 보다 효과적인 지도를 줄 수 있도록 기술 경제 지식을 더욱 폭 넓고 깊이 있게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현시기 공장, 기업소 사업의 중심 고리가 바로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데 있다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깊이 명심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이다.

(필자는 성진 제강소 당 위원회 위원장임)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조 웅 환

지금 남녘 땅에서는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애국적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

작년 봄부터 시작되여 근 2년 간이나 계속되고 있는 이 투쟁은 그 규모, 성격 및 의의 등에 있어서 4월 인민 봉기 이후 가장 큰 대중적 항쟁이다.

이 투쟁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 략탈과 민족적 억압의 강화, 파쑈 테로 통치로 인한 정치적 무권리, 특히 《한일 회담》을 통한 일제의 재침 책동의 로골화 등에 의한 남조선 사회의 심각한 모순에 토대하여 발단되였다.

그러므로 이 항쟁은 남조선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의 마수를 꺾어 버리고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파쑈 테로 통치를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숭고한 애국 투쟁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은 이 성스러운 청년 학생들의 애국 투쟁에 호응 궐기하여 그들의 투쟁 대오에 합류하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영웅적 항쟁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1

《한일 협정》을 분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그 내용과 투쟁의 심화 발전 과정으로 보아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제 1 단계(1964.3.24~6.5)는 《한일 회담》의 최종 결속을 저지시키기 위한 3.24 투쟁과 6.3 봉기 시기이다.

극도의 생활고와 무권리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울분은 《한일 회담》 최후 결속을 위한 원쑤들의 반악적 책동을 계기로 폭발되였다.

작년 3월 24일 서울시 내 학생들의 첫 봉화는 삽시간에 남조선 전역에 퍼지였으며 이에 시민들이 합류함으로써 투쟁은 대중적 성격을 띠고 발전하였다.

남조선 학생들과 인민들의 진출에 당황한 박 정희 도당은 부득이 진행 중이던 《한일 농상 회담》을 중지하고 예정되였던 《외상급 정치 회담》을 보류하였으며 《한일 회담》의 최종 결속을 위하여

일본에 가 있던 김 종필은 소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일 회담을 즉시 중지하라》는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거역하고 매국 흥정을 계속 추진하려고 광분하였다.

이 자들은 《한일 회담 돌격 내각》을 조작하고 청년 학생들의 시위 투쟁을 억누르기 위하여 학원에 대한 정치 사찰을 일층 강화하는 한편 《대학생들을 위한 한일 문제 강연회》를 진행하는 등 회유 기만 조치도 취하였다.

박 정희 도당의 이러한 책동을 박차고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은 4월 인민 봉기 4 주년을 전후하여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였다.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폭압이 강화되자 평화적 시위는 폭력적 진출로 전환되였으며 점차 반《정부》적 성격을 띠면서 심화 발전되였다.

6월 3일에 이르러 학생들과 인민들은 《박 정희 정권 타도》를 행동 강령으로 내걸고 《국회 의사당》 앞에 집결하여 《청와대》를 향해 돌진했다.

위기에 직면한 남조선 위정자들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원쑤들의 야수적 폭압으로 고조되였던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은 일시 저조기에 들어 섰다. 투쟁은 금년초에 이르기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되였다.

제 2 단계(1965.3.31～현재)는 《한일 협정》의 조인과 《국회 비준》을 반대하며 그의 무효화를 위하여 투쟁한 시기이다.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폭압으로 일시 저조 상태에 있던 《한일 협정》 반대 투쟁은 3월 31일 전남 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를 발단으로 하여 또다시 앙양되기 시작했다.

《4.3 가조인》을 반대하는 이 투쟁에는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참가하였다.

남조선 학생들과 인민들은 지난해에 비하여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폭압이 보다 강화된 조건에서 처음부터 조직체를 결성하고 투쟁을 근기 있게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6.3 동지회》를 중심으로 《평화선 사수 학생 련합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체적 투쟁 방침을 수립하였다.

4월 인민 봉기 5 주년을 전후하여 수만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성토 대회와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무장한 군대, 경찰과 류혈적인 격투를 벌리였다.

이에 당황한 워싱톤 지배층은 4월 말과 5월 초에 걸쳐 미 고위 관리들을 남조선에 련달아 파견하는 한편 박 정희를 워싱톤에 호출하여 기어코 《한일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모의를 거듭하였다.

워싱톤 지배층의 이러한 모략을 계기로 남조선 학생들은 《미국은 약소국을 정치적 수단으로 리용하지 말라》, 《한일 회담에 간섭하지 말라》는 반미 구호를 들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조인된 《한일 협정》의 《국회》 비준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는 더욱더 많은 계층들이 망라되였다.

학생들과 인민들의 견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 도당은 《공화당》만의 일당 《국회》에서 《한일 협정》을 강압 통과시켰다.

이를 계기로 8월 20일부터 투쟁은 또다시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이 투쟁은 일련의 특성을 보여 주면서 심화 발전하고 있다.

2

《한일 협정》을 분쇄하기 위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의 성격은 미 일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는 반제 애국 운동인 동시에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적 정책과 파쑈 통치를 반대하는 반파쑈 민주주의 운동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또다시 학생 청년들의 대규모적인 반제 반파쑈 투쟁이 일어 났다.

이 투쟁은 처음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을 반대하며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반〈정부〉적 성격을 띠고 현 박 정희 정권을 타도하는 투쟁으로 나아갔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회 혁명을 위한 모든 운동의 성격은 주로 그 운동이 어떤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며 그 구호는 무엇이며 어떠한 과업을 해결하려는가에 의하여 규정 지어진다.

금번 남조선 학생들의 투쟁은 우선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 특히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과 관련하여 미 일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인민들 간에 얽힌 민족적 모순의 해결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것은 운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한 징표의 하나인 항쟁자들의 구호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한일 협정》 반대 투쟁의 초기였던 작년 3.24와 6.3 봉기에서 시위자들은 《왜놈의 침략 근성을 뿌리 뽑자》, 《일본 제국주의를 박살하라》는 등의 구호 하에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러나 투쟁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청년 학생들은 점차 반미 구호를 전면에 제기하면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시위 군중들은 《한일 협정 체결의 주범은 바로 미국이다》, 《우리는 윁남 사태에 양키들의 총알 방패가 될 수 없다》, 《미국은 간섭하지 말라!》 등의 반미 구호를 웨치며 원쑤들의 아성을 향하여 육박하였다.

이와 같이 투쟁이 반제적 성격에서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변화는 반미적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이다.

원쑤들의 야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항쟁 군중들이 이처럼 반미 구호를 들고 싸운다는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뿌리 깊이 사무쳐 있는 반미 감정이 마침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것은 사태 발전의 응당한 귀결이다.

양키 침략군을 그 대로 두고는 일제의 재침략도 물리칠 수 없고 웰남 파병도 막아 낼 수 없고 조국 통일의 민족적 숙원도 이룩할 수 없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이 투쟁의 예봉을 점차 미제에게 돌리기 시작한 것은 천만 번 정당한 일이다.

투쟁의 성격은 반《정부》적 측면에서도 심화 발전되였다.

작년 3.24 투쟁에서 청년 학생들은 《한일 회담》과 박 정희 도당의 매국성을 반대 배격하는 데 투쟁의 예봉을 돌렸다면 금년의 《한일 협정》 무효화를 위한 투쟁에서는 박 정희 《정권》의 타도를 전면에 제기하였다. 《나라 팔고 축배 드는 매국 정권 타도하자》, 《매국 국회 해산하라》, 《박 정희 독재 뿌리 뽑자》 등의

전투적 구호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쑈, 반《정부》적 기세가 얼마나 드높은가를 보여 준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비호 하에 괴뢰 정권에 들어 앉은 이후 지난 4년 간에 남조선을 암흑 천지로 더욱 전변시키고 상전이 시키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팔고 일제를 업어 들이는 것도 부족하여 동족을 미제의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넘겨 주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이야말로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 반역자이며 매국노이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오늘 외래 침략 세력과 결탁하여 망국의 재난을 강요하여 나선 민족 반역자들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선 것은 응당한 일이다.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심화 발전되는 과정에서 일련의 주목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주동이 된 이 투쟁은 점차 대중적 성격을 띠고 확대 발전하고 있다.

이 투쟁에는 광범한 계층들이 참가하였는바 작년 3월 24일부터 금년 8월 말까지 투쟁에는 65 개의 대학과 204 개의 중 고등 학교 학생 69만여 명, 시민 65만여 명, 종교인 60여만 명 등근 200만 명이나 참가하였다.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책동이 로골화되고 《한일 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 예비역 《장성》, 지어는 일부 보수 정객들까지 자기들의 조직체를 가지고 반제, 반《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재경 대학 교수단》, 《대한 변호사 협회》, 《자강 학회》, 《한국 문인 협회》, 《4.19 학생회》, 《민족 문화 협회》, 《기독교 련합회》, 《천도교》, 《우국 로인회》 등 단체들은 성명, 담화, 성토 대회 등을 통하여 박 정희 도당의 매국 책동을 규탄하고 《한일 협정》의 조인을 반대하였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연 60만 명이나 동원되여 시위, 《구국 기도회》,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직들은 서로 련합하여 《조국 수호 국민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이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대중적 성격을 띠고 발전하고 있는 것은 투쟁의 첫 봉화를 든 청년 학생들이 각 계층의 리해 관계를 반영한 구호와 요구들을 제기하고 투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이 미일 제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될 준엄한 시각에 민족적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앉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이며 애국적인 각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반미, 반일 구국 통일 전선을 결성할 수 있는 지반이 점차 조성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완강성과 지구성을 띠고 발전하고 있다.

그들은 괴뢰 경찰 및 군대와의 류혈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지난해 이미 70여 일 간에 걸친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금년 초부터 또다시 투쟁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완강하게 계속하고 있다.

괴뢰 경찰 및 군대들과의 류혈적인 투쟁의 선두에는 언제나 청년 학생들이 섰으며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에 합세하여 괴뢰들과 완강하게 투쟁함으로써 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투쟁의 격렬성은 작년 3월 24일부터 금년 8월 말 현재까지 괴뢰 경찰 부상자 3,182 명, 경찰 기관 파괴 18 개소,

경찰 자동차 파괴 43 대에 달한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투쟁에서 표현된 지구성과 완강성은 이 투쟁이 정의롭고 전 인민적 성격을 띠였을 뿐만 아니라 투쟁 목적이 명백하고 항쟁의 주동 세력이였던 청년 학생들의 투쟁 대렬이 더욱더 조직화된 데 기인한다.

특히 이것은 끝까지 투쟁하여 외래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출하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굳은 결의에 기초하고 있다.

세째, 《한일 협정》 반대 투쟁은 매 시기 조성된 정세와 투쟁의 정황에 적응하게 다양한 투쟁 형식과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투쟁에 나선 학생들과 인민들은 박정희 도당의 우심한 파쑈적 폭압 하에서 적아 간의 력량 관계와 투쟁 정황을 고려하여 진공과 방어를 능숙하게 배합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투쟁을 이끌어 나갔다.

그들은 투쟁의 준비 시기에는 학술 토론회, 강연회, 성토 대회 등을 조직하였으며 투쟁의 앙양 시기에는 《화형식》, 《장례식》, 시위, 폭동 등 적극적인 투쟁 형식을 취하였다. 또한 투쟁의 방어 시기에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투쟁을 중단 없이 계속하기 위하여 단식 투쟁과 서명 운동, 외래품 배격 운동 등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전개하였다.

3

작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한일 협정》 반대 투쟁은 남조선 혁명 정세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투쟁은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더욱 뒤흔들어 놓았다.

인민들이 영웅적 항쟁으로 《한일 협정》의 최종 경속을 지연시킴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재침 책동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골간으로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결성하여 극동에서의 침략 체계를 강화하려던 미제의 흉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한일 협정》 반대 투쟁에 부딪친 박정희 도당은 인민들로부터 더욱 철저히 고립되였으며 특히 군부 내에서의 반박정희 쿠데타 음모 사건이 일어나는 등 그의 통치 집단 내부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친미, 친일 매판 세력에도 강한 타격을 주었다.

항쟁자들은 자기들의 투쟁을 《반보수, 반매판, 반외압 ,반식민주의 구국 항쟁》이라고 하면서 《악덕 재벌 잡아 먹자》, 《매판 자본 몰수하여 산업 자본으로 하자》 등의 구호를 들고 매판 세력의 타도를 요구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한일 협정》 반대 투쟁은 남조선 인민 운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번 투쟁 행정에서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정체와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행위가 전면적으로 폭로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더욱 제고되였다.

적지 않은 인민들은 종래에 《한일 회담》의 침략적 본질을 잘 모르고 있었으나 투쟁을 통하여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정체를 점차 리해하게 되였다. 이것은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수십만 명의 종교인들까지 참가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각성되기 시작한 남조선 인민들은 비단 《한일 협정》 뿐만 아니라 괴뢰군의 남부 웰남 파병과 침략적인 《한미 행정 협정》 등도 반대하여 나섰다.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세계 제국주의 원흉인 미제가 강점하고 있고 박 정희 도당의 군사 파쑈 통치가 실시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도 남조선 인민들이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제국주의 압제 하에 있는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고무하여 주었다.

특히 이 번 투쟁을 통하여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 청년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놀아야 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최근 일본의 학생들과 인민들은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의 결성을 통하여 또다시 일본 인민들을 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 넣으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한일 협정》 체결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미 일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박 정희 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며 혁명 정세를 성숙 발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작용을 놀고 있다.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금후 남조선에서의 혁명 운동을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험과 교훈을 남겨 놓았다.

《한일 협정》 반대 투쟁 행정은 혁명 력량의 통일성과 조직성을 강화하는 것이 승리의 결정적 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번 투쟁은 종래에 비하여 운동의 조직성과 련대성이 비교적 보장된 투쟁이였으나 혁명 정세의 객관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투쟁에 망라된 모든 계층들이 아직 철저히 조직화되지는 못 하였으며 행동 통일을 보장하지 못 하였다.

특히 이 번 투쟁에는 학생들을 중심 세력으로 하여 일부 시민들과 각 계층 인민들이 참가하였으나 광범한 로동자, 농민이 참가하지 못 하였다. 만일 남조선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이 합세하였더라면 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으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이 번 투쟁에서의 중요한 교훈은 적들의 반혁명 공세를 제압하고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혁명 정세 발전에 적응한 적극적인 조치를 제때에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박 정희 도당이 학생 투쟁 진압에 경찰 뿐만 아니라 중무장한 괴뢰군까지 동원하는 조건에서도 시위자들은 이에 맨 주먹으로 대항하여 나섰다. 따라서 시위자들은 원쑤들의 아성—《청와대》, 《중앙청》에 도달하지 못 하고 적들의 류혈적 폭압에 제지 당하였다.

경험은 광범한 대중이 투쟁에 궐기할 뿐만 아니라 폭력에는 폭력으로, 피는 피로 대항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오늘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이 자기의 투쟁 과정에서 얻은 이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살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고 《한일 협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할 때 더 큰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민족 문화 유물의 략탈과 파괴를 허용할 수 없다

김 호 섭

우리는 민족의 정신 문화 생활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물질 문화 유산들을 수 많이 가지고 있다.

선조들의 슬기로운 기상과 재능이 담겨져 있는 문화재는 우리 나라 력사의 유구성과 문화 발전의 높은 정도를 과시하는 증거로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옳게 계승하고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 바탕으로 되며 우리 인민을 애국 전통과 주체 사상으로 교양하는 힘 있는 직관 교재로 된다.

실로 문화재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보이다. 이를 고이 보존하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노력은 애국심의 높은 발현이며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민족적 의무이다.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민족 문화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모든 문화재를 인민의 소유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 보존함과 함께 이 사업에 항상 커다란 사회적 관심이 돌려져 왔다. 그리 하여 일제에게 짓밟혔던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이 새로이 정리되고 파괴된 유적, 유물들이 복구되였으며 고고학적 발굴 사업의 발전으로 귀중한 문화재가 수 많이 보충되였다. 또한 문화재의 해외 반출이 법적으로 엄금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략탈되여 간 문화재를 찾아 오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여 이미 수백 점의 국보적인 유물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 왔다.

그러나 미제가 둥지를 틀고 있는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고귀한 문화 유산은 판이한 운명을 겪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문화재들이 일제 통치 시기보다도 더 한심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파괴의 정도가 해마다 더 커 가고 있다. 그것은 민족 문화재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인 략탈과 파괴 그리고 이를 백방으로 비호 보장해 온 괴뢰 도당의 매국 배족적 행위의 후과이다.

문화재의 략탈과 파괴는 제국주의 침략에서 중요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정책에서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책동이다. 그들은 예속 국가 인민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 강요된 노예적 운명에 순종케 함으로써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영구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인민들의 정신 문화 생활에서 일체 민족적인 것을 거세하려고 광분하며 그 중에서도 그 나라의 문화 유물을 략탈하고 파괴하는 데 집요한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문화재가 민족의 력사와 문화 전통을 직관적으로 보여 주면서 그 나라 인민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계발하며 애국, 애족의 사상을 고취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황금을 얻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타 민족의 문화재 략탈은 강도적인 치부의 한 수단으로도 되는 것이다.

미제도 례외 없이 조선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문화재의 략탈자이며 파괴자로, 그 악랄성에 있어서 류례가 없는 민족 문화의 교살사로 출현하였다. 1866년 《샤만호》 침입 사건과 이에 뒤이어 1868년 미국 자본가 젠킨스에 의하여 조직된 《챠이나호》 해적단의 덕산 남연군 묘 도굴 사건 등이 이것을 잘 말하여 준다.

우리 민족의 문화 유물에 대한 미제의 야만적인 모독과 유린 행위는 그들이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된 후에 본격화되였으며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였다.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말살하려는 미제의 범죄적인 책동에서 가장 주되는 것은 강도적인 략탈이다. 이로써 그들은 남조선 인민의 민족 정신을 거세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저들의 치부욕도 성취하는 《일석이조》의 리득을 보려는 것이다.

남조선 강점 20 년 간에 미제 침략자들은 온갖 야비하고 교활한 방법을 다하여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수 없이 략탈하여 갔다.

강점 초기에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적산》이니, 《전리품》이니 하는 터무니 없는 딱지를 붙여 남조선의 박물관, 도서관들에 소장된 국보적 문화재와 사찰, 향교, 서원, 사당 등에 보관되여 온 유물들을 백주에 공공연히 훔쳐 갔다.

1947년에는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에서 고려 대장경 판목의 일부와 훈민 정음 해례본을 훔쳐 갔고 1949년에는 경복궁 박물관에 진렬해 놓은 신라 시대의 금관(서봉총에서 출토한 것)을 비롯하여 목걸이 구슬, 팔찌, 금반지 등을 도적질해 갔다.

이리 하여 1949년까지에만 하여도 무려 수만 점의 문화재가 미국으로 실려갔는데 이에 대하여 남조선 출판물도 《최근(1949년) 미국에서 2만 4,080여 점의 귀중한 유물을 발견하였다》라고 개탄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략탈 행위는 남조선 사회계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미제는 로골적인 략탈 방법을 버리고 괴뢰 위정자들을 시켜 인민의 눈을 속이는 사기, 협잡 방법을 계통적으로 조작하게 하였다.

우선 조작된 것이 1949년에 들고 나온 《국보 소개안》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자신을 문화재의 철저한 보호자로 가장하면서 조선 전쟁이 도발되기 1 년 전에 벌써 국보를 《안전 지대》에 옮길 필요성을 떠들어 댔다. 《소개》라는 구실로 미제는 1949년 6월에는 개성 박물관에서 고려 자기를 비롯한 수백 점의 보물을, 1950년 3월에는 전주 명륜당에 보관되고 있던 《동의 보감》 판목을 미국으로 실어 갔다.

전시에는 이 협잡안이 대량적인 략탈을 합리화하는 방패로 되였다. 그 한 실례로 전쟁 초기에 미제와 리승만 역도는 남으로 도주하면서 서울, 경주, 개성 등지의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던 문화재만 해도 1만 225 점이나 부산으로 끌어 갔는데 부산도 공고한 후방이 못 된다는 《리유》를 붙여 그 중 가장 값진 것은 모조리 미국으로 실어 갔다.

전쟁이 끝남에 따라 《국보 소개안》으로써는 인민을 더 기만할 수 없게 되였다. 미제는 문화재 략탈의 새로운 간판으로써 괴뢰들로 하여금 그 때마다 문화재 《해외 전시안》이니, 문화재 《수출안》이니 하는 것을 조작하게 하고 지어 《국회》에 통과시키는 연극까지 놀게 하였다.

특히 박 정희 군사 깡패를 정권에 들여 앉힌 후에 조작케 한 문화재 《수출안》은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의 문화 유물을 합법적으로 략탈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써 오던 방법으로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영국이 인도에서, 프랑스가 웬남에서, 화란이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이 필리핀에서 이미 이런 방법을 써 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1916년에 일제가 문화재 수출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저들의 략탈을 법적으로 보호하였다. 리승

만 역도는 이 일제의 《법》을 유형 무형으로 존속시키면서 미제의 략탈을 보장하였는데 박 정희 도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 그것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전에 대한 충성을 표시한 것이다.

문화재 수출 《특허권》이란 본질 상 괴뢰 도당과 상전 간의 《바치고》, 《빼앗아 간》 데 대한 사전 언약을 합법화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수출》 문화재를 감정한다는 문화재 위원회 위원들까지도 《우리로서는 전부 허가하지 않고 싶지만 고위층으로부터 말도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고 실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 역적은 파렴치하게 여기에 《외화 획득》을 위한 조치라는 덧옷을 입히고 있다.

수출 특허의 《혜택》으로 계속 수다한 문화재가 미국은 물론 일본에까지 략탈되여 가고 있다. 1963년 5월에 한국 경제 문제 연구소장이라는 자의 중개로 리조 백자, 목공품 등 공예품 140 점이 미국 《앰사》 수입 회사에 의하여 미국으로 실려 간 사실, 역시 그 해에 《일본 경제 시찰단》으로 남조선에 기여 든 하야시라는 자가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일본으로 실어 가도록 보장받은 사실 등 허다한 실례들이 이를 증명해 준다.

문화재에 의한 《외화 획득》이란 박 정희 도당이 미제의 략탈을 보장해 주고 얻는 돈을 자기의 개인 정치 자금으로 쓰려는 데 목적이 있다. 심지어 이 매국 역적들은 상전의 《보호》와 《은총》을 잃지 않기 위하여 국보적 문화재를 상전들에게 개인 선물로 주는 죄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괴뢰 집단 내부에서까지 국립 박물관에 진렬되고 있던 고려 및 리조 시기의 자기와 공예품 등 2억 원에 해당하는 문화재 4,000 여 점이 대장에 기록도 없이 《전부 관리들의 임의의 선물로》 없어진 사실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에 의하여 략탈될 대로 략탈된 남조선의 물질 문화 유물들은 지난 20 년 간에 또다시 미제에게 더욱 악랄하게 략탈 당하였다.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인 략탈은 유서 깊은 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야만적인 파괴와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였다. 민족 문화 유산을 송두리째 없애 버리려는 미제 침략자들은 략탈해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략탈해 가면서 뜻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모조리 파괴 훼손시키는 죄악적인 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선의 력대 왕릉에서 보물들을 략탈해 가기 위하여 미제 침략자들이 상습적으로 고분들을 마구 파 헤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파괴할 뿐만 아니라 《호리군》이라는 악당을 조직하여 분묘를 파 헤치게 하며 지어는 일본인 《기술자》까지 끌어 들였다.

또한 그들은 육중한 석탑, 석등까지도 략탈의 대상으로 삼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력사적인 기념물을 마구 헐어 내였다.

특히 미제 침략자들은 군사 시설의 확장으로, 전시에는 무차별 포격과 폭격으로 문화재를 다량적으로 파괴하였다.

1948년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랜 천문대인 경주 첨성대를 미 군용 도로 건설이라는 《구실》로 그 일부를 허물어뜨렸으며 1949년에는 개성의 만월대에 미군 병영을 짓기 위하여 불도젤로 만월대의 초석을 파 뒤지려고까지 하였다.

전쟁 시기에 미제 침략자들은 《국제 문화재 보호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군사 시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박물관, 명승, 고적들을 페허로, 재'더미로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고구려 벽화 무덤들에 대한 파괴 행위 같은 것은 20 세기 야만으로서의 미제의 본성을 더욱 여실히 보여 준다. 일시 룡강군에 기여 들었던 미제 날강도들은 그 곳에 있는 대총, 쌍영총의 고구려 벽화들을 뜯어 내려고 날치다가 뜻을 이루지 못 하게 되자 수백 발의 총탄을 란사하여 벽화를 성한 곳 없이 뚫어 놓았다.

미제의 문화재 말살 책동에서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략탈, 파괴 방법 뿐만 아니라 은폐된 교활한 파괴 방법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저들이 직접 략탈하고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인민의 수 많은 문화재를 모조리 없앨 수 없다는 것을 타산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괴뢰 위정자들로 하여금 유적, 유물들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포기하고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도태되게끔 방임하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간악한 교살자들은 저들이 감행한 략탈과 파괴의 엄중한 후과를 모호하게 만드는 한편 저들이 미처 손을 대지 못한 대상들까지 모조리 없애 치우려고 하였다.

괴뢰 도당은 상전의 이 지시도 물론 충실하게 집행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전쟁의 포화를 요행 피하고 간신히 파괴를 면한 고적들마저 괴뢰 도당의 방임으로 허물어지고 못 쓰게 되였으며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문화재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지정 문화재》만을 놓고 보더라도 긴급한 수리 대상은 1956년에 107 건이였는데 1959년에는 422 건으로 격증하였다.

박 정희 도당의 군사 파쑈 통치 하에서 문화재의 파괴는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그놈은 매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를 《문화재 애호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그 보호 관리에 배려를 돌리는 듯이 가장하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문화 유물의 파괴를 조장시키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첨성대는 이미 1948년에 미 군용 도로 공사로 일부가 파괴된 이후로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 석축한 틈이 벌어져 점점 더 기울어 가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애국 명장 권 률의 사당은 《옛날 이야기에 전해 오는 도깨비 사당을 방불케 할 정도로 황폐화》되였다. 또한 경상남도에 단하나 밖에 남아 있지 않는 통일 신라 시기의 석탑도 《넘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괴뢰 도당은 《사적지 개간 특허》라는 것을 꾸며 가지고 유적의 파괴를 적극 장려하면서 거기서 부당한 리득을 얻는 행위까지 감행하고 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박 정희 도당은 부여에 있는 고적 궁남지(宮南池)를 지목까지 변경시켜 모리배와 결탁하여 그 두리를 9,000여 평이나 경작하게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경작지에서 난 소출 분배를 둘러 싸고 추잡한 싸움판을 벌리고 있다. 궁남지로 말하면 백제 시기의 최대의 인공 못이며 당시의 조원(造園) 기술의 극치를 이루는 오직 하나 남은 귀중한 유적이다.

더우기 박 정희 도당은 유적을 보수한다고 인민들에게서 긁어 낸 비용을 저들이 횡취하고 보수 공사는 하나마나 하게 해치우는 죄악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석굴암 보수 공사 하나만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1961년 9월 2천 2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을 인민들에게서 짜 내여 착공한 석굴암 공사는 3 년 간이나 질질 끌다가 1964년 7월에야 준공식이라는 것을 벌려 놓았는데 준공한 당일로 불상의 등에서 물이 흘러 내려 구경 온 인민의 격분을 자아내게 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우리의 귀중한 문화 유산들이 당하고 있는 혹심한 상태에 대하여 말하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은 최근 년간 박 정희 도당이 요란하게 떠들어 대는 문화재 《보호》 정책의 기만성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정책이 일제의 그것과는 달리 형식 상 괴뢰들의 정권을 통하여 집행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력대 괴뢰 위정자들의 문화재에 대한 《정책》 역시 미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이며 그들의 문화재 략탈과 파괴에 복무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었다.

사실 상 리 승만 역도는 《집권》 전 기간을 통하여 문화재의 보호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으며 《보호법》조차 변변한 것이 없었다. 다만 있었다면 1933년에 일제가 저들의 략탈과 파괴의 방패로 삼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보물

고적 명승 천연 기념물 보존령》과 《사찰령》을 《대한 민국 보존령》으로 이름을 바꿔 《보존》한 것 뿐이다.

《조선 총독》을 《대통령》으로, 《정무총감》을 《문교부 장관》으로, 《보물》을 《국보》로 하는 등 몇 군데 글'자만을 갈아 넣은 이 일제의 략탈적 《보존령》은 그대로 미제의 략탈과 파괴를 보장하는 《법》으로 되였다.

그러나 파쑈 테로 통치를 반대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 더욱더 높아 가는 민주주의적 권리의 요구와 민족 주체 의식은 민족 문화 유산의 보호 관리에 대한 문제에서도 강력하게 표현되였다.

새로운 주구로서 정권에 기여 오른 박 정희 도당이 황급히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이러한 인민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국보 재지정》 사업이요, 《문화재 보수》요, 《도굴 단속》이요 하고 떠들어 대며 1964년에는 《보수 5 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내걸고 《애호 기간》을 설정하는 등 무엇인가 하는 척 연극을 놀았다. 그러나 남조선 문화재의 현 상태는 박 정희의 《보호 정책》의 더욱 악랄한 반인민적인 본질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우선 《국보 재지정》 사업을 놓고 말해 보자.

박 정희 도당은 리 승만 통치 때 지정한 문화재들을 1962년과 1963년 두 차례에 걸쳐 재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괴뢰들은 지정 문화재의 총수를 축감해 버렸으며 종전에 국보로 치던 것을 국보와 보물로 갈라 놓고 《엄선한다》는 구실 하에 대부분의 국보를 보물로 깎아 내렸다. 이리 하여 1962년에 572 점이던 국보는 1963년에 116 점으로 축소되였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력사가 오래고 민족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문화 유산의 보호에 힘을 쓰고 고고학적 발굴 사업이 강화되면 될수록 물질적 및 정신적 문화재들은 더욱 풍부화되는 법이다. 특히 고대 동방 문화의 발상지의 하나인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국보적 재보들을 수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입으로 문화재 보호를 떠드는 박 정희 도당의 치하에서는 국보가 해마다 축감되고 있는 것이다. 박 정희의 국보 축감 책동의 본질적 목적은 오직 미제와 그 주구들이 감행한 략탈, 파괴의 죄상을 은폐하려는 데 있다.

이미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제와 괴뢰들의 범죄적 행위로 많은 국보들이 명목 상으로만 존재할 따름 그 행처를 밝힐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유적, 유물도 의도적인 방임 때문에 파손되고 황폐화되여 이미 국보로서의 품격을 잃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출판물도 《현재 남조선에 실재하고 있는 구 국보 505 점을 비롯한 문화재는 도자기 등 소수를 빼놓고는 거의가 당장 보수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사실 오늘 남조선에 있는 국보적 문화재는 모두가 보수가 아니라 복구를 해야 할 형편에 있다. 그러므로 박 정희 도당은 《재지정》 시에 시급한 보수나 복구를 요하는 대상들을 국보에서 삭제하거나 보물로 내리 깎음으로써 저들의 책임을 모면하며 예산에서 문화재 보수액 지출을 대폭 축감시킨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군의 폭격에 파괴된 《국보 221 호》 보림사 대웅전, 《국보 214 호》 관음사 등이 바로 그러하며 《국보 22 호》에서 《보물 14 호》로 깎아 내린 장성사 진각국사 대각원희탑비의 경우가 그러하다.

박 정희 도당의 문화재 《보호 정책》의 기만성은 문화재 수리 비용 지출을 대폭 축감시킨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박 정희 《정부》가 배당한 문교부의 문화재 수리비는 리 승만 통치 시기의 극히 보잘 것 없던 보수비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적다. 박 정희 도당이 《문화재 보수 5 개년 계획》을 떠들어 대면서 수리비에 《선심》을 썼다는 196 년도의 자금이 리 승만 때에 가장 적던 1959년도보다 1천 400만 원이나 적은 형편

이다. 박 정희 도당의 《보수 5 개년 계획》이 완전히 빈 말'공부라는 것은 이로써도 명백하다.

박 정희 도당의 문화재 《보호 정책》의 기만적인 본질은 《박물관 통합》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남조선에는 9 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그 진렬 면적은 다해서 5,200 평에 불과하다(평양에 있는 조선 미술 박물관 하나의 진렬 면적 절반도 못 된다). 많은 문화재들이 진렬 및 보관 장소의 부족으로 변질되거나 파손 당하고 있는데 그나마 있다는 박물관 시설마저 제대로 꾸리지 못 해서 기둥이 기울어지고 비가 새는 형편이다.

남조선 2대 박물관의 하나이며 유일한 미술 박물관인 덕수궁 미술관이 《정문 한 쪽이 부서지고 천장이 새고 유리창이 깨져 작품을 진시할 수 없》을 정도이니 지방 박물관의 실태는 가히 짐작할 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야외에 있는 유적, 유물은 물론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조차 응당한 보호 관리를 못 받고 있는데 박 정희 도당은 이 몇 개 안 되는 박물관마저 《통합》이란 구실을 달아 없애 치우려 하고 있다.

박물관을 통합하려는 그들의 책동은 현존하는 문화재를 한 곳으로 모아 저들의 손 안에 완전히 틀어 쥐고 그 처분을 더욱 자유롭게 하며 문화 유물의 파괴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박 정희 도당이 작년에 들고 나온 덕수궁 미술관과 국립 박물관의 통합 책동만 놓고 보아도 그러하다. 1만 1,850 점의 진렬품을 가지고 있는 국립 박물관은 전시에 파괴된 건물을 지금도 보수하지 못 하여 덕수궁 석조전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진렬 면적은 불과 2,200 평 밖에 안 된다. 여기에 1,500 평의 진렬 면적을 가지고도 극히 부족을 느끼고 있는, 1만 점의 진렬품을 가진 덕수궁 미술관을 통합한다면 박물관 운영과 문화재 보관에 막대한 지장을 주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뻔한 일이다.

박 정희 도당의 박물관 통합 책동은 그 전날 리 승만 역도가 《국립 박물관》을 고창하면서 공주 박물관, 민족 박물관 등을 국립 박물관의 분관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상실할 만큼 파괴해 버린 악랄한 수법의 《발전적》 답습에 불과한 것이다.

박 정희 역적의 문화재 《보호 정책》의 죄악적인 본질은 상전의 문화재 략탈에 직접 복무하는 《수출 허가권》이나, 유적을 팔아 먹기 위한 사적지 《개간 특허권》이나, 저들의 도굴을 합리화하는 《도굴 단속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리 하여 박 정희 도당이 괴뢰 정권에 올라 앉은 후 남조선에서 민족 문화 유물의 략탈과 파괴는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그들은 미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면서 민족 문화 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온갖 가능성을 압살해 버리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상에서 례시한 자료들은 우리의 귀중한 문화 유물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주에 용서 못할 범죄 행위의 일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가장 흉악한 문화재 략탈자이며 민족 문화 교살자로서의 미제의 야수적 본성과 남조선 괴뢰 도당의 반인민적 문화 정책의 본질을 똑똑히 알 수 있다.

미제와 력대 괴뢰 도당들은 이처럼 악랄하게 우리 인민의 고귀한 민족 문화 유산을 유린 말살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 정신과 애국, 애족의 사상을 거세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전'적으로 오산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한 미제와 괴뢰 도당의 야만적인 범죄 행위는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마비시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의 민족적, 계급적 의식을 더욱 각성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

였으며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조국을 굳건히 수호한 조선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이어 받은 남조선 인민들은 원쑤놈의 그 어떤 간악한 책동 앞에서도 결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무관심한 인민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남조선 천지에서 세차게 타번지는 반미 구국 투쟁의 불'길은 이것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민족 문화재를 략탈, 파괴하는 원쑤들의 책동을 저지하기 위한 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 유물과 유적에 대한 참다운 보호 관리를 요구하는 남조선 사회계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 가고 있으며 그것은 남조선 출판물에까지 반영되고 있다. 일련의 신문들이 《당국의 무성의로 보관을 게을리하여 자연 인멸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당국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성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능해서 못 하는가…》 하고 비난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를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해야 할 판》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의 박물관 통합 책동을 반대하여 남조선 인민들과 량심적인 문화인들은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완강히 요구해 나섰으며 괴뢰 정부의 문화재 《보호》 위원회 위원들까지 《우리 나라의 박물관, 미술관의 발전을 막고 더욱 위축을 거듭하게》 하는 행위라고 반대해 나섰다. 또한 부산 시민들은 부산시에 박물관을 건립할 것을, 서울시 내 미술가들은 《국가 미술 전람회관》을 건립할 것을 요구해 나섰다.

우리 민족의 문화재는 바로 조선 인민의 것이다. 그것은 삼천리 조선 땅에 고이 보존하면서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해야 할 귀중한 재보이며 력사적 기념물이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분쇄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민족 문화 유산의 진정한 보호와 계승 발전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하며 해외에 략탈되여 간 모든 문화재들은 반드시 우리 인민에게 반환되여야 한다.

근 로 자 제 18 호 (루계 280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9월 17일 발 행 • 1965년 9월 20일

ㄱ—530513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9호 10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5

근로자

제 19 호 (281)

1965년 10월 (상)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당 창건 20 주년을 맞으며—

조선 로동당이 령도하는 우리 인민의 위업은 필승 불패이다

조선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인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20 년이 되였다.

우리 당의 창건은 맑스-레닌주의당 창건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간고한 투쟁의 결실이며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이 쟁취한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대중의 지향을 옳게 반영하고 그들의 나갈 길을 밝혀 주는 당이 없이는 로동 계급이 혁명 투쟁에서 확고한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오직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의 령도가 있어야만 로동 계급은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의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은 력사 상 처음으로 강력한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그의 령도 하에 우리 나라에서 새 력사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 서게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의 창건은 조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과 조선 공산주의 운동 력사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지난 20 년 간 우리 당은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대로서 조선 혁명의 운명을 걸머지고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하였으며 조국과 민족 앞에 불멸의 위훈을 세워 놓았다.

오늘 우리는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감을 가지고 우리 당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길과 그가 쌓은 위대한 업적을 돌이켜 본다.

우리 당은 지난 20 년 간 내외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 강화되였다.

해방 후 민주 건설 시기와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그리고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미제와 그 주구들 그리고 혁명 대렬에 기여 들었던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은 우리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아 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투쟁의 모든 전선에서 언제나 승리하였으며 지난 기간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를 청산하고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당은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강철 같이 통일되고 단결된 백전백승의 당으로 장성 발전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이 유일한 규률로 결속된 강력한 전투적 부대

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전 당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여 있다.

전체 당원들이 당 중앙 위원회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당'적 사상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 당이 한 몸과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사업 체계가 확립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자기의 현명한 령도와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성과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 인민의 리익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견결한 투쟁으로 하여 조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쟁취하였으며 조선 인민이 전'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직한 향도적 력량으로 되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이미 사회주의 제도가 확고히 수립되고 자립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선진적인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인민 정권의 기능과 근로 단체들의 역할이 부단히 제고됨으로써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가 전면적으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로농 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도덕적 통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히되였다.

북반부는 정치, 경제, 군사, 사상적으로 굳건히 다져진 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당은 혁명의 주도권을 틀어 쥐고 전체 조선 인민의 위대의 민족적 숙원인 조국 통일의 위업이 실현될 그 날을 힘 있게 앞당기고 있다.

당은 우리 인민을 령도하여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여 있는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계속적인 승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과 국내의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인민의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의 전 행정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우리 당이 그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 조선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은 것은 오직 그가 장구한 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한 당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때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이 힘차게 전개되였다.

1930 년대에 들어 서면서 우리 나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을 조선 혁명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확한 혁명 로선을 작성하였으며 그를 실천에서 빛나게 구현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15여 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무장 투쟁 행정에서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확고히 축성하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이룩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한 조선 인민의 항일 민족 해방 투쟁은 장차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적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준비를 이루었으며 우리 혁명 운동의 빛나는 전통으로 되였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525 페지).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은 원쑤와 생사를 판가리하는 장기간의 복잡하고 첨예한 투쟁 행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심각하고도 고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풍부한 투쟁 업적과 경험, 혁명 정신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견고한 기초 우에서 창건되고 발전할 수 있게 한 력사적 뿌리로 되였으며 해방 후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서 조선 인민의 모든 승리를 담보하는 고귀한 밑천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바로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 조성된 어려운 정세 하에서 창건된 즉시부터 당을 꾸리면서 정권도 령도하고 대중을 전취하면서 새 사회 건설도 지도하는 복잡한 과업들을 동시에 능숙히 수행할 수 있었다. 당은 또한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고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이 있음으로 하여 미제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결속짓고 전후 페허 우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시켜 우리 인민을 력사적인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은 해방 후 조선 혁명을 령도하는 전 과정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우리 당의 철저한 주체적 립장은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였으며 그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 가고 있다.

사상 정치 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수행한 거대한 사업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체의 것을 귀중히 여기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모든 지혜와 창발성을 남김 없이 발양하게 하였다.

경제 분야에서 자력 갱생하기 위한 우리 당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는 확고한 자립적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 축성된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는 나라의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하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 기초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것과 함께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데 시종일관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당은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전진 도상에서 제기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을 급속히

추진시켰다.

당은 언제나 인민 대중을 믿고 대중과 상론하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들을 풀어 나갔으며 방대한 건설 사업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과학 기술과 문학 예술도 군중적 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천리마 운동은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며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 단결의 강력한 시위이다.

혁명적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우리 당의 투쟁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청산리 방법이 창조되고 보급 일반화된 것이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가 아래를 도와 주며 정치 사업을 앞세우고 군중을 발동하여 경제 관리 운영에 광범히 인입하며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혁명적 사업 체계와 방법이 전 당을 지배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항상 우리 인민을 모두다 혁명가로 육성하며 모두다 공산주의 길로 나가게 하여야 한다는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고히 견지하고 각계 각층 군중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당 주위에 집결시키도록 하였다.

당의 정당한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 투사로 자라났으며 전 사회가 붉은 일색으로 튼튼히 꾸려졌다.

모든 사람들이 당 주위에 결속되여 혁명 동지로 서로 믿고 도우면서 혁명 승리를 위하여 한사람 같이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며 우리 인민의 면모이다.

오늘 전체 조선 인민들, 북반부 인민들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과 모든 해외 동포들까지 우리 당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 보고 있으며 당의 기'발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우리 당의 발전과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모든 위대한 승리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써만 가능하였다.

우리 당의 창건자이며 육성자이며 령도자인 김 일성 동지는 항상 전 당과 전체 인민 앞에 정확한 길을 제시하면서 새롭고 더욱 큰 승리에로 부단히 이끌어 왔다. 오직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조선 땅 우에서 맑스-레닌주의의 빛나는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지난 20 년 간 참으로 많은 일을 하여 놓았다. 조선 인민은 로동당 시대에 와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을 두고 꿈꾸어 오던 념원을 실현하였으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밑천까지 마련하였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창건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당의 주위에 더욱 철석 같이 뭉쳐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조국 통일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 있게 투쟁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큰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을 계속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그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모든 당 조직들은 대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고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일층 제고하며 혁명적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보다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령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 정권과 근로 단체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며 그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높이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정책과 로선이 더욱 원만히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 인민 앞에 나선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7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 운영 사업을 일층 개선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현시기 국내외에 조성된 긴장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적 경각성을 고도로 높이며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을 요새화하고 전체 인민이 무장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적들의 어떠한 침공으로부터도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이 모든 과업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고리는 모든 사람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 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은 자기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모두가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 사회가 혁명화되고 전체 인민이 혁명가답게 일하고 생활할 때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촉진될 것이며 조국의 통일은 앞당겨질 것이다.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적 자주, 자립의 사상이다

신 진 균

우리 당의 령도 하에 지난 20 년 간 조선 혁명 수행에서는 비약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위대한 승리들이 달성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수천 년에 걸친 사'적 소유에 기초한 낡은 사회 제도가 청산되고 선진적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공고한 경제 토대가 축성되였으며 전체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이 확고히 실현되였다. 이리 하여 북반부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전국에서의 혁명 완수를 위한 기지로서 정치적, 물질적으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있다.

이러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영명한 령도 특히는 혁명 수행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방침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이를 위한 투쟁 경험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은 새로운 승리와 전진을 위한 주요한 담보로 된다.

I. 주체를 확립하는 것은 조선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한 우리 당의 근본 방침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조선 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이를 위하여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는 방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를 확립하는 방침이다.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혁명 수행에서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일련의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라는 문제이다.

혁명이 해방되여야 할 인민 대중 자신의 사업이라는 이것은 노예 폭동으로부터 오늘날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진리이다.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인민 대중의 역할은 혁명의 승리적 수

행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모든 활동이 인민의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사업으로 되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인민 대중의 역할—이것은 오늘날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를 전제로 한다. 혁명이 그 나라 인민 대중 자신의 사업이라는 이 명제에는 혁명의 지도 력량도 그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여 있다.

맑스주의가 발생한 이후 지금에 와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맑스-레닌주의당이 존재한다. 매개 나라에 자립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이 조직되기 이전에도 혁명은 그 나라 내부의 력량에 의하여 지도되였다. 오늘날 혁명은 매개 나라 당이 완전히 책임적으로 지도한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라는 이 사실은 원래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하여 근본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국내 반동을 타도하는 투쟁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 행정에 걸쳐서 혁명의 성과적 추진 여부는 당과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철저하게 수행하는가 못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는 세계 혁명 발전의 현 단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발전의 력사에서 첫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을 거쳐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은 새로운 획기적 사변으로, 거대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세계 혁명의 기지는 한 나라로부터 전체 사회주의 진영으로 발전되였다.

이 진영 내에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혁명을 한 지 오랜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으며 경제 기술적으로 보다 발전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같이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를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새 형의 국제 관계의 규범이 서게 되며 사회주의에 고유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수립되게 된다.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매개 사회주의 나라 당과 인민들, 그 국가들 호상간에는 태도와 립장을 정확히 가지는 문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부합되게 정당한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합법칙적으로 제기된다.

이것은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결

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맑스-레닌주의는 다 아는 바와 같이 모든 나라, 모든 인민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일반 법칙들, 이를 의식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일반 원칙들을 가르쳐 준다. 그러나 이 일반 원칙들을 매개 나라에서 각이한 구체적 조건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실천 투쟁 행정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때문에 레닌은 맑스주의자들이 사회주의로 가는 길의 방향을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 실천적으로는 오직 수백만 대중이 사업에 달라붙을 때 그들의 경험만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였다(레닌 전집 제 25 권, 352 페지 참조).

물론 오늘에는 사회주의 진영 여러 나라들의 경험이 개별적 나라들의 혁명 사업을 쉽게 하여 줄 수 있다. 그러나 레닌의 교시는 여전히 정당하며 앞으로도 정당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당과 인민의 고도의 창조성을 요구하는데 이 창조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여기에 또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을 요하는 원칙적 문제의 하나이다.

당과 인민이 실지에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이상과 같은 근본적 문제들에 있어서 반맑스주의적 사상적 편향들을 극복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불평등이 지배하던 낡은 세계에서 형성된 사대주의, 민족 허무주의 또는 교조주의 등 낡은 사조의 잔재는 공산주의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국제적 령역에서 옳은 립장과 태도를 취할 수 없게 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의 창조적 적용을 방해한다. 이러한 낡은 사조의 잔재를 철저히 극복함이 없이는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르죠아 사상을 극복하자면 공산주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무장시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 허무주의 등 낡은 사상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와 대립되는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이상의 모든 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어떤 개별적 과업을 해결하는 데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 전반에 관계되는 근본적 문제들이다.

우리 당은 바로 우리 나라의 정세와 조건 하에서 이러한 원칙적 문제들로부터 출발하여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태도와 립장을 정확히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본 방침을 강구하였다. 이 방침—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객관적 현실에 기초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리 하여 하나의 체계적인 사상을 이루고 있다.

II.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적 자주, 자립의 사상이다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자주, 자립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 문제로 되며 이를 위하여서는 당과 인민이 자주, 자립의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 이리 하여 주체를 확립한다는 것은 기본에 있어서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자주, 자립의 립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 과학원에서 한 강의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우리 당의 방침에 대하여 체계적인 해명을 주었다.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였다:

《주체를 확립한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혁명을 수행하는 데는 한편으로 로선과 정책, 방침과 대책들을 정확히 수립하며 과업을 옳게 규정하는 것이 문제로 되며 또 한편으로는 수립된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제기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력량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한 기본 담보의 하나는 우선 로선과 정책, 방침과 대책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고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규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혁명의 주인인 우리 당과 인민이 자주적 립장에 서서 자기 정신으로 창조적으로 사고하며 자기 의지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로부터, 이를 테면 자주성-창조성 원칙이 서야 한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한 기본 담보는 또한 우리 당과 인민이 무엇보다도 자체의 힘, 내부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즉 자력 갱생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심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주로 자체의 힘으로, 자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이것은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이와 같이 혁명 수행에서 자주적, 창조적 립장, 자력 갱생의 립장을 견지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 또는 사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 허무주의, 외세 의존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며 중요하게 이를 극복하는 데로 돌려지는 것이다.

자주성-창조성 원칙, 주체를 확립하는 방침의 이 측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주체란 것은 모든 것을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해 나가며 맑스-레닌주의 일반 원칙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우리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설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형제 나라 당과 인민들에 대한 태도 문제, 맑스-레닌주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는 데서의 태도 문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 대한 태도 문제 등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것을 자체 실정과 요구에 맞게 해 나가자면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당과 인민이 혁명의 수

인으로서의 태도와 립장을 정확히 가져야 하는바 그것은 곧 자주서 립장에 튼튼히 서는 것이며 자기의 의지로, 독자적으로 사고하며 판단하는 것이다.

자주적 립장이 확고할 때라야 혁명의 주인은 모든 것을 자체의 실정, 자체의 리익에 맞게 결정할 수 있고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리 하여 주체를 확립한다는 것은 우선 자주성-창조성 원칙을 견지하는 것으로 된다.

자주성-창조성 원칙은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우선 다른 나라 당과 인민들에 대한 관계 분야에서 자주적 립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본성,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모든 개인, 모든 민족의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민족들과 민족 국가들의 자유와 평등은 그들의 자주성과 자주권, 이에 대한 호상 존중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맑스-레닌주의는 모든 민족들의 자주성, 자주권을 존중할 것을 하나의 근본 원칙으로 삼는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형제적 인민들과 국가들, 맑스-레닌주의당들 호상간에는 불평등과 종속, 의존 등 관계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완전한 평등, 령토 완정과 국가적 자주성과 주권의 존중, 호상간의 내정 불간섭의 원칙들에 립각하여 자기들의 호상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1957년,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

제 민족과 그 당들은 완전한 자주성과 평등의 기초 우에서만 진정한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과 협조를 실현할 수 있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의 확고한 자주적 립장과 이에 대한 호상 존중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한 담보로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도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원칙적 견지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혁명 수행에서 당과 인민이 자주적 립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사람은 높고 낮은 차이가 없다…큰 나라와 큰 당은 있어도 높은 나라와 높은 당은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사대주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여 자기의 주체를 살릴 줄 알아야 한다》(김 일성).

우리 당과 인민의 자주적 립장, 자주성은 무엇보다도 우선 정치적 령역에서, 당과 정부의 정책을 규정하는 분야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의 대내외 정책이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히 자주적인 정책이며 우리 정부는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해당한 조치를 언제든지 주동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다.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로부터 그 관철을 위한 실제 사업의 사소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반

드시 자주적 립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함으로써만 자기 실정에 맞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언제나 우리 나라의 실정과 혁명 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자주적인 로선이며 정책이다. 그러므로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 전체 근로자들이 실지 사업에서 주체적 립장에 선다는 것은 당 정책과 당의 의도로 무장하고 그 정신으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의 당 중앙 위원회와 자기의 당 대회가 제시한 로선에 따라 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며 당의 로선과 위반되는 온갖 사상과 경향을 배격하여야 한다. 이것이 주체이다》(김 일성).

사람들이 만약 자주적 립장에 서지 못 하고 사대주의적 경향에 물들게 된다면 남의 것은 다 좋고 자기의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게 되며 남이 하는 일을 무조건 그 대로 해야 하는듯이 간주하는 교조주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로써는 자기 나라 실정을 놓고 독자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자기의 것, 자기의 힘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없으며 자기 나라 혁명에도,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도 손해만을 끼치게 된다.

사상 정치 분야에서 자주적 립장에 튼튼히 서는 것, 이는 모든 것을 자체 실정에 맞게 해 나가는 첫째 가는 담보이다.

자주성-창조성 원칙은 다음으로, 맑스-레닌주의 일반 원칙을 구체화함에 있어서도 자주적, 독자적 립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일반 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혁명을 자체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이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며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나 다 일반 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을 원한다. 그러나 실지에 이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은 자명한 문제가 아니다.

주체의 사상은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주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나라의 구체적 정세의 요구에 적응하게 독자적으로 사고하며 판단할 때라야 일반 리론을 교조로 전변시키지 않고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주체 사상의 이러한 요구는 맑스-레닌주의 리론 또는 원칙의 성격 자체로부터 흘러 나온다.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모든 나라들에서 의무적으로 반복되여야 할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껏해서 력사적 행정의 매 특수 시기의 구체적인 경제적 및 정치적 환경에 의하여 불가피적으로 변형되는 일반적 과업들을 지적할 수 있을 따름이다》**(레닌, 《전술에 관한 편지》, 전집 제 24 권, 30 페지).

사회주의 사회의 발생 발전, 혁명 발전의 현실적 행정은 사회 발전 법칙에 의하여 규정될 뿐만 아니라 그 법칙이 작용하는 환경, 조건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인민의 의식적 활동이

객관적 법칙, 일반 원칙의 요구를 객관적 정세의 요구와 어떻게 창조적으로,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매개 나라에서의 정세와 조건의 특수성은 법칙의 작용, 일반 원칙의 구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며 그것의 변형을 요구하며 혁명 발전의 객관적 행정에 자기의 흔적을 남기면서 이 행정을 촉진하기도 하고 지연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혁명 수행에서는 한편으로 맑스-레닌주의 원칙, 사회 발전의 법칙의 본질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며 고수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동시에 또 한편으로 구체적 정세와 조건들을 연구 분석하고 그 특수성에 적응하게 일반 원칙의 본질적 요구를 실현할 구체적 형태 또는 방도를 발견해 내는 것이 문제로 된다.

여기에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보장하는 기본 담보는 구체적 정세를 옳게 분석하고 그 특수성에 맞게 일반 원칙을 변형시키며 구체화하는 데 있다. 레닌은 구체적 정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맑스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며 산 정신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주체 사상은 《공식》으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대한 연구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일반 리론을 구체화할 방도를 독자적으로 강구할 것을 강조한다.

창조적인 방도와 대책들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지하고 간고한 연구를 통해서만 얻어 낼 수 있다. 레닌은 만일 공산주의자가 진지하고 간고하고 중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대하여야 할 제 사실을 분석하지 않으며 이미 얻은 지식을 자기 머리 속에서 개작할 줄 모른다면 공산주의는 공담으로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레닌 전집 제 31 권, 343~344 페지 참조).

맑스-레닌주의 일반 원칙을 구현함에 있어서의 자주성, 창조성의 요구는 우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서 실현된다.

《우리 당의 정책은 우리 나라 현실에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김 일성).

그러므로 자주성-창조성 원칙을 견지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요구는 중요하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며 이 집행을 지도하는 분야에로 돌려진다.

지도 일'군들과 전체 근로 대중은 당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혁명의 주인답게 창조적으로 사고하며 대담하게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 레닌은 혁명의 주인인 근로자 대중의 자립적, 창조적 활동의 의의와 위력에 대하여 항상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자주적인 태도 그리고 객관적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연구—이것은 교조주의, 주관주의에 대한 해독제로 되며 창조적 맑스주의의 담보로 된다.

자주성-창조성 원칙은 또한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 대하여서도 자주적이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

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경험이 우리 나라에 그대로 들어맞기는 어렵다. 배우는 목적은 우리 혁명 수행에 그것을 잘 리용하는 데 있는 만큼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취사 선택하며 개작하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서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자주적, 창조적 립장에서 쌓아 올린 자체 경험에 의거하는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자주성-창조성 원칙은 자기의 의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자체의 것—력사와 전통, 현실적 제 조건, 자체의 리익에 부합되게 혁명을 수행함으로써 가장 빨리, 가장 성과적으로 전진하려는 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로선과 정책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것은 그것을 집행할 력량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 혁명의 주인은 실지에 힘을 발동시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무슨 힘으로 할 것인가?

자력 갱생의 원칙은 혁명 수행에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자체 내부의 힘이라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이리하여 무엇보다도 이 힘에 의거하고 이 힘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조선 혁명의 주인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며 조선 혁명 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우리 자체의 힘이다…혁명에서 국제적인 지지 성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인인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투쟁하여야만 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으며 승리에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자력 갱생의 원칙은 혁명이 사회 내부의 모순의 투쟁이라는 데로부터 직접적으로 흘러 나온다. 피착취, 피압박 대중은 자체의 힘과 투쟁으로써만 자신을 해방하고 부유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창조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착취자들, 침략자들이 피착취, 피압박 대중에게 해방과 훌륭한 생활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로부터 인민 대중 특히 로동 계급은 반드시 자체의 힘으로 자체를 해방하고 새 생활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선다.

우리 당은 남조선의 해방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조국은 무엇보다도 남북 조선 인민들의 투쟁으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냄으로써만 통일될 수 있고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는 동맹자, 특히 국제적 동맹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더우기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는 현시기에 있어서 로동 계급과 그에 의하여 령도되는 혁명적 인민에게 있어서 국제적 동맹자들의 역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지원의 의의는 점점 더 커 가고 있다. 그러나 혁명 수행에서 기본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 내부의 혁명 력량이다.

국제적 동맹자들은 또한 자기 나라에서 자체의 긴急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 지원에만 지나치게 의거하고 자체 내부의 힘을 발동시키는 데 덜 관심할 때 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여기로부터, 매개 나라 로동 계급과 혁명적 인민은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주로는 자체의 힘, 내부의 력량으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서게 된다. 이 원칙은 우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반영되며 이를 집행하는 데서 철저히 관철되여야 한다.

혁명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 생산적 토대를 축성하는 투쟁에 있어서나 성과 여부는 중요하게 자체 내부의 혁명 력량을 어떻게 조직 동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내부의 력량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것은 사람의 힘, 인민 대중의 힘이다. 자력 갱생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도 전적으로 사람들의 정신적 태도와 투쟁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자력 갱생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우선 사람의 힘, 인민 대중의 지혜와 재능, 열의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키며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리 하여 이 원칙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리고 매 개인이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혁명적 기풍을 고도로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즉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자체의 힘에 대한 신심, 일을 찾아서 하고 만들어서 하는 진공적 태도, 없는 것,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고 찾아 내는 창조적 정신, 모든 곤난을 극복하는 전투적 정신, 검박하고 긴장되게 살며 최후 승리까지 계속 투쟁하며 전진하는 혁명적 기풍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풍,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만 자력 갱생할 수 있다.

혁명하는 인민은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튼튼히 건설하여야 하며 혁명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답게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나라에 있는 자원과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야 하며 나라의 모든 재부와 원천을 아끼고 사랑하며 더 잘 리용하기 위해 전 당과 전체 인민이 이악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실제적 문제로 된다. 자력 갱생의 원칙은 이렇게 강조한다.

자주성-창조성 원칙, 자력 갱생의 원칙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당과 인민의 립장의 두 측면에 관한 문제로서 전일적인 주체 사상을 이루고 있다. 이것들은 호상 보충하여 호상 전제로 되면서 불가분적으로 통일되여 있다. 자주적, 창조적 립장이 확고할 때라야 자력 갱생의 원칙도 잘 관철할 수 있으며 자력 갱생하여 자체의 밑천이 튼튼할 때라야 자주적 립장도 훌륭히 지킬 수 있다.

혁명 수행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사상은 이상과 같이 기본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자주, 자립의 사상이며 우선 혁명의 주인인 우리 인민을 위하여 조선 혁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우리 인민을 하루 바삐 더 잘 살게 하며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는 애국, 애당, 애민, 애족의 사상이다.

이것은 또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전제로 하며 또 이 원칙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사상이다. 왜냐 하면 조선 혁명은 세계 혁명의 한 부분이며 우리 당과 인민은 조선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세계 혁명 발전에 가장 잘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자주적 립장은 다른 인민들과의 진정한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의 기초로 되며 우리의 자력 갱생의 립장은 국제주의적 지원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 주체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 로동 계급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주의적 임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길이다.

Ⅲ.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혁명의 주인의 자주적 립장, 자력 갱생—이는 합법칙적인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이 한 나라에서 진행되던 그 때까지만 하여도 이것은 말하자면 자연 필연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고 혁명과 건설이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새 환경에서는 혁명하는 인민들이 자주, 자립의 립장을 견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투쟁하는 문제가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특히 나라가 락후하거나 작거나 혁명 정세가 간고한 경우일수록 중요한 문제로 될 수 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해방 전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부터 매우 긴절하게 나서 있었다. 더우기 해방 후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가 처한 환경과 조건,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주체를 확립하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였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해방 후 우리 혁명은 남북의 분리와 미제의 남조선 강점, 과거로부터 넘겨받은 경제, 기술적 발전의 심한 락후성 등 특수한 조건들로 하여 특별히 간고하며 복잡하다. 여기로부터 전략 전술 작성에서 높은 창조성이 요구되였으며 자력 갱생의 정신을 고도로 발양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 문제는 근로자들 속에 과거로부터 있었던 사대주의, 민족 허무주의의 잔재로 하여 더욱 첨예하게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며 관철하는 투쟁에서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 있었다. 이에 있어서 당은 이미 1930 년대 투쟁 행정에서 확립된 주체적 립장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빨찌산 투쟁을 기본 형태로 하는 반일 민족 해방 혁명에 있어서 그 환경의 특수성, 간고성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 철저한 자주적, 창조적 립장과 자력 갱생의 정신을 요구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는 종파 분자들의 사대주의적 경향이 철저히 배격되였으며 자주적, 창조적 립장, 자력 갱생의 립장이 확고한 전통을 이루게 되였다.

이 전통을 계승하면서 우리 당은 해방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특수한 정세에 적응하게 혁명 기지 로선을 비롯한 독자적이며 창조적인 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모든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 전체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 즉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설 것을 일찍부터 강조하여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당의 창조적인 로선과 정책을 옳게 받아 물고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1946 년 10월 과학자, 기술자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는 고용살이에서 벗어나 나라의 주인이 되였으니 만큼 마땅히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며 자기 나라를 훌륭히 건설하기 위하여 주인답게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1 권, 225 페지).

김 일성 동지는 특히 근로자들 속에 자력 갱생의 정신을 고취하며 민족적 자부심을 배양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면서, 벗들이 우리를 도와 주지마는 자체의 힘을 강화하여 나라의 자주 독립을 전취하며 부강한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당의 창조적인 로선과 정책을 옳게 접수하고 관철하기에는 일'군들의 준비와 경험이 부족하였으며 한 때 당내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였던 종파 분자들은 사대주의적, 민족 허무주의적 경향을 발로시켰다. 이리 하여 일부 당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우리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남에게 의존하려는 편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더욱 눈에 띄게 되였다.

당은 전시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향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불을 걸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3 차, 제 4 차, 제 5 차 전원 회의들에서는 남의 힘만 믿고 앉아서 승리를 기다리는 일부 사람들의 위험한 경향, 교조주의적 관문주의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고귀한 유산들을 홀시하고 연구하지 않는 편향들이 엄격히 비판되였다.

교조주의, 사대주의 경향을 청산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전후 시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 당내에서 교조주의적 사업 태도는 당, 국가 기관 일'군들과 당원 대중들로부터 최대한의 창발성을 요구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복잡하고 곤난한 과업에 직면하게 된 때에 이르러 더욱 눈에 띄게 되였으며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되였다. 이리 하여 당 중앙 위원회는 특히 전후 시기에 들어 와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며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244 페지).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여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종파 분자들은 모두가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이였다.

반당 종파 분자들은 우리 당이 전후 시기에 조성된 복잡하고 간고한 정세의 요구에 적응하게 제시한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들이 오직 맑스-레닌주의 서적에도 다른 나라에도 없는 일이라는 교조주의적 《론거》로부터 이를 반대하여 나섰다.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 농촌 경리의 협동화를 기술적 개조에 앞세우는

방침 등에 대하여 특히 그러하였다. 일부 종파 분자들은 사상 사업 분야에서 우리 인민의 력사와 애국적, 혁명적 전통, 민속적 유산, 혁명의 현실적 문제들로써 대중을 교양할 대신에 남의 경험이나 일반 리론을 기계적으로 주입시키며 우리의 것을 깔보고 남의 것만 좋다고 하는 사상을 퍼뜨림으로써 혁명 수행에 적지 않은 해독을 끼치고 있었다. 종파 분자들의 그릇된 립장으로 하여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잘 관철되지 않았다.

당은 사회주의 기초 건설에 착수하면서 1955년 4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있어서 1955년 12월 당 선전 선동 일'군들 앞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은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이 연설에서 김 일성 동지는 사상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기초에는 바로 조선 혁명 수행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근본 사상이 놓여 있다.

우리 당의 주체 사상은 바로 이 연설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체계적으로 진술되였다. 이 연설은 당 사상 사업에서와 혁명 수행 전반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혁명 수행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전후 시기에 있어서 주로 종파 분자-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장되였던 교조주의적, 민족 허무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그들에 의한 당 정책의 외곡을 반대하는 데로 그 예봉이 돌려졌다.

현시기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심 문제는 우리 나라에 있는 밑천을 가지고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 기술 발전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이미 마련된 밑천,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인민 생활을 보다 유족하게 하기 위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데 모두가 주인답게 노력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1 차 전원 회의에서 한 결론에서 과학 기술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다시금 중요하게 교시하였다…우리 나라가 생산력 발전과 과학 기술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떨어져 있는 한 사대주의적 경향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경제 문화 발전 특히 과학 기술 발전에서 다른 나라들을 따라 잡고 앞서게 될 때라야 사대주의는 근절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대주의가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사람들의 의식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세계의 선진 수준을 따라 잡도록 이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연구 사업, 기술 발전 분야에서 철저하게 주체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였다.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경험은 첫째로 혁명 실천에서 주체를 확

립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사상 사업에서 그리 하여 사람들의 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혁명 실천에서의 주체성의 결여는 사람들의 사상에서의 사대주의적, 교조주의적, 민족 허무주의적 경향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은 우선 사람들의 의식에서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뿌리 뽑고 그들을 자주 의식으로,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데 주되는 관심을 돌리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대중을 교양하는 사상 사업 자체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 경향을 청산하는 것이 선결 문제였다.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연설에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사상 사업이 바로 조선 혁명 수행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목적 지향성을 명확히 가질 것을 강조하면서 《조선 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주체이다》라고 교시하였다. 사상 사업이 우리 혁명에 잘 복무하며 사람들을 어디까지나 조선 혁명에 충실하고 혁명 실천에 쓸모 있게 교양하자면 맑스-레닌주의를 조선 혁명의 현실과 결부시켜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며 우리의 력사와 자연 등 주로 자체의 것으로 사람들을 교양하여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우리 당은 이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과거와 현재, 민족적 전통과 업적들을 잘 알게 하고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 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사상 사업을 전개하여 현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당의 투쟁 경험은 혁명 수행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조직 사상적 통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당내에 종파가 있고 그 사상적 영향이 있는 조건에서는 사람들의 사상에서나 혁명 실천에서나 주체를 확립할 수 없다. 1956년 8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하여 당내에서 종파 분자들과 그 여독이 청산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적 사상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주체의 사상도 점차 대중을 파악하게 되였으며 혁명 실천에서 주체적 립장이 잘 관철되게 되였다.

당은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렸는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적 립장,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도록 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현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되고 당 대렬이 조직 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여 있다면 교조주의도, 사대주의도, 좌우경 기회주의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었다.

다음으로 혁명 수행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당, 자기 인민의 경험을 존중하며 이를 연구하고 이에 의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은 이렇게 가르친다. 당의 투쟁 경험, 대중의 경험은 바로 모든 것을 자체 실정에 맞게 하여 나가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것이다. 이것을 계통적으로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과 건

설의 당면한 문제들을 주체성 있게 풀어 나가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 * *

주체 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사업과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주체적 립장에 확고히 서서 조선 혁명의 복잡하고 간고한 환경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로선과 정책,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인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철저하게 자력 갱생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방도를 강구하였다.

주체의 사상은 우선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며 혁명의 전진을 저애하는 교조주의, 사대주의, 민족 허무주의 그리고 이로부터 흘러 나오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신비주의 등 비과학적 사상 경향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였으며 사상 정치적으로 자주적 립장에 튼튼히 서게 하였다. 사상에서 주체가 서게 됨으로써 우리는 자체의 것을 낮추 보고 남의 것만 좋다 하며, 주관주의적으로 설정된 《권위》나 《공식》에 무비판적으로 대하는 사상 경향과 인연을 끊게 되였다. 이리 하여 우리는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의 정신으로, 자기의 의지와 정신으로 살고 일하며 투쟁하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친 당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선과 정책들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의 사상 특히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됨으로써 당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을 훌륭히 관철하여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전진시키며 전국적 규모에서 혁명의 완수를 촉진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여 놓았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전후의 류례 드문 어려운 조건에서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최단 기간에 훌륭히 건설하였으며 이로써 조국의 번영과 자기들의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터전을 닦아 놓았으며 이로써 나라의 자주성을 확고히 하고 혁명의 기지를 철옹성 같이 공고히 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주체를 확립하는 당의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세계 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를 건설하였으며 과학, 교육 기타 문화 건설 분야에서도 우리 혁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귀중한 성과들을 날성하였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자립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민족 간부의 대부대를 육성하여 놓았으며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주체적 립장의 위

력과 정당성은 해방된 지 불과 5 년만에 《강대한》 미제의 무력 침공을 훌륭히 격파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벌써 물질적으로 증명되였으며 특히 전후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욱 뚜렷이 과시되였다. 1956~1957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일대 시련의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추호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내 대외적으로 몹시 어렵던 국면을 훌륭히 타개하고 위대한 천리마 운동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종파를 반대하고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결부시켜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전 당과 인민을 주체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놓았던 그 사정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되여 있었기 때문에 천리마를 탈 수 있었다.

주체의 사상으로 교양되고 무장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주적 립장과 자력 갱생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이를 옹호하며 내외의 적들의 침해로부터 당 중앙 위원회를 사수하는 데 높은 정치적 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또한 당과 국가의 세련된 령도 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고도의 로력적 열성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계속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주체—이것은 혁명 수행에서의 우리 당과 인민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우리가 이 무기를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갈 때 그 어떤 반맑스주의적 사조들도 우리를 침습할 수 없으며 우리 앞에는 극복하지 못할 그 어떤 난관도 없을 것이다.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의 령도

최 재 우

지난 20년 간에 우리 당이 쌓은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는 기술 문명으로부터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현대적 기술을 가진 발전된 나라로 전변시킨 것이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렸으며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기술 혁명을 일정에 제기하고 그것을 정력적으로 추진시켜 왔다. 당은 전쟁 전과 전후의 복구 시기에도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는 사업과 함께 그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는 데 적지 않은 힘을 기울였으며 5개년 계획 시기를 기술적 개건의 첫 단계로 규정하고 기술 혁명의 토대를 닦는 데 결정적 력량을 돌렸다. 7개년 계획 시기에 와서 당은 전면적 기술 혁명을 가장 기본적인 혁명 과업으로 제기하고 이미 그 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락후한 식민지 농업 국가의 면모를 완전히 씻어 버리고 현대적인 기술 장비를 갖춘 선진적 공업과 현대적 기술의 토대 우에 급속히 올라 서고 있는 농업을 가진 발전된 나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현대적 기술 수단들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훌륭히 구사하며 대중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문명한 인민으로 되였다.

물론 우리는 아직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지 못 하였으며 낡은 기술과 능률이 낮은 생산 방법은 완전히는 퇴치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오늘을 해방 당시인 20년 전 또는 전쟁의 포화가 갓멎은 10여 년 전과만 대비해 보라.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서는 기관차를 몰 줄 아는 운전수 문제가 아주 날카롭게 나섰었다. 또한 전쟁 직후에 우리에게는 벽돌이나 못 등을 생산하는 문제조차 아주 힘든 과업으로 나섰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앞에 이미 과학과 기술의 최선단에 돌입하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기술 발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 주는 하나의 대비이다. 실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가 100년 또는 수백 년의 기간에 걸쳐 걸어 온 기술 발전의 길을 해방 후 20년 간에, 더 정확히 말해서 전후 불과 10여 년 동안에 달려 왔다.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력의 높은 발전 속도는 동시에 기술 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기술 발전의 높은 속도와 그 넓은 폭, 그 심도의 기저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 령도의 현명성이 놓여 있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가장 주되는 구성 부분으로 간주하였으며 매 시기 자립 경제 건설에서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 기술 력량을 집중시켜 왔다. 우리가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경제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자체의 기술 토대와 민족 기술 간부가 없는 것이였다.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가장 긴절하게 나선 과업이 바로 이 약점을 퇴치하는 것이였으며 자립적 경제 토대를 축성하는 데서 결정적인 문제도 자체의 기술 토대 즉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닦는 문제였다. 또한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력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자립 경제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 기술 력량을 옳게 리용하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였다. 이로부터 당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밀접히 결합시키는 방침을 시종 일관 견지하였던 것이다. 당의 이 방침은 기술적으로 극히 락후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최단 기간 내에 세계 선진 과학, 기술의 수준을 따라 잡고 인민 경제를 최신 과학, 기술의 토대 우에 급속히 올려 세울 수 있게 하는 가장 곧바른 길이였다.

우리 당은 또한 기술 혁명과 생산 관계의 개조와의 호상 관계, 기술 혁명과 사상 혁명, 문화 혁명과의 호상 관계도 정확하게 해결하였다. 당은 나라의 생산력 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조성된 모든 주객관적 조건을 옳게 타산하여 혁명의 매개 단계에서 생산 관계의 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기술 발전의 길을 광활하게 열어 놓고 새로운 사회 제도의 우월성에 튼튼히 의거하여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켰다. 우리 나라에서의 기술적 개건의 첫 단계의 과업이 벌써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기본적으로 승리한 조건에서 실현되였으며 전면적 기술 혁명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전일적으로 지배하게 된 력사적 조건에서 제기되였다. 당은 기술 혁명 수행에 사상 혁명을 선행하며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밀접히 결합하여 추진시킴으로써 기술 발전을 위한 사상, 문화적 전제를 튼튼히 마련하고 그에 의거하여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인도하였다. 사상 혁명을 선행시키는 방침은 기술에 대한 낡은 관점을 타파하고 전체 군중이 그에 달라 붙을 수 있게 하였으며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결합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대중의 기술, 문화 수준의 제고를 기술 토대의 축성 발전에 밀접히 따라 세울 수 있게 하였다. 기술 혁명과 사회 혁명, 기술 혁명과 사상, 문화 혁명의 호상 관계를 창조적으로 해결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은 이미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의 실천에서 완전히 확증되였다.

오늘 우리는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계획인 7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을 수행하는 결정적 단계에 처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를 더욱더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로 전변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그 령도의 혁명성은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기술 혁명의 높은 속도와 빛나는 성과를 달성케 한 결정적 요인이였으며 앞으로 우리의 전면적 기술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 우리 당 창건 20 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지난 시기 기술 혁명을 령도하는 과정에서 당이 쌓은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높은 긍지를 가지고 돌이켜 보면서 당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전면적 기술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더 빨리 앞당기고야 말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된다.

* *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매 단계와 매 시기에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의 기술 발전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 그 실현 방도들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기술 혁명의 전 과정을 능숙하게 령도하여 왔다.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 령도의 혁명성에 대하여 말할 때 우선 지적하여야 할 것은 기술 발전에서 큰 것과 작은 것을 배합하고 현대적 기술의 도입을 기본으로 하면서 낡은 기술의 개조, 리용에도 동시에 고려를 돌리며 당면한 요구와 장래의 요구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한 그것이다.

우리 당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전 행정에서 항상 외곬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히 경계하여 왔다. 당은 마치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주타격 방향과 함께 보조 타격 방향에도 동시에 고려를 돌리며 전면 공격과 함께 우회전, 기습전 등 다양한 방법을 배합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도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야 성과적으로 풀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특히 이것은 극히 락후한 상태에서 시작하였던 우리 나라 기술 발전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우리는 기술적 토대를 하나하나 축성하면서 인민 경제 각 부문을 점차 새로운 기술로 장비해 나가야 하였으며 또한 생산과 건설에서 당장 요구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면서 기술 발전의 일반적 추세를 따라 나가야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기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그 어떤 한 가지 가능성, 한 가지 방법만을 절대화할 수 없었고 또 목전의 것에만 몰두할 수도 없는 형편이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기술 발전의 일반적 추세와 함께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 그리고 장래 전망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 우에서 매 단계, 매 시기의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의 기술 발전의 중심 과업을 규정하고 그것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는 동시에 생산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고된 로동을 덜며 장래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어느 고리도 놓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잡고 나갔던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가 일정에 제기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한 바 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써 농촌 경리를 장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간단히 도입할 수 있는 선진 농기계, 선진 영농 기술과 농민들의 온갖 창의 고안을 부단히 장려하며 보급하여야 하겠

다. 이렇게 하여야만 농업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으며 우리 농촌의 기술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데 더욱 빨리 접근할 수 있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11~12 페지).

당의 이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기본 내용으로 되면서 그에 각종 선진 영농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밀접히 결합되여 추진되였으며 기계화에서도 대규모적인 현대적 기계화와 중소 기계화가 배합되였고 수리화, 전기화도 국가적 력량에 의한 대규모적 건설과 지방 자체의 힘에 의거한 중소 규모의 건설이 배합되여 추진되였다. 당의 이 방침은 비단 농촌 경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였다. 시기와 부문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업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이와 같이 큰 것과 작은 것이 배합되였으며 현대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낡은 기술의 적극적인 개조, 리용이 배합되였다. 당은 직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날론의 연구와 그 공업적 생산과 같은 최신 기술의 발전에 큰 력량을 돌리면서도 야생 섬유의 채취, 가공과 같은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금속 공업에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강법의 연구 완성을 위한 사업과 기존 제강 시설들을 기술적으로 개건하는 사업을 배합하였고 연료 동력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대규모 탄광, 발전소와 중소 규모 탄광, 발전소의 건설을 배합하여 연료 동력 기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면서 생산된 열 및 동력의 관리 리용 기술의 발전에도 심중한 고려를 돌려 왔다.

또한 당은 기술 발전을 위한 온갖 대책을 취함에 있어서 항상 당면한 요구와 장래의 요구를 밀접히 결합시켰으며 현재 아무리 어려워도 장래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면 력량을 아끼지 않았다. 당은 전쟁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술 발전을 위한 밑천을 꾸리는 사업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의 기지는 전쟁 시기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바로 전시에 공화국 과학원이 창설되였고 또한 전쟁 시기에도 수 많은 청장년들을 선발하여 기술 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이 추진되였다. 당은 매 시기 그 어떤 기술적 대책을 제기할 때에도 그것이 당면한 생산에서 노는 역할과 함께 장래의 기술 발전에서 놀게 될 역할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지어는 수공업적 기술을 동원 리용할 때에도 당은 그것이 당장에 가져 올 효과뿐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점차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게 될 전망을 내다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능력이 높은 큰 대상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력량을 집중하면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대상에도 동시에 고려를 돌리며 과학, 기술의 최신 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이미 있던 낡은 기술도 리용하며 현재의 요구와 함께 장래의 요구도 배합하여 나가는 당의 이 방침은 **제한된 력량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기술 발전의 속도를 비상히 빠르게 한** 중요한 요인이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기술 혁명이란 과학, 기술의 최신 성과를 생산에 도입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술 혁명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현대적 기술의 도입이 기본으로 된다. 특히 과거 식민지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와 같은 조건에서는 경제의 식민지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을 급속히 퇴치하자면 대규모적

기계 공업의 토대를 축성하며 현대적 기술을 인민 경제에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문제가 가장 절실하게 나선다. 따라서 우리 당은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자체의 기계 제작 공업을 창설 발전시키며 인민 경제의 기술적 장비를 전반적으로 선진 수준에 급속히 끌어 올리는 것을 기술 혁명의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또 그것은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의 전 과정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되였다. 그러나 자체의 기술 토대가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새로운 기계 기술을 대대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리 만큼 발전하자면 일정한 시간이 걸리며 또한 그러한 토대가 축성된 후에도 단번에 모든 부문과 생산 공정을 현대적 기술로 다 장비할 수는 없는 조건에서 큰 것과 함께 작은 것, 현대적인 기술과 함께 낡은 기술의 리용도 배합하지 않을 수 없다. 낡은 기술 또는 비교적 단순한 기술도 새로운 현대적 기술과 배합되여 리용되는 과정에서 더욱더 개조되고 완성되여 능률이 낮던 것으로부터 보다 능률적인 것으로, 간단한 것으로부터 점차 복잡하고 현대적인 것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술 발전은 련속적 과정이며 선행 시기의 성과와 준비에 기초하여서만 부단히 발전한다. 따라서 기술 발전의 부단한 높은 속도를 보장하려면 당면한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기술 발전의 당면한 요구와 전망적 요구를 합리적으로 결합시켜야 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현재와 장래를 결합시키면서 원대한 구상 밑에 제기한 우리 당의 모든 기술 발전 대책들은 우리 나라 기술 혁명에서 한 단계의 과업을 완수하고는 곧 다음 단계의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업을 해결하는 데로 넘어갈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발전한 부문들은 더 말할 것 없고 처음에는 낡은 기술, 또는 간단한 창의 고안의 도입으로부터 시작하였던 부문들에서도 아주 빠른 기간 내 그 기술적 장비가 강화되였다.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한 가지 가능성, 방법만을 절대화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전면적으로 리용하며 현재와 장래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이 기술 혁명을 최대한으로 추진시키는 현실적인 길이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매 시기의 인민 경제적 요구와 기술 발전의 성숙 정도를 옳게 분석한 기초 우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한 그것이다.

어떤 혁명 과업이든지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제기하여야 훌륭히 실현할 수 있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은 특히 기술 혁명의 제반 과업들을 제기하고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술 혁명의 모든 과업들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를 막론하고 주관적 욕망만으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다. 온갖 기술 발전 대책들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물질 기술적 조건들과 인적 예비들이 준비되여야 현실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또한 기술 발전을 위한 과업들은 인민 경제에서 가장 높은 요구가 있을 때에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은 기술 발전이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건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기 때문이다. 경

제 건설에서 높은 요구가 나설 때에 제기하여야 그 실현에 력량을 집중할 수 있고 또 그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적 대책들도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없고 또 실현한다고 하여도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당은 기술 발전을 위한 모든 방침들과 대책들을 규정함에 있어서 항상 시기를 잘 선택하는 데 커다란 주목을 돌렸다.

기술 혁명의 단계와 매 단계에서의 부문별 중심 과업을 정확히 설정한 것이 그 실례로 된다. 당은 복구기가 끝났을 때 인민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자면 공업화를 하여야 한다는 객관적 요구와 함께 복구기에 이미 자립 경제의 토대가 기본적으로 축성되였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잘 타산하면서 5개년 계획 기간을 기술 개건의 첫 단계로 규정하고 기술 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닦는 방향에서 매개 부문의 기술 발전 과업을 제기하였다. 당은 5개년 계획 기간까지에 기술 발전의 토대가 축성되고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전면적으로 완성된 유리한 조건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7개년 계획 기간을 전면적 기술 혁명의 단계로 규정하였으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생산 공정들에서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과업을 제기하였다.

당은 개별적 기술 발전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견지하였다. 1956년 12월 전원 회의와 1958년 9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전개된 낡은 공칭 능력, 낡은 표준 조사법, 낡은 기술 규정 등을 타파하는 운동, 1958년 6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수공업적 기술의 동원에 기초한 지방 산업 공장의 설 군중적 건설, 1959년 5월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 이후에 전개된 전 군중적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 1955년, 1958~1959년에 전개된 전 인민적 농촌 관개 공사… 등 이 모든 것은 해당 시기의 인민 경제 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주객관적 조건의 성숙 정도를 전면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당이 제기하고 실현한 대책들이였다. 오늘 전체 인민의 중요한 관심 하에 추진되고 있는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 공장의 건설도 화학 공업을 비롯한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절실한 요구와 이미부터 준비된 튼튼한 밑천에 근거하여 당이 제때에 제기한 현명한 조치이다.

우리 당이 제기한 이러한 시기 적절한 기술 발전 조치들은 그 어떤 실패와 우여곡절도 없이 **기술의 발전을 순조롭게 보장하였으며** 기술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를 푸는 데** 훌륭히 복무하게 하였다.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되는 다른 하나의 측면은 새 기술 도입에서의 대담성이다.

우리 나라 기술 혁명에서 달성된 위대한 성과는 모든 문제를 대담하게 구상하고 혁명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 방법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대담하게 구상하고 혁명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당의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기술 혁명에 착수한 지 얼마되지 않는 기간에도 세인을 놀래는 기술적 성과들을 내놓고 그것을 인민 경제에 훌륭히 도입할 수 있었으며 기술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우리가 이룩한 기술적 성과에는 보통의 사고 방식이나 근시안적인 《타산》에

의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허다하다. 비날론의 공업적 생산을 조직한 과정이 그러하며 자동차, 뜨락또르의 대량 생산을 조직한 과정이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 기지의 창설 행정이 그렇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물론 많은 난관과 애로도 가로놓여 있었다. 그러나 당은 우리가 락후한 상태에서 하루빨리 세계의 선진 수준을 따라 잡자면 보통의 방법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고 인정하였다. 당은 항상 우리가 락후한 것 만큼 남이 한 걸음 나갈 때에 우리는 열 걸음, 스무 걸음 뛰여야 하며 남이 열 걸음을 나갈 때 백 걸음 뛰여 나가야 한다는 립장을 견지하면서 전체 인민을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도록 고무 추동하였다.

이러한 당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은 기술 발전의 몇 개 단계를 포괄하면서 급속히 추진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일부 부문과 공정에 손 로동을 완전히 퇴치하는 과업이 남아 있지만 종합적 기계화, 자동화, 화학화와 초음파, 반도체, 전자 공학, 원자학 등 최신 과학 기술의 성과를 도입하는 과정도 동시에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보통 방법 대로만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였더라면 이러한 결과는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며 수 많이 부닥쳤던 난관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기술 발전 대책을 취함에 있어서 난관과 애로를 맞받아 나가면서 제기된 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령도 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훌륭히 구현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공산주의자들은 적과의 판가리 싸움에서나 새 사회 건설에서나 항상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혁명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적극적으로 개조해 나간다. 이런 령도 방법을 견지함으로써만 공산주의자들은 수배, 수십배, 수백 배나 강한 적들도 능히 타승할 수 있으며 온갖 간난 신고를 이겨 내면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

기술 혁명도 그 자체가 낡은 것을 혁명적으로 타파하고 새것을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수다한 생소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며 많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이게 된다. 따라서 어떤 애로와 난관도 두려워함이 없이 부닥친 문제를 주동적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강의한 의지와 대담성이 특히 절실히 필요하다. 좋은 조건이 조성되기를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기술 혁명도 추진시킬 수 없고 또 남이 아직 해 보지 못한 일이라 하여 주저한다면 새 기술을 창조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기술 혁명 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과감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것 저것 걱정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정전 후 겁을 먹고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있었다면 집 한 채도 변변히 짓지 못 하였을 것이다》.

물론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면밀한 타산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타산도 어떤 립장에서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 당은 과학 기술 발전의 제 대책을 취함에 있어서 항상 타산을 하되 그것을 혁명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진행하였다.

당은 무엇보다도 빨리 달려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 열의를 주요

하게 타산하면서 문제를 전 사회적, 전망적 견지에서 보는 원칙을 견지하였으며 대담하게 구상하고 대중의 혁명적 력량을 동원하여 그 실현 조건들을 조성해 나가면서 과학, 기술의 요새를 하나 하나 점령하였다. 협소한 《타산》으로는 우리 나라와 같이 과거 락후하였던 나라에서는 도대체 대규모 공업을 창설할 수도 없으며 기술 혁명의 원대한 과업을 실현해 나갈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험은 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에 의거하여 대담하게 구상하고 혁명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그 실현 조건을 면밀히 따라 세우는 당의 령도가 보장될 때에는 과학 기술에서도 능히 기적을 쌓을 수 있으며 락후하였던 나라들에서도 최단 기간 내에 세계 최신 과학, 기술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술을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 농민의 창조적 협조 밑에 군중적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기술 혁명을 령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여 온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다.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다른 모든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 혁명 수행에서도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기술 발전을 몇몇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국한된 사업으로가 아니라 전체 생산자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시키는 실천적 경험을 창조하였다. 실로 군중 로선의 관철은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가장 근본적인 측면을 이루고 있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굳게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당은 기술 발전의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었으며 기술 발전을 대담하게 구상하고 대담하게 추진시킬 수 있었다.

기술 혁명을 광범한 생산자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가 열어 준 기술 발전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된다.

기술이 대중과 유리되며 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복무하는 자본주의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 하에서는 모든 생산자들이 기술의 발전에 절실한 리해 관계를 가지며 또 그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넓은 가능성을 가진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생산자 대중이 생산의 주인으로 될 뿐 아니라 기술의 주인으로도 된다. 따라서 우리 당은 기술 혁명을 어디까지나 생산자 대중을 고된 로동에서 하루 속히 해방하며 그들을 더 문명하게, 부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숭고한 임무로 간주하였으며 기술 혁명 수행에서 대중의 능동적 활동을 부단히 강화하여 왔다.

특히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그 실현을 최대한 앞당기려면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고도로 높이는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나선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기술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려면 사람들의 대중적 지혜와 창발성이 요구된다. 그것도 오랜 기간에 걸쳐 실시해도 좋다면 적은 힘을 동원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장구한 시일이 걸린 일을 불과 몇 해 동안에 실현하려고 하는 만큼 전체 근로 대중의 창조적 힘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우리는 대중의 광범한 참가 하에 기술 혁명을 추진시킴으로써만 인민 경

제 모든 부문, 모든 고리들에서 기술 발전의 폭을 넓히고 도처에서 **생산의 구체적 요구에 맞게** 새 기술을 창조하고 도입할 수 있었다.

사실 매일 매시 로동에서 새로운 산 경험을 축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헐하게,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머리를 쓰는 생산자 자신들에게서 그 누구보다도 기술 혁신에 대한 더 훌륭한 생각이 자주 떠오르기 마련이다. 생산자들은 기술의 운영자인 동시에 그 창조자이기도 하다. 생산자들의 경험은 기술 발전의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따라서 당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한편 광범한 생산자 대중의 지혜를 기술 혁명 수행에 최대한으로 인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취하여 왔다.

당은 근로자들 속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 신비주의 등을 타파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매개 생산자들이 새 기술의 창안 도입에 적극적으로 달라붙게 하였으며 그들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모든 것에서 자기 부문, 자기 공정을 자신의 힘으로 기술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창조적 기풍을 확립하였다. 다른 한편 당은 대중 속에서 새 기술을 무시하거나 홀시하는 경험주의를 퇴치하고 선진 과학 기술 지식을 보급하는 사업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대중의 높은 열의가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당은 대중 속에서 나오는 발기와 창의를 적극 장려하고 지지해 주면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 대중의 창조적 협조를 실현하며 집단과 집단 간, 집단 내의 매개 성원들 간의 협력을 더욱 더 조직화함으로써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매 시기, 매 부문에서의 기술 혁명 수행의 중심적 고리들에 집중시켜 왔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도처에서 대중적 기술 혁신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대중 자신의 창의와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 밑에 수 많은 발명들과 합리화안들이 실현되였다. 우리 나라 기술 혁명 수행에서 이미 이룩된 중요한 성과들은 거의 모두가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성과들이다.

우리는 자기의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고 그들과 생산자 대중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기술 혁명을 광범한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바로 여기에 전면적 기술 혁명을 더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기술 혁명 수행을 령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쌓은 경험은 물론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이상에서 그 중 몇 가지만을 언급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나라의 실천적 경험을 더욱더 심오히 연구함으로써 당 정책의 본질과 당의 의도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한다.

※　•　※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창조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는 기술 혁명 수행에서 이미 커다란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더욱 큰 전망을 내다 볼 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 경제에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부문들과 수 많은 새 기업소들이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창설되였으며 전반적 인민 경제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기술적 장비가 몰라 보게 달라졌다.

우선 우리 나라에는 자체의 튼튼한 기계 제작 공업이 창설되고 그것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 기지가 확고히 축성되였다. 과거 기계 제작 공업이란 없던 우리 나라에 튼튼한 기계 제작 공업이 창설됨으로써 우리는 지금 발전 설비, 화학 설비, 야금 설비, 자동차, 뜨락또르, 엑스까와또르 등 대형 기계 설비들을 비롯하여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에 필요한 기계 설비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기계 제작 공업은 1948년에 비하여 1964년에 63.6 배로 장성하였으며 그것이 공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8%로 제고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미 기계화, 자동화를 힘차게 실현하였으며 또 앞으로 이 과업을 더욱 훌륭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되였다. 지금 일련의 중앙 공업 부문들에서는 기계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자동화가 광범히 도입되고 있으며 지방 공업에서도 기계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과거 무기 화학 공업 부문만 있던 우리 나라 화학 공업에 새로 유기 합성 공업을 창설함으로써 그의 일면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인민 경제의 화학화를 강력히 추진시켰으며 앞으로 농촌 경리를 포함한 모든 부문의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놓았다.

이와 함께 중공업, 경공업 등 공업 전반에서 새 부문들과 수 많은 자동화된 공장들과 직장들이 창설되고 자동화된 기계, 설비들과 자동선들이 광범히 도입됨으로써 공업의 자립적 부문 구조가 확고히 축성되고 그 기술 수준은 급격히 높아졌다.

기술 혁명에서 우리가 달성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이미 있던 부문들과 생산 공정들의 기술적 장비를 급속히 강화하고 그 능력을 철저히 높인 데서 표현된다.

우리 나라에 과거부터 있던 흑색 및 유색 야금 공업, 발전 공업, 세멘트 공업 등은 자체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자립적 중공업 기지의 확고한 일환으로 전변되였을 뿐 아니라 기존 생산 공정들도 현저히 현대화하였다. 이러한 부문들의 기존 생산 공정들은 과거의 공칭 능력을 이미 오래 전에 초과하였다. 그 대표적 실례는 강선 제강소의 분괴 압연 공정이다. 이것은 공칭 능력이 6만 톤으로 되여 있었으나 이미 1957년에 여기에서는 12만 톤의 강편이 생산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20만 톤 이상 수준으로 그 능력이 제고되였다. 이러한 실례는 김 책 제철소를 비롯한 다른 기업소들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공업 부문에서의 기술 발전의 이러한 성과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 1인 당 공작 기계 대수, 종업원 1인 당 전력 소비 수준 등과 같은, 기술 발전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들에서 이미 선진 수준에 올라 섰으며 전반적으로 로동 생산 능률이 급격히 제고되였다. 공업 부문 로동 생산 능률은 1947~1964년 간에 7 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다.

기술 혁명 수행에서 우리가 달성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급속히 추진시킨 것이다.

과거 락후한 원시적 농기구와 생산 방법으로 농사를 짓던 우리 나라 농민들은 오늘 높은 기술에 기초하여 해마다 풍작을 거두고 있으며 힘들고 고된 로동에서 급속히 해방되여 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농촌 기술 혁명이 지금 상당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수리화는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였는바 관개 면적은 1964년에 1948년에 비하여 4.6 배로 장성하였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도 강력히 추진되여 뜨락또르 총대수는 15 마력으로 환산하여 2만 대에 달하며 그것은 경지 100 정보당 1 대에 해당한다. 농촌 전기화에서도 우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였다. 지금 전체 농촌 리의 95.5%, 전체 농가 호수의 81%에 전기가 들어 갔다. 농촌 경리의 화학화도 급속히 추진되여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1949∼1964년 간에만도 2.6 배로 장성되였으며 지금 그 정당 시비량은 평균 300 키로그람에 달한다. 농촌 기술 혁명의 이러한 성과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는 경지 정당 수확고가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농업 생산은 전반적으로 빨리 발전하였다. 알곡만 하여도 우리는 해방전에 비하여 2 배나 생산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시한 길을 따라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는 더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다.

우리가 기술 혁명 수행에서 이미 달성한 이와 같은 성과들은 민족 간부 양성을 위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고 있다. 해방후 우리에게는 900 명 남짓한 기사 밖에 없었지만 오늘은 근 30만에 달하는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다. 1964년 말 현재 전체 인민 경제적으로 종업원 1,000 명 당 기술자, 전문가 수는 116 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민족 간부의 대부대를 육성함으로써 우리는 지난 시기 기술 혁명의 높은 발전 속도를 보장할 수 있었다. 또 이 대부대는 앞으로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의 확고한 승리를 보장할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성과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지금 전면적 기술 혁명의 완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당은 오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 혁명을 더욱 급속히 추진시킴으로써 과학, 기술의 최선단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최선단에 돌입하는 문제는 물론 어려운 과업이지만 그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우리 근로자들의 높은 열의가 있으며 또한 이미 쌓아 올린 튼튼한 밑천이 있는 한 능히 실현될 수 있다.

오늘 전체 근로자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에서의 전면적 기술 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확고한 자신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문화 혁명

김 종 기

우리 인민은 해방 후 20년 간 나라의 문화 혁명을 실현하는 데서 실로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렸다.

문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유기적 구성 부분이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혁명 과업이다.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사회주의가 진정 사회주의로 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사업과 함께 사회주의적 문화를 개화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봉건 통치와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의 절대 다수가 기술, 문화면에서 뒤떨어져 있었던 만큼 문화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해방 후 첫 시기부터 문화 혁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부단히 심화 발전시켜 왔다.

우리 당은 문화 혁명의 수행에서 주체적 립장과 군중 로선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매우 짧은 기간에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의 실정과 매 시기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화 혁명의 내용과 그 수행 방도를 독창적으로 규정하고 문화 혁명의 모든 과업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시켜 왔다.

우리 당은 문화 혁명을 광범한 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을 발동시켜 전 군중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이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문화 혁명 수행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후 문화 혁명을 사상 혁명, 기술 혁명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전면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세 가지 혁명 과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문화 혁명을 사상 혁명, 기술 혁명에 옳게 복무하게 하며 또 문화 혁명 자체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되였다.

문화 혁명 수행에 대한 우리 당의 이러한 방침들은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및 기술 지식 수준을 제고하며, 민족 간부를 육성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며, 문학 예술을 개화시키고 사회주의적 생활 문화, 생산 문화를 확립하는 등 문화 혁명의 전반에 걸쳐 관통되고 있으며 실천에서 그의 정당성이 뚜렷이 증시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문명 세계로부터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오늘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되였으며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지식 있고 문화성이 높은

사회주의적 근로자로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그것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

* *

우리 나라 문화 혁명 수행에서 선결 문제로 제기된 것은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였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을 제고하는 것은 문화 혁명에서 기초적인 문제이며 첫 공정으로 된다. 모든 문화는 주민들의 일반 지식을 토대로 하여 발전하는 것이며 나라의 문명 정도도 결국은 주민들의 일반 지식 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이 낮을 때에는 혁명도 건설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맹자는 정치 밖에 서 있다. 그에게는 먼저 가 나 다를 배워 주어야 한다>(레닌 전집 제 33 권, 78 페지).

과거 조선 사회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이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 섰을 때 가장 절박하고 첨예하게 제기된 것은 전체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급속히 높이는 문제였다. 해방 직후 공화국 북반부에는 230여만 명의 성인 문맹자가 있었으며 학령 아동의 겨우 3 분의 1만이 초등 교육에 망라되여 있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사태를 혁명적으로 타파하고 광범한 근로 대중과 후대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며 그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는 데 최대의 관심을 돌렸으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교육 형태와 다종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당은 모든 근로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상응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당은 해방 후 곧 인민 대중 속에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보급하며 일반 지식을 높이는 데 착수하였다. 당은 글 아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글 모르는 사람을 배워 주는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점차 성인 교육 형태를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들어 와서는 성인 교육을 체계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 학교, 근로자 중학교를 모든 직장, 농장들에 창설하고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을 높이는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문화 혁명 수행에서 민주주의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후대들이 다 배울 수 있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일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청산하고 학교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하였고 민주주의적인 유일 교육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발전하는 현실에 상응하게 교육 체계와 교육 내용을 부단히 개선 완성시켰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56년에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였고 뒤이어 1958년부터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였다.

전반적 초등 및 중등 의무 교육제의 실시—이는 우리 나라 문화 혁명 수행에서 결정적 전진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을 막론하고 모든 학교 교육에서 학교와 실생활,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육 리론의 원칙을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였으며 이 사업을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나갔다.

김 일성 동지는 교육과 생산 로동을

결합시킬 데 대하여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산 지식은 현실 속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책에서 배운 지식은 실생활에 적용되고 실생활에서 검열되여야 비로소 산 지식으로 될 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하는 때에라야만 참된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지식의 소유자는 사회에서 진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일성 선집 제 1 권, 32 페지).

우리 당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들을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을 겸비한 새 인간으로 키우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전후 시기에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청소년들을 보다 유능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 지식과 일정한 기술 지식을 결합시켜 배워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자 당은 교육과 생산 로동을 보다 훌륭히 결합시키며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을 결합시킬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창설하였다.

우리 당은 과거 사회로부터 오래 동안 분리되여 온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을 통합하며 그 중 어느 일면에만 치우치던 낡은 학교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일반 지식과 합께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시키는 전혀 새로운 형의 중등 교육 체계를 꾸려 놓았다. 그리 하여 학생들에게 기술 교육을 거의 하지 않던 종전의 고급 중학교 체계를 폐지하고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 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기술 학교, 고등 기술 학교 체계를 창설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하여 창설된 이 체계는 교육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맑스-레닌주의적 교육 리론을 철저히 구현한 것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실로 우리 나라 학교 교육 체계의 이러한 개편은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을 육성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된다고 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사상을 우리 혁명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의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1~2 년 내에 9 년제 기술 의무 교육제가 실시될 것이다. 그 때에는 중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모두가 다 기술 학교를 거쳐서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진출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사회의 로력자 대렬은 기술 문화 수준이 높은 역군으로 꾸려질 것이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문화 혁명 수행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또 하나의 성과는 국가를 관리하며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자체의 민족 간부의 대부대를 육성한 것이다.

민족 간부의 육성은 문화 혁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주권을 전취한 로동 계급은 자체의 인테리 부대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난날 민족 간부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에 있어서 국가를 관리하며 경제, 문화의 건설을 조직하는 자체의 믿음직한 인테리 부대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전진 운동의 성과를 보장하는 극히 중대한 문제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테리들은 우리 나라의 큰 력량이며 귀중한 보배이다. 인테리들이 없이 또는 그들의 적극적 활동이 없이는 사회적 발전도 경제적 발전도 문화적 발전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김 일성 선집 1954년 판, 제 4 권, 114 페지).

우리 당은 민족 간부의 육성을 문화

혁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해방 직후부터 시종일관 커다란 힘을 기울여 왔다.

우리 당은 민족 간부를 육성함에 있어서 과거에 공부한 학자, 기술자, 문화인들을 포섭하여 개조하는 동시에 근로 인민 출신의 새 민족 간부를 육성하는 방침을 견지하였으며 민족 간부 대렬을 급격히 확장하기 위하여 간부 육성 사업, 교육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방침을 취하였다.

당은 과거에 공부한 인테리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민족적 차별을 받아 왔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혁명성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을 포섭하고 근로 인민에게 복무하는 혁명적 인테리로 개조하는 방침을 견지하였다.

당의 이러한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오랜 인테리들은 모든 것을 당에 의탁하고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당의 리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이바지하게 되였으며 해방 후 평화적 건설 시기,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혁명과 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훌륭한 사회주의적 인테리로 개조되고 믿음직한 민족 간부로 성장하였다.

민족 간부 육성 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방침은 온갖 교육 형태들과 다양한 방법을 옳게 배합함으로써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육성하는 것이였다.

민족 간부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당은 주간, 통신, 야간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 양성 기관, 강습 그리고 실지 사업 과정에서 간부를 길러 내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리용하였다.

우리 당은 배우면서 일하며, 일하면서 배우는 원칙을 항상 견지하여 왔으며 특히 고등 교육 기관들에서 이를 널리 적용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하여 창설된 일하면서 배우며, 배우면서 일하는 고등 교육 형태인 공장 대학의 창설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새로운 이 고등 교육 형태는 우선 로동계급의 핵심 대렬이 생산에서 유리됨이 없이 고등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로동계급 자체의 인테리를 생산 현장에서 육성해 낼 수 있게 한다. 공장 대학은 인민 경제의 긴요한 로력을 생산에서 떼여 냄이 없이, 국가의 큰 투자를 들이지 않고 로동자들이 일하면서 배우고 기사들이 일하면서 가르친다는 데에 그 우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교육과 생산, 리론과 실천을 잘 결합시킴으로써 교육의 질도 제고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생산을 앙양시킬 수 있게 하였다.

실로 공장 대학의 창설은 로동자들로 하여금 누구나 다 배워 고등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길이며 로동계급이 반드시 점령해야 할 과학과 기술의 높은 봉우리에로 통하는 '지름'길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은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 육성의 기지로 전변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98개의 대학에서 15만 6,0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우리의 민족 간부 대렬은 이미 29만 4,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리 하여 우리의 공장, 기업소, 농목장과 어장, 국가 기관과 경제 기관들은 우리 당에 의하여 육성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의 손으로 훌륭히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문화 혁명의 일환인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서도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전진시키는 무기인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문화 혁명에서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 당은 사회의 진보와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를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과학과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우리 당의 과학 정책의 기본은 **과학 연구에서 주체를 확립하며 과학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다.**

당은 우리의 과학이 우리 나라의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전진하도록 하였다. 그리 하여 과학 사업은 우리 나라의 자원과 원료 원천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할 방도를 찾아 내며, 우리 나라의 자연 지리적 조건과 지대적 특성에 맞게 인민 경제의 각 부문을 발전시키는 데 긴급하게 요구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최신 과학 기술의 성과를 섭취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도를 연구하는 데 중심을 두었다.

《과학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기술 혁명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는 과학,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에서 절실히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에 답변을 주는 과학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비날론에 대한 연구의 완성, 무연탄 가스화 문제의 해결, 립철 련속 제강법의 도입 등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 경락 연구 집단은 선조들이 남겨 놓은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경락 체계를 발견하고 《산알》 학설을 내놓음으로써 생명 현상의 본질을 보다 심오하게 구명하였으며 현대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에 력사적 의의를 갖는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사회 과학 부문에서도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쌓은 귀중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개괄하며 우리 당의 혁명 전통과 민족 문화 유산을 연구하며 실천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해명하는 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당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를 위하여 과학자와 생산자 대중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며 과학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방침을 견지하고 관철시켰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회 생활과 생산 현장에 깊이 침투함으로써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 내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였으며 집체적인 과학 연구 방법을 광범히 도입할 수 있게 되였다.

또한 생산자 대중은 과학자, 기술자들로부터 과학 지식을 배움으로써 자기의 과학 기술 수준을 급속히 제고시킬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과학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우리의 과학은 멀지 않아 세계적 수준에 올라 설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축성하여 놓았으며 과학 발전의 광활한 전망이 열려지고 있다.

문화 혁명 수행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특출한 성과의 하나는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의 전면적 개화기를 열어 놓은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 상응하게 새로운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을 개화 발전시키는 것은 문화 혁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은 낡은 사회를 개조하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미적 정서와 문화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문예 리론의 원칙에 립각하여 문학 예술에서 당성,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특히 민족 문화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현실을 옳게 반영하며 문학 예술을 군중화하는 방침을 확고히 관철시켰다.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문예 정책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문화 유산을 계승하며 외국의 선진 문화의 성과를 섭취하면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의 우리 인민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하는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 발전에서 민족 문화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며 민족적 특성을 살리는 것은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유구하고 찬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 중에서 진보적이며 선진적인 것, 인민적이며 애국적인 것을 적극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켰다. 특히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 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당은 민족 문화 유산의 옳은 계승을 방해하는 민족 허무주의, 복고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경향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강화하였다. 그리 하여 수천 년을 두고 개화 발전하여 온, 풍부한 인민성과 훌륭한 예술성을 가진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과 전통을 옳게 계승 발전시켰다.

한편 당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문학 예술 창작에서 혁명적 변혁과 창조로 들끓는 사회주의적 현실과 우리 인민의 고상한 지향, 감정을 반영하도록 하는 데 집중한 관심을 돌렸다.

이리 하여 민족적인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문학 예술은 찬란히 개화 발전될 수 있었다.

당은 문화 건설에서 군중화의 방침을 견지하고 광범한 대중을 참가시켰으며 그들에 의거하여 인민을 위한 문학 예술을 발전시켰다.

우리 당은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대중을 문화의 향유자로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창조자로서 그들이 이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나라의 천 사람, 만 사람이 다 참가하여 우리의 문학 예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우리의 문화 예술인들은 일상적으로 생활 현장에 침투하여 로동 계급을 비롯한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의 전형을 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문화 소양이 높아진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와서 문학 예술 창작은 더욱더 군중화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문학 예술을 찬란히 개화 발전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의 군중 문화 정책에 의하여

공장, 기업소, 농촌, 어촌, 학교 등 할 것 없이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를 가나 문학 예술 써클과 체육단들이 조직 운영되지 않는 곳이란 없다.

그리하여 광범한 대중들 속에서는 재능 있는 작가, 예술가, 체육인들이 속출되고 있으며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당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생활 문화와 생산 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렸으며 그 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문화 혁명은 가정 및 사회 생활 령역에서와 생산 활동 령역에서 낡은 습관, 풍습, 전통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사회에 상응하도록 생활 문화, 생산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 문화, 생산 문화는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생산력의 부단한 장성,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수준의 제고에 따라 점차 발전하여 왔다.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히 진척됨에 따라 생활 문화와 생산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게 나섰다.

우리 당은 생활 문화와 생산 문화를 꾸리는 데서 우선 나라의 살림살이와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위생 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사회적 재부와 자원을 아끼고 사랑하며 기대와 일터의 주변을 알뜰히 거두는 운동을 강화하였으며 생활 환경을 문화 위생적으로 철저히 개변하도록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우리 당은 생활 문화와 생산 문화를 확립함에 있어서 이 량자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였다. 결과에 가정을 알뜰히 꾸림으로써 직장을 깨끗이 거두며 또 일터를 잘 꾸림으로써 마을과 거리를 잘 거두게 하는 등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을 확립하는 투쟁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였다.

당은 사회가 발전되고 근로자들의 문화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생활 양식을 개조하는 투쟁을 심화하였으며 특히 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녀성들을 낡은 생활 양식에서 해방하고 직장에 적극 진출시키는 것은 거대한 사회적 의의를 가진다.

당은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 급양, 편의 봉사 시설을 확대하며 녀성들의 로동 조건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여 주며 동시에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봉건적,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의 잔재를 극복하는 교양을 강화하고 새로운 집단주의적 행동 규범, 생활 양식을 부단히 배양하였다.

이리하여 착취 사회가 남겨 놓은 낡은 생활 관습과 비위생적이고 비문화적인 현상들을 없애는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과 생활을 보다 문화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

문화 혁명 수행에서 우리가 달성한 빛나는 성과는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문화 혁명에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증시로 된다.

레닌은 일찌기 로동 계급이 주권을 장악한 조선 하에서는 과거에 아무리

락후한 인민이라 할지라도 급속한 시일 내에 문화 기술적 락후성을 청산하고 선진 국가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근로자들은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도 퇴치할 수 없었던 그러한 락후성을 력사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성과적으로 극복하였으며 사회주의 문화를 훌륭하게 건설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시설을 비롯한 제반 물질적 조건이 이루어졌다. 학교, 도서관, 박물관, 극장, 영화관, 문화 궁전, 민주 선전실 등이 훌륭히 마련되였으며 신문, 잡지들이 늘어 나고 각종 문예 써클이 공장과 광산, 농촌과 어촌 등 모든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민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 하여 우리 인민의 기술 문화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어제'날의 로동자와 머슴'군들이 정치 일'군으로, 경제 활동가로, 과학 문화인으로 자라 나 국가와 경제를 능숙하게 관리 운영하며 민족 문화를 훌륭히 개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

오늘 우리 나라에서 문화 혁명은 전면적으로 더욱 폭이 넓게, 더욱 깊이 있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받들고 사상 혁명, 기술 혁명과 함께 문화 혁명을 이에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는 로동 계급과 국가의 지원 밑에서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며 농촌의 락후한 생활 양식과 인습을 청산하고 생활을 위생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 혁명의 전면적 앙양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촉진하며 또한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데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문화 건설—이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요구한다.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 기질을 가지고 불요불굴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만 이 사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오늘 모든 일'군들, 근로자들에게 사상 혁명, 기술 혁명과 함께 문화 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혁명가적 기풍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들이 혁명가적 기풍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 나라에서 문화 혁명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이며 우리 조국은 찬란한 문화를 개화 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서게 될 것이다.

천리마 운동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의 구현

로 병 훈

《우리 당은 천리마 운동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성과적 건설을 위한 결정적 담보를 찾았으며 이 운동을 튼튼히 틀어 잡고 그것을 계속 심화 발전시켜 왔다》(김 일성).

1. 천리마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이다

사회주의는 본질 상 비약의 시대이다.

낡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된 생산력은 발전의 무한한 전도와 가능성을 가지고 미증유의 속도로 장성하게 된다.

생산력의 결정적 요인인 근로 대중은 력사 상 처음으로 사회와 자신을 위하여 일하게 된 보람과 기쁨으로 하여 로동에서 고도의 자각성, 헌신성, 창발성을 발휘한다.

과거의 그 어느 사회에서도 근로자들은 결코 로동에서 참된 보람을 맛볼 수 없었다. 착취자들의 치부의 수단으로만 되였던 로동은 근로 대중에게는 오직 힘들고 어려운 고역일 뿐이였다. 거기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각성, 헌신성과 결합될 수 없었고 창조적 지혜와 재능은 발휘될 수 없었다. 계급 사회에서 로동은 강제적 성격으로 특징 지어졌다.

사회주의만이 사회 발전의 기초에 놓여 있는 로동에서와 사회 생활의 전 령역에 걸쳐 모든 악과 불합리를 청산하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자유로운 발전의 길과 창발성의 무한한 활로를 열어 준다. 사회주의 하에서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와 재능은 활짝 꽃 피게 되며 이것은 이 사회를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게 한다.

여기에 이 사회가 과거의 그 어느 사회도 도달할 수 없었던 생산력 발전의 속도와 력사의 전진을 힘차게 추동할 수 있는 본질적 우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 우리 나라의 천리마적 전진 속도는 이것을 확증하여 준다. 일찌기, 사회주의 시대의 하루 하루는 과거 사회의 20 년과 맞먹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맑스의 유명한 예언은 우리 나라 천리마 운동의 현실에

서 특히 뚜렷하게 구현되고 있다.

천리마 운동은 바로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시대, 비약의 시대를 특징 지어 주는 상징으로 된다.

당은 천리마 운동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담보를 찾았으며 이것을 총로선으로 확고히 틀어 쥐였다.

천리마 운동에는 우리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여 있다.

세기적으로 멀리 뒤떨어졌던 처지에서 가장 선진적 사회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일은 우리에게 결코 완만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 발전의 정상적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것 만큼 이것은 력사 발전에서 특수한 비약을 의미하였다. 더우기나 국토의 남북이 갈라져 있고 국제 반동의 괴수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에서, 전쟁의 혹심한 상처를 가셔야 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일은 우리에게 최대한 빨리 달려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천리마 운동은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 정신, 빨리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였다.

혁명 투쟁의 간고도 영광스러운 행로를 걸어 왔으며 거기에서 형성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인민, 미제와의 어려운 싸움에서 이긴 인민, 자기들에게 맡겨진 력사적 사명을 깊이 깨달은 우리 인민은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전진할 사상적 준비가 되여 있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몹시 어렵게 살아 왔고 전쟁에서 파괴되여 모든 것이 모자라는 형편이였으며 남보다 못 살고 뒤떨어졌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하여, 남만 못지 않게 살기 위하여 달리고 또 달려 나가려는 혁명적 의지로 충만되여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가 천리마 운동에 총체적으로 정확히 표현되고 있다.

천리마 운동은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성과적 건설을 위한 가장 혁명적인 방도로 되였다.

천리마 운동 행정에서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몰라 보게 달라졌으며 보수주의, 신비주의가 깨여지고 창발성과 지혜가 적극적으로 발양되게 되였다. 로동에서 대중의 자각성과 헌신성이 높아졌으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기풍이 세워졌다. 이것은 천리마 운동이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성과적으로 발양시킬 수 있는 방도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을 최대한으로 빠르게 하는 담보로 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천리마 운동은 우리 혁명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을 포괄하는 전 사회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되였다.

천리마 운동은 그 발전 행정에서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총적으로 포괄하는 운동으로 되였다. 천리마 운동은 공업 부문에서 뿐 아니라 농업, 건설, 운수, 상업, 교육, 보건, 과학, 문학 예술 등의 모든 분야에 퍼져 나갔으며 모든 사람들을 일떠서게 만들었다.

이리 하여 천리마 운동은 우리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 우리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하였고 우리

사회의 전 포괄적인 운동으로 됨으로써 우리 혁명을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시킬 수 있는 위대한 전진 운동으로 되였다. 우리 사회 발전을 가장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 수 있게 하는 여기에 바로 천리마 운동이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천리마 운동에는 우리 당 령도의 과학성과 혁명성이 전면적으로 체현되여 었다.

사회주의는 목적 의식적인 전진의 시대인바 이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과 혁명 투쟁의 전략 전술로 무장한 당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의 전 과정에서와 매 단계, 매 시기에 걸쳐 옳바른 로선, 정책을 세움으로써 대중을 미래에로 확신성 있게 인도해 나간다.

천리마 운동을 불러 일으켰고 발전시킨 그 밑바닥에는 바로 우리 당의 주체 사상과 군중 로선이 자리잡고 있다.

천리마 운동은 우리 당의 주체 사상과 군중 로선에 받붙임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가장 빠르게 추진시키는 운동으로, 로선으로 되였다.

2.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천리마를 탔다

천리마 운동이 가지는 위대한 생활력의 밑바닥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주체 사상이 확고히 놓여 있다. 천리마 운동은 바로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우리 인민의 높은 책임감, 불굴의 의지, 빨리 나가려는 정신의 산 표현이다.

혁명의 성과적 발전을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의 당과 인민이 자기 나라의 혁명 문제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로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근본 요인으로 된다.

조선 혁명의 주인은 우리 당과 인민이며 조선 혁명 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우리 자체의 힘이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추진시킬 것을 요구하는 천리마 총로선의 요구는 우리 인민이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섬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었다.

우리 혁명의 전진 속도는 바로 우리 당과 인민이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진 조선 혁명의 성스럽고도 무거운 임무를 어떻게 자각하며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는 문제이다. 우리 인민이 자기들에게 부과된 력사적 과업을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할 때 혁명은 성과적으로 전진할 것이다.

천리마 로선은 우리에게 혁명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여 오직 빠른 속도로만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로선은 결코 안일과 답보를 허용하지 않는다.

당은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대중 속에서 조선 혁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인민들 자신이라는 것을 교양하는 데 커다란 주목을 돌려 왔으며; 대중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면서 모든 일에서 최대의 자각성, 헌신성을 발휘하였다. 천리마 운동은 바로 혁명을 자신들의 임무로 확고히 받아 들인 대중의 자각성, 헌신성의 산물이다.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킬 데 대한 천리마 로선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근로자들의

창발성을 원만히 발양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재간과 소질, 기능들을 적극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사고하고 푸는 기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당은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주체가 섬으로써 사람들은 자체의 힘과 지혜를 굳게 믿고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당은 주체 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한때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서 우리의 창조적 활동을 방해하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결정적으로 극복하였다. 교조주의, 사대주의는 오래 동안 우리 운동의 전진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창조적 활동이 요구되는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와서 더는 참을 수 없는 병'집으로 되였다. 이 병'집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운동과 전진, 변혁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 어떤 공식이나 틀에 기계적으로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간주하였다. 교조주의는 사람들의 독창적인 사고력을 마비시켰으며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낳는 중요한 근원으로 되였다.

당은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승리하는 시기에 들어 서면서 이러한 병'집을 결코 묵과할 수 없었다. 당이 교조주의, 사대주의와의 투쟁에, 주체 확립을 위한 투쟁에 더우더 불을 건 것은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방침이였다.

주체 확립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우리 사업에서는 기존 공식이나 명제에 대한 미신적 환상이 사라지고 보수주의, 신비주의가 깨여져 나갔다. 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 정책에 립각한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그 어떤 공식에도 구애됨이 없이 우리 혁명 발전의 현실적 사태로부터 출발하여 대담하게 사고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데로 나아갔다. 주체가 서니 경제 건설에서는 공칭 능력이 깨여지고 새로운 기술 혁신안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뜨락또르와 자동차, 각종 현대적 기술 설비들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였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 갱생의 립장에 서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또한 난관과의 투쟁에서 믿음직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온갖 난관과 시련을 계속 이겨 내는 불굴의 혁명 정신이 없이 천리마 운동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다.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 시기는 원래 력사상 가장 심각한 변혁의 시기로서 특징 지어진다. 온갖 간난 신고와 준엄한 시련을 각오함이 없이, 또 그것과의 가렬처절한 투쟁을 이겨 나감이 없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불가능한 것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 혁명은 국제 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직접 맞서고 있는 조건에서, 그들의 각 방면으로 되는 계속적인 침략 책동과 부딪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부르죠아지와의 판가리 싸움에서 자기들의 무쇠 주먹으로 적을 쓸어 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려는 혁명 정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난관이 중첩되는 조건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찾아 내고 맡은 임무를 끝까지 해내려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없다

면 혁명의 승리적인 전진,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는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철저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만이 우리 앞에 겹겹으로 쌓인 그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천리마 운동과 같은 혁명적 대고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천리마의 정신—그것은 곧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다.

우리는 바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후 벽돌 한 장 없는 재'더미 우에서 공장과 학교, 주택과 병원을 일떠세울 수 있었으며; 바로 자력 갱생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반혁명 종파'군들의 악랄한 준동을 물리치고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을 보위해 내고 고수할 수 있었으며; 바로 자력 갱생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련을 이겨 내면서 강력한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천리마 운동과 혁명적 대고조를 계속 견지함에 있어서 내부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는 것은 중요한 요구로 된다.

물론 외부의 지원, 국제적 지지 성원은 매개 나라의 혁명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국제적 지원만을 바라고 자기 나라의 혁명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주체적 립장과 자력 갱생의 정신이 없으면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다. 혁명 투쟁에서나 건설 사업에서나를 막론하고 자력 갱생을 위주로 하고 외부의 지지 성원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러한 정신으로 싸워 나가야만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시킬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남에게 의존하려는 립장에 서 있었다면 천리마 운동과 같은 혁명적 대고조는 결코 이룩하지 못 하였을 것이다. 사실 상 우리는 자력 갱생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천리마를 탔다.

우리는 물론 전쟁 시기와 전후 시기에 걸쳐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국제 로동 계급으로부터 많은 지지 성원을 받았으며 이것은 전쟁의 승리와 전후 복구 건설에 커다란 힘이 되고 보탬이 되였다. 또 이것은 우리가 자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원조만을 바라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혁명의 주인된 립장을 응당 견지하는 것이 요구되였다. 우리는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야 하였지만 자력 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천리마 운동이 발단되던 1956년 말~1957년 시기를 돌이켜 볼 때 사태는 매우 곤난한 형편에 있었다. 우리는 물론 그 때에 이미 사회주의 제도의 확립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였고 전쟁의 상처를 기본적으로 가시였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인민 생활도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 나지 못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년 평균 20% 이상의 장성을 예견하는 방대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 과업을 주로 자체의 힘으로, 내부의 예비를 찾아 내여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만일 우리가 이 때에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지 않았더라면 난국은 타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의 요구와 현실의 긴절한 요구를 파악한 대중은 난관 앞에서 물러 서지 않았으며 자력 갱생의 구호 밑에 투쟁에로

일떠섰다. 그리하여 일부 사람들이 《환상》으로만 간주하던 5 개년 계획은 오히려 단 2년 반 동안에 돌파되였으며 천리마의 발구름은 이 땅을 진감하게 되였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참으로 우리가 천리마를 탈 수 있게 한 결정적 요인이였다고 김 일성 동지는 지적하였다:

《우리에게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천리마를 탈 수 있었다. 누가 우리에게 천리마를 태워 준 것이 아니다. 말 탈 줄 모르는 사람을 남이 태워 주면 떨어져 상할 수 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천리마를 탔으며 계속 천리마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앞으로 내달려야 한다》(《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주체 확립을 위한 투쟁을 부단히 강화하고 자체의 힘과 지혜를 철저히 믿고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천리마 운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수 있는 열쇠로 된다.

3. 천리마 운동은 인민 대중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대한 전진 운동이다

천리마 운동의 밑바닥에는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이 놓여 있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기 위한 결정적 방도는 군중 로선을 관철하여 인민 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동원하며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 재능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의 천리마적 속도는 우리 당이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킨 것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당은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모든 사업에서 군중 로선 관철에 언제나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당은 어려운 때일수록, 난관과 시련에 부닥치는 때일수록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거기에 적극 의거하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였으며 이것은 천리마 운동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힘으로 되였다.

당은 혁명과 건설의 수 많은 어려운 사업들을 대중의 힘과 창발성,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동하는 방법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달성하였다. 이것은 군중 로선에 의거하는 방법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가 천리마를 탈 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천리마 로선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당은 특히 대중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굳게 단결시키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고도로 발양시키는 것이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는 길이라는 이 로선의 본질적 요구와 관련되여 있었다.

대중의 힘과 재능을 믿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 사업에 적극 동원하는 일은 대중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오래 동안 낡은 사회의 압제밑에서 살아 온 대중은 자기들의 창조적 능력을 옳게 발전시킬 수 없었으며 낡은 사상, 낡은 사고 방식을 적지 않게 가지게 되였다. 대중을 육체적으로, 정

신적으로 짓누르던 온갖 착취 관계가 청산되고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오늘날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여 낡은 사상, 낡은 사고 방식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그들 속에서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높이 발양시키는 믿음직한 방도로 된다. 당은 이 사업에 언제나 첫째 가는 의의를 부여하였는바 여기에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키워서 우리 혁명의 강유력한 동력으로 만들어야 하며 또 만들 수 있다는 우리 당의 인민 대중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당은 대중을 교양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이것을 그 어떤 선발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당은 바로 대중들 자신이 자기들을 교양하는 가장 훌륭한 교사로 된다고 보았다. 자연 개조와 사회 개조의 주인공으로, 담당자로 되고 있는 대중은 바로 자신들의 사상적 개조에서도 가장 훌륭한 방도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 개조 사업을 대중 자신들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우리 당의 방침은 크낙한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대중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긍정적 면들을 적극 살리고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배웠고 서로 가르쳤다. 대중은 뒤떨어진 사람들을 재고 들어 고쳐 주었다. 대중이 살며 일하는 기본 단위인 생산 현장은 인간 개조의 거점으로 되였으며 자연 개조와 인간 개조 사업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였다.

천리마 운동을 통하여 어느 한 부문에서가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전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정신-도덕적 변화가 눈에 뜨이게 나타났다. 사람들 속에서는 아름다운 공산주의적 미풍이 수 많이 피여 났다.

이리 하여 모든 사람들이 천리마를 타기 위한 투쟁에 일떠섰고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창발성을 내게 되였다.

만일 대중 교양 사업을 전문 교양 기관이나 전문 일'군들의 사업에만 국한하는 수공업적 방법에서 벗어 나지 못하였더라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성과를 바랄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 개조 사업을 대중 자신들의 사업으로 되게 한 여기에 혁명 승리를 최대한으로 앞당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혁명적 방도가 있다는 것이 확증되였다.

이것은 오래 동안 대중을 몽매한 무리로만 간주해 왔고 물질적 부의 생산에서 시키는 일이나 수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겨 온 낡은 사회의 착취자적 사고 방식이 허황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증한 것이였다. 이것은 또한 사회주의는 인민 대중의 목적 의식적인 창조물로 된다고 하는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이 다만 경제 건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건설, 사상 개조에도 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였다.

천리마 운동의 발전을 위한 당의 군중 로선 관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대중 운동의 방법으로 수행한 것이였다.

대중 운동은 우리 당에 있어서 군중 로선 관철의 중요한 형식이였다. 혁명의 매개 단계, 매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대중 운동; 혁명의 매개 부문, 매개 초소에 있어서의 대중 운동의 련쇄는 천리마 운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흐름을 이룩하면

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도, 지방 산업 공장들의 건설도, 수리화를 위한 대자연 개조 사업도, 폐허로 되였던 도시와 농촌의 복구 건설도 모두다 대중적 운동으로,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였다. 과학 기술의 발전도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 농민들의 창조적 협조 밑에 군중적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문학 예술도 작가, 예술인들의 활동과 광범한 대중적 문예 활동이 배합됨으로써 더욱 꽃 피고 있다. 인간 개조 사업에서도 군중적 방법을 커다란 생활력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군중 운동을 통하여 걸린 문제들이 풀려 나가고 있으며 천리마를 타고 전진할 데 대한 당의 의도가 실현되고 있다.

군중 운동의 방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예비, 가능성들을 백방으로 동원케 함으로써 천리마 운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혁명적 방법이며 적극적인 방법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군중 로선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따라서 군중 운동의 방법은 사회주의 건설과 같이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들을 수 없이 해결하여야 하는 사업에서 필수적 요구로 되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해 주는 사회-경제적 바탕으로 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람들에게 집단 로동의 필연성과 리해 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뭉치게 하며 힘을 합쳐 더 높은 성과를 가져 오도록 자극한다. 군중 운동을 통한 건설의 방법은 사회주의 하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고유한 방법이다.

우리 나라에서 군중 운동의 방법을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로정을 천리마적 속도로 보장할 수 있은 것은 합법칙적인 것이였다.

경제 건설에서 군중 운동은 본질 상 경쟁 운동이며 필연적으로 경쟁 운동으로 발전한다. 군중 운동은 바로 경쟁 운동으로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추진할 데 대한 당의 천리마 로선의 관철에서 매우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군중 운동 행정에서 혁명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잠재력과 가능성들이 효과 있게 발양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무엇보다도 경쟁 운동으로 된다는 것과 관련되여 있다. 사람들이 뭉쳐진 집단에서 서로 힘과 지혜를 내고 예비를 찾아내게 되면 사람들 호상간의 관계는, 맑스의 표현을 빌면 자연히 《경쟁심과 활기의 특수한 흥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경쟁에 붙을 때 사람들은 혁명적 열의와 재능을 더욱 높이 발양하면서 사업에서 보다 높은 성과와 혁신을 일으키게 된다. 경쟁에 붙으면 사람들은 경쟁에 붙지 않았을 때와 같은 기능, 같은 기술-경제적 조건에서도 더 높은 생산 능률을 내게 된다.

경쟁은 한 집단 내에 머물지 않고 전 사회적 성격을 띠고 발전할 때 더 큰 위력을 내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 운동의 전 사회적 발전은 필연적인 추세로 되며 그것은 특히 모든 분야에서

대중 운동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는 당의 령도적 활동에 의하여 크게 추신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경쟁은 적대적 성격을 띠지 않는 것으로서 특징적이다. 따라서 경쟁 운동의 발전은 경쟁자들 호상간, 경쟁 집단들 호상간에 서로 돕고 이끌며 서로 성과를 나누는 조회로운 관계를 가져 오며 그리하여 전 사회 성원들의 통일과 단결은 강화되고 사업에서의 혁신은 더욱 큰 것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천리마 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언제나 대중적 경쟁 운동의 발전에 심중한 주목을 돌려 왔으며 이것에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었다. 천리마 운동 행정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이 그 발전의 가장 높은 형태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로까지 발전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대중적 경제 운영의 훌륭한 방법으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 개조의 훌륭한 학교로 되고 있다.

4. 천리마 운동은 날을 따라 심화 발전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천리마 운동이 심화 발전되는 행정에서 출현한 그 조직화된 형태이다.

천리마 운동의 커다란 생활력은 그것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매 단위, 매 초소에서 일하는 전체 대중의 심장을 틀어 쥐였다는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온 조선 사람이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하여 힘 쓰면 힘 쓸수록 우리의 전진 속도는 더욱더 비상한 것으로 될 것이다.

당의 천리마 로선의 중요한 요구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천리마를 타는 것이며 혁명의 모든 초소에서 천리마가 달리는 것이다.

혁명의 간고한 로정을 통하여 당을 무한히 따르게 되였고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에서 자신들의 사활적 리해 관계를 보게 된 대중은 당의 총로선 관철에 백방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중의 혁명적 열의에 의하여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시기에 널리 벌어지고 있던 집단적 혁신 운동은 천리마 운동 행정에서 더한층 발전되였다.

집단적 혁신 운동은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기술 혁신에 기초하여 작업반과 직장, 나아가서는 전 기업소 성원들을 생산 혁신자들의 수준에로 끌어 올림으로써 인민 경제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케 하는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높은 형태이다. 집단적 혁신 운동의 성과들에 의하여 천리마 운동은 힘차게 전진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추진되였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제도의 전면적 확립과 더불어 집단적 혁신 운동은 점차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생산 과정에서의 근로자들의 집단적 혁신 운동은 혁명 발전의 새로운 환경에서 인간 개조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상 개조를 모든 사업에 앞세울 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 것이였으며 대중의 의식성과 창발성을 적극 계발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빨리 할 데 대한 천리마 로선의 요구로서 제기된 것이였다.

당은 사회주의 제도의 승리와 함께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는 데 힘을 돌리였다. 제도의 요구에 근거한 교양 사업은 커다란 힘을 가지고 대중을 파악하였다.

근로자들 속에서는 공산주의적으로 살려는 기풍이 전면적으로 움터 갔으며 이것은 물론 미구에 활짝 꽃 필 것이

였다.

우리 사회의 이 성숙된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포착하였고 현실화하는 데서 선봉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이였다.

1959년 3월, 강선 제강소의 진응원 작업반원들에 의하여 발기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료원의 불'길마냥 모든 부문, 모든 지방에 급속히 퍼져 나갔다. 《공산주의식으로 일하며, 배우며, 살자》는 그들의 구호는 대중의 심장을 틀어 쥐였으며 사고 방식, 생활 방식에서의 근본적 변혁을 가져 오게 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급속한 최대 발전은 당의 천리마 로선에 대한 대중의 열렬한 호응이였으며 사회주의 제도에 상응하게,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에 상응하게 살려는 대중의 굳센 결의의 표현이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천리마가 아니면 나갈 수 없다는 우리 인민의 생활적 신조는 더욱 힘차게 전면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대중이 당의 총로선을 받아 물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드디여 발견한 사회주의 경쟁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조직으로 출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천리마 운동의 심화 발전된 형태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 조직화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당의 세심한 관심 하에서 부단히 발전하여 왔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비김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 것은 청산리 방법의 창조와 그 관철 행정이였다.

천리마 기수들은 청산리 방법을 소유함으로써, 바로 인간 개조를 통하여 생산에서의 혁신까지도 보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전에서 훌륭한 방법과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천리마 기수들은 청산리 방법을 소유함으로써 사람과의 사업을 본격적인 단계에로 이끌어 올릴 수 있었으며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천리마를 타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

청산리 방법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행정을 통하여 대안 체계가 확립되면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되였다.

대안 체계 하에서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이 중요한 구호로 들고 나온 동지적 협조와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 원칙이 더욱더 필수적인 요구로 되였다. 이것은 바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그 발전의 보다 높은 계도우에 올려 세우게 한 요인이였다.

대안 체계가 들어 가면서 대중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지향하고 있던 기업 관리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은 사업 체계의 요구와 밀접히 결합되였다. 모든 사람들이 생산에 대하여 공동적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아 주면서 일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생활적 기풍으로 되게 되였다. 이것은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을 가져 오는 중요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또한 남조선 혁명을 더 잘 지원할 데 대한 대중적 애국 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고 있다. 이 애국 운동은, 해방 후 20년 간의 투쟁 행정에서 민주주의 혁명과 조국 해방 전쟁,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단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혁명가의 영예를 지니도록 한 당의 높은 평가와 신임에 무한히 고무된 대중의 숭고하고 열렬한 혁명 정신의 발현으로 된다.

사람들은 당의 높은 평가와 믿음에 깊이 감동되여 혁명가로서의 영예를 간직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할 뿐 아니라 남조선 혁명을 더 성과적으로 지원하며 국제 혁명에 이바지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게 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의 투쟁 결의

는 남조선의 애국자들과 국제 혁명 투사들을 자연발적 성원으로 동부하는 사업을 통하여 새롭게 갱신되였으며 그 결의를 실행하면서 혁명적 자각이 일층 높아지고 있다.

총로선으로서의 천리마 운동은 북반부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남조선 혁명과 국제 혁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 당의 립장을 포괄하고 있는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그 발전 행정에서 총로선의 이 가장 폭 넓은 범위에로까지 대중의 혁명적 각성을 불러 일으키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천리마 운동의 생활력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전 과정을 통하여 산 물질적 힘으로 전환되고 있다.

* *

천리마 운동 행정에서 우리 나라는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터전을 가진 강유력한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천리마 운동 행정에서 우리 인민은 조국 통일을 위한 튼튼한 정치 경제적 밑천을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전초 기지를 무적의 보루로 꾸려 놓았다.

천리마 운동 행정에서 우리가 이룩한 가장 고귀한 열매의 하나는 인간 개조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 온 것이며, 그 가장 훌륭한 방도들을 찾아 낸 것이며, 인간 개조 사업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천리마 운동을 계속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절실한 요구로 된다.

천리마 운동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성과적 건설을 위한 로선으로 될 뿐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되며 우리 당과 인민이 국제 혁명에 이바지하는 가장 훌륭한 방도로 된다.

당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를 위한 투쟁

김 국 훈

당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를 위한 투쟁은 당의 철석 같은 통일을 보장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실현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로동 계급은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된 자기의 강력하고 전투적인 전위대를 가질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당은 내외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 속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들을 수행하면서 당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를 위한 투쟁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 당은 북조선에서 새 사회 건설을 지도하며 국내외의 반동 세력과 대치하여 대중을 혁명 전선에 동원하는 어려운 혁명적 과업들을 수행하여야 하였으며 그 행정에서 자기의 대렬을 확대 강화하고 당의 튼튼한 조직적, 사상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211~212 페지).

지난 20 년 간에 우리 당은 중첩된 시련과 난관을 극복 타개하면서 맑스-레닌주의당 건설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자기 대렬을 하나의 의지로, 철통 같이 통일된 필승 불패의 대오로 강화하였으며 그리 하여 조선 혁명을 가장 가까운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

당의 기본 골간인 간부 대렬의 강화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화함에 있어서 기본 문제는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였다.

간부는 당의 기본 골간이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 지휘 성원이다.

당은 간부 대렬이 튼튼히 꾸려져야만 자기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화할 수 있으며 로동 계급의 전위 부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우선 중요한 것은 간부들과의 사업이다.

간부는 당의 기본 핵심 력량이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의 지휘 성원들이다. 간부 사업은 당의 핵심 진지를 공고히 하며 당의 령도력을 강화하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의 력량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로 된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더욱 긴절하고 어려운 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은 창건되자 곧 정권을 지도하며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게 되였다. 그러나 초기에 급속히 발전하는 혁명의 요구에 비하여 볼 때 당내에는 준비된 간부들이 매우 적었으며 따라서 간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을 강화하며 새 사회 건설을 성과 있게 령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 1 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창건 첫날부터 이 문제 해결에 큰 힘을 기울여 왔다. 당은 항일 무장 투쟁에서 단련된 오랜 혁명 간부들과 해방 후 혁명과 새 사회 건설의 실천 투쟁 속에서 검열된 로동 계급 출신 간부들을 핵심으로 하고 근로자들 속에서 새로 자라 난 젊은 간부들과 인테리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등용 배치함으로써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데 주력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 투쟁의 오랜 경험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간부 대렬을 꾸림으로써 그들의 지도 하에 모든 간부들을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교양하며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는 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많은 간부들을 육성해 낼 수 있었다.

당은 또한 로동 계급을 비롯한 기본 계급 출신 간부들을 대담하게 등용 배치하고 육성함으로써 우리 당 간부 대렬의 계급적 구성을 옳게 보장하였으며 과거 교육을 받은 인테리들을 아량 있게 포섭하고 교양 개조하여 간부로 등용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데 요구되는 민족 간부 문제를 제때에 해결할 수 있었다.

간부 대렬을 꾸리는 데 있어서 주되는 것은 간부 선발 배치 및 육성 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간부의 선발 배치 및 육성 사업에서 정치적 표징을 위주로 하면서 실무적 표징을 이에 결부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에 있어서 당이 특별한 관심을 돌린 것은 실무적 표징에만 치중하고 정치적 표징을 소홀히 하는 경향들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간부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당은 또한 간부 사업에서 일정한 조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 일군들의 추천과 독단적 처리에 의하여 간부들을 조동 배치하는 무규률적인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간부 사업에서 질서와 제도를 엄격히 수립하도록 특별한 주목을 돌렸다. 당은 매개 당 위원회들과 당 기관들이 간부 사업을 첫째 가는 사업으로 내세우고 이것을 모

든 사업에 선행시키며 이 사업에서 집체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간부 사업에서 당'적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고 질서와 제도가 확립되게 됨으로써 간부 대렬은 정치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능력 있는 우수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의 질적 수준이 부단히 높아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간부들을 혁명과 건설의 실지 투쟁과 특히는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사상 투쟁을 통하여 검열하고 육성하였다.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간부들을 육성하는 것은 일'군들을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그들에게 혁명과 건설의 산 리론과 경험을 체득시키며 대중과의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도였다.

특히 당내 사상 투쟁은 간부들을 검열하고 단련하며 그들의 당성과 혁명성을 제고하는 기본 담보로 되였다.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비당적, 비계급적 사상 요소들과의 견결한 투쟁 과정에서 해방 후 간부 대렬에 끼여 들었던 반당 분자, 각종 이색 분자들이 적발 제거되였으며 간부 대렬의 순결성이 보장되고 간부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였다. 이리 하여 우리 당의 간부 대렬은 당성이 강하고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어떠한 어려운 정황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당'적 원칙을 고수할 줄 알고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줄 아는 열렬한 혁명가들의 대렬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간부들을 실지 투쟁을 통하여 육성하는 한편 그들을 간부 양성 기관과 기타 각종 교육 체계를 통하여 교양 육성하였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만큼 그들 속에서 나온 간부들의 정치 실무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간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우리 당은 창건 초기부터 각종 간부 양성 기관, 학교 교육망 등을 통하여 간부들을 교양 육성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당은 간부들 속에서 정치 실무 학습과 당 생활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높은 준비된 유능한 일'군으로 교양 훈련하는 데 심중한 주목을 돌렸다. 이리 하여 우리의 간부 대렬은 정치 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높은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려졌다.

오늘 우리 당은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오랜 혁명 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해방 후 민주주의 혁명과 조국 해방 전쟁,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실지 투쟁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우수한 혁명 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밑천으로 하여 오늘과 같이 자기 대렬을 반석 같이 공고화할 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능숙하게 령도하는 세련된 당으로 강화 발전될 수 있었다.

초급 진지의 공고화

당은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서는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당의 초급 진지를 강화하고 그의

전투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당의 기층 조직인 당 세포(분세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인체 내의 매개 세포들이 건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이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화되려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매개 당 세포들이 강화되여야 한다.

당 세포는 당원들의 당 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거점이며 군중을 당 주위에 결속시키고 당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 단위이다.

따라서 당 세포를 강화하는 것은 당 대렬의 사상 의지의 통일과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대중을 당 주위에 단결시키고 당 정책 실현에로 그들을 조직 동원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당 세포를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력을 제고하는 데 심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당은 당 세포를 강화하는 중요한 대책으로서 핵심 당원들을 육성하며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당의 핵심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당 세포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 조직들의 구체적 특성으로부터 출발한 창조적인 방침이였다.

우리 당이 창건된 후 짧은 기간에 대중적 당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당원들의 정치적 준비 정도는 각이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치 사상적으로 인정하게 준비된 열성적인 당원들로써 당의 핵심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그 대렬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체 당원들의 당'적 각성과 정치 의식 수준을 급속히 제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대중적 당을 건설하면서 세포 핵심을 부단히 육성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조직 로선이다. 핵심이란 공산주의의 진리를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혁명의 길로 나아갈 만 한 당원들을 말하는 것이다. 100만 당원을 단번에 똑 같이 공산주의 의식으로 무장시키기는 곤난하다. 반드시 먼저 핵심을 길러 내고 점차 전체 당원의 의식 수준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345 페지).

우리 당은 당에 대한 충실성, 확고한 계급적 립장, 당 규률에 대한 자각성, 실천적 투쟁에서의 선봉적 역할, 대중 속에서의 높은 신망 등을 기본 표징으로 삼고 당의 핵심 대렬을 부단히 육성 확대하는 데 큰 주목을 돌렸다.

당은 우선 초급 간부들을 준비된 우수한 핵심 당원들로 튼튼히 꾸리고 실지 사업을 통하여 배워 줌으로써 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단련하였다.

당은 또한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 세포 핵심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당 조직들에 의한 체계적인 교양과 실천적 활동을 통한 자체 수양을 결부시켜 진행한 당의 이러한 조치는 매개 당 세포 내의 핵심 대렬을 급속히 확대 공고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급속히 제고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이였다.

당 핵심 대렬이 확대 공고화됨으로써 당 세포들은 당성이 강한 우수한 핵심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은 급속히 제고되였으며 우리의 모든 당 조직들은 온갖 불건전한 사상 요소와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전투적 조직으로, 당

내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강철의 대오로 공고화되였다.

당 세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또한 심중한 주의를 돌린 것은 전체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당 생활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였다.

당 세포들의 공고화는 결국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의 당성이 얼마나 높은가, 실천 활동에서 그들이 선봉적 역할을 얼마나 훌륭히 수행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당의 핵심들 뿐 아니라 전체 당원들의 혁명가적 자질 즉 혁명성과 강의성, 원칙성, 불요불굴의 투지, 혁명적 전개력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등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 정책 관철에서의 그들의 선봉적 역할이 제고되면 될수록 당 세포들은 그 만큼 공고화되는 것이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것은 결코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랜 혁명 활동을 통한 꾸준한 자체 수양과 당 조직들의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교양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당원들의 당성은 그들의 당 생활을 부단히 강화할 때 가장 빨리 높아진다는 것을 실천적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당 생활은 당원들이 당 규약 상 의무를 일상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는 활동인 만큼 그것을 강화하는 것은 당성을 단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도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성 단련, 당성 제고도 오직 당 생활에서만 가능하며 당 생활을 잘 하는 데서만 될 수 있다》.

당 생활이 강화되면 당원들의 당성이 단련되고 당내 사상 의지의 통일이 강화되며 당 앞에 나선 혁명 과업도 성과있게 실현될 수 있다.

당 생활 강화는 당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 고리이다.

우리 당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하여 창건 첫날부터 우리 당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적합한 방도를 제시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당은 전체 당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교양과 당 정책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당내 사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당원들의 당 생활을 혁명 과업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여 왔다.

당은 특히 사회주의 혁명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그 요구에 상응하게 모든 당원들이 혁명가적 자질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당 생활 체계와 당 생활 지도 체계를 확립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렸다.

당의 이러한 방침이 관철됨에 따라 당원들 속에서는 당 조직 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는 기풍이 더욱 확고히 수립되게 되였으며 매개 당 세포, 당 위원회들에서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조직과 지도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였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당 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의 정치적 의식, 계급적 각성은 비상히 제고되였다. 당원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부르죠아 사상 잔재가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있으며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비상히 제고됨으로써 당 정책 관철에서의 그들의 선봉적 역할이

더욱더 높아 가고 있다.

이리하여 당 핵심 대렬이 확대되였으며 모든 당원들이 정치 사상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정치 활동가로 자라 나고 당의 초급 진지가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당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당 대렬의 통일 단결과 당적 사상 체계의 전면적 확립

레닌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당내에는 어떠한 분파도, 분렬 행위도 허용될 수 없으며 당내의 하나의 적은 당 밖의 수천의 적보다 더 위험하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 경험은 이를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당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그 통일을 강화하는 것은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화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당의 통일을 강화하고 당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종파를 반대하는 투쟁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 특수성, 우리 당 건설의 특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였다. 해방 전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통일적 당이 없었던 관계로 종파 분자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 하였는바 이들은 해방 후 당이 창건될 때 자기들의 정체를 은페하고 당내에 잠입하여 당의 규률을 문란시켰으며 분렬 책동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 고질로 되여 오던 종파의 오물을 뿌리 채 뽑아 버리지 않고서는 당 대렬의 통일도,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관철도 실현할 수 없었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종파 분자들의 분렬 책동을 폭로 분쇄하고 당을 하나의 의지로 결속된 통일체로 꾸리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은 과거로부터 내려 오던 종파 분자들을 폭로 분쇄하며 종파의 사상 여독과 그 온상으로 되는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을 극복하기 위한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기초한 당 대렬의 조직 사상적 통일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온갖 반당 분자, 기회주의 분자들로부터 당을 튼튼히 보위하고 당내에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규률을 확립하며 전 당을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통일된 력량으로 더욱 공고화하는 담보로 되였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당내의 강철 같은 규률을 전제로 한다. 규률이 강화되여야만 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이 보장될 수 있으며 당 중앙으로부터 초급 당 조직에 이르기까지 유일적이며 통일적인 지도가 실현될 수 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당의 혁명적 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당 대렬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당은 모든 당원들이 당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꾸준히 교양하는 동시에 당 규률을 위반하는 현상에 대하여 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당내의 혁명적이며 자각적인 규률을 확고히 수립할 수 있었다.

당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 대렬의 조직적 통일과 함께 전 당이 하나의 의지로 한결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상 체계를 확고히 수립하여야 한다.

당의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와 매개 당 조직들 내에서 그리고 전체 당원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모든 당 조직들과 당원들을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한 로선과 정책의 실현에로 한결같이 발동시키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시킬 수 있게 하는 결정적 고리로 된다.

우리 당은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화하는 투쟁의 전 과정에서 항상 그 조직적 통일을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인내성 있게 진행하여 왔다. 실로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당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를 위하여 시종일관 견지하고 부단히 심화하여 온 가장 중요한 방침이였다.

당'적 사상 체계는 조선 혁명을 맑스-레닌주의의 길로 확고하게 인도하고 있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하여 그의 사상과 의도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지지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려는 로동당원의 혁명가적 립장, 사상 관점이다.

당원들 속에서 이러한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확고히 수립하여야 모든 당원들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에 무한히 충실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그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게 할 수 있으며 전체 당 조직을 혁명 투사의 부대로 공고히 할 수 있다.

당'적 사상 체계는 철두철미 맑스-레닌주의적인 관점과 방법에 기초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며 로동 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고수하는 사상 체계이기 때문에 부르죠아적 또는 비프로레타리아적 립장, 사상 관점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그러므로 전체 당원들을 당'적 사상 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것은 부르죠아 사상과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 요소들의 침습을 방지하고 당의 사상 의지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당원들 속에서 일체 불건전한 사상 경향을 반대하는 강력한 사상 투쟁을 끊임 없이 전개하면서 그와 밀접히 결부하여 혁명 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 당 앞에 나선 과업, 당원들의 의식 수준 등에 맞게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양 훈련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전체 당원들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매개 당원들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며 당 정책 관철에 지장을 주는 온갖 장애물을 주동적으로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은 매 시기 매개 부문에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한 모든 정책들과 방침들의 정당성과 본질, 그 수행 방도

들을 당원들 속에 철저히 해설 침투시키는 데 중요한 역량을 기울임으로써 모든 당원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로 무장하고 그에 무한히 충실하도록 하였다.

당원들에 대한 당 정책 교양은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다. 당 정책 교양과 함께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당의 방침은 당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튼튼히 확립하며 혁명의 급속한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이 제기한 모든 방침들의 깊은 내용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매개 당원들은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 오게 되였으며 당의 의도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였다.

당원들의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당이 또한 중요하게 관심을 돌린 것은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였다.

당은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뿌리를 똑똑히 인식하고 자기를 키워 준 당에 무한히 충실하게 하며 항일 빨찌산들의 고매한 혁명 정신으로 무장하여 자신을 맑스-레닌주의 위업에 충실한 조선의 혁명 투사로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당'적 사상 체계를 튼튼히 확립함에 있어서 당이 특히 주의를 돌려 온 것은 사상 교양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상 교양 사업에서 주체를 세울 데 대한 당의 방침은 매개 당원들을 조선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 밑에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려는 확고한 립장과 태도,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것이였다. 당원들이 이러한 확고한 립장과 태도,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에라야만 그들은 수정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불순한 사상 경향을 반대하고 우리 당의 정책을 심장으로 받아 들여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할 수 있다.

당은 당원들과 간부들 속에서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하면서 우리 나라의 과거와 현재,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혁명 전통과 유구한 문화 유산, 자기 조국의 지리와 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 등으로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 의식을 높이는 데 백방으로 노력하여 왔다.

사상 사업에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은 매개 당원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공고히 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당원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당의 이러한 모든 방침들의 실현 과정은 심각한 사상 투쟁 과정이였다.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은 결코 이조인적에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였으며 우리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맑스주의적, 비프로레타리아적 사상, 섬해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저

향을 극복하는 완강한 투쟁 속에서 실현되였다. 매개 당 조직들과 전체 당원들 속에서 전개된 바로 이러한 사상 투쟁 과정에서 당 중앙 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수호할 데 대한 매개 당원들의 결의와 립장은 더욱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혁명 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 당 앞에 나섰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전체 당원들과 나아가서는 전체 인민이 보다 성과적으로 조직 동원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꾸준한 투쟁에 의하여 당 대렬이 철석 같이 통일 단결되고 당내에 당'적 사상 체계가 확고히 수립됨으로써 우리 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화되였다.

당의 령도적 역할의 제고

당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를 위한 투쟁은 결국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은 동시에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되며 또한 당의 령도적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은 당이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화되는 과정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를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는 동시에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당'적 령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정확한 대책들을 취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면 될수록 당 앞에는 새롭게 해결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들이 수 많이 제기된다. 인민 경제의 규모는 더욱 방대해지고 그의 내부적 련계는 더 한층 밀접해지며 지방의 권한이 또한 점차 확대된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며 당 및 국가 기관과 사회 단체들이 유일한 의지와 규률에 의하여 일치하게 행동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한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 왔다.

이에 있어서 각급 당 위원회를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만들고 그의 집체적 령도 기능을 제고한 우리 당의 조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각급 당 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된다는 것은 국가 기관과 사회 단체들을 례외 없이 당'적 통제 하에 두며 행정 상급 기관의 명령, 지시를 포함하여 그 기관, 단체들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새롭고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해당 당 위원회들의 집체적 토의 하에서만 조직 집행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급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 기능을 제고하는 것은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된 각급 당 위원회의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령도를 결정적으로 강화

하는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당이 취한 이와 같은 조치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유일한 의지에 의하여 당 및 국가 기관과 사회 단체들이 일치하게 움직이게 하였으며 전체 당원들과 군중이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동원될 수 있게 하였다.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지역적 및 생산적 단위에 따르는 당의 조직 원칙을 창조적으로 구현한 것은 우리 당의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공장, 기업소와 협동 농장의 생산 규모가 다같이 방대해지는 조건에서 지역적 및 생산적 단위에 따르는 당의 조직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따라서 당 중앙 위원회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며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 모든 문제가 크게 좌우된다.

우리 당의 경험은 큰 규모의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가 도당 위원회의 지도를 직접 받게 하거나 공장, 기업소들이 집결되여 있는 군은 중심군으로 만들고 중심군당 위원회의 지도 력량을 강화한 기초 우에서 그의 지도를 받게 하여야만 이 모든 문제를 가장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이러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강구함으로써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가 생산 단위 당 조직들에 더욱 신속 정확히 침투되게 하였으며 그리 하여 모든 당원들과 생산자 대중이 당의 의도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투쟁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일한 지도 체계를 확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생산 단위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임으로써 로동 계급 속에서의 당 사업을 강화하고 당의 계급 진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게 하였으며 생산자 대중의 정치적 열성을 높여 경제 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성과 있게 해결하게 하였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각급 당 위원회들이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서 참모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당의 령도 하에 국가 기관과 사회 단체들이 일치하게 활동하고 있다. 당의 의도는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거침 없이, 신속 정확히 관통되고 있으며 당 조직은 당원을, 당원은 군중을 발동시키는 체계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 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사상과 의지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한덩어리가 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체계는 우리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확립되였으며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의 운명을 량 어깨에 걸머지고 그들을 힘 있게 이끌고 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보루로 전변되였다.

이것은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화하며 그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달성한 가장 고귀한 성과이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커

다란 자랑으로, 영예로 된다.

당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의 확립

당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제고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중요 담보이다.

당은 일정한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활동을 진행한다. 당이 자기의 혁명적 활동을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에 적응한 혁명적인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소유하여야 한다. 당은 혁명적인 사업 체계와 방법을 소유하여야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당 사업을 개선 발전시킬 수 있으며 당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부단히 높일 수 있다.

당은 혁명적인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확립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혁명적 령도를 옳게 보장할 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 주위에 결속시키고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의 성과적 실현에로 조직 동원할 수 있다.

당이 혁명적인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소유하여야 할 필요성은 특히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후 더욱 절실해진다.

당 앞에는 변전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지도하며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모든 활동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된다.

당은 이와 같은 현실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게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을 강화하고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며 당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당 사업 체계와 방법을 변천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제때에 혁명적인 것으로 완성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청산리 방법을 일반화하는 것을 통하여 당 사업 체계와 방법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청산리 방법은 일찌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혁명적 사업 방법을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청산리 방법은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적 사업 방법으로서 그 기저에는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이 놓여 있다. 이 방법의 본질은 근로자들의 정치적 각성을 부단히 높이며 그들의 창조력을 당 정책 관철에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청산리 방법은 이와 같은 혁명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당의 근본 성격에 부합되는 사업 방법이기 때문에 위력하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청산리 방법의 기본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도와 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고 군중을 발동시켜 혁명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우리 당은 청산리 방법을 전 당에 일반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

을 맑스-레닌주의 령도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켰으며 당 사업에서 커다란 전환을 일으키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청산리 방법을 일반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내에는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사업 체계가 전면적으로 수립되였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 가 아래 일'군들을 도와 주고 배워 주며 또 이 과정에서 자신도 배우면서 상하 합심하여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기 위해 애쓰게 되였다.

이러한 사업 체계의 확립은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과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일'군들의 지도 수준 간의 불일치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아래 일'군들은 실지 사업 과정을 통하여 우의 간부들로부터 사상과 방법을 배우고 우의 일'군들은 현실 속에서 혁명성과 산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되였다.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사업 체계의 확립은 특히 우리 당의 초급 진지들을 튼튼히 꾸리며 그 사업 수준을 제고하는 커다란 힘으로 되였다.

청산리 방법의 기본 요구에 따라 일체 지도 력량이 하부에 특히 초급 진지에 집중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보장됨으로써 우의 의도가 제때에 아래에 관통되게 되였으며 초급 진지의 당 조직들 특히는 당의 기층 조직들이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그 사업 수준이 급속히 높아지게 되였다.

청산리 방법을 일반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또한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게 되였다.

당 조직들은 일상적으로 당원들을 발동하여 군중 속에 깊이 침투하게 되였으며 정치 사업을 통하여 군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며 그에 기초하여 제기된 문제를 성과 있게 해결해 나가게 되였다. 이리하여 당원들은 당의 훌륭한 교양자, 조직자로 자라 났고 당 조직들은 모든 당원을 움직이게 하며 당력량과 대중을 능숙하게 동원할 줄 아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자기 앞에 나선 혁명 과업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산 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져 나갔다.

이와 같이 청산리 방법에 의한 당 사업 체계와 방법의 전면적인 확립은 당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게 함으로써 우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　　*

우리 당은 당 대렬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를 위한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하나의 사상 의지로 통일 단결된 강철의 대오로, 조선 혁명의 강력한 정치적 참모부로 장성 발전하였다.

당 대렬이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화됨

으로 하여 우리 당은 미제의 무력 침공을 타승할 수 있었으며 종파주의와 일체 좌우경적 편향들을 제때에 극복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다.

조성된 혁명 정세와 제기된 혁명 과업은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일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날에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며 당원들과 간부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더욱 힘 있게 촉진시킬 것이다.

근로자 제 19 호 (루계 281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10월 3일　　발행 • 1965년 10월 5일

ㄱ—530535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0 호 10 월 20 일

평양 근로자사 1965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 20 호 (282)
1965년 10월 (하)

차 례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에 제하여

경축 대회에서 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김 일성 동지의 보고

(전원 총기립, 계속되는 우뢰와 같은 박수, 장내를 진동하는 가운데 등단)

동지들!

오늘 우리는 우리 인민의 향도적 력량이며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을 기념합니다.

이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기'발을 높이 들고 혁명을 위하여 간고 분투하여 온 우리 당원들과 전체 우리 인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우렁찬 박수)

나는 또한 원쑤들의 파쑈적 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고 있는 남조선의 우리 동지들과 그리고 애국적 민주 인사들과 청년 학생들과 전체 남조선 인민들에게 열렬한 성원을 보냅니다.(우렁찬 박수)

이와 함께 나는 해외에서 오래 동안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자기들의 민족적 권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60만 재일 동포들과 모든 해외 동포들에게 열렬한 인사를 전합니다.(우렁찬 박수)

나는 또한 우리 인민의 혁명 위업에 국제주의적 지원을 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모든 진보적 인민들에게 조선 로동당의 이름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위대한 공산주의 사업을 위하여 수 많은 혁명 투사들이 희생되였습니다. 나는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자기의 고귀한 피와 생명을 바친 우리 당원 동지들과 당외 민주 인사들과 전체 애국 렬사들에

게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박수) 그들이 남긴 공적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 투쟁 력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동지들! 20 년이란 한 개 정당의 력사로서는 긴 시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 당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 놓았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고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였으며 온갖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는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였으며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는 위대한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당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어려운 투쟁에서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조국과 혁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당은 자기의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와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신임을 획득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당은 창건된 지 20 년 밖에 되지 않지만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전반적 력사로 본다면 결코 나어린 당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 첫 공산당이 조직되였던 1925년부터 계산하여도 조선 공산주의 운동은 40 년이란 력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40여 년 동안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싸웠으며 일본 제국주의와 미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혁명 투쟁에서 피도 많이 흘렸으며 여러 번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 나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우리들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 발생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를 반대하여서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조선 로동당은 이와 같은 투쟁의 불'길 속에서 자라나고 튼튼하여졌으며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은 하나의 사상 의지로 통일되고 인민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있으며 보수와 침체를 반대하고 계속 전진하며 계속 투쟁하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입니다. (우렁찬 박수) 이것은 우리 당이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 나아갈 수 있으며 조선 혁명을 능숙하게 그리고 확신성 있게 령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1

동지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이 자기의 진정한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까지에는 곡절이 많은 장기간의 투쟁 정로를 밟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 운동은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이 치렬하게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특히 조선 로동 계급이 점차 투쟁 무대에 등장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로씨야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

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오래 동안 봉건적 압박과 일제의 강점을 반대하여 싸우던 우리 인민은 10월 혁명의 승리에서 강력한 충격과 고무를 받았으며 비로소 정확한 투쟁의 길을 찾게 되였습니다.

벌써 1918년부터 우리 나라의 선진적 애국 투사들은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는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맑스-레닌주의 기치 밑에 새롭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의 탄압이 심한 데다가 로동 계급이 매우 어렸던 관계로 맑스-레닌주의는 널리 보급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민의 해방 투쟁은 부르죠아 민족 운동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혁명의 영향 하에 1919년에 일어 난 전 민족적 3.1 봉기는 조선 인민의 애국적 투지와 혁명적 정력을 시위하고 일제 강점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반면에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제한성과 약점을 전면적으로 드러내 놓았습니다. 3.1 봉기의 실패는 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 하여 3.1 운동이 있은 후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은 점차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여 맑스-레닌주의 기치 밑에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1920 년대에 들어 서면서 로동 계급이 장성하여 투쟁 무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국내 각지에서 맑스-레닌주의 소조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게 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영향은 대중 속에 급속히 전파되여 갔습니다. 수 많은 로동 단체, 농민 단체, 청년 단체들이 출현하고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비롯한 군중적 투쟁이 전개되였습니다.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 로동 운동이 장성하는 과정에서 1925년에는 조선 공산당이 창건되였습니다.

공산당의 창건은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 민족 해방 운동의 발전을 추동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6.10 만세 시위 투쟁이 벌어진 것을 비롯하여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적 투쟁은 더욱 확대되였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탄압이 심하고 당 자체가 심중한 약점을 내포하고 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활동하게 되였습니다. 당 지도부에는 대부분 맑스-레닌주의를 옳게 소유하지 못 하고 계급적 립장도 튼튼하지 못한 소부르죠아 출세주의자들이 들어 앉아 있었으며 당 조직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 속에 뿌리를 박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더우기 종파 분자들의 심한 파벌 싸움으로 인하여 당은 자기 대렬의 통일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 하여 공산당은 일제의 탄압과 종파 분자들의 파괴 책동을 이겨 내지 못 하고 창건된 지 3 년 후에는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1920 년대에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실패와 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하였으며 많은 결함과 부족점을 나타내였습니다. 이것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요람기를 말하여 주는 것이며 당시 이 운동의 주관적 및 객관적 조건의 미숙성을 반영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투쟁은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고 공산주의 운동의 시초를 열어 놓았으며 그 장래 발전을 위하여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습니

다. 당이 해산된 후에도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을 계속하였습니다.

1930 년대부터 우리 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은 지하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주로는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였습니다.

1920 년대 말～1930 년대 초에 일제의 폭압은 전례 없이 심하여졌으며 합법적 투쟁의 온갖 가능성이 말살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의 폭력적 탄압에 항거하는 로동자, 농민들의 폭력적 투쟁도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원산 부두 로동자들의 총파업, 신흥 탄광과 평양 고무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 룡천 불이 농장과 단천 및 영흥 농민들의 투쟁, 그리고 광주 학생 사건 등은 이 시기 우리 나라 도처에서 일어 난 대중적 폭력 투쟁의 대표적인 실례들입니다.

조성된 정세에서 대중의 폭력적 투쟁 형태를 발전시키고 일반화하여 조직적인 무장 투쟁에로 넘어 가는 것은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 발전의 필연적 요구로 되였으며 이 요구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실현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우리의 혁명적 로동자, 농민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켰습니다.(우렁찬 박수) 항일 유격 투쟁은 반 혁명적 무력에 혁명적 무력으로 대항하는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서 일제 침략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다른 모든 형태의 대중 투쟁을 힘차게 고무 추동하였습니다. 유격 투쟁의 혁명적 영향은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 광범히 파급되였으며 이것은 우리 인민의 전반적 반일 해방 투쟁을 더욱 강화 발전시켰습니다.(박수)

일제의 폭압 밑에서도 국내 각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지하 투쟁이 계속되고 혁명적 로조 운동과 농조 운동,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련이어 일어 났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대중의 폭력적 진출은 더욱 확대되였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이 모든 투쟁을 통하여 조선 로동 계급은 민족 해방 운동의 선두에 확고히 서게 되고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로농 동맹이 강화 발전하게 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해방 운동의 국제적 련대성이 강화되였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항일 혁명군은 중국 인민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공동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일제를 반대하여 쏘련 인민과 같이 싸웠습니다.(박수)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우리의 혁명 군대는 15 개 성상이나 괴어린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마침내 쏘련 군대와 함께 일제를 격멸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조국 해방의 력사적인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항일 무장 투쟁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초기에 있었던 본질적 약점들을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 사상적 기초를 닦았으며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이루어 놓았습니다.(우렁찬 박수)

간고한 유격 투쟁의 시련 속에서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가들이 자라났으며 혁명 대오의 확고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비로소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나라의 현실과 결합되고 공산주의 운동이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 투쟁과 결합되였습니다. 이리 하여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령도 핵심이 형성되고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골간이 꾸려졌으며 우리 혁명의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이 수립되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공산주의자들은 대중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 대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움으로써 인민 대중의 두터운 신임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치는 반일 민족 해방 투쟁 행정에서 조선 공산주의 운동이 장성 강화되였으며 1940 년대에 이르러서는 혁명 투쟁에서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영광스러운 맑스-레닌주의당을 조직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루어진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하여 해방 후 복잡한 환경에서도 우리 당이 견고한 토대 우에서 창건될 수 있었으며 당은 창건 첫날부터 조선 인민의 혁명 투쟁을 정확하게 령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일 무장 투쟁을 비롯한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 전통과 투쟁 경험은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무한히 귀중한 재부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2

동지들!

8.15 해방 후 조선 혁명의 앞길에는 새로운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국내 국외에 있던 반동들이 그 곳에 집결되였으며 어제'날의 일제 주구들이 다시 미제의 주구로 전락되여 조선 인민을 반대하여 나섰습니다. 우리는 조선 혁명을 반대하며 조선 인민의 통일 독립 국가 건설을 반대할 뿐 아니라 북조선에까지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그리 하여 조선 공산주의 운동과 조선 인민의 모든 혁명 투쟁은 부득이 당분간 남북으로 갈라져 각이한 환경에서 각이한 투쟁 형식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게 되였습니다.

조성된 정세에서 북조선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선 과업은 자기 대오를 급속히 정비하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자기 주위에 집결하여 제국주의 잔재 세력과 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통일적인 민주주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에 대처하여 이미 해방된 북조선에서 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며 북조선에 강력한 혁명 기지를 창설하여야만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리 하여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자기의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 사

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는 혁명 투쟁에서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각 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그루빠들을 망라하여, 맑스-레닌주의적 당 건설 원칙에 엄격히 립각하여 당을 재건하였습니다. 오래 동안 자기의 통일적 당을 가지지 못 하고 각이한 혁명 조직들에서 분산되여 투쟁하던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드디여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북조선 공산당 중앙 조직 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우리 당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은 해방 직후의 복잡하고 혼란된 환경 속에서, 계급적 원쑤들의 파괴 책동을 반대하며 종파주의, 지방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에 기초하여 그리고 우리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와 적극적인 지지에 의거하여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 위업을 훌륭히 실현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장기간에 걸치는 투쟁과 노력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과 전반적 조선 혁명의 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조선의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은 이 때로부터 자기의 혁명 투쟁에서 위력한 전위 부대, 맑스-레닌주의적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 밑에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 나아가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은 창건된 후 즉시 북반부에서 반제 반 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며 민주 기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당은 우선 각 당, 각 파, 각계 각층 민주 력량과의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일제의 낡은 통치 기구를 철저히 소탕하고 새 형태의 정권 기관을 수립함으로써 혁명에서의 기본 문제인 주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가 수립한 정권은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하고 각계 각층 인민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진정한 인민 정권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되였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의 인민 정권은 광범한 인민 대중의 지지와 참가 하에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민주 개혁들이 실시된 기초 우에서 경제 문화 건설이 급속히 추진되고 인민 생활도 안정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장기간의 항일 무장 투쟁에서 육성 단련된 혁명 간부들을 골간으로 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 인민 무력을 창설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해방 후 불과 1~2 년 동안에 반제 반 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완수되였으며 북반부는 조선 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것은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새 생활을 건설하는 데서 달성한 첫 승리였습니다.

혁명 투쟁에서나 건설 사업에서나 승리의 결정적 담보는 혁명 력량을 꾸리는 것, 즉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우는 것입니다. 혁명 력량을 꾸리는 데서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전취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오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을 혁명가로 육성하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

민을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 후 짧은 기간에 인민 정권을 수립하고 민주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은 것은 당의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고 모든 애국적 민주 력량을 결속하여 혁명 과업의 수행에 동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편으로 인민 정권을 수립하며 민주 개혁들을 실시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이 강화되고 대중 속에서의 당의 신망이 높아졌으며 광범한 대중이 당 주위에 결속되였습니다.

우리 당이 신민당과 합당하여 근로 대중의 통일적 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우리의 혁명 력량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합당의 결과로 우리 당은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근로 농민과 근로 인테리의 선진 분자들을 자기 대렬에 결속시킨 대중적 정당으로 되였습니다.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은 당 력량을 강화하고 혁명가들의 대렬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당이 광범한 대중 속에 더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두 개 근로 정당의 존속으로 근로 인민의 혁명 력량을 분렬시킬 위험성을 방지하고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의 동맹을 강화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각계 각층 민주 력량의 통일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게 하였습니다.

동지들! 해방 후 짧은 기간에 북반부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적 변혁은 우리의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이것은 우리 인민이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담보로 되였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이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 내였습니다. 우리 당은 강대한 적을 반대하는 힘겨운 전쟁에서 조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인민들을 원쑤 격멸의 성스러운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부름에 따라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박수) 조선 인민과 조선 인민 군대는 중국 인민 지원군과 협동하여,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원을 받으면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여 원쑤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였으며 자기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조선 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 반동 세력에 대한 혁명적 인민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적 무력에 대한 혁명 군대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 밑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 쥐고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궐기한 인민은 어떠한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의해서도 정복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미 제국주의의 취약성과 부패성을 폭로하였으며 세계 피압박 민족들에게 미제가 결코 불패의 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우렁찬 박수)

조선 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국 력사 상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 패배를 당하였으며 이것은 미 제국주의가 내리막길에 들어 서는 시초를 의미하는 것이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전쟁에서 입은 심대한 상처를 아물리지 못한 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에 의하여 련속적으로 새로운 타격을 받고 있으며 오늘 더욱 깊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전쟁을 통하여 더욱 강하여졌으며 자기의 정당한 위업의 승

리를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였을 뿐 아니라 가렬한 전쟁의 시련을 통하여 검열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간부들과 당원들이 단련되고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과 전체 인민이 단련되였으며 당과 인민이 더욱 굳게 결속되였습니다. 우리 인민 군대는 강력한 혁명 군대로 장성하였습니다.

오랜 혁명 투쟁에서 세련된 로 혁명 간부들과 함께 전쟁의 불'길 속에서 수십만의 새 혁명가들이 자라났으며 우리의 혁명 대오는 비상히 확대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 자신의 위대한 힘을 깊이 자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단결하여 투쟁하여 나아갈 때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3

동지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벗어 난 나라들이 진정한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살았습니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압박, 예속과 몰락의 길입니다. 사회주의만이 계급적 착취와 민족적 억압을 근절함으로써 전체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합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전진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한 데 기초하여 이미 전쟁 전부터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 가는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후 시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북반부 사회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조국 통일과 전체 조선 혁명의 승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정전 후 사회주의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면서 우선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며 령락된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제기함으로써 나라의 경제 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면서 짧은 기간에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박수) 당은 또한 복구 건설 사업과 병행하여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적극 추진시키는 방침을 취함으로써 생산력의 급속한 복구와 그 장래 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 놓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전쟁에서 단련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 국내의 모든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그리고 형제 국가들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자기의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전후 복구 시기의 비상히 어려운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공업과 농업 생산이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훨씬 릉가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적 개조에서도 거대한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당은 전후 복구 시기에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한층더 촉진시킬 방침을 제기하고 전체 근로자들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의 이와 같은 방침은 빨리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는 것이였으며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 하여 력사적인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우리 근로자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는 전례 없이 앙양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고조가 일어 나고 위대한 천리마 운동이 발단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이러한 혁명 고조 속에서 이미 1958년에는 농업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였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전일적 지배를 확립하게 되였습니다. (박수)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련이어 혁신이 일어 났으며 사회주의 건설은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천리마 운동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족 경제의 튼튼한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여 놓았습니다. (우렁찬 박수)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의 중공업 기지가 창설되고 경공업도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농촌 경리는 공고한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로 되였으며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 있습니다.

과학, 교육, 보건,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습니다.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였으며 그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정전 직후 원쑤들은 북조선이 백 년 걸려도 다시 일어 서지 못할 것이라고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전후 10 년 동안에 페허 우에서 경제를 복구하였을 뿐 아니라 력사적으로 넘겨 받은 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자기 나라를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켰으며 도시와 농촌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로선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전후의 10 년은 위대한 사회 경제적 변혁과 건설의 10 년인 동시에 또한 당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10 년이였습니다.

우리 당 제 3 차 대회와 제 4 차 대회도 이 기간에 진행되였습니다. 이 대회들은 우리 당의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단련되였을 뿐 아니라 각종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전후 복구 건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끊임 없는 파괴 책동을 반대하며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 난관과 궁핍을 극복하는 치렬한 투쟁 속에서 진

행되였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혁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계급 투쟁은 매우 첨예화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투쟁은 당내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 하여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기회주의적 조류가 머리를 들게 되고 당은 이를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게 되였습니다.

전후 시기 당내 사상 전선에서 우리가 진행한 주되는 투쟁은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을 강화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며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였습니다.

당 대렬의 사상 의지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생명입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투쟁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 지도 오래지 않았고 각 지방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 그루빠들을 망라하여 조직되였으며 또한 신민당과 합당하여 급속히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였던 관계로 당 대렬의 구성이 복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당은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데 항상 최대의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당 핵심 대렬을 확대 강화하며 전체 당원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결속시키면서 당의 통일을 수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 절대 다수의 견실한 당원들은 투쟁 속에서 더욱 단련되고 단결된 반면에 소수의 견실치 못한 자들은 타락하여 반당의 길에 떨어졌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의 간고한 시기에도 투항주의자들과 패배주의자들 그리고 당을 와해시키려는 취소주의자들이 나타나 반당 종파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당은 투쟁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반당 종파 분자들이 머리를 들게 되였습니다. 과거부터 파벌 싸움에 습관된 고질적인 종파 분자들과 일부 견실치 못한 자들이 복잡한 정세의 틈을 타서 당에 도전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당은 당 조직들과 당원 대중을 발동하여 반당 종파 분자들의 음모 활동을 폭로 분쇄하는 동시에 종파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통일을 좀먹는 온갖 표현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당 중앙으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전 당에 당'적 사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박수)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투쟁은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는 것은 당'적 사상 체계를 수립하며 당의 정확한 령도를 보장하며 우리의 모든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면서 동시에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우리 나라의 력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적용하여 나아가는 창조적 립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당은 언제나 국제 혁명 력량과의 련대성과 협조를 부단히 강화하면서 동시에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반대하고 자력 갱생의 정신을 발양하며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여 나아가는 자주적 립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립장이며 방침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나라가 처한 복잡한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많은 간부들이 맑스-레닌주의 수준이 어리고 혁명 투쟁 경험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초기에는 당내에 교조주의의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은 꾸준한 교양 사업과 사상 투쟁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교조주의를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대주의에 물젖은 일부 완고한 교조주의자들은 계속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의 관철을 방해하면서 우리 사업에 해독을 끼쳤습니다. 우리 당내에서 나타난 종파 분자들도 례외 없이 교조주의자들이였으며 사대주의자들이였습니다.

전후에 와서 이런 자들의 교조주의는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현실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 력사와 문화, 혁명 전통까지 부인하며 자기의 것은 다 나쁘고 남의 것은 다 좋다고 하는 민족 허무주의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남만 쳐다보고 남이 하는 대로 맹종맹동하려 하였으며 자기 나라 자체의 힘은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만 의존하려 하였습니다. 교조주의와 사대주의의 해독성은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1955년에 교조주의를 극복하며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단호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였습니다. (박수) 당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교조주의적 사상 조류의 위험성을 철저히 폭로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항상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사상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나라의 력사와 전통, 우리의 현실에 대한 학습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해결하는 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현대 수정주의가 광범히 대두함에 따라 우리의 반종파주의, 반 교조주의 투쟁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수정주의는 국제적 수정주의 조류에 편승하여 발생하였으며 종파 분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을 통하여 외부에서 들어 왔습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미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면서 우리 당과 인민이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못 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이 시기 상조라고 하면서 이것을 반대하였으며 우리 당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로선, 특히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을 반대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 커다란 손실을 주었습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목적은 결국 우리 당을 자기들처럼 맑스-레닌주의를 배반하고, 혁명을 배반하고, 반미 투쟁을 포기하고 우경 투항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에 대항하여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집행하였으며 당내에서 현대 수정주의의 본질을 폭로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상 사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에 대한 기회주의자들의 공격은 1956~1957년 경에 가장 로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때에는 당내에 숨어 있던 소수의 반당 종파 분자들과 완고한 교

조주의자들이 수정주의의 기초 우에서 서로 결탁하여 외부 세력을 등에 업고 우리 당에 달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비방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당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 활동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은 또한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여 전례 없는 반동 공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다 심히 오산하였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나고 간고한 혁명 투쟁에서 세련되였으며 인민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는 우리 로동당이 한 줌도 못 되는 반당 분자들의 작간이나 그 어떤 외부 세력의 압력에 의하여 흔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은 자기 당원들과 인민 대중의 한결 같은 지지에 의거하여 적들의 반동 공세와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공격에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였습니다. 당은 기회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당내 사상 투쟁과 적들의 반 혁명 책동을 반대하는 전 인민적 정치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근로자들의 로력 투쟁을 힘차게 고무 추동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 운동은 이와 같은 전 당'적, 전 인민적 사상 정치 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어. 났으며 그것은 또한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공격을 철저히 분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리 하여 우리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 공세를 격파하였을 뿐 아니라 종파주의, 교조주의,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의 20 년 간의 력사에서 조국 해방 전쟁이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가장 준엄한 투쟁이였다고 하면 전후의 반 기회주의 투쟁은 공산주의 운동 내부의 적을 반대하는 가장 심각한 투쟁이였습니다. 이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더욱 단련되고 강화되였으며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혁명 진지를 더욱 굳게 다졌으며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 사업에 더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를 청산하고 자기 대렬의 확고한 사상 의지의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당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자기의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로선을 고수하였으며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수준은 한 계단 더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와 배치되는 온갖 기회주의를 분별할 수 있게 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더 잘 결합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이 제고되였으며 그들의 창발성과 재능이 더욱 발양되게 되였습니다.

대중 속에서의 당의 위신은 허물 수 없는 것으로 되였으며 당과 인민의 통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 모든 것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발전에서 하나의 력사적인 전환이였습니다. (박수)

우리 당은 자기 대렬의 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당'적 령도를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혁명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 자신의 사업입니다. 인민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 속에 들어 가 대중을 교양 개조하고 단결시키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군중 로선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전진은 당의 군중 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중 로선을 구현하려면 한편으로는 당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하며 다른 편으로는 군중의 정치 사상 의식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내에 혁명적인 사업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립하며 일'군들로 하여금 관료주의를 퇴치하고 군중에 의거하는 혁명적인 사업 방법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대한 조직 사업과 사상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은 전체 근로자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군중 교양 사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는 당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을 당 정책 교양 및 혁명 전통 교양과 결부하여 강력히 진행하였습니다.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 있는 혁명적 군중 로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청산리 방법의 기본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도와 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 주며 항상 현지에 내려 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문제 해결의 정확한 방도를 강구하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선행시키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 과업의 수행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목전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심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위력한 사업 방법일 뿐 아니라 일'군들의 사상 정치 수준과 실무 수준을 높이며 군중을 혁명화하는 위력한 교양 방법입니다.

청산리 방법이 보급됨으로써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전변이 일어났으며 그 일'군들의 지도 수준도 훨씬 제고되였습니다. 청산리 방법이 군중에게 접수됨으로써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이 근로자들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였으며 그들의 대중적인 사상 개조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리 하여 군중 로선의 관철, 청산리 방법의 일반화는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우리의 혁명 대오를 급속히 확대 강화하게 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와 천리마 운동을 더욱더 힘 있게 추동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동지들!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의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공고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우리 사회의 가일층의 번영을 위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 당은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직접 대치하여 있는 조건에서 평화적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항상 옳게 배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당은 인민 군대를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거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과 혁명을 보위할 수 있는 튼튼한 자위적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은 또한 북반부에 위력한 혁명 대오를 꾸려 놓았습니다. 당 대렬에는

160여 만의 당원이 결속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당 주위에 단결되였습니다. 우리의 당원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위대한 천리마의 진군 속에서 자라나고 단련된 혁명가들이며 당과 혁명에 충직한 우리 당의 붉은 전사들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혁명 투쟁의 시련을 겪은 인민이며 자기들의 사활적 투쟁 경험을 통하여 당을 무한히 신뢰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고야 말 결의에 충만된 혁명적 인민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의 령도 밑에 굳게 뭉쳐 싸워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 대오는 불패의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됩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우리의 혁명 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은 날로 더욱 번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반부에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마련하여 놓았다는 것을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이와 같은 것이 지난 20 년 동안 우리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이루어 놓은 혁명 업적의 주되는 총화입니다.

4

동지들!

우리 당은 언제나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조선 혁명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북반부를 전국에서 민족 해방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 기지로 보고 있습니다. 당은 북반부에서 혁명을 부단히 전진시키고 혁명 기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지원하며 남조선을 미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지 20 년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해방되지 못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의 지배 하에서 계속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대신하여 남조선에서 새로운 식민지 통치자로 군림하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여 든 첫날부터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 뿐 아니라 전 조선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며 극동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지난 20 년 동안 미 제국주의가 남조선에서 실시하여 온 모든 정책은 그의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흘러 나온 것입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지배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와 본질상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에서 총독 정치를 실시하였는데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괴뢰 정권을 앞잡이로 리용하여 더욱 교활한 신식민주의적 방법으로 남조선을 통치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남조선의 소위 정부는 미 제국주의의 군사 점령을 《합법화》하고 그 식민지 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병풍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에 철저히 종속시켰습니다. 이리 하여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 기지로 전변되였습니다.

남조선 혁명은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 자본가, 반동 관료배들을 일방으로 하고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 청년, 학생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들을 타방으로 하는 량자 간의 모순에 의하여 산생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며 그것은 전체 조선 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지난 20 년 동안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북반부 인민들의 위대한 성과와 그들의 강력한 지원에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남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왔습니다. (우렁찬 박수)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직후에 남조선에서도 북조선에서와 같이 인민 대중의 혁명적 잠재력이 화산처럼 폭발하였으며 애국적 민주 력량은 급속히 장성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하에서 나오고 공산당이 조직되여 활동하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남조선 각지에 인민 정권 기관인 인민 위원회들이 창설되였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 분렬 정책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변혁을 요구하여 거듭 대규모의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1946년 8월 광주 화순 탄광 로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하의도 농민 폭동, 남조선 로동자들의 9월 총파업, 10월 인민 항쟁, 1948년 2.7 구국 투쟁, 5. 10 단독 선거 반대 투쟁, 려수 군인 폭동 등 련이어 일어 난 남조선 인민들의 구국 항쟁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 력사에 빛나는 페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박수)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 투쟁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야만적인 탄압에 의하여 또한 공산당의 지도부에 잠입한 미제의 간첩들과 종파 분자들의 파괴 활동으로 말미암아 일시 좌절되였으며 간고한 시련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협격을 받은 남조선 혁명 세력은 중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1949년에 이르러 당 조직이 전면적으로 파괴되였습니다.

반동의 공세가 격화되고 혁명 운동이 일시적 쇠퇴기에 들어 선 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간난 신고를 겪으면서 지하에서 투쟁을 계속하였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리 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를 반대하여 마산 시민들이 전개한 영웅적 투쟁은 남조선 인민들의 구국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는 신호였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4월 봉기에 의하여 미제의 오랜 주구인 리 승만 정권을 타도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다시 한 번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4월 봉기 후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 통일을 위한 대중의 투쟁 기세는 더욱 높아 갔습니다.

이에 당황한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파쑈적

폭압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구국 투쟁을 교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사태 발전은 원쑤들의 군사적 탄압도 결코 인민들의 투쟁을 저지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애국적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은 박 정희 매국 도당의 가혹한 탄압을 박차고 《한일 회담》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한일 협정》을 분쇄하기 위하여 계속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1964년의 6.3 투쟁과 금년 8월에 또다시 일어 난 시위 투쟁은 미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며 매국 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반제, 반 파쑈 애국 투쟁이였습니다. (박수)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으며 그의 주구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을 항시적인 계엄 상태에 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이러한 위기의 원인이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의 위협》에 있다고 떠벌리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 누구도 이러한 선전을 믿지 않으며 사람들은 남조선에서의 위기가 바로 미국의 식민지 통치 그 자체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박 정희 일당은 그들의 매국 배족 행위를 반 공산주의의 간판으로 가리우려고 시도하면서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술책은 성공할 수 없으며 그들이 미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주구라는 사실을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와 남조선 괴뢰들과의 대립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와의 대립인 것이 아니라 애국자와 매국노 간의 대립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어떠한 탄압으로써도, 어떠한 기만 술책으로써도 부단히 확대 강화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 폭압은 남조선 인민들을 더욱 각성시키고 단련시키며 결국에 가서는 미제의 식민지 제도를 매장하고야 말 혁명 력량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을 뿐입니다. (박수)

남조선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가 존속되는 한 미제의 한 괴뢰를 다른 괴뢰로 바꾸는 것으로써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미국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며 인민이 주권을 자기 수중에 틀어 쥘 때에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전취할 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또한 자유와 해방은 인민들 자신의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하며 인민 대중이 단결하여 용감하게 일어 서 싸운다면 강대한 원쑤라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신념을 점차 가지게 되였습니다. (박수)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지난 20 년 간의 투쟁을 통하여 피의 대가로 얻은 가장 귀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은 확대되고 있으며 조직화되여 가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괴뢰 정권을 반대하며 지주, 매판 자본가, 반동 관료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면서 점차 투쟁의 예봉을 주되는 원쑤인 미 제국주의에 돌리고 있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혁명가들의 대렬이 자라나고 있으며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은 로동자, 농민, 학생, 청년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 속에 들어 가 그들과 밀접히 결합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 운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은 조만간 자기들의 혁명 조직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반미 구국의 기치 밑에 각계 각층의 인민 대중을 결속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강력한 지도 력량으로 등장할 것입니다.(박수)

남조선 혁명은 반톱까지 무장한 강대한 적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그 전도는 의연히 간고합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혁명가들은 온갖 시련을 이겨 내고 자기의 혁명 대오를 부단히 확대 강화함으로써 결국에 가서 반혁명적 폭력을 격파할 수 있는 강대한 혁명 력량을 준비할 것이며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에서 남조선 인민들을 승리에로 인도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남조선 인민들은 외래 침략자들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 조국 전쟁, 갑오 농민 전쟁, 3.1 독립 운동, 6.10 만세 투쟁, 광주 학생 운동 등 수 많은 애국 투쟁과 혁명 투쟁에서 전체 조선 인민과 함께 남조선 인민들이 발휘한 숭고한 전투 정신은 우리 조국의 력사에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박수) 이러한 영광스러운 투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구국 항쟁에서 단련된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간고한 혁명 투쟁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의 투쟁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반부에 위력한 혁명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북반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전체 북반부 인민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지원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우리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견결히 싸울 것입니다.(박수)

남조선 인민들이 혁명에서 승리하고 자기 수중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조선의 민주주의 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통일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이 북반부 인민들의 강력한 지원 밑에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남조선 혁명의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전체 조선 인민의 투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5

동지들!

조선 로동당과 조선 인민의 혁명 투쟁은 국제 혁명 운동의 일환으로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공동 투쟁과의 밀접한 련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조선 혁명을 잘 하는 것이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맡겨진 첫째 가는 국제주의적 의무라고 인정하고 그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며 국제 혁명 운동의 전반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국제 관계 분야에서의 우리 당의 일관된 정책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운동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 운동을 지원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것은 현시기에 있어서 혁명가들과 혁명적 당들을 온갖 기회주의적 류파들과 구별하는 첫째 표징으로 됩니다.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는 세계 평화를 수호할 수 없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도 승리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적 공존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 정책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여기에 반 제국주의 투쟁을 용해시키거나 이것으로 하여 반 제국주의 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물론,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이 제국주의, 무엇보다도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이 투쟁에서 굳게 단합되여야 합니다.(박수)

우리 당과 인민은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력량과 단결할 것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할 것이며 우리 인민의 반미 투쟁에서 국제 혁명 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그 지지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와 아세아의 전 지역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몰아 내기 위하여 아세아의 모든 반제 혁명 력량과 더욱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가장 치렬한 반 제국주의 투쟁 전선으로 되였습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 인민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에 응당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선 로동당과 조선 인민은 언제나 피압박 민족들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해방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여 왔으며 그들과 손을 맞잡고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워 왔습니다. 우리 인민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간의 련대성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이 지역 나라들 간의 친선과 협조 관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민들의 공통된 혁명 위업에 충실하며 싸우는 나라 인민들과의 진정한 친선과 단결, 호상 협조를 지향하는 우리 당 대외 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 주는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현시기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서 초미의 문제는 웰남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을 저지 파탄시키며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 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웰남에 더 많은 군대와 무기를 끌어 들여 침략 전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웰남 민주 공화국의 령토를 야수적으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지나 뿐만 아니라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 전쟁을 확대하려고 분별 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도전이며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웰남 인민은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영용하게 투쟁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을 보위하여,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피흘려 싸우고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웰남에서의 미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인 침략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고 웰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전 세계 평화 애호 국가들과 인민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박수)

우리 당과 인민은 웰남 인민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웰남 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적 웰남 인민의 투쟁을 계속 견결히 지지 성원할 것이며 웰남 형제들과 영원히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조선 로동당과 조선 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각국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그들의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박수) 우리 당과 인민은 평화와 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할 것이며 그들의 투쟁을 지지할 것입니다. (박수)

국제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반 제국주의 투쟁을 힘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현대 수정주의의 가장 큰 해독성은 미 제국주의의 원자 공갈 정책에 겁을 먹고 그 앞에 굴복하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고 그와 타협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면서 인민들을 무장 해제시키며 피압박 민족들과 피착취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억제하고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수정주의는 의연히 주되는 위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당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 (박수) 우리는 우경 투항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싸워 나아갈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공산주의자들이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좌우경적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국제 무대에서 혁명 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조선 혁명의 리익과 그리고 국제 혁명 운동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립장에서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또한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합니다.

조선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1957년 선언과 1960년 성명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계속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박수) 우리 당은 언제나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여 투쟁할 것이며 모든 사회주의 국가 및 공산당, 로동당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박수)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반제국주의 투쟁을 떠나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이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우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현시기 웰남에서의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고 웰남 인민을 지원하는 데서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 반제 전선을 강화하고 싸우는 웰남 인민에게 더욱 큰 힘을 줄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대렬의 진정한 통일 단결에로의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인민들의 혁명 운동을 지원하는 데서 형제당 및 형제 국가들과의 공동 투쟁을 발전시키며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박수)

조선 로동당과 조선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단결하며 국제 로동 계급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굳세게 싸워 나아갈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6

동지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조선 혁명을 정확하게 령도하여 왔으며 우리 인민을 위대한 승리에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혁명을 더 전진시키며 새로운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닦은 데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고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 있으며 형제적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여야 하며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우리의 당면한 최대의 과업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고 우리의 혁명 기지를 더욱 굳게 다지며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며 국제적 혁명 력량과의 련대성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의 예속에서 해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당을 강화하고 혁명 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우리의 모든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을 더욱더 힘 있게 추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혁명 전통을 계승하며 당의 투쟁 경험을 더욱 풍부히 하며 당이 이루어 놓은 투쟁 업적을 공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 대렬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고수하고 당과 인민의 련계를 부단히 강화하며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당을 강화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당 조직 생활을 건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 조직 생활은 당원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유일한 사상과 의지에 따라 일상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 기본 조건으로 됩니다. 당 세포 생활을 강화하고 당 생활에서 민주주의적 기풍을 더욱 반양하여 전체 당원들이 높은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로동당의 영예로운 전사로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이 맡긴 임무를 충실히 집행하며 언제나 당과 로동 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 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당 기관들과 당 조직들은 무엇보다도 간부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을 잘 료해하며 간부들을 일상적으로 꾸준히 교양하여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간부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고착시키며 모든 간부들이 자기 맡은 일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그들의 수준을 높여 주고 그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도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부들은 당과 인민의 두터운 신임을 깊이 간직하고 항상 당의 의도 대로 사고하며 당 정책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당 조직들은 사상 사업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 원리 교양과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하며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적 사상 조류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 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계급적 각성을 높이도록 하며 제국주의와 착취 계급을 증오하는 사상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을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육성하며 우리 로동 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과 전투성을 더욱 높이며 우리 농민들과 인테리들을 더욱더 혁명화하여야 합니다. (박수)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굴의 혁명 투사로 될 뿐 아니라 유능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되여야 하며 혁명 투쟁에서 견결할 뿐 아니라 경제 건설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제 지식과 기술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당 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경제 지식을 소유하며 새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맑스-레닌주의 경제 리론과 선진적 과학 기술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며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분렬된 조건에서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특히 아세아에서 더욱 발광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으로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 투쟁은 계속 앙양되고 있으며 아세아와 기타 여러 곳에서 인민들의 반미 투쟁이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면서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당의 일관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잘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 날가 두려워 경제 건설을 소홀히 하는 것도 잘못이며 경제 건설에만 치우치고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여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평화적 건설의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리용하여 경제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은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한 혁명 과업입니다. 경제 건설은 국가와 사회와 인민의 재부를 증대시키고 나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할 뿐 아니라 로동을 통하여 인민들을 교양하며 단련시키게 합니다. 경제

건설을 잘 하여야만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그들을 더욱 결속시킬 수 있으며 혁명에서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력을 부단히 장성시켜야만 남조선 인민들에게 더 큰 고무를 주고 그들의 혁명 투쟁을 더욱 힘 있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매년 수억 딸라씩 투입하면서 계속 증강하는 남조선 주둔 미군 및 괴뢰군의 방대한 병력과 대치할 수 있는 군사 부담을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더욱 더 튼튼히 하여야만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도 보장할 수 있고 국방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당면 과업인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기본 건설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가 자금을 동결시키지 않도록 시작한 기본 건설은 제때에 끝내며 투자된 자금이 빨리 효과를 나타내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은 아직도 낮으며 제품의 질이 높지 못하고 원가도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을 추진시키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물자를 절약하고 원단위를 낮추기 위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관리와 기술 준비를 잘 하며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공급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생산의 파동성을 근절하고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 하여 모든 것을 더 좋게, 값싸게 그리고 더 많이 생산하며 건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훌륭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 기관들과 기업소들은 대안 체계를 철저히 도입함으로써 경제 건설에서 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동시에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재부를 계속 증대시키는 것과 함께 이미 창조하여 놓은 재부를 애호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건설하였으며 조국의 강토를 더욱 아름답게, 풍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두다 우리 인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귀중한 밑천입니다. 우리는 공장, 기업소, 철도, 차량, 항만, 선박, 관개 시설들과 학교, 병원, 구락부, 공공 건물, 주택 그리고 또한 농경지, 산림, 하천, 도로 등 모든 것을 애호하고 잘 관리하며 그것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효과 있게 리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여 나라의 경제력을 계속 장성시키는 동시에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큰 힘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온갖 안일성과 권태증을 반대하고 항상 경각성을 높이며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화적 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전쟁을 두려워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사상 조류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

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부들과 당원들은 사상적으로 준비될 뿐 아니라 현대전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 지식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군사 교육은 군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전체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의 항일 전쟁 경험과 조국 해방 전쟁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나라들의 혁명 전쟁 경험에서 배워야 하며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웰남 인민의 해방 전쟁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혁명적 유격 전쟁의 경험들을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전쟁에 대처할 정치 사상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우리의 인민 군대를 강화하고 로농 적위대를 강화하며 전 인민적 방위 체계를 더욱 철벽 같이 다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사회주의를 더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원쑤들이 감히 무력으로 우리에게 덤벼 들 때에는 이를 용감하게 맞받아 나아가 싸울 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섬멸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과 인민은 자체의 혁명 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도래할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할 것이며 반드시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세계의 모든 혁명 력량과 단결하여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제국주의의 주구들과 반동을 반대하여,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동지들! 조선 로동당은 20 년 간의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정당성과 불패의 힘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정확하며 그것은 우리 인민의 승리의 길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당을 믿고 있으며 당 주위에 단결되여 있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에게 맑스-레닌주의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전체 인민이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싸워 나아가는 이상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로동당의 기'발을 높이 들고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맑스-레닌주의 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만세! (우렁찬 박수)

영웅적 조선 인민 만세! (우렁찬 박수)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기치 만세!

(전원 총기립,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당과 대중의 불패의 통일 단결

김　　량　　제

당과 대중의 통일 단결은 당 건설에서와 혁명 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을 강화해야 하며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워야 한다. 군중을 쟁취하지 않고서는 당도 강화할 수 없고 혁명도 할 수 없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265 폐지).

당과 대중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위력의 원천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 계급과 광범한 근로 대중의 선봉적 부대이며 그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당은 광범한 비당원 대중과의 련계를 공고히 함으로써만 부단히 장성 발전할 수 있으며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힘을 가질 수 있다.

당과 대중의 통일은 혁명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혁명은 인민 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대중 자신의 사업인 만큼 소수의 혁명가들과 전위대의 힘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으며 광범한 혁명 대중이 참가함으로써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이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여야 하며 당과 대중의 공고한 통일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당에 있어서는 조선 혁명의 특성과 관련하여 대중을 전취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는 사업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되였다.

세계 반동의 두목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으며 국토가 량단된 조건에서 진행되는 우리 혁명의 간고성, 우리 나라 력사 발전의 특성으로 인한 주민의 사회 정치적 구성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대중을 전취하는 사업은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본 문제로,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되였다.

우리 당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전통적인 혁명적 군중 로선을 계승 발전시켜 창건 첫날부터 대중 전취를 위한 정확한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성과적으로 관철하여 왔다.

당은 혁명 수행의 매 단계에서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계급 호상 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군중 전취를 위한 전략적 방침을 규정하였다.

그것은 우선 해방 직후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혁명적 민주 기지 창설 로선에서 명백히 천명되였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한 우리 혁명 정세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당은 광범한 근로 대중의 통일을 강화하며 지주, 예속 자본가, 민족 반역자 등 소수의 적대 분자들을 철저히 진압 고립시키고 혁명의 편에 끌 수 있는 모든 민주 력량을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공화국 북반부를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꾸려 나갔다.

우리 당은 당 대렬을 급속히 확대 공고화하며 당과 대중을 련결하는 인전대인 사회 단체들의 사업을 당의 정치 로선의 요구에 적응하게 강화 발전시키는 대책을 강구하였다. 우리 당이 대중적 당으로 발전함으로써 광범한 근로 대중 속에서 로동 계급의 영향력이 제고되였으며 혁명의 주력군이 강대한 력

량으로 급속히 장성하였다. 한편 사회단체들의 사업이 더욱 개선됨에 따라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일층 강화되였으며 당 주위에 광범한 군중이 더 튼튼히 결속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의 발전과 함께 대중 전취 사업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당과 대중의 통일을 부단히 공고 발전시켰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채 공화국 북반부에서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로 이행하게 되면서 우리 당 앞에는 두 개의 혁명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어려운 임무가 제기되였다.

당은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으로부터 출발하면서도 여기에 조국 통일을 위한 혁명 임무의 요구를 밀접히 결부시켜 대중 전취를 위한 방침을 규정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는 당과 대중의 통일을 공고화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계급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였으며 인민들의 보다 공고한 정치-도덕적 통일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초가 형성되였다. 당과 대중의 통일 단결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토대 우에서 더욱 공고 발전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근로자로 된 새로운 조건에서 극소수의 반혁명 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여 공화국 북반부를 붉은 일색으로 튼튼히 꾸릴 데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과업을 제기하였다. 당은 각계 각층의 모든 근로 대중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군중 사업 방법을 일층 개선 발전시켰으며 전체 인민 대중 속에서 전면적인 공산주의 교양을 강력히 조직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대중 전취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우리 혁명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당과 대중의 통일 단결을 불패의 것으로 공고 발전시켰다.

* *

당이 광범한 대중을 묶어 세우기 위하여서는 자기 대렬부터 튼튼히 결속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 단결은 당과 대중의 확고한 통일을 위한 결정적 요인이다.

당이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되지 않고서는 대중의 신임을 얻을 수 없고 그들 속에서 권위를 획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중을 자기 주위에 결속시킬 수 없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룩된 당과 대중의 확고부동한 통일의 기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향도적 력량인 당의 강철 같은 통일 단결이 놓여 있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당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 왔으며 이 투쟁에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당 대렬이 조직 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전투력이 제고됨으로써 우리 당은 광범한 대중 속에서 높은 위신과 권위를 가진 강유력한 당으로 되였으며 각 계층 군중을 능히 포섭하고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단결시킬 수 있는 력량을 갖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체 인민은 우리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그 주위에 한사람 같이 단결하고 있으며 당을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전진하고 있다.

당은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철하는 전 과정에서 인민에게 철저히 복무하며 대중에 전적으로 의거하는 립장을 견지함으로써만 인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들을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킬 수 있다.

당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당한 로선과 정책으로써 대중을 자기 주위에 결

속시킨다. 당은 자기의 정책과 구호에서 대중의 리익을 정확히 반영할 때, 그리고 그것이 물질적인 결과로서 실지 나타나게 할 때 대중의 확고한 지지를 얻게 된다.

특히 정권을 장악한 당은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그것을 실천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을 견지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로선과 정책의 철저한 인민성을 보장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의 매 시기마다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성숙된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그 요구를 명확히 반영하여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였다.

《우리 당은 항상 인민들 속에서 살며 인민들과 같이 투쟁하며 인민들의 리익과 그들의 절실한 요구에 근거하여 당의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동원하였다》(김 일성 선집 제 1 권, 351 페지).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당은 우선 인민 생활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되는 관심을 돌렸다. 우리의 로동자, 사무원들은 국가로부터 식량과 주택을 거의 무료나 다름 없는 가격으로 보장 받았다. 우리 근로자들은 이밖에도 당과 국가의 각종 사회 문화적 시책을 통하여 막대한 배려를 받았다. 국가로부터 받는 이러한 추가적 혜택은 그들의 실질 수입의 근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목을 돌렸으며 로동자의 생활과 함께 농민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세심히 돌보았다.

당은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한 다음 이 력량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농촌을 방조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으며 각 방면에 걸쳐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취하였다.

이리 하여 우리 인민은 비록 유족하지는 못 하나마 의식주 문제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 왔다.

우리 당은 대중의 리익을 옹호함에 있어서 그들의 목전의 리익과 장래의 리익을 밀접히 결합시켰다. 당이 대중의 목전의 리익만을 보고 장래의 리익을 고려할 줄 모른다면 결국 대중의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할 수 없으며 실현할 수 없다. 우리 당은 항상 대중의 당면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그들의 장래의 리익과 행복을 예견하는 로선과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은 인민들의 당면한 생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나라의 장래 번영을 위한 경제 토대를 튼튼히 축성함으로써 인민 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밑천을 마련하여 왔다. 당의 현명한 정책에 의하여 전후 짧은 년간에 벌써 우리 인민의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였으며 인민 생활은 날로 개선 향상되였다.

우리 당은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광범한 근로 대중에 전적으로 의거하고 그들을 적극 반동시키는 군중 로선의 방침을 견지하였다.

당은 대중으로 하여금 당 정책의 정당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의 관철에 자각적으로 나서게 함으로써 대중의 창조력과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양시켰다.

당은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에도 언제나 인민 대중을 믿고 대중과 협의하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극복하여 나아갔다.

우리 당은 또한 방대하고 어려운 수많은 자연 개조 사업과 도시와 농촌의 건설 사업, 대대적인 예비 동원 사업 등을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성과 있게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투쟁 행정에서 대중은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자기 력량의 강대성을 더 잘 알게 되였으며 당을 믿고 그를 따라 전진할 때 극복 못할 난

판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되였다. 대중은 또한 당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당이 인도하는 길로만 나아간다면 틀림이 없으며 그들의 승리와 행복이 반드시 약속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김두철미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대중을 믿고 그에 의거함으로써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임을 획득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의 실지 생활을 통하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체험하였으며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그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다.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견지하며 그들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은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사업에서 기본 원칙으로 된다.

당이 광범한 대중을 자기 주위에 결속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 경제적 처지와 정치적 각성 정도, 그리고 정치 생활 경위 등에서 서로 다른 조건에 놓여 있는 각 계급과 계층에 대한 태도를 옳게 가지며 그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방침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당이 대중 사업에서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견지하며 그들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다.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견지하며 옳게 결합하는 것은 혁명 투쟁에서 특히는 대중과의 사업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이다.

혁명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의 립장을 부단히 공고히 하며 그들을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이 계급 로선을 항상 견지하여야 한다. 한편 당이 혁명의 동맹군인 광범한 근로 대중을 로동 계급의 편에 인입하며 그들을 혁명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하여서는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범한 대중을 결속시키기 위하여서는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견지할 뿐 아니라 이 량자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그것은 대중의 단결은 로동 계급의 령도가 보장되고 그의 계급적 원칙이 고수될 때 참으로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으며 로동 계급의 계급적 립장은 그가 모든 근로 대중을 자기 주위에 결속시키고 그에 의거하여 투쟁할 때 더욱 공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견지하며 결합시키는 문제는 대중의 사회 정치적 구성이 복잡한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대중과의 사업에서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관철하며 결합시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 계급의 립장을 부단히 공고히 하고 그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광범한 근로자 대중을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켜 왔다.

당은 우선 로동 계급의 진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로농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선차적 주목을 돌리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각계 각층의 모든 군중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교양 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묶어 세우도록 하였다. 혁명의 기본 계급이며 주력군인 로동 계급과 농민의 력량을 공고히 하며 로농 동맹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만 광범한 각 계층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울 수 있으며 그들의 단결을 공고히 할 수 있다. 그것은 혁명의 지반이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려질 때에만 사회의 광범한 각 계층 군중을 능히 포섭할 수 있으며 혁명의 편에 그들을 굳게 결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선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가 중요하다…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 밑에 사회의 기본 계급인 로동자, 농민이 동원되여야만 혁명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혁명의 주력군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은 사회 정치 생활이 결심한 로동자, 고농, 빈농들로써 혁명의 골간 부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로농 동맹을 강화

하는 데 력량을 경주하였다. 당은 우리 나라가 과거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만큼 로농 동맹 문제에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전 시기에 걸쳐 전체 근로 농민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당은 기본 군중 속에서 계급 교양을 강력히 진행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실천 투쟁을 통하여, 당 조직과 근로 단체들에서의 조직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혁명의 역군으로 튼튼히 키워 나갔다. 이리 하여 혁명의 주력군이 속한 시일 내에 튼튼히 꾸려졌으며 이 핵심 력량에 의거하여 우리 당은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주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였다.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은 우선 이들에 대한 태도와 립장을 옳게 가지도록 하는 데 신중한 주목을 돌렸다.

당은 각 계층 군중을 전'적으로 믿었으며 극소수의 반혁명 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군중을 끝까지 교양 개조하여 공산주의 사회에까지 이끌고 나가려는 립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주민의 사회 정치적 구성이 복잡한 데다가 최대한의 군중을 묶어 세울 것이 요구되는 우리 혁명의 경우에 있어서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은 사실 상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는 아무 조건에도 걸리지 않는 몇 사람만 가지고 어느 섬으로 가서 그들끼리만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대중과 함께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이 땅에 새 생활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러저러하게 문제되는 사람들을 다 개조해서 그들과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523 페지).

당은 이와 같이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혁명의 모든 단계에 걸쳐 그들과의 긴밀한 정치적 동맹을 유지 공고화하였으며 그들을 새 사회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다.

당은 각계 각층 군중들과의 사업에서 현재의 사업 형편과 본인을 위주로 보면서 혁명을 위해 적극 나서는 사람들과 단결하였고 동요하는 사람은 끌어 당기였으며 혁명을 반대하는 자들은 철저히 고립시키고 제재하였다.

당은 각 계층 군중이 처하고 있는 구체적 실정에 맞게 교양 사업을 심화시키는 한편 그들을 실지 사업을 통하여 교양 훈련하고 사업에서 달성한 성과와 공로에 대하여 응당한 평가를 주었으며 사회 사업에도 적극 인입하고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인상적으로 배려하고 방조함으로써 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였다.

성분과 환경, 과거의 사회 정치 생활이 복잡하더라도 현재 혁명에 충실하며 자기를 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당은 믿어 주고 아량 있게 포섭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기의 재능과 열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당은 이와 같은 원칙적이고도 신축성 있는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혁명 력량을 분렬 약화시키려던 적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군중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의 매 단계에 걸쳐 당과 대중과의 확고한 통일을 보장할 수 있었다.

당이 대중과의 사업을 심화시키기 위하여서는 군중 사업 체계를 확립하고 혁명적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당이 광범한 대중을 자기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기 위하여서는 군중과의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 그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은 자연이나 사회를 개조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복잡하며 장기성을 요하는 일이다. 수백 수천 년을 두고 계급 사회에서 형성된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세계관으로 근로자들

을 무장시키는 사업이 일조일석에 손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대중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이 사업을 보다 조직화하고 정상화하기 위하여 군중 사업 체계를 정연하게 확립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군중 사업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당 조직들이 군중과의 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생활화, 습성화,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중의 사회 경제적 처지와 사업 형편에 따라 그들의 실태를 명확히 료해하는 것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선차적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의 정치 사상 수준은 고정 불변하지 않으며 부단히 변화 발전한다. 이러한 사정은 당 조직들로 하여금 군중의 실태를 일상적으로, 체계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그에 알맞게 그들과의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군중의 실태를 료해 장악하는 것은 사업의 첫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 군중의 실태를 정확히 료해한 다음에는 대상의 특성과 준비 정도에 맞게 그들과 사업을 심화시켜야 하며 그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매개 당 조직들이 군중과의 사업에서 항상 주동적인 립장에 서며 군중의 실태를 정확히 료해한 데 기초하여 당원들과 군중들 속에서 핵심적인 일'군들을 발동하여 짜고 들어 군중을 교양 개조할 데 대한 명백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군중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서 첫째가는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그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은 우리의 근로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 없이 공산주의에까지 이끌고 갈 데 대한 립장을 견지하고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전개하였으며 특히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전체 근로 대중이 사회주의 근로자로 된 새로운 조건에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 교양의 기본을 계급 교양에 두고 전체 근로자 대중을 혁명화하고 로동 계급화하는 데 주되는 힘을 경주하였으며 그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면서 그들의 사상 의식을 개변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대중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특히는 천리마 운동이 심화 발전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많은 당원들과 선진적인 근로자들이 적극 참가하게 되면서부터 군중 교양 사업은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게 되였다. 당은 이것을 적극 지지하고 조장 발전시켜 군중 교양 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으로부터 해방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군중과의 사업을 심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군중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여야 한다.

대중 속에서 사업하는 일'군들과 당원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은 당과 대중의 호상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중을 위한 당의 옳은 정책도, 당의 대중 사업에 관한 옳은 방침도 정확히 관철할 수 없으며 군중과의 사업 체계도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당에 있어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여 있었다.

《우리 당은 해방 후 창건되는 첫날부터 정권을 령도하게 되였으며 우리의 많은 일'군들은 과거에 혁명 투쟁과 군중 공작의 경험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 하였다. 그러므로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였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혁명적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의 전통을 계승 발

전시키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면서 일'군들 속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특히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군중과의 사업에 관한 당의 의도와 방침을 정확히 인식하고 혁명가의 립장에서 한 사람의 군중이라도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에 있어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과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청산리 방법은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가장 혁명적인 사업 방법이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으로 철저히 무장되게 되였으며 군중과의 사업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 나게 되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일상적으로 군중 속에 들어 가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게 되였다. 그들은 정치 사업을 통하여 대중의 정치적 열성과 자각성을 높이고 그에 기초하여 제기된 문제를 성과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였으며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구석구석까지 돌보아 주면서 그들을 힘 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군중 사업 체계를 확립하고 혁명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군중과의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당과 대중의 통일을 반석 같이 공고화하였다.

* *

우리 당은 지난 20 년간 조선 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여 이 땅 우에서 실로 위대한 혁명적 변혁을 이룩하였다. 조국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달성한 빛나는 승리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이룩된 것이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는 전체 인민이 우리 당 주위에 하나의 사상 의지로 굳게 결속된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붉은 일색으로 튼튼히 꾸며졌다. 이것은 조선 혁명에서 우리 당이 쟁취한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정치 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 의리적으로까지 굳게 단결되여 있다. 당은 대중을 믿고 사랑하며 대중은 당을 신뢰하고 따르면서 당의 지시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이것은 당과 대중 간에 단순한 실무적 련계가 아니라 심장과 심장이 잇닿은 혈연적 련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당과 대중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통일 단결이 이루어짐으로 하여 우리 사회는 물 샐 틈 없는 붉은 집단으로,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치 도덕적 풍모에서는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 나게 되였다. 그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충성심에서,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의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에서,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그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 정신에서,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애의 정신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 속에서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를 적극 지지 옹호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혁명가적 기풍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동지 호상간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한사람 같이 당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려는 혁명 정신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최근 년간에 있은 최고 주권 기관과

지방 주권 기관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100%가 참가하여 선거자의 100%가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한 사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통일 단결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된다.

당과 대중의 불패의 통일의 위대한 생활력은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혁명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인민 대중의 고조된 로력 투쟁에서도 유감 없이 발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 당과 대중의 불패의 통일 단결, 당의 호소를 받들고 궐기한 인민 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에 의하여 천리마 운동이 일어 났으며 이 운동 과정에서 나라의 경제, 문화 건설에서는 수 많은 기적들이 창조되였다. 당의 령도 하에 우리 인민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려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키고 경제 발전의 류례 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세기적 락후성과 혹심한 전쟁 피해를 가시고 이 땅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를 일떠세웠다.

당과 대중의 통일이 공고화됨으로써 당 사업에서도 거대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체계는 전 사회에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단위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당의 의도는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거침 없이, 신속 정확히 관통되게 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으로 교양되였으며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된 인민 대중은 어떤 어려운 정세 하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당을 옹호하여 나섰으며 종파주의,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등 온갖 반당적, 반맑스주의적 사상 조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당의 계급적 지반이 확대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밀접해짐으로써 당은 또한 대중 속에서 그의 우수한 분자들을 부단히 당 대렬에 인입하여 강유력한 대중적 정당으로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으며 광범한 군중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 더욱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하게 되였다.

당과 대중의 불패의 통일 단결은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의 위업을 촉진시키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도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된 빛나는 성과들과 당과 인민이 하나로 뭉친 거대한 혁명 력량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강력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반미 구국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당과 대중의 불패의 통일 단결을 이룩하고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독립과 민주주의와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인민들에게 물심 량면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를 줄 수 있었다.

당과 대중의 깨뜨릴 수 없는 통일 단결,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지난날 혁명과 건설에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 내고 빛나는 승리를 거듭하여 온 힘의 원천이 있다.

우리는 지난 기간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당과 대중의 통일 단결을 부단히 공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보장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적 령도의 강화

김 영 걸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선 인민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은 그 모두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적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취한 제반 창조적 조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는 로동 계급이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인민 대중의 창조물이며 의식적, 계획적으로 건설되는 력사 상 첫 사회이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는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광범한 근로자 대중을 전취하며 새 사회 제도를 수립하고 사회주의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들이 수 많이 제기된다. 선진적인 혁명적 리론으로 무장된 당, 사회 발전 법칙을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알며 인민 대중을 조직, 단결, 교양할 수 있는 당이 없이는 사회주의를 성과있게 건설할 수 없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더욱더 강화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면 될수록 인민 대중의 의식적, 자각적 활동의 의의가 더욱더 제고되며 새롭게 해결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된다. 인민 경제의 규모는 더욱 방대해지고 그의 내부적 련계는 더한층 밀접해지며 지방의 권한이 또한 점차 확대되게 된다. 당은 정권을 잡은 때부터 정치, 경제, 문화와 인민 생활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며 특히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후에는 그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며 특히 경제 건설에 대한 당'적 령도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맑스-레닌주의당 건설 원칙에 의거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당'적 령도를 강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 왔다.

우리 당은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고 전 당에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당 조직들의 령도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당 사업 체계 및 방법을 개선 완성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으며 당의 인전대인 국가 기관, 사회 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적 령도를 강화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1. 당의 조직 사상적 통일은 당'적 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적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 자체가 중앙 집권적 규률에 의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통일된 강철 같은 부대로 되여야 한다.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의 지도적 력량이다. 당이 조직 사상적으로 통일됨이 없이는 혁명과 건설을 옳게 지도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오늘 전체 조선 인민의 운명과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는 전'적으로 우리 당의 령도에 달려 있으며 당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우리는 당을 계속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그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데 전 력량을 경주하여야 하겠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당은 상급 및 하급의 지도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전체 당 조직이 당 중앙 위원회에 절대 복종하는 유일한 규률을 가진 전일적인 혁명적 조직이다. 당은 강철 같은 규률을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위력하며, 이것으로 하여 자기의 령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내의 강철 같은 규률은 사상 의지의 통일이 없이는, 당 중앙 위원회를 적극 지지 옹호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는 전 당의 행동 통일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승리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대의 의지의 통일을 실현할 데 대하여 한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실현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통일을 저해하는 암이며 독소인 종파를 청산하고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 특성, 우리 당 건설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데서 반종파 투쟁은 각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여 있었다.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전 당의 무조건적인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이 요구되였는데 종파 분자들은 계속 당의 중앙 집권적 규률을 약화시키고 《양봉 음위》하면서 어려운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당을 반대하여 나섰으며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종파를 반대하여 시종일관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1958년 제 1 차 대표자회를 계기로 하여 그것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력사적 위업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당의 통일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종파를 청산하는 것만으로써 원만히 해결될 수는 없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당의 통일을 저해하는 종파를 제거하는 동시에 전 당에 당'적 사상 체계를 확고히 수립하여야 한다.

당'적 사상 체계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당 중앙 위원회를 견결히 옹호하고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당의 로선,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 당원들의 고상한 혁명적 립장, 그의 사상 관점을 의미한다.

전 당이 이러한 혁명적 립장, 이러한 사상 관점으로 무장되여야 당 중앙 위원회가 모든 당 조직과 국가 기관, 사회 단체들을 유일한 의지로 결속시키고 그들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전체 당원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광범한 군중을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종파의 사상 여독을 청산하는 동시에 종파를 낳는 온상인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극복하며 전체 당원들을 우리 당의 반종파 투쟁 경험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것이였다. 이것은 당원들로 하여금 종파의 본질과 해독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하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당내에 수립되게 하였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교양과 당 정책 교양 특히는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교양 사업과 투쟁을 통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조선 혁명의 백리와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의 현명성을 심장으로 깨닫고 당 주위에 더욱 철석 같이 단결되게 되였으며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 의식을 높이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당이 제기하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 있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였다.

이리 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화되고 당 중앙 위원회의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이 결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게 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당의 통일과 단결이 당'적 사상 체계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만 더욱더 확고한 것으로 되며 당'적 사상 체계가 전 당에 확고히 수립되고 전 사회에까지 확대되게 될 때 당'적 령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당 조직들의 령도적 기능을 높이는 것은 당'적 령도를 강화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적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조직 사상적 통일을 실현하는 동시에 각급 당 조직들의 령도적 기능을 높여야 한다.

당의 령도는 한편으로는 당 중앙 위원회로부터 각급 당 조직을 거쳐 군중에 이르는 지도 체계와 다른 한편으로는 당으로부터 인전대(국가 기관, 사회 단체)를 거쳐 군중에 이르는 지도 체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이러한 지도 체계가 정연하게 수립되고 이 지도 체계의 매개 고리에서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 조직들의 령도적 기능이 높아져야만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적 령도를 강화할 수 있다.

당 조직들의 령도적 기능을 높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급 당 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원래 맑스-레닌주의당은 자기의 지도적 지시로써 인전대의 사업을 향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한다. 당의 지도적 지시가 없이는 인전대는 어떤 중요한 정치적 또는 조직적 문제도 결정할 수 없다. 이것은 당과 인전대의 호상 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이며 <당의 지도적 역할의 최고의 표현>으로 된다(쓰딸린, <레닌주의 기본에 대하여, 레닌주의의 제 문제에 대하여>, 175 페지 참조).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이 원칙을 관철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여진다.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특히는 지방에서 경제의 규모가 매우 커지며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당 중앙 위원회의 정치적 및 조직적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건설에 대한 지방 당 위원회들의 당'적 령도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이 각급 당 위원회를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되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인 조치로 된다.

각급 당 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된다는 것은 국가 기관과 사회 단체들을 례외없이 당'적 통제하에 두며 행정 상급 기관의 명령, 지시를 포함하여 그 기관, 단체들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새롭고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해당 당 위원회들의 집체적 토의 하에서만 조직 집행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위원회들의 이러

한 지도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군당 위원장은 군인민 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춤출 것이 아니라 군당 집행 위원회에서 당 중앙의 정책과 로선에 근거하여 방침을 세우고 분공을 주며 실행 정형을 검열하는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278 페지)고 교시하였다.

당 정책에 근거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의 제시, 분공의 조직과 력량 배치, 그의 집행 정형에 대한 지도와 통제— 이것은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된 각급 당 위원회의 인전대들의 사업에 대한 《키잡이》의 기본 내용으로 된다.

각급 당 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되고 《키잡이》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령도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당 위원회들의 집체적 령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을 뿐만 아니라 방향적 지도와 방법적 지도를 결합시키며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시키며 당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모든 문제가 실과 있게 해결되게 되었다. 또한 문제 토의에서의 집체성과 그 집행에서의 개인 책임제가 밀접히 결합되게 됨으로써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의 책임성과 자립적 역할이 훨씬 제고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의 통일적 지도가 해당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를 통하여 더 잘 실현되게 되였으며 국가 기관과 사회 단체들의 자립적 활동과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에 의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자체 실정에 맞게, 더욱 정확히 관철될 수 있게 되였다.

당 조직들의 령도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지역적 및 생산적 단위에 따르는 당의 조직 원칙을 창조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 조직을 지역적 및 생산적 단위에 따라 조직하며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한 당 조직이 그 지역 내의 당 조직들에 대하여 상급 당 조직으로 된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조직 원칙이다.

경험은,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당 중앙 위원회의 통일적 지도를 더욱 원만히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원칙을 발전하는 현실에 적응하게 정확하게 구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전에 공장, 기업소와 협동 농장 당 조직들에 대한 지도가 례외 없이 해당 군당 위원회를 거쳐 실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와 협동 농장들의 생산 규모가 다같이 방대해진 조건에서 이 모든 당 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지도 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요구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공장, 기업소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생산적 표징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지역적 표징을 결합시켜 당의 조직 원칙을 창조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있어서 도(직할시)당 위원회가 중앙 공업 기업소를 포함한 도내의 인민 경제 전반을 책임적으로 지도 통제하게 하며, 큰 규모의 공장, 기업소 당 조직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도(직할시) 당 위원회가 그것들을 직접 지도하게 하며, 중심 군당 위원회를 내온 조치들이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도(직할시), 중심군, 공장당 위원회들의 령도적 기능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로동 계급 속에서의 당 사업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또한 군당 위원회로 하여금 농촌 당 조직을 비롯한 군내의 기타 당 조직들에 대한 지도에 력량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당 중앙 위원회의 통일적 지도는 그의 기능과 역할이 더 한층 높아진 각급 당 조직들을 통하여, 그리고 더욱 가까운 길을 거쳐 대중 속에서 철저히 실현

되게 되고 생산에 대한 부문별 전문 지도 기관들의 행정 기술적 지도와 지방 당 조직들의 당'적 령도가 밀접히 결합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더욱 성과 있게 건설해 나갈 수 있게 되였다.

당 조직들의 령도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또한 중요한 것은 각급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를 강화하고 기층 조직들의 전투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당'적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집체적 령도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 정책의 관철 여부는 해당 당 위원회들의 집체적 령도를 어떻게 강화하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각급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집체적 령도 기관을 당에 충실하고 사업 능력이 있는 일'군들로써 튼튼히 꾸리고 그의 집체적 령도 기능을 높이는 것이였다. 이것은 당 위원회들로 하여금 어떤 복잡한 문제 해결에서도 항상 당'적 원칙을 고수하고 자기 사업을 능동적으로 조직 전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당'적 령도에서 개인의 독단과 일면성을 극복하고 과학적 지도를 보장하게 하였고 대중의 창조적 열의를 고도로 발양시킬 수 있게 하였다.

당 조직들의 령도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의 기층 조직들의 전투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당의 기층 조직은 당원들의 당 생활의 거점이며 군중을 당 주위에 결속시키는 기본 단위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 단위이다. 당의 기층 조직을 강화함이 없이는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일 수 없고 당의 로선, 정책을 관철할 수 없다.

우리 당은 기층 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 당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켰으며 당원들의 당 생활 체계와 당 생활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그것을 통하여 당원들의 당성 단련을 꾸준히 지도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당 위원회들의 집체적 령도가 강화되고 기층 조직들의 전투력과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이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거침 없이, 신속 정확하게 침투되고 당원들과 광범한 군중의 자각적 열성에 의하여 그것이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다.

경험은 객관 현실이 변화함에 따라 맑스-레닌주의당 건설 원칙과 자체 실정에 맞게 당 중앙 위원회의 통일적 지도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조직들의 령도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제때에 취하여야만 당'적 령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3. 당'적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 사업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적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 사업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 완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의 대중 지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사회주의 건설은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각적으로 참가해야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건설을 지도하는 당은 례외 없이 지도를 하부에, 군중 속에 침투시키는 사업 체계를 가져야 하며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남김 없이 동원하는 사업 방법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혁명적인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소유하여야만 당은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로 당 및 국가 기관과 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통일시키고 지도할 수 있으며 당의 의도를 대중 속에 철저히 해석 침투시키고 그들을 발동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 있게 추진시킬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이 혁명적인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소유하여야 할 필요성은 특히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후 더욱 절실하여진다.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되게 되면 사회는 더욱더 째여지고 생산력은 계획적으로만 발전하게 되며 근로자들의 정치 사상 의식과 도덕 생활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 난다. 그리고 급속히 변화 발전하는 현실과 그것을 미처 따라 가지 못하는 일'군들의 지도 수준 간에 일정한 불일치가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당 사업 체계와 방법을 변천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제때에 혁명적인 것으로 개선 완성하지 못한다면 새로 창설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킬 수 없고 그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광활한 길에 들어선 생산력의 높은 발전 속도를 견지할 수 없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청산리 방법을 창조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절실하게 제기되였던 당 사업 체계와 방법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청산리 방법으로 불리는 우리 당의 혁명적 사업 방법은 1930 년대의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이후 장기간에 걸친 혁명 투쟁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사업 경험을 개괄하고 체계화한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청산리 방법의 근저에는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이 놓여 있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 관통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청산리 교시와 그 후에 있은 일련의 교시들에서 모든 사업의 《첫 공정》은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당의 사업 방법이 바로 여기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사회를 개조하거나 생산력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그의 성과 여부는 구경 사람들이 어떻게 자각적으로 발동되며 사물 발전의 객관적 과정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물론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기술이 노는 역할은 매우 중요해진다. 그러나 기계와 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며 그것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다. 사람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일하도록 각성시키지 않고서는 기계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기술도 발전시킬 수 없다.

일찌기 맑스는 **《가장 강력한 생산 력은 혁명적 계급 그 자체이다》**(맑스 엥겔스 전집 제 4 권, 209 페지)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사업 방법, 청산리 방법은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위력하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되는 것이다.

청산리 방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 우의 인'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아래 일'군들을 도와 주며 상하 합심하여 제기된 문제를 푸는 것이며,

둘째로,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고 군중을 발동시켜 제기된 혁명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세째로, 한 점을 뚫고 모범을 창조하여 일반화함으로써 전반을 추켜 세우는 것이다.

청산리 방법은 이러한 중요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며,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결합시키며,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며,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전반적 고리를 해결할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방법의 제 요구들을 가장 철저히 구현할 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청산리 방법을 전 당에 일반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을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방법으로 철저히 무장시켰으며 당 사업에서 커다란 전환을 일으키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당은 청산리 방법을 당 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의 사업 방법으로 되게 함으로써 국가 사업에서도 거대한 전환을 가져 왔다.

설복과 교양을 위주로 하는 당 사업 방법, 청산리 방법을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의 사업 방법으로 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심화 발전 자체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각적 의식적 활동이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매개 근로자들이 객관 법칙을 더 잘 인식하고 그에 기초하여 목적 의식적으로 일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한층 높아지며 따라서 그들을 설복하고 교양하는 당 사업 방법이 더 큰 의의를 가지게 된다. 경제적 관계와 사상 령역에서 낡은 사상 잔재가 점차 극복되고 근로자들의 정치 사상 의식이 부단히 제고되게 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설복과 교양의 방법이 미치는 영향이 또한 급속히 증대된다.

이것은 국가 기관들이 명령과 호령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설복과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당 사업 방법으로 사업하는 것을 위주로 삼고 여기에 법적 통제를 옳게 배합하여 일하여야만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추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청산리 방법의 경제 지도 관리에의 구현인 대안의 사업 체계가 전 사회에 확립된 오늘의 조건에서는 생산자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당 사업 방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경제 관리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더욱더 절실하여지는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청산리 방법을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의 사업에 철저히 구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여기에서 국가, 경제, 문화 기관 일'군들 속에서의 심각한 사상 투쟁과 자체 수양을 통하여 그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부단히 높이게 하는 한편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이에 경제 기술적인 사업과 분석적 관심을 옳게 결합하여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하도록 그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 사업 방법, 청산리 방법이 당 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문화 기관의 사업에까지 일반화되게 됨으로써 당 및 국가 기관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개선 완성하는 데서 거보의 전진을 이룩할 수 있게 되였다.

청산리 방법을 일반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선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도와 주며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 주는 사업 체계가 정연하게 수립되였다.

상급 기관 일'군들은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 가 해당 당 위원회에 의거하고 하급 기관 일'군들과 합세하여 지도 사업을 진행하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래 일'군들을 도와 주고 배워 주면서 자기 자신들도 배울 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사업 체계의 확립은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과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일'군들의 지도 수준 간의 불일치를 시급히 해결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 있게 추진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되였다.

청산리 방법을 일반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또한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혁명적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되였다.

모든 일'군들은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군중 속에 들어가 정치 사업을 통하여 그 문제가 가지는 의의와 수행 방도 및 전망을 철저히 해석 침투시키며 당원들에게 구체적인 분공을 주고 그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여 군중을 힘 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되였다.

지도 일'군들은 현실에 대한 료해 사업을 선행시키고 표치 사업을 그에 따

라 세우며 이 과정을 부단히 반복하면서 지도를 더욱더 심화시킬 뿐 아니라 한 점을 뚫고 모범을 창조하여 그것을 일반화함으로써 전반을 급속히 추켜 세우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당은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사회주의 건설에 대중을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자 대중을 경제 관리에 직접적으로 참가시키는 어려운 문제도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되였다.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경험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러한 사업 방법과 사업 체계를 확립하여야만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4. 당'적 령도의 강화는 국가 기관, 사회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적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령도의 주체인 당 조직들의 령도적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당'적 령도를 받는 국가 기관과 사회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도 높여야 한다.

국가 기관과 사회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형식 상으로는 비공산당적이고 탄력성 있고 비교적 광범하고 매우 강대한 프로레타리아적 기관인데 그것을 통하여 당은 계급 및 대중과 밀접히 련결되며 또 그것을 통하여 당의 지도 하에서 계급의 독재가 실현되는 것이다》(레닌 전집 제 31 권, 38 페지). 국가 기관과 사회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임이 없이는 당의 령도도, 프로레타리아 독재도 강화할 수 없다.

우리 당은 혁명의 보위자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 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당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세계 반동의 괴수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계급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 정권의 독재의 기능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그의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최근 년간 사회주의 건설의 규모가 비상히 확대되게 된 사정과 관련하여 당은 지방 정권 기관들의 법적 기능을 강화하고 그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그의 일부 기능을 떼내여 농촌 경리, 지방 공업, 건설, 계획화 사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 기관들을 창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에 상응하게 국가의 중앙 집권적 지도와 지방적 창발성을 결합시키고 국가, 경제 기관들의 지도적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분야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더 잘 관철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 정권과 함께 사회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 또한 깊은 관심을 돌렸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는 당면하여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건설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이 제기되여 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가 다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영예로운 사회주의 근로자로 되였으며 그들의 정치적 각성과 기술 문화 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이리 하여 변천된 새 환경은 그에 상응하게 사회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한 계단 더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청년들의 민주주의적 대중 단체였던 민주 청년 동맹을

보다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인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였으며 해방 후 농민들의 대중 단체로 조직되였던 농민 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협동 농민을 비롯한 농업 부문 근로자들을 총괄적으로 망라한 농업 근로자 동맹을 새로 창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나라 청년들과 농업 근로자들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철석 같이 단결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당의 령도 하에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서 자신들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면서 제기되는 혁명 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궐기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농업 근로자 동맹의 창설은 로동 계급의 농민에 대한 정치 사상적 영향을 강화하고 로동 계급의 지도, 도시의 지원 하에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성과 있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더욱 힘 있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직맹을 비롯한 사회 단체들의 임무와 직능을 명백히 규정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사회 단체들의 사업에 일부 남아 있던 낡은 틀을 종국적으로 마스고 당 정책 관철에서 능동성과 창발성을 더 높이 발양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당의 인전대로서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당은 또한 국가 기관과 사회 단체 일'군들이 당의 령도에 항상 충실하며 행정식 사업 방법을 버리고 당'적 방법으로 사업하도록 꾸준히 지도하였다.

당의 꾸준한 교양과 지도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국가 기관, 사회 단체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의 령도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되였으며 항상 당의 지시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당 조직에 적극 의거하여 일하고 모든 사업을 당'적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였다.

이리 하여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당의 령도적 역할이 높아지고 국가 기관, 사회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이 또한 제고되게 됨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어김없이 성과 있게 관철되게 되였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적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 조직들의 령도적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당'적 령도를 받는 국가 기관, 사회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도 반드시 높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또한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국가 기관과 사회 단체들의 프로레타리아적 성격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하며 이 기관, 단체들에서 일하는 일'군들을 당에 더욱 충실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

우리는 이상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당'적 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경험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았다.

지난 기간 당'적 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얻은 이러한 경험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 진척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일 수 있게 하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당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더욱 풍부히 한 것으로 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으로 된다.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쌓아 올린 경험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그에 기초하여 당'적 령도를 가일층 강화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 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되고 있다.

혁명적 문학 예술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엄 호 석

1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은 본래 자본의 철쇄를 끊어 버리려는 로동 계급의 치렬한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그 투쟁을 촉진할 사명을 띠고 탄생하였다. 그런 만큼 그것은 본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당'적이며 혁명적인 문학 예술이다.

혁명적 문학 예술은 인민들의 혁명 투쟁이 고조되는 시기에 그 역할이 더욱 높아지며 로동 계급의 혁명 위업에 기여하면서 크게 발전한다. 우리 나라 문학 예술의 력사가 이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1930 년대의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창작된 혁명적 문학 예술이 유격대원들을 승리에로 고무한 힘찬 진군 나팔로, 원쑤를 치는 우뢰로 되여 혁명 투쟁에 직접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여도 이것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 방법으로 하고 발전한 우리 문학 예술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에 당이 제시한 과업의 해결에로 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며 그들을 당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혁명적 문학 예술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 들었다.

혁명적 문학 예술은 폭풍우의 시대인 우리 시대에 와서 그 의의와 역할이 더욱 커졌다.

오늘 우리 당은 북반부를 혁명의 요새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우리 인민을 어떠한 정세하에서도 동요함이 없이 혁명의 위업을 고수할 수 있는 투사로 교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싸우는 남반부 인민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적으로 교양할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업은 우리 문학 예술 일'군들에게 문학 예술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계급 투쟁으로 충만된 현 시대에 상응한 혁명적 문학 예술 작품들을 창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1964년 11월 7일 문학 예술 일'군들 앞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혁명적 문학 예술을 창작할 데 대하여》는 모든 문학 예술 일'군들의 창작 활동에 있어서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이 교시에서 김 일성 동지는 혁명적 문학, 예술 작품 창작의 기본 방향과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창작 실천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과 함께 특히 혁명적 대작 창작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였다.

이 교시가 발표된 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 문학 예술 작품 특히 혁명적 대작의 창작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 석 윤기의 《시대의 탄생》, 천 세봉의 《고난의 력사》와 같은 대 장편 소설의 제 1 부들과 김 재규의 《포화 속에서》가 광범히 애독되고 있으며 양 재춘, 김 창석 작, 오 병초 최 익규 연출 《그들은 이렇게 싸웠다》, 백 인준 작, 전 운봉 연출 《성장의 길에서》제 1 부 등 영화가 인민들의 절찬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석 윤기의 《시대의 탄생》(제 1 부)은 조국 해방 전쟁의 전모를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재현하려는 웅대한 구상 밑에 씌여진 작품으로서 그 부분적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사상적 높이와 서사시적 풍격에 있어서나 예술적 묘사의 질에 있어서 뛰여 난 성과작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극히 초보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 우리에게는 혁명적 주제와 내용을 가진 작품이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 문학 예술은 우리 혁명의 빛나는 로정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업적을 반영한 작품들을 많이 내여 놓지 못 하였으며 특히 남반부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반영한 대작을 거의나 내놓지 못 하였다. 이것은 혁명 발전의 현 단계가 제기하는 절박한 요구에 우리 문학 예술이 충분히 수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있어서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혁명적 문학 예술 작품의 주제의 령역을 활발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혁명적 문학 예술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주제 령역으로 되는 것은 해방 전 장기간에 걸쳐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 의하여 영웅적으로 전개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이며 그 투쟁 행정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 전통과 고귀한 업적들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학 예술은 오랜 동안 봉건적 압제와 일제의 강점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조선 인민의 애국적 투쟁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강력히 조직 전개된 혁명적 로동자, 농민들의 수 많은 대중적 반일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의 창작에 응당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은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그것은 항일 무장 투쟁의 15 년이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이루어 놓은 시기이며 이 투쟁 대렬에서 손에 무기를 들고 피 흘려 싸운 투사들이야말로 오늘 우리 인민에게 사람이란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가장 높은 귀감으로 되기 때문이다.

혁명적 문학 예술의 주제의 령역을 넓힘에 있어서 오늘 우리 문학 예술 일'군들 앞에 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은 해방 후 당과 인민 정권을 창건하고 토지 개혁을 비롯한 모든 민주 개혁을 수행하였으며 조국 해방 전쟁을 승리하고 전후 어려운 복구 건설을 위하여 악전 고투한 혁명적 업적과 위훈을 보여 주는 작품을 많이 창작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제는 혁명 전통 교양의 폭을 넓힐 때가 되였다. 해방 후 20 년 동안이나 혁명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째서 15 년 간의 항일 유격 투쟁만 혁명 투쟁이 되겠는가? 인민 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 토지 개혁을 위한 투쟁, 산업 국유화를 위한 투쟁, 당 건설을 위한 투쟁, 미국놈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 이 모든 투쟁은 다 간고한 혁명 투쟁이였다》(《우리 혁명에서의 문학 예술의 임무》).

우리 문학 예술 일'군들은 해방 후 20 년 동안 간고하고 첨예한 혁명 투쟁에 참가한 광범한 인민들을 작품에 등장시키고 그들의 빛나는 혁명적 업적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이 혁명가로서의 높은 자각과 긍지를 느끼고 계속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도록 고무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남반부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주제는 우리 문학 예술의 가장 긴절한 주제의 하나이다.

남반부 혁명의 주인은 남반부 인민이니 만큼 우리 문학 예술은 그들을 혁명 의식으로 교양하여 모두가 반미 구국 투쟁 대렬에 용감히 떨쳐 나서도록 하며 남반부 혁명 력량을 강화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4.19와 6.3 봉기, 10월 인민 항쟁 등 남반부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영웅적 투쟁을 묘사한 작

품을 통하여 원쑤들이 휘두르는 총검도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을 계속하려는 혁명 사상으로 남반부 인민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현재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은 간고한 환경과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문학 예술 작품은 어떠한 어려운 투쟁의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믿는 혁명적 락관주의 사상과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생애를 바쳐 싸우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하는 영예감을 고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혁명적 문학 예술 작품의 힘은 생동하고 견인력 있는 혁명 투사의 영웅적 성격과 그의 높은 정신적 풍모를 통하여 광범한 인민들을 바로 그들처럼 살며 싸우도록 감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혁명적 주제의 문학 예술 작품은 창작함에 있어서 주제의 령역을 넓히는 것과 함께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제는 중심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혁명 투사의 전형적 성격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미학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중심 주인공으로 등장한 혁명 투사가 시대와 계급의 대표자로서의 전형적 높이에서 묘사되여야 하며 동시에 구체적인 산 인간으로 개성화되여야 한다.

중심 주인공으로 등장한 혁명 투사의 성격이 이 작품에서나 저 작품에서나 다 비슷하게 묘사되거나 다른 부차적 인물들의 성격보다 빛을 내지 못하고 뚜렷하지 못할 때 그런 작품이 인민들을 혁명 투사로 교양할 혁명적 문학 예술의 본래의 기본 과업을 실현하지 못할 것은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강한 감화력을 가지는 전형적 성격을 창조하려면 우리 혁명의 기본 력량의 대표자를 중심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중심 주인공과 부차적 인물들 간의 호상 관계를 혁명 발전의 합법칙성과 생활의 진실에 기초하여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문제들은 혁명적 문학 예술 일반에서 제기되는 것이지만 특수하게는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더욱 긴절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심 주인공의 문제와 관련하여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주제로 하는 작품의 창작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는 싸우는 로동자, 농민—투사의 전형을 창조하는 것이다.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하는 작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로동자, 농민의 투쟁을 묘사하고 로동자, 농민—투사를 중심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문학 예술은 남반부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투사의 대렬을 더욱 확대하고 남반부 혁명의 기본 력량을 장성시키는 데 목적 의식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오늘 남반부 로동자, 농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인 괴뢰 집단을 반대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투쟁 과정에서 점차 장성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적, 계급적 자각은 더욱 높아 가고 있으며 북반부의 새 제도에 대한 동경이 날로 증대되여 가고 있다.

남반부의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장성하여 가는 이러한 본질적 측면에 주목을 돌리고 그들이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조직을 꾸리고 점차 혁명적으로 장성하는 과정을 폭 넓게 묘사하며 그 중심에 선 로동자, 농민—투사의 전형을 창조하는 바로 거기에 현실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인민을 미래에로 부르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적 지향의 높이가 있다.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에 로동자, 농민—투사나 혁명 투사를 중심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경우에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그들이 계

급 로선과 반미 구국 통일 전선 로선에 튼튼히 립각하여 원쑤들과의 첨예한 투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기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그들을 각계 각층의 인물들과의 복잡한 사회적 련계 속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며 그들의 성격 발전이 다른 부차적 인물들의 운명에 영향을 주도록 묘사하여야 한다.

혁명적 작품 특히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로동자, 농민—투사와 함께 오늘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테리, 학생들을 중심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인테리 문제에 해답을 주어야 하며 원쑤들과의 치렬한 혁명 투쟁이 진행되는 사회 력사적 환경에서 그들이 과연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정당한 진로를 가리켜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그들이 인테리로서의 낡은 생활 신조를 버리고 혁명의 주류에 합류하여 정당한 삶의 출로를 찾는 복잡한 과정을 우리는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는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묘사하면서 오늘 반미 투쟁의 구호를 높이 웨치며 더욱 발전하는 학생들의 투쟁과 그 중심에 선 진보적 학생들의 전형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문학 예술 일'군들은 작품의 주제적 목적에 따라 인테리와 학생들을 중심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의 혁명적 장성 과정을 진실하게 묘사한 작품을 내여놓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은 그들의 장성 과정이 그들이 처한 생활 자체의 론리와 인테리로서의 정신적 모색에 의거하면서도 보다 중요하게는 혁명 투쟁의 영향과 투사의 지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견지에 서는 것이다. 이것은 인물들의 설정과 배치에 있어서의 그 어떤 도식이 아니라 생활의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반부 인테리와 청년 학생들을 중심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에서는 그들이 혁명의 기본 력량과 련결되여 끝내 옳은 출로를 찾고 투사로 진출하는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4.19 이후 특히 오늘의 남반부 인테리들 속에서 일어 나고 있는 전형적 과정이기도 하다.

인테리 문제는 주제에 따라 각이한 태도와 각도로 취급되여야 한다. 조국 해방 전쟁에 대한 주제의 작품들에서 특히 그러하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테리들은 당의 위임을 맡고 종군 기자와 작가로 혹은 정치 공작원과 예술대원으로 전선에 나가 희생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일시적 후퇴 시기에는 적들의 포위 속을 뚫고 수천 리를 걸어 일편단심 당을 따라 와서 계속 혁명 투쟁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는 인테리를 포함하여 조국 해방 전쟁에 참가한 광범한 인민들의 전형적 성격을 묘사하는 작품을 적극 창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가로서의 영예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누구나 한 번 각오하고 싸우기만 하면 훌륭한 혁명가로 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하며 그들이 계속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고무하여야 한다.

3

혁명적 작품 특히 혁명적 대작에서의 기본 주인공은 자기 생애를 오직 혁명에 바쳐 싸운 혁명 투사이다.

혁명 투사의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쑤들과의 첨예한 계급 투쟁의 로정을 한평생 피로를 모르고 걸어 온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이다. 이로부터 혁명 투사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보여 주며 그의 높은 정신적 풍모를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그를 계급 투쟁의 장구한 력사적 흐름 속에서 묘사하여야 한다. 즉 혁명적 대작은 혁명 투사의 성격 발전의 력사로 되여야 하며 우여곡절이 많은 극적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혁

명적 대작에서의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 민족 해방 동맹 사건의 주동적 인물을 모델로 하여 하나의 대작을 쓸 수 있다. 그 동무들의 해방 전 지하 투쟁, 여러 해 동안의 감옥 생활, 해방 후 오래 동안 서로 헤여졌던 동지들의 감격적인 상봉, 당을 건설하고 정권을 세우며 군대를 창건하기 위한 그들의 헌신적 투쟁,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그들의 눈부신 활동, 락동강까지 나갔다가 적의 포위를 뚫고 다시 돌아 오는 간고한 후퇴 작전,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한 투쟁 등 위대한 력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여 조선 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 속에서 성장하여 가는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 낸다면 과연 하나의 대작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작품을 써야 사람들에게 과연 혁명이란 파란 곡절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혁명적 랑만주의 정신으로 교양할 수 있으며 감옥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우리 혁명에서의 문학 예술의 임무》 45 페지).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적 충돌 속에서 행동하면서 때로 사선을 넘나들다가 투옥되기도 하며 쓰러진 전우의 시체를 붙안기도 하고 이겨 내기 어려운 역경에 처하여 비장한 정신적 체험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 혁명의 기치를 사수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혁명 투사의 일생이다. 그 행정에는 후퇴와 실패, 슬픔과 울분의 시각도 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종국적 승리에 대한 신심과 자기의 숭고한 목적의 정당성으로 하여 항상 불타며, 어떠한 희생과 역경 속에서도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생애를 떳떳하게 바치는 영예감과 긍지로 하여 항상 락천적이며 정열에 차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바로 이러한 혁명 투사의 우여곡절과 그것을 극복하여 나아가는 그의 혁명적 랑만과 락관주의 정신을 심오하게 천명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인민들에게 혁명 투사의 생애란 얼마나 기구하고 간고하며 따라서 그 얼마나 영예로운가를 깨우쳐 줄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떠한 역경과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혁명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완강한 혁명 정신으로 교양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주인공을 원쑤들과의 첨예한 계급 투쟁의 정황 속에서 묘사해야 하며 모든 등장 인물들의 운명들도 바로 주인공이 진행하는 투쟁에 의하여 좌우되게끔 묘사하여야 한다. 한 마디로 혁명적 대작 자체가 계급 투쟁에 기초한 적대적 갈등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그 갈등 속에서 혁명 투사의 운명의 우여곡절이 느껴지고 그의 성격과 풍부한 내면 세계가 남김 없이 드러나도록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혁명 투사의 성격 발전의 력사와 그 운명의 굴곡을 보여 준다는 것은 결코 혁명의 길에 들어 선 때까지의 그의 생활의 수난과 시련을 하나하나 빠짐 없이 기록하며 투쟁을 조직하고 지시를 주고 받는 행정을 따라 가며 기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경향은 계급 투쟁의 극적 화폭과 그 중심에 선 투사의 성격을 묘사하는 혁명적 대작의 기본 요구와는 인연이 없다.

또 주인공을 혁명 투쟁의 력사적 흐름 속에서 묘사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그가 활동한 시대의 력사적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빠짐 없이 라렬하여 묘사한다는 것으로 리해하여서도 안 된다. 이런 경향은 작품을 전기로 만들기 쉬울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사건들을 반복함으로써 개별적인 것을 통하여 일반적인 것의 전모를 보여 주는 예술의 법칙을 저버리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력사학이 아닌 문학 예술에서는 실재한 력사적 사건의 묘사가 필수적이 아니며 많은 경우에 력사적 사건은 작품의 구상에 따라 그 배경으로 묘사되며 또 작품의 사건으로 직접 인입되는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묘사될 수도 있고 한 측면만 묘사될 수도 있다.

혁명적 대작의 기본 과제는 력사적 사건들을 재현함으로써 인민들에게 과거 우리 인민들의 투쟁 력사를 리해하게 하는 인식적 의의를 실현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 인민들을 혁명가로 키우는 모범으로

서의 투사의 전형을 창조하는 교양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다.

실지에 있어서 우리 인민들의 투쟁 력사를 리해하게 하는 인식적 역할도 교양적 의의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혁명 투사의 성격 장성의 력사와 운명의 로정에서 리탈된 그 어떠한 력사적 사건도 문학 예술 작품의 인식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 투사들의 불요불굴의 혁명적 생애를 보여 주기 위하여 그들의 성격 발전의 력사와 우여곡절이 많은 운명의 극적 로정을 보여 주는 문제를 전형화의 법칙에 의하여 예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수다한 사건들과 사실들을 평면적으로 라렬할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성격과 내면 세계를 심오하게 발현시키며 인간들의 호상 관계와 그들의 운명을 극적으로 심화하여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데 적응한 특징적 사건들만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4

혁명적 대작에서의 중요한 미학적 요구는 그것이 주인공의 성격 발전의 력사로 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사시적 화폭으로 되여야 한다는 데 있다.

혁명적 대작이 서사시적 화폭을 요구하는 내'적 계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혁명 투사가 시대의 선구자이며 낡은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영웅적 인간인 것 만큼 그의 행동의 범위와 활동 무대가 전 사회와 전 시대라는 점이다.

그것은 또한 혁명 투사가 항상 광범한 인민 대중과 련결되여 있으며 인민 대중의 생활과 투쟁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사회적 련계가 무한히 광활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이 적대적 계급과 정면으로 대립되여 복잡하고 중첩되는 사건들과 난관을 인상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혁명적 대작이 서사시적 화폭을 요구하는 내'적 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품에서 각이한 계급들과 계층들을 대표하는 수십 명의 전형들이 묘사된다는 점이다.

이 전형들은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을 대표하는 것 만큼 그 호상 관계는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이들의 호상 관계는 사회 계급적 관계이며 따라서 그 호상 관계들의 총체는 전형적 환경의·중추를 이루면서 한 시대의 주되는 흐름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력사 등 사회의 다방면적 시대상을 보여 준다.

이로부터 혁명적 대작의 서사시적 화폭은 결국 등장 인물들의 사회적 관계를 정치, 경제적으로, 문화, 력사적으로 심도 있게 묘사하는 데서 보다 많이 실현되며 또 되여야 한다.

등장 인물들의 호상 관계를 보통의 상식적 관계 또는 인정 세태적 관계로 맺는 데 치우치거나 원쑤들과의 관계를 심오한 갈등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돌하는 외형적 관계에만 귀착시킨다면 그런 작품은 혁명적 대작으로서의 사상적 풍격과 높은 작품 세계를 도저히 갖출 수 없다.

혁명적 대작에서의 서사시적 화폭의 이러한 요구는 시대상에 대한 폭 넓은 묘사에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서사시적 화폭의 본질적 의의는 혁명 투사의 전형과 기타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의 전형들의 사회 계급적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고 갈등을 예리하게 함으로써 첨예한 시대적 문제성을 띤 대작의 거대한 사상과 주제를 해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것은 또한 혁명 투사의 전형을 당대의 력사적 주류를 이끌고 나가는 높은 시대적 전형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만약 서사시적 화폭을 묘사하는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주인공이 생활의 파란을 겪는 행정과 그가 목격한 사실들을 이것 저것 보여 주거나 시대와 사회의 이모 저모를 평면적으로 묘사한

다면 작품은 집중성을 잃고 주제와 사상이 모호해진다.

혁명 투사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혁명 투사를 전형적 환경과의 호상 관계 속에서 외부적 투쟁 면모와 내면 세계 등 안팎으로, 다면적으로 묘사하며 또 그를 다만 투쟁에 몰두하는 투사로서만이 아니라 정서와 인간성이 풍부한 개성적 인간으로 묘사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에 그의 정서와 인간성은 혁명 투쟁의 측면과 분리된 그 어떤 가정 세태적인 정황 속에서 묘사될 수는 없다. 혁명 투사의 경우에 가정 세태적인 정황도 혁명 투쟁의 정황과 련결되여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다.

혁명 투사의 정서와 인간성은 가정 세태적인 정황 속에서만 발로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간성은 바로 혁명 투쟁 자체 속에서, 적을 증오하고 동지들과 인민을 사랑하는 혁명적 정열 속에서 발로된다. 또 적들과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체험하는 비장하고 울분에 찬 감정, 역경에 부닥칠수록 오히려 투쟁의 열정에 불타는 혁명적 랑만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락관주의 정신의 강렬한 표현 속에서, 주인공의 운명의 극성 속에서 혁명적 서정은 웅심 깊이 흘러 나온다. 이런 혁명적 서정이 결여되는 때 혁명 투사는 감정이 메마르고 무뚝뚝하며 인간성이 없는 무미건조한 인간으로 밖에 될 수 없다.

혁명 투사의 전형과 그와 관련된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사회 계급적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작가, 예술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생애를 혁명에 바친 투사들의 생활과 사상 감정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체득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술 작품이란 작가, 예술인들의 정신적 소산물인 만큼 그들 자신이 혁명 투사의 정신적 높이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 투사의 정신적 높이에 이르러야만 그들의 혁명적 정열과 풍부한 내면 세계를 체험할 수 있으며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전형들에 대하여 심오한 평가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높은 관점에 올라 설 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 문학 예술 창작이 우리 인민을 혁명화하며 남반부 인민들을 혁명에 고무하는 우리 당 사상 사업에서 가지는 의의가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 더욱 깊이 인식하고 사상 예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혁명적 작품을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자신부터 우선 혁명화하며 자기 창작 생활에서 혁명적 창작 기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근 로 자 제 20 호 (루계 282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10월 17일 발 행 • 1965년 10월 20일

ㄱ—530575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1 호 11 월 5 일

평양 근로자사 1965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21 호 (283)

1965년 11월 (상)

(반 월 간)

차 례

우리 당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로정과 우리의 임무

우리 당 창건 20 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는 조선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40 년에 걸친 로정, 우리 당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길을 총화하고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제반 과업을 명시한 력사적 문헌이다.

보고에서는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전 력사가 과학적으로 개괄되였으며 우리 당 건설 및 혁명 수행 과정에서 이룩된 위대한 업적과 경험, 교훈들이 분석되였으며 조선 혁명 발전 도상에서 오늘 우리 세대가 처한 위치와 그 임무가 명시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보고는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을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와 우리 당 활동의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시키며 우리들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더욱 깊이 체득시키고 당원으로서의 높은 자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북돋아 주는 강령적이며 고무적인 문헌이다.

이 문헌을 심오히 연구하고 그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서 구현하는 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의 고상한 의무이다.

보고에 대한 연구는 우리 당 력사에 대한 학습으로 되는 동시에 반드시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학습으로 되여야 하며 당의 사상과 의도로 무장하는 학습으로 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보고의 내용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리해하는 동시에 그에 담겨져 있는 기본 사상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고의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 사상의 하나는 계속 혁명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사상이다.

보고에서는 조선 공산주의 운동, 조선 혁명의 전 과정이 계속 혁명의 견지에서 총화되였으며 오늘 우리가 처한 위치와 력사적인 임무도 계속 혁명의 립장에서 규정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활동의 시초부터 철저하게 계속 혁명의 립장에서 있었다. 당이 파괴되고 해산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30 년대 투사들은 공산주의 운동과 민족 해방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그들의 종국적 목표는 조국을 공산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는 데 있었다. 그들은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기들의 사업을 앞으로 조국이 해방된 후 혁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력량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이리 하여 해방 전 투쟁은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력량을 축적하는 첫 단계로 되였다.

해방 후 혁명은 해방 전 혁명 운동의

계속이며 발전으로 된다. 해방 전 시기에 준비된 믿음직한 혁명 력량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해방 직후 그 복잡한 환경에서도 곧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할 수 있었으며 일정에 오른 혁명 과업들을 지체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 력량의 압도적 우세를 이룩함으로써 반제 반 봉건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 이행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였으며 두 단계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통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혁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고에서 중요하게 강조된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도 혁명 도상에 있으며 우리가 달성한 모든 승리와 업적들은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력량의 축적에 불과하며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 승리를 위한 북반부 기지를 튼튼히 다져 놓은 데 불과하다.

우리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전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때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의 승리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혁명을 더 전진시키며 새로운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닦은 데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도상에 있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고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많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에 제하여》).

우리는 보고를 연구하면서 조선 혁명을 완수하고 세계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며 전진할 데 대한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온갖 안일성과 해이성을 극복하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또한 해방 전후를 통하여 우리 당 혁명 전통의 폭을 넓힐 데 대한 사상이 중요하게 제기되여 있다.

1930 년대 공산주의 운동은 20 년대 운동의 필연적인 계승 발전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였다. 1930 년대로부터 우리 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은 주로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은 국내 각지에서 전개된 모든 형태의 투쟁에 직접적인 지도와 혁명적 영향을 주면서 반일 민족 해방 운동 전반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킨 중심이였으며 지도적 력량이였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 사상적 기초가 축성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이 이루어졌다. 우리 혁명의 강력한 정치적 및 군사적 력량이 마련되였으며 귀중한 투쟁 업적이 축적되였으며 혁명적 사상과 투쟁 정신의 전통이 이룩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을 비롯한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 전통과 투쟁 경험은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무한히 귀중한 재부이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에 제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비롯한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은 해방 후 20 년 간의 투쟁에서 계승 발전되고 있다.

해방 후 혁명 투쟁은 해방 전 투쟁의

계속 과정이며 30 년대에 형성된 공산주의적 명도 핵심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훨씬 더 심화 발전되고 있다.

이 투쟁 행정에서 혁명의 업적이 무한히 확대되고 투쟁 경험이 더욱더 풍부화되였다. 계급 투쟁과 생산 투쟁의 불'길 속에서 혁명 정신의 전통이 온 나라에서 개화하게 되였으며 대를 이어 갈 혁명 투사들의 대부대가 자라났다. 남조선에서도 30 년대의 혁명 정신을 이어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혁명가의 대오가 확대되여 가고 있다. 이것은 20 년 간의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업적이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후 20 년 간의 남북 조선 인민의 투쟁 행정을 선행 시기에 이룩된 혁명 전통의 계승 발전으로 분석하였으며 혁명 선배들과 함께 이 투쟁에 참가하여 싸운 모든 투사들에게 영예로운 혁명가의 칭호를 부여하였다.

20 년 간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투쟁을, 항일 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한 민족 해방 투쟁의 계승 발전으로 보며 이 투쟁에 참가한 모든 투사들을 혁명가로 보는 당의 견해는 거대한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바로 혁명 발전의 력사에 대한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태도이며 혁명 동지들, 당원들과 군중에 대한 철저한 군중 관점과 공산주의적 신임의 표시이다. 이것은 모든 군중이 다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으며 또 되여야 한다는 혁명적 사상 관점의 명백한 표현이다.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은 이 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혁명가로서의 높은 영예와 자부심을 간직하는 동시에 앞으로 혁명을 계속 끝까지 완수할 데 대한 책임감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혁명가로서의 자질을 더한층 높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에서는 우리 당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얻은 력사적 경험으로 전체 당원들이 철저히 무장할 데 대한 당의 요구가 중요하게 제기되여 있다.

해방 후 20 년 간의 혁명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달성한 모든 성과는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을 반대하며 당내 기회주의적 조류를 반대하는 두 차례의 결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이룩되였다. **<우리 당의 20 년 간의 력사에서 조국 해방 전쟁이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가장 준엄한 투쟁이였다고 하면 전후의 반 기회주의 투쟁은 공산주의 운동 내부의 적을 반대하는 가장 심각한 투쟁이였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에 제하여>).

우리 당에 있어서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 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은 당 창건 과정에서부터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였으며 특히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와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와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후 시기 당내에서의 사상 투쟁은 주로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 대렬의 통일을 강화하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며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당의 반 종파 투쟁은 반교조주의, 반 수정주의 투쟁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였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

졌었던 종파 분자들은 우리 나라의 현실,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 혁명 전통까지를 다 무시하고 남의 것만 좋다고 하였으며 주체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나섰다. 현대 수정주의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광범히 대두되자 그들은 국제 수정주의 조류를 그대로 받아 들여 우리 당을 수정주의의 길로 이끌려고 시도하였으며 외부 세력을 등에 업고 당 지도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감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항일 무장 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났고 간고한 혁명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영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훌륭히 극복할 수 있었다.

제반 사실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로선과 정책으로써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종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철저하게 주체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것은 우리 당 및 조선 혁명 발전의 력사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 력사적 교훈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고를 학습하면서 이 교훈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여야 하며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항상 그 정신으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라야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혁명의 주인된 립장에서 독자적으로, 창조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승리를 확보할 수 있다.

보고에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혁명적 군중 로선을 관철할 데 대한 사상이 강조되여 있다.

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우리 당은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혁명적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인민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 속에 들어 가 대중을 교양 개조하고 단결시키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군중 로선이다>
(김 일성,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에 제하여>).

우리 당은 일'군들의 군중 관점을 확립하고 당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개선하며 군중의 정치 사상 의식을 높이는 투쟁을 통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켰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 투쟁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하였다.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은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당은 청산리 방법을 일반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 있게 해결하였으며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높이고 군중을 혁명화하는 문제도 훌륭히 해결해 나가고 있다.

우리 당 군중 로선의 관철, 청산리 방법의 일반화는 당의 령도적 역할을

재고하며 혁명 대오를 튼튼히 결속시켜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와 천리마 운동을 더욱 힘 있게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였다.

우리는 보고에서 강조된 당'적 령도와 군중 로선의 본질,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의 진수를 정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그것을 자기 사업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더 많은 군중을 당 주위에 단결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에 그들의 힘과 지혜를 남김 없이 동원하게 될 때 우리는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정신적 및 물질적 력량을 더 잘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보고를 학습하면서 그에 담겨져 있는 기본 사상을 명백히 파악하는 것은 우리 당 령도의 현명성을 더 잘 인식하며 당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보고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성과 있게 관철할 수 있는 담보로 된다.

보고에서는 우리 당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로정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들이 제시되여 있다.

《현시기 우리의 당면한 최대의 과업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고 우리의 혁명 기지를 더욱 굳게 다지며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며 국제적 혁명 력량과의 련대성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남조선을 미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해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에 제하여》).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혁명 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경제 기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여야 우리는 모든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을 더욱 힘 있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당면 과업인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 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기술 혁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대안 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관리 운영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이미 창조하여 놓은 재부를 애호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배합하여 진행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확고히 의거하여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 사상적 준비를 갖추고 인민 군대와 로농 적위대를 강화하며 전 인민적 방위 체계를 더욱 철벽 같이 다지는 데 큰 힘을 돌려야 한다.

각급 당 조직들은 전체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김 일성 동지의 보고의 내용과 사상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성과 있게 관철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문헌에 대한 학습을 주도 세밀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은 문헌 학습을 대상의 수준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것이 로론의 방법으로, 실지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어야 한다.

김 일성 동지의 보고에 대한 심오한 연구는 모든 당원들과 간부들로 하여금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정력적으로 일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게 할 것이다.

주체 확립은 과학, 교육 사업 발전의 기본 담보

지 영 순

과학 및 교육 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은 우리 당이 이 분야에서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우리 당은 과학 연구 사업과 교육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으며 여기에서 이 부문 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고리를 찾았다.

과학 및 교육 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과학 기술의 발전을 비상히 촉진시켰으며 교육 및 간부 양성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우선 사회 과학 부문에서 주체를 세운 결과 우리의 학자들은 자기 나라의 력사와 자기 인민의 투쟁 전통을 보다 성과적으로 연구하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리론적으로 개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가져 왔다. 이것은 인민들 속에서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주의를 배양하며 그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자연 과학과 기술 과학 분야에서도 주체를 세운 결과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우리의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기술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대담하게 달라붙게 되였으며 여러 가지 복잡한 현대적 기계 설비들을 만들어 내는 데서 획기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 공업 등을 발전시켰다. 우리 나라에 풍부하게 매장되여 있는 석회석과 무연탄으로 비날론을 생산하는 연구,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연구, 국내 원료에 기초하여 야금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용광로용 철콕스의 제조 및 립철 제강법의 적용 등의 연구 성과들은 당의 주체 사상을 과학 연구 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우리 과학자들의 비상한 창조적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들이다. 특히 경락 연구 집단은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세울 데 대한 당의 방침에 근거하여 우리 선조들이 남겨 놓은 동의학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경락과 산알에 관한 학설을 내놓음으로써 생명 현상의 본질을 심오하게 구명하였으며 현대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교육 사업에서도 주체를 세운 결과 배운 리론과 지식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쓸모 있는 민족 간부들을 성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 당의 주체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된 29만여 명의 새로운 인민적 인테리 부대가 일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달성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이며 과학 및 교육 사업에서의 주체 사상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

우리 당은 오늘 과학 및 교육 사업에서 계속 주체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1 차 전원 회의에서는 과학 연구 사업과 민족 간부 양성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새로운 과업들을 제시하면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확립할 데 대하여 주요하게 강조하였다.

현시기 당이 과학 및 교육 부문 일'군들 앞에 주체 확립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심화 발전되고 있는 우리 혁명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전면적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계속 추진시켜야 할 주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초소마다에서는 새롭게 해결을 기다리는 허다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복잡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데 잘 준비된 인재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 요구를 해결하자면 과학, 교육 사업에서 주체 확립을 위한 투쟁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주체를 철저히 세움으로써만 우리 나라의 원료 원천, 기후, 풍토, 민족적 특성, 문화 전통 등 나라의 구체적인 자연 지리적 조건과 사회 력사적 조건에 적응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인재를 길러 낼 수 있다. 오직 우리의 현실, 우리의 특성에 립각한 과학 기술을 소유하여야만 현실이 제기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혁명에 원만히 이바지할 수 있다.

과학 연구 사업은 원래 창조적인 사업이다.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기 머리로 사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독경주의와 교조주의는 창조적인 과학 활동을 저애하고 마비시킨다. 우리는 과학 및 교육 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조선의 공산주의자로서 확고한 주견과 식견을 가지고 맑스-레닌주의 원리와 자기의 모든 지식을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줄 알며 현실 생활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리론적으로 해명하고 실천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일'군으로 자라날 수 있다.

또한 과학 및 교육 사업에서 주체를 세워야만 인민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감을 북돋아 줄 수 있으며 사대주의와 민족 허무주의를 뿌리 뽑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력사적으로 오랜 동안 존속하여 온 것도 결국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나라가 부강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과학,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남을 따라 잡고 앞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남을 떠받드는 낡은 사상 잔재

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과학 연구 사업과 교육 사업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울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 *

과학 분야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과학 연구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 나라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에 복종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세워야만 과학 부문 일'군들이 자체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과 자체의 원료에 튼튼히 의거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에서 긴절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선진 국가들에서 달성한 과학 기술의 성과들을 섭취하여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형편에 적합하게 도입할 수 있다. 이리 하여 우리 과학이 혁명 실천에 실제적으로 복무할 수 있다.

혁명 실천이 제기하는 문제 해결에 과학 연구 사업을 복종시키는 것은 과학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의 과학 연구 사업을 혁명 실천에 복종시킨다는 것은 이 사업이 주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며 기술 혁명을 수행하며 사상 혁명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는 데 힘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과학이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더 잘 복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 있는 자원과 원료를 찾아 내며 부족한 자원을 자체로 해결하며 풍부한 원료와 자원을 다방면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지난 시기에 달성한 귀중한 연구 성과들에 기초하여 자립적인 야금 공업 체계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급속히 추진하며 또 자체 원료에 기초하여 화학 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의 과학은 나라의 기술 혁명을 수행하는 데서 제기되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심 문제로 되는 것은 기계화, 자동화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창안하여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촉진시켜야 할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기계화, 자동화 및 종합적 자동화를 실현하는 도상에는 허다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최신 과학 부문의 성과를 생산 공정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 사업, 기계 공학 연구 사업, 기초 과학 연구 사업 등을 강화하여야 할 절박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자연 및 기술 과학 앞에 나서고 있는 이 과업들은 우리 강토의 은금보화로써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의 터전을 닦는 영광스러운 과업이며 어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 혁명을 믿음직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적, 기술적 기초를 꾸리는 영예로운 혁명 과업이다.

우리의 과학은 사상 혁명과 문화 혁명 수행에서 우리 당의 위력한 무기로 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회 과학 부문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사회 과학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의 력사와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계속 꾸준히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적용하여 창조적으로 해결한 중요한 리론 실천적 문제들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을 리론적으로 잘 해명하여야 한다. 사회 과학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된 업적과 귀중한 경험들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리론적으로 깊이 해명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문제들, 앞으로 개척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대담하게 연구하는 동시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고 이와 배치되는 일체 편향들을 반대하는 사상 리론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조선 혁명이 남북에서 각이한 발전 단계에 처하여 있는 우리의 특성과 관련하여 사회 과학은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데 힘을 경주할 뿐 아니라 남반부 인민들의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 수행에도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남조선 사회를 모든 면에서 깊이 연구하고 통일 후 남조선 건설의 과학적 방도를 탐구하여야 한다.

과학을 혁명 실천에 더 잘 복무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우리의 과학 문화 유산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력사적으로 계승되는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의 과학은 과거를 계승하며 유산을 섭취하는 기초 우에서만 성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인민은 장구한 력사적 기간에 걸쳐 풍부한 과학 문화 유산을 남겼다. 이 유산은 우리 선조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것으로서 거기에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응한 고유한 경험이 일반화되여 있으며 우리 인민의 창조적 지혜의 축적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이 유산들을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서 비판적으로 깊이 연구 분석함으로써 그 성과와 경험을 오늘의 혁명 실천에 적용하여야 하며 또 그 경험을 현대 과학의 방법과 결합시킴으로써 현실적 문제들을 보다 빨리, 보다 훌륭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인민의 력사와 혁명 전통을 전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인민들을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며 모든 사업을 력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인민의 생활 감정과 정서에 맞게 해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의의가 크다.

나라의 혁명 실천이 제기하는 과학 리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인류가 달성한 선진 과학 기술의 최신 성과를 섭취하고 그것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 연구 분야에서 외국의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관문주의적 태도는 우리 당 주체 사상과는 인연이 없다. 전면적 기술 혁명의 단계에 들어 선 우리의 현실은 보다 새롭고 보다 높은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련이어 제기하고 있으며 과학 발전의 최신 성과를 부단히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의 새로운 과학 기술적 성과들을 광범히 섭취하고 소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과학을

더 잘 복무시킬 수 있는 길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어떠한 립장에서 외국의 것을 배우는가 하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혁명 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선진 과학 기술 성과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섭취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함에 있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전망적 의의를 가지는 과학 부문을 발전시키며 기술 공학과 기초 과학을 정확히 배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명 실천과 유리된 순수 리론만을 연구하거나 장래의 리익만 생각하면서 현실적 문제를 등한히 하거나 또는 당면한 수요만 생각하면서 전망을 고려하지 않는 것 등은 우리 당의 주체 사상과는 인연이 없다. 과학 일'군들은 현실적 문제 해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우리 나라를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고 최신 과학 기술의 성과를 인민 경제에 광범히 도입하며 중요한 기초 과학 부문들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경험은 과학 일'군들 속에서 주체가 확고히 섰을 때만 세인을 놀래는 과학적 발전을 할 수 있고 조국과 혁명에 크게 기여하는 과학적 업적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었다.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자력 갱생의 원칙을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가져야만 과학 연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 앞에 제기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과학 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우리의 혁명 실천이 요구하는 모든 부문 즉 원자력, 전자 공학을 비롯한 최신 과학 부문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술 공학과 자연 과학 부문, 기초 과학 부문, 사회 과학 부문에 이르는 모든 과학 부문에서 과학자 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하며 그들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　　　*

조선 혁명 수행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하여서는 교육 사업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교육 사업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교육 원리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교육에서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특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우리 혁명과 건설에 실제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특성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가르치는 내용을 주체가 선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교육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데서 기본을 이룬다. 쓸모 있는 인재를 길러 낼 수 있게 가르치자면 가르치는 내용에서 우선 일반 지식, 일반 리론, 일반 원리를 우리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켜야 한다. 가르치는 데서 일반적인 것과 현

실적인 것을 결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리론과 원리, 외국의 경험과 자료를 소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의 경험이나 자료가 현재 우리 실정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을 교수 내용에서 덮어 놓고 제거하여 버리는 것과 같은 실무적 처리만으로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외국의 경험 속에 담겨져 있는 성과를 우리 조건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일반 원리를 설명하는 데서 외국 실례를 든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일반론과 조선 현실을 결합함에 있어서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자체의 실정, 우리 나라의 현실을 깊이 연구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자연 부원에 있어서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공업이나 농업은 우리 나라의 현실적 특성에 맞게 부문별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매개 인민 경제 부문은 자체의 경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은 부문별 생산 구조의 특성 뿐 아니라 지대에 따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체의 것, 자체의 특성에 대하여 파고 들어서 깊이 있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과 인민 경제 해당 부문의 현실 자료를 수집, 정리 체계화하여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위한 당의 방침을 관철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교수 내용을 부단히 개선 풍부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미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게 해결된 수 많은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교수 내용에 반영시켜야 한다.

교수에서 일반론과 조선 현실을 정확히 결합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학과목에서 자체의 것을 위주로 취급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인민의 유구한 애국 전통, 문화 전통과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폭 넓게 배워 주어야 하며 당 정책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모든 지식을 조선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또 그들이 우리 인민의 업적과 우리 자체의 경험을 잘 알고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에 참가할 수 있다.

교육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교수와 교양을 결합시킬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고수하며 사상 교양 사업을 첫 자리에 놓는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을 가르칠 뿐 아니라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로동 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야 하며; 학교가 과학 기술 교육의 거점으로 되기 전에 우선 우리 당 정책을 선전하고 공산주의 교양을 진행하는 혁명가 양성의 거점으로 되여야 한다.

끝으로 인재 양성에서 중요한 것은 교수 내용에서 리론 교육과 로동 실천을 결합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하는 문명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인간은 오직 교육과 생산 로동의 밀접한 결합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 교육과 로동이 결부됨으로써

학생들은 실천 활동을 통하여 현대 과학 기술을 깊이 체득할 수 있고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 그리고 체력이 조화롭게 발전된 인간으로 될 수 있다.

일찌기 맑스는 《…**사회적 생산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을 생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일정한 년령 이상의 모든 아동을 위하여 생산적 로동과 교육 및 체육과를 결합시키는**》(맑스 《자본론》 제 1 권 2 분책, 153 페지) 교육 제도를 리상으로 그렸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맑스-레닌주의 교육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교육과 생산 로동을 결합시키는 구체적 형태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창조하였다. 우리 일'군들은 수립된 교육 형태의 우월성을 리용하면서 교육과 생산 로동을 더 실속 있게 또 실정에 맞게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쟁만이 새 교육 형태들의 우월성을 계속 발양시키면서 우리의 후대들을 혁명에 원만히 준비된 역군으로 키울 수 있게 할 것이다.

* *

과학 및 교육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학 및 교육 부문 일'군들이 당의 주체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특히 과학 부문 일'군들이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정책을 모르면 자기의 과학 연구 사업이 현실이 요구하는 절실한 것인지 아닌지 똑똑히 알 수 없으며 긴절하게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다. 교원들도 당 정책을 모르고서는 당에 충실한 인재를 길러 낼 수 없으며 당이 제시하는 과업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 낼 수 없다.

우리의 과학 연구 사업과 교육 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자면 혁명적 사상과 함께 높은 과학 지식과 기술을 구비하여야 한다. 높은 과학 기술적 자질이 안받침됨이 없이는 주체를 세울 수 없다. 자질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옳은 방법론을 확립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상적 립장, 당 정책적 안목, 실무적 자질, 방법론적 준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준비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주체 확립을 위한 사업은 꾸준한 투쟁과 노력을 요구하며 일상 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1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영예로운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과학, 교육 부문 일'군들은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움으로써 자기 앞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에서의 로동 행정 사업

전 대 영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문제는 현시기 농촌에서 날로 앙양되고 있는 농민 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로력적 열성을 농업 생산 행정에 계속 확고히 구현함으로써 이 부문 앞에 나선 7개년 계획의 방대하고 보람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심 고리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의 하나인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에 접근시킬 데 대한 문제 해결에서도 현실적인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일'군들이 사회주의 농업 기업 관리에서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우리 나라에서 이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객관적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당의 농촌 로동 행정 사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로 된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은 농업 기업 관리에서의 중심 문제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은 사회주의 농업 기업 관리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 농업 기업 관리의 중요한 사명은 토지와 농기계 등 농업의 기본 생산 수단들과 산 로동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고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적은 밑천을 들이고도 최대한의 농업 생산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다. 이것은 농업 기업 관리에서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과학적인 영농 체계를 확립하고 동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제반 물질 기술적 보장 조건들을 원만히 갖추어 줌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은 어느 경우에나 다 일'군들의 로동을 거쳐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농민 대중이 공동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주인답게,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은 바로 농업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농민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잘 하는 것은 그들의 로력적 열성과 창발성을 높여 농업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며 사회주의 농업 기업 관리를 성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 작업 정량의 정확한 설정과 로동의 합리적 조직, 로동에 대한 옳은 평가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철저한 실시,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와 로동 규률의 강화 등 로동 행정 사업의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생산 과정에서 농민들의 리해와 관련되는 사업이며 그들의 생산 열의를 높이는 데 직접

영향을 준다.

물론 사회주의 농업 제도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착취와 빈궁의 근원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였으며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한가정으로 굳게 단합된 농장원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조적인 적극성에 의하여 경리가 운영되며 로동이 조직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농업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우월성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주의 하에서 협동 농민들은 아직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낡은 사회의 유물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 못 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로동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남아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성과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농민 대중의 로력적 열성과 창의 창발성을 부단히 불러 일으키자면 그들로 하여금 높은 정치적 열의를 가지고 혁명 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정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물질적 관심을 옳게 배합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따라 세워야 한다.

원래 로동 행정 사업은 사회주의 경제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기업 관리 운영에서 중심 문제로 되며 농촌 경리의 경우에 그것은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사업으로 된다. 이것은 우선 농촌의 지배적인 경리 형태인 협동 경리 자체의 고유한 특성과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의 대상인 농민들 자체의 사회 경제적 처지와 관련되여 있다.

협동 농장들은 자연 조건과 경제 발전 수준에서 서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국영 경리에 비하여 사회화 수준도 낮고 경리 운영 방법도 뒤떨어져 있다. 협동 경리의 사회화 수준과 농업 생산의 특성은 농촌 로동 행정 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물질적 자극의 공간 리용에서 또한 일련의 특성을 낳게 한다. 즉 협동 경리에서는 로동에 대한 평가와 분배가 로력일에 따라 진행되며 그 가치는 년말에 가서 로력일의 실제적 무게를 통해서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농업에서의 물질적 자극의 공간 리용은 공업의 그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과거 수천 년을 두고 자그마한 땅뙈기에 얽매여 서로 제가끔 헤여져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이후에도 낡은 사회에서 형성되였던 소농적인 심리와 생활 습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 나지 못 하며 그들의 의식 속에는 낡은 소소유자적 근성이 오랜 기간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데로부터 농민들 속에서 사회와 공동 경리를 위한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로동 규범과 로동 규률을 확립하는 사업은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어렵고 중요한 사업으로 되는 것은 또한 농업 생산 자체가 자연 조건에 크게 의존되여 있다는 데 기인한다.

농업에서는 공업에서와 같이 매개 사람들의 작업 장소가 일정하게 고정되여 있지 않으며 로동 기간과 생산 기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농업 생산 행정은 동식물을 다루는 과정이며 그것은 한 사람의 손에서 끝까지 완성되지 못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부터 농업 로동 조직에서는 시기성과 기동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그 어느 부문보다도 중요하게 제기된다. 실로 농업 생산 과정에서는 일'군들이 시기를 한 번 놓치거

나 작업 대상을 한 번 잘못 다루어도 뒤늦게는 회복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으로 하여 사회주의 농업 기업 관리와 농업 생산의 성과는 농사'일의 주인이며 농업 생산의 결정적 력량인 농민들 자신이 공동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고도로 되는 자각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치밀히 짜고 드는 데 크게 달리게 된다.

발전하는 농촌의 현실은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완성할 것을 요구한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은 발전하는 현실에 부합되게 부단히 개선되며 완성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정확한 농업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는 오늘 농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날로 더욱더 유리한 국면들이 조성되고 있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최근 년간 농촌에는 농업 생산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소유의 현대적인 물질 기술적 수단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 가고 있으며 협동 농장 자체의 고정 생산 수단들도 급속히 늘어 나고 있다. 우리의 농촌에서는 발전된 관개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경지 100 정보 당 1 대에 해당하는 2만 대(15 마력으로 환산)의 뜨락또르와 기타 수 많은 농기계 및 자동차들이 전야 작업에 참가하고 있고 화학화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농촌에서 기술 혁명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생산 공정은 현대적 기술 공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농촌에 대한 전 당'적, 전 국가적, 전 인민적 로력 지원 사업을 진행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농촌에는 또한 도시의 수 많은 핵심 로력자 대렬이 해마다 진출하고 있다.

농촌에서 사상 혁명,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이 촉진됨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진지는 정치 경제적으로 공고화되고 있으며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과 기술 문화 수준은 이전과는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 농촌에 조성되고 있는 이러한 새 환경과 조건은 농촌 로동 행정 사업 분야 앞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농촌 로동 행정 사업 전반을 급격히 변천하는 현실에 맞게 더욱더 빈틈 없이 짜고 드는 것이며 이 사업을 엄격히 타산된 과학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사실 상 우리 나라 농촌의 오늘의 조건에서는 과거 수공업적 방법으로 농사를 짓던 때나 협동화 운동이 완성되던 당시의 로동 행정 사업 방법으로는 더는 농민들의 로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없으며 그들의 생산 열의를 제고시킬 수 없다. 날로 더욱 기술 공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농업 생산 행정과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농민 대중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에 상응하게 농촌 로동 행정 사업 전반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의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 때 농촌에서 급속히 늘어 가고 있는 현대적인 물질 기술적 수단들과 산 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고 능률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백방으로 높여 이 부문 앞에 제기된 7 개년 계획의 방대하고 보람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시기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방향과 방도는 우리 당에 의하여 이미 명백히 제시되여 있다.

우리 당은 농촌에 조성되고 있는 새 환경에 맞게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포함한 농업 관리 전반을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제때에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를 창설하는 한편 벌써 오래 전부터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고 농업 로동력의 질적 구성을 개선할 데 대한 방침과 방도를 제시하였으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당은 특히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농촌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모든 사업을 협동 농장의 기본 과업인 농사'일에 집중하고 로력의 랑비 현상을 근절하며, 작업 정량을 옳게 정하고 누구나 없이 일한 것만큼, 번 것 만큼 분배 받도록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실시할 데 대하여 시종일관 중요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이에 있어서 1960년 2월에 있은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청산리 교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산리 교시가 있은 이후 우리 나라 농촌의 모든 협동 농장들에서는 농촌에 조성된 새 환경에 맞게 전반적인 경제 사업 특히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는 투쟁에 달라붙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실로 청산리 교시는 사회주의가 승리한 농촌에서 경제 관리 운영의 전반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이 교시는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도 계속 우리의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

현시기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또한 명시되여 있다.

테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 방향은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에 부단히 접근시키는 것이다.

농업 협동 경리는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경리이며 그것은 현대적 기술로 급속히 장비되고 있다. 농업의 경영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 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접근하여 가는 만큼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방법도 응당 공업의 기업 관리 방법에 더욱더 접근시켜야 한다》.

테제에서 제시된 이 교시는 우리들에게 현시기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의 기본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백한 답변을 주고 있다.

그것은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농업의 기업적인 지도에 상응하게 더욱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로동의 조직으로부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실시에 이르기까지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의 제반 측면을 점차 공업의 선진적인 로동 행정 사업 방법에 접근시키는 것이다. 이를 테면 그것은 작업 정량 제정 사업을 엄격한 과학적 타산에 기초하여 진행하고 보다 능률적인 로동 조직 형태들을 도입하며 로동과 휴식을 효과적으로 배합하고 생산물의 분배도 반드시 지출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우리는 농촌 로동 행정 사업 분야 앞에 제기되는 이러한 모든 요구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짧은 시일 내에 이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당의 농촌 로동 행정 사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농촌 로동 행정 사업 분야 앞에 제시되고 있는 우리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전 당'적, 전 사회적인 관심 하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의 농촌 로동 행정 사업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농업 부문 일'군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며 모든 당원들과 인'군들이 다같이 관심을 돌려야 할 사업 대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제시된 과업 실현의 중요한 일환이며 또한 농촌 로력 문제가 잘 풀려야 인민 경제의 전반적인 로력 사정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 경리 부문의 일'군들은 물론 모든 일'군들이 당의 농촌 로동 행정 사업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회주의 농업 기업 관리 특히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머리를 쓸 때 이 분야에서는 보다 큰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이 오늘 중요한 관심을 두어야 할 문제의 하나는 농촌에서 로동 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로동과 휴식, 학습 문제를 더 잘 해결하며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로동 조직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로동 조직은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의 모든 내용들 중에서도 농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직접 관련되여 있는 측면이다. 그러므로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의 이 측면을 개선하는 것은 현시기 농촌에서 심화되고 있는 정치 사업에 보조를 맞추어 농사'일에서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높일 뿐 아니라 농민들에게 학습과 휴식 시간을 더 많이 보장하면서도 농업 로동의 생산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최근 년간 전국 각지의 많은 협동 농장들에서 로동 조직을 합리화하여 바쁜 농사철에도 로동과 휴식을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농민들에게 충분한 학습 시간을 보장하면서 전보다 농사를 더 잘 짓고 있는 사실은 이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농촌 경리에서 로동 조직을 개선하는 것은 또한 농업의 기본 생산 수단인 로지와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농촌 로력의 류동과 랑비를 방지하고 모든 힘을 농사'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농업 부문에서의 로동 조직은 로동에 대한 평가 방법과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농업 로동 조직을 개선하자면 그에 상응하게 로동에 대한 평가 방법도 개선하여야 하며 로동에 대한 평가 방법에서의 변화는 로동 조직에서의 해당한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농촌 로동 행정 사업 실천에서 로동 조직과 로동에 대한 평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 두 측면의 개선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 부문에서의 로동 조직과 로동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농업 로동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며 그에 기초하여 농업 생산에서 농민들의 열성과 책임성을 백방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업 로동 조직과 로동에 대한 평가 방법이 이렇게 되자면 농업 생산물이 이루어지는 전 기간을 통하여 농민들이 될수록 일정한 작업 장소에 고착되여 일할 수 있도록 로동 조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로동에 대한 평가 방법도 년말에 가서 실제 생산된 생산물의 최종 결과와 보다 밀접히 결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농업 로동 조직에서 산만성을

극복하고 그로부터 오는 로력의 랑비를 없앨 수 있게 하며 특히는 농민들이 년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지에 고착되여 일하게 함으로써 로지의 비옥도와 로양의 성질에 정통하고 그에 맞게 농사를 지으며 모든 작업을 더욱 책임적으로, 실속 있게 보장하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로동에 대한 평가를 생산된 생산물의 최종 결과와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지출된 로동의 량적 측면과 함께 질적 측면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하며 생산 결과에 대한 농민들의 책임성과 물질적 관심을 높이는 데서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협동 농장들에서 로동 조직은 기본적으로 작업반을 단위로 진행되고 거기에는 일정한 면적의 로지와 부림소, 농기구 등 생산 수단들이 고착되여 있으며 작업반 우대제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농업 로동 조직과 로동에 대한 평가에서 이러한 요구들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협동 농장 작업반들에서의 내부 로동 조직 형태를 심화 발전시키며 로동에 대한 평가 방법을 더욱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최근 우리 나라 각지의 여러 협동 농장들에서 도입되고 있는 분조를 단위로 하는 년간 도급제는 우리의 주목을 끄는 가치 있는 경험이다.

자강도 우시군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협동 농장들에서는 금년에 자기 지대의 특성에 맞게 농민들의 로동과 생활에 편리하며 봄갈이로부터 가을걷이까지의 모든 농사'일을 자립적으로 제 철에 해 나갈 수 있도록 분조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분조 단위 년간 도급제를 실시함으로써 그전에 비하여 농업 로동의 생산 능률을 훨씬 더 높이고 있으며 모든 영농 사업을 더욱 원만히 보장해 나가고 있다.

협동 농장들에서 분조를 단위로 하는 도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협동 농장의 매 분조마다에 로력을 년중 고착시키고 로지, 부림소, 농기구 등도 균형적으로 나누어 주어 고정적으로 다루게 하면서 분조에 맡겨진 생산 책임량과 자급 비료 생산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로력일은 년말에 가서 분조 성원들이 실제 생산한 생산물의 최종 결과에 직접 의거하여 확정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로동 조직 형태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협동 농장들에서 농장원 대중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여 모든 농사'일을 제때에 실속 있게 수행하고 농업 생산 예비를 백방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며,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생산의 말단 단위에서 영농 사업 조직과 로동에 대한 평가, 생산물의 분배 등 농장 살림살이의 중요한 측면들을 농민 대중의 광범한 집체적 지혜와 의사에 보다 철저히 의거하여 정확히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은 농민들의 로동과 생활에 편리하게 농업 로동 조직을 실현함으로써 농촌에서의 로동 시간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리용하며 농촌 정치 교양 사업에서의 5호 담당제를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현시기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등급 별 작업 정량을 과학적으로 작성하며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다. 등급 별 작업 정량의 옳은 설정은 협동 경리에서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절약적으로 리용하며 농민 대중의 생산 열의를 높이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더우기 협동 농장들의 경리 규모가 커지고 작업 종류가 다양하여지고 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아주 절실한 문제이다. 농업 지도 기관들에서는 등급 별 표준 작업 정량을 과학적으로 잘 타산하여 세우는 데 큰 주목을 돌리며 협동 농장들에서는 그것을 매개 농장원들의 능력과 체질, 취미와 성격 등을 참작하여, 또한 매시기 제기되는 구체적인 작업 조건에 알맞게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하자면 이 밖에도 물론 적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협동 농장들에서 매시기 제기되는 농장의 영농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년간 로력 투하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며, 로력 관리 질서와 로동 규률을 엄격히 확립하고 지역 간, 협동 농장 간의 로력의 류동을 방지하며, 농장원들의 로동 보호 사업에 관심을 돌리는 것 등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들로 된다. 특히 지방 정권 기관들과 협동 농장들에서 녀성 농장원들의 가정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로동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며 편의 봉사 후생 시설을 잘 갖추고 후방 공급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능력껏 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세심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성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이후 시기 거의 새롭게 제기되는 사업이며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사업 분야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승리한 농촌에서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며 완성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명백히 인식하고 사회주의 농업 기업 관리에 관한 지식을 폭 넓고 깊이 있게 연구하며 실천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물 평가제의 본질과 우월성

김　　성　　태

인민 경제의 기본 단위인 기업소와 그 내부 생산 단위들을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건설에서의 현물 평가제는 건설 기업소와 그 내부 생산 단위들에서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케 하는 중요 공간이다.

현물 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평양 동구 지구 종합 주택 건설 사업소를 비롯한 많은 도시 및 농촌 건설 기업소들에서의 경험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오늘 현물 평가제를 연구하고 그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리해하는 것은 계속 그것을 산업 건설을 포함한 모든 건설 기업소들에 도입 일반화하고 건설에서 집중화, 정상화의 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물 평가제의 본질

경제 관리의 형식과 방법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경제 관리의 방법은 생산력의 발전, 간부들의 준비 상태, 대중의 사상 의식 정도와 문화 기술 수준 및 제기된 과업들에 의하여 부단히 변화 발전된다.

7 개년 계획의 지난 4 년 간 우리 당의 정확한 건설 정책에 의하여 기본 건설은 크게 발전하였다.

기본 건설의 규모는 방대해졌으며 건설 공사는 해마다 확장되였다. 1964년에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은 1960년에 비하여 실로 1.3 배 이상에 달하였으며 건설 조립 공사는 그보다 더 많이 증가되였다.

건설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였고 건설 일'군들이 자라났으며 로동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 생활 수준의 향상과 관련하여 건설 생산물의 기술 경제적 내용이 복잡해졌으며 매 건설 기업소들이 관할하는 사업의 범위가 전례 없이 확장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본 건설을 더 빨리, 더 좋게, 더 값싸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관리 방법을 가일층 완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였다.

건설 부문에 조성된 오늘의 구체적인

조건에서 중앙 집권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계속 견지하며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게 하는 선진적인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은 건설 공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되였다.

우리 당은 이러한 성숙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 중요 방도의 하나로서 현물 평가제를 실시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건설에서의 현물 평가제, 이것은 로동자들의 개인적 복리의 증가를 관리의 개선 및 기업소 건설 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생산 발전에 대한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제고하여 기업소 내 생산 단위들과 로동자들을 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시키며 생산 활동에서 창조적 열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새로운 방법이다.

즉 이것은 건설 기업소로 하여금 현물 계획을 세우고 현물에 의하여 계획 수행을 평가케 하며 수행된 작업의 현물량과 질에 따르는 정확한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건설 사업을 정상화하고 건설물의 질과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현물 평가제는 생산 과정에서 지출된 로동의 평가와 분배에 관한 문제이며 기업소와 로동자들 간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건설에서의 현물 평가제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일반 원칙을 건설에서 훌륭히 구현한 것이다.

현물 평가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근본 원칙인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관철하고 건설 기업소 내 직장 또는 작업반들의 경리 운영 상의 자립성을 제고하며 독립 채산제의 기본 조건으로 되는 물질적 책임제 및 물질적 관심성을 강화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첫째로, 현물 평가제의 도입은 건설 기업소 관리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의 관철과 그 가일층의 개선을 위한 우리 당의 중요한 조치로 된다.

현물 평가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건설 기업소의 생산 활동을 물질적으로 강력히 통제하여 상급의 의도가 현장에 잘 침투되게 하며 건설에서의 계획적 지도가 더 강화되게 하는 데 있다.

현물 평가제에서 중앙 집권적 지도의 강화는 기업소가 그 내부 생산 단위들인 직장, 작업반에 주는 기업소 내부 계획이 현물 계획으로 되고 건설 기업소와 로동자들의 생산 성과를 그가 수행한 현물의 질과 량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건설 과제 수행에서 엄격한 계획 규률을 확립하게 되는 데서 표현된다. 또한 그것은 계획의 작성, 생산 조직, 사업의 평가, 채산 및 분배 등을 대상별로 진행하게 되며 모든 력량을 이미 착공한 건설의 완공을 위하여 집중하게 되는 데서도 표현된다.

이와 동시에 현물 평가제는 생산자들이 건설 기간, 건설 기자재 및 그 소요량, 건선의 기술적 제 조건 등 건설의 모든 면모를 명백히 반영한 생산 과제를 받게 되고 또 생산 활동에서 기업소 내부 고리들이 경리 운영 상의 자립성을 보장 받는 것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가일층 발양시킨다.

둘째로, 현물 평가제의 도입은 기업소 내부 고리들에서 독립 채산제의 기본

조건의 하나인 물질적 책임성의 원칙을 강화하는 중요한 대책으로 된다.

물질적 책임성의 원칙은 주로 기업소와 국가 간의, 각이한 기업소들 간의 호상 관계를 반영한 것이였다.

현물 평가제의 특징의 하나는 이 원칙을 기업소 내의 생산 단위들 호상간에도 적용하고 그 구현 범위를 확대시킨 거기에 있다.

현물 평가제에서 물질적 책임성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그 내부 고리들이 맡겨진 건설물을 생산하고 그 질을 보장하며 원가를 낮추고 리익금을 수득하는 과제의 수행을 기업소 앞에 책임지는 데서 표현된다.

즉 현물 평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소 내부 생산 단위들은 필요한 원자재를 받아 가지고 제정된 기간 내에 부과된 건설물을 생산 보장하면서 리익금을 얻을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은 현물 평가제에서는 기업소 내부 고리들이 생산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물 평가제에서 물질적 책임성은 또한 그 실시 단위들이 오직 계약을 통하여서만 경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데서도 표현된다.

현물 평가제에서는 기업소 내 신용 수단인 내부 한도 증표에 의하여 결재된 조건 하에서만 모든 물자의 순환이 진행되며 또 내부 임대 계약에 기초하여서만 일체 건설 기계의 리용이 보장된다.

이와 같이 현물 평가제 단위들은 건설 과제 수행에서 기업소 앞에만 아니라 기업소 내 집단들 호상간에도 물질적으로 책임을 진다.

세째로, 현물 평가제의 도입은 건설 기업소에서의 분배를 온갖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부과된 건설 과제의 완수와 초과 완수에 대한 기업소 내부 집단과 그 성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로 된다.

현물 평가제는 건설 생산물의 완공, 경제의 합리적인 운영 및 기업소 내부 단위의 수익성 보장 등에 대한 그 집단과 성원들의 물질적 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현물 평가제에서 물질적 관심성은 우선 기업소의 직장이나 작업반이 기업소 내에서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 한도 증표를 받는 데서, 기업 운영에서 그 집단이 수득한 리익금을 전부 자기의 성원들에게 상금으로 분배하는 데서 발현된다.

또한 그것은 종래와는 달리 현물 평가제 단위가 기업 운영에서 번 리익금을 자기 성원들에게 직접 분배하며 또 상금을 경제 활동의 총결과에 대하여 적용하는 데서도 표현된다.

이 모든 것은 현물 평가제가 건설에서 《일한 것 만큼 번 것 만큼》 분배해 주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위력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건설에서의 현물 평가제는 물론 기업소 내부 채산제와는 다른 것이다.

우선 기업소 내부 채산제에서는 그 실시 단위가 경리 운영 상의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현물 평가제에서는 단순한 형태이기는 하나 자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내부 채산제에서는 기업소 독립 채산제의 개별적인 요소가

적용될 뿐이지만 현물 평가제에서는 그 모든 요소들이 적용된다.

건설에서의 현물 평가제는 생산 기술적 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리 운영 상에서의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소의 직장이나 작업반에 적용된 독립 채산제이다.

끝으로 현물 평가제의 도입은 건설에서 현물 표시 지표들을 기본으로 하는 계산 및 통계 체계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대책으로 된다.

그것은 기업소에서 사업의 평가 기준 및 분배 척도가 현물 실적으로 교체된 데서 잘 표현되며 또 현물 평가제의 도입이 건설 전반에서 현물 계획화 체계의 수립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는 데서 발현된다.

이와 같이 현물 평가제의 도입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 운영의 일반 원칙을 건설 관리에 가일층 빛나게 구현케 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당이 창조한 현물 평가제는 건설 공업이라는 특수한 인민 경제 부문에서 특히 오늘 이 부문에 조성된 구체적인 조건에서 건설 기업소의 관리 방법을 가일층 완성한 것이다.

현물 평가제에 근거한 건설 관리는 계획화로부터 분배에 이르는 관리의 전 행정에서 기업소와 그 내부 생산 단위들 및 로동자들의 역할과 그들 호상간의 련계에 관한 문제, 건설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인입하는 형태와 방법에 관한 문제, 생산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과 분배 척도에 관한 문제를 건설 부문에 조성된 현실적 조건에 적응하게 전면적으로 해결하였다.

현물 평가제는 건설 기업소 관리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그 내용을 더 풍부히 하였다.

건설에서의 현물 평가제는 또한 사회주의 경제 관리 운영의 가장 우월한 방법인 대안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가아래를 도와 주며 현장과 기대 앞에까지 자재를 날라다 주며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에 의하여 대중이 관리에 전면적으로 참가하게 된 조건에서만 비로소 하나의 관리 형식으로 출현하게 되였고 또 그것이 강화됨으로써만 자체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대안 체계는 현물 평가제의 도입을 위한 전제로 되는 동시에 현물 평가제는 대안 체계의 기본 요구를 더 잘 관철케 하는 중요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현물 평가제는 대안 체계의 본질적 측면인 기업 관리에의 대중의 인입을 건설의 조건에서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현물 평가제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일반 원칙을 가일층 구현하여 기업소 관리 문제를 보다 훌륭히 해결케 하는 것이며 또 건설 부문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응하게 대안 체계의 기본 요구를 더욱더 철저히 관철케 하는 것이다.

현물 평가제는 아직 경험적 단계에 있으며 이제 시작한 데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건설 기업소에서 관리를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데 대한 명백한 해답을 주고 있다.

현물 평가제의 도입을 통한 기업소 관리 문제의 해결은 사회주의 건설 공업을 관리 운영하는 데서 우리 당이 쌓은 새로운 경험이며 건설 관리 문제를 리론 실천적으로 완성하는 데서 귀중한 기여로 된다.

현물 평가제의 우월성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현물 평가제는 건설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서 새롭고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낳았다.

그것은 현물 평가제가 사회주의 경제 운영의 근본 원칙들을 건설 기업소 관리에 빛나게 구현하여 생활이 제기하는 성숙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건설 기업소 관리에서의 현물 평가제의 위력은 그것이 기업 운영에서 계획적 지도를 심화 발전시키고 대중으로 하여금 생산 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한 거기에 원천을 두고 있다.

현물 평가제의 거대한 우월성은 우선 건설에서 중앙 집권적인 계획적 지도를 강화하여 건설을 집중화, 정상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케 하는 데 있다.

7 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우리의 전진 운동을 촉진하고 건설에서 계속 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당의 집중화, 정상화의 원칙을 건설에서 정확하게 관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설에서 집중화, 정상화는 건설 대상의 조업 개시 기일을 단축하고 건설 원가를 저하시키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기본 방도로 된다. 특히 오늘 우리가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푼전을 아껴 가며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조건에서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고 건설의 조업 개시를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물 평가제를 실시하는 조건에서는 생산 계획을 현물로 세우고 현물 실적에 의하여 그 수행을 평가하게 되는 만큼 기본 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현물 평가제의 도입은 건설 기업소들에서 대상과 력량의 분산을 방지하고 계획 규률을 확립하며 분기 별, 월별 및 일별 계획을 어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는다.

현물 평가제를 도입한 모든 곳에서는 례외 없이 건설 속도를 높여 건설 조업 개시 기일을 앞당겼으며 건설물의 원가를 낮췄으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평양 동구 지구 종합 주택 건설 사업소에서 현물 평가제를 도입한 이후 그 전에 비하여 주택 동당 평균 조업 개시 기간을 34.6%나 단축하고 월 평균 미완성 투자 실적을 35%나 감소시켰으며 조업 개시 세대 수를 195%로 급속히 장성시킨 사실은 그것을 단적으로 실증하여 준다.

건설 기업소에서의 현물 평가제의 도입은 건설 전반의 계획화가 화폐 표시에 의한 계획화 체계로부터 현물 표시에 의

한 계획화 체계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폐 표시에 의한 계획화 체계로부터 현물 계획화 체계로의 이행, 이것은 기본 건설의 계획화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의미한다.

현물 평가제와 그에 상응하는 현물 계획화 체계의 확립은 건설 기업소의 생산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건설에서 로동의 지출과 그 결실 간에 존재하였던 불필요한 시간적 배리를 없애고 기업소와 로동자들의 생산 활동을 국가 기본 건설 계획 실현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한 부분으로 전환시키며 인민 경제 전반에서의 계획 수행과 새로운 생산 능력의 조업 개시 계획의 추진을 정확히 결합시킨다.

현물 평가제는 건설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계획적 지도를 강화하고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작용을 더 잘 보장한다.

또한 현물 평가제의 우월성은 기업소 관리의 모든 령역에 광범한 생산자 대중을 인입하고 기업 관리를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생산 활동에서 그들의 적극성을 비상히 높이는 데 있다.

경제 관리에 대중을 인입하고 그들의 열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생산 수단이 근로자들의 소유로 된 사회주의 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데서 제기되는 기본 문제이다.

특히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생산 활동이 주로 로천에서, 넓은 구역에서, 그리고 매번 새로운 장소에서 진행되며 작업 공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건설 관리에 대중을 인입하고 그들의 자각적 열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당은 건설에서 대안 체계를 확립함과 더불어 현물 평가제의 도입을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 운영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았다.

현물 평가제는 건설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의 실시를 더 잘 보장하여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높이며, 경리 운영에서 물질적 책임제를 강화하여 그들의 자각성을 제고하며,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여 계획을 생산자 대중 자신의 것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물 평가제가 건설에서 대중을 경제 관리에 인입하는 권위 있는 형태라는 것은 그것을 도입한 건설 기업소들의 경험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현물 평가제를 도입한 건설 기업소들의 직장, 작업반들에서는 모든 성원들이 다 로동 안전원, 로동 정량원, 질 검사원, 자재 관리원, 기공구 관리원, 사회적 계산원, 직일 작업반장, 직일 교대장 등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분공을 맡고 그 단위의 경리를 자각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현물 평가제 기업소들에서는 일을 찾아 하고 만들어 하는 창조적 기풍이 넘쳐 흐르고 기업 관리 개선을 위한 일'군들의 책임성이 높으며 서로 돕고 이끌어 나가는 집단주의 정신이 발양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물 평가제 기업소들에서는 광범한 생산자 대중이 높은 정치적

열성과 자각성을 가지고 공장의 전반적 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결과에 건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인 계획화 사업을 비롯하여 기술 혁신, 설비 리용의 개선, 절약 투쟁의 강화, 로력 관리의 합리화, 건설물의 질 제고 등 모든 문제들이 생산자 대중 자신들의 힘에 의하여 대중적으로 훌륭히 해결되고 있다.

현물 평가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설의 계획화 사업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다 주고 있다.

현물 평가제의 도입은 계획 토의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계획화 수준을 제고하여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을 작성케 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에 대한 생산자 대중들의 책임성을 높였다.

특히 현물 평가제에 근거한 기업소 계획화의 우월성은 계획을 접수하는 생산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현물 평가제 기업소의 생산자 대중은 생산 과정에 묻혀 있는 예비를 더 많이 탐구해 내고 보다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생산 계획을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생활이 보여 주고 있다.

현물 평가제는 또한 물자의 랑비를 근절하고 절약 투쟁을 강화케 하는 위력한 힘으로 된다.

현물 평가제 기업소의 건설자 대중은 자재의 인계, 인수 및 보관 관리를 개선하며 자재의 회수 리용과 대용 자재의 리용을 강화하며 자재 소비 기준을 낮추며 부당한 자재 지출과 랑비를 근절하여 원가를 부단히 저하시키고 있다. 기중기 로반 모래, 벼'짚, 새끼 등의 회수 리용, 정확한 검측 사업의 진행, 부재 파손률의 저하 등등은 현물 평가제를 도입한 건설 기업소들에서 흔히 찾아 보게 되는 현상이다.

현물 평가제는 또한 건설 기업소에서 로력 관리를 개선케 하고 로동력의 가장 합리적인 리용을 보장해 준다.

현물 평가제 기업소들에서는 부과된 생산 과제에 적응하게 직장이나 작업반 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게 되며 로동자들을 그들의 성격, 취미 및 기능에 따라 적소에 배치하게 되며 로동력을 같은 작업에 오래 고착시키게 되며 생산자들 속에서 창조적 기풍을 발양시키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현물 평가제는 또한 건설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촉진하고 설비 리용의 개선을 보장하며 건설의 조립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평양 동구 지구 종합 주택 건설 사업소에서 외랑식 주택 100 세대 당 조립식 건설 비률은 현물 평가제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평균 84~85%였는데 도입 후에는 그것이 97~98%로 높아졌다.

또 이 기업소에서 현물 평가제가 도입된 후에는 설비 리용률이 그 전에 비하여 높아졌고 예방 보수 사업이 강화되였다.

현물 평가제는 또한 건설 작업에서 재시공의 축감과 건설물의 질 제고를 담보해 주고 있다.

례하면 평양 동구 지구 종합 주택 건설 사업소에서 현물 평가제를 도입하기 이전 반 년 간에 비하여 그 이후 반 년 간에는 재시공의 건수가 약 14 분의 1로 격감되였다.

또 사리원 농촌 건설대에서 현물 평가

제의 도입 전후 6 개월 간을 대비해 볼 때 건설물의 질이 다음과 같이 제고되였다: 즉 1 등급은 52%에서 87.3%로, 2 등급은 44.5%에서 10.2%로, 3 등급은 3.5%에서 2.5%로 되였다.

현물 평가제는 건설 기업소들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의 실시를 더 정확히 보장하여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가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더 합리적으로 결합시킨다.

현물 평가제 기업소들에서는, 그 실시 단위가 조성된 리익금의 전액을 자기 성원들에게 상금으로 직접 지불하는 만큼 지난 시기 일부 기업소들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현상,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극복하게 됨으로써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를 더 정확히 실시하게 된다.

로동에 의한 분배의 정확한 실현은 로동 시간을 잘 리용하며 자기의 기능을 제고하며 작업 방법을 개선하도록 일'군들을 고무한다.

이와 같이 현물 평가제는 일'군들의 수입의 증가를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며 개인의 리익과 국가의 리익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킨다.

그것은 현물 평가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평양 동구 지구 종합 주택 건설 사업소와 사리원 농촌 건설대의 다음과 같은 수'자들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월 평균 로임의 장성	
	도입 전 6 개월	도입 후 6 개월	도입 전 6 개월	도입 후 6 개월
평양 동구 지구 종합 주택 건설 사업소	100	157	100	120
사리원 농촌 건설대	100	178	100	112

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건설에서의 현물 평가제는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장성시키는 동시에 로동자들의 개인적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현물 평가제의 도입이 국가에도 유익하고 개인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물 평가제는 기업소 관리에서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 없이 발휘하고 있다.

지난 시기 우리 당은 건설 공업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우선 건설 관리에서 당'적 령도를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면서 현물 평가제 형태를 그와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경제 지도에서의 당의 령도적 역할의 제고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고 공간으로 된다.

경제 관리에서 당'적 령도가 강화됨으로써만 관리에 대중을 인입하는 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강화됨으로써만 관리에 대중을 인입하는 다른 형식과, 수단들을 통일적으로 효과 있게 리용할 수 있다.

우리 당은 건설 관리에서의 당의 령도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한 기초우에서 현물 평가제를 도입하여 생산 발전에 대한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건설 부문에서 사회주의 경제 관리 운영의 기본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였다.

사회주의 건설 공업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건설

공업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생산자 대중의 준비 정도가 높아진 조건에서는 건설 기업소 내 생산 단위들의 경제적 기능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건설에서의 현물 평가제는 건설 관리를 개선하고 건설 생산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강력한 추동력이라는 것을 생활은 잘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건설 부문에 조성된 오늘의 조건에서 현물 평가제를 도입하여 기업소 내 생산 단위들의 경리 운영상 자립성을 제고하고 생산 발전에 대한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강화함으로써 건설 관리에서의 그 집단들과 성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인 데 중요하게 기인하고 있다.

현물 평가제 도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현물 평가제 도입은 건설 관리를 개선하며 건설 생산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왜냐 하면 그것은 건설 기업소의 관리 형식, 관리 방법, 그 절차, 일'군들의 관습, 사고 방식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실로 이것은 건설 전반에서 커다란 앙양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생산력의 더욱 급속한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현물 평가제의 도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도입 일반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 관리에서 계획적 지도를 강화하고 대중의 자각성을 발양시키는 현물 평가제를 급속히 도입 일반화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그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것을 잘 알 때에만 이미 그 우월성이 확증된 현물 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 일반화하는 데서 소극성을 발로시키지 않을 것이며 또 경제 지도에서의 우리 당 영도의 현명성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건설 기관, 기업소의 지도 일'군들은 건설 부문에 대한 당 정책, 김 일성 동지의 교시, 현물 평가제 도입에서 이미 얻은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깊은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건설에서 현물 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대안 체계를 공고히 하며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현물 평가제가 건설 부문에서 대안 체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에 산생된 것이고 또 그를 강화함으로써만 자체의 우월성을 발휘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물 평가제는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 주며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 가 사업을 조직해 주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줄 때에 자기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건설 자재들을 제때에 공급해 주며 작업 조건을 충분히 지어 주는 것이다.

현물 평가제를 적극 도입하고 관리에서 그 우월성을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구체적인 행정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현물 평가제의 적용 대상과 그 실시 단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물 평가제의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나 시공비를 계산할 수 있는 건설 생산물 별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례하면 공사 규모가 작은 건설 대상들, 주택, 탁아소, 유치원과 공공 건설 등의 건축 공사에서는 개별적 건설 대상이, 공사 규모가 크고 공사 기간이 긴 산업 건설, 공공 건설, 수력 및 관개 건설 공사 등에서는 구조 단위 또는 공정 단위가 현물 평가제의 적용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현물 평가제 실시의 기본 단위는 해당 건설 대상(구조 및 공정 단위)을 책임지고 담당 수행할 수 있는 직장이나 작업반으로 되여야 한다.

또한 현물 평가제를 도입하고 관리에서 그 우월성을 잘 발휘시키자면 건설 기관들이, 기업소들에서 현물 평가제를 원만히 실시할 수 있도록 일련의 구체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건설 기관 및 기업소들에서는 시공 조직 설계와 실행 예산서를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며 현물 평가제 실시의 기본 지표인 조업 개시 계획을 건설 대상 별로 제때에 시달해 주며 현행 상금제를 현물 평가제 상금제로 단일화하며, 수행된 현물 작업량에 따라 로임과 상금을 정확히 계산 지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물 평가제의 우월성을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건설과 련관된 기관, 기업소들에서 보장 조건들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물 평가제를 성과적으로 도입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매개 지도 일'군들의 능숙한 조직성과 과감한 전개력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건설 기관, 기업소 당 조직들은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일'군들 속에서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하며 새로운 관리 조직의 도입에서 일'군들이 위임된 직능과 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력한 무기, 투쟁의 참된 교과서

—《로동 신문》 창간 20 주년에 제하여—

우리 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인 《로동 신문》이 창간된 지 20 년이 된다.

《로동 신문》은 창간 이래 당 중앙 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우리 나라 혁명 발전과 우리 당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당보를 통하여 항상 당의 목소리를 듣고 혁명 과업 수행에서 큰 고무를 받아 온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로동 신문》 창간 20 주년에 제하여 그가 걸어 온 전투적인 행로를 자랑스럽게 돌이켜 본다.

지난 20 년 간 《로동 신문》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룩된 혁명적 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왔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출판 사업 전통과 경험에 토대하여 그의 직접적인 계승자로 창간된 《로동 신문》은 1930 년대 혁명적 출판물에 체현되였던 철저한 당성과 인민성, 전투성과 진실성을 자기 활동의 자랑스러운 표징으로, 위력의 원천으로 삼았다. 오직 이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실천을 통하여 더욱 풍부화함으로써 《로동 신문》은 창간 첫날부터 당의 수중에 장악된 조직 사상적 무기로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그 전투적 기능을 부단히 제고할 수 있었다.

창간 후 20 년 간 《로동 신문》은 내외의 온갖 반동 세력의 책동을 분쇄하고 중첩되는 난관을 극복하면서 준엄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 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에 항상 믿음직한 방조자로서 충실히 복무해 왔다. 《로동 신문》의 매 지면은 우리 당과 인민이 수행한 위대한 혁명과 건설의 생동한 반영이였으며 새로운 전투와 승리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부르는 힘찬 호소였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1945년 《로동 신문》의 전신인 《정로》의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 신문이 집단적 선전자로, 조직자로 되게 하여야 하겠다**》(김 일성 선집 제 1 권, 27 폐지)고 가르쳤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창간된 《로동 신문》은 언제나 이 교시에 충실하면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는 투쟁에 적극 복무하여 왔다. 그리 하여 신문은 반제 반 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 시기에 있어서나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 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가렬한 전쟁 시기에 있어서나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킨 전후의 위대한 변혁과 건설의 시기에 있어서나 자기의 선동 선전자적, 조직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혁명 승리의 결정적인 담보로 되는 혁명 력량을 꾸리는 투쟁, 우리 당을

통일되고 단결된 강철의 대오로 꾸리며 광범한 대중을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묶어 세우는 투쟁은 《로동 신문》의 활동에서 시종일관한 전투적 과업이였다.

신문은 전체 당원을 유일한 규률로 결속시키며 전 당과 전체 인민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와 하나의 의지, 하나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에서, 당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고 당의 령도적 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로동 신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우리 당의 정책으로, 주체 사상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 전통으로 교양하고 그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사업에 커다란 관심과 힘을 기울였다. 그리 하여 신문은 대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을 혁명가로 교양하며 북반부를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꾸림에 있어서 당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서의 자기 기능을 높이 발휘하였다.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로동 신문》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에 당의 의도와 당 정책의 수행 방도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친절히 알려 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발성과 지혜를 남김 없이 발휘하도록 하며 모든 애국적 발기와 창조적인 새 싹을 적극 지지하고 걸린 문제를 직접 풀어 주면서 대중을 부단한 혁신과 앙양에로 고무 추동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도 《로동 신문》은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신문은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안과 그 정당성을 광범히 해설 선전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념원과 투쟁을 힘 있게 반영하였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미제와 괴뢰 도당의 온갖 책동을 걸음마다 폭로 규탄하였다. 신문의 이러한 활동은 싸우는 남반부 인민들을 고무하였으며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 속에서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립장과 투쟁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다.

《로동 신문》은 우리 당 대외 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로서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반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신문은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며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세계의 평화와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립장을 천명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로동 신문》의 창간은 우리 나라 출판 사업의 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으며 그가 걸어 온 전투적인 로정은 또한 우리의 모든 당'적 출판물들이 장성 발전하여 온 행로이기도 하였다.

우리 혁명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합법적인 맑스-레닌주의적 신문이며 조선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사상의 대변자인 《로동 신문》이 창간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출판 사업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사상 전선의 일익을 담당하고 새로운 전면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 서게

되였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제시한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 실천에로 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강력한 무기이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562 페지).

혁명과 건설에서 출판 선전이 가지는 중요성에 응당한 의의를 부여한 우리 당은 《로동 신문》의 창간에 뒤이어 수많은 신문과 잡지들의 발간을 조직하였으며 해마다 방대한 부수에 달하는 각종 도서들을 발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모든 출판물들은 자기 활동의 전 기간에 걸쳐 우리 당 출판 정책의 제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왔으며 그 행정에서 당의 위력한 조직.사상적 무기로서 더욱더 장성 발전하였다.

출판물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혁명적 출판물 발간 사업에서 이룩된 고귀한 전통에 의거하여 우리 당은 당성과 전투성, 인민성과 대중성을 출판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의 출판물들은 해방 후 20 년 간 중첩되는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항상 혁명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당의 기치를 높이 들고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혁명 위업에 철두철미 복무함으로써 공산주의적 당성과 전투성의 원칙을 튼튼히 고수하고 실현하였다.

수 많은 신문과 잡지, 도서들은 혁명의 성숙된 요구에 따라 매 시기 당이 제시하는 과업을 그 때마다 민감히 접수하고 집단적 선전자, 집단적 조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 정책을 해설 침투하고 전체 인민을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우리 출판물들의 당성과 전투성은 그의 내용과 형식에서 인민성과 대중성을 진실로 구현함으로써 더욱 철저히 발현되였다.

붉은 기자, 편집원들은 항상 대중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요구와 희망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출판물에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광범한 로동자, 농민 통신원과 열성 필자, 독자들과의 일상적인 련계를 강화하여 군중의 생동한 목소리가 출판물 지상에서 울리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출판물들을 진정한 대중적 연단으로 되게 하였다.

또한 출판물의 서술에서 인민적 문풍을 확립하며 대중의 사상 문화적 수요와 미감에 맞게 편집 내용과 형식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한 기자, 편집원 집단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인민들 속에서 당'적 출판물의 영향력과 실효성은 비상히 제고되였다.

이리 하여 오늘 《로동 신문》을 비롯한 전체 출판물들은 그 철저한 당성과 전투성, 참다운 인민성과 대중성으로 하여 당의 높은 신임과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참된 벗으로, 교과서로 되고 있다.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국제 혁명 력량과의 련대성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조국 통일의 위업을 하루속히 실현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내외의 혁명 정세와 우리 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은 《로동 신문》을 비롯한 전체 출판물들이 그의 조직-동원자적, 선전-교양자적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판물의 조직-선전자적 기능은 높은

정치 사상 리론 수준에 의하여서만 원만히 발휘될 수 있다. 우리의 출판물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그 업적들을 더욱 폭 넓고 깊이 있게 리론적으로 일반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우리 혁명의 력사적 경험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에 주되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전체 인민을 로동 계급화하며 전 사회를 혁명화하는 것은 혁명 발전의 현 단계가 절박하게 제기하는 전 당'적, 전 인민적 과업이며 우리 출판 선전 사업의 전투적인 임무이다.

우리의 출판물들은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과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하며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체 인민을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혁명 정신으로 확고히 무장된 혁명가로 튼튼히 육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출판물들은 당의 경제 정책 관철에 모든 힘을 집중하며 선진적인 과학 기술 지식과 경제 관리 지식에 대한 보급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유능한 일'군으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최대한의 촉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계급적 원쑤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은 맑스-레닌주의적 출판물의 본질적 특성이며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치렬한 정치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 온 우리 나라 출판물의 가장 빛나는 전통의 하나이다. 우리의 당'적 출판물들은 온갖 부르죠아 사상 조류들과 제국주의의 반동적 이데올로기들을 반대하여 더욱 무자비하고 날카로운 필봉을 들어야 하며 미제를 비롯한 국제 반동들의 침략 책동을 낱낱이 폭로 분쇄하면서 전체 인민들을 높은 혁명적 경각성으로, 그 어떤 원쑤들의 침공에도 용감히 맞받아 나아가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고수하는 견결한 투쟁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문풍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당'적 출판물 앞에 부단히 새로운 요구성을 띠고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이다. 모든 신문과 잡지, 도서들에서 인민적 문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완강히 전개하여야 하며 글마다 실속 있고 알기 쉽고 간명하게 씌여짐으로써 우리의 당'적 출판물들을 대중에게 더욱더 접근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출판 부문 앞에 제기된 이 중대한 임무는 전체 출판 보도 일'군들이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정치 실무적 자질을 소유하여야만 원만히 수행될 수 있다.

우리의 기자, 편집원들은 자신을 더욱 혁명화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혁명의 위업을 고수하고 당의 사상과 의지로 글을 쓰는 붉은 문필 전사로 되기 위하여 부단히 자체 수양을 쌓아야 한다. 동시에 맑스-레닌주의 원리와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연구하며 력사와 과학, 문화와 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광범한 지식을 습득하여 넓은 식견과 높은 필력을 갖추어야 한다.

《로동 신문》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출판물들은 앞으로도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가 가리키는 길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 있게 조직 동원하며 혁명의 승리적인 전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함으로써 맡겨진 영예로운 당'적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 것이다.

남조선 문학에서의 진보적 경향

경 일

오늘 남조선에서는 온갖 퇴폐적인 문학 조류들과는 달리 부패한 사회 현실을 폭로하며 인민들의 투쟁과 념원을 반영하는 진보적 경향의 문학이 점차 발전해 가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문학 발전의 합법칙적 현상이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계급 사회에서 매개 민족 문화에는 두 개의 문화가 존재하는바 지배적인 부르죠아 문화가 있는 반면에 근로 대중의 지향과 희망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적 혹은 사회주의적 문화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문학 예술은 이러한 문화적 내용에서 매우 큰 자리를 차지한다.

문학은 다른 모든 사회적 의식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발전의 추동력으로 되는 계급 투쟁에 의하여 부단히 장성 발전된다. 오늘 남조선에서 싹트고 있는 진보적 문학도 이에서 례외로 될 수 없다.

해방 후 20 년 간이나 남조선을 강점하여 온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 사회는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의 장성을 갖은 방법으로 억제하여 왔으며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문학 예술 분야에서도 각종 반동적인 문예 조류들을 무제한하게 끌어 들이는 반면에 민족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것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왔으며 우리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말살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 하여 남조선에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설교하며 퇴폐적인 《미국식 문화》와 《생활 양식》을 전파하는 각종 부르죠아 반동 문학 예술이 지배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되였다.

미제와 괴뢰 도당에게 복무하고 있는 이러한 반동 문학 예술은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건전한 사고력을 좀먹는 사상적 독소로서 남조선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고 식민지 통치를 미화 분식하기 위한 정치적 리용물로 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과 량심적인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놈들을 그 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 자주 자립은 물론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도, 그 어떤 새 삶이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4월 인민 봉기는 이와 같이 자각된 인민들이 부패와 모순으로 가득 찬 사회 현실에 대한 쌓이고 쌓인 울분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여 일떠선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인 구국 항쟁이였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 투쟁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창작에서도 전환을 가져 오게 하였다. 4월 인민 봉기는 량심적인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결정적인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민족적 량심을 지닌 일부 작가들은 비상한 창작적 열의로 4월 인민 항쟁을 례찬하였고 모순에 찬 사회 현실을 폭로하면서 진보적 경향의 문학을 가지고 대중 투쟁에 합류하였다.

4월 인민 봉기는 또한 자기의 창작적 립장을 명백히 가지지 못하고 방황했거나 부르죠아 사상의 영향에 물젖어 퇴폐적인 창작 경향에로 기울어지고 있던 일부 작가들의 사상 의식에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 하여 적지 않은 작가들이 시대가 작가들 앞에 제기한 력사적 사명을 자각하기 시작하였으며 퇴폐적인 부르죠아 문학의 울타리를 벗어 나 사회악을 대담하게 적발 폭로하며 4월의 정신을 자기들의 창작 활동에 구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진보적 경향의 문학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민족 경제를 파탄시키고 인민 생활을 극도로 빈궁케 만든 미제의 략탈 정책과 《원조》의 본질을 폭로 규탄하며 민족 주체, 민족 정신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는 반미 주제의 작품들이다.

최근에 창작된 이 주제의 작품들은 벌써 미제의 죄과를 단순히 폭로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있다. 시 《가다오 나가다오》를 비롯하여 일련의 단편 소설들과 정론들에서는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칠거를 무조건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장시 《미 8 군의 차》의 작가는 남조선 사회 현실을 폭 넓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 가면서 미제의 침략적 본질을 준엄하게 규탄하였다. 시인은 끓어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미제가 이 땅우에 가져다 준 것은 자유와 빵이 아니라 가난과 빈궁, 무권리와 폭정, 전쟁과 파괴 뿐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 조선에 몰아 온 것은
> 봄은 아니다
> 이 강산에 몰아 온 것은
> 무자비의 도가니
> ………………………
> ………………………
> 그때 그 손님들이 우리에게 갖고
> 온 것은
>
> 한 장의 무자비한 청장
> 타오르는 가마솥
> 전쟁에의 날카로운 초대장,
> (《현대 문학》 1963년 12월 호)

이처럼 시인은 미제를 아름다운 조국 강토에 불을 지른 전쟁 방화자로, 날강도로 신랄히 폭로 규탄하고 있다.

또한 작가는 극도로 빈궁해진 남조선을 《한국의 빈 나무 가지》에 비유하면서 미제의 략탈적 본성을 예리하게 밝혀 내였다. 시인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먹는 데만 궁해서 사회 현실에 눈을 돌리지 못 하고 18 년 간 무맥하게 살아 온 자신을 꾸짖으면서 더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반성의 계기를 통하여 더욱더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된 서정적 주인공은 새로운 투쟁 결의에 충만되여 놈들을 반대하는 구국 항쟁의 대렬에 떳떳하게 뛰여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미제와 괴뢰 도당의 파쑈적인 탄압을 반대하여 항쟁에 궐기한 인민 대중의 목소리를 노래하는 량심적인 시인이라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단편 소설 《분지》(《현대 문학》 1965년 3월 호)에서 작가는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 땅에 기여 든 미제 침략군의 잔인무도한 비인간적인 만행을 치솟는 민족적 의분으로 단죄하였다. 그는 여기서 《홍 길동의 혈액을 이어 받은》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이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으며 떳떳하게 살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놈들의 《넘치는 성욕과/식욕》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악의 씨는 뿌리 뽑아 버려야 한다는 사상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작가의 이러한 주장은 곧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의식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자주 자립과 민족적 존엄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 의식의 예리한 예술적 반영이기도 하다.

이처럼 남조선의 량심적 작가들은 4월 인민 봉기 이후 조선 인민의 첫째 가는 투쟁 대상인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침략적 본성을 폭로 규탄하는 데 예리한 필봉을 돌리고 있다.

단편 소설 《회신》(《문학 춘추》 1965년 3월 호)은 남조선 사회를 오늘과 같이 가난과 빈궁 속에 몰아 넣은 근본 장본인을 찾아 내며 그를 심판하고 있는 우수한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미제의 《원조》 정책의 내막과 그것이 남조선 인민들의 정신 도덕 생활에 미치고 있는 후과를 보여 주면서 그것을 반대하여 일어선 인민 대중의 군상을 비교적 진실하게 보여 주었다. 작가는 미제의 《원조》가 《어린애를 낳아 놓고도 그 작은 몸뚱이 하나 감싸 줄 천》마저 없이 가난과 빈궁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날로 높아 가는 반미 의식을 무마시켜 보려는 음흉한 피임수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작가는 미제의 《원조》 정책을 단순히 규탄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그것을 사회적 문제와 옳게 결부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반미 감정을 담고 있는 4.19 직후의 일련의 작품들에서보다도 작가의 미학적 관점이 훨씬 전진하고 있음을 찾아 보게 된다. 4.19 직후의 작품들에서는 주인공들이 대체로 가정적 불행을 직접적인 발단으로 하여 미제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데 그쳤다면 《회신》의 작가는 처음부터 미국의 《원호 물자》를 인민들의 사활적인 문제와 대치시키고 그 후과를 철저히 쓸어 버리기 위해 투쟁하는 인간의 군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가난과 빈궁 속에서 쪼들리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하이힐(뒤축 높은 녀자 구두)과 《콧대들》이 입다 남은 《누더기 같은 옷》들을 가지고 인민들을 희롱하고 있는 미제의 책동을 격분에 넘치는 심정으로 준열히 규탄한다. 그것은 작가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주인공-권 장군의 형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주인공은 부락민들의 회의를 열고 미제의 《원조》 정책의 허위 기만성과 해독성을 생사존망의 문제와 결부시켜 신랄하게 폭로한 후 《불화의 씨인》 《구호 물자》를 모조리 불태워 버린다.

작가는 《시꺼먼 연기를 피우며 하늘 하늘 줄기차게 타오르고》 있는 그 저주로운 《구호 물자》를 영원히 불 속에 매장해 버리는 장면을 통하여 자주 자립을 요구하여 투쟁에 나선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의식의 장성 과정을 비교적 진실하게 보여 주었다.

량심적인 작가들의 미제에 대한 규탄은 남조선 인민들의 건전한 생활 풍습과 민족 문화를 좀먹는 《미국식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반대 배격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해방 후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을 사상-도덕적으로 타락시키며 민족 허무주

의와 세계주의의 독소에 감염시킴으로써 저들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을 손쉽게 실현해 보려는 데서 《양키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해 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식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추종하며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 반동 문학가들은 인민들 속에 민족 문화에 대한 허무주의를 설교하면서 춘향의 굳은 절개보다는 《밤'거리 창녀의 방탕이 현대적》이요, 우아한 민족적 선률보다는 광란적인 소음으로 일관된 《쟈즈가 예술적》이라고 지껄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는 량심적인 작가들의 격분을 자아 내게 하였다.

단편 소설 《현장》 (《사상계》 1963년 문예 특집 특간호)은 《미국식 문화》와 《생활 양식》에 물젖어 가고 있는 청년 남녀들의 타락한 생활 현상을 폭로 비판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

작가는 《미국식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에 오염된 인간들의 정신적 파산과 도덕적 타락을 눈만 뜨면 《쟈즈 홀》에 달려 나가는 한 불량 소녀의 현상을 통하여 잘 보여 주었다. 이 불량 소녀는 매일 같이 《쟈즈 홀》에 가서 남자들을 끼고 《얄미울 정도》로 엉켜 돌아 가며 《밥 먹을 때도, 남과 대화할 때도, 심지어는……앉아서까지》도 몸을 흔들며 엉덩이춤을 춘다. 그러기에 양풍을 증오하는 그의 오빠는 《불행한 일, 경아는 엄연히 나의 동생이면서도 실은 우리들의 가족이 아닌 것이다. 서운한 일 〈쟈즈〉의 가족이였다》라고 통탄하고 있다.

이처럼 양풍은 남조선 인민들을 불구로 만들며 사회와 매개 가정에 이르기까지 불행을 갔다 주는 아편으로 되고 있다. 작가는 양풍에 물젖은 이 불량 소녀가 《뺀적, 우르릉 쾅, 우뢰 소리》 속에서 거꾸러지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황 묘사를 통하여 다가 올 혁명적 폭풍우가 반드시 이 땅 우에서 양풍을 쓸어 버리고야 말리라는 것을 상징적 수법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모든 작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결같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침략적 본성을 준렬히 폭로 규탄하는 데 바쳐지고 있으며 인민들의 반미 의식의 장성을 크게 고무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기의 남조선 문학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경향은 괴뢰 도당의 파쑈적인 탄압과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 정책을 폭로하며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인민들의 조국 통일 념원을 반영한 진보적 문학의 새 싹들이 급격히 자라나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진보적인 작가들의 생활 체험의 응당한 결과이며 시대적 요구를 대변해야 할 작가적 량심의 발현이다. 남조선 문학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4.19의 정신을 가로 챈 괴뢰 도당들이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하는 잔인무도한 만행을 폭로 규탄한 단편 소설 《손'가락을 깨물어 봐요》, 시 《각하 입전 상서》를 비롯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 형편과 괴뢰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인 농촌 수탈 정책을 폭로하고 있는 단편 소설 《세농들》, 《가난한 형제》 등은 모두 그러한 작품들이다.

시 《각하 입전 상서》에서 시인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가로 챈 불한당들이 인민 생활은 돌보지 않고 부정과 권세욕에 눈이 뒤집혀 남조선 사회를 점점 《어둡고 권태로운 묘지》로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반 《정부》 감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낮의 통행 금지 속에 갇혀
가슴을 움추리며 살아 왔던
더욱 어두운 밤이 계속되고 있는
창백해진 우리의 하늘에
비라도 실컷 내려 왔으면
홍수지게 내렸으면…

이와 같이 시인은 인민들을 대낮에도 《통행 금지 속에》 가두어 놓고 총칼로 위협하며 무참히 탄압하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을 신랄히 규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19의 용사들이 또다시 일어 나 군사 《정권》을 뒤집어 엎어야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항쟁에 궐기한 남조선 인민들의 끓어 넘치는 반 《정부》 기운을 반영한 것이다.

한 작가는 오늘의 남조선 현실을 가리켜 인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맞아 죽지 않고 용케 목숨》을 이어 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마저 없는 세상이 바로》 남조선이라고 폭로 규탄하고 있다.

단편 소설 《세농들》, 《흙 노하다》에서는 황폐화되여 가고 있는 남조선 농촌의 비참한 현실과 지주 계급에게 복무하고 있는 괴뢰 정권의 반인민성을 온 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농촌에는 여전히 봉건적 생산 관계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 있다. 그리 하여 각종 형태로 괴뢰 통치배들과 지주 계급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농민들 특히 빈고농들은 토지 수탈과 가혹한 소작제로 나날이 참혹해져 가는 자기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절박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한 투쟁에 일떠서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의 이러한 사회 현실 앞에서 량심적인 작가들은 인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들만을 비호해 주는 괴뢰 정권의 반 인민적 책동을 예리하게 심판하고 있다.

단편 소설 《세농들》에서 작가는 괴뢰 정권이 가난한 빈고농들의 생활 처지를 돌봐 주고 있는듯이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던 《영농 자금》이란 사실 상 《정치 자금》에 불과하다는 것을 신랄히 폭로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을 오늘과 같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해 놓고 그들을 구제한다고 떠들어 대는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일이다.

작가는 이에 대하여 《막다른 사람은 주지 않고 해마다 땅을 사는 부자들과 돈놀이 하는 오 상필이나 구구장, 서기집 같은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괴뢰 정부의 《영농 자금》이였다고 하면서 그 본질을 밝혀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작가는 괴뢰 정권이 가난한 인민을 위한 《정권》인 것이 아니라 돈 있고 권세 있는 착취 계급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다른 한 작가는 박 정희 도당의 《중농 정책》을 비판하면서 《물이 져도 제방 하나 안 놔 주고 가물어도 양수기 한대 안 내 주며》, 《비료 하나 제대로 공급》 못 하는 것이 《중농 정책》인가고 공박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정권》은 결코 인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정치 자금을 제공한 몇몇 분들의 리익과 번영만을 위한》 《정권》이며 오직 그들을 위해서만 《립법이며 행정이 민첩하게 움직》일 따름이라고 준엄하게 규탄하고 있다.

이렇듯 량심적인 작가들은 인민의 편에 서서 괴뢰 도당의 반인민적 책동을 그 밑바닥까지 파헤쳐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들은 박 정희 군사 불한당들을 《로증한 매국의 무리》, 《탐욕한 정상배》의 집단으로 단죄하고 도탄에 빠진 인민 생활과 나라의 운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자주 자립해야 한다는 사상을 힘 있게 부르짖고 있다.

그리 하여 남조선 문학에서는 괴뢰 도당의 외세 의존 책동을 반대 배격하고 자주 자립의 사상과 조국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한 작품들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오게 되였다.

조국 통일의 념원을 반영한 그들의 작품에서 공통적인 사상은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남북의 겨레들이 우선 만나야겠다는 사상을 집중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국토 분렬의 장본인이며 조국 통일을 방해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저주하면서 《진정 우리는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할 수는 없다》. 《어째서 우리들만의 한국과 당신들이 제멋 대로 료리하는 한국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피'줄도 하나이고 말도 하나인 한 강토》우에서 겨레들이 서로 맞날 수조차 없는 민족적 불행을 가슴 아프게 통탄하고 있다.

시 《아 조국》(《경향 신문》 1965년 1월 1일)의 시인은 어떤 희생이라도 무릅쓰고 조국 통일을 반드시 성취하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비장한 결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 불멸의, 불사의 불퇴전의 그 기'발
> 가다가 넘어져도 또 일고 가자
> 간악한 저 입진 왜적 처물미치던
> 네 심장이 이내 심장에 뛰는 이 피'줄
> ………………………
> ………………………
> 이 아침 다시 가슴에 비원 되일귀
> 우리 모두
> 나 하나 그 흐름 속에 불녹여 넘자
> 또 한 번 이 불사의 넋
> 하늘 솟치라

그러면서 시인은 분렬된 조국의 이 불행이 우리 세대에 생겨 난 것이니 이대로 후대들에게 넘겨 준다는 것은 민족적 죄악이라고 웨치고 있다.

또한 시 《아아 내 조국》의 시인은 날로 험악해져 가는 《내 조국》을 부둥켜 안고 격동된 심정으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조국을 다시 찾으려는 자주 자립의 사상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

> 내 조국아
> 너는 참지 말아다오
> 우리의 땅, 우리의 하늘
> 하다 못해 머럭 하나라도
> 우리의 것은
> 우리의 손으로 만져야 한다.
> 우리의 것은
> 우리의 마음으로 다뤄야 한다.
> 우리의 것은
> 우리의 몸을 가져야 한다.
> (《사상계》 1963년 4월 호)

이처럼 시인은 험악해 가는 조국의 운명 문제를 외세 의존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적 립장에서 해결해야 하며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나라의 통일도 하루 바삐 실현될 수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 있다.

조국 통일을 주제로 한 최근의 작품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적대 감정과 반목을 조장하는 미제와 괴뢰 도당의 허위적인 《반공》 선전을 폭로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인정하고 그를 동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이 《승공 통일》을 떠벌리며 갖은 악선전을 퍼뜨리고 있는 남조선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 작가는 박 정희 도당의 《반공》 선전과 《반공 교육》의 기만성을 폭로하면서 그러한 책동은 결코 조국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북 대립의 사상을 고취하며 민족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서 그는 공화국

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부패한 남조선 사회 현실과 대비하고 남조선에서 《실업자가 우굴거리고 인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치를 개똥 같이 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화국 북반부는 《로동력이 모자랄 정도로 실업자가 없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에게 우리 제도에 대한 동경과 조국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한층 더 북돋아 주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 체험을 통하여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기 시작한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인 탄압이 극심한 조건 하에서도 작가적 량심을 저버리지 않고 항거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 그리 하여 이들의 창작 활동은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은 이들의 작품이 한결같이 인민적 립장에 서서 남조선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진보적 경향의 문학이 노는 역할은 실로 크다. 남조선에서의 진보적 경향의 문학은 비록 철저하지는 못 하다 하더라도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 책동을 대담하게 폭로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에게 오늘의 민생고를 가져 오게 한 진정한 사회적 근원이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동시에 이 문학은 인민들의 건전한 생활과 의식을 마비시키는 《미국식 생활 양식》이 지배하는 남조선 현실에서 아름다운 민족적 생활 풍습을 옹호하고 쟈즈를 비롯한 온갖 양풍이 초래하는 파멸적 후과를 예리하게 폭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과 허무에서 깨여나 참된 삶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진보적 경향의 문학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 자주 자립에 대한 주장이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외세를 물리치고 잃어진 것을 되찾아서 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생활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여기에 바로 이 문학의 전투적 기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전투적 기백은 특히 미제의 략탈 정책에 대한 폭로와 더불어 부정, 부패에 눈이 뒤집혀서 나라와 민족을 송두리째 외세에 내맡기고 있는 매국 역적들에 대한 신랄한 규탄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이리 하여 오늘 남조선 문학에서의 진보적경향은 항쟁에 일며선 남조선 인민들에게 귀중한 정신적 량식으로 되고 있다.

물론 이 경향의 문학은 아직 청소하며 일정한 부족점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 경향의 문학이 조직된 력량으로 결속되지 못 하고 있으며 자기의 확고한 미학적 강령도 가지고 있지 못 하다는 사실이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들은 4.19 이후 급속히 나타나기 시작한 진보적 경향의 작가들을 《용공》이라는 딱지를 붙여 검거하는 만행을 계속 감행하였으며 《문화인 등록법》, 《저작권법》 등을 조작하여 그들의 창작 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여 왔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진보적 경향의 문학 발전은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진보적 경향의 작가들은 해방 후 미제가 남조선에 류포시킨 구미 부르죠아 반동 문예 조류들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 못 함으로써 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자연주의적 및 형식주

의적 수법을 철저히 극복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작품들이 인민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일련의 부족점과 불철저성을 극복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들로 설명된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작품들이 사회 현실적인 문제에 깊이 파고 들지 못 하고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세태, 풍속적인 문제의 범위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악의 근원을 철저히 밝혀 내지 못 하고 있다. 때문에 실업과 무권리 속에서 허덕이는 주인공을 등장시켜 놓고도 그들의 생활을 사회 계급적인 호상 관계 속에서 해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훌륭한 문학 작품의 힘은 그것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과 인간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인식시키며 그들에게 창조의 씨앗을 안겨 주며 낡은 현실을 개조하고 참된 삶을 위해서 투쟁하도록 힘 있게 고무 추동하는 데 있다. 문학 작품이 이렇게 되자면 무엇보다도 작가가 생활의 본질을 똑바로 식별하고 그것을 예술적 형상으로 구현하며 투쟁의 거울로 될 수 있는 시대의 전형을 창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진보적 경향의 작가들이 사실주의 창작 방법에 확고하게 의거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투쟁하는 인민의 진실한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물론 하급 공무원이나 도시 빈민, 소시민들의 세태 풍속적인 생활을 취급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 계급적인 호상 관계 속에서 시대 발전의 본질을 똑똑히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문학 작품은 인민 대중의 심장에 파고 들 수 있으며 예술 작품으로서의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 것이다.

작가가 창조한 하나의 진실한 예술적 형상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위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오늘 싸우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있어서 남조선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문학 작품이 주는 영향력은 비할 바 없이 크다.

때문에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인 책동이 빚어 내는 죄악을 예리하게 심판하는 보다 훌륭하고 많은 문학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민적 작가로서의 영예를 고수하고 민족 문학을 찬란히 꽃피우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문답 학습

《인민적 자본주의론》의 진면모

《인민적 자본주의론》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부르죠아 사상 조류의 하나로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널리 류포되고 있다.

오늘 부르죠아 변호론자들은 《인민적 자본주의론》을 《20 세기의 사상과 문명에서 박물관에 간직해 두어야 할 진품(珍品)》이라고 요란하게 불어 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허위인 이 《진품》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민적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혁명론》은 20 세기 20 년대에 벌써 세상에 나타났다. 그러한 론고들이 처음에 체계화되여 자본주의 시장에 제공된 것은 미국의 부르죠아 경제학자인 카버 교수의 《미국에서의 현대 경제 혁명》이라는 책자가 1925년에 나온 이후 시기부터이다.

그 후 거듭되는 세계 경제 공황으로 인하여 그러한 론고들이 오랜 기간 잠잠해졌다가 제 2 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이후 시기인 50 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인민적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띠고 다시 류행되기 시작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50 년대에 조성되였던 일시적인 호경기를 기화로 해서 이 《리론》을 적극 선동하였다. 이 자들은 《인민적 자본주의론》을 광범한 인민대중 속에 류포시키기 위하여 1956년에 뉴욕에서 당시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직접 참가 하에 《인민적 자본주의》를 선전하는 특별 전람회까지 열었다.

특히 오늘 독점 자본의 지령에 충직한 미국의 부르죠아 어용 사환'군들은 자본주의 발전의 《진보적》인 경향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 경제 제도 하에서 이러저러한 《혁명》들이 폭발하여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인민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놓았다는 소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이 오늘 그렇게도 발광적으로 《자본주의 변생론》을 선전하게 되는 데는 일정한 조건과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 자본주의가 내부적으로나 그리고 또 국제적 규모에서 진행되고 있는 격렬한 계급 투쟁 속에 놓여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력사는 자본주의의 모든 적대적 모순이 오늘과 같이 격화된 때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이 《인민적 자본주의》라는 옷을 입은 《자본주의 변생론》을 낳게 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회

주의 세계 경제 체계의 위력의 거대한 장성으로 말미암아 제국주의 대변인들에게 사상-리론적인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던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하여 나타난 《인민적 자본주의론》은 그가 부르짖고 있는 각가지의 《혁명론》들을 통해서 추잡한 목적을 노리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 방패를 가지고 로자간의 《계급적 조화》를 설교하면서 독점 자본의 전횡을 반대하는 투쟁으로부터 인민 대중을 떼여 내며 특수적으로는 바로 미 제국주의를 극구 미화 분식하며 숭미 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그것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거대한 성과로 인한 인민 대중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날로 커 가고 있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저지시키려는 데 또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부르죠아 사환'군들이 《인민적 자본주의론》을 들고 나오게 되는 조건과 그가 추구하는 목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았다.

《인민적 자본주의론》의 진면모를 알기 위하여 그의 주요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는 《소유 혁명》, 《관리 혁명》, 《소득 혁명》 등 문제들을 좀더 자세히 분석 비판하기로 한다.

* *

《인민적 자본주의론》에서 첫째 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유 혁명》에 관한 《리론》이다. 이 《리론》에 의하면 현대 자본주의는 《소유 혁명》을 일으켜 《소유의 확산》을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에 《자본의 민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로동 계급의 《자본가화》가 마련되였다는 것이다.

《소유 확산》에 의한 《자본의 민주화론》은 다음과 같은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우선 그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은 일반적으로 주식 회사 형태로 조직 운영되며 그 내부 구조 자체는 주주 총회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발양하게끔 구성되여 있다고 하면서 자본가 계급 뿐 아니라 로동 계급도 실지로 《주식 회사의 주주》로 될 수 있게 소유가 《확산》되고 자본은 《민주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 자본주의의 조건 하에서 주식 회사는 기업 조직의 기본 형태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러한 주식 형태는 독점 자본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오늘날 회사의 수뇌부와 중역회(重役會)를 선출하고 영리 활동 보고를 심의하며 수지 바란스를 비준하는 등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실시하면서 그들을 《자본가화》시킨다는 주주 총회(주식 회사의 최고 기관)는 독점 자본의 전횡을 감싸주는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다. 부르죠아 경제학자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에 있어서 주식 회사에서 통제주를 장악하고 있는 몇몇 《주주들이 최후 심판에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며 기본 생활 수단이 여전히 그들의 유일한 상품인 로동력으로 되고 있는 로동자들은 기업에 대해서 아무러한 권리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로동자들의 계급적 처지는 변할 수 없고 그들의 《자본가화》란 《달콤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주식 기업에 의한 《자본의 민주화》와는 반대로 오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주식의 통제주를 장악한 《어미 회사》들이 수 많은 《새끼 회사》들을 자기들의 품 안에 몰아 넣는 《참여 제도》를 통해

서 자본의 집중 과정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의 강화를 통해서 말할 수 없이 치부하고 있다.

수천 수만의 대중소 자본가들의 자본을 집중시키고 있는 주식 회사들에서 과거에 대자본가들이 주식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절반 이하 흔히는 3 분의 1만 가져도 충분하였다면 현시기에는 불과 그 10% 정도이면 된다.

이러한 것들은 주식에 의한 그 어떠한 《자본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 자본의 지배가 강화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독점 자본가들과 그 사환'군들이 떠들고 있는 《자본의 민주화》는 주주의 수를 최대한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통해서 유휴 자본을 긁어 모아 독점 자본에게 《증여》하기 위한 데 불과하다.

레닌은 벌써 1913년에 《자본가들의 부의 장성》에서 이와 같은 진상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자본은 이미 오래 전에 사'적 소유의 테두리를 넘어 성장하였으며 주식 기업의 형성에 이르렀다. 수백 수천의 서로 모르는 주주들이 한 개의 기업을 구성한다…대자본은 세계의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는 주주들의 소자본들을 조금씩 자기 자본에 통합시킴으로써 한층 더 강대한 것으로 되였다**》(레닌 전집 제 19권, 236페지). 특히 레닌은 1916년에 《자본의 민주화》에 대한 신화를 비판하면서 부르죠아적 궤변론자들이 떠받드는 《이 주권 소유의 〈민주화〉는 금융 과두 정치의 위력을 더 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 《자본의 민주화론》이 의거하고 있는 다른 론거의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백만 중소 자본가들 속에서 주권이 광범히 보급되고 있고 지어는 로동 계급들까지도 주권의 당당한 소유자, 자본가로서 행세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부르죠아 경제학자들은 《수백만의 미국인을 자본가들로 만드는》 수단인 《값눅은》 주식의 보급에 의한 주주 수의 증대를 《미국 자본주의의 인민적 기초》를 확대하는 뚜렷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리론》들과 주장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나라들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거짓이다. 이것은 《인민적 자본주의의 표본》이라고 자칭하는 미국의 현실을 분석해 보면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미국 실업계 출판물들인 《경제학 노트》, 《일간 민중 세계》 등이 공개하는 바와 같이 이 나라의 주권 소유자들은 의연히 미국의 부르죠아 계층뿐이다. 1956년에 미국에서는 전체 주권 소유자의 62% 이상이 년 5,000 딸라 이상의 소득자들이였으며 1961년에는 그 76% 이상이 년 6,000 딸라 이상의 소득자들에게 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권의 70% 이상은(가치 상으로 보아) 년 1만 딸라 이상의 소득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인민적 자본주의》의 《으뜸 가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전체 세대의 92% 이상의 세대들이 단 한 장의 주권조차도 구경 못 하고 있으며 유가 주권 거래소에는 전체 로동자들의 0.9%만이 주주로 강제 《등록》되고 있을 뿐이며 그것은 전체 주권 가격 총액의 0.2%에 지나지 않는다.

보는 바와 같이 중소 자본가들을 인입하여 주권 수도 일정하게 확대되였으나(그러나 이것은 자본가들의 부의 장성과 그 집중 과정의 촉진을 의미할 뿐'이다) 최저 생계비마저 제대로 얻어

벨 길 없는 로동자들이 주권의 소유자로 되기는 만무하다.

설사 극소수의 로동자들이 얼마 간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본가화》될 수 없다. 그것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로동자도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로동자들과 다름 없이 부르죠아지의 착취를 당하며 자기의 로동력을 판다. 그들은 적은 수의 주권을 가졌다 하여도 기업에 대한 《공동의 소유자》로 될 수 없고 그 운영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례컨대 포드 자동차 회사는 로동자들에게 선거권이 없는 주권을 팔고 있으며 미국 흑색 야금 공업의 가장 큰 독점체인 유나이테드 스테이츠 스틸 코퍼레이숀은 로동자들에게 주권을 판매하는 데 만약 로동자가 일을 그만 두거나 해고되거나 파업에 참가한다면 그에게 리익 배당금이나 리자를 지불하지 않고 그 주권을 무효로 인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은 주권이 광범히 보급되여 모든 사람들 특히는 로동자까지도 《자본가화》되였다는 《리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주식 시장에 중소 자본가들을 대대적으로 인입시켜 주권 수를 확대하는 이것은 《소유의 확산》이 아니라 도리여 그 집중 과정의 급속한 촉진을 의미할 따름이다.

독점체들은 투자를 위한 보충적 화폐 자본을 얻는 데 있어서 대체로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주식 판매에 의한 화폐 자본의 증대와 은행 차금이 그것이다. 주식 판매에 의한 방법은 후자의 방법에 비해 아주 유리하다. 주권 판매로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얻는데 이것은 은행에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차금은 그 자체가 상환되여야 하며 또 현재에 그 리자는 상당히 높다) 각종 간계에 의하여 리윤 분배에서 대주주들이 기본 부분을 점유하며 중소 주주들에게는 거의 차례지지 않는다. 주식 독점체의 두목들은 경기 저락의 결과 리윤이 저하될 경우에는 배당금을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공황으로 인한 리윤 저락의 부담은 결국 중소 주주들과 특히 로동 계급의 어깨에 들씌워지게 된다.

이런 것을 통해서 독점체의 두목들은 공황과·침체의 시기에도 비대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주식 시장에서 중소 주주들을 발견하기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값눅은》 《로동자 주식》을 광고하기 위하여 수백만 딸라를 소비하고 있다.

《자본의 민주화》는 독점 자본주의 시기에 있어서의 자본의 새로운 집적과 집중을 의미할 뿐이며 실제에 있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한 착취를 은폐하는 방법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인민적 자본주의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관리 혁명》에 관한 《리론》이다.

많은 부르죠아 학자들은 《소유 혁명》에 의해서 《자본가적 사회》는 물러 나고 《관리인 사회》가 도래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주식 회사에 대한 지배가 이제는 순수한 사무원인 행정가의 수중에로 넘어 갔으며 그들은 사회적 리해 관계와 지배인의 리해 관계 간에 《절대적 조화》를 마련하는 《번영을 위한 협력》의 조종자라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자본가는 벌써 기업에 아무러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리익 배당금이나 받는 《보잘 것 없는》 일에만 종사하게 됨으로써 자본가의 지배 시대는 사실 상 끝났다는 것이다.

우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 혁명》이 일어 날 수 없으며 도리여 기업에 대한 독점 자본의 지배는 강화되고 있으며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미증유의 규모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지배 관리는 《순수한 사무원》, 《초계급적 행정가》의 수중에 넘어 갈 수 없으며 《관리 혁명》이란 있을 수 없다.

현대 자본주의 나라의 관리인·자신이 자본가의 출신이며 많은 주권의 소유자이며 독점 자본가들로부터 기업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서 실증된다:

오늘 미국에는 350만 명 이상을 헤아리는 이러한 지배인—식객(食客)들이 있는바 그들은 모두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년 소득자들의 계렬에 속하고 있다. 악명 높은 현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포드 자동차 회사 사장이였으며 당시 275만 딸라에 해당하는 주권의 소유자였다. 그러므로 미국 경제학자 페로란자도 미국에서 경제 관리인은 《재벌 가족의 성원이 아니면 기본 상 자산 계급 출신의 상층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독점 자본가들이 직접 생산 관리에 참가하지 않고 자기의 대리인들을 통하여 관리하며 금리 생활자로 전화되였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리 혁명》이나 이 사회가 《자본가적 사회》에서 물러 나고 《지배인 사회》에 들어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현대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부패성 그리고 금리 생활자로서의 자본가들의 말세기적 처세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가장 훌륭한 례증으로 될 뿐이다.

다음으로 《인민적 자본주의론》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소득 혁명론》이다.

이 《리론》에 의하면 《수입의 균등화》 과정에 의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차이는 없어지고 로동 계급의 《자본가화》가 촉진되고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고도의 대중 소비 시대》에 들어 섰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리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동 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 인민이 저금 통장의 소유자들이며 보험 예약자들이고 대주식 회사의 주권의 구매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소득이 벌써 《자본가적》인 높은 경계선에 올라 섰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현실은 이 《리론》이 황당한 거짓이며 보험, 저금, 주권의 구매 등을 통한 이 사회 성원들의 《수입의 균등화》, 《빈부의 차이의 극복》이 실현되고 있지 않으며 또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오늘 미국 저금소들에는 약 1천 200만 명에 달하는 저금자들이 망라되고 있는데 그 금액은 무려 300억 딸라나 된다. 그러나 그의 92% 이상은 미국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사회 계층에 속하고 있다. 월가의 재벌인 록펠러는 총 40여 개의 회사 금융 기관을 지배하고 있고 그 자본은 무려 614억 900만 딸라이며 모르간이 지배하는 회사 총자본은 무려 653억 딸라에 달하고 있으며 듀폰 가족은 주권만으로도 46억 6천만 딸라 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최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만 하여도 록펠러는 35억 딸라, 멜론은 37억 딸라를 각각 훨씬 릉가하고 있는바 이것은 미국에서 100만여 명에 가까운 로동자들의 년간 로임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이것이 《수입의 균등화》 과정에 의하여 로동 계급의 《자본가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미국에서의 수입과 재산의 현 상태이며 빈부의 차이이다.

《인민적 자본주의》의 선전자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수입 혁명》으로 인하여 《고도의 대중 소비 시대》에 들어 섰다고 하는 오늘에 있어서 미국의 현실 하나만 보아도 600여만의 완전 실업자들이 최저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직업도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은 착취와 탈탈의 대'가로 거대한 수입을 얻어 호의호식을 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사회 성원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항상 기아, 빈궁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의 현실은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로동자의 상태는 악화되지 않을 수없다고 한 맑스의 결론 그 대로인 것이며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수입의 균등화》, 《빈부의 차이 소멸》, 로동계급의 《자본가화》란 거짓이란 것을 보여 주며 이 사회에서는 수입과 빈부의 차이가 더 커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상과 같이 부르죠아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제 아무리 현대 자본주의는 《탐욕적》이고 《비인간적》인 19세기의 자본주의와는 달라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생》되였다고 각종의 《혁명론》을 널리 선전하여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 없다.

현시기 자본주의는 《인민적》인 것으로 《변생》된 것이 아니라 더욱 반인민적이며 파쑈화되여 가고 있다. 인민을 착취하지 않는 자본이란 있을 수 없으며 침략과 탈탈을 하지 않는 제국주의란 상상할 수 없다.

리 근 억

근 로 자 제 21 호 (루계 283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11월 3일 발 행 • 1965년 11월 5일

ㄱ—530582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2호 11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5

제 22 호 (284)

1965년 11월 (하)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우리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조선 로동당 창건 20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는 우리 혁명의 전 과정을 계속 혁명의 견지에서 총화하였으며 혁명 발전 도상에서 현시기 우리 인민이 처한 위치와 금후의 과업도 계속 혁명의 립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승리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혁명을 더 전진시키며 새로운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닦은 데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도상에 있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고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많다…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여야 하며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창건 20주년에 제하여》).

이것은 보고에 담겨져 있는 기본 사상의 하나이다. 최후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며 계속 전진할 데 대한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새로운 승리,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조선 혁명 발전의 전 행정은 계속 혁명 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혁명에 주동적으로 참가하며 혁명을 시작한 다음에는 그 최종 목적을 이룩할 때까지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 나가야 하며 이리 하여 종국적 승리를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이것은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 앞에 제기되는 필연적 요구로 된다.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도상에서의 자기들의 모든 승리와 성과를 혁명의 새로운 승리, 종국적 승리를 위한 준비로, 력량 축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속 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활동의 첫 시기부터 조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력량을 부단히 준비하여 왔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혁명 시기부터 벌써 혁명에 가장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이를 령도하였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면서 장차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수행을 위한 전략을 세웠으며 조선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미래를 구상하였다.

우리 혁명의 로정에는 많은 난관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땅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요불굴의 투쟁과 부단한 전진을 계속하였다. 1920년대에 당이 파괴되고 해산된 조건에서도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1930년대에 들어 와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적응하게 민족해방 투쟁을 무장 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항일 무장 투쟁의 준엄한 시련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당면하여 반일 민족 해방투쟁을 전개하면서 이것을 앞으로 조국이 해방된 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력량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혁명 력량을 확대 강화하며 혁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가 축성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반일 민족 해방 투쟁 과정에서 우리 혁명의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핵심이 형성되고 그 주위에 단련된 정치 군사적 력량이 마련되였으며 귀중한 투쟁 경험이 쌓여지고 혁명적 사상과 투쟁 정신의 우수한 전통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위력한 물질적, 정신적 력량이였다.

우리 인민은 이러한 주체적 력량의 축적이 있었음으로 하여 해방 후에 혁명 발전을 지체시킴이 없이 강력하게 추진시킬 수 있었다.

8.15 해방은 우리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는 종식되였다. 그러나 우리 혁명 앞에는 새로운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해방은 나라의 절반 땅에서만 이룩되였고 일제 대신 보다 흉악하고 강력한 적 미제가 새로이 혁명의 적으로 등장하였으며 국토는 량단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혁명을 반대하며 우리 인민의 통일 독립 국가 건설을 반대할 뿐 아니라 북조선에서까지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는 침략 정책을 로골화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혁명의 성과를 계속 공고 발전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혁명의 주체적 력량의 준비 여하에 달려 있었다. 만약 우리에게 준비된 자체의 력량이 없었더라면 해방의 열매는 적에게로 넘어 가고 혁명은 전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항일 무장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단련되고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핵심이 있었고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가 있었으며 혁명 군대의 골간과 풍부한 정치 군사적 투쟁 경험이 있었으며 고귀한 혁명 정신의 전통이 있었다. 이로 하여 우리는 해방 직후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체 없이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할 수 있었으며 당의 령도 밑에 로농 동맹을 공고히 하고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혁명 력량의 결정적 우세를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혁명의 기본 문제인 주권 문제를 성과 있게 해결하고 당면한 혁명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여 나갈 수 있었다.

해방 후 북반부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즉시에 반제 반 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업의 수행에 착수하여 그것을 불과 1~2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철저히 수행하고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 이행을 보장하였다. 이 행정은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전화 발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계속 혁명 리론이 창조적으로 구현되는 로정이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 이행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혁명 력량의 압도적 우세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로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를 전취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되는 조건 하에서만 민주주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에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실시에로 《전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1930 년대 민족 해방 투쟁 행정에서 확립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지위는 해방 후 로농 동맹을 강화하며 민주 통일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더욱 확고히 되였으며 이와 함께 력량 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 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이 무기를 틀어 잡고 토지 개혁을 비롯한 반제 반 봉건 혁명의 과업들을 철저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에로의 계속 이행을 보장하는 유리한 전제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당은 반 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업으로서의 토지 개혁을 수행하면서 분여 받은 땅에 대한 판매와 저당을 금지하고 부농적 요소에 타격을 가하였다. 이것은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막아 놓은 것이였으며 후'날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마련하여 놓은 것이였다. 우리 당은 또한 로동 계급의 확고한 령도권에 의거함으로써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반제적 과업으로 실시된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통하여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해방 직후 1 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실시된 민주주의적 변혁에서 벌써 사회주의에로 나아가기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마련하여 놓은 이것은 우리 당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속 혁명의 원칙에서 일하여 왔는가를 여실히 증명하여 준다.

당은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끝낸 뒤 련이어 사회주의에로 넘어 가는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세계사 상 류례 없는 전쟁을 겪게 되였다. 이 전쟁은 해방 후 우리 인민이 반제 반 봉건 민주주의 혁명에서 이룩한 제반 성과들을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에로 전진하는 도상에서 부닥친 준엄한 시련이였으며 준엄한 혁명 전쟁이였다. 이 전쟁은 자기 력사에서 패전의 례를 알지 못하였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 해방을 맞이한 지 5 년 밖에 안 되는 청소한 공화국과의 실로 대비하기 어려운 싸움이였다. 바로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는 미제를 타승함으로써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고수하였을 뿐 아니라 혁명을 사회주의에로 계속 추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였다. 전쟁은 참으로 우리 당이 얼마나 혁명의 앞길을 과학적으로 내다 보고 북반부에서 혁명 력량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 정당한 로선;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발전

시키며 특히 인민 군대를 창건하고 강화하는 로선을 옳게 세우고 관철시켜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당은 어려운 싸움을 해나가면서도 한편 전후에 혁명과 건설을 급속히 추진시키기 위한 준비도 역시 전망성 있게 진행하였다. 전쟁 시기에 벌써 앞으로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기초 축성을 타산하면서 기계 제작 공업의 토대를 창설하고 민족 간부의 대부대를 육성하며 과학 기술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취한 것은 그 중요한 실례로 된다. 농촌에서도 당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뿐 아니라 전후 사회주의적 개조를 예견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형태인 국영 농목장들과 농기계 작업소들을 확대 발전시키는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우리 당의 계속 혁명의 립장은 전후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 뚜렷이 표현되였다.

우리 당은 전후에 조성되였던 그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던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과업을 제때에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추진시킴으로써 불과 수년 동안에 이것을 완수할 수 있었다.

객관적 정세가 혁명 과업을 일정에 올렸을 때 그것을 정확히 포착하고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는 이것은 계속 혁명의 중요한 요구이다. 전후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의 급속하고도 성과적인 수행은 바로 성숙된 정세를 놓치지 않고 혁명을 정력적으로 추진시켜 온 우리 당 령도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

우리 당은 생산 관계의 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조건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며 공산주의를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는 립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은 착취 계급의 청산, 사회주의 제도의 확립으로써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와 농촌간, 로동 계급과 농민 간에 차이가 남아 있고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에 차이가 남아 있는 한 혁명의 완성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차이들을 없애기 위하여 기술, 문화, 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 사상은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명백히 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이후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혁명의 원칙을 확고히 관철하여 왔다. 이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는 하나의 과업 해결에서 다음의 과업 수행에로, 하나의 혁신에서 새로운 혁신에로 계속 전진하며 계속 투쟁할 데 대한 사상으로 전 당과 인민을 향도하였다.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과정은 곧 우리 인민의 위대한 천리마 행군의 로정이였다.

맑스-레닌주의적 계속 혁명의 립장을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20 년 전의 낙후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부터 강력하고 생기발랄한 선진적인 사회주의 공업-농업국으로 멀리 전진하였다.

우리 당이 계속 혁명의 원칙, 립장을 관철하는 과정은 혁명 발전을 지체시키려는 좌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간고하고도 치렬한 투쟁의 길이였다.

해방 직후 일부 종파 분자들은 혁명을 부르죠아 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는 데로 이끌려 하였으며 또 일부 분자들은 당장에 사회주의 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나섰다. 이것은 모두 다 혁명의 계속적인 발전을 지체시키거나 파탄시킬 수 있는 위험한 편향이였다. 당은 이러한 좌우경적 편향들을 단호히 물리쳤다.

기회주의적 편향은 남북이 분리된 사정과 관련하여서도 발로되였다. 일부 종파 분자들은 조국이 량단되고 남반부에서는 혁명이 지체되고 있는 조건에서 북반부에서만 사회주의에로 넘어 가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혁명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특히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반대하였으며 협동화의 급속한 전진에 당황망조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혁명 기지 로선을 접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였으며 지어는 사회주의 혁명 자체에 대해서까지 반항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우리 당이 농촌 경리의 협동화와 같은 세기적인 변혁을 불과 수년 동안에 승리적으로 완수할 수 있은 것은 당내외의 이와 같은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반항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당은 또한 북반부에서의 혁명의 성과에 만족하고 남반부에서의 혁명과 조선 혁명의 전반적 발전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길 데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경향과도 투쟁하였다. 이것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생활이 점차 좋아지는 데서 나올 수 있은 해이성, 혁명이 오래 계속되는 데서 나올 수 있은 권태증에서 온 편향이였다. 우리 당은 이러한 편향도 단호히 배격하였으며 부단히 경계하였다.

혁명의 전진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는 온갖 좌우경적 편향들과 견결히 투쟁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속 혁명의 사상으로 꾸준히 교양하고 무장시킴으로써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오늘과 같이 위대한 전진을 이룩하게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전진 도상에서의 성과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고 자만할 근거가 없다. 달성한 성과는 종국적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력량의 축적에 불과하며 밑천에 불과하다. 우리는 오직 이 밑천을 계속 확대 강화하면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혁명 도상에 있다. 우리는 아직도 조선 혁명을 끝내지 못하였으며 우리 앞에는 여전히 중요한 혁명 임무가 남아 있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며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우선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은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뒤 혁명을 공산주의에로까지 진척시

킴에 있어서 중심적 과업으로 된다. 우리는 이 3대 혁명 과업을 성과 있게 추진시켜 나감으로써만 사회주의 하에서도 남아 있게 되는 과거 사회의 유물인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차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에로까지 전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북반부에서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북반부에서의 혁명과 더불어 남조선 혁명은 조선 혁명의 불가분의 구성 부분이다.

물론 남조선 혁명은 무엇보다도 남반부 인민들 자체의 사업이며 남반부에서의 혁명 력량의 원만한 준비를 요구한다. 그러나 남조선 혁명은 결코 남반부 인민들만의 사업이 아니다. 남조선 혁명은 전체 남북 조선 인민의 공동의 임무이다. 우리는 북반부에서의 혁명 수행을 전국에서의 혁명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기지 축성으로, 력량 준비로 보고 있다. 북반부에서의 혁명을 완성할 뿐 아니라 남반부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며 나아가서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세계 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다.

조선 로동당과 조선 인민의 혁명 투쟁은 국제 혁명 운동의 일환으로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공동 투쟁과의 밀접한 련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은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대중의 공동의 위업이다. 혁명은 매개 나라에서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총체적으로 국제 자본을 반대하는 련대적 투쟁의 일환으로 된다. 조선 혁명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 맡겨진 국제적 분공이라고 김 일성 동지는 지적하였다.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지닌 세계사적 사명의 공통성과 혁명적 의리로 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투쟁의 무기를 던질 권리가 없으며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여 세계 혁명을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곧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혁명을 계속하며 최후 승리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하고도 전투적인 과업으로 된다.

가장 중요한 투쟁, 결정적인 전투는 앞날에 속한다. 더욱더 력량을 축적하며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준비하여 나가야 한다.

혁명 력량을 준비하며 축적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특히 계속 혁명의 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혁명적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만 혁명을 성과 있게 계속할 수 있으며 당의 전략과 강령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다.

사람들 속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을 옳게 깨우쳐 주어야 하며 또한 앞으로의 혁명적 대사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혁명 사상으로 부단히 무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어떤 간난신고에 부닥쳐도 도중에서 물러 앉거나 혁명 대오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이 끝

까지 지조를 지키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라도 혁명가의 영예를 빛낼 수 있다. 계속 혁명의 사상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킴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그들속에서 과거를 잊지 않게 하고 공산주의 미래를 내다 보게 하며 남조선 형제들과 세계 로동 계급을 잊지 않도록 교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할 때라야만 혁명을 계속하는 데서 위험한 적으로 되는 안일성과 권태증을 물리치고 항상 높은 계급적 각성으로 살며 투쟁할 수 있다. 또한 혁명을 포기하려는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맑스주의적 사상 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교양함으로써만 혁명을 계속 끝까지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혁명 력량을 꾸리고 혁명을 계속함에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은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기본 과업이다. 정권을 잡은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성과를 물질적으로 공고화하며 혁명의 승리적인 계속을 위하여 경제 건설을 반드시 기본으로 틀어 잡고 나아가야 한다. 경제 건설은 국가와 인민의 재부를 증대시키고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할 뿐 아니라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하며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할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경제 건설에서 우리는 우선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여야 하며 로동 행정 사업과 기업 관리를 개선하여 생산에서 파동성을 없애고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여야 한다.

혁명이 심화되고 나라의 재부가 더욱 더 늘어남에 따라 오늘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리는 문제는 우리의 전진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하여 놓은 재부를 더 잘 동원 리용한다면 생산을 증대시키고 인민 생활을 더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막대한 예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도 일'군들이나 생산자 대중을 막론하고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은 비단 소유와 생산에서 주인으로 되여야 할 뿐 아니라 나라와 생산의 관리, 나라의 살림살이의 전반에 대한 자각적인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 요구의 하나이며 오늘 이 요구를 옳게 해결함이 없이는 생산 자체도 빨리 장성시킬 수 없고 혁명을 높은 속도로 전진시킬 수 없다.

평화적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배합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것은 혁명을 계속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미제와의 치렬한 투쟁이 계속 남아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저절로 물러 가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반부의 혁명적 전취물까지도 앗아 내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미제와의 견결한 투쟁을 진행함이 없이 결코 혁명의 계속 및 완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국방 건설을 강화하며 적들의 있을 수 있는 도발에 대처하여 정치 사상적으로 준비되며 현대적 군사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선 전투적 임무이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에 더 큰 힘을 기울이는 것은 당의 혁명 진지를 더욱 굳건히 꾸리고 계속 혁명의 립장을 관철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로동 계급과 그 당은 계속 농촌

을 지원하여 기술, 문화, 사상 기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농민을 로동 계급화하며 농업을 공업의 수준으로 끌어올림이 없이는 결코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근본적 조건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에 대한 전 당'적, 전 국가적 지도와 지원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촉진함에 있어서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에 대한 지지 성원을 강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싸우는 남반부 형제들을 생각하여 혁명을 계속하려는 각오를 굳건히 하고 혁명 과업 수행에서 열의를 높이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며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은 곧 그들에 대한 고무로 되며 지원으로 된다. 오늘 대중들 속에서는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려는 애국 운동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이 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나가며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국제 혁명 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력량을 준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북반부의 혁명 력량과 남반부의 혁명 력량을 발전시킬뿐 아니라 국제 혁명 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혁명 승리의 담보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특히 국제 반동의 괴수 미제와 직접 맞서고 있는 조건에서 오직 국제적 반제 반미 력량과의 통일 단결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만 혁명의 성과적인 전진을 보장할 수 있다. 이 통일 단결은 반제 반미 투쟁을 통해서만 강화될 수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 무엇보다도 미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혁명적 인민들의 편에 굳건히 서서 계속 견결하게 싸워 나가야 하며 이 행정에서 각국의 혁명 력량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현재 미제 침략의 가장 큰 희생자로 되고 있는 웰남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사회주의 진영과 각국의 혁명 력량의 단결을 시위하며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 혁명 력량과 더불어 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 혁명의 승리는 그 만큼 더 앞당겨질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혁명 력량의 준비를 성과 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에로 확고히 전진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 관리 운영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하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 관리 지도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일'군들의 능숙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에게는 지난 시기 당과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창조된 수 많은 재부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나라의 부강 발전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가장 훌륭하게 리용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부과되여 있다.

전후 10여 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우리 인민은 당의 정확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기의 영웅적 로력 투쟁으로 이 땅 우에 수다한 재부들을 창조하였다. 전후 3 개년 계획과 5 개년 계획을 완수하는 행정에서 그리고 7 개년 계획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창조된 이 풍요한 재부에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 있으며 그것은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우리 사회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 있다. 일'군들은 당과 인민 앞에서 바로 이 귀중한 재산을 관리하며 그것을 밑천으로 하여 더 많은 재부를 창조하여야 할 임무를 부여 받은 나라와 인민의 살림'군들이다.

우리 매개 일'군들이 맡고 있는 관리 단위들의 규모는 전례 없이 확대되였으며 그 사업 범위는 비할 바 없이 넓어졌다. 과거 자그마한 단위를 지도하고 관리하던 우리 일'군들은 오늘 현대적 기술 장비를 갖춘 대규모의 단위들을 담당 관리하게 되였으며 매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국가 재산이 위임되여 있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바로 관리 분야에서 일'군들이 자기의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경제 지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첫 시기로부터 항상 생산력 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지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와서는 그것이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지금은 주로 대대적인 기본 건설에 의거하여 생산력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하던 과거와도 다르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축성되고 모든 부문, 단위들이 자립적 경제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 확고히 꾸려진 오늘에 와서 경제 발전의 가장 적극적인 요인은 이미 축성된 경제 토대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며 고정 폰드의 리용률을 급속히 높이는 데 있다. 그 어느 부문에서나 새로운 기본 건설이 없이도 계획화와 생산 조직의 개선을 통하여, 기술 혁신, 로동 행정, 절약 투쟁의 강화를 통하여 생산 발

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며 또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오늘 우리의 경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치차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고리들의 련계가 째여짐에 따라 관리 내부 조직은 비할 바 없이 복잡해졌으며 매개 단위들과 고리들의 의존성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말하자면 땅 속의 광석이 강재가 되고 그것이 다시 기계 제품으로 되는 과정에 경과하여야 할 고리는 훨씬 많아진 반면에 그 시간은 매우 짧게 되였다. 이것은 매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이 더 능숙하게 생산의 모든 요인들과 관리의 여러 측면들을 빈틈 없이 맞물릴 것을 요구하며 또한 관리의 이러저러한 측면을 담당한 모든 일'군들이 자기 사업의 능수가 될 것을 요구한다. 시계의 크고 작은 모든 치차들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라도 자기의 기능을 놀지 못하면 시계가 멎고마는 것과 같이 우리의 크고 작은 경제 부문들과 생산 단위들 가운데서 그 어느 한 고리라도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운전되지 못 한다면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이 저애를 받게 된다.

면밀히 따지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가 못 하는가, 솜씨 있게 관리하는가 그렇지 못 한가, 바로 여기에 우리 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문제가 달려 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이러한 절실한 요구를 해결하는 데 이미 불을 걸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10 차 및 11 차 전원 회의의 기본 정신이 바로 이 문제를 풀자는 데 있었으며 그것을 전후하여 있은 성, 국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 지도 과정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중심적 사상이 이 문제이다.

경제 관리에서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구현하며, 주관주의적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극복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모든 부문에서 과학적인 타산과 세밀한 조직 사업을 할 데 대한 문제 등등 이 모든 요구가 현실에 맞게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은 경제 관리 운영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일'군들의 활동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경제의 객관적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의 고유한 성격에 맞게 근본적으로 혁신하자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우리의 모든 경제 기관들과 기업소들은 대안 체계를 철저히 도입함으로써 경제 건설에서 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동시에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사회주의 경제를 그에 상응한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즉 정치 사업을 선행하여 대중의 창조적 지혜를 최대한으로 인입하는 기초 우에서 과학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체계이다.

대안 체계를 인민 경제의 매개 부문, 단위에서 더욱 철저히 도입하고 그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것은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를 훌륭히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모든 경험이 잘 보여 주었다.

오늘 대안 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자면 무엇보다도 이 체계 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개 일'군들의 능력을 그에 상응한 수준에로 급속히 높일 것이 요구된다. 대안 체계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체계인 것 만큼 수공업적 사업 방법이나 주관주의적 사업 태도로는 그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다. 이 체계의 매개 고리를 담당한 모든 일'군들이 그것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될 때라야만 새 체계는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할 것이다.

실로 오늘 매개 일'군들이 사회주의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 운영할 줄 아는 경제 관리의 능수로 되는 것은 객관적 경제 발전의 요구인 동시에 대안 체계 자체의 절실한 요구로 되고 있다.

❊ ❊

현실의 요구, 대안 체계의 요구에 상응하게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이자면 무엇이 해결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명백히 주어졌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의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 고리인 일'군들의 사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선차적 관심을 돌렸으며 이와 동시에 그들의 경제 지식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이후의 모든 경험은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제고하며 그들 속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는 것이 바로 경제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며 당 정책 집행에서 혁명적 기풍을 발양하며 대중의 지혜를 동원하여 생산과 관리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푸는 기본 담보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일'군들의 사상 관점을 똑바로 세우기 위한 꾸준한 투쟁의 결과 우리는 인민 경제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관리 운영을 사회주의 경제의 근본적 특성에 맞게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생산 내부에 숨어 있던 무진장한 예비를 훌륭히 적발 동원하고 금년도 계획과 7 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혁명적 고조는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제고하는 투쟁 과정에서 이룩한 위대한 결실이다. 제반 사실은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 철저히 관철하며 전반적 경제 관리 지도를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도 계속 일'군들의 사상 관점 문제를 푸는 바로 이 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확신성 있게 보여 준다.

일'군들의 혁명성을 높이는 투쟁은 그들을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 관한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시키는 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일'군들의 혁명성, 당성은 당 정책을 관철하는 실천에서, 우선 오늘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는 경제 관리의 구체적 활동 과정에서 표현되여야 하는 바 우리의 사회주의 경제는 단순한 열성만으로는 성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구체적 실천 활동에서 옳게 타산하며 구현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매개 일'군들의 높은 혁명성,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사업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과 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경제 관리 지도에서 당 정책 특히 당의 경제 정책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 요구와 우리 나라에서 작용하고 있는 객관적 경제 법칙들을 전면적으로 타산하고 그 요구에 맞게 세워진 것이다. 혁명이 심화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당 정책에 담겨지는 내용은 더욱더 심오하여지고 풍부해진다. 이것은 당 정책의 본질을 리해하기 위하여서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도 우리 일'군들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관한 리론과 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당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 관리란 혁명적 열정과 과학적 타산이 밀접히 결합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대중의 높은 혁명성과 과학적 지도가 결합되고 일'군들의 주관적 열성과 객관적 요구가 밀접히 결합되는 조건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계획을 작성하고 그 집행을 조직함에 있어서도, 기술적 지도를 실현하며 자재를 보장함에 있어서도, 로동 행정 사업과 재정 관리, 후방 공급 사업에서도 항상 이 요구가 철저히 관철되여야 한다. 이것은 큰 범위에서 뿐 아니라 경제 관리의 어느 한 개의 자그마한 단위에서도, 어느 한 개의 개별적 측면에서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경제 관리의 모든 단위, 모든 고리에서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 법칙과 로동에 의한 분배 법칙 등 사회주의 하에서 작용하는 모든 경제 법칙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타산하고 그 요구에 맞게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여야만 자기 앞에 부과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의 객관적 범주들인 로동 생산 능률, 원가, 수익성 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조건에서만 경제 관리 운영이 진실로 과학적인 기초 우에 올라 설 수 있는 것이다. 객관적 경제 법칙들과 범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관적 욕망에 의해서만 경제를 관리 운영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본질과 배치되는 현상으로 된다. 로동 생산 능률, 원가, 수익성 등을 타산하지 않고 생산액만 높이려 하거나 고정 폰드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데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는 데만 관심을 돌리는 등의 현상도 사회주의 경제 관리 원칙과는 모순된다.

경제 관리의 매개 고리에서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주동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본질적 특성이며 가장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나라의 온갖 재부와 생산의 모든 요인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하고 생산력 발전의 부단한 높은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여기에 있으며 모든 부문들과 고리들, 전 사회 성원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며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는 객관적 법칙에 대한 맹목성과 정면으로 대치되며 주먹구구식 사업 방

법과는 인연이 없다. 객관적 경제 법칙에 대한 맹목성이 가져 오는 후과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경제 관리가 잘 보여 준다. 더 많은 리윤에 대한 개별적 자본가들의 주관적 욕망이 경제 관리 조직과 운영의 유일한 기초로 되는 자본주의 경제 관리에서는 상시적인 혼란과 랑비가 동반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온갖 사회 경제적 악을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바 여기에서는 전 사회적 규모에서나 개별적 단위에서나 객관적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능동적 활동이 최대한으로 발양된다.

객관적 경제 법칙들과 경제 범주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조금이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인민 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도 성과적으로 동원 리용할 수 없다. 사회주의 건설의 결정적 동력인 대중의 적극적 활동은 객관적 경제 법칙에 대한 능동적 리용에 기초한 것이다. 혁명의 주객관적 요구와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당의 경제 정책은 대중의 혁명적 열의에 목적 의식성을 부여하며 그것이 물질적 결과로 전변될 수 있는 수단과 방도를 가르쳐 준다. 당의 경제 정책을 전개하고 그 집행에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매개 단위 일'군들의 활동이 철저히 과학적일 때라야만 대중의 높은 열의가 진실로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결정적 동력으로 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의 혁명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정치 사업도 매개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의 과학적 내용을 심오히 인식하고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기초 우에서 진행할 때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 관리 지도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일'군들이 누구나가 다 우선 사회주의 경제의 객관적 법칙들과 범주들의 요구를 심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며 나아가서 자기 단위, 자기 사업 범위의 구체적 실정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결합시킬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제 관리에 참가하고 있는 매개 일'군들은 김 일성 동지의 다음과 같은 교시를 더욱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굴의 혁명 투사로 될 뿐 아니라 유능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되여야 하며 혁명 투쟁에서 견결할 뿐 아니라 경제 건설도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경제 지식과 기술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당 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경제 지식을 소유하며 새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다》(《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에 제하여》).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당과 혁명에 대한 자기의 충성심을 다하여 이 교시를 철저히 관철시키는 데 오늘 경제 관리 수준을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가 요구하는 높이에로 끌어 올리는 튼튼한 담보가 있다.

* *

사회주의 경제 관리 운영에 관한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이 학풍을 수립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학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군들이 경제 관리 지식을 풍부히 소유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사상적으로 접수하는 것이다.

오늘 당이 경제 관리 지도 일'군들에게 경제 리론을 많이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매개 사람들의 지식을 더 많이 축적케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공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경제 관리를 전진시킬 수 없고 당이 제기하는 모든 방침을 정확하게 받아 물 수 없기 때문이다. 학습도 단순히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혁명을 위한 일이며 일'군들이 맡고 있는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를 더 쓸모 있게 관리하고 리용하기 위한 일이다. 따라서 학습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며 시간이 많으면 하고 사업이 바쁘면 중단하여도 될 일이 아니다.

또한 경제 지식으로 무장하고 타산이 밝은 사람이 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 지도에 참가하는 사람이면 그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의무이다. 오늘 당은 경제를 지도하는 일'군이라면 누구나가 다 로동 생산 능률, 원가, 수익성 등을 따지고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타산은 부차적인, 단순한 실무적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몇몇 실무 일'군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지배인, 직장장들을 비롯한 모든 기업 관리 일'군들이 타산할 줄 알아야 하며 행정 경제 일'군들 뿐 아니라 당 일'군들도 타산할 줄 알아야 한다. 경제 지식을 소유하고 타산할 줄 알아야 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로부터 명백한 것은 모든 일'군들이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관한 일반 리론과 각 부문 별 경영학 특히는 사회주의 정치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에 정통하는 것을 자기의 제 1 차적 당'적 임무로 인정하고 당성을 발휘하여 이악하게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리론 특히는 사회주의 정치 경제학을 연구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과 밀접히 결부하여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써 먹을 수 있게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의 학습은 실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의 일반적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적용할 수 있게 학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일 일반적 경제 원리를 추상적으로만 학습하였을 경우에는 매개 경제 법칙들과 경제 범주들의 내용은 말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 사업 분야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제기하는지를 모르게 되며 따라서 실천에서는 그 요구를 위반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경제 법칙들과 범주들의 요구를 모르고 있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일'군들은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며 경제 리론 학습을 통하여 객관적 경제 법칙의 요구와 실천을 결합시킬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모든 일'군들이 매 시기 자기 기업소, 자기 단위에 부과된 생산 과제의 기술 경제적 내용을 깊이 파악한 기초 우에서 그 수행을 주동적으로 조직하고 실현할 수 있게 되여야 한다. 즉 어떤 생산 과제가 하달되면 그 수행을 위하여서는 어떤 경제 기술적인 조건이 필요하며, 자기

단위의 실정에서 새로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하여 어떤 조직 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여야 한다.

학습이 이러한 목표에까지 도달되려면 매개 단위에서 토론의 분위기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토론을 통하여 지식을 심화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경제 법칙들의 요구를 더 심오히 리해할 수 있으며 자기 단위의 구체적 실정에서 일반적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매개 단위에서는 자습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에 토론을 밀접히 배합함으로써 학습이 더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한 급 높은 일'군들이 아래 일'군들에게 방식 상학, 조상학을 통하여 경제 리론의 일반적 요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특히 리론과 실천을 결합시키며 매개 일'군들에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된다. 매개 단위에서는 당 정책의 집행 방도와 함께 경제 리론의 요구를 실현하는 방도 문제를 가지고 방식 상학과 상학조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군들에게 훌륭하고 쓸모 있는 지식을 더 많이 주어야 할 것이다.

경제 지식 학습에서는 물론 방법 문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개 일'군들 자신의 학습 열의를 높이는 문제이다. 일'군들 자신이 현실의 요구를 깊이 자각하고 배우겠다는 결심을 굳게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는다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이런 일'군들에게서는 시간 문제도 따로 제기되지 않으며 '추상적으로 학습하는 편향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매개 당 조직들은 학습을 게을리하는 현상과는 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학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이에 학습 조건을 보장해 주는 사업을 배합하여야 한다. 사실 오늘 매개 일'군들의 당성은 중요하게는 그가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보고 평가할 수 있다. 학습은 당원들의 당 생활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될 것이다. 당 조직들은 당원들에 대한 당 생활 지도에서 학습 기풍을 확립하는 문제에 중요한 초점을 돌리면서 이 사업을 주동적으로, 목적 의식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사회주의 경제 관리 운영에 관한 과학적 지식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경제 관리의 능숙한 일'군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 극복과 기술, 문화, 사상 혁명

홍 승 은

계급적 압박과 착취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한 이후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할 데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 하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과 함께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분업의 잔재를 청산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것은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로동자, 농민 및 근로 인테리들 간의 정치-도덕적 통일 단결과 창조적 협조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문제와 관련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관설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전면적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은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포함한 모든 낡은 분업의 잔재를 청산하는 기본 방도로 된다.

1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대립은 사회적 분업의 발전과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발생, 사회의 계급으로의 분렬과 더불어 발생하였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대립은 계급 사회의 전 과정을 통하여 심화되여 왔으며 특히 마지막 계급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며 더욱 첨예성을 띠게 되였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는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대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이 대립의 본질은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착취 계급과 그 대변자들에 의한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에 있다.

원래 로동 그 자체의 자연적 본성은 **<자연 체계에 있어서 머리와 손이 한데 속하듯이 로동 과정에 있어서도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이 통합된다>**(맑스 <자본론> 1의 2, 184 페지)는 데 있다. 로동의 이와 같은 자연적 본성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하여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의 서로 다른 사회적 분업 분야로 분리, 대립되게 되고 량자는 계급 사회에 고유한 착취와 피착취, 지배와 복종의 호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여 왔다. 계급적 압박이 있는 조건에서 근로 대중에게는 오직 고된 육체 로동만이 차례

졌고 오랜 세기를 내려 오면서 인류에 의하여 축적된 과학 및 문화의 고귀한 성과들은 지배 계급들의 재산으로만 되여 왔다. 착취 계급은 경제적, 물질적 수단 뿐 아니라 정신-문화적 수단까지도 독점하고 피착취 대중에게는 오직 자기들의 억압과 착취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정신적 무지와 몽매만을 강요하여 왔다. 그러므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대립은 계급적 대립의 연장이며 그것들 간에 차이를 낳은 전제이다.

로동 계급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대립과 차이를 조성시킨 사회-경제적 기초를 청산하였다. 사회주의 하에서 근로 대중은 주권의 주인으로 될 뿐 아니라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부의 주인으로, 살림살이의 주인으로 됨으로써 모든 물질적, 정신-문화적 복리도 누리게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근로 대중의 정치적 열성과 창발성은 비상히 높아지고 그들이 국가 및 경제 관리 사업에 광범히 인입되게 된다. 그리고 과학, 문화 및 기술이 근로 대중 자신들의 재산으로 되고 그들 자신에 의하여 새로운 과학, 문화와 기술이 급속히 창조된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근로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키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 무대에 참으로 그들의 대다수를 끌어 낼을 가능성을 지어 준다. 인민 속에 있는 이 재능은 아직 손을 대여 보지 않은 무궁무진한 샘인데 자본주의는 이 재능을 대량적으로 유린하고 억압하고 질식시켰던 것이다》(레닌 전집 제 26 권, 500 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결과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대립과 차이를 조건 지은 사회-경제적 원인과 더불어 그 대립이 청산되였으며 각 계급 및 집단들 간의 호상 관계는 새로운 기초 우에서 발전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 및 근로 인테리들의 로동은 동일한 경제적 기초 우에서 진행되는 창조적 활동으로 되였으며 오직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여 호상 동지적으로 협조하는 관계 우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그리 하여 사람들 간의 정치-도덕적 통일은 날로 강화 발전되고 있다.

그런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대립의 청산은 이 분야에 남아 있는 낡은 분업의 잔재를 다 없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그것들 간의 차이는 상당한 기간 남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할 데 대한 문제는 그 량자 간의 대립이 청산된 이후 전면에 제기되는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과업으로 된다.

2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의 기초에는 이 두 로동 간의 기술, 문화, 사상 상 차이가 놓여 있다. 그러므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함에 있어서 그 차이가 기초하고 있는 기술, 문화적 및 사상적 내용과 측면들의 련계를 옳게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산력 특히 기술의 높은 발전 수준은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전제로 된다.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서 이룩되는 생산의 부단한 확대와 개선은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본질적 요구의 하나이며 고도로 발전된 물질-기술적 토대가 없이는 근로자들을 고된 육체 로동의 부담으로부터 해방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기계 공업의 규모를 확대하며 생산 설비, 기계 설비, 기술 공정, 기술 직종 등을 부단히 확대, 개선하고 기계화, 자동화의 수준을 높임으로써만 고된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로동을 기계를 다루고 생산 과정을 관리하는 정신적인 기술 로동으로 전환시키는 과업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와 같이 과거에 산업 혁명을 하지 못 하였고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한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기술 혁명이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게 된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과 기술 혁명을 밀접히 련결시켜 추진시켜 왔다. 그런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튼튼하게 이룩되였으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가 급속히 실현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육체 로동을 정신적인 기술 로동의 수준으로 급속히 접근시킬 수 있는 확고한 물질-기술적 담보로 된다.

기술 혁명의 강력한 추진은 문화 혁명의 병행적인 추진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문화 혁명은 기술 간부를 양성하며 육체 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정신 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 간의 기술, 문화 수준 상 차이를 없애는 기본 공간으로 되기 때문이다. 낡은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고된 육체 로동의 부담을 걸머지지 않을 수 없었던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그들이 과학, 문화적 활동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된 존재로 남아 있은 데 있다. 근로 대중이 과학, 문화 밖에 서 있는 동안은 육체 로동의 낡은 분업의 잔재로부터 벗어 날 수 없으며 고도로 기계화, 자동화되여 가는 기술적 정신 로동에 자신을 적응시킬 수 없다.

우리 당은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병행시키는 방침을 확고하게 견지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나라의 인민 경제를 튼튼한 자립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울 수 있었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 행정에는 수 많은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 과제들이 가로 놓여 있었으며 이 과제들은 근로자들의 비상한 창조적 로력과 활동을 요구하였으며 그 해결을 위한 투쟁은 빛나는 성과로 일관되였다. 이 행정에서 근로자들의 육체 로동에는 새로운 지적 내용이 풍부하게 침투되게 되고 정신 로동과의 융합이 크게 촉진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 과정은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물질-기술적 및 정신-문화적 조건의 동시적 해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과정으로 되고

있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는 문제인 만큼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상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기술, 문화적 조건의 준비는 그 어떤 단순한 기술-실무적 문제로 될 수 없다. 이 과정의 성과는 전'적으로 낡은 것의 반항을 극복 분쇄하기 위한 사상 혁명의 적극적인 추진에 의하여서만 보장될 수 있다. 사상 혁명의 강력한 추진은 기술, 문화 혁명을 추진시키는 힘 있는 담보로 된다. 특히 정신 로동은 오랜 세기를 두고 착취 계급에 의하여 독점되여 왔다. 착취자들은 광범한 근로 대중을 정신 로동 밖에 남겨 두기 위하여 정신 로동에 대한 우상과 신비화를 류포하였고 육체 로동을 천시하는 관념을 조장하여 왔다. 이러한 낡은 관념의 잔재는 그것을 낳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청산된 사회주의 하에서도 각양한 형태로 오래 동안 남아 있으면서 근로자들 특히 청년들 속에서 해독적 작용을 놀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근로자들과 청년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는 데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 왔다. 그런 결과 오늘 근로자들 속에서 육체 로동을 천시하는 낡은 관념과 사상 잔재는 현저히 극복되고 있으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기풍이 확립되고 있다. 특히 오늘 우리 청년들은 농촌, 탄광, 수산 부문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커다란 영예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생산과 기술 혁신의 앞장에 서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낡은 관념의 잔재는 전반적인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저애하며 로동자, 농민 및 근로 인테리 간의 창조적 협조의 발전을 저애한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는 단계에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전면적 투쟁을 예견하고 이 과업 수행을 저애하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 신비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는 대중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낡은 공칭 능력이 타파되고 수많은 현대적 기계들이 우리 로동자, 기술자들 자신의 손에 의하여 생산되였으며 기술 혁신 운동, 창의 고안 합리화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세차게 일어 났다. 그리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 장비가 개선되고 현대화되였으며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손로동 부문이 기계화된 기술 로동 부문으로 전환되였으며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은 급속히 높아지고 그들의 로동에는 지'적 내용이 더욱더 풍부하게 침투되였다. 기술 발전을 위한 이 투쟁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계속 견지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상적 기초의 하나를 이루었다.

우리 나라에서 기술, 문화 혁명의 전면적 수행을 중요한 과업으로 하고 있는 7 개년 계획은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 극복 과정을 현저히 전진시킬 것이며 사상 혁명의 확고한 선행은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강력히 추진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 등을

극복하는 기본 방도로 될 뿐 아니라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기본 방도로 된다.

3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 극복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와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다 같이 낡은 사회에서 조성된 기술, 문화, 사상적 차이에 귀착되는 동시에 이것들은 서로 다른 측면을 갖는 사회적 분업의 각이한 분야의 현상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도시에 비한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적 락후성에 기인하며 그로 말미암아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형태 상에서의 차이, 인민 경제 2 대 부문으로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 그에 상응하여 사회적 생산 체계에서 독자적 지위를 차지하는 계급 간의 차이 등에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형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회적 생산 체계에서 독자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근로 인테리들을 한편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다른 편으로 하는 그들 호상간의 기술, 문화 및 사상 상 차이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로동 계급에 비한 농민의 기술, 문화, 사상 상 락후성에 기인된다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는 기술, 문화 면에 있어서는 근로 인테리들에 비하여 로동자, 농민들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며 사상 면에 있어서는 농민 및 근로 인테리들이 혁명적 로동 계급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추진은 한편으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극복에서 도시-공업-로동자들에 비한 농촌-농업-농민의 기술, 문화, 사상적 락후성을 청산하는 과정으로 되며 다른 편으로는 주로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근로 인테리들의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중요하게는 근로 인테리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혁명적 로동 계급의 수준으로 높이는 과정으로 된다.

만일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일'군들의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일'군들에 비한 기술, 문화 수준 상 차이로만 국한시키고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근로 인테리들의 사상 의식 수준의 제고, 혁명화에 관한 측면을 간과하거나 홀시한다면 그것은 이 문제의 호상 련계에 관한 리해에서 일면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 문제 해결을 저애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 극복에서 중요한 실천적 방도로 되고 있는 과학과 생산의 결합,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 현대 과학과 기술의 생산에의 도입, 창의 고안 합리화 운동 등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놀아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 특히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등'짐 운반 작업,

토공 작업 등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품이 많이 들고 힘든 로동을 기계화해야 하며 농촌에서 밭갈이로부터 김매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손로동을 전면적으로 기계화함으로써 농민들의 고된 로동을 덜어 주어야 한다. 동시에 산이 많은 우리 나라 농촌 지대의 특성에 적합한 기계를 광범히 창안,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으로 이 과업들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로동자, 농민들의 창발성, 열성과 더불어 과학자,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방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 호상간의 창조적 협조와 적극성이 요구되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정력적인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 이 과업 수행에 인테리들을 더 잘 복무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인테리들이 놀아야 할 역할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과 결합됨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로동 계급은 인테리들한테서 지식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며 또한 인테리들은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을 배우고 강한 조직성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배우면서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여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338 페지).

우리 당은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며 로동자, 농민 및 근로 인테리들 간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천리마 대고조의 중요한 일환으로 추진시켰다. 그 결과 근로 인테리들은 자신을 정신 로동의 불구로 되게 한 낡은 분업의 잔재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으며 로동자, 농민들을 기술, 문화적 락후성과 고된 육체 로동의 부담으로부터 해방하는 데 충실히 복무할 수 있는 로동 계급의 인테리로, 열렬한 혁명 투사로 더욱 준비되여 가고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정신 로동에 대한 독점은 청산되고 정신 로동도 사회주의적 로동의 한 부분으로 되지만 오랜 세기를 거친 낡은 사회에서 부식된 사상적 여독은 쉽게 청산되지 않는다. 로동 계급의 위업에 정신 로동을 복무시키기 위한 과정은 정력적인 투쟁을 전제로 하게 된다.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인테리들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도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높은 요구성과 견결하고 장기적인 투쟁이 요구된다. 정신 로동은 그 과정의 견지에서 볼 때도 흔히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참가하는 인테리들 자신의 사상성, 계급성이 높아야지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시종일관 인테리들 속에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그들을 혁명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인테리들은 자신들을 조속히 혁명화함으로써 맡겨진 영예로운 과업 수행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아야 한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함에 있어서 인테리들의 혁명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결코 로동자,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의 제고를 소홀히 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로동자,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인테리들의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고 하여 두 로동 간의 차이가 극복되는 것도 아니다.

농민 및 근로 인테리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로동 계급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로동자,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인테리들의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은 결코 현재의 로동 계급, 현재의 근로 인테리들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 할 것 없이 모두다 현재의 수준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에까지 도달할 수 없으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로동자, 농민 및 근로 인테리들 간의 기술, 문화, 사상 수준 상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우선 농민들의 기술, 문화, 사상 수준을 로동 계급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과정이며 로동자,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근로 인테리들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농민 및 근로 인테리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로동 계급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과정이다. 동시에 이 과정은 최종적으로 로동 계급의 기술, 문화, 사상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는 조건 하에서 기술, 문화, 사상 의식 수준과 정신-도덕적 풍모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면에서 전체 인민을 로동 계급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로동 계급화의 과정으로 특징 지어진다. 전체 인민을 로동 계급화하는 이 과정은 바로 계급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전망적 방도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하다.

로동 계급은 자체의 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급속히 로동 계급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정력적으로 지도 방조하여야 하며 근로 인테리들은 더욱더 자신을 혁명화하여 로동자,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하루 속히 높이도록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또한 로동 계급과 농민들 자신도 과학자, 기술자들에게서 기술, 문화를 배우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로동자, 농민 및 근로 인테리들 간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 발전시킨다면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은 급속히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 극복도 빨리 실현될 것이다.

《정당 정치》로써는 신식민주의의 정체를 가릴 수 없다

성 대 일

미제는 남조선에서 저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정당 정치》로 계속 은폐하려 하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당 정치》는 신식민주의의 통치 수법의 하나이다.

《정당 정치》는 원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부르죠아지가 인민들을 회유 기만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적용하여 온 통치 수법이였다.

《정당 정치》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에로 이행하면서 계급적 모순이 격화되던 시기에 산생되였다. 《정당 정치》는 자본주의 제도 자체의 모순의 산물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며 약육강식의 경제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각 계급 및 그루빠의 리익을 대변하는 여러 부르죠아 정당들이 출현하며 이 정당들 간에 리권과 지배권을 위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시에 착취 계급을 반대하는 근로 인민들의 계급 투쟁이 전개되는 것은 이 제도 자체의 고유한 현상이다.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배 계급 내부의 알륵은 격화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와 같은 고질적인 암을 《민주주의》라는 미사려구로 합리화하려 한다. 그들의 《민주주의》적 구호는 계급적 각성이 낮은 사람들 속에서 흔히 혼돈을 가져 올 수 있는 방패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매력》 있는 구호를 저들의 반동 통치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죠아 정당들 사이에 벌어지는 권력을 위한 투쟁을 《민주주의》로 묘사하면서 《정당 정치》를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도라고 찬양하여 왔다.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제가 찬양하는 《정당 정치》는 부르죠아 독재를 미화 분식하는 장식물에 불과하다. 그것은 《정당 정치》가 독점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부르죠아 정당들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데 있다.

독점 자본가들은 《정당 정치》에 민주주의의 외피를 씌우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당 정치》의 주요한 형식은 《량당제》와 《다수당제》이다.

《량당제》에서는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등 중요 명맥들을 장악한 두 개의 부르죠아 정당들이 교대로 국가의 주권을 장악 유지하는 것이 통례로 되여 있다. 이 《량당 제도》 하에서는 두 개의 중요 부르죠아 정당들이 지배권을 독점하고 저들의 통치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로동 계급의 정당과 민주주의적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려고 책동한다. 그러면서도 독점 자본가들은 두 개의 부르죠아 정당들 사이에 국가

주권이 바뀌는 것을 마치 《민주주의》의 결실인듯이 사태를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 주권이 정당들 사이에 바뀔 때마다 인민들의 생활에서나 국가 사회 제도 자체에 그 어떤 근본적인 변혁이나 일어 날듯이 떠들면서 인민들에게 부르죠아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려 한다. 그러나 《량당제》 하에서 부르죠아 정당들 사이에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은 독점 자본가들이 국가 주권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넘겨 쥐는데 지나지 않는다.

《량당제》가 이러할진대 《다수당제》는 더우기 례외로 될 수 없다. 이 량자들 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량당제》는 두 개의 중요 부르죠아 정당들이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이라면 《다수당제》는 여러 개의 부르죠아 정당들이 리권과 지배권 쟁탈전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결국 《정당 정치》를 실현하는 형식인 《량당제》나 《다수당제》나 할 것 없이 그것은 인민들에게 부르죠아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시키고 부르죠아 독재를 미화 분식하는 장식물에 불과하며 동시에 로동 계급의 정당을 비롯한 민주주의 정당들의 정치적 무대에로의 진출을 억제하는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부터 《정당 정치》를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려는 목적은 명백해진다.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제가 《정당 정치》를 고창하는 것은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억제하고 보다 안전한 통치 체제를 확립하며 부르죠아 독재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례는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직접 찾아 볼 수 있는바 이 나라에서는 19 세기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의 사이에 계속 정권 교체가 진행되면서 《정당 정치》가 실현되여 오고 있다. 이 기간에 《공화당》은 36 년 간, 《민주당》은 20 년 간 련속 집권하였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그 어떤 새 제도의 탄생을 보여 줄듯이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는 약속이나 선전과는 반대로 미국은 여전히 자본주의, 제국주의 그 대로 남아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전까지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정당 정치》를 자국에만 국한시켰다.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는 《정당 정치》가 아직 문제로 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총독》이나 《고등 판무관》 등을 통하여 식민지 예속 국가들을 직접 통치하였는바 그것은 이 나라 인민들의 계급적 각성이 아직 그리 높지 못한 사정과 관련되여 있었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사회주의 진영의 출현과 그 위력의 장성,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에 따르는 피압박 민족들 속에서의 비상한 계급적 각성은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식민지 나라들에서도 종전의 낡은 수법으로써는 저들의 지배 체제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 하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 정치》는 종주국에서 뿐 아니라 식민지 나라들에서도 통치 수법으로 적용되게 되였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괴뢰 정부를 조작하고 《정당 정치》를 운운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량당제》 체제를 확립하려고 발광하는 것도 그 실례의 하나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실현》되면서 있는

미제의 《정당 정치》는 본질 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와 다른 것이 없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총독》 정치를 실시하였는데 오늘 미제는 괴뢰 정권을 앞잡이로 리용하여 더 음흉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통치한다는 형식 상 차이 뿐이다. 그러므로 미제가 남조선에서 펴고 있는 《량당 제도》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당 정치》 일반이 가지는 반동성에다 신식민주의의 교활성이 더 첨가된 악랄한 통치 수법이다. 여기에 이 《량당제》의 본질이 있으며 특성이 있다.

남조선에서의 《량당 제도》는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반동적 보수 정당의 일당 독재를 가리는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식민지 통치의 정치적 지반인 친일, 친미 주구들과 지주, 예속 자본가 등 반혁명 세력을 규합하여 《한국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개의 반동적 보수 정당들을 조작하였다. 이 정당들을 지반으로 하여 미제는 괴뢰 정부를 조작하였으며 1951년 12월에는 《자유당》을 만들고 그 후 《민주당》을 조작함으로써 《량당제》 체제의 형식을 갖추었다.

미제는 《자유당》과 《민주당》을 전면에 내세우고 리권 분배와 지배권 쟁탈을 위한 《국회》 내외에서의 투쟁, 선거전 등 사말적인 《정치 투쟁》을 벌리게 함으로써 인민들 속에서 마치 그 어떤 《민주주의》라도 실현되는듯한 환상을 주려고 획책하였다. 《자유당》은 미제의 이러한 술책에 장단을 맞추면서 《민주당》과 기타 보수 정당들의 활동에 제재를 가하며 혁명 력량을 말살하기 위하여 광분하였다. 《자유당》이 저들의 독재 체제를 공고화하며 장기적인 집권으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보다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악하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선거를 날조하였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리 하여 《자유당》은 미제가 꾸민 《량당 제도》라는 미명 하에 10여 년간의 일당 독재와 리 승만 개인 전제의 전횡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유당》으로부터 오늘의 《민주 공화당》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의 모든 집권당의 정책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가 떠드는 《량당 제도》라는 것은 그들이 조작한 집권 당의 일당 독재와 개인 전제의 전횡을 가리는 위장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찬양하는 《량당 제도》는 또한 새로운 주구들을 양성하는 《부화기》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적 사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배 계급이 리용하는 통치 수법의 반동성은 그들의 독재 체제가 혼란된 시기에 로골적으로 표현된다.

미제가 고창하는 《량당 제도》의 본질은 4월 인민 봉기를 계기로 하여 명백히 드러났다.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인 4월 인민 봉기에 의하여 리 승만 괴뢰 정권이 붕괴되고 《자유당》이 해체되자 미제는 당시까지 야당 행세를 하여 온 《민주당》을(저들이 기도한 대로 제때에) 여당으로 내세웠다. 이리 하여 미제는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미제는 4월 인민 봉기로 하여 《자유

당》이 파산 상태에 이른 조건에서 새 여당인 《민주당》에 《대립하는》 야당 조작의 필요를 절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 하여 미제는 《민주당》의 분파를 중심으로 《신민당》이라는 보수 야당을 조작함으로써 《량당제》의 체제를 즉시 수습하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술책을 꾸미면서 미제는 정당들 사이에 국가 주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여당이 출현함으로써 마치 남조선에 그 어떤 사회 정치적 변혁이나 일어 날 듯이 인민들을 기만하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와 같은 기만적 수법은 새 생활, 새 정치를 요구하는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투쟁에 의하여 분쇄되고 말았다.

미제가 4월 인민 봉기 이후에 감행한 책동은 《자유당》 대신 《민주당》을 여당으로 내세우고 또 앞으로 《민주당》이 파산되는 경우 《신민당》을 여당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식민지 통치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였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여당을 조작하고 새로운 집권당을 마련하며 야당을 통합하는 것은 이러한 술책과 관련되여 있다.

미제가 떠드는 《량당 제도》라는 것은 결국 어느 한 주구에게 려망을 집중하는 한편 필요한 때에는 다른 괴뢰들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새로운 집권 세력의 정치적 지반을 미연에 구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남조선에서 미제는 《량당 제도》를 새로운 주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리용할 뿐 아니라 군사 파쑈 테로 통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파쑈 독재는 대립된다. 그러나 남조선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파쑈는 본질 상 같은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 있다.

군사 정변 후 남조선은 상시적인 계엄 상태에 있으며 전대미문의 파쑈적 폭압과 탄압이 감행되고 있다. 그런데 미제는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량당제》가 실시된다는 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파쑈 테로 통치를 《량당 제도》의 의상으로 가리기 위하여 교활한 연극을 꾸미였다. 미제는 파산된 《정당 정치》 체제를 수습할 목적으로 《민주 공화당》을 조작하고 여당에 대응하는 야당을 만드는 한편 파쑈 테로 통치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하여 《민정 이양》이라는 기만극을 꾸미였다. 이 기만극의 막후에서 미제는 남조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저들과 사전에 합의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들은 《정당 등록법》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만을 허용한다고 조문화하였다. 이것은 결국 정당이 존재하자면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충실하며 파쑈 테로 통치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제는 또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서는 《대통령》, 《국회 의원》으로 될 수 없게 《헌법》에 규제하여 놓고 모든 정치 활동이 정당 체제를 떠나서는 진행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민주주의》 실현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객관적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의 《량당 제도》는 파쑈 테로 통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서 미제의 식민지 군사화 정책을 적극 실현하며 그것을 가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파쑈 테로 통치를 《량당 제도》로 분식함으로써 저들의 뜻대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자유당》과 《민주당》, 즉 집권 당이 파산되고 주구들이 교체되는 것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미제의 기만 술책을 점차 깨닫고 투쟁의 예봉을 배후 조종자—미제에게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제와 주구들은 《량당 제도》가 마치 남조선 사회에서 그 어떤 합법칙적인 현상이나 되는듯이 《리론》적으로 인민들을 납득시키려고 꾀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20 세기 20 년대에 류행된 켈젤의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라는 《리론》이 수입되여 《량당 제도》를 《중용 정치》와 《능률 정치》로 미화 분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중용 정치론》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국민의 여론을 종합한 다수파와 소수파의 의견을 타협》시키는 것이다.

《중용 정치론》에서 말하는 《다수파》와 《소수파》라는 것은 미제가 조작한 보수 량당을 말한다. 이것은 증명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소수파》요, 《다수파》요 하는 것은 주구들의 이러저러한 그루빠를 념두에 둔 것이였다. 또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실현하는 괴뢰 도구에 불과한 보수 량당이 종합한다는 《국민의 여론》이란 소수 특권 계급의 의사이며 여기에는 인민의 진정한 목소리가 반영되여 있지 않다. 더우기 파쑈 테로 통치가 지배하는 남조선에서 인민의 여론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중용 정치론》은 그 자체가 《량당 제도》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다.

이 《리론》은 《량당 제도》가 《국민의 여론》을 종합한 두 개의 정당이 타협을 실현하고 《고루한 반동 세력과 과격한 혁명주의자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리상적인 《중용 정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한다. 론의할 여지 없이 이 《리론》이 추구하는 목적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혁명적 당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고 한줌도 못 되는 지주, 예속 자본가, 반동 관료배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들이 지배권을 차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데 있다. 남조선의 현 사태는 《중용 정치》가 이른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량당 제도》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남조선에서 《량당 제도》를 미화하는 다른 하나의 《리론》은 《능률 정치론》이다.

《능률 정치론》에 의하면 《량당제》는 집권한 제 1 당이 립법과 행정, 사법을 완전히 장악하고 《과감하게 정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률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리론》이 로골적으로 일당 독재와 파쑈 테로 통치를 변호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일당 독재와 개인 전제 정치가 계속되였으며 《과감하게 정책을 실시》한 집권 당치고 파쑈 테로 통치를 감행하지 않은 정당이 없었던 남조선을 달리는 묘사할 수 없는 것이다.

《능률 정치론》은 결국 파쑈 테로 통치를 《량당 제도》라고 파렴치하게 변호

하며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을 합리화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제가 《중용 정치론》과 《능률 정치론》을 가지고 《량당 제도》와 파쑈 테로 통치를 변호하려고 하나 그들이 추구하려는 목적은 결코 감추어질 수 없다.

미제가 추구하는 것은 침략자의 정체를 《량당 제도》로 은폐하자는 데 있다. 또한 미제는 《량당 제도》를 통하여 민주주의 정당의 출현과 이 정당들의 정치적 무대에로의 진출을 억제하며 인민들을 회유 기만함으로써 남조선을 영원히 강점하자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제가 남조선에서 《량당 제도》를 확립하려고 발광하나 그것은 어리석은 시도이다.

어떤 제도를 막론하고 그것은 정당이나 통치 계급의 주관적 욕망에 의해서 또는 외부 세력의 강요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 경제 발전에 따르는 계급들 간의 력량 판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남조선의 반동적 보수 정당들은 자체의 계급적 력량의 장성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괴뢰 도구이다. 이러한 정당들이 독자적인 정치적 리념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은 뻔하다. 《량당 제도》를 실현하는 반동적 보수 정당들이 무능한 반면에 인민들의 혁명 력량은 국내 반 혁명 세력에 비하여 우세하다. 혁명 력량이 반동 세력에 비하여 우세하고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특히 보수 정당들이 불안과 동요, 공포에 떨고 있는 조건에서 《량당 제도》는 결코 미제의 뜻 대로 확립될 수 없다.

최근 남조선 인민들과 인테리들, 청년 학생들 속에서는 《중요 정당들이 내세운 정책들 간에서 우리는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보수 여야간의 뚜렷한 리념 없는 공박전에 이제는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사회 밑바탕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사태 발전은 미제가 꾀하는 《량당 제도》는 물론 그 어떤 회유 기만 술책으로써도 인민들을 속일 수 없으며 따라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 체제는 종국적으로 파탄을 면치 못 하리라는 것을 보여 준다.

미제의 군사화 정책에 복무하는 남조선 재정

김 광 수

최근 남조선의 재정 금융계에는 파국적인 위기가 닥쳐 오고 있다.

생산 부문으로부터 류통 부문에로 자금이 대량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류통 수로에는 전례 없는 혼란이 조성되여 재정 금융 체계가 뒤흔들리고 있다. 통화는 계속 팽창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달아 오르고 있다.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얼마 전에 은행의 금리를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이러한 위기와 혼란에서 벗어 나려 하였으나 형편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재정 금융계의 혼란은 오늘 상시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 재정 금융계의 만성적인 혼란은 각종 사회 경제적 무질서를 유발하며 나아가서 인민 생활을 나락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남조선 사회 경제 생활의 모든 령역을 휩쓸고 있는 위기, 침체, 파괴 등은 그 모두가 재정 분야에 대한 미제의 예속화 정책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재정은 그 나라 살림살이의 밑천이며 명맥이다.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자들은 타국에 대한 예속과 지배를 실현함에 있어서 례외 없이 그 나라의 재정을 거머쥐는 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재정 명맥을 틀어 쥐고 자기들에게 철저히 예속시킨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 정책은 거의 모두가 재정 공간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미제에 예속된 남조선 재정이 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해명하며 그 파탄상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조국 남반부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본질을 폭로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남조선 재정에 대한 미제의 예속화 정책의 특징

남조선에서 재정이 노는 역할과 기능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 재정 금융 체계에 대한 미제의 예속화 정책의 특징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제의 남조선 재정에 대한 예속화 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과거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다른 것이 없지만 그것이 시종일관 교활하

고 악랄한 신식민주의적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 특성이 있다.

이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후 폭력적으로 강탈하였던 일체 재정 경제 명맥을 쌍무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재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 시기에 《점령군》의 명의로 모든 동산, 부동산을 총검으로 강탈하였다. 재정 명맥도 《포고령》 한 장으로 《미 군정》에 종속시켰다. 《군정》은 사실 상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총독 정치였다.

《군정》 종식 후 미제는 총검으로 괴뢰 정부를 날조하고 그것을 침략 정책을 가리는 병풍으로 삼았다. 미제는 이와 같이 신식민주의 방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남조선 재정 명맥에 대한 종국적인 예속 과정도 이에 적응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제와 괴뢰 정부 간에 재정 경제 분야에서 체결된 모든 《협정》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자는 데 있었다. 사실 상 이러한 협정들은 미제가 《군정》 시기 획득한 권한을 새로운 조건에 맞게 재확인하는 것이였으며 보다 가혹한 예속을 조건 짓는 책동이였다.

례컨대 괴뢰 정부 조작 직후 체결된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남조선 괴뢰 정부는 《재조선 미 군정청이 수립한 정책을 계승》할 것이며 《재조선 미 군정청 또는 남조선 과도 정부 일체의 협정, 법규, 법령 및 규칙을 전'적으로 계속 실시할 것을 협약함》(제 11 조)이라고 되여 있다.

그 후 《한미 경제 및 기술 원조에 관한 협정》에 이르기까지 미제가 괴뢰 정부에 강요한 허다한 《협정》들에서는 기왕의 권한을 보다 가혹한 조건으로 보강한 데 불과하다.

남조선 재정에 대한 미제의 예속화 정책의 특성은 둘째로, 《원조》라는 간판 밑에 재정 구조에 침투하고 그것을 통하여 남조선 재정 자금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데 있다.

남조선 재정 구조에 대한 《원조》의 침투는 미제의 신식민주의 통치의 중요한 일환이다. 미제는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 재정과 그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지배와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정 자금의 용도에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

남조선 재정 구조에 대한 미제의 《원조》 자금의 침투는 《대충 자금》의 형식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른바 《대충 자금》이란 《원조》 물자를 남조선 시장에서 판매한 대금이다.

미제는 이 《대충 자금》을 괴뢰 정부 예산에 편입시킴으로써 남조선 재정 예산 전반을 좌우하는 공간으로 리용하고 있다.

《대충 자금》의 규모는 남조선에서 재정 사정이 곤난하고 인플레가 심해지면 물동량의 증가 없이도 대폭 증대되는 만큼 미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마다 일방적인 환률 인상으로 《대충 자금》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결과 남조선 재정 예산은 남조선 인민들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자금》의 첨부 없이는 편성할 수조차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조선 재정 자금 전체가 《원조》인듯한 환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대충 자금》은 남조선 재정 구조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위치를 오르내리게 되였으며 이를 통하여 미제는 남조선 재정 전반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충 자금》의 관리를 구실로 남조선 재정 금융 체계에 대하여 감행하고 있는 미제의 지배와 통제는 우선 남조선 재정의 기본으로 되고 있는 《일반 재정》(《일반 회계》, 《경제 개발 특별 회계》, 《대충 자금 특별 회계》, 이전금)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들은 《일반 재정》 중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징수하여 편성하는 《일반 회계》를 리용하여 인민 수탈을 강요하며 자금의 지출을 군사적 부면에 치중하고 비군사적 부면에 대하여서는 고도의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제는 《경제 개발 특별 회계》 자금 전반을 지배 통제함으로써 그 자금이 잉여 상품 반입 증대와 미국 독점 자본의 치부에 유리하게 리용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충 자금》을 통한 지배는 《일반 재정》 이외에도 무수한 《특별 회계》들과 지방 재정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처럼 《대충 자금》은 남조선 재정 체계 전반과 재정 회계 전반을 지배 통제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 《대충 자금》은 재정 부문 이외에도 신용, 산업, 류통 등 모든 부문에 침투하여 자본을 증식하고 있다.

미제에 의한 남조선 재정의 예속성은 그 재정 체계의 구성에서도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재정을 저들의 식민지 군사 기지화 정책에 유리하게 리용할 목적으로 재정 체계 전반을 자기들의 통치 하에 철저히 종속시켰다.

즉 괴뢰 정부 재무부와 남조선 재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일반 재정》 그리고 《특별 회계》, 중앙 재정 및 지방 재정 등 모두가 《주한 미 국제 개발처》와 그 지령을 집행하는 《한미 경제 협력 위원회》에 종속되여 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의 재정 체계는 미제의 지령이 신속 민활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피라미트식으로 꾸며졌다.

미제는 이러한 재정 체계를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략탈과 군사화 정책을 적극 추진시키고 있으며 남조선 사회 경제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남조선 재정은 침략과 략탈의 수단

미제는 남조선 재정 체계 전반을 자기들에게 예속시킴으로써 무엇보다도 저들의 군사 기지화 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괴뢰 정부의 재정을 완전히 자기 수중에 틀어 쥐고 그 예산을 미국 점령군과 방대한 괴뢰 군대와 파쑈적 통치 기구를 유지하는 데 전’적으로 충당하고 있다>

(김 일성 선집 제 5 권, 168 페지).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민지 군사화 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자본을 증식하는 《전쟁 영업》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군사화 정책은 군비의 대대적인 팽창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방대한 군비를 짜 낼 것을 요구한다. 남조선 재정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전’적으로 복무하

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 재정을 자기들의 군사 부속물화하는 수단으로 전'적으로 리용하고 있는 것은 그의 침략적 본성과 함께 2 차 대전 후 그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위기와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 2 차 세계 대전으로 미국의 군수 공업은 급격히 팽창되였으나 그로부터 생산된 군수품은 실현되기도 전에 전쟁이 종식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그들로 하여금 전후 첫 시기부터 군수품을 실현하는 시장 탐색에 혈안이 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남조선을 자국의 경제가 처한 공급과 수요 간의 부조화를 극복하며 나아가서 잉여 군수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지로 만들고 자기들의 전쟁 정책의 권내에 끌어 들이였다.

사실 상 미국 독점 재벌들은 남조선에서 값눅은 로동력과 싼 원료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직접적인 자본 투자는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미제는 남조선에 각종 《원조》의 이름으로 잉여 상품을 투입하고 그의 대'가로 군비 확장을 강요했으며 남조선을 철저한 식민지 공급 시장으로, 미국의 군사 경제의 부속물로 전락시켰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략탈한 100여 억 딸라 중 85%를 주로 군사비 부담을 통하여 획득하였다는 하나의 사실만 보아도 식민지 군사화 정책의 엄중성을 엿볼 수 있다.

남조선 재정이 미제의 군사화 정책에 철저히 복무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출 순위에서 우선 찾아 볼 수 있다. 남조선 재정 지출은 괴뢰군 유지비, 《일반 행정비》, 《재정 투융자》의 엄격한 순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명백한 것처럼 남조선 재정 지출의 절대적인 우선권은 군사 필요비에 부여되고 있다.

남조선 재정 지출에서 마지막 순위를 차지하는 《재정 투융자》 역시 순 사회적 재생산 부면에 돌려지는 자금은 아니다.

남조선에서 재정 자금이란 전'적으로 미제의 침략 정책 실현에 리용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괴뢰군과 괴뢰 경찰 및 파쑈적 통치 기구 등을 유지하는 데 괴뢰 정부 재정 총액의 83% (1949~1962)가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미제의 군사 부속물화 정책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괴뢰군 육성비이다.

이 비용은 남조선 재정 지출 총액의 40% (1949~1962)에 달하고 있다.

그들은 괴뢰군 육성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압박을 가중함으로써 식민지 략탈 정책을 실현하며 다른 편으로는 자들의 대외 침략 정책의 대포'밥을 마련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미제는 남조선에서 70만의 괴뢰 군대를 육성함으로써 자기 나라 병력의 비대화를 가리고 있으며 특히는 자들의 《국방 예산》을 철저히 절약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괴뢰군 1 명당 유지비가 세계에서 가장 값눅다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한 국회 의원은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하였다:

미국 병사 1 명당 년간 유지비는 해외에서 6,600 딸라, 서부 독일 병사 1 명당 유지비는 2,504 딸라, 서반아 병사

는 520 딸라, 이란 병사는 354 딸라인데 남조선 병사는 불과 177 딸라이다.

또 다른 한 계산에 의하면 미국이 남조선에서 괴뢰 군대 수 만큼 미국 병사를 주둔시키자면 년간 약 40억 딸라 이상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처럼 그들은 남조선에서 괴뢰 군대를 대대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방대한 군비 부담을 남조선 인민의 어깨 우에 들씌우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사회의 모순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제는 괴뢰군 유지비 이외에도 사회적 모순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파쑈적 경찰 폭압 기구의 유지와 증설에 방대한 규모의 자금을 돌리고 있다.

남조선 재정 지출의 30%(1949~1962)가 바로 이러한 목적에 리용되고 있다.

괴뢰군 유지비와 함께 아무런 사용 가치도 증대시키지 않는 이러한 비생산적 지출은 남조선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장성하고 있다.

1949~1962년 간에만 하여도 괴뢰군 유지비는 819 배, 괴뢰 사법 경찰비는 3,028 배로 각각 팽창하였다.

비생산적 지출의 급격한 증대는 필연적으로 물질적 생산 부문에 대한 자금 지출을 억제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남조선 위정자들은 사회적 재생산 부문에 대한 예산 지출 항목을 설정하고 있지만 그 자금액이란 총예산의 불과 6%(1949~1962)이다. 이야말로 명목 상 유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실제로 사회적 재생산 부문에 다 돌려지는 것은 아니며 군사적 목적에 거의나 리용되고 있다. 사실 상 그것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사회 시책 부문인 교육, 보건에 대한 보잘 것 없는 지출도 역시 군사 침략적 목적에 거의나 탕진되고 있다.

미제는 재정 명맥을 통하여 군비 팽창 정책을 강요하는 한편 그것으로 남조선 경제의 종합적 지배를 달성하고 있다. 미제의 수중에 남조선 재정이 장악되여 있는 조건 하에서는 경제 부면에 지출되는 자금이 군비의 압력으로 극히 보잘 것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생산 규모의 조절자로, 분배와 소비의 조절자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남조선 재정이 미제의 군사화 정책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은 증대되는 재정 지출을 메우기 위한 수탈의 악랄성에서도 명백히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국민 소득이 년년이 답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분배 몫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유리하게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데서 표현된다.

국민 소득의 재분배 몫을 보여 주는 재정 규모는 1949년에 비하여 1955년에는 205 배, 1958년에는 280 배, 1962년에는 582 배로 장성하였다. 그런데 국민 소득은 1953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55년에는 2.4 배, 1959년에는 4.7 배, 1962년에는 6.7 배 장성한 데 불과하다. 그런데 국민 소득의 이러한 장성조차 오직 통화 팽창으로 인한 물가의 급격한 등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전자는 기하 급수적으로 장성했고 후자는 명목 상 산수 급수적으로 장성했다. 이 사실은 남조선에서 국민 소득이 답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규모적인 재분배를 통하여 주민들이 가혹하게 수탈 당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제와 남조선 지배층들은 저들에게 유리하게 국민 소득의 재분배 몫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세, 공채, 인플레와 《원조》 및 《특별 회계》 등 각종 경제 외'적 수탈 공간을 다 리용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에게 들씌워지고 있는 이러한 수탈 기구들은 그 가혹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남조선의 현 위정자들이 조세 공간을 리용하는 방법 하나만 들어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세 정책의 특징은 직접세에 비하여 간접세의 비중이 대단히 높으며 직접세의 경우에도 세률이 매우 높고 세액 규모가 유달리 큰 데 있다.

조세 구성에서 간접세는 무려 60~70%를 점하고 있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간접세는 대중의 소비 대상에 부과됨으로써 최대의 불공평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부자에게는 특권을 만들어 주면서 그 모든 중압을 빈자에게 부담시킨다**》(레닌 전집 제 5 권 2 분책, 54 페지).

실로 간접세는 대중 소비 상품 가격에 첨가된 세금으로써 근로자들의 호주머니를 강도적으로 털어 내는 수탈 공간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생활이 곤난하면 할수록 더욱더 시장 경제에 얽매이게 되며 따라서 인민들의 어깨에 들씌워지는 간접세의 부담은 보다 무거워지게 된다.

남조선 통치배들은 또한 각종 조세법을 부단히 개악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수탈 목적을 교묘히 달성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예속 자본가들에게는 면세, 세률의 경감 등 특전을 주고 그 부담을 부단히 근로 대중의 어깨 우에 들씌우고 있다. 인민 대중은 지어 자기들의 소득을 손에 넣기도 전에 징수하는 원천세와 기타의 세 징수 제도에 의하여 소득의 태반을 뜯기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금년도만 하여도 1949년에 비하여 실로 2,172 배나 증가된 630억 원의 막대한 금액을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강제로 수탈 당하였다.

미제와 그 위정자들은 또한 각종 공채를 람발하는 방법으로 남조선 인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공채는 지배 계급들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 나며 침략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방대한 화폐 자금을 주민들로부터 흡수할 목적 밑에 발행하는 국가 채무 증서이다.

공채는 원금과 리자금의 상환을 진세로 하는 만큼 그 원천은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조세에 두고 있다. 이것은 공채가 많이 발행되면 될수록 그 만큼 주민 수탈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에서 공채 발행고는 1949년에 비하여 1962년까지만도 무려 350 배나 격증하였다.

남조선 통치배들은 불환 지페를 대량 람발함으로써 또한 인민들에 대한 략탈을 보충하고 있다. 아무런 담보도 없는 화페의 람발은 남조선에서의 화페 가치를 저락시키며 인플레를 더욱더 야기시키고 있다. 1964년 10월 말 현재 남조선에서 은행권의 발행고는 1955년에 비하여 4.1 배나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지페는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다만 류통 수단의 기능에 있어서 금화를 대신한다. 따라서 지페가 얼마 발행되든간에 그것은 상품

류통에 적응한 금의 량만을 대표한다.

남조선 화폐(원)는 원래 금의 담보가 없다. 게다가 군사 지출을 보충하기 위하여 화폐 람발이 계속되고 있다. 불환 지폐의 람발은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 오는 만큼 인민들의 소득을 강제적으로 재분배하는 수탈 행위이다.

또한 남조선 인민 대중은 미국의 잉여 상품의 투입으로 무용한 소비 지출을 강요 당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만일 남조선 인민들이 국내 상품으로 소비 생활을 보장 받는다면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비 지출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남조선 통치배들은 이 밖에도 10여 종이 넘는 《특별 회계》 등의 제 공간을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수탈을 감행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미제는 남조선에서 침략과 략탈 정책을 실현할 목적 밑에 모든 재정적 공간들을 다 리용하여 인민 대중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 재정이 미제의 략탈과 군사 기지화 정책 실현의 도구로 철저히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예속된 재정의 피치 못할 후과

미제의 식민지 군사화 재정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모든 사회 경제 생활은 심한 혼란 속에 빠지고 있다.

팽창된 군비의 부정적 영향과 사회 경제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의 상대적 축소로 하여 계속되는 재정적 위축은 남조선의 사회 경제 분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괴뢰 정부는 해마다 예산을 세우지만 그 자주성이란 털끝 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 예산 적자의 무진적인 팽창, 외화의 고갈, 국가 부채의 증대—바로 이러한 것들이 미제에 예속된 남조선 재정의 현 실태이다.

얼마되지 않는 경제에 대한 자금마저도 미제의 뜻 대로 매판 자본가들과 지주의 손에 집중되여 민족 공업을 부단히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남조선에서 면방, 제분, 제당 등 주요 산업 부문을 거머쥔 극소수 매판 자본가들은 생산의 집중과 집적을 실현하면서 미제의 남조선 침략과 략탈의 안내자로 등장하고 있다.

남조선의 매판 자본가들은 미제와 괴뢰 정부를 등에 업고 중소 기업체를 병탐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조선 산업 기업체의 97%를 점하고 있는 광범한 중소 기업가들은 심대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자금난은 거필코 원료난, 판로난을 동반하며 종국에 가서는 기업의 총파산을 가져 오고 있다.

농촌에서는 지주들이 토지를 재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농민들은 자금이 없어 영농은 고사하고 꾸어 쓴 돈조차 물길이 없어 차압 바람에 밑천마저 털고 나앉게 되였다.

이로부터 재정 금융 체계는 더욱더 전례 없는 혼란 속에 빠지고 있다.

괴뢰 정부의 외화 보유고는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 1960 년도 괴뢰 정부 외화 보유고가 2억 딸라였다면 현재 1억 딸라 가까이로 감소되였다. 이 과정은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통화량은 천정부지로 올라 가고 있다. 그것은 1962 년도에 224억 원이였다면 금년도는 년간 통화 한도량 500억 원을 벌써 18%나 돌파하고 있다.

투기업자들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남조선 시장의 가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마음 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물가는 해마다 평균 3할 이상씩 뛰여올라 가고 있다. 여기에 루진적으로 팽창되는 군비까지 겹쳐 통화의 혼란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화폐 자금이 생산 부면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류통 수로에서 맴돌이치기 때문에 신용 체계가 또한 극도로 뒤흔들리고 있다. 신용 체계에 머물렀던 화폐 자금은 만성적인 인플레로 인한 화폐 가치의 저락으로 말미암아 은행으로부터 부단히 흘러 나가고 있다.

화폐 소유주들은 은행에 돈을 예금하느니보다 귀금속이나 상품을 구입하여 그 가치를 보존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상품 가격은 더욱 폭등하고 있다.

은행 금리의 인상도, 그 어떤 수단도 화폐 소유주들의 이러한 행동을 막을 수 없다.

최근 남조선 위정자들은 은행 금리를 《현실화》한다는 명목 밑에 《리자 제한법 개정안》을 조작함으로써 신용 체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남조선 재정 경제의 파탄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금리의 인상은 신용 위기의 방지를 위한 일시적 방패이기는하나 결국에는 재정 경제적 위기를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된다. 그것은 신용 자금에 의존함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남조선 기업가들이 예금은 고사하고 자체의 경영 활동을 위한 자금마저 얻어 쓰기 힘들게 되였기 때문이다.

미제와 남조선 통치배들은 《금리 현실화》의 명목으로 은행 예금의 리자률을 종전의 14%로부터 30%로 높이는 한편 대출 리자률도 16%로 올렸으며 연체 대부금 리자률도 20%에서 36.5%로 변경시켰다.

남조선 재정 금융계의 이러한 혼란된 틈을 타서 투기업자들은 《좋은 경기 변동》을 만났다고 모리 행위를 마음 대로 하고 있다.

고리 대금업자들은 신용 기관의 자금 사정이 곤난한 틈과 괴뢰 정부가 취한 금리 인상 조치를 리용하여 고리채의 금리를 터무니 없이 높이 설정하고 령락된 중소 기업체와 굶주린 인민 대중을 악착하게 빨아 먹고 있다.

《대한 상공 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 기업체들의 자본 구성에서 차입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50~80%가 고리채이다.

남조선 중소 기업체들의 고리채 부담률은 전체 리자 부담률의 약 절반을 점한다. 고리채의 리자률은 년 5할로부터 최고 10할에까지 이르고 있다.

기업가들이 고리채에 의존하여 채산을 맞추기란 사실 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중소 기업가들이 파산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소 기업가들은 점차적인 령세화 과정을 밟다가는 결국 경영 채산을 투기업자 및 대기업가들에게 내맡기지 않을 수가 없다.

재정 금융계의 혼란과 경제적 파탄으로 실업자 및 반실업자의 대렬이 또한 계속 늘어 나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업자 및 반실업자의 수는 로동 인구의 3 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실업 문제는 전 사회적 문제로, 이것은 취업 로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가

혹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 토대인 경제의 전면적인 파탄, 군사비의 확장, 실업의 증대 등은 남조선 로동자들의 생활 처지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금년에 들어 와서만도 불과 7 개월 동안에 남조선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실업과 기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도 30%나 더 저하되였다.

특히 미제와 그 추종자들은 남조선에서 식민지 저임금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로동자들의 생활 처지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군사 정변 이후에만 하여도 《임금 동결령》을 비롯하여 《정부 관리 기업체 직원 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을 공포함으로써 로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키거나 삭감하였으며 기업주들로 하여금 현물 및 현금 임금제를 배합하여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 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취업 로동자들은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고된 로동을 강요 당하면서도 최저 생활비의 3 분의 1도 못 되는 기아 임금을 받고 있다.

1963년 현재 남조선 로동자 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제조 공업 부문 로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3, 500 원, 미군 부대에 고용된 조선인 로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4,000 원이였으며 부두 및 운수 로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그보다도 훨씬 낮은 1,000~2,000 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괴뢰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하더라도 5 명의 가족을 가진 로동자 세대가 1 개월 동안 생활을 유지해 나가자면 최소한도 평균 1만 1,000 원의 금액이 필요되는 것이다.

농민들의 생활은 더 말할나위 없다. 그들은 로동자들의 최저 생활비에 비해서도 30~40%나 적은 생계비로 살아 가고 있다. 그들은 극도의 빈궁으로 아사하거나 채무 노예로 전락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 재정이 미제의 침략과 략탈 정책에 리용됨으로써 경제는 파탄되고 인민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있다.

* *

재정의 자립이 없이는 민족 경제의 육성은 상상할 수 없다. 민족 경제의 육성은 자주적인 정치의 전제로 된다.

남조선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재정 금융의 현 상태를 수습하며 도탄에 빠진 인민들의 생활을 구원하며 더 나아가서 자주적인 재정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수중에 재정이 장악되여야 한다.

재정이 인민의 소유로 되여야만 인민에게 복무하는 인민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며 그것이 나라의 자주적인 경제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리용될 수 있다. 인민 정권만이 재정을 진정한 인민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인민적이며 자주적인 재정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은 곧 미제의 식민지 군사화 정책을 배격하고 군비 중하로부터 벗어 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적 재생산의 활로를 열어 주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적 진보와 조국 통일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남조선에서 인민적이며 자주적인 재정의 수립은 미제의 《원조》를 배격하고 양키 침략자들을 남녘 땅에서 내몰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세계 제패를 위한 미제의 군사 전략과 그 파산

박 순 재

세계 제패를 위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군사 전략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미제는 세계 제패의 야망을 주로 침략적인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군사 전략을 《작성》하는 데 큰 의의를 부여하여 왔고 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제 2 차 대전 직후부터 오늘까지, 불패의 위력으로 장성 강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력량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활한 지역에서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에 절망적인 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말살》하기 위하여 작성한 이른바 《봉쇄-견제 정책》, 《집중 보복 전략》, 《신축성 있는 반응 전략》 등 수다한 전략들은 모두다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려는 중요한 수단들이였다.

그들은 이러한 모험적이며 호전적인 군사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미증유의 규모로 군사비를 증대하여 왔으며 《전면 핵 전쟁》과 《국부 전쟁》, 《특수 전쟁》을 위한 무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을 《파괴》하고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할 목적 밑에 추종 국가들을 규합하여 《북대서양 조약 기구》,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 《중앙 조약 기구》 등 침략적인 군사 쁠럭과 세계 40여 개의 나라들과 쌍무적인 군사 조약을 조작하였으며 이러한 군사 쁠럭과 군사 조약을 통하여 세계 도처에 수많은 군사 기지들을 설치하고 전쟁 정책에 발광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톤의 전략 작성자들은 그들의 사회 및 경제 제도에서 출발하는 모순으로 하여 자국과 자기 《동맹국》들의 능력을 충분히 타산할 수 없으며 날로 장성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 해방 투쟁의 력량, 평화 애호 력량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현실적으로 타산할 수 없다. 따라서 미제의 군사 전략은 필연적으로 현실성을 잃은 모험의 길로 빠지게 되였는바 바로 이것으로 하여 지난 20 년 간 그들의 모든 군사 전략들이 파산 과정을 겪게 되였다.

오늘 심각한 군사 전략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서 《계단식 전쟁 확대》정책을 벌려 놓고 있다. 그들은 《계단식 확대 전략》으로써 싸우는 웰남 인민과 전체 아세아 인민들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제의 과거의 모든 군사 전략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현시기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전략도 필연적인 파산의 운명을 지니고

이다.

⁂

군사 전략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기와 지세 하에서 《전쟁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군사 예술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의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전쟁은 폭력 수단에 의한 이런 또는 저런 계급의 정치의 연장이며 따라서 전쟁 수행을 전제로 하는 군사 전략의 계급적 본질은 그 군사 전략이 어느 계급의 리익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리고 그 전략 작성자들이 속하고 있는 계급의 정책에 의하여 규정된다.

침략과 전쟁을 대외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의 군사 전략은 몰락하고 부패하여 가는 독점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독점 자본의 팽창을 보장하며 타국을 침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군사 전략은 그것이 특히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과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데 돌려지는 경우에 극단한 비현실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사회주의 제도와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전후 일관하게 실시하여 온 미제의 군사 전략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였으며 또 표현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제 2 차 대전 후 군사 분야에서 기술적 《우세》를 보장하며 전면 핵 전쟁을 비롯한 각종 류형의 전쟁을 위한 준비를 계속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을 《압도》하며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고 《세계 제패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자기의 군사 전략의 주되는 과업으로 삼아 왔다.

미제의 군사 전략이 추구하는 이러한 기본 방향과 목적은 대전 후 오늘까지 변하지 않았지만 국세 정세의 변동과 관련하여 그 개별적 측면들과 형태들은 변화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제는 대전 후 초기에 원자 무기의 독점에 기초한 《원자 외교》와 《딸라 외교》에 의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을 《견제》하고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려 하였다. 이 정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원자 공갈》과 《힘의 정책》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트루맨 집권 년간의 기본 전략으로 되여 온 이 정책은 원자탄을 휘두르면서 《봉쇄 정책》으로 사회주의 나라들에 군사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며 급속히 장성하는 민족해방 투쟁을 《압살》하려는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2 차 대전 후 초기의 미제의 침략적 대외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팽창 정책을 실현하며 약소 민족의 자주권을 침범하기 위하여 〈원자탄 외교 정책〉, 〈딸라 외교 정책〉, 〈트루맨주의〉, 〈마샬 계획〉 등 각종 술책을 다 쓰고 있으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전면적인 반동 공세로 넘어 갔다》(김 일성 선집 제 2 권, 118 페지).

그러나 미제는 이러한 정책으로써도 대전 후에 닥쳐 온 엄중한 경제 공황을 막지 못 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장성과 민족 해방 운동의 급격한 앙양을 억제할 수 없었다.

특히 미제는 2 차 대전 후 저들의 《힘의 전략》의 첫 시험장으로 조선을 선택하고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으나 그들은 이 전쟁에서 력사상 류례 없는 대

패배를 당하였다.

3년간의 조선 전쟁 행정에서 미제의 소위 《강대성》의 《신화》와 기술적 《우세》는 산산이 마사졌고 미제의 《힘의 정책》은 만회할 수 없는 타격을 받았으며 조선 전쟁을 계기로 미제는 도처에서 수세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조선 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국 력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 패배를 당하였으며 이것은 미 제국주의가 내리막길에 들어 서는 시초를 의미하는 것이였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창건 20주년에 제하여》).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은 대신에 핵 무기에 기초한 군비를 더욱 증강하고 전략 체계를 강화하는 데로 나아갔다.

이로부터 나온 것이 1954년 당시 국무 장관 덜레스에 의해 선포된 이른바 《집중 보복 전략》이다.

아이젠하워와 덜레스는 《랭전》 정책을 강화하고 《전쟁 접경 정책》 리론을 만들었으며 장성하는 혁명 력량을 억제하는 것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전략에로 방향을 돌리였다.

《집중 보복 전략》은 핵 공갈과 핵 전쟁에 희망을 걸면서 사회주의 나라들의 주변에 설치한 해외의 163개의 공군 기지들로부터 일거에 핵 타격력을 가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을 소멸한다는 극히 악랄하고 모험적인 전략이다. 이 전략과 정책들을 《보복》이라는 《방어》적인 술어로 표현한 것은 오직 침략적 정책을 위장하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에 있어서 《집중 보복 전략》은 《집중 침략 전략》이였다.

아이젠하워 시기의 《집중 보복 전략》은 내용에서 트루먼 시기의 전략과 같이 핵 무기를 밑천으로 하고 있는 데서뿐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을 《포위》한 반대한 군사 기지망을 교두보로 리용한다는 사실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어떤 본질적 차이를 가진 것이 아니였다. 차이가 있다면 아이젠하워 시기의 전략이 한층 더 로골적이고 침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있다.

트루맨-아이젠하워, 덜레스의 전략들, 특히 《집중 보복 전략》의 특징은 무기와 기술에서의 미국의 추상적인 《우세》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였다.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집중적인 타격력》을 조성하며 그러기 위하여 무기와 기술에서의 《결정적 우월성》을 독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전략의 고안자들은 미국이 이 면에서 《전매 특허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실생활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원자 무기에 대한 그들의 《독점권》은 군사 과학 기술 분야에서 달성한 사회주의 진영의 거대한 성과에 의하여 이미 상실된지 오랬으며 기술적 《우세》는 심한 취약성으로 바뀌였다.

사회주의 진영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되고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게 되였고 민족 해방 투쟁은 아세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서반구에서도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고 새로운 앙양의 단계에 들어 섰다. 미제의 지위는 자본주의 세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였고 국내 경제에서도 거듭되는 경제 공황으로 극도의 궁지에 빠지게 되였다.

더우기 미제가 도발한 조선 전쟁, 미제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여 진행한 꾸바 인민의 투쟁 등은 그 어떤 기술적 《우세》나 무기의 힘만으로는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미제의 《강대성》에 관한 《신화》가 마사진 조건에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은 고사하고 어느 한 개별적인 나라 인민들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되였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까지도 핵 무기에만 의거하는 《집중 보복 전략》은 저들이 기대했던 힘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미 국방성 고문으로 있었던 카우프맨이라는 자는 솔직하게 《미국의 목표는 공산주의를 타도하는 것이지만 전략적 핵 전쟁으로써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전략적 핵 무력은 만능의 무력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개탄하였다.

이것은 아이젠하워, 덜레스의 《집중 보복 전략》이 반제 투쟁의 강력한 혁명 력량과 그리고 미국 전략 자체의 비현실성과 모험성으로 하여 파산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나온 것이 이른바 《신축성 있는 반응 전략》이다. 이 전략은 《전면 핵 전쟁》뿐 아니라 지역적인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전쟁 수단들을 가질 것을 주장한 테일러의 제안에 근거하여 1961년에 케네디가 국가 정책으로 체계화한 것이며 그것은 오늘 존슨 행정부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다.

이 전략의 특징은 우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기 위한 《전면 핵 전쟁》 준비를 계속 강화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범한 지역에서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이 전례 없이 고조되여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총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 력사적 과정을 가로막기 위한 각종 군사적 및 비군사적 수단을 《발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미제의 군사 전략 력사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케네디의 선행자들인 트루맨과 아이젠하워의 군사 전략 체계에서도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의 요소는 도외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트루맨과 아이젠하워의 전략은 주로 전면 핵 전쟁 수단에 력량을 집중하는 것이였다면 케네디의 전략은 전면적 핵 전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배합하는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였다.

케네디 정권은 핵 로케트 무력의 증강과 함께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위한 상용 무력, 기동 무력, 예비 무력을 중요시하는 데로 나갔다.

1961년부터 3년 간에 이 세 종류의 무력을 위하여 배당한 지출액은 근 20억 딸라나 증대되였는데 기타 무력에 대한 배당액은 종전의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것은 워싱톤의 군사 정책이 전략적 핵 무력을 여전히 지주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위한 상용 무력에 특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전략이 제기된 이후 미제는 년간 군사비만도 3년 간에 근 80억 딸라나 증대시켜 500억 딸라의 계선을 넘어 서게 하였으며 지상 부대 병력을 10여만이나 급격히 증원하였다. 이 기간에 특군 작전 사단 수는 11 개로부터 16 개로 늘어 났으며 동시에 전술적 핵 무력과 공중 수송 륙전대, 해병대 등 기동 병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전술 공군 사령부와 타격 사령부를 새로 조직하였다. 타격 사령부에는 동남 아세아, 중

근동, 아프리카에서의 모든 미군 작전을 지휘할 임무가 주어졌다.

미제의 이러한 조치들은 케네디 집권 후 2~3 년 간에 급격히 강화되였는데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여 개편 증강된 상용 무력을 가지면 세계의 어디에서든지 《소규모》의 전쟁을 전개할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전략적 타산은 웰남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미제는 웰남을 《특수 전쟁》의 《시험장》으로 선정하고 웰남 인민들을 반대하는 전쟁에 현대적 무기로 장비한 대병력과 허다한 비행기, 함선까지 동원하였으나 웰남 인민을 굴복시키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도리여 자신의 심대한 군사 전략적 패배를 가져 왔다.

케네디의 《신축성 있는 반응 전략》은 또한 순군사적 및 비군사적 수단들의 리용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정치적 침략 책동의 참모부인 미 국무성의 기구는 수만 명을 헤아리는 거대한 기구로 팽창되였으며 《심리전》을 위한 각종 규모의 전쟁 기구들이 허다히 생겨 났다. 정찰과 정보 자료의 종합을 통괄한다는 중앙 정보국은 오늘날 거꾸로 국무성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전 국가 통치 기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쿠바 위기 때처럼 해외에서 큰 군사 작전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미국 정부》로 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침략 도구들로써 후진 국가들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적 침투를 강화하며 도처에서 군사 정변들과 파괴 행위, 매수 행위들을 더욱더 빈번히 벌려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침략 행위는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민들의 반항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들의 진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 오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제의 온갖 책동 즉 직접적 또는 간접적 침략과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미제의 침략 기구들을 폭로,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 강화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강력한 진출에 의하여 《신축성 있는 반응 전략》은 결국 《신축성 없는 반응 전략》으로 되였으며 이 《신축성 없는 반응 전략》으로 하여 미제의 군사 전략은 오늘 웰남에서 계속 패배의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궁지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그들이 당한 패배에서 응당 교훈을 찾고 다시는 그러한 무모한 침략 책동을 벌려 놓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을 두목으로 하는 미국 지배층들은 계속 모험에서 모험에로 줄달음치면서 선행자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지금 미제 침략자들은 웰남 전쟁에서 겪고 있는 군사 정치적 패배를 《계단식 확대 전략》으로써 만회하려 하고 있다.

《계단식 확대 전략》의 중요 주장자인 헤르만 칸의 구상에 의하면 그것은 전쟁을 《랭전》으로부터 전면적 핵 전쟁에 이르는 7 개의 단계, 44 개의 계단으로 구분하고 《적이 굴복할 때까지》 그 계단을 점차적으로 따라 올라 가면서 위협의 도수를 높이고 전쟁을 확대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부단히 확대되고 심각해지는 새로운 사태에 세계 여

론을 순응시켜 침략 행위에 대한 비난을 완화시키면서 침략적 야망을 달성하려는 교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제는 그 어떠한 술책으로써도 결코 웰남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할 수 없으며 저들의 참패를 만회할 수 없다.

웰남 인민의 투쟁은 정의의 투쟁이며 따라서 그것은 필승 불패이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이 웰남 전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서방 신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범의 잔등에서 그대로 앉아 있을 수도 내릴 수도 없는》 형편에서 취하는 궁여지책인 것이다.

전쟁을 확대하는 계단들, 이것은 미제의 침략적 군사 전략의 총파산을 촉진하는 것들이다.

*　　*

상술한 바와 같이 세계 제패를 위한 미제의 군사 전략은 모두 파산 당하였으며 또 당하고 있다.

《힘의 립장》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며 군사 기술 분야에서 《우세》를 호언 장담하던 미제의 군사 전략은 실천 행정에서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말았다.

2 차 대전 후 미제의 군사 전략들이 그처럼 파산과 대타격을 받게 된 것은 그 전략들이 극복할 수 없는 허다한 약점들과 모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선 미제의 군사 전략이 능력 이상의 방대한 무력을 유지할 것과 세계적 범위에서 지나친 규모의 전쟁 수단들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있다.

미제는 저들의 전략적 조치에 따라 군비와 군사 기구들을 급속히 확장하였으며 사회주의 나라들을 포위하는 포위망을 조성하는 데 막대한 자금을 투하하였다.

그들은 대전 전에 비하여 아이젠하워 집권 말기에 와서는 직접적 군사비 지출만도 근 50 배로 증가시켰으며 중공업의 40%를 군수 공업으로 전환시켰다. 1949년에는 나토, 1954년에는 세아토, 1955년에는 바그다드 조약 기구가 조작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을 《포위》하는 《3 면 포위》 군사 기지망이 형성되고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 수는 대전 종결 당시의 400여 개로부터 2,200여 개로 증가되였다.

바로 이러한 전쟁 기구의 확장이 미국의 전략 체계를 극복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하였다.

미제가 그처럼 확장하여 놓은 전쟁 기구 및 수단들의 크기와 그것들의 운영 능력 간에는 커다란 모순이 생겼다. 펜타곤이 대상하게 된 전략적 전선의 정면과 종심의 깊이가 공간 상으로 방대해진 데로부터 그것은 불가피하게 작전 상 심한 비능률성이 초래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주의 진영을 포위한 《포위선》의 길이는, 비록 그것이 절반 이상 허구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거의 지구 1주의 길이—4만 키로메터나 되며 미국 본토에서 그 포위선까지의 거리는 8,000～1만 5,000 키로메터에 달한다. 이 엄청난 규모의 《포위선》들과 그 뒤에 널려져 있는 수백 수천 개의 중간 기지들에 분산 배치된 불과 100만의 병력과 수백 대의 전략 폭격기들이 보잘 것 없는 작용 밖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

이다.

규모가 방대하고 후방이 극히 먼 세계적 전쟁 무대에서 펜타곤이 아무리 현대적인 련락 체계와 수송 체계를 가진다 하여도 극도로 분산된 자기 무력에 도처에서 동시적으로 가해지는 반타격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 전략가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맹국》 무력과의 《협동 전략》을 중요시했으나 이것은 《동맹국》 호상간의 정치적 및 경제적 리해 관계의 충돌과 군사 장비에서의 이러저러한 알륵 때문에 원만한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 없었다. 장거리 보급에서의 난관을 덜기 위하여 전선에 가까운 《동맹국》들의 자본을 리용하는 조치도 광범하게 취해졌으나 이것은 제국주의 내부 모순을 더한층 격화시키기만 하였다.

자기의 능력 이상의 무력을 유지하며 지나친 큰 규모의 전선을 벌려 놓는 것은 결정적으로 미제의 침략적 무력 자체를 구속하는 부담으로 되였다.

트루맨으로부터 시작되여 아이젠하워와 덜레스에 의해 구체화된 《집중 보복 전략》은 이러한 모순들과 약점들로 하여 사회주의 진영을 《정복》하며 민족해방 운동을 진압하고 세계 인민들을 예속시키려던 미제의 침략적 야망을 실현할 수 없게 하고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만을 가져 왔다. 중국 혁명과 조선 전쟁에 뒤이어 1950년대 후반기에 일어 난 애급 침략과 레바논 파병의 실패, 이라크의 혁명, 리승만 괴뢰 정권과 토이기 반동 정권의 전복, 쏘련에서의 대륙 간 탄도 로케트의 완성 등등은 모두 미제의 군사 전략의 파산 과정을 증명하는 사변들이다. 이것은 미제의 전략이 완전한 궁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였다.

미제의 군사 전략은 또한 전쟁에 투입해야 할 충분한 예비력을 못 가지고 있는 데 그 취약성이 있다.

미제의 군사 전략은 세계 도처에서 전쟁 소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방대한 예비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는 《소규모》 전쟁에 투입해야 할 예비력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세계 각지에 널려 있는 전략 무력을 이 《소규모》 전쟁에 떼돌릴 수는 없는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널어 놓은 전쟁 기구가 심한 불균형에 빠지고 여러 곳에서 돌파구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꾸바 침공 당시의 형편은 이 면에서 미제에게 극히 교훈적이다. 미국 평론가 운소프도 당시 케네디가 직접 미국의 대무력을 꾸바에 투입할 결심을 내리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의 너무나도 많은 상용 무력이 간섭 행동에 잠길 수 있었다. 추산에 의하면 적어도 6개 사단의 무력을 동원해야 결사적으로 항거하는 유격대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동원할 수 있는 미국 지상 병력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이 자그마한 섬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부 윁남 사태도 미국 앞에 바로 이러한 난점을 조성하였다. 공식적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부 윁남 전쟁에는 제7 함대와 전략 공군의 전략 기동 병력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지상 부대 병력 약 15만 명이 투입되여 있는데

미국의 웁서버들은 《베트콩》을 대항하려면 적어도 110만의 지상 부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남부 웰남 괴뢰군을 70만으로 증가시킨다고 치더라도(이것은 달성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괴뢰군 외에 40만의 미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월 18일 유피아이). 그런데 일부 군사 평론가들은 《말라이에서의 영국의 경험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륙군 총병력보다도 더 많은 162만～243만의 병력이 웰남에 파송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가상적인 계산에 근거한 것들이지만 여하튼 미국은 미국인들 자신이 말하는 《소규모》의 전쟁에만도 자기 능력 이상의 자원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미제의 군사 전략에서 실패를 운명짓는 불가피성은 그것이 세계 도처의 많은 대상들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군사적 및 준군사적 수단들과 함께 경제적, 정치적 및 심리적 수단들도 발동시킬 것을 요구함으로써 도처에서 이에 대한 반발 세력을 더욱 다방면적으로 강화시키고 자체의 전쟁 능력을 분산시킨다는 데 있다.

미제는 날로 장성하는 사회주의 력량과 민족 해방 투쟁 력량을 자체의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도저히 《소멸》할 수도, 억제할 수도 없는 조건에서 괴뢰 정권들의 병력을 증강하였으며 준군사적 및 비군사적 수단들의 리용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책동은 케네디 집권 시기를 전후하여 훨씬 강화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현지 괴뢰 정권과 그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미국의 경비 부담을 얼마간 경감시킬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으나 그 대신 그 곳 인민 대중에게 그 부담을 넘겨 씌움으로써 그에 대한 반항력을 강화시키고 필연적으로 인민들을 투쟁에 더욱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타산하지 못 하였다. 남부 웰남에서 미제가 이러한 전쟁을 벌려 놓고 계속 패배를 당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미제는 지금 날로 앙양되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을 꺼 보려고 세계 도처에 동시적으로 전선을 벌려 놓고 있는데 이것은 한두 나라에 대한 침략에도 부족을 느끼고 있는 미국의 전쟁 능력을 걷잡을 수 없게 분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펜타곤은 공식적으로 미국 본토에 150만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 작전 사단 수는 불과 얼마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은 본토 방위, 훈련 및 기타 사정으로 하여 해외에는 동원될 수 없는 《예비의 예비》로 되고 있다. 해외의 병력은 다른 지역에 떼 돌릴 수 없고 국내의 적은 전투 병력은 도처에서 제기되는 수요 때문에 배당조차 하기 곤난한 형편이다.

워싱톤은 이러한 궁지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현지 괴뢰 정권의 병력을 증가시키며 《동맹국》들의 군대를 확장시켜 전쟁에 인입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으나 이것은 결코 미더운 수단으로 되지 못 한다. 미제는 40억 딸라 이상을 들여 남부 웰남 괴뢰 군대를 수십만이나 훈련시키고 장비하였었다. 그러나 64만의 인원 손실을 보고 막대한 무기 장비를 웰남 인민의 수중에 안긴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현지 병력을 리용한다는 것이 미제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 오는가 하는 것은

명백해진다. 결국 미국은 《교전 쌍방에 다같이 군수품을 공급하는》 처지를 면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미제의 군사 전략의 파산을 조건 짓는 또 하나의 요인은 《서방 동맹국》 내부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이다.

미제의 군사 전략가들은 사회주의 나라들과 민족 해방 혁명 력량을 반대함에 있어서 《협동 전략》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었으며 또 그것을 위하여 허다한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미제는 세계 제패를 위한 저들의 군사 전략에서 부족되는 점을 서방 군사 쁠럭에 의해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서방 신문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토는 이미 분열되고 쎈토는 생명이 끊어져 가고 세아토는 벌써 아무런 생활력도 없다》.

새로 제기한 《다각적 핵 무력》안도 실현될 가망을 보여 주지 못한 채 매장되고 있다.

특히 서방은 전략의 리론적 분야에서부터도 하나의 《협동 전략》에 결속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장군들은 미국의 새로운 《신축성 있는 반응 전략》을 공개적으로 배척하고 있으며 기타 《동맹국》도 미제의 전쟁 마차에 끌려서 모험의 길에 들어 서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로골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레닌은 일찌기 제국주의자들의 동맹은 강도들의 동맹이며 강도들은 단결할 수 없으며 그들은 저들로 하여금 단결케 할 진정하고 장구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서방 쁠럭 내 모순은 불가피적인 현상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서방 군사 쁠럭을 조장하면서 중요하게 추구한 목적의 하나가 그것을 통하여 《동맹국》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데 있었다. 이것은 이 쁠럭들의 내부 모순을 첨예화시키는 기본 요인으로 되였다. 제국주의 멸강 내에서 이러한 모순은 점차 격화되여 오늘과 같이 군사 쁠럭 자체를 위기에 처하게 한 것이다.

특히 미제의 군사 전략의 파멸이 불가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극히 반동적이기 때문이다. 오늘 미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 평화와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고 있는 이 진보적 세력을 탄압하고 파괴하려 하며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력사 발전을 역행시키려는 극히 반동적이고 모험적인 책동으로서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다. 침략과 략탈을 기본으로 하는 부정의의 전쟁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국주의 반동 세력에 비해 진보적인 평화, 사회주의 력량은 비할 바 없이 강대하다.

특히 현시기 전쟁에서의 승패의 결정은 그 어떤 발전된 무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결된 인민들의 혁명 력량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힘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력사적 진리이다.

미제는 이 엄연한 진리를 무시하고 다만 한두 개 대상국의 무력 상의 지수 또는 경제적 지수만을 보고 무기 만능주의로 나가고 있다.

물론 발전된 무기는 전쟁에서 일정한

작용을 놀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그것으로 전쟁의 성격을 변경시킬 수 없으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없다.

전쟁에서의 종국적 승리는 오직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여 일떠선 단결된 인민들의 편에 있다.

제 2 차 대전 후 미제의 군사 전략이 총파산 과정을 겪게 된 것은 바로 이상의 제반 원인으로 하여 불가피하였다.

미제의 군사 전략에서 이러한 원인들은 극복할 수 없는 현상들이며 미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그것들은 더욱 심각화되여 미 제국주의 자체를 멸망케 하는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

만약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 엄연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무모한 침략 책동을 계속 감행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종국적 멸망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근 로 자 제 22 호 (루계 284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11월 17일 발행 • 1965년 11월 20일

ㄱ—530618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3 호　　12 월 5 일

평양 근로자사 1965

근로자

제 23 호(285)

1965년 12월 (상).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자

1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오늘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2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농업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 일으킴에 있어서 사상 교양 사업의 강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업 생산의 성과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 협동 농민들과 전체 농업 근로자들의 의식성과 혁명성이다. 문제는 농업 근로자들이 당의 농업 정책 관철을 위하여 얼마나 이악하게 달라붙으며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가에 달려 있다.

농촌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체 농업 근로자들의 혁명적 의식, 창조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사상 교양 사업의 강화 문제가 농촌에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선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이 여전히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우리의 농촌에서는 아직도 전복된 착취자들의 있을 수 있는 준동과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적대 분자들의 사상적 영향 및 파괴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농민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계급 투쟁의 중요한 표현들로 된다.

특히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은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이후 농촌에서 계급 투쟁의 주요한 영역으로서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할 분야이다. 물질적 관계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없애 버린 조건에서 낡은 사상 잔재는 과거 사회가 남겨 놓은 마지막 유산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새 제도가 세워지고 생활이 나아진다고 하여 사상이 저절로 개조되는 것은 아니다. 농민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수세기에 걸쳐 대대손손 계승되여 온 뿌리 깊은 것으로서 그것과의 투쟁에 계속 불을 걸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되살아 날 수도 있고 조장될 수도 있다. 낡은 사상 잔재는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하는 좀으로 될 수 있으며 특히 내외의 반혁명 분자들이 발붙일 수 있는 온상으로 될 수 있다. 사상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여 농민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적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문제는 사회주의 농촌 제도를 고수하며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심각한 투쟁인 것이다.

농촌에서 생산력을 급속히 장성시키

며 전반적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려면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혁명적 열의, 자각성을 높이는 문제가 선차적 과업으로 나선다. 바로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농사'일에 어떻게 나서며 곡식 한 포기, 물 한 줄기, 논'두렁 하나에도 얼마나 정성을 쏟아 붓는가에 농업 생산이 올라 갈 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특히 뜨락또르와 자동차 운전수들, 관개 관리소 일'군들, 농업 지도 일'군들이 농사에 대한 책임성과 자각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상 교양 사업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

원래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혁명과 건설에 참가하도록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요구의 하나이며 이것은 혁명이 심화되고 사회가 째여 들어 감에 따라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만 농민 대중들로 하여금 우리 제도의 현실적 발전에 상응하게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일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확립된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원만히 발양시킬 수 있다. 또한 이래야만 농업 생산과 농업 기술, 농촌 문화 등 모든 면의 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

농업 생산의 제반 특성과 관련해서도 농촌에서의 사상 교양 사업은 특별히 어렵고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업 생산은 공업 생산과는 현저히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농사란 공업에서 철재나 목재 등의 소재를 다루는 것과는 달리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 환경을 요구하는 생물체를 다루는 것 만큼 로동에서 보다 더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가 요구된다. 농업의 생산 주기는 공업의 그것과는 달리 기본이 년간으로 되고 있는 것 만큼 농업 로동의 결과는 즉시에 나타나지도 않으며 따라서 매 농장원들이 수행한 로동의 질을 엄밀히 평가하기도 어렵고 한 번의 실수가 년간의 노력을 허사로 돌아 가게 할 수도 있다. 농업 로동은 집단적 로동이라 할지라도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 만큼 분산성과 산만성을 적지 않게 가지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것은 그들의 사상 의식을 개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조건으로 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건들을 고려할 때 농촌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농민들의 자각성과 열성을 높일 데 대한 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이 요구에 맞게 농촌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 농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의식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2

현시기 농촌 사상 교양 사업에서 주요한 문제는 초급 일'군들의 관점과 작풍을 바로잡으며 나아가서 전체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 농촌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배양하는 것이다.

오늘 농촌 초급 일'군들 속에서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가지게 할 데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일'군들 속에서 혁명적 군중 관점을

세우는 것은 농민 대중의 민주주의를 높이 앙양시키며 그들의 창의 창발성을 불러 일으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농업 생산에서는 바로 농민 대중이 첫째 가는 선생이다. 초급 일'군들이 농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서 그들의 창발적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좋은 의견들을 제때에 발견하여 농업 생산에 적극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초급 일'군들 속에서 농민 대중이 혁명 투쟁에서 노는 혁명적 역할과 그들의 힘에 대한 옳은 리해를 주어야 하며; 농민 대중의 사상 의식을 계발하고 그들의 창발성과 자각적 열성에 의거함이 없이 내려 먹이는 방법으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성과적 추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일'군들이 농민 대중에게 명령하고 호령하는 《벼슬아치》가 아니라 바로 당의 전사이며 그들을 위하여 성심성의 복무하는 충복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농촌 초급 일'군들에게 농업 생산 지도에서 일'군들의 관료주의, 명령주의, 주관주의가 어떠한 후과를 가져 오는가를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군들의 군중 관점은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일'군들의 군중에 대한 옳은 태도와 관점은 군중 사업 방법과 작풍을 통하여 일'군들에 대한 군중의 믿음과 사랑을 두텁게 해 주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보장해 준다. 그러므로 초급 일'군들 속에서 자체 수양을 부단히 높이며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을 더 잘 연구 체득하고 실생활에서 구현케 함으로써 그들이 농민 대중에게 사업과 생활에서, 로동과 학습에서 실천적 모범을 보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초급 일'군들 속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그들의 사업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일하려는 열의는 높은데 수준이 결려 제기된 문제들을 옳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또 주관주의적으로 내려 먹여 오유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초급 일'군들 속에서의 사상 교양 사업은 그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 당 정책 교양, 일반 지식, 기술 지식에 대한 교양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 계급 투쟁, 혁명 투쟁의 원리도 잘 알려 주고 사회주의 농촌 제도의 본질도 알려 주어야 한다. 경제 지식도 가르쳐 주고 농업 생산 원리, 식물학, 토양학의 원리, 전기 및 기계 기술의 초보적 지식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농촌 초급 일'군들이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참된 역군으로 일할 수 있다.

농촌 사상 교양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농민들과 모든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농촌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배양하며 농업 생산과 농장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리려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농민들 속에서의 사상 교양 사업의 기본은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고 집단주의 사상을 갖도록 하며 농장의 주인된 자각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 농민들 속에서 바로 《농장의 일이자 내 일이요, 농장의 재산이자 내 재산》이라는 정신을 갖도록 교양하는 문제가 절실하다. 우리의 농민들은 나라와 협동 농장의 주인으로서 사회주의적 협동 경

리에 자기들의 생활적 기초를 두고 있다. 협동 농장의 집단적 리익을 떠나서는 농민들의 개인적 리익을 생각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전체 농장원들의 리익을 떠나서 농장의 리익을 생각할 수 없다. 농민들이 이것을 옳게 파악하고 협동 농장의 공동 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해야 하며 농장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 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농장원들의 가장 영예롭고 고상한 의무로 된다. 우리는 모든 농장원들이 당의 농업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의 위치와 초소에서 농사를 더 잘 지어 매 정보마다 500 키로 그람씩 더 내기 위하여, 한 알의 낟알과 한 그람의 고기라도 더 내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혁명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해야 한다.

농업 생산에 열의를 높이게 하는 문제는 농민들의 땅에 대한 사랑을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경제 지도 사업과 더불어 사상 교양 사업을 통하여 농민들 속에서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그 땅을 잘 다루어 더 많은 농사를 짓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 농장원들이 나라와 협동 농장의 공동 재산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잘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의 방침에 따라 농촌에 계속 많은 국가적 투자가 돌려지고 있고 수 많은 현대적 농기구들과 농업 생산 설비, 영농 기자재들이 공급되며 문화 주택들이 일떠서고 협동 농장들의 살림살이가 방대해지는 조건에서 이러한 사상 교양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농민들이 높은 자각성과 애국적 열성을 가지고 농장의 모든 공동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알뜰히 관리해 나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농촌 사상 사업에서 중요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각계 각층 군중을 아량있게 포섭하고 교양 개조하여 생산 열의를 높이며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는 것이다.

농촌 경리를 강화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면서 특히 사회 정치 생활이 각이한 군중들과의 사업, 그들 속에서의 사상 사업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도 일'군들이 각계 각층 군중들 속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진공적으로, 능동적으로 달라붙어 하는 것이며 그들에 대한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방침들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당의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혁명적 열정으로 들끓게 하며 정치-도덕적으로 굳게 단합되여 흥겹고 화목하고 단란한 분위기 속에서 살며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굳게 다지며 그 어떠한 적대 분자들도 농촌에 발붙일 수 없게 하며 농업 생산에서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발성을 남김 없이 발휘케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3

농촌에서 사상 교양 사업은 경제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

농촌 사상 교양 사업의 사명은 농민

들의 의식성을 높여 농업 생산의 성과적 수행에로 그들을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농촌 사상 교양 사업은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농업 정책과 그 실현 방도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며 그 관철을 위하여 사상적으로 동원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특히 농산, 축산, 공예 작물 생산 등 농업 생산의 부문에 따라 당의 부문 별 농업 정책을 해당 지방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하여 옳게 해설해 주고 그 실천이 가지는 사회적, 국가적 의의를 명백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어떤 일을 맡아 하든지 높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며; 어떤 난관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혁명 과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나가는 혁명가적 기풍을 발양할 수 있다.

사상 교양 사업이 농업 생산과 결합되려면 또한 농민들의 일터를 사상 사업의 마당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농민들이 있는 티전에서 일하면서도 좋고 쉬는 시간에도 좋고 농사가 되여 가는 실태와 결부하면서 당의 정책과 나라 살림살이의 전반 사정을 알려 준다면 그것은 곧 농민들의 살과 피로 되여 물질적 힘으로 전환될 것이다.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상 사업 부문 일'군들 자신이 농업 생산을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일하는 것이며 경제 지도 일'군, 기술 일'군들도 역시 정치-사상 사업을 선행하는 당'적 원칙에서 농사'일에 복무하는 것이다. 사상 사업 부문 일'군들이 농사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일해야만 농민들을 농업 생산에로 성과 있게 추동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오고 당 정책을 해당 부문의 구체적 실정과 옳게 결부할 수 있는 방도도 나오게 된다. 이러한 방도가 농민들의 사상으로, 지식으로 되면 그것은 곧 생산을 높이는 힘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도 일'군들, 기술 일'군들도 진정으로 자기들의 사업 성과를 바란다면 응당 사상 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자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농촌 사상 교양 사업은 경제 관리 사업과 옳은 배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사상 교양 사업과 경제 사업을 결부시키는 데 있어서 각별한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현시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오늘 경제 관리 운영을 개선하는 데 힘을 집중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확대 강화된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의 생활력을 발휘시키는 담보로 될 뿐 아니라 농업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적 준비를 농업 생산에서 효과 있게 발휘시키며 공고화하는 훌륭한 방도로 된다. 사상 교양 사업과 더불어 경제 관리 운영 사업은 사람들의 사상 의식의 변화에 커다란 작용을 논다. 경제 관리 운영에서도 특히 사람과의 사업을 위주로 하는 로동 행정 사업은 사상 교양 사업과 밀접한 련관 관계에 놓여 있다. 사실 로동 행정 사업에서 우리 일'군들이 로력 배치와 사회주의 분배 원칙 등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는 농민들의 열성과 능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 사상 교양 사업이 아무리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 열의가 실천에서 옳게 발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지 못 하거나 또는 사업 성과에 대하여 옳은 평가를 주지 못할 때에는 교양 사업이 힘을 넣은 보람은 적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군들은 이 량자를 반드시 통일적으로 틀어 쥐고 나가는 데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하며 여기에서 현시기 경제 사업과 사상 사업을 동시에 푸는 중요한 고리를 찾아야 한다.

사상 교양 사업은 또한 농촌 문화 혁명을 추진하는 사업과 결합되여야 한다.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는 사업은 문화 혁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문화 수준, 지식 수준을 높이는 사업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특히 농촌의 현 실정으로 보아 농촌 당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며 가까운 년간 내에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지식 수준을 갖도록 할 데 대한 당의 요구는 사상 교양 사업을 원리 교양에 안받침하여 깊이 있게 진행할 데 대한 요구와 판련하여 절실한 문제로 된다. 사상 의식 수준과 지식 수준은 서로 보충하며 제약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일정한 지식 수준의 축적이 없이 맑스-레닌주의의 제 원리와 당의 정책을 옳게 리해하기 어려우며 이것을 옳게 리해 못 하면 그 만큼 사상적 발전은 원만히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문화 혁명에서 수준 제고 문제는 현시기 혁명 과업의 높이에 사상 교양 사업을 따라 세우기 위하여 크게 힘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농촌 문화 혁명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각급 학교들과 구락부, 선전실, 영화 시설 등 교육 문화 시설들을 옳게 정비 운영하며 군중 문화 체육 사업을 널리 조직 진행하는 것들도 역시 사상 교양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이 더욱더 문화적 생활 환경에 들어 가야만 사상 생활도 더 건전하게 될 수 있고 우리 제도의 우월성과 특히 사회주의 농촌에 대한 인식을 옳게 가지고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로 나타날 수 있다.

농촌에서 사상 사업을 성과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이 사업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옳게 결합하는 것이다.

농민 대중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은 결코 몇몇 직문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여기에는 농민 대중 자신들의 적극적이며 의식적인 참가가 요구된다. 공산주의 교양의 위대한 학교로 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바로 그러한 대중적 교양의 산 형식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대중 자신이 발동되여 인간 개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과업 수행에서까지 성과를 올리는 위대한 혁신 운동으로 되고 있다.

앞으로 농촌에서 분조 도급제를 널리 적용하게 되는 조건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작업 분조들에서의 경쟁 운동과 옳게 결부시켜 진행한다면 사상 교양 사업도 구체적 실정에 맞게 더 심화시켜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상 교양 사업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이에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부시키는 것이다. 로동 자체에 차이가 많고 농민들의 의식 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는 한 이 량자를 옳게 결합함으로써만 경쟁이 더 활발해 질 수 있고 모두가 혁명적 열의를 높이면서 사상 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케

할 수 있다.

농촌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하려면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의 방법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항일 빨찌산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의 모범과 또한 해방 후 그 전통을 이어 민주주의 혁명 시기,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시기에 헌신적으로 싸운 투사들의 모범을 널리 소개해 주며 그것을 통하여 그들처럼 살며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오늘 농민들 속에서,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농장의 공동 로동과 공동 재산의 관리에 말 없이 꾸준하고 창발적인 무명 영웅들의 모범을 내세워 주고 적극 본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은, 교양이 구체적 사실과 결부되고 그것이 자신들을 흥분시키는 모범일 때 더 잘 접수하고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긍정적 모범에 의한 교양을 통하여 또한 어떻게 살며 일하는 것이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일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만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고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등을 원리적으로 알려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사상 교양 사업이 원리를 파악시키는 데로 심입되여야만 사람들에게 혁명 승리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더 열성적으로, 창조적으로 일하도록 할 수 있다.

* *

사상 교양 사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옳게 풀어 나가자면 반드시 군당 조직들과 농촌 당 조직들의 역할을 한층 높여야 한다.

당 조직들은 사상 교양 사업을 전문 일'군들에게만 일임하지 말고 당 위원회적 사업으로 확고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주민들의 사상 수준과 동향에 대한 전반적 료해에 기초하여 사상 교양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해야 하며 그 사업을 분공하고 총화하는 문제들을 위원회적 관심 밑에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군, 리당 조직들은 사상 교양 사업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기 위하여 농민들과 모든 농업 근로자들 속에 들어 가서 그들의 사상 수준과 동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사업과 거기에 맞는 처방을 정확히 쓰는 사업에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또한 당 조직들은 사상 교양 사업에 필요한 력량들을 포치하고 걸린 고리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하며 특히 모든 당 및 행정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이 례외 없이 사상 교양 사업에 동원되도록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농촌 사상 교양 사업이 전 당'적 관심 하에 줄기차게 진행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가져올 위력한 담보로 될 것이다.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과 로농 동맹의 발전

리 수 근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전반적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로농 동맹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서도 우리 당과 인민이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을 주었다.

테제는 로농 동맹을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를 천명하였다.

계급들 간의 동맹은 항상 호상간의 사상적 통일과 호상 지원으로써 이루어진다. 동맹자들 간의 지지 성원이 강화되면 될수록 동맹은 공고해지며 그것이 약화되면 될수록 동맹도 약화되게 된다.

로농 동맹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은 무엇보다도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 측으로부터의 강력하고도 책임적인 지원을 안받침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은 자체의 해방을 위해서는 모든 피착취 대중을 해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급이다. 그런데 현 세계에 있어서 피착취 인류의 기본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로동 계급과 농민이다. 로동 계급에게 있어서 농민과의 동맹, 농민의 해방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는 도덕적 책임인 동시에 자체의 세계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신성한 의무로 된다.

농민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로동 계급과 동맹함으로써만 해방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급이다.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하여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되지 못하는 농민은 반드시 자기들을 승리적 투쟁에로 이끌어 줄 령도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령도자는 바로 처지의 공통성으로 하여 밀접히 얽혀져 있고 철저한 혁명적인 로동 계급만이 될 수 있다.

로동 계급 령도 하의 로농 동맹은 공통된 리해 관계에 기초한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필연적 결합이며 그들 간의 호상 지지와 방조, 특히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은 로동 계급의 혁명적 의무로서 이 동맹의 발전을 위하여 절실한 문제로 된다.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은 혁명과 건설에서의 농민들의 투쟁을 물질적으로 방조하여 주며 생활 상 복리와 사상 개조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공간이다. 로동 계급의 지원은 로농 동맹의 발전을 위하여 근본적 의의를 가진다.

로동 계급은 농민과 동맹하여 혁명 투쟁을 진행하는 전 행정에 걸쳐 농민을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정권을 잡은 이후 책임적이고도 강력한 지원을 주어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주권을 쥔 로동 계급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농민들과 전체 인민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로동 계급은 정권을 장악하고 생산

수단을 국가적 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농촌을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농민과의 뉴대, 동맹은 지원의 새로운 기초 우에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의 로동 계급은 인민 정권의 첫 시기부터 동맹자로서의 농민에 대한 의무에 충실하였으며 민주주의 혁명에로 손잡고 나아가면서 농촌을 힘껏 도와주었다.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로동 계급은 무엇보다도 먼저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이였던 토지 혁명에 적극적인 방조를 주었으며 국가적 투자와 전 인민적 운동으로 관개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뜨락또르와 각종 농기계, 비료 등을 농촌에 보내 주었다.

가렬한 전쟁 시기와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로동 계급은 농촌에 대한 지원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 강화하였다.

농민들은 로동 계급의 지원에 고무되면서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다지는 데서 로동 계급과 함께 전진하였을 뿐 아니라 점차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려는 각오를 굳건히 다지게 되였다. 그리 하여 로농 동맹은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동맹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동맹에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물론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협동화의 급속하고도 성과적인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되였다.

그러나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룩되기 전에 있어서는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은 불가피하게 일정한 제한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로동 계급이 개인농 경리가 자본주의에로까지 나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정에서이며 또한 농민들의 소농 경리에 대해서는 그 발전을 더욱 보장해 주어도 그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줄 수 없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물론 우리에게는 농촌을 도와 주는 데 있어서 제한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던 다른 중요한 사정이 있었다. 과거 오래 동안 식민지 반 봉건 사회로 남아 있던 우리 나라는 자체의 튼튼한 공업 토대를 가지고 있지 못 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주의적 공업 토대를 가지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자금을 오히려 농촌에서 얻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로동 계급이 농민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였으나 전 사회의 리익과 농촌 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였다.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나라의 자립적 공업 토대의 창설은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 국가의 지원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것은 로농 동맹의 발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

지난 시기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동맹은, 리해 관계의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본질 상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두 계급 간의 동맹이였다면 이제부터는 두 계급이 차이를 가지면서도 본질 상 동일한 소유 관계인 사회주의—사회화 정도에서만 차이를 가지는—의 토대 우에서 있는 동일한 사회주의적 근로자들 간의 동맹으로 된다. 더우기 전망적 견지에서 볼 때 로농 동맹은 동맹 관계의 고도로 되는 발전을 통하여 그들 간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까지도 로동 계급으로 만드는 두 계급의 완전한 융합에로 나가는 과정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로농 동맹은 그 종국적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차이까지도 없앰으로써 우리는 무계급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것인바 이것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투쟁한 로농 동맹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된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로농 동맹의 문제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선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서도 로농 동맹을 부단히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로농 동맹의 발전을 위한 이러한 2중적 목적은 서로 분리되여 있지 않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혁명은 전국적 조선 혁명의 구성 부분이며 그 승리적인 전진은 조선 혁명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북반부에서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농민을 로동 계급의 편으로, 로동 계급의 수준으로 접근시키면 시킬수록 전 사회의 정치-도덕적 통일을 강화하여 미제를 괴수로 한 모든 반혁명 세력을 타승하기 위한 혁명 력량의 결정적인 우세를 보장할 것이다.

로농 동맹의 이러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로동 계급은 모든 면에서 농촌을 책임지고 백방의 지원을 계속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은 농촌을 정치 사상적으로 지도하면서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더우기 우리 나라는 공업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자체의 튼튼한 공업 토대를 가지게 된 조건에서 농촌을 강력히 지원할 수 있는 밑천을 가지고 있다. 이 밑천은 농촌을 전면적으로 강력히 지원할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농촌을 도와 주면 도와 줄수록 그 만큼 농민들을 로동 계급화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로 성과 있게 나아갈 것이다.

※ ※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은 로농 동맹의 성과적인 발전에 적응한 원칙과 형태를 가지고 실현되여야 한다.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이 로농 동맹의 성과적인 발전에 적응하게 실현되자면 그것이 로동 계급의 령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여야 하며 로동 계급에 대한 농민들의 정치적 신뢰를 보다 두텁게 할 수 있도록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농촌 사업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적응하게 로농 동맹을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농촌 지원에 대한 과학적인 원칙과 형태들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명시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하에서 로농 동맹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농촌 지원의 원칙은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길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에서 국가 공업 기업소들이 협동 농장에 직접 들어가서 농촌을 도와 주게 하며 국가 소유의 현대적 기계들을 농촌에 공급함으로써 농촌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의 자금으로 농촌의 생산 시설들과 주택, 문화 후생 시설 등을 지어 줌으로써 농촌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협동 농장들의 자체 축적으로써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로동 계급의 국가가 해결해 주는 것이며 농업 생산의 증대와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막대한 리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 지원에 대한 이러한 원

칙은 결코 협동적 소유의 지위를 약화시켜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촌에서의 협동적 소유 형태는 바로 농촌의 현 발전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협동 농장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 수준에 적응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 단계에 있어서 농촌의 협동적 소유 형태를 당장 어떤 더 높은 형태로 바꾸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며 그렇다고 그것이 저절로 전 인민적 소유에로 성장 발전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농업 생산에 복무하는 전 인민적 소유를 증대시키는 것과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키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로동 계급은 직접 협동적 소유를 증대시키는 데도 응당한 지원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협동 농장들의 물질-기술적 토대와 생활 토대를 강화해 주며 자립성을 높이게 해 줌으로써 역시 로농 동맹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로농 동맹의 강화 발전을 위한 이러한 지원의 원칙은 여러 가지 형태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은 생산 조건에 대한 지원과 생활 조건에 대한 지원의 두 가지로 나뉘여지며; 이것들은 다시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형태와 상업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두 가지 형태로 각각 나뉘여진다.

생산 조건에 대한 지원과 생활 조건에 대한 지원 중에서 기본으로 삼아야 할 형태는 생산 조건에 대한 지원이며 여기에서도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지원 형태에 일차적 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이것은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우위성과 지도적 역할을 보장하면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데 대한 농촌 지원의 당'적 원칙을 실현하는 합리적인 방도로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당과 국가가 생산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형태로 자동차, 뜨락또르, 대관개 시설 등을 협동 농장들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두 소유의 결합 원칙에서 볼 때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자금이 많이 드는 이러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지원을 주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협동 농장들이 그러한 것들을 사 들일 만한 경제적 지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사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앞으로 농업 생산을 더욱 높이는 데 있어서, 농업을 공업의 기술 수준으로 추켜 세우는 데 있어서 근본적 의의를 가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도입함이 없이는 농업 생산을 더 올리기 어려우며 따라서 농민들의 생활 수준도 결정적으로 개변시킬 수 없다.

우리는 바로 농업 생산의 장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게 될 이러한 분야에 책임적인 지원을 줌으로써만 두 소유 간의 련계에서 전 인민적 소유의 우위성과 지도적 역할을 보장할 데 대한 농촌 지원의 당'적 원칙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만이 농민들 속에서 로동 계급의 지원에 대한 책임성과 진실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할 것이며 그리 하여 농민들 속에서 로농 동맹을 강화하는 데 더 힘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또한 로동 계급이 직접 농촌에 들어 가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로동과 생활을 통하여 로농 동맹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들의 운

전은 필연적으로 로동 계급의 기술과 기능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은 로동 계급이 농촌에 들어 가는 사업과 통일된다.

뜨락또르를 몰고 간 로동자들이 밭을 갈아 주고 거름을 날라 주며 양수기와 전동기도 수리해 주고 농민들에게 기술 전습과 사상 교양도 주면서 생산 활동에서의 로동 계급의 산 모범을 보여 준다면 로동 계급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는 더 커질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로동 계급화 과정도 또한 추진될 것이다.

우리의 당과 국가가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농촌에 보낼 뿐 아니라 로동 계급을 농촌에 파견하는 사업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된 이후 한 해 동안에만도 국가는 2,400 대의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를 공급하였고 3,000여 개의 고정 탈곡장을 건설해 주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금년까지에 걸쳐 로력적, 기술적 방조를 위하여 수십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제대 군인들을 농촌으로 보내 주었다. 이러한 당적, 국가적 배려는 농민들을 고무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과 함께 손을 잡고 농업 생산의 장성에 힘쓰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생산 조건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 형태와 더불어 간접적인 상업적 련계를 통하여서도 적극 실현되여야 한다. 뜨락또르, 자동차와 같은 현대적 기계들은 로동 계급이 직접 틀어 쥐고 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타 중소 농기계들과 비료, 농약 등에 대해서까지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당과 국가는 이러한 부류의 생산 조건에 대한 지원은 직접 공급하는 한편 상업망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중요한 형태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의 당과 국가는 지난 1964년의 한 해 동안에만도 9만 3,000여 대의 파종기와 제초기, 7,000여 대의 탈곡기와 다량의 전력, 화학 비료, 농약 그리고 건설 재료들을 농촌에 직접, 간접으로 공급하여 주었다.

생산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형태의 지원과 더불어 생활 조건에 대한 지원은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에 있어서 현시기 절대로 늦출 수 없는 지원 형태로 된다. 로농 동맹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서는 생산 조건에 대한 지원을 생활 조건에 대한 지원과 밀접히 결부하여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농촌의 생산 조건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은 농업 생산을 높이게 함으로써 결국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리고 생활 향상의 전망적 견지에서 볼 때 농촌의 생산 조건에 대한 지원은 생활 조건에 대한 지원에 비하여 근본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농민들의 생활 문제가 바로 농업 생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은 물론 농산물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것 만큼 생산 조건에 대한 지원은 농업 생산의 장성에 따르는 농민들의 구매력 장성에 상응하게 농촌에 더 많은 생활 필수품들을 대여 주는 것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과 국가는 이 량자의 지원 형태를 옳게 결합하는 데 항상 중요한 관심을 돌려 왔다.

당과 국가는 농민들의 생활 조건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많은 지원을 주었다.

여기에서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생활을 로동 계급이 국가적으로 책임진다는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 데 있다. 농민들이 과거에 개인농으로 있을 때에는 그들의 살림을 주로 그들만이 책임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당과 국가가 그들의 살림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하며 특히 이 부문 사업을 담당하는 일'군들이 이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농민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제때에 가져다 팔아 주는 것이 요구되며 그들이 팔 것을 원하는 물건들을 제때에 수매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 하여 농민들이 생활상에서 절대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방조를 주는 것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사회주의 혁명 단계까지 함께 혁명을 해 왔고 모두가 사회주의 근로자로 된 농민을 완전히 로동 계급의 사상과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수 있으며 로농 동맹을 일층 굳건히 할 수 있다.

우리의 당과 국가는 그 창건 첫 시기부터 농민들의 생활을 철저히 책임지는 립장에서 일하여 왔으며 특히 농촌의 사회주의적 협동화 시기부터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생활적 배려를 돌려 왔다.

당과 국가는 지난해에만도 량강도와 자강도의 전체 협동 농장과 평안북도 벽동군을 비롯한 20여 개의 시, 군의 협동 농장과 그 밖에 643 개 협동 농장의 현물세 납부를 면제해 주었다. 그리 하여 1964년 말 현재 전 농장 수의 약 절반이 현물세에서 면제되였다. 그리고 국가는 농민들에게 지어 준 농촌 문화 주택 건설비 1억 72만 원과 2천 200만 원의 각종 대부금의 상환을 면제해 주었으며 그 외에도 농산물 수매 가격을 인상하고 반대로 농기계 작업료, 관개 사용료, 각종 기자재의 가격을 인하하여 농민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베풀었다. 그리 하여 지난 1년 간 농민들이 국가에서 받은 혜택은 대규모적인 농촌 건설 투자액을 제외하고도 1963년에 비하여 2 배에 달하며 이것은 매개 협동 농장에 평균 13만 원의 혜택을 준 것으로 된다.

요컨대 이 모든 것은 지난 시기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로동 계급의 수준에 접근시키며 앞으로 농민들의 생활 조건과 생산 조건을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보장할 데 대한 테제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과 국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방대한 지원을 주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 막대한 당과 국가의 혜택,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지원으로부터 재정적, 로력적 지원에 이르는 전면적인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그들의 물질-문화 생활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으로 하여 당과 국가에 대한, 로동 계급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는 강화되고 그들의 정치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이 제고되였다.

당과 국가의 지원에 대한 정확한 방침과 그 구현을 위한 로동 계급의 투쟁은 농업 생산력의 장성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 농민들의 사상 의식 개변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으며 이것을 통하여 로농 동맹에서의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이 일층 높아졌다.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인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되여야 하며 더욱더 강력히 실현되여야 한다. 농민은 아직도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로동 계급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으며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공업의 그

것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농민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농민을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로동 계급의 수준에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에로 가는 전 행정에서 농촌을 계속 도와 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농촌을 더욱 폭 넓게, 전면적으로, 책임적으로 도와 줄 데 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2 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도처에서 로동 계급과 전 인민이 농촌 지원에 대중적으로 떨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사업을 직접 책임진 기관, 기업소들과 농촌에 있는 국가 기관들, 농촌 경리와 련결된 단위들에서 일'군들의 책임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농업 생산의 앙양을 가져 올 것이며 로농 동맹의 발전에서도 새로운 전망을 열어 줄 것이다.

* *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이 로농 동맹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 조건으로 제기된다면 그것은 농촌에 대한 당'적, 국가적 지도와 결합됨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가적 지도는 합리적인 체계 하에서만 원만히 보장될 수 있다.

모든 사업이 그러한 바와 같이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도 그것이 국가의 일정한 체계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통일적으로 장악되고 움직이고 지도됨으로써만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로농 동맹의 강화 발전에 부합되게 구현될 수 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창설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이 농촌에 깊이 들어 가고 로동 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합리적인 농업 지도 체계이다.

그러므로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문제는 국가적 지원을 직접 실현하는 공간으로 되고 있는 군 경영 위원회의 지도적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이 부문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국가에서 준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군내 협동 농장들의 실정에 맞게 통일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한다면 그것은 농촌 경리 발전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농민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고 농업 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담보로 될 것이다.

군 경영 위원회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문제와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경제 관리 일'군들과 기술 일'군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될수록 경영 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국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옳게 보장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군 경영 위원회 일'군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군들의 실제적 활동에서의 혁명성과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과 당'적, 국가적 지도는 호상 유기적으로 결합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의 두 측면이다. 그러므로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도를 옳게 보장하는 것은 국가적 지원을 옳게 실현하며 로농 동맹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균형

정 태 식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과 우월성은 계획적으로 설정되는 균형성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의 부단한 앙양이 이룩되는 데서 발양된다.

우리 당은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인민 경제 부문들과 지역들 간에, 재생산의 각이한 계기들 간에, 생산력의 구성 요소들 간에 균형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급속히 촉진하여 왔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높은 생산 수준과 다면적인 부문 구조 및 현대적인 기술에 기초한 경제 부문들 간의 유기적 련계의 강화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섰다.

인민 경제 분야에 조성된 현실적 조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리고 경제 부문들을 조화롭게 결합하며 계속 빨리 나아갈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인민 경제 각 부문들 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전제로 된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정한 균형들로의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은 사회적 생산의 일정한 형태에 의하여 결코 없어질 수 없으며 오직 그 발현 형태만이 변경될 수 있다》.

사회적 수요의 규모에 사회 총 로동을 대응시키며 다양한 생산적 및 개인적 수요에 맞게 사회적 로동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생산의 일반적 조건이다.

그러나 균형이 설정되는 조건과 그 형태, 균형의 내용, 그가 복종되는 과업은 사회 제도가 다름에 따라 각이하며 같은 사회 제도에서도 나라에 따라서 민족적 특성을 띠며 한 나라 내에서도 발전 단계에 따라서 서로 구별되는 면을 가진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청산되고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적 형태 간의 모순이 없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경제 발전의 균형성이 계획적으로 설정된다.

그것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확립됨으로써 수천 수만의 경제 단위들이 하나의 생산적 유기체에 통합되고 그것이 공동의 리익과 번영을 위하여 목적 의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계획성은 사회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균형성을 의미한다.

사회적 소유, 공동적 로동, 통일적 계획, 균형적 발전은 불가분리적인 련관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와 재생산 균형은 경제 부문들 간에 설정되는 량적 비률 관계를 규정할 뿐이고 그것이 해결하는 목적과 복종되는 과업에 대하여서는 답변을 주지 않는다.

균형의 성격과 내용은 생산 발전의 사회적 방향과 추동력을 규정하며 생산관계의 본질적 진수를 반영하는 기본 경제 법칙의 객관적 요구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 법칙의 작용은 그것이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에 립각하고 있는 경우에만 완전히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쓰딸린).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객관적 요구를 의식적으로 리용하고 조성된 사회 경제 형편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경제 발전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중심 목표와 함께 균형이 복종되는 기본 과업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당은 3 개년 계획 기간에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면서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면서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기본 과업을 내놓았다. 그리고 7 개년 계획 기간에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하여 나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 발전의 매 단계마다 생산과 소비, 중공업의 건설과 경공업, 농업의 발전 간에 맺어지는 균형에 방향을 주었다.

소여의 기술 발전 수준과 로동 생산능률의 장성 정도에 부합되게 형성된 경제 부문 구조는 재생산의 균형을 설정하기 위한 물질적 전제로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생산력 발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사회적 분업이 심화되고 독자적인 경제 부문들이 다양하게 창설되는 것이다. 일반적 분업이 심화됨에 따라 공업, 농업, 운수 등이 분화되며 부분적인 분업에 따라 공업, 농업 등의 내부 부문이 발전하며 개별적인 분업에 따라서 기업소 내부의 생산이 전문화된다.

이러한 경제 부문 및 생산의 규모와 비중, 주어진 생산 수단의 소비 기준을 전제로 하여 경제 발전에서의 균형이 설정된다.

우리 인민이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경제는 생산 수준이 낮고 기술적으로 락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문 구조 역시 매우 기형적이였다.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가공 공업과 채취 공업 간에는 필요한 련계가 보장되지 못하였었다. 한 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확대 재생산을 자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극히 미약한 것이였다.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은 설정되는 균형의 기초이며 그 지도적 역할의 제고는 자립적인 부문 구조의 특징이다.

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는 기초 우에서 합리적인 경제 부문 구조를 창설할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하여 왔다.

결과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하여 금속 공업, 화학 공업, 전기 공업 등의 현대적 중공업과 생활 필수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 있는 자립적 경공업, 알곡 생산을 위주로 다각 경리를 영위하고 있는 발전된 농업이 건설되였다. 이와 같이 경제 부문 구조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였다.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중공업의 지도적 역할이 제고되였고 소비재 생산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복무가 실현되였다. 이것은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면서 재생산의 균형을 유지하며 보다 선진적인 부문 구조를 창설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고 있다.

인민 경제 발전에서 계획성과 균형성

우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 발전에서 높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는 인민 경제 각 부문들 간에서 량적 비례 관계가 부단히 유지됨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그것은 인민 경제의 각 부문들이 생산 기술 공정에 의하여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 있으며 그 발전 조건이 호상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 정세의 절박한 요구였으며 락후한 처지에서 벗어 나 하루 속히 선진 국가의 대렬에 들어 서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 숙망이였다.

우리 당은 경제 발전의 매 단계에서 생산력의 발전 수준, 생산 관계의 성숙 정도, 생산자들의 정치 사상적인 각오 정도, 인민 경제 내부에 잠재해 있는 예비와 가능성, 간부들의 준비 상태 등을 전면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속도와 균형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규정하고 관철하여 왔다. 이에 있어서 당은 경제 발전의 속도를 차요시하고 균형만을 숙명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소극성과 현실적 조건을 타산함이 없이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속도만을 일면적으로 추구하는 조급성을 다같이 반대하였다.

우리 당은 경제 발전에서 속도와 균형의 호상 관계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경제 부문들 간에 적극적으로 설정되는 균형에 기초하여 높은 발전 속도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부강한 조국 건설에서 장속의 전진을 이룩하였다

전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비약적인 속도로 장성하였는바 그것은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잘 보여 주고 있다:

	3 개년 계획 기간 (1954~1956 년)	5 개년 계획 기간 (1957~1960 년)	7 개년 계획 기간(비약) (1961~1967 년)
공업 총생산액의 장성	2.9 배	3.4 배	3.2 배
그중 생산 수단 생산과	4 배	3.6 배	3.2 배
소비재 생산의 장성	2.1 배	3.3 배	3.1 배
공업 총생산액의 년 평균 증가 속도 (%)	41.7	36.6	18
농업 총생산액의 장성	1.4 배	1.4 배	2.4 배

1954~1963년의 10년 간에 우리의 공업은 년 평균 34.8%의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1964년에 그것은 1949년에 비하여 11 배로, 1944년에 비하여서는 13 배로 장성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전후 시기 경제는 그 발전의 각이한 단계를 일관하여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특히 생산 장성의 매 프로가 훨씬 많은 절대적 생산량을 대표하는 기술적 개건기(5 개년 계획 기간)에도 복구기(3 개년 계획 기간)에 크게 손색이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 발전이 이룩된 것은 특징적인 일이다. 또한 전후 시기 경제 발전에서는 공업과 농업, 공업에서의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발전 속도가 접근되면서도 매 부문들의 발전은 높은 속도를 보장하였다.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는 우리 나라로 하여금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낡은 사회에서 물려 받은 사회 경제적 락후성으로부터 벗어 나게 하였으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가 이와 같이 비상히 높은 속도로 장성한 사실은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부문 간의 균형이 훌륭히 보장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

우리 당은 경제 건설을 지도하는 과

정에서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으로 되는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그것은 경제 건설에서 군중을 발동하고 온갖 생산적 가능성을 동원하여 과학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어느 때나 전반적인 균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으며 높은 발전 속도를 계속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경제 발전의 비상히 높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것은 경제의 비상히 높은 속도가 경제 부문들 간의 비례적인 련계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고 군중 로선을 관철하여 생산력의 구성 요소들을 부단히 증대하며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경제의 비상히 높은 속도를 이룩하면서도 부문 간의 균형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속도와 균형 문제의 해결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였다:

《경제 발전의 속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 가능성에 엄격히 립각하고 있을 때에는 결코 불균형을 조성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모든 부문을 다 같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 *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서 균형에 관한 원칙적 요구를 잘 구현하며 그 효과적인 형태와 방법을 찾는 것은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생산력을 장성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로 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은 중공업과 경공업, 공업과 농업,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 생산 수단을 위한 중공업과 소비재를 위한 중공업 등 전반적 경제 부문들 간에 조화된 련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확대 재생산을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다.

중공업과 경공업 간의 균형은 생산과 소비 간의 련계를 실현하는 고리로서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은 확대 재생산의 경제 법칙이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견지되여야 할 레닌적 원칙이다. 그것은 경제 토대의 강화와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 경제 부문 간의 종합적인 균형과 높은 발전 속도의 자립적인 보장, 국방력의 강화와 전국의 요새화 등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본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중심 고리가 바로 중공업을 튼튼히 꾸리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형태는 나라마다 각이하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들이 조성된 력사적 조건과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중공업과 경공업 간의 호상 관계를 창조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 전반적 부문이 파괴되고 인민 생활이 령락된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생산과 소비의 어느 한 면에 치중하여서는 문제가 풀릴 수 없었으며 또한 중공업과 경공업 중에서 그 어느 하나를 희생시켜서도 일이 잘 될 수 없었다.

당은 생활의 요구와 온갖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타산하여 중공업을 힘 있게 틀어 잡는 동시에 경공업의 발전에도 큰 관심을 돌렸으며 우선적으로 장성하

는 중공업과 동시적으로 발전하는 경공업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침을 관철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생산 수단과 소비재 생산이 다 같이 장성하였으며 경제 토대가 강화되고 인민 생활의 기본 문제도 해결되였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로부터 세기적으로 락후한 경제 특히 보잘 것 없었던 경공업을 물려 받은 력사적 사정으로 하여 경제 부문의 구체적 면모에는 일정한 특성이 조성되였다. 그것은 중공업이 절대적이고 강력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중공업 자체를 두고 보아도 그 골기은 꾸려졌으나 미처 살이 붙지 못한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최근 년간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면서 그의 강력한 잠재력을 실현하여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일 목적 밑에 경공업 발전에 커다란 힘을 돌렸으며 또 돌리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 발전의 전 행정을 총체적으로 보면 중공업은 확고히 우선적으로 장성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합법칙성은 항상 다양하고 생동한 현실 속에서 관철되게 되는 것이다.

경제 건설의 개별적 시기에 경공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장성을 일시 앞설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실현되는 구체적 과정으로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관한 레닌적 원칙을 관철하는 합리적인 형태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중공업, 경공업의 호상 관계를 신축성 있게 조절함으로써 경제 토대의 강화와 인민 생활의 향상 문제를 훌륭히 풀어 나아가고 있다.

소비재 생산에 비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은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이 소비재를 위한 생산 수단 생산에 비하여 선행적으로 장성되는 데 의해서 보장된다.

인민 생활과 관련된 부문에 중점을 둔 중공업을 건설하는 당의 방침은 기본 로선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과 소비재를 위한 생산 수단 생산 간의 균형을 창조적으로 실현하는 구체적 방도이며 적은 자금으로 경공업, 농업에 최대한으로 복무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건설하는 담보이다.

맑스는 재생산 리론에 관한 선행 학자들의 그릇된 리론을 비판하고 생산 수단의 생산 부문 특히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의 독자성을 과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재생산의 현실적 과정을 리해할 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

레닌은 맑스의 재생산 리론에 대한 잘못된 리해로부터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의 절대적 독자성을 주장한 외곡된 견해를 비판하고 그의 상대적 독자성에 관한 맑스의 사상을 밝혔다.

사실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은 소비재를 위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과는 《관계 없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의 장성은 무제한적일 수는 없다.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은 결국에 가서 소비재 생산과 관련되고 그의 독자적 운동은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이 상대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의 상대적 독자성은 자체의 고유한 적대적 모순으로 하여 생산과 소비를 분렬시키며 경제 공황의

폭발에 박차를 가하는 길을 열어 놓는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 하에서 그것은 생산과 소비를 유기적으로 련결시키는데 기여하며 경제 부문들 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창설하는 데 리용된다.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인 조건과 전반적인 균형의 면모에 따라서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의 상대적 독자성이 실현되는 형태는 각이하게 된다.

중공업이 강행적으로 발전하고 소비재 생산이 자각적으로 제한될 때 그 상대적 독자성은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를 위한 생산 수단 생산 간의 간격을 넓히며 경제 구조에서 경공업, 농업에 비한 중공업의 비중을 훨씬 높이게 한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소비재 생산의 동시적 발전과 배합될 때 그 상대적 독자성은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를 위한 생산 수단 생산의 장성을 접근시키며 경제 구조에서 중공업의 우위가 보장되는 조건 하에 경공업, 농업이 응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모든 부문이 조화롭게 발전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인민 생활과 관련된 부문에 중점을 둔 중공업을 건설하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의 상대적 독자성과 재생산의 합법칙성을 실현하는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 간의 균형을 옳게 유지하는 것은 나라의 자연 부원을 광범히 개발하여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조성하며 그것을 밑천으로 하여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과 인민 생활에 요구되는 로동 수단과 소비품을 생산하는 문제로서 자립적 경제 토대 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원료, 연료, 동력이 없이는 가공되는 대상이 있을 수 없으며 로동 도구도 소비품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채취 공업은 생산의 첫 공정으로서 모든 공업 부문의 발전에 선행되여야 한다. 그러나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 간의 균형에서 중심적 고리는 기계 제작 공업인바 그것은 확대 재생산의 물질적 토대인 생산적 고정 폰드가 바로 거기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당은 나라의 경제 형편으로부터 출발하여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 간의 호상 관계를 성과적으로 풀었으며 그에 계속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해방 전 우리 나라 공업의 식민지적 성격은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한 가공 공업이 결여되고 자연 부원 략탈을 위한 채취 공업이 기형적으로 발전된 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당은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의 발전에 다같이 힘을 넣고 골고루 배려를 돌리면서도 특히 가공 공업의 발전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가공 공업이 경제의 락후성과 예속성을 청산하고 자립적 경제 토대를 건설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는 리유에서 뿐만 아니라 일면적으로 팽창한 채취 공업이 가공 공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기계 제작 공업이 기계 설비에 대한 국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할 만큼 강력한 토대를 가지게 되고 가공 공업의 기술 장비와 생산 규모가 현대적 면모를 띠게 되였다.

당은 오늘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가공 공업을 계속 보강하면서 채취 공업 선행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 큰 힘을 돌리고 있다. 이것은 첫째로, 강력한 토대를 가지고 급속히 발전하는 가공 공업에 충분

한 로동 대상을 공급하여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 간의 균형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며 둘째로, 광석, 석탄, 전력 등을 여유 있게 마련하여 금속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등 전반적 중공업을 가일층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갖추며 세째로, 나라에 풍부히 매장되여 있는 자연 부원을 캐서 대외에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며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공고히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당은 채취 공업을 밑천으로 하여 가공 공업을 꾸렸으며 가공 공업의 요구에 맞게 채취 공업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강구하여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 간의 유기적 련계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보장하며 농업을 공업의 발전에 따라 세워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관건적 의의를 갖는다.

사회주의 공업은 농업에 대하여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와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농업의 기술적 개건과 확대 재생산의 물질적 수단이 공업에서만 생산되며 또한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공업의 사회화 수준이 협동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농업의 그것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업을 선행적으로 발전시키며 우선 튼튼한 중공업을 꾸리는 것은 확대 재생산의 당연한 요구로 된다. 공업을 틀어 쥐고 그 발전에 힘을 넣는 것은 농업의 락후성을 청산하고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며 인민 경제의 전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이로부터 당은 온갖 가능성을 동원하여 자금 원천을 튼튼히 조성하는 한편 락후한 나라에서의 경제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따라 농업에서 일정한 자금을 가져 오고 그것을 중요한 밑천의 하나로 하여 공업 건설을 급속히 촉진시켰다.

이와 함께 당은 생활의 요구와 성숙된 조건에 기초하여 경리 형태의 개조를 기술적 개조에 선행하고 생산력 발전에 대한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적극적인 반작용을 의식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대책을 백방으로 강구하였다.

첫째로, 농업 생산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그에 적극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중공업의 부문 구조를 갖추고 농업에서 필요한 생산 수단을 많이 생산하였으며 둘째로, 농업에 복무하는 물질 기술적 수단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맺음으로써 농업의 생산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형태와 방법을 찾았으며 세째로, 경제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가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업과 농업 간의 유기적 련계를 밀접히 하고 온갖 예비를 다 동원하여 강력한 생산적, 로력적, 재정적 지원을 주었다.

사회주의 공업의 튼튼한 기초가 축성된 다음 당은 농촌을 지원하는 데로 방향을 결정적으로 돌렸으며 농촌 기술 혁명과 농업의 다각적 발전을 강력히 촉진하고 있다.

그리 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공업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농업 생산이 계속 앙양 일로를 걷고 있으며 테제가 제시한 길을 따라 공업, 농업 간의 균형적 발전이 확고히 보장되여 가고 있다.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은 물질적 생산의 개별적 부문들 간에만 아니라 생산적 분야와 비생산적 분야 간에, 로동 자원의 장성과 인민 경제에서의 그의 리용 간에, 사회 생산물과 국민 소득 분배에서의, 보상, 축적 및 소

비 폰드 간에, 인민의 화폐 소득과 상품 류통 간에 응당한 균형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모든 부문이 같은 속도로, 《수평식》으로 장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매개 경제 부문이 인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르며 부문마다 기술의 발전과 생산력의 구성 요소의 변동이 각이하며 해당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부동하게 변하는 조건 하에 경제 발전에서는 중심 고리를 틀어 쥐고 개별적 경제 부문의 우위를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사회주의 하에서도 전반적인 균형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 개별적 시기에 개별적 부문에서 부분적인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예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계획적 조치에 의하여 조만간에 제거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은 같은 내용을 가진 사물의 두 측면이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유지되는 재생산의 균형성이 안받침되지 않은 계획성은 공허한 것이며 또한 계획성이 부분적 불균형성을 필수적 전제로 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더우기 균형이 설정되는 자본주의적 형태를 계획성과 량립시킬 수 없다.

* *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서의 균형은 그 어떤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 생산력의 발전 수준, 경제 부문 구조의 상태 등에 따라서 부단히 변화 발전된다.

경제 건설이 힘있게 전진하고 생산 수준이 비상히 높아진 오늘 경제 발전의 균형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기본 공간으로 되는 계획화를 개선함으로써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정확히 조직하며 또 기본 투자와 생산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산 장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은 계획화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객관적 현실과 주체적 력량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방대하고 복잡하여졌으며 경제 건설이 급속히 촉진되고 있는 조건에서 계획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주관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계획은 당 정책에 확고히 서서 객관적 현실과 그 발전 방향을 옳게 판단하고 생산 활동의 실태를 정확히 료해 장악한 기초 우에서 작성해야 한다. 현실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실정의 깊은 료해도 없이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세워진 계획은 모험성과 보수성을 면할 수 없으며 아무런 생활력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계획은 군중 로선에 확고히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이 생산자 대중과 협의하여 작성하며 생산자 대중의 것으로 만든 계획은 모든 잠재력을 동원하고 근로 대중의 창조적 열의를 고도로 발현시킨다. 주관적 독단, 소총명, 협애한 경험주의는 발전하는 현실을 인식할 수 없으며 또 군중을 조직 동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건설에 심대한 손실을 가져다 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 체계는 국가적 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배합하고 생산의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을 옳게 결합하며 군중 로선을 관철하여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케 함으로써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고 부문 간, 지역 간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지도 일'군들이 새로운 계획화 체계에 의거하여 군중 로선을 관철하고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력량에 맞는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데 달려 있다.

또한 인민 경제 발전의 균형을 보장함에 있어서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것은 매개 단위들이 계획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린접 부문들 간의 련계와 협동 생산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적 경제 부문과 기업소에 부과된 계획은 경제 발전에 대한 단순한 예견이 아니며 또 인민 경제 전반의 발전과 유리된 고립적인 것도 아니다. 계획은 당이 제시한 정치 경제적 과업을 해결하는 수단이며 해당 시기의 경제 발전의 방향과 특징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계획은 법적, 지령적 성격을 띠며 모든 경제 단위들에 의무적인 것이다.

상품 생산이 존재하고 가치 법칙이 작용하는 조건 하에 매개 경제 단위에는 현물 표현에 의한 계획과 함께 가치 표현에 의한 계획이 시달된다.

매개 기업소들은 기계, 설비, 물자, 로력의 소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원가와 수익성을 타산하면서 시달된 계획량을 시기 별, 품종 별, 품질 별로 어김 없이 수행해야 한다.

생산액적 계획만을 수행하고 품종, 품질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로동이 랑비되며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 또한 지표 별로 생산량 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도 만일 생산 수단의 소비 기준을 초과하고 원가 수익성 계획을 미달하며 손실을 낳게 한다면 수지 대응을 보장하지 못 하며 독립 채산제의 기초를 파괴하게 된다.

물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 하여 인민 경제적 수익성이 존재하는 만큼 전반적 경제 발전이 요구한다면 비록 개별적 기업소에서 수지가 맞지 않고 지어 결손이 나는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보상하여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와 경영 활동에서의 결함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로는 결코 될 수 없다.

온갖 물질적 재부를 알뜰히 거두고 적은 것을 지출하여 최대의 성과를 올리며 모든 기업소가 수익성 있는 사업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리 운영의 초보적인 요구이다. 개별적 기업소의 수익성은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인 리용 정도를 표시하며 사회적 부의 증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계획적인 경리 운영과 수익성 보장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채산을 맞추면서 계획을 완수하는 데 응당한 주목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매개 경제 단위들에 시달된 계획은 전반적 계획의 구성 부분이며 유기적인 련계 속에서 시계 바늘과 같이 맞물려 있다. 전반적 균형이 원활히 보장되자면 이러한 련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 자재, 로력 간의 균형이 바로 잡히지 못 하여 생산이 파동성을 띠고 정상화되지 못 하면 기계 설비가 휴사되고 제품의 질이 저하되며 일'군들의 생산 의욕이 자극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린접 부문들과의 생산적 련계가 옳게 이루어지지 못 하여 경제 발전이 저애된다. 제때에 광석이 채굴되지 못 하면 금속이 생산 못 되며 금속이 공급되지 않으면 계획 대로 기계 설비를 제작할 수 없으며 기계가 없으면 기본 건설과 생산 발전이 촉진될 수 없다.

모든 경제 단위들이 생산을 정상화하며 계획을 일, 순, 월 및 분기 별로 수행함으로써 그들 호상간에 맺은 경

제 계약을 준수하는 것은 경제 부문들의 종합적인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는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현시기 전반적 부문의 모든 내부 예비와·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경제 발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높은 속도를 견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만약에 기존 경제 토대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는 적게 관심을 돌리면서 새로운 건설과 생산의 외연적 확대에만 몰두한다면 재생산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 장성의 속도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당은 기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계속 새로운 생산 능력을 조성하는 한편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좋게, 더 값싸게 더 많이 생산하여 웅대한 7 개년 계획을 완수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물자를 절약하고 원단위를 낮추기 위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설비 관리와 기술 준비를 잘 하며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공급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생산의 파동성을 근절하고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여야 하겠다. 이리하여 모든 것을 더 좋게, 값싸게 그리고 더 많이 생산하며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에 제하여》).

당이 제시한 이 방침은 생산의 경제적 효과성의 제고와 전진 도상에서 조성된 경제 형편의 현실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맑스의 재생산 리론에는 사회 총생산물의 장성, 자본의 축적, 생산물의 자본 용량 간의 호상 관계가 과학적으로 천명되여 있다. 생산물의 자본 용량이 불변하면 사회 생산물은 축적되는 자본의 크기에 비례적으로 장성하며 그것이 저하되면 생산물은 축적되는 자본의 크기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장성한다.

이러한 경제적 합법칙성은 계획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원칙적인 의의를 갖는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생산물의 폰드 용량의 저하는 첫째로, 축적의 효과적인 실현, 생산력 구성 요소의 합리적인 리용, 절약 제도의 확립 등에 의한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의미하며 둘째로, 보다 적은 축적으로 같은 발전 속도를 견지하고 소비의 장성에 더 많은 몫을 돌리게 한다.

오늘 우리 나라 경제는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고 거대한 규모에 달하였으며 모든 부문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매우 크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존 경제적 토대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은 공업 국가 건설 도상에서 제기되는 필수적 요구로 된다.

확대 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인 고정 폰드를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생산과 건설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경제 발전의 균형을 보장함에 있어서 1 차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미 건설된 경제적 토대의 활용은 고정 폰드의 장성보다 생산물의 장성을 앞세우게 하며 기술 장비도의 강화보다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을 앞세우게 한다.

우리는 현대적 기술 설비를 많이 생산하는 한편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당의 방침에 립각하여 고정 폰드의 물체적 구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설비와 생산 면적의 리용률을 높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온갖 고정 폰드를 남김 없이 가동시키고 그 성능을 충분히 발휘케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원료, 자재 등 류동 폰드에 대한 요구는 증대된다.

그것은 로동 생산 능률이 부단히 장

성함에 따라서 가공되는 로동 대상이 더 많이 요구되는 사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원료 문제의 해결이 자연을 정복하는 어려운 투쟁과 관련되여 있으며 또한 그것이 재생산 과정에 전체적으로 참가하여 전체적으로 소비되는 회전 상에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아껴 쓰고 없는 것은 찾아내며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는 당의 방침에 기초하여 최근 년간에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튼튼히 조성하며 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 기준을 30~50% 저하시키는 것은 매개 부문, 매개 기업소가 1 개월 이상의 원료, 자재 예비를 가지고 생산을 정상화하게 하는 주되는 고리로 된다.

근로자들은 현대적인 기술 수단을 움직여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생산력이다. 아무리 훌륭한 기계 설비가 있어도 사람들이 다루지 못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무용지물이다.

로력 사정이 긴장된 우리 나라에서 로력의 증가 없이 있는 사람으로 더 많이 생산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로동의 기술 장비도를 강화하고 협업과 분업의 우월성을 실현하며 기술 기능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여 가까운 년간에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2 배로 높이는 것은 로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나 전반적인 재생산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며 생산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여 경제 발전의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높은 속도를 이룩하는 것은 중요하게는 국가, 경제 부문 지도 일'군들의 사업 여하에 달려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 일'군들은 공산주의적 사상 관점을 확립하고 과학적 사업 방법과 인민적인 사업 작풍을 소유하며 당의 붉은 지휘 성원으로서의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오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경제 발전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7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는 것은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결정적으로 촉진하며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 *

당의 령도 하에 우리 인민은 공업화를 추진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할 데 대한 정책을 관철함으로써 인민 경제를 현대적 기술 토대 우에 올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문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였다.

오늘 우리의 인민 경제는 그 발전 수준과 기술 장비, 부문들 간의 련계에서 새로운 면모를 띠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는 국내외 혁명 정세의 요구로부터 국방 건설과 경제 건설을 다 같이 틀어 잡고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동시에 전국을 요새화하는 것이 절실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휘 성원들이 경제 부문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당의 원칙적 방침과 창조적 경험을 옳게 리해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경제 관리 운영에서 통계의 역할

김 하 광

경제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일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함에 있어서 오늘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모든 경제 관리 일'군들이 현실을 통계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다.

경제 관리 운영 수준은 인민 경제 매개 단위들에서 일하는 일'군들의 혁명적 사상 관점, 사업 작풍과 사업 능력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바 통계는 바로 일'군들의 사업 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사업에서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

통계적 관찰과 분석 능력을 높이는 것은 일'군들이 사업에서 주관주의와 일면성을 피하고 당 정책의 집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하며 제기된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는 필수적 요구로 된다.

오늘 매개 일'군들은 통계가 가지는 인식 실천적 의의를 깊이 파악하고 국가 경제 관리의 일상적인 사업에서 그것을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모든 단위의 관리 운영 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로 더 빨리 끌어 올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는 과학적 관리 운영의 중요한 수단이다

오늘 모든 경제 관리 일'군들이 자기의 일상 사업에서 과학적인 타산과 계산을 진행하며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우리가 이미 꾸려 놓은 경제 토대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적 생산의 더욱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정확한 타산과 일상적인 계산은 사회주의적 경제 관리 운영의 중요 내용을 이루며 나라의 모든 경제 자원과 사회적 로동의 합리적 리용을 위한 기본 전제로 된다.

레닌은 일찌기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지배가 확립된 이후 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개혁의 본질은 바로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사회주의 ―이것은 계산이다. 당신들이 한 쪼각의 철과 직물을 계산하는 데 착수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곧 사회주의일 것이다》(레닌 전집 제26권, 368 페지)라고 말한 바 있다. 레닌은 전 국가적 규모에서 조직화된 계산과 통제를 낡은 사회가 남겨 놓은 무정부적 맹목성에 대한 사회주의적 의식성의 투쟁으로 간주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주되는 문제로 나서는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제고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보았다.

사회주의는 전 사회적 규모에서 고도로 조직화된 계획 경제이다. 사회주의적 대규모 생산의 철저한 조직성과 계획성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전 과정과 모든 생산 단위들의 구체적 실정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나라의 경제

자원과 사회적 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또 면밀한 타산에 기초할 때에만이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은 전국적 범위에서뿐 아니라 매개 개별적 생산 단위들과 그 관리 운영의 모든 계기들에서도 객관적 현실에 대한 전반적 장악과 세밀하고 일상적인 계산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과학적인 계산과 타산이 없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 관리 운영에서의 과학적 타산을 말할 때 그것은 통계의 역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통계는 관찰을 통하여 사회 현상의 량적 측면을 그 질적 측면과의 불가분리적 련관 밑에 반영함으로써 경제 관리 운영의 전반적 실태를 알 수 있게 하며 그의 발전을 추동하는 요인들을 명백히 식별해 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과학적 타산이 가지는 이러한 의의와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통계의 역할을 높이는 데 항상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모든 일'군들이 통계적 관찰과 분석을 정확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하여 왔다.

김 일성 동지는 전후 복구 건설의 첫 시기에 이미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만일— 우리 사업을 요행과 우연성에 맡기지 않고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과학적인 계획에 의하여 예견성 있게 진행하려고 한다면 응당 인민 경제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장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47 페지).

당은 통계 사업을 인민 경제 계획화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모든 경제 부문, 생산 단위들의 과학적 관리 운영을 정확히 보장하여 왔으며 경제 지도와 관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온갖 우연성과 주관주의적 편향을 주동적으로 극복하고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인민 경제가 높은 수준에 올라 서고 경제 관리 운영이 훨씬 째여지고 심화된 우리 나라의 현실은 모든 사업을 더욱 면밀하게 타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계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타산하여야 할 대상은 날로 그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또한 매개 단위에서 과학적 타산에 의하여 얻어 낼 수 있는 예비도 더 많아지고 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매개 경제 지도 일'군들이 통계를 정확하게 장악하고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제고함이 없이는 경제 관리 단위들의 복잡한 실정을 옳게 장악할 수도 없고 생산 발전의 새로운 예비도 훌륭히 탐구 동원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단계에 도달하였다.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더 알뜰히 꾸리는 데 있어서도,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은 모든 일'군들이 객관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세밀히 분석하여 과학적인 해결 방도를 찾아 내는 사업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객관적 현실이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 질수록 그에 대한 전면적 파악과 분석이 없을 때에는 주관주의적 판단과 소총명, 문제의 본질을 떠난 자의적 해석과 주먹치기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통계의 인식 실천적 의의는 그것이 객관적 현실을 있는 그 대로, 그것들을 호상 련관 속에서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사업에서 주관주의와 주먹구구식 사업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 기초를 마련하여 준다는 데 있다. 우리가 통계의 역할을 가리켜 《수'자가 말한다》고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당은 최근 년간 경제 관리 운영에서 비과학적, 주관주의적 편향을 성과적으로 극복하며 계획 작성으로부터 생산 조직에 이르는 전 령역에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 방법을 관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철저히 강구하여 왔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관리 운영 체계와 방법을 개선함에 있어서도 항상 통계의 역할과 의의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특히 당은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제 관리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나라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관리의 모든 측면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의 기초에는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이 놓여 있으며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작용하는 경제 법칙들의 요구에 상응한 과학적인 사업 태도와 방법이 관통되여 있다.

대안 체계는 계산하고 재이고 또 재이는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된 립장과 면밀한 타산을 전제로 하는 과학적인 체계이다.

이것은 대안 체계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체계 하에서 일하는 모든 일'군들이 과학적 타산을 더욱더 세밀히 할 줄 알며 계획 작성, 생산 지도, 기술 관리, 자재 보장, 로동 행정, 재정 활동 등 모든 측면과 고리들에서 통계적 방법에 의한 관찰과 분석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 관찰과 분석은 무엇보다도 인민 경제 매개 단위의 과학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첫 출발점으로 되는 계획 작성에서 객관성과 현실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를 실현하며 우리 당의 정책을 관철하는 강력한 무기인 계획화는 매개 경제 단위들에서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 등 생산의 모든 요인들, 지어는 사람들의 준비 정도까지도 주도 면밀하게 타산할 것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장할 데 대한 이 요구는 현실을 과학적으로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전제로 하는데 타산의 기초 자료는 바로 통계적 관찰과 방법을 통해서 보장된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설비, 자재, 원료, 자금 및 로력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통계를 가지지 않고 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은 빈 말 공부에 지나지 않는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47 페지).

통계의 역할은 특히 계획 실행을 보장하는 일상적인 관리 운영 사업에서 위력한 무기로 된다는 데 있다.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 대한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이것은 계획 실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며 국가 계획 규률 강화의 유기적 구성 부분이다.

우리는 계획 실행을 위한 조직 사업을 포치하거나 생산의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 동원하고 절약 방도를 강구하며 계획 실행 정형을 료해하고 해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경제 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통계적 관찰과 분석을 적용함으로써만 형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옳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작업반, 직장, 기업소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기술 지도를 강화하며 원료, 자재를 대 주고 로동 행정 사업을 짜고 들며 근로자들의 후방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우선 통계 자료를 세

밀히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타산한 다음에야 실질적인 집행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계획 실행의 보장, 지도, 감독 등 모든 분야에서 통계는 자료의 수집, 가공, 분석 등의 방법으로 계획 수행 정형을 정확히 분석 총화하고 우수한 경험과 모범적인 사실을 일반화하며 약한 고리를 추켜 세우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통계가 분석 과정을 통하여 사회 현상에서의 필연적인 련계와 호상 관계를 해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학적, 실천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주관주의를 없애고 당 정책과 현실적 조건에 맞게 인민 경제를 과학적으로 운영하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매개 일'군들이 경제 법칙과 객관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울로, 국가 관리와 인민 경제 계획화의 필수 불가결의 도구로 되는 통계를 정확하게 장악하고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객관성과 정확성은 통계의 생명이다

통계가 과학적인 관리 운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는 근거는 그것이 바로 객관적 현실을 있는 그 대로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데 있다.

철저한 객관성의 담보, 객관적 현실과의 완전한 일치—이것은 통계 사업의 기본 철칙이며 과학적 관리 운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통계의 역할을 보증하는 근본 문제이다.

현실과 어긋나는 《통계》, 사실과 맞지 않는 《계산》은 사회주의 경제의 관리 운영에 아무러한 도움도 줄 수 없으며 그것은 통계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한갖 수'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통계는 자본주의적 기업의 내막을 가리기 위하여 자본가들이 제 마음 대로 꾸며 내는 각종 수'자들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자본가들은 자기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장하며 근로 대중을 우롱하기 위하여 사실과 맞지 않는 통계 자료를 날조하고 람발하며 잡다한 통계 양식을 제각기 고안해 낸다. 그리 하여 자본주의 하에서의 통계는 객관적 현실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복무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통계가 객관적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인민 대중에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그의 비약적인 발전 면모를 보여 주며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며 강력한 통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통계 사업 조직의 전체 단계들과 공정들에서는 매개 수'자 하나 하나가 엄격히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원칙이 관통되어야 한다.

통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통계 조직 사업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관철하고 통계 규률을 강화하며 현실의 심화 발전에 상응하게 통계 지표들을 분석적으로 설정하며 통계 양식을 간소화하는 것 등이다.

통계 조직 사업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관철하며 규률을 강화할 데 대한 요구는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리용하는 모든 단위들과 일'군들이 유일적인 체계와 방법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각종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자료와 근거 없는 수'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것은

통계 사업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통계 자료들이 계획 사업과 관리 운영 사업 전반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추진에 상응하게 통계 사업의 조직 체계를 더욱 칠저히 확립하는 한편 모든 경제 관리 일'군들이 통계 자료들의 수집 및 리용에서 이 요구를 칠저히 관철할 것을 강조하여 왔다.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확립된 일원화 계획 체계는 계획화 분야에서 뿐 아니라 통계 발전에도 광활한 전망을 열어 놓은 과학적 체계이다. 이 체계 하에서는 계획과 통계와의 일치성의 원칙이 더욱 칠저히 관철되고 통계가 계획화 사업을 위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였으며 국가 관리와 경제 관리 전반에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될 수 있게 되였다.

일원화 계획 체계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과 개별적 기업소들에 있는 계획 통계 일'군들을 조직화된 통계의 그물에 망라함으로써 군중 로선의 튼튼한 기초 우에서 중앙 집권제적 통계 조직 사업을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통계 조직 사업에서 통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마련하여 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통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통계 자료를 다루는 모든 경제 관리 일'군들이 객관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현실에 맞게 그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통계 사업이 인민 경제 관리 운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전체 국가 경제 기관, 기업소들의 불가분리의 기능으로 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 경제 매개 부문의 모든 고리들은 례외 없이 통계 사업에 직접 참가하는 실질적인 계산 단위들로 되고 있다.

특히 통계의 시초 자료들을 직접 작성하며 그 정확성을 현지에서 확인하는 매개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 농장들 그리고 그 내부 단위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과 그 작업반, 분조들에서 진행하는 계산 자료가 모두 시초 계산 자료로서 전국적인 통계 사업 조직의 한 구성 부분으로 되며 매개 생산 단위에서 진행되는 매일 매일의 생산 결과에 대한 총화 분석 자료도 모두 관리 운영 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된다. 자그마한 한 개 단위에서 하나의 부정확한 통계 자료가 발생하여도 그것은 전국적인 통계에 부정확성을 가져다 주며 전 사회적 규모에서 관리 운영 사업 개선을 위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통계 방법론도, 규률도 통계의 시초 계산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관리 일'군들로부터 준수하고 관철하여야 비로소 통계 사업 전반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경제 관리 일'군들이 작업반, 분조, 분창고 등 현실에 직접 나가서 군중과 더불어 현지 조사를 진행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군중적 토의에 의하여 검증하며 자료의 수집과 가공, 분석 등 모든 사업에서 하나의 오기, 오산 등도 없도록 확고히 보장함으로써만 과학적인 관리 운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통계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은 경제 관리의 매개 단위의 지도 일'군들로부터 모든 관리 일'군들이 통계 자료의 작성, 분석에서

철저히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것을 그처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제기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인민 경제에 대한 관리 운영이 가일층 심화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통계 지표를 더욱 분석적으로 설정하면서 통계 양식을 견적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통계가 과학적 관리 운영의 수단으로서 사회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더 잘 복무하기 위하여서는 통계의 지표가 더욱 더 분석적으로 설정되여야 하며 양식이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또한 적극 간소화되여야 한다. 특히 오늘 매개 경제 부문, 단위들 앞에 제기된 방대한 규모의 과제를 량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원가, 로동 생산 능률, 자재 소비 기준 등과 같은 질적 지표들을 광범히 도입하며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성과 요구성이 통계의 번잡성을 초래하거나 필요 이상의 지표 설정으로 대치되여서는 안 된다. 통계의 구체성은 번잡성과는 인연이 없다. 번잡성을 제거하고 통계를 간소화하는 것은 통계 조직 사업에서 제기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구이다.

통계의 번잡성은 아래 일'군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랑비를 조성하며 생산자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저하시키고 수 많은 일'군들을 책상머리에 얽매여 놓음으로써 혁명 과업 수행을 저애할 뿐 아니라 관리 운영 개선에 필요한 가장 긴요한 자료들을 찾아 낼 수 없게 하며 정확한 분석을 방해한다.

우리 당이 통계 사업에서 구체성을 보장하면서 통계 양식과 사무를 대담하게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중요한 리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관리 운영의 과학적 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 절실한 통계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 체계화하고 경제 지도에서 그다지 긴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보고와 지표를 제거하는 등으로 당의 이 요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통계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통계 사업의 목적은 분석을 통하여 옳은 결론을 찾는 데 있다

통계의 목적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옳은 결론을 찾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통계 자체만이 우리 사업의 개선 방향을 밝혀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세심히 분석하여 금후 사업 개선에 대한 구체적 대책들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3 권, 1954년 판, 318 페지).

분석 없는 통계는 퇴적된 수'자더미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한 통계는 도대체 조직할 필요도, 수집 집계할 필요도 없다. 과학적 타산을 강화할 데 대한 당'적 요구는 바로 일'군들의 분석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분석 사업의 강화는 통계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전제로 된다.

우리는 수 많은 량적, 질적 지표들과 현물, 화폐적 지표들을 리용하며 절대치 또는 상대치들을 대비 분석하는 방법으로 크게는 나라의 경제 생활 전반으로부터 개별적 부문, 기업소의 경영 활동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총화를 진행하며 옳은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객관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자료의 분류, 개괄 및 분석 지표의 적용, 바란스 작성 등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분석은 인민 경제 관리 운영에서의 우결함을 가리고 견리는 고리와 그 원인을 캐내며 개선 방도를 강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관리 운영의 새로운 성과를 보장하고 계획 수행을 힘차게 추진한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 계획 실행과 기업 활동에 대한 통계의 《해부학》적 역할은 오직 통계 분석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오늘 통계적 분석에서 중심으로 되는 것은 인민 경제 계획 실행 정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다.

인민 경제의 개별적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당면한 계획 실행 정형을 7 개년 계획의 전망적 과업 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일상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계획 실행 결과들을 연구하고 증산의 내부 예비와 그 동원 방도를 탐구하며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그것은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견하지 못 했던 불균형은 없는가, 틈은 없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나타난 결함들과 부족점들을 시급히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준다.

계획 실행 정형에 대한 분석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기술 경제적 지표의 수행에 대한 분석이다. 질적 지표 수행에 대한 분석은 오늘 당이 극히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기술 혁신,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의 제고,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과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원가 저하, 제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 등과 같이 경제 관리 운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는 이러한 질적 지표들에 대한 분석을 강화함으로써만 우리는 귀중한 설비, 자재가 유휴 사장되거나 로력이 랑비되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할 수 있으며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고 수익성을 급속히 높이며 있는 설비와 로력을 가지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더 많이 생산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할 수 있다.

오늘 통계적 분석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매개 지방 특히는 매개 군마다에서 자기 단위의 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단위이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며 지방 경제 문화 발전의 종합적 단위인 군 사업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비롯한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급격히 향상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군 단위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추진 정형과 군내에 있는 중앙 공업 기업소들과 지방 공업 공장들, 농촌 경리 부문에서의 국가 계획 실행 정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련계 등을 통계적 자료에 의하여 분석 총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고리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찾아 낼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군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실속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통계적 분석에서 정확한 결론을 찾아내기 위하여서는 력사적 및 론리적 검토를 광범히 적용하며 분석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의 정확성 여부를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연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생산 계획 실행 정형을 분석할 때에는 해당 시기의 계획 지표와 실적 지표를 대비할 뿐 아니라 전 시기와의 대비 분석을 강화하며 련접 기업소, 련접 부문과의 련관 속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재, 로력, 자금 등 생산의 요인들에 대한 보장 정형으로부터 제품 실현 결과까지를 포괄하는 모든 공정을 밀접히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 결과에 나온 결론들을 가지고 다시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 그 정확성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분석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도 현실의 실제적 사실과 대비 검토함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사업을 통계적으로 깊이 분석하고 객관적 현실에 맞는 옳은 결론을 찾아 내기 위한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경제 관리 운영 수준을 더욱 높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 *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고 인민 경제의 관리 운영 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통계의 의의와 역할은 더욱 커진다.

우리 당의 창조적인 조치들에 의하여 인민 경제의 관리 운영에서 혁명적 변혁이 일어나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한 대중의 전진 운동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오늘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각급 단위에서 사업하는 우리 일'군들 앞에는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 있다. 매개 일'군들이 자기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혁명적 사상 관점과 사업 작풍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동시에 객관적 현실과 당 정책의 요구에 맞게 세밀히 따지고 정확히 계산하며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인민 경제를 능숙하게 관리 운영할 줄 아는 능력을 급속히 높여야 한다.

따지고 계산하라는 이 요구를 실현함에 있어서 일'군들은 객관적 경제 법칙의 요구와 당 정책의 본질을 더욱 심오히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사업에 정확히 구현할 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과학적 조사 연구, 파악의 중요한 수단인 통계적 관찰과 분석을 자기 사업에 훌륭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실천에서 통계가 담당하고 있는 사명을 충분히 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아세아 침략을 위한 미 일 반동들의 《공동 작전》 계획

현 명 준

《…미국은 아세아에서 전쟁의 근원으로 되는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켜 극동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일본 반동 지배 계층들과 일미 군사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침략적인 <동북 아세아 동맹>을 조작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일본 군대는 증강되고 있으며 신형 무기들로 장비되고 있다. 미제의 비호 하에 또다시 아세아의 정복을 망상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자기 군대의 <해외 출병>을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재침략의 길에 나서고 있다》(김 일성).

아세아에서 미제의 정치, 군사적 패배가 심각화됨에 따라 그를 수습하기 위한 미 일 반동들의 군사적 결탁이 날로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

다 아는 바이지만 온갖 반동들과 제국주의자들은 그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저들의 옛지위와 침략적 기도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며 멸망에 직면하면 할수록 더욱더 발악하는 것이다. 오늘 미 일 간의 모순이 날로 심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는 그들이 아세아에서 처하고 있는 절망적인 위기, 그리고 전후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특징과 관련하여 침략적인 공모와 결탁이 미 일 관계의 주되는 측면을 이루고 있다.

아세아 침략에 있어서 미제는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자기의 《돌격대》로 리용하려 하고 있으며 한편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극동 전략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미제를 등에 업고 팽창된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거하여 《대동아 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 보려 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비호 하에 침략적인 《일한 조약》을 국회에서 날치기 식으로 통과시켰고 그것을 계기로 남조선에 더욱 대대적으로 침투하고 있으며 미제의 남부 웰남 침략 전쟁을 적극 《협조》하여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그들은 《고도 국방력》이라는 이름 밑에 일본 《자위대》를 대폭 증강함으로써 미제와의 《공동 작전》 수행에 적응케 하려 하고 있다.

미 일 반동들의 군사적 결탁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작전》 계획은 《세 개 화살 작전》 계획, 《날아 가는 룡 작전》 계획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현실적인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 일 반동들 간의 침략적 결탁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되살아 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본격적인 대외 침략의 길에 나서려 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침략과 예속

미일 《공동 작전》 계획은 한편으로는 극동 및 동남 아세아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군사 정치적 위기로 하여 허덕이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그를 수습하기 위하여 일본 군국주의를 침략적 《돌격대》로 리용하려는 측면과 다른 편으로는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복무하면서 자기의 상전을 등에 업고 대외 침략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미일 반동들의 이와 같은 군사적 결탁의 특징은 아세아 침략을 위한 길에서 서로 리용하면서 각기 자기의 검은 배'속을 채워 보려는 강도적 야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지배 계층들은 전후 아세아에서 급속하게 붕괴되는 식민지 통치 체계를 유지 강화하며 날로 장성하는 혁명 력량을 반대하기 위하여 일본 독점 자본과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며 그를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는 것을 자기의 주되는 대외 정책의 하나로 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의 공간인 일본 무력을 창설하기 위하여 1950~1962년 기간에 근 70억 딸라의 《군사 지출》을 하였다. 미제의 방대한 《원조》와 적극적인 비호 하에 일본의 군사력은 급속히 장성하였는바 14개 사단의 《륙상 자위대》는 《준원자력 사단》으로 개편되였으며 《해상 자위대》와 《항공 자위대》도 각각 14만 톤 이상의 함선과 에프 86형 전투기를 주력으로 한 1,200대 이상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 륙군의 군사 장비는 제2차 세계 대전 전에 비하여 5배의 화력과 7배의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

미제는 이와 같이 일본의 군사력 창설을 적극 《원조》함과 동시에 군국주의의 경제적 기초로서의 일본 독점 자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후 16년 간에 무려 40억 딸라의 막대한 자금을 《원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 전쟁을 계기로 일본에 방대한 군사 물자를 주문함으로써 일본 독점을 비대케 하였으며 군수 산업의 확장을 적극 추동하였다.

일본 독점 자본은 미국의 《원조》와 근로자들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에 의하여 급격히 강화되였으며 그의 경쟁력은 비상히 제고되였다.

공업 구조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는바 중화학, 전기 기계 공업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졌다. 이것은 미일 반동들의 군사 보급 기지화 정책에 의하여 일본 공업이 구조 상에서 어느 때든지 군수 산업으로 개편될 수 있게 되여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와 같이 미국 지배 계층은 《원조》를 공간으로 미국에 대한 일본 독점 자본의 예속성을 강화하였고 일본 《자위대》에 대한 사실 상의 통제권을 장악하였다. 즉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육성 하에서의 일본 독점과 군국주의의 부활 과정은 동시에 미제에 대한 일본의 군사 정치적 및 경제적 예속이 강화되는 과정이였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일본이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 속하며 굴지의 공업 국가로 알려지고 있으면서도 특히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대미 추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근본 원인의 하나가 있다.

미제에 대한 일본의 군사, 정치, 경제적 분야에서의 예속적 상태는 오늘 일본 군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미제와의

《공동 작전》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제에 대한 일본의 예속성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본 군사력 건설의 전 과정이 미제의 《원조》와 그 통제하에서 진행되였다는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일본 무력이 어느 정도 미국에 의존되여 있는가는 일본 《자위대》의 무장 장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군사적 납입 비률을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1962년 10월 1일 현재 일본 육상 《자위대》의 땅크의 거의 전부, 자동포의 90%, 대포의 100%, 류탄포의 96%, 고사포의 100%, 박격포와 로케트포이 100%, 장갑차의 60%, 기관총의 99%, 보총 및 자동총의 100%, 그리고 무한궤도차의 85% 등이 미제의 《원조》에 의하여 공급된 것이였으며 일본 군용 비행기 1,644 대 중에서 781 대(47.5%)와 해상 《자위대》 소유 총함선 수의 42.2%, 톤수의 51.9%가 미제의 《원조》로써 공급된 것이였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무기들도 거의 미국의 기술 문건에 의하여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침략 전쟁에서 동일한 규격의 무기를 사용하며 동일한 보급 기지를 리용할 수 있게 되여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일본 군대의 예속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재일 미 군사 원조 고문단이다. 1954년의 《상호 방위 원조 협정》에 의하여 일본에 설치된 이 고문단은 《원조》의 대'가로 일본 《자위대》에 대한 광범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바 무기 품목의 결정, 관리 및 그 사용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물론 《자위대》 간부의 선발 배치에 이르기까지 간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리 하여 일본 《자위대》는 사실상 미군의 수중에, 그 지휘 하에 놓여 있으며 미 극동 전략의 일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예속성은 일본의 경제에서도 현저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전후 일본 독점 자본에 대한 미국의 육성 정책과 일본 독점 자본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본래 구미 독점 자본에 비하여 락후하였던 일본 독점 자본은 대전 후 중요 원료, 자금, 기술, 시장 문제에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일본 독점 자본의 대미 종속 관계는 심화되였다. 일례로 미국에 대한 금융적 종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자 도입만 보더라도 일본이 도입한 외자 총액 32억 딸라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하고 있다. 전후 미국 독점 자본은 각이한 형태로 일본 공업에 침투하였는데 특히 군수 공업의 모체인 일본의 기간 공업에 대한 침투 및 이 분야에서의 미일 독점 자본의 결합은 일본 경제의 예속성과 함께 그 침략성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대미 예속성은 또한 일본의 대외 무역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우선 무역의 대미 의존도와 수출입 구성에서 볼 수 있다. 무역에서 일본의 대미 의존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적자는 전후 18 년 간(1945~1963년)에 총액 85억 딸러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의 일본 무역 적자 총액의 72.3%에 해당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군국주의가 미제와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며 《공동 작전》 체제

를 형성하려는 것이 순전히 그의 예속성 때문이며 미제에 복무하는 측면만 가지는가 하는 응당한 질문이 제기된다.

우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군국주의는 미제의 극동 전략의 일익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체의 팽창된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거하여 독자적인 침략 계획을 실현해 보려 하고 있다. 이것은 전후 미제의 비호 하에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의 특성, 또는 그 2중성과 관련되여 있다.

일본 군국주의는 대외 팽창에 있어서 그의 2중성으로 하여 한편으로는 미제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에 복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전을 등에 업고 일본 독점 자본의 독자적인 대외 팽창을 실현하는 데 복무하는 것이다.

아세아 침략을 위한 미 일 《공동 작전》 계획 역시 일본 군국주의의 그러한 2중성을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일본 반동 계층들은 미제의 극동 침략 정책에 가담하여 《돌격대》의 역할을 다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미제에 복무하는 대가로 상전이 틔여 준 길을 따라 팽창의 마수를 뻗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와 독점 자본이 대외 팽창을 실현함에 있어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편승하는 것은 전후 아세아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정세와 일본 독점 자본의 취약성과 관련되여 있다.

일본 공산당 제 7 차 대회의 정치 보고에서는 2 차 대전 후 일본 독점 자본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난관들을 분석하면서 바로 이러한 약점과 난관으로부터 일본 독점 자본이 그 자체의 제국주의적 재생의 야망을 가지고 철저한 군국주의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미제의 예속 상태를 리용하려는 근원과 일본 독점 자본의 대국적인 특성이 흘러 나온다고 지적하였다. 즉 여기에 일본 군국주의가 대미 예속적 관계를 감수하면서 《공동 작전》 계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날뛰고 있는 다른 하나의 원인이 있다.

일본 독점 자본은 대전에서의 패전으로 인하여 종전의 식민지들과 《세력권》을 죄다 상실하였으며 한편 아세아에서 제국주의 지반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우리 나라와 중화 인민 공화국, 웰남 민주 공화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출현하여 강유력한 불패의 력량으로 되고 있으며 일본 인민을 포함한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이 전례 없이 앙양되고 있다. 이것은 아세아에서의 혁명과 반혁명 간의 력량 관계가 혁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으며 일본이 자기의 제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떠한 침략적 책동도 단독으로는 감행할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바로 이러한 정세에 직면하여 일본 독점 자본은 일 미 간의 모순이 날로 심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침략적 리익을 위하여 미제와의 군사 정치적 및 경제적 동맹에로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레닌은 일찌기 일본 제국주의 발전의 특성을 분석한 데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은 동방 제국, 아세아 제국을 략탈할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러나 다른 나라의 지지 없이는 여하한 독자적인 재정적 및 군사적 력량도 가질 수 없다》(레닌 전집 제 31 권, 265 페지).

이것은 일제가 대외 팽창에서 그의 제국주의 발전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력사적으로 적용하여 온 수법이다.

탈타기 놀음

미 일 《공동 작전》의 모험성과

침략성을 가장 로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악명 높은 《세 개 화살 작전》(세 개의 화살이란 미군, 일본 《자위대》, 남조선 괴뢰군을 말한다) 계획과 최근 일본 국회에서 또다시 폭로된 《날아 가는 룡 작전》 계획이다.

《세 개 화살 작전》 계획은 일본 방위청 장관 고이즈미의 국회 답변에 의하면 총 1,419 페지에 5 분책으로 된 주도 세밀하게 작성된 침략 문건이다.

이미 출판물들에서 널리 폭로된 바와 같이 이 계획의 《상정(想定)》에서는 미제가 《북으로부터의 침략》이라는 구실밑에 《제 2 차 조선 전쟁》을 도발하는 구체적 정황을 가상하고 있으며 《해답》(정황에 따르는 대책)에서는 《공동 작전》 수행과 전쟁 기구의 발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계획은 일본 《자위대》가 미군, 남조선 괴뢰군과 함께 협동 작전을 수행할 일곱 개의 계단(제 1 동(動)에서 제 7 동까지)으로 구분되여 있는바 이것은 침략 전쟁을 조선과 중국, 쏘련에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단이며 동시에 그들의 죽음의 계단이다.

이 밖에 계획에서는 전쟁의 수행과 함께 미제가 핵 무기를 일본에 끌어 들이여 사용하는 문제, 일본 《자위대》를 핵 무기로 무장하는 문제 등 광범한 범위에 걸쳐 미제와 《협조》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다른 한편 《날아 가는 룡 작전》 계획 역시 조선과 중국을 공동으로 침략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을 가상하고 미 일 《공동 작전》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두 《계획》에서 특징적인 것은 각이한 명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우리 나라와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을 침략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 일 협동 작전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연하지 않다. 우리 나라와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으며 극동과 아세아에서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도발 책동을 분쇄하고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불패의 강유력한 요새로 되고 있으며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고 있다.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력의 장성과 그 거대한 영향력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 력량 관계는 미 일 반동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전변되고 있으며 미제의 정치 군사적 위기는 극도에 이르고 있다.

일본을 미제의 군사 전략 체제에 깊이 끌어 넣는 상술한 《세 개 화살 작전》 계획은 미국의 극동 전략의 일환으로서 벌써 오래 전부터 준비되여 왔으며 미제의 직접적인 참가 하에 작성된 것이다. 이 계획 작성에 직접 참가한 이전 일본 륙군 중장 다나까 요시오라는 자는 《주일 미군의 수명의 부장급(대좌) 장교가 참가하였다》는 것을 실토하였으며 또 극비 도상 연습이 재일 미 군사 고문단 본부의 바로 옆에서 진행되였다는 것은 미제의 직접적인 지시와 참가 하에 진행되였음을 확증하여 준다.

《세 개 화살 작전》 연습이 진행되기 직전인 1963년 2월에 미 국방 차관 질패트릭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지배층들과 비밀 회담을 진행하고 미국에 돌아 가서 《미국은 일본이 태평양 서북부의 방위 분담을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담당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이 장래 조선 반도의 일부를 포함한 지역을 수호하는 데 충분한 〈감시적인

전투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한국은 미국 사단들의 재증강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것이 미제의 극동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계획되여 왔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세 개 화살 작전》 계획을 준비하는 한편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발적인 군사 연습을 빈번히 감행하여 왔다. 1961년에는 벌써 조선에서의 군사 작전을 예상한 일련의 연습을 《자위대》 각 부대에서 진행하였는바 동년 11월에 1만 2,000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에서의 산악전을 예상하고 진행한 이른바 《립체 작전》은 그 일례이다.

이 모든 사실은 《세 개 화살 작전》 계획이 일본 반동 지배층들이 말하는 《책상 우의 계획》이나 순수한 《도상 연습 계획》이 아니라 조선에서 또다시 침략 전쟁을 도발하며 그것을 더욱 확대하려는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전쟁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을 보여 주며 아세아 인민을 반대하는 미일 반동들의 침략적 《공동 작전》 계획이 하나의 구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여 왔으며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조선 인민과 아세아의 진보적 력량을 반대하는 미일 반동들의 군사적 결탁은 현재 이 지역에서 미제의 군사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각화됨에 따라 일층 로골화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사촉 하에 침략적인 《일한 조약》을 국회에서 파쑈적 방법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남조선 괴뢰들과의 결탁을 《합법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남조선을 재침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었으며 일본을 지주로 하는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의 조작을 위한 실제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다.

아세아에서 미제를 일방으로 하고 《미 한》, 《미 대만》, 《미 일》 간의 쌍무적 《군사 동맹 조약》이 체결되여 있고 한편 《한 대만 우호 조약》이 이미 1964년 10월에 가조인되였고 《일 대만 우호 조약》이 1952년에 체결되여 있는 조건에서 일본과 남조선 박 정희 도당 간의 결탁이 맺어진 지금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은 사실 상 움직이고 있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군사 동맹인 《일한 조약》 조작에 앞서 《공동 방위》라는 구실 하에 《일한 군사 협력 계획》을 작성하고 남조선 괴뢰군에 일본산 《에프-104》 최신형 비행기를 비롯하여 각종 군용 차량들과 무기, 함정 등을 대량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괴뢰군 기술 인원들과 항공기 조종사들을 양성하여 주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배치에서 《홋가이도 중심주의》로부터 《규슈 중심주의》로 옮기고 있으며 조선 해협을 《공동 봉쇄》할 데 대한 흉계까지 꾸미며 조선에서 작전을 예상한 《랭한 훈련》 등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자주 벌리고 있는 것이 《세 개 화살 작전》 계획과 직접 관련되여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와 함께 일본 반동 계층들은 국내에서 일본 공산당을 비롯한 민주 력량에 대한 탄압 행위를 강화하면서 각종 파쑈적인 악법을 조작하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웰남 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 전쟁에 공공연히 《협조》하여 나서고 있다. 일본 출판물들에 의하면 일본의 전쟁 상인들은 지금 웰남에서 침략 전쟁을 감행하는 미제에게 약품, 가

스, 통신 기재, 군용 트럭, 땅크, 군복, 수림 지대에서 사용하는 고무신 등 막대한 군수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웰남에서 사용되고 있는 나팜탄의 92%가 일본에서 제작 공급된 것이며 매일과 같이 웰남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고 도시와 마을들을 불사르고 있는 미국 군대와 폭격기들이 일본에 설치되고 있는 군사 기지들을 리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 지배층들은 이와 같이 자국 령토를 미제의 침략 전쟁에 내맡기고 있을 뿐 아니라 전쟁 물자를 공급해 줌으로써 미제의 위험한 전쟁 놀음에 직접 끼여 들고 있다.

일본 수상 사또는 금년 1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미제의 아세아 침략에 더욱더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남부 웰남 전쟁은 일본에 있어서 사활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정신적 이상의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드러내놓고 떠벌리였다.

이 모든 것은 미 일 반동들이 공모하여 작성된 《세 개 화살 작전》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으며 아세아 침략을 위한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 간의 침략적 결탁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죽음에로의 길

미제와 그의 비호 하에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공모와 결탁은 그 자체의 반동적인 본질로 하여 그리고 아세아에서 노도와 같이 일어 나고 있는 반미 반제 투쟁의 위대한 력량에 의하여 파산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아세아 인민을 반대하기 위한 미 일 간의 결탁과 그 누구를 놀래우기 위한 군사적 소동은 이 지역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지 결코 힘의 《우세》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의 극단한 모험성도 바로 이 위기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 반동 지배 계층들은 미제와 결탁하여 광범한 일본 인민의 리해 관계를 짓밟고 일본을 극동에서의 침략 전쟁의 온상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전체 일본 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되고 있으며 전 세계 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하여 막대한 희생과 고통을 체험한 일본 인민은 반동적인 사또 내각의 대미 추종 정책과 미 일 간의 군사적 결탁이 일본 인민에게 어떠한 재난을 가져 올 것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아세아 침략을 위한 미 일 반동들의 군사적 결탁은 첫째로, 그것이 일본 인민은 물론 전체 아세아 인민의 근본적 리익을 반대하고 침해하기 위한 극도의 반동성으로 하여 파멸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

현재 광범한 일본 인민과 전체 아세아 인민들은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책동을 반대하는 강력한 공동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침략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미 일 반동들을 궁지에 몰아 넣고 있는 일본 인민들의 《일한 조약》 반대 투쟁은 그 규모와 깊이에 있어서 1960년의 《일미 안보 조약》 반대 투쟁을 릉가하고 있다. 금년 9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전 인민적인 반미 애국 투쟁은 전국적인 공동 투쟁으로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련일 수십 수백만의 각계 각층 인민들이 투쟁에 망라되고 있다.

그들은 《일한 조약을 분쇄하자!》, 《사또 내각을 타도하자!》, 《국회를 해산하라!》고 웨치면서 집회들과 시위들

을 단행하고 있다. 이 투쟁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미핵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고 있다.

오늘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는 일본 인민의 각이한 형태의 투쟁은 미일 반동들을 반대하는 전반적인 투쟁에 합류되면서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일본 인민들의 이 투쟁에는 일본 공산당을 선두로 한 민주주의적 정당과 사회 단체들이 광범히 망라되고 있으며 로동 계급을 비롯한 농민, 청년 학생, 근로하는 도시 주민, 지식인 등 각계 각층이 대중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일본의 광범한 근로 인민들은 최근 몇 해 동안에만 하여도 《안보 조약》 반대 투쟁, 《정치 폭력 행위 방지법》 반대 투쟁, 《일한 회담》 반대 투쟁, 《군사 기지 철거》 투쟁과 《원자력 잠수함 기항》 반대 투쟁 등을 통하여 풍부한 투쟁 경험과 력량을 축적하였으며 자기의 전투적 위력을 시위하였다.

일본 인민의 투쟁은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불패의 강력한 힘으로 장성할 것이며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 것이다.

일본 인민의 이 성스러운 투쟁과 함께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제와 박정희 도당은 로동자들과 청년 학생들을 위시한 남조선 인민의 이 투쟁 앞에서 허덕이고 있다.

《공동 작전》 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일 미 반동들의 침략적 결탁은 또한 그것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과 신생 력량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극도의 모험성을 배태하고 있으며 패배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와 중화 인민 공화국, 웰남 민주 공화국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으며 아세아에서 평화의 불패의 힘으로 되고 있다. 이 나라들은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전쟁 도발도 능히 격파할 수 있는 정신적 및 물질적 력량을 가지고 있다. 만일 미일 반동들이 《세개 화살 작전》 계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무모한 침략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종국적인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비록 현 단계에서는 미 일 반동들의 결탁이 주되는 측면을 이루고 있으나 그들 간에는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레닌은 일찌기 제국주의자들의 동맹은 강도들의 동맹으로서 강도들은 단결할 수 없으며 단결할 진정하고 위대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 하다고 하였다.

현재 일본 독점 자본과 미국 독점 자본 간에는 리해 관계의 충돌로 하여 모순이 심각화되고 있다. 특히 무역 문제, 태평양 어업 문제, 해운 문제, 일미 항공로 리용 문제 등을 둘러 싸고 첨예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독점 자본이 자기의 경쟁력과 독자적 지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미국에 대한 예속적 상태를 더는 참을 수 없게 되며 마침내는 미국에 《도전》하여 나서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미 일 반동들 간의 군사적 결탁의 붕괴와 그들의 침략 정책의 필연적인 파탄을 조건 짓는 상술한 제반 요인들은 날이 갈에 따라 더욱더 증대될 것이며 아세아 인민들을 반대하는 미일 반동들의 침략 책동은 종국적인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지정학》은 미제의 남조선 침략을 정당화할 수 없다

강 필 순

《지정학》은 제국주의자들의 대외 팽창 정책에 복무하는 부르죠아 반동 리론의 하나이다. 이것은 인종론, 말사스주의 등 부르죠아 사회학의 관념론적 조류와 결합된 《지리적 환경 결정론》(지리적 유물론)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된다.

《지정학》은 20 세기 초 세계의 분할 및 재분할을 위한 투쟁이 극도로 첨예화된 환경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대외 침략 정책을 비호하는 사상적 무기로서 출현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인민들을 침략 전쟁에로 내몰며 저들의 군사적 침략 책동을 변호하는 데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을 동원하였다.

원래 《지정학》은 스웨리예의 첼렌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창되였고 독일의 하우스호페르, 영국의 맥킨더 등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였다. 그들은 제국주의 전쟁과 식민지 강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간 증오 사상을 고취하면서 제국주의적 령토 팽창의 소위 자연 법칙성을 주장하였다.

대외 팽창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정학》을 가장 널리 리용한 것은 파쑈스트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이였다. 특히 독일에서 《지정학》이 성행한 것은 제 1 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의 지배 계급이 저들의 군국주의를 재생시키여 상실한 식민지를 회복하고 새 식민지를 략탈하기 위한 《리론적》 무기로서 《지정학》을 적극 리용한 것과 관련된다.

히틀러의 개인 고문이였던 지정학자 하우스호페르는 구라파의 중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위대한 독일 민족》이 린접 국가 령토를 병탐하는 것은 지정학적 견지로 볼 때 법칙성을 띠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나치스 히틀러의 제 2 차 세계 대전 도발에 《리론적 타당성》을 안받침해 주려고 시도하였다.

아세아의 지배를 망상하면서 《대동아 공영권》의 《맹주》로 자처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역시 지정학자들로 하여금 일본 민족만이 《천손 민족》으로서 아세아뿐 아니라 세계를 지배할 《천명》을 띠고 있다고 주장케 함으로써 저들의 침략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의 파쑈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의 참패는 세계를 지배하게끔 《운명 지어진 위대한 민족》이란 존재하지도 않으며 일본을 《맹주》로 하는 《대동아 공영권》이란 결국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였다. 《지정학》은 파산의 운명을 면할 수 없었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의 령토적 팽창 정책이 자연 법칙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며 타국가와 타민족에 대한 침략은 반드시 이를 반대하는 정의의 투쟁에 의하여 극복되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력사의 교훈은 모든 사람들을 현명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독일 군국주의의 재생과 더불어 《지정학》은 다시 그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무기로 등장하고 있다. 독일 복수주의자들은 새로운 침략적 군대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을 강도적 《지정학》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데 광분

하고 있다.

1924년부터 1944년까지 하우스호페르의 책임 하에 발간되였던 지정학자들의 기관지 《지정학》이 1951년부터 다시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54년에는 파쑈스트 단체인 《지정학 연구회》가 부활되였다.

《지정학》은 전후 시기에 와서 특히 미국에서 널리 류포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 미제 침략 정책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엄페물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새 전쟁을 준비하며 세계 제패의 야망을 추구하면서 《지정학적 리론》을 전쟁의 선전적 목적에 적극 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지정학》은 미국 대외 정책의 공식적인 《리론적》 기초로까지 되였다.

미국에서는 제 2 차 세계 대전 시기에 벌써 《지정학》의 중요한 대표자 스피크맨의 저서들이 출판되였다.

이 저서들에서는 히틀러 도당이 선전하던 사상 즉 세계 지배에서 선발된 인종의 특수한 역할에 관한 사상을 선전하였다. 다만 필자는 게르만족 대신에 앵글로-쌕슨족을 내세우고 있으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여야 한다고 선전하였다. 여기에는 바로 새 전쟁의 선전, 악명 높은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의 선전이 들어 있다.

례컨대 미국 국회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는 잡지 《포린 아페어즈》는 《지중해 연안에 대한 미국의 거대한 리해관계》를 천명하고 있다: 《지중해의 지정학적 가치는—하고 잡지는 쓰고 있다—그것이 대양들로부터 들어 오는 해로들의 교차점이며 대양들을 서로 련결시키는 운하들의 교차점이라는 데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중해는 중근동으로 들어 가는 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길을 보장해 주며》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에 대한 《통제는 전쟁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을 위한 수 많은 군사 기지의 창설과 각종 침략 쁠럭의 조작의 필요성이 《지정학》의 도움으로 《립증》되고 있다.

이러한 반동적인 《지정학》이 오늘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에서도 이러저러한 형태로 류포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지정학적 조류는 제국주의의 대외 팽창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민족 허무주의를 설교함으로써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일본 군국주의의 남조선 재침을 합리화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 *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지정학》은 하우스호페르나 맥킨더의 류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나 사회의 발전이 지리적 위치와 기타 지리적 환경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조선 침략과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 그리고 우리 조국 강토의 남북으로의 분렬 등을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지리적 환경 특히는 그의 지리적 위치의 특성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례를 들어 잡지 《세대》에서 한 필자는 《우리 나라와 같은 위치는… 량대 세력의 투기장으로 제공되거나 어느 일방에 지배되기 마련이》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력사는 줄곧 짓밟힌 력사 뿐이였다》고 사실을 외곡하고 있으며 《대륙 쪽에서 보면 남하 정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위치요, 해양 쪽에서 보면 대륙 진출에의 세력선이 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숙명적으로 량대 세력의 획득 대상임은 틀림 없다》고 떠벌리면서 지리학적 숙명론을 설교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지정학자로 자처하고 있는 친일 주구 표 모는 지어 일제의 조선 침략을 《해양국 일본》의 《자체 발전》을 위한 《력사적 행동》이라고까지 묘사함으로써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해외 팽창 정책과 그들의 조선 침략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 자들은 또한 조국의 남북 분렬을 조선의 지리적 위치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성된 불가피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

다. 즉 조선 반도가 《강대국 간에 개재한 세력의 교차 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는 조선이 《동서 랭전의 틈바구니에 끼워 있기》 때문에 남북 분렬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영구 분렬 정책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이러한 《리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히틀러의 세계 팽창 정책을 《리론적》으로 안받침한 하우스호페르와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제패 정책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대륙 침략 정책을 《정당화》한 맥킨더의 《리론》의 재판이다.

하우스호페르는 《국가 본능》에 관한 《리론》을 내놓으면서 《대륙 국가는 반드시 바다에로 진출하며 해양 국가는 반드시 대륙에로 그 령역을 확대하려고 하는바 이는 국가의 본능에서 오는 자연 법칙》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맥킨더는 세계의 륙지를 《로써야와 같은 내륙부 세력과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은 해양 세력 그리고 그 중간에 해륙을 겸한 대륙의 연변 세력으로 삼분》하고 《세계 력사는 항상 내륙부 세력과 해양 세력이 그 중간을 획득하려는 싸움》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그 국가의 운명과 국가들 간의 관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의 정책과 지리적 환경 간의 호상 관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지리적 위치와 환경은 국가 발전의 자연 지리적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그 국가의 정책과 경제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정책을 규정하거나 사회 발전을 규정 짓지는 못한다. 그것은 국가가 지리적 위치와 환경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제도를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은 사회-경제 제도의 반영이며 그 산물이다.

오늘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조선의 분렬, 과거 일제의 조선 강점과 오늘 남조선에 대한 그의 재침 등의 침략 정책의 원인은 조선의 지리적 위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대륙에 가깝게 위치한 《해양국》이라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대외 팽창 정책을 규정하는 그 나라의 사회-경제 제도, 국가 제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에게 있어서 식민지는 상품 판매 시장, 원료 원천지, 자본의 투하지, 군사 전략 상 기지 및 값싼 대포'밥의 공급지로서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필요성으로부터 미제는 과거에도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며 해방 후 남조선을 강점하였고 오늘 북반부와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 도당을 결탁시키며 이 괴뢰들을 중심으로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와 환경에 의하여 '국가의 정책이 규정된다고' 하는 지정학적 《리론》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자연 지리적 현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자들 앞에 엎디여 충성을 맹세하며 노예의 정신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리론》이 사고 능력 있는 그 누구도 기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족적 긍지와 자주 의식과 반미 구국 투쟁 정신으로 충만된 남조선 인민들의 멸시와 격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지정학적 조류는 《민족 심리가 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전제 하에 《조선 민족의 락후성》을 론의하고 있다.

반동 어용 학자들은 기후적 조건이 사회 발전과 민족 심리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이미 파산된 지 오랜 미국의 반동 지리학자 헌팅톤의 《기후 문명론》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조선 민족의 용감성과 민족 심리의 우수성을 거부하려고 시도한다. 이들은 헌팅톤의 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후가 한랭하고 건조한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은 대체로 의지가 공고하고 모험적이며 근면하나 이와는 반대로 열대 지방에 거주

하는 민족은 타태하고 안일과 쾌락만 추구하며 노력을 꺼린다》고 지껄이고 있다.

남조선의 지정학적 조류는 우리 나라의 기후가 한대가 아니고 온대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 민족은 북방 제 민족과 같이 민족적 의지가 강하지 못하고 연약하며 《민족적 결속이 부족》하고 《권위에 복종하며 모방성이 강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력사도 전통도 모르고 현실도 바로 볼 줄 모르며 다만 밥벌이를 위하여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기후 조건의 영향이라는 소위 리론의 힘을 빌려 자기의 나약성과 허무주의적 경향을 자체 폭로하는 좋은 실례로 된다. 가련한 사람들의 이러한 잡담이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이나 민족적 의지를 훼손하거나 모독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람들을 교양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의 전 력사와 애국적, 혁명적 전통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근 력사에 속하는 일제를 반대하는 전 인민적인 3.1 봉기, 해방 이후 미제 침략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항쟁 특히 4.19 인민 봉기와 최근에 있은 미 일 제국주의와 박정희 도당의 매국 행위를 반대하는 투쟁만을 들어도 그들의 잡따대를 깨뜨려 버리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열대 지방에 살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은 식민주의, 신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독립된 나라 인민들은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라의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데로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다. 기후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강의하고 혹은 타태하다는 등 소위 리론은 가혹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막을 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남조선에서 류포되고 있는 지정학적 조류는 또한 실업과 빈궁, 각종 사회악을 초래하는 남조선에서의 경제적 후진성을 《생활 공간》의 부족 특히는 지하 자원의 결핍, 불리한 자연 조건 등등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이 사람들은 남조선의 《근대화》를 저애하는 근본적이고 제 1 차적인 원인이 《불리한 풍토 조건의 숙명적인 악순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름답고 풍요한 우리 나라의 자연에 대하여 모독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의 반동 지리학자 형 모는 《우리 조상이 과거에 겪었고 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풍토에는 〈금수 강산〉이란 가당치도 않고 오히려 그렇지 못 함으로 말미암아 저해된 한국의 근대화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우리 나라의 기후가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어서》 농업에 불리하다고 떠벌리는가 하면 산야에 나무가 없는 것을 토양이 척박한 데 원인이 있다고 사실을 외곡하고 있다. 또한 남조선의 지정학적 조류는 일치하게 남조선이 《농업국》으로 남아 있는 락후성이 마치 계절풍과 그에 기초한 벼 농사에 기인하는 것처럼 허황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벼 농사를 택하지 않았더라면 현재와 같은 농업 국가로서의 후진성과 극히 빈약한 로동 수익을 감수하면서 조밀한 인구 집단을 형성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이 훌륭한 전통으로 남겨 놓았고 조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물인 쌀을 생산하는 벼 농사가 남조선의 후진성을 초래했고 사회 발전을 저애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후적 조건이 농사에 불리하고 산에 나무가 자라지 않을 정도로 토양이 척박하며 벼 농사가 남조선의 후진성을 초래했다고 하는 이 신사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는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사시절이 명백하고 남북을 통하여 기후가 다양하며 특히 식물이 자라는 여름에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일련의 열대 작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에 나무가 없는 것은 남조선의 토양이 척박한 탓이 아니라 미제와 괴뢰도당의 람벌에 기인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계절풍과 벼 농사가 사회 발전을 저애했다고 하는데 계절풍 지대에 놓여 있고 벼 농사를 주로 하는 공화국 북반부는 해방 후 불과 몇 해 어간에 식량이 부족하던 지대로부터 식량이 여유 있는 지대로 전변되였으며 오늘에는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북반부의 농업은 흉년을 모르며 기계화, 전기화되여 가는 사회주의적 집단 경리로 전환되였다. 이러한 대변혁은 우리 당의 령도 하에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자연을 인공적으로 개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남조선이 락후한 농업국으로 남아 있는 것이 벼 농사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락후한 사회 제도와 미제의 식민지 군사화 정책, 그 주구들의 매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반부와 같이 토지 개혁과 자연 개조, 기술 혁명이 진행되지 못하고 해마다 자연 재해를 입으며 많은 농토가 군용지로 뺏기고 략탈 당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오늘 남조선의 지정학적 조류에 물젖은 사람들은 자체의 무식을 폭로하면서 남조선 경제의 심한 락후성을 《근대화》에 필요한 지하 자원의 결핍에 기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자연 조건으로 인한 피치 못할 현상인듯이 묘사하고 있다. 특히 남조선의 자원량을 미국의 그것과 기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숭미 공미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광물의 표본실》, 《동방의 보물고》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일제 시기에 이미 우리 나라는 금, 중석, 흑연, 형석, 몰리브덴, 중정석, 운모 등 주요 광물의 매장량 및 절대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10 위 내에 들었다. 특히 흑연 생산에 있어서는 세계 제 1 위를 차지하였었고 금 생산에 있어서도 단위 면적당 생산량으로 보면 남아프리카와 맞먹는 세계에서 첫째 가는 산금국이였다. 남조선은 석탄, 철 기타 일련의 광물 매장량에 있어서 북반부에 비하여 훨씬 떨어진다. 그러나 각종 합금용 금속 광물과 희유 금속 광물 등에 있어서는 북반부에 못지 않게 다양하고 풍부하다.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광종이 발견되거나 또는 기존 광산의 매장량이 부단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일제는 북반부의 석탄 매장량을 20억 톤이 못 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해방 후 우리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석탄 매장량은 80억 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조선에서도 과학적인 지질 탐사 사업이 진행된다면 더 풍부하고 다양한 지하 자원을 가지게 될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오늘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에서 지질 탐사 사업은 없다십이 되여 있으며 중석 등 미제의 략탈 대상으로 되는 몇 종의 전략 광물을 제외하고는 그 개발과 채굴이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지하 자원의 결핍이 남조선의 《근대화》를 저애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결국 남조선의 후진성이 낡은 사회 제도와 미제의 식민지 군사화 정책의 반동성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사회학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류파의 완전한 파산을 증명하였으며 자연과 인간 사회와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리해할 수 있게 하였다. 모든 사회적 변화의 규정적인 힘은 자연적 환경이 아니라 사회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을 모든 인민들의 력사가 확증하여 준다.

* *

오늘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에서 저들이 실시하고 있는 식민지 군사화 정책과 매국 배족 정책을 정당화하며 조선 민족을 우매화하기 위하여 사이비적 《리론》인 《지정학》과 그의 조류를 류포시키기에 백방으로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의 지정학적 조류는 이미 파산의 운명에 처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지리적 요인이 사회의 발전이나 국가의 정책을 규정하는 힘으로 된다고 믿을 정도로 우매하지 않다. 그들은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상과 모든 사회악이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정책의 후과임을 인식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의 사상적 기초의 하나로 되는 《지정학》을 폭로하며 사회 발전에 관한 진정한 과학인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써 이를 론박하는 것은 부르죠아 반동 사조와의 투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근 로 자 제 23 호 (루계 285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12월 3일 발 행 • 1965년 12월 5일

ㄱ—530639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4 호 12 월 20 일

평양 근로자사 1965

제 24 호 (283)

1965년 12월 (하)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협동 농장들에서의 분조 도급제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이후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농촌 정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개별적 측면들을 부단히 개선 완성하며 협동화에 의하여 앙양된 농민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로력적 열성을 농업 생산에 최대한 조직 동원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며 농업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의 창발성을 계속 높이 불러 일으키자면 농촌에서 사상 혁명,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동시에 매 시기 도달된 생산력 발전 수준에 상응하게 로동 조직과 분배 형태를 부단히 개선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이 문제의 옳은 해결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농촌 경리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 당은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협동 경리에서의 로동 조직과 분배 형태를 개선하는 데 시종일관 중요한 관심을 돌려 왔다. 당은 특히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청산리 교시와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천하는 투쟁을 통하여 이 분야에서 많은 성과와 경험을 축적하였다.

금번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의하여 협동 농장들에서 전반적으로 도입하게 된 분조 도급제는 바로 우리 당의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성과에 기초하여 창조된 농업 로동 조직과 분배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이다. 그것은 농업 생산의 특성과 우리 나라 협동 경리 발전의 현 단계에 상응하게 로동 조직과 로동에 대한 평가 방법을 보다 완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 생산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집단적인 책임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이며 농업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분조 도급제의 실시는 실로 우리 나라 농촌에서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며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에 접근시킬 데 대한 문제 해결에서 커다란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협동 농장들에서 분조 도급제를 도입할 데 대한 당의 조치가 가지는 의의와 분조 도급제의 본질을 명백히 인식함으로써 그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할 것이다.

* *

협동 농장들에서 분조 도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분조에 일정한 면적의 포전과 로력, 부림소와 기타 생산 도구들

을 고착시키고 정당 수확고와 정당 로력일 투하에 대한 계획을 주어 생산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분조 성원들에 대한 로력일을 년말에 가서 정당 수확고 계획 수행 정도에 따라 확정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분조 도급제의 실시는 우리 나라 협동 경리 발전의 현 단계에서 농업 로동의 특성과 농촌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로동 조직과 로동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가일층 심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진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협동 경리의 공동 로동에서 농민들의 자각적 열성과 창의 창발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로동 조직의 구체적 형태와 규모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 창조적인 대책이다.

일반적으로 로동 조직의 형태와 규모를 잘 설정하는 것은 대규모 사회주의 경리의 관리 운영에서 협업과 분업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며 생산자 대중의 로력적 열성과 창발성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협업은, 일찌기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적 로동자들의 힘의 총계와는 비할 수 없이 큰 사회적 힘, 본질 상 집체적 힘인 하나의 새로운 생산력을 창조하는바 협업의 이 우월성은 매개 부문의 특성에 적응하게 로동 조직의 형태와 규모가 정확히 설정될 때 더욱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로동 조직의 형태와 규모를 옳게 설정하는 문제는 특히 농촌 경리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사업으로 된다. 그것은 농촌의 분산성, 농업의 자연적 및 계절적 특성 등과 관련되여 있으며 또한 농업 생산의 담당자인 농민들의 의식 발전 정도와 농촌 기술 혁명 수행의 특성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농업에서는 공업에서와는 달리 작업 장소가 광활한 지역에 분포되여 있으며 거기에서 농민들은 소집단으로 분산되여 작업하고 있다. 농민들의 작업 대상은 그 취급과 관리에서 일상적으로 높은 책임성과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하는 생물체들이며 이것들은 한 번 자칫 잘못 다루어도 그 성장 발육에 회복할 수 없는 후과를 미칠 수 있다. 농업에서는 또한 생산 주기가 길고 로동 기간과 생산 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며 로동의 결과도 공업과는 달리 곧 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일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도 일상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고 가을에 가서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에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촌 경리가 협동화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농촌의 분산성, 농업의 자연적 제약성 등은 현저히 극복되였으나 그것은 의연히 도시 및 로동자구와 구별되는 농촌의 중요한 특성으로, 공업과 구별되는 농업의 특성으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공업에 비하여 상당히 어렵고 오랜 시일을 요구하게 되며; 협동 농장 관리 일'군들의 지도 수준도 공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농업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인 농민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과거 수천 년 동안 자그마한 땅패기에 얽매여 제가끔 고립되여 농사를 지어 온 만큼 협동 경리에 망라된 이후에도 낡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소소유자적인 생활 관습으로부터 곧 벗어 나지 못하며 공동 경리의 집단 로동에도 충분히 익숙되지 못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농촌에서의 로동 조직, 로력 관리 사업이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사업으로 되며 로동 조직의 형태와 규모는 언제나 이 모든 특성들을 고려하여 거기에 적합하게 설정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농업에서와 같이 작업 대상이 널리 분산되여 있고 로동 과정을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하기 힘든 조건에서 로동 조직의 형태와 규모를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농민들이 토지와 기타 모든 생산 수단들을 더욱 알뜰히 다루고 능률적으로 리용하며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책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의 전 기간 토지와 로력을 계속 고착시킬 수 있는 생산의 내부 단위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협동 농장들에서의 이러한 생산 내부 단위는 그에 대한 지도를 옳게 보장할 수 있고 농장의 모든 력량을 농업 생산에 집중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 결과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규모가 적절하여야 하며 농촌 기술 혁명 수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게 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 협동 경리 발전의 현 단계에서 분조는 바로 이러한 요구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단위로 된다. 그것은 분조가 현시기 협동 농장들에서 생산 조직이 실제로 실현되는 기층 단위로 되고 있으며, 공동 경리의 집단 로동에서 농민들의 생산 열의와 책임성을 높이고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지도를 실속 있게 보장하며 로동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는 문제도 결국은 분조를 단위로 할 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협동 농장들에서 로동 조직의 형태와 규모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관리 일'군들의 수준과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규모가 큰 작업반보다 작은 범위의 분조를 단위로 하여 작업도 조직하고 로력 보수도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사실 상 농장적인 채산제가 실시되는 조건에서 분조 도급제를 도입하여도 통일적 계획에 의하여 수행되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등 기술 혁명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분조 도급제는 협동 농장 관리 간부나 작업반장들이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상적인 농산 작업을 농민들이 자각적으로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조 도급제는 협동 농장 작업반들의 경영 규모가 그 전보다 비할 수 없이 커진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의 현 단계에서 농업 로동 조직을 더욱 심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제기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그것은 협동 농장의 작업반

들이 수 많은 토지와 농기구 및 인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조건에서 농업의 기본 생산 수단인 토지와 로동력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고 농민들의 생산 열의와 자각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분조 도급제의 실시는 협동 농장들에서 로동 지출과 지불의 척도인 로력일의 실제적인 기능을 높이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함에 있어서 또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업 협동 경리 발전의 현 단계에서 로력일의 실제적 기능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함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 그것은 로력일이 협동 경리의 사회화 수준과 농업 생산의 특성으로부터 농촌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실현하는 기본 수단으로 되기 때문이다.

협동 경리 발전의 현 단계에서 로력일의 실제적 기능을 높이자면 로력일 지불 방법을 협동 농장의 주되는 사업인 농업 생산의 최종적인 결과와 최대한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협동 농장들에서 모든 력량을 기본 영농 과업 수행에 집중하고 농민들이 지출하는 로동의 량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다같이 정확히 평가하며 생산 결과에 대한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분조 도급제는 협동 농장의 매개 분조에다 정당 수확고와 정당 로력일 투하 계획을 주고 로력일을 생산의 최종 결과와 직접 결부시켜 재평가함으로써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분조 도급제가 실시되는 조건에서 그 성원들은 년말에 가서 정당 수확고 계획을 초과 수행하게 되면 그 만큼 로력일을 더 받게 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만큼 로력일을 삭감 당하게 된다.

이리 하여 분조 도급제는 농장원들로 하여금 년중 얼마의 로력일을 벌겠는가 보다도 우선은 얼마나 더 많은 생산물을 내겠는가에 관심하게 하며 년간 생산 과제를 수행하면 받게 될 로력일의 총량을 사전에 명백히 알고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강력히 자극한다.

하나의 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가령 논 20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조에 벼 정당 수확고 계획을 5 톤, 정당 로력일 투하 계획을 300으로 규정하여 주었다면 이 분조의 생산 계획은 100 톤(20 정보×5)으로 될 것이며 그것을 수행하면 6,000 로력일(20 정보 × 300)을 받게 될 것이다. 분조 도급제를 실시하는 만큼 분조의 모든 성원들은 이와 같이 년초에 벌써 자기들의 년간 생산 목표와 그것을 수행하면 받게 될 로력일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분조 성원들이 일을 잘 하여 가을에 가서 정당 수확고를 5.5 톤으로 높였다 하면 총수확고는 110 톤(20 정보×5.5)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분조는 계획 생산량 100 톤에 대하여 미리 결정

된 6,000 로력일을 받는 외에 계획 초과 생산량 10 톤에 대하여서도 알곡 1 톤당 60 로력일(6,000÷100 톤)씩 계산하여 600 로력일(10 톤×60)을 더 받게 된다. 만일 이 분조의 정당 수확고가 4.5 톤으로 떨어졌다면 90 톤(20 정보×4.5)의 알곡 밖에 생산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조는 원래 계획에 의하여 받게 되였던 6,000 로력일 중 계획을 10 톤 미달한 대'가로 알곡 1 톤당 60 로력일씩 계산하여 600 로력일을 공제 당하여 결국 5,400 로력일(6,000-600)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분조 전체가 번 로력일 수를 분조 내에서 나눌 때에는 매개 성원들이 분조의 생산 성과를 달성하는 데서 논 실제적인 역할에 따라 로력일을 재평가하여 주면 된다.

이상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분조 도급제는 협동 경리에서 농민들이 년중 수득한 로력일을 년말에 가서 실제로 생산한 생산물에 엄격히 의거하여 확정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분조 도급제가 협동 농장들에서의 로력일 지불을 농장원들이 실제로 지출한 로동의 질과 량에 더욱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하며 일한 것 만큼, 번 것 만큼 분배할 데 대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보다 정확히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협동 농장들에서 로력일의 기능을 높일 데 대한 문제는 우리 당이 시종일관 중요한 관심을 돌려 온 문제의 하나이다. 당은 협동 농장들에서의 로력일 지불 방법을 현물 우대제, 로력일의 가산 및 삭감제, 전불제 등 각종 보충적인 대책들과 밀접히 결부시켜 부단히 개선하여 왔다. 특히 우리 당은 협동 경리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작업반 우대제와 같은 창조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 수 있게 하였다.

금번 우리 당은 협동 농장들에서 작업반 우대제를 계속 실시하면서 분조 도급제를 도입할 데 대한 또 하나의 창조적인 대책을 취함으로써 농업 로동의 평가와 로력일 지불 방법을 농업 생산의 특성에 적응하게 더한층 심화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에 점차 접근시킬 데 대한 과업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 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성과의 하나로 된다.

협동 농장들에서 분조 도급제의 도입은 그 자체의 본질적 특성으로부터 로동 조직과 로동에 대한 평가 방법에서는 물론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사업 전반을 개선하며 농업 생산력 발전을 추동함에 있어서 커다란 우월성을 가진다.

분조 도급제의 우월성은 우선 농장원들로 하여금 모든 농사'일을 더욱 실속 있게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농업의 기본 생산 수단인 토지와 역축 및 기타 생산 도구들을 더욱 알뜰하게 다루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한다는 데 있다.

이것은 분조 도급제가 협동 농장들에서 작업반은 물론 모든 분조와 매개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년중 전망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내용과 책임 한계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특히 분조 도급제는 농장의 전체 생산자들을 농업 생산의 전 기간을 통해 일정한 포전에 고착되도록 함으로써 로동 조직에서의 류동성과 그로부터 오는 로력의 랑비를 없애고 농장원들로 하여금 자기가 다루는 땅의 비옥도와 성질에 정통하고 거기에 알맞게 농사를 주동적으로 책임성 있게 지으며 토지와 모든 농작물들을 소중히 가꾸고 로력과 농기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영농 기술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 분조 도급제를 실시하는 조건에서 그 성원들은 몇 필지 안 되는 포전을 한 가정 식구처럼 늘 같이 다루게 되고 사업의 성과도 공동의 생산 결과에 의하여 평가 받게 되는 만큼 어떻게 하면 로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짜고 농사를 더 잘 지으며 모든 논밭과 작물, 농기구와 부림소 등을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겠는가에 대하여 더 많이 머리를 쓰고 실속 있게 토론하게 되며 농업 생산 예비를 백방으로 탐구 동원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분조 도급제가 농업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고 농업 생산력을 촉진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분조 도급제의 우월성은 또한 협동 농장 관리 운영에서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며 농장의 모든 성원들을 기업 관리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협동 농장은 농민들 자신의 리익을 위하여 자원성의 원칙에서 조직된 집단 경리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농민 대중을 기업 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는 것은 협동 농장의 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 동력으로 된다.

협동 농장 관리 운영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모든 생산자들을 기업 관리에 광범히 망라시키자면 그들이 농장의 관리 운영 사업 전반에 높은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정치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키는 동시에 그에 기초한 면밀한 조직 사업을 따라 세워야 한다. 분조 도급제는 바로 이러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분조 도급제는 협동 농장의 모든 단위와 일'군들로 하여금 다 같이 생산의 전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관심하게 함으로써 계획화 사업, 작물의 정확한 선택과 합리적 배치, 영농 기술의 발전, 공동 재산의 관리와 리용, 물자의 절약, 로동에 대한 평가와 생산물의 분배 등 기업 관리 운영의 중요한 측면들을 더욱더 농장원들 자신의 집체적이며 창조적인 지혜에 의하여 해결하게 하며 농장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일'군들의 주인다운 태도를 더욱 높이 발휘시키게 한다.

분조 도급제의 실시는 특히 협동 농

장의 모든 력량을 농사 일에 집주하며 농업 관리 운영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도록 하는 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

기업 관리 운영에 농장원들이 적극 참가하게 되고 로동 행정 사업이 째여짐에 따라 협동 농장의 관리 일'군들과 초급 일'군들은 적지 않은 사무적 부담에서 벗어 나 생산의 기층 단위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생산 로동에도 더 많이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농업 생산에 대한 지도에서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더욱 성과적으로 관철하며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관주의를 철저히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분조 도급제는 끝으로 농장원들 속에서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시키며 농촌에서의 정치 사업을 당면한 경제 과업 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데서 커다란 우월성을 가진다.

농민들 속에서 오랜 기간 뿌리 깊이 형성되여 온 낡은 소소유자적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시키자면 농장의 일이자 내 일이며 농장의 재산이자 내 재산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도록 공산주의 교양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는 동시에 생산의 모든 고리와 농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개인의 리익과 집단의 리익이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조 도급제의 실시는 바로 개인의 리익과 집단의 리익을 생산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조의 범위에서 직접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농장원들로 하여금 생산에 참가하는 매일 매 시각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통하여 집단의 리익 속에서 개인의 리익을 찾게 하며 집단주의 정신, 공산주의적 생활 기풍을 높이 발휘하게 한다. 분조 도급제는 또한 작업반 우대제와 결합되여 실시되기 때문에 농장원들은 비단 분조의 범위뿐 아니라 작업반, 더 나아가서는 농장 전체의 공동적인 생산 성과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단합하게 되며 다 같이 급속히 전진하기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어 주게 된다. 다른 한편 분조 도급제의 실시는 협동 농장들에서 생산의 기층 단위와 생활의 기층 단위를 일치시킴으로써 농촌에서의 정치 사업을 분조 앞에 제기된 구체적인 경제 과업의 해결과 분조 성원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가장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정치 사업의 성과를 공고화시킨다.

분조 도급제를 통하여 협동 농장의 기층 생산 단위와 생활 단위가 일치되게 되였다는 사실은 농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생산 과정, 로동과 휴식, 로동과 학습 문제를 더욱 밀접히 결합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데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그리 하여 분조 도급제의 실시는 농민들로 하여금 농사도 더 잘 짓고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생활 상 요구도 보다 원만히 해결하게 하며 정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 시간도 더 많이 얻어 낼 수 있게 하여 준다.

*　　　*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추동함에 있어서 분조 도급제는 실로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농업 부문 지도 일'군들과 협동 농장 관리 일'군들은 분조 도급제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농민들 속에 널리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그들 자신이 분조 도급제의 도입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조 도급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문제도 결국은 농민들 자신이 공동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높은 정치적 열의를 가지고 혁명 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정치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키는 기초 우에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농민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하고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를 빈틈 없이 짜고 들어 진행할 때 분조 도급제의 우월성은 전면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농민들에게 분조 도급제의 본질을 잘 해설 침투시키는 동시에 매개 지대의 특성에 맞게 그것을 도입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분조 도급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우선 농장원들의 집체적 토의에 의거하여 필지 별 정당 수확고와 로력일 투하 기준을 분조 별로 사전에 잘 설정하여야 한다. 분조들에 대한 필지 별 정당 수확고와 로력일 투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토지의 비옥도와 경작 조건 등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하며 국가 계획을 평균적으로 쪼개는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분조 별 정당 수확고 기준을 정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포전의 분포 상태와 농가의 배치 정형, 농장의 규모와 이미 있던 작업반들의 규모, 초급 지휘 성원들의 지도 수준과 부문 별 생산 공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하여 작업반과 분조의 규모를 잘 설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특히 분조의 규모를 옳게 정하는 것은 분조 도급제의 성과적 운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협동 농장의 분조 규모 설정에서 큰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봄갈이로부터 가을 걷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농사'일을 분조가 제철에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중요 작업 공정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야만 분조의 자립적 활동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다.

경험은 협동 농장의 농산 분조는 논'벼를 재배하는 평지대와 밭 작물과 논'벼를 동시에 재배하는 중간 지대에서는 주로 모내기와 탈곡 그리고 파종 작업 인원에 기초하여, 밭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산간 지대에서는 소겨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성원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분조 도급제의 성과적인 도입을 위하여서는 또한 매개 분조에 토지와 부림

소, 농기구 등 생산 수단들이 균형적으로 고착되도록 하며 농장의 청장년 로력을 기본 영농 과업 수행에 최대한 집중하는 원칙에서 부문 별 분조 성원들을 옳게 선발 배치하는 등 일련의 문제들을 농장원들의 대중적인 토론에 기초하여 모두 정확히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오늘 협동 농장들에서 분조 도급제를 전반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동시에 중요 농산물들의 정당 수확고를 현저히 높였을 때에는 국가 상금을 주는 제도까지 실시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의 실시는 우리 당이 김 일성 동지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방침에 기초하여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을 개선하고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생산 열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얼마나 커다란 관심과 배려를 돌리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명백한 표시로 된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테제가 제시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따라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강력히 진행하고 농촌에 대한 지도 관리와 전 당'적,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생산 열의를 높이기 위한 모든 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취하여 나갈 것이다.

우리의 전체 일'군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농민 생활 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이러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더 분발하게 될 것이며 당면하여 명년도 농업 부문의 중심 과업인 알곡 정당 500 키로 그람 증수 운동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문제

—평양 전기 공장의 경험을 놓고—

편 성

평양 전기 공장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가까운 년간에 2 배 이상 높일 데 대한 당'적 과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12월 1일 현재로 국가 생산 계획 과제를 지표 별로 넘쳐 수행하고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88.5%로 높였다.

현대적 설비를 갖춘 이 공장이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단 1 년 동안에 근 2 배로 높이는 과정에서는 고귀한 경험들이 축적되였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공장에서 쌓은 경험은 가까운 년간 내에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2 배 이상으로 높일 데 대한 당'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한다.

이 공장에서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188.5%로 높인 중요한 열'쇠는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목표를 구체화한 기초 우에서 공정들 간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며 모든 사람들의 열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킨 데 있었다.

과학적 타산, 구체화된 목표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평양 전기 공장이 축적한 경험이 말하여 주는 중요한 결론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이 제시한 과업을 정확히 실현하자면 우선 자기 단위의 구체적 실정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방도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목표를 더욱더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이 제기하는 다른 모든 경제 과업들과 마찬가지로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일 데 대한 과업도 인민 경제 관리 운영의 매개 단위들이 자체의 구체적인 물질 기술적 및 인적 조건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목표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내세우고 투쟁할 때 더 빨리, 더 훌륭히 실현될 수 있다. 당이 제시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인들을 정확하게 타산함이 없이는 구체화된 투쟁 목표를 설정할 수 없으며 그것을 계획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도 없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이러한 타산은 자체의 구체적인 기술 생산 조건에서 그것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에서 생산 장성의 예비를 찾아 내도록 진행되여야 한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은 생산액을 종업원 수로 제하여 산출하는 공장, 기업소의 경리 운영 수준에 대한 종합적 지표로서 그것의 장성은 생산에 직접 참

가하고 있는 로동자들의 생산 능률, 종업원 중 직접 부문 로동자들의 비중, 품종 구성의 변동 및 그 가격 등에 중요하게 의존한다.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로동자들의 생산 능률의 제고는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것은 종업원 중 생산 부문 로동자 수의 비중이 불변하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종 구성과 그 가격이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장성에 직접 반영된다. 개별적 로동자들의 생산 능률이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장성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생산자들의 수를 증대시키는 요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산 장성의 적극적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산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표의 제고를 위한 예비들이 자기 공장, 기업소에 어떤 형태로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또 따져야 한다.

평양 전기 공장에서는 우선 대중들의 창의 고안, 생산 합리화안 등 기술 혁신안들을 대담하게 생산에 도입하는 데서 생산 능률을 높이는 가장 큰 예비를 보았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대중적 예비안 토의 과정에서는 기술 개전 105 건, 선진 기술 공정 도입 119 건을 포함하는 1,412 건의 기술 혁신안들이 제기되였다. 이것을 생산에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24%로 높일 수 있었다.

이 공장에서는 일'군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며 작업반 조직과 교대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 등 로동 행정 사업을 바로 하는 데서도 생산 장성의 막대한 예비와 원천들을 찾아 내였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에서는 생산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로동자들의 생산 능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종업원 중에서 직접 부문 로동자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공장에서는 기업 관리 조직을 개선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하여 직접 부문 로동자 수의 비중을 6%나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이것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13.6%나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은 생산되는 제품의 총가격의 영향을 받는 만큼 새 품종을 확대하는 것이 또한 그 장성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덮어 놓고 값이 비싼 제품들만 새로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민 경제적 수요가 매우 높지만 아직은 생산하지 못하던 셀렌 정류기와 수은 정류기 기타 각종 계기, 계전기 등 26 종의 새 품종을, 그것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까지 찾아 내였는데 이것으로 하여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은 작년에 비하여 16.3% 더 높일 수 있었다.

품종의 확대와 함께 오작을 근절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원가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타산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빨리 높이자는 당의 의도가 보다 적은 로력, 자재 및 자금으로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나라의 재부를 풍부히 하고 나라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히 꾸리는 데 있는 만큼 이러한 요인들은 타산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일'군들은 반드시 국가에 될수록 더 많이 벌어 들이는 립장, 나라 살림살이의 주인된 립장에서 타산하여야 하며 또 사실 이러한 립장에 설 때에야만 원가를 낮추고 제품의 질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품종을 확대하는 사업에서도 인민 경제적

수요와는 관계 없이 가격이 비싼 것만을 골라 하려는 편향을 극복할 수 있다.

이 공장에서는 년간을 통하여 원가를 19.5% 낮추고 수익성은 21.5% 더 높일 것을 타산하였다.

이 외에도 생산 장성에 따라 제기될 자재의 긴장성을 풀 방도 및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 방도 등도 타산하였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장성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들을 로력 절약의 원천 별로 분석하는 것은 타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력 절약의 원천 별 분석은 년간을 통하여 전 공장적으로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에서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명백히 설정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특히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에 력량을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이 공장에서 타산한 로력 절약 예비의 원천 별 분석표는 아래와 같다:

로력 절약의 원천 별 분석표

(%)

합계	기술 혁신				로동 행정 사업의 개선					기타
	계	그 중			계	그 중				
		기계화 자동화	선진 기술의 도입	기술 조건의 개선		로력의 합리적 리용	작업 시간 리용의 개선	작업원수 리용의 개선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	
100	39.4	5.4	15	19	60.6	9	33	4.3	7.6	6.7

우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진 기술의 도입, 기술 조건의 개선 및 작업 시간 리용의 개선은 전체 로력 절약량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중요한 고리들이였다. 따라서 이 공장에서는 이런 고리들을 해결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장성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들에 대한 타산은 일시적인 깜빠니야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그것은 생산의 발전과 기술 조건의 변화에 따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장성에서 노는 생산의 제 요인들의 역할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변화되는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장성의 제 요인들을 기술 경제적으로 부단히 관찰하고 타산함으로써만 목표는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평양 전기 공장에서는 년초의 타산으로는 년간을 통하여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186%로 장성시킬 것이 예견되었었다. 그러나 상반년을 총화하는 과정에서 명백해진 것은 새로운 증산 예비가 허다하게 조성되였다는 사실이다. 년초에 제기되였던 기술 혁신안 중에서 1,231 건이 상반년 동안에 기술적으로 완성되였고 그 중에서 1,041 건은 생산에 도입되였다. 특히 133 대에 달하는 55 종의 보충 완비 설비의 제작 도입은 공장의 생산 능력을 처음에 타산한 수준보다 훨씬 높이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186%가 아니라 200%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면밀하게 타산된 모든 요인들을 남김 없이 실현해 나가자면 목표를 단계 별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산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총적인 목표를 수립할 뿐 아니라 그 목표를 단계 별로 세분할수록 그것이 원만히 집행되게 할 수 있다. 목표를 단계 별로 구체화하여 명백히 설정할 때 매개 일'군들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에서 자기들이 담당한 임무를 똑똑히 알고 의식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사업이 전 공장적인 일상적이며 꾸준한 사업으로 될 수 있다.

이 공장 지도 일'군들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의 년 장성 목표를 설정하고는 그것을 분기 별, 월별 및 주별로 구

체화하였다. 특히 목표를 주간 별로 세분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주간 목표의 설정과 그 정확한 집행은 모든 지도 일'군들과 로동자들로 하여금 그 수행을 위해 일상적으로 노력하게 함으로써 월말에 가서 나타나군 하던 긴장성을 퇴치하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하였다.

지금 이 공장에서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사업 특히는 주간 전투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에 토대하여 일 전투 계획을 수립하며 그 날 계획은 반드시 그 날로 해 제끼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아직도 주말에 가서 다소나마 표현되고 있는 긴장성을 완전히 근절하려 하고 있다.

평양 전기 공장의 이러한 경험들은 경제 관리 운영의 매개 단위들이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빨리 높일 데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생산 기술 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목표를 세분하여 매 단계별로 정확히 내세우며 그것을 끝까지 이악하게 관철해 나가는 여기에 성과 달성의 중요 담보의 하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공정 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예비를 타산하는 과정의 고찰에서 명백해진 바와 같이 이 공장 전체 로력 절약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선진 기술의 도입, 기술 조건의 개선 및 작업 시간 리용의 개선은 결국 공정 간의 균형을 개선하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평양 전기 공장에서는 선행 공정과 후'공정 간에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례하면 필요한 형타 하나를 선행하여 보장하지 못 함으로써 프레스 직장과 계기 직장들에서 적지 않은 량의 부분품들을 제때에 가공하지 못 하고 사장해 두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다 나니 다음 공정에서는 일'감이 모자랐다. 한 쪽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같은 시간에 다른 쪽에서는 일'손이 남아 돌아 갔다. 또한 예비 부속품 생산이 선행되지 못 하여 설비들을 제때에 보수하지 못 하는 현상, 시험 생산을 하지 못 하여 품종 확대에 지장을 주는 현상 등 기술 공정들이 서로 잘 맞물려 돌아 가지 못 함으로써 더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지 못 하는 일이 허다하게 있었다.

생산 장성에서 가로막힌 이 고리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가에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장성이 좌우되게 되였다.

공정 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생산 조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공정 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장함으로써만 생산에서 일부 기계 설비들에 부하가 편중되는 현상을 근절하고 설비와 일'군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수 있다.

공정 간의 균형은, 공장의 생산 발전의 결정적인 공정에서 생산 능력을 높이며 여기에 아직은 생산 능력이 낮은 공정을 신속히 따라 세우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기술 혁신의 구체적 과정은 그것이 일'군들의 목적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일정한 공정들로부터 시간적으로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며; 이렇게 하여 생산 능력이 높아진 공정이 뒤떨어진 공정을 자극하여 점차적으로 전반적인 공정에서 생산 능력을 높이게 한다.

이 공장에서는 우선 공구, 지구 직장을 꾸리는 데 화력을 집중하였다. 그것은 설비들의 능력을 높이는 데서 공구, 지구 문제가 가장 선차적으로 제기되였기 때문이다.

기술 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자면 그것에 필요한 기술 장비들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야 한다. 만약 설비의 대수를 늘이기만 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구, 지구들을 충분히 대 주지 않는다면 설비들의 능력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투자의 보람이 적어지고 국가에는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될 것이니 만큼 이 공장에서 공구, 지구 직장을 꾸리는 데 힘을 집중한 것은 응당한 일이다.

공구, 지구 직장에 60여 명의 기능공들과 필요한 중요 설비들을 돌렸고 기술부의 이 부문을 담당한 설계 력량도 3 배로 늘이였다. 책임적 지도 일'군들은 많은 시간을 이 직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보내면서 걸리는 문제들을 현장에서 제때 제때에 풀어 주고 그들을 고무해 주었다. 이리하여 설계 도면이 근 한 분기 분이나 선행되게 되였고 고급 기능공들에게 분공되였던 형타 제작 과업도 제때에 수행되여 나갔다. 결과 기술 장비 한 달 선행 문제가 풀리고 상당한 예비까지 가지게 되였다.

또한 이 공장에서는 100여 기종에 달하는 설비 부속품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데 기초하여 당이 이미 제시한 대로 3 개월 분 예비 부속품을 수량 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 선행하여 종류별로 질서 있게 정비해 놓고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작업 휴지 시간의 연장으로 하여 나타나는 생산 공정 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설비 리용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었다.

기술 장비에서 걸린 고리가 풀리자 이 번에는 시작품 직장을 꾸리는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품종도 계속 확대되여 나간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몇 번, 몇 십 번 고쳐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야 새 품종이 나오는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전문화하며 그 능력을 생산 확대에 맞게 갖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 공장의 경우에는 시작품 직장을 꾸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공장에서는 년초에 타산한 대로 새 품종의 대량 생산을 조직하자고 하니 시작품 생산이 걸렸었다. 이것은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 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빨리 높일 수 없게 하였다.

공구, 지구 직장에 속해 있던 시작품 작업반을 하나의 직장으로 확대하고 새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이 이 직장을 경유하여 대량 생산에 넘어 가는 체계를 세웠다. 이렇게 하니 기본 생산 직장들의 생산이 정상화되고 공정 간의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었으며 생산된 제품들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되였다.

기술 장비, 시작품 및 예비 부속품 생산이 선행되여 감에 따라 공장의 가공 능력이 현저히 높아졌는데 이것은 소재 보장 부문과 가공, 조립 및 완성 부문 간에 새로운 불균형을 조성하였다. 특히는 각종 특수 금속들을 비롯한 소재가 딸렸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공장의 제고된 가공 능력을 최대한 리용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생산의 급속한 장성도 기대할 수 없었다.

자재의 적시적인 정확한 공급은 생산 공정 간의 균형을 보장함에 있어서나 생산을 장성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이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재 공급은 계획 실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직 사업이다. 자재를 공급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조직 사업은 없다.

이 공장에서는 자재 문제가 공장의 생산 장성을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그런데 소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그리 쉽게 풀릴 수 없었다. 공장의 기본 자재로 되는 귀금속과 각종 특수 합금속품의 대부분은 협동 생산품이거나 아니면 수입해 오는 자재들이였다. 여기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이 맺힌 고리를 푸는 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되였다.

지금 압연기, 연신기, 교정기, 고주파 유도로, 용해로 등 수십 대의 설비

들을 갖추고 각종 유색 및 특수 합금속품 소재들을 생산 보장하고 있는 《자력갱생 직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꾸며진 것이다.

자체의 소재 기지를 튼튼히 꾸린 결과 이 공장에서는 계약에 의하여 외부에서 보장 받게 된 자재가 미처 도착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기 공장의 제고된 생산 능력에 적응하게 필요한 소재들을 자체로 만들어 보장함으로써 공정간의 균형을 새로운 요구에 적응시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지난 상반년 기간에 예약에 물린 유색 금속 및 특수 금속들이 제대로 들어 온 것은 그 전해에 비하여 88%에 불과하였지만 생산은 도리여 160%로 장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체의 소재 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은 자재를 절약하는 데서도 아주 좋다. 지금 이 직장에서는 중요한 소재들 례하면 동판, 세동선, 합금선을 비롯한 각종 유색 금속 자재와 일반 강재들을 개선된 제품 설계가 요구하는 규격재로 가공해 쓰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유색 금속 절삭밥이나 오작품들도 자체로 녹여 얇게 밀어 쓰고 있는데 유색 금속 실수률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85.3%에 달하고 있다.

공정들 간의 균형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걸린 고리들을 중점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는 동시에 전반적인 기술 생산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일상적인 관심을 돌려 부단히 새롭게 조성되는 균형을 공고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적 생산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세분된 전문화와 협동화의 통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한 부분에서의 침체는 전체로서의 통일적 생산 과정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생산에서의 결정적인 공정들이 하나씩 풀며 나가고 그 능력이 높아지는 차제로 로동 및 기술 조건들도 이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부단히 개선될 것을 요구한다.

평양 전기 공장에서는 생산의 바로 이러한 요구를 잘 실현하였다.

례하면 이 공장 지도 일'군들은 로력을 배치하는 데서도 단순히 수'적 개념에만 매여 달리지 않고 사람과 기대를 정확히 료해한 데 기초하여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기대와 사람 간에 서로 잘 조화되도록 하였다.

특히 작업반 교대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부단히 새롭게 조성되는 공정 간의 균형을 공고히 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시기 20~30 명 지어는 40 명까지의 성원으로 구성되였던 작업반들이 8~14 명의 작업반들로 개편되였다. 작업반의 이러한 개편은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생산 과정에 대한 일상적인 료해와 작업반의 매개 성원들에 대한 세밀한 작업 분공 및 구체적인 기술 지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의 기층 단위를 세밀하고 복잡한 기술로 이루어진 이 공장의 생산 기술 공정에 잘 부합되게 하였으며 실비와 로동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기술 공정들 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사업에서 이 공장이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기술 혁신의 날》을 운영하는 것이였다.

매주 목요일은 이 공장에서 《기술 혁신의 날》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종 간 및 공정 간의 불균형을 퇴치하거나 균형을 새롭게 조절하기 위한 보충 완비 설비의 제작 및 기타 생산 과정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한다. 여기에서는 또한 직장들 간의 협동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이 밝혀지며 해결 대책들이 세워진다. 세워진 대책들은 지명을 통해서 즉시로 현장에 시달되며 실천에 옮겨진다.

이 공장의 경험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기본 공간에 살을 붙이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동으로 공정간의 균형을 부단히 높은 수준에서 새롭게 개선해 나갈 때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를 위한 중요 예비들이 훌륭히 실현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급속히 높아진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열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빨리 높이는 일도 생산자 대중이 높은 계급 의식과 혁명적 열성을 가지고 자각적으로 동원될 때 비로소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면 그들은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 노력할 것이며 생산 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창발성과 열성과 재능을 발휘할 것이다》 (김 일성 선집 제 6 권, 467 페지).

공장의 모든 사람들의 열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정치 사업이 경제 사업에 튼튼히 안받침되여 사람들을 경제 과업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는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평양 전기 공장에서는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앞세우고 그것을 경제 과업 수행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걸린 고리를 푸는 데 모든 사람들의 열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었다. 기술 장비와 예비 부속품 생산을 선행하며 시작품 직장과 자력 갱생 직장을 꾸리는 데서 또한 공장 앞에 부과된 기타 모든 경제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그러하였지만 특히 새로운 로동 기준량을 창조하는 사업에서 이 원칙이 훌륭히 구현되였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자면 새로운 로동 기준량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매개 생산자들이 낡은 기준량을 타파하고 새로운 로동 기준량을 창조할 때에야만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은 급속히 그리고 확고하게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로동 기준량을 창조하는 사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생산자 대중의 의식 수준과 관련되며 개인적 리해 관계와 직접 련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로동 기준량 제정에서는 생산자 대중의 의식 수준과 리해 관계라는 이 두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여야 한다.

평양 전기 공장에서는 정치 사업을 선행하면서 구체적인 경제 실무적 조직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강연, 담화, 조직 별 학습 등 일체 선전 선동 방법들이 새로운 로동 기준량을 창조하는 사업에 집중되였다.

정치 사업에서는 우선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빨리 높이자는 당의 진의도가 무엇이며 당이 제시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데 낡은 사상 잔재가 이것을 어떻게 방해하는가를 이미 료해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매개 생산 부문 별, 공정 별로 그륙징적 현상들을 들어 실감 있게 해설하였다.

또한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 혁명 전통 교양 및 공산주의 교양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정치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로동자들 속에서는 새로운 로동 기준량 창조 운동에서 표현된 이러저러한 편향들이 호상 비판되고 숨어 있던 많은 예비들이 적발되였으며 창발적인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이러한 정치 사업은 새로운 로동 기준량 창조를 위한 구체적인 경제 실무적 조

직 사업을 힘 있게 안받침하여 주었다.

새로운 로동 기준량 제정을 위한 실무 그루빠는 로동 시간 리용 실사로부터 시작하여 부속 별 및 공정 별 조작 시간의 실사, 도급 수행률 분석, 임금 수행률 분석, 제품 급수 재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데 기초하여 매개 직장에서 사정하여야 할 로동 기준량 예비안을 진지하게 토론하여 작성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직장 간의 로임 수준의 균형 관계, 직종 별 임금 단가의 수준, 간접 도급의 비률 및 참가 대상의 정확한 설정, 임금 형태 적용의 정확성 여부 등이 검토되였다. 합의된 초안은 직장 및 작업반의 핵심들과 토론하여 수정, 보충한 후 군중 토의에 넘겼다.

여기에서 일군들이 특별히 머리를 쓴 것은 새로운 로동 기준량을 로동자들의 수입 장성과의 밀접한 호상 련관 속에서 설정하는 것이였다. 그것은 새로운 로동 기준량이 로동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데까지 이른다면 오히려 로동자들의 열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그들의 능력도 또한 충분히 발휘시킬 수 없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옳은 결합은 새로운 로동 기준량 창조 사업을 완전히 생산자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였으며 이 공장의 전반적인 로동 기준량을 년간을 통하여 137%로 높일 수 있게 한 기본 요인이였다.

지금 로동자들은 새로 설정된 기준량을 매달 120~125%로 넘쳐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도 11월 말 현재 지난해보다 16%나 더 많아졌다.

당이 자기들 앞에 제시한 경제 건설의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떳떳한 긍지를 가지고 일하며 게다가 생활 형편도 날로 좋아지니 로동자들의 창조적 열성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평양 전기 공장에서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잘 결부시켜 모든 사람들의 열성과 능력을 높인 데 대하여 말할 때 《무오작 작업반 운동》도 빼여 놓을 수 없다.

이 운동은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이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됨으로써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더 많이 벌어 들이며 오작도 근절하고 제품의 질도 더 높여서 인민들의 살림을 보다 윤택케 하자는 당의 의도를 절절히 느끼게 된 이 공장 로동자들 자신이 금년 봄에 발기한 애국 운동이다. 이 운동은 당의 의도 대로 생각하며 생활하려는 로동자들의 애국적 열성의 구체적 표현이다.

이 공장에서는 《무오작 작업반 운동》이 발기되자 즉시에 온 공장에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이 운동의 확대 발전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였다. 오작 비률은 지난해에 비하여 6.3%나 낮아졌다. 이것은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더 빨리 높일 수 있게 하였다.

경험은 정치 사업을 경제 사업과 정확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모든 사람들의 열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때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은 확고히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학 예술에서의 주체 문제

안 함 광

1

주체 사상은 우리 당이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을 령도함에 있어서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적인 지도 사상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모든 활동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 립장이다. 당은 새 사회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그러한 것처럼 문학 예술 분야에서도 주체 사상의 구현을 요구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우리 당은 조선 혁명이 문학 예술 앞에 제기하는 절실한 요구, 다시 말하면 조선 혁명에 대한 우리 문학 예술의 사명의 견지로부터 출발하여 문학 예술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문학 예술은 다른 의식 형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생활 상 요구로부터 발생하였으며 그 발전은 생활의 력사적 과정의 제반 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 문학 예술의 가치는 원래로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그 사상적 내용이 현실이 제기하는 절실한 사회적 문제에 훌륭한 해답을 주는 데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며 촉진하는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는 데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문학 예술이 일반적으로 생활을 인식하며 그것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위력한 수단의 하나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활동은 프로레타리아 혁명 사업의 일부분이며 맑스-레닌주의 당 사업의 한 구성 부분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문학 예술은 바로 조선 혁명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며, 조선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사상 사업의 일부분이며 그가 제시하는 로선과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복무하는 무기이다.

《우리 당 사상 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 혁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선 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 사업을 반드시 조선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326 폐지).

실로 우리 문학 예술의 최고의 사명은 다름 아닌 현시대의 조선 인민에게 부과된 력사적 과제인 우리 혁명의 리익에 일구월심 복무하며 그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바로 이러한 주체적 립장에 철저히 서서 자기 나라의 혁명, 자기 당과 자기 인민의 위업에 충실히 기여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문학 예술에서 주체를 세울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구경 문학 예술에 대한 레닌적 당성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며 관철하는 것과 일치하게 된다.

문학 예술에서의 주체 확립은 다른 한편 그것이 곧 문학 예술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문학 예술은 사회 의식 형태의 하나로서 그 발전에서 일반적인 합법칙성을 가지는 동시에 매개 나라에서의 문학 예술의 발전은 그 나라 인민의 생활 력사와 불가분적으로 련결되며 그 나라

의 민족적, 사회 력사적 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매개 나라의 문학 예술은 그 나라의 특수한 사회 력사적 지반과 당해 민주의 고유한 정신 문화적 전통에 뿌리를 갖는 일련의 특수한 발전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바로 우리 나라의 과거와 현재,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주적 토양에 튼튼히 발을 붙여야만 한다. 때문에 당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취미, 지향을 무시하며 우리 나라의 모든 훌륭한 정신 문화 전통을 사랑하고 소중히 할 줄 모르며 우리 민주 생활 발전의 특수성을 리해할 줄 모르는 허무주의적, 교조주의적 경향의 부당성과 해독성을 항상 비타협적으로 폭로하였으며 결정적으로 배격하였다.

만일 문학 예술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민주적이며 계급적인 특성을 표현하지 않고 력사적 토양을 떠나서 이른바 범인류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필코 유해로운 형식적 유희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조선 혁명과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민주 문화 건설에서의 일련의 주객관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문학 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더욱 절실한 것으로 제기되였다.

근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의 후과는 조선 인민의 사회 정치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 면에 있어서도 심대한 상처를 입혔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고귀한 문화 유산들에 대한 말살, 봉쇄 정책을 썼으며 나아가서 그것들을 저들의 식민지 통치의 리익에 부합되게 왜곡하였다.

문화 발전의 이러한 특수한 조건과 정황 속에서 해방 후 당은 사상 문화 전선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문학 예술 건설을 령도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동시에 우리는 해방 직후부터 세계 반동의 괴수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우리 나라 혁명을 진행하게 되였다. 남조선은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거기서는 조선 인민의 초보적인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리익마저 처참하게 유린 당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정신 문화 생활에서 모든 민주적인 것이 여지 없이 말살 당하고 있다.

미제의 조종 하에 남조선에서는 《양키식》, 《왜식》이 한데 뒤엉킨 온갖 반동 문화가 판을 치고 있으며 조선 인민의 슬기로운 정신 문화 전통과 고귀한 도덕적 품성은 무참히 유린 당하고 있다.

당은 이러한 객관적 조건들과 아울러 해방 후 문화 건설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교조주의, 허무주의, 형식주의적 경향에 대하여도 심중한 주목을 돌리였다.

당은 문학 예술 건설 사업에서 이러한 편향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를 확고히 세우도록 꾸준히 지도하여 왔는 바 특히 이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 《문학 예술 분야에서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1956. 1. 18), 김 일성 동지의 1962년 3월 11일 교시 등은 강령적인 지침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바로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요구와 우리 나라의 특수한 사회 력사적 조건을 밀접히 결합시켜 문학 예술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방침을 세우고 그에 근거하여 자기의 문예 정책을 정확히 규정하였다.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문예 정책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문화 유산을 계승하며 외국의 선진 문화의 성과를 섭취하면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의 우리 인민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하는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김 일성 동지의 이 사상은 문학 예술에서 주체 확립 문제가 우리 당 문예 정책의 근본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의 본질적 요구는 민족 문화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고 현실 생활과 시대적 요구에 민감하게 호응하며 민족적 특성을 성실히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문학 예술이 조선 혁명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2

우리 당은 주체가 선 문학 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원칙적 방침을 규정한 데 기초하여 이것을 문학 예술 실천에서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론적 요구들을 명백히 제시하였으며 그 정확한 실현에 힘을 기울였다.

당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의 건설을 지도하면서 우선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하여 옳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룩한 고귀하고 풍부한 문화 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리였다.

민족 문화 유산의 계승 사업은 문학 예술의 거대한 인식 교양적 기능과 관련하여 우리 인민들을 주체 의식과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자기 나라의 혁명에 충실하도록 교양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힘을 다하여 민족적 유산을 찾아 내야 하며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것은 극력 섭취해야 하지만 자체의 좋은 것을 발전시키면서 선진 문화를 받아 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 힘에 대한 신심을 잃고 남의 본만 따려는 맥빠진 사람들로 되고 말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335 페지).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지난날을 잘 알며 조상들이 이룩한 고귀한 정신 문화적 전통과 업적들을 잘 알아야만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자기의 혁명 위업에 대한 승리의 신심과 주인다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특성으로 하여 류달리 풍부한 감화력을 가지는 문학 예술은 각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우리의 문학 예술은 조선 인민의 슬기로운 민족 문화 유산을 적극 발굴하며 그것을 정당하게 계승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에게 자기 조국과 민족의 과거, 거기에서 이룩된 모든 고귀하고 선진적인 것을 알려 줌으로써만 진실로 주체가 선 문학 예술로 될 수 있다.

민족 문화 유산의 옳바른 계승은 문학 예술의 자체 발전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는 의미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은 가장 선진적인 새로운 것이면서 동시에 선행 시기 문화의 모든 진보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의 합법칙적 계승자이다. 지난날의 문화가 달성한 부를 소유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을 승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인류의 전 발전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의해서만, 그 개작에 의해서만 프로레타리아 문화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리해함이 없이는 우리는 그 과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문화는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프로레타리아 문화의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안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소리는 모두 순전한 잡교대이다. 프로레타리아 문화는 인류가 자본주의 사회, 지주의 사회, 관리의 사회의 압박 하에서 이룩한 지식 축적의 합법칙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레닌 전집 제 31 권, 342~343 페지).

우리의 문학 예술은 조선 인민의 장구한 력사를 통하여 창조된 온갖 우수한 민족 문화 유산의 풍만한 자양소를 섭취하는 데서 진정한 합법칙적 발전의 길을 개척할 수 있으며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바로 조선 인민의 문학 예술, 조선 혁명에 복무하는 문학 예술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계급 사회에서 창조된 문화 중에서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려 내고 계승 발전시키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대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요구한다.

당은 문화 유산 평가에서 엄격히 력

사주의적 원칙에 립각할 것을 강조하여 왔다. 당은 대상의 풍부하고 복잡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며 당시 사회 발전의 력사적 조건을 리해하지 못 하며 당해 시대의 제 모순, 계급들의 리해 관계의 반영으로서의 문화의 구체적 모습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는 데로부터 그것을 기계적으로 부인하거나 단순화하는 태도는 항상 유해로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문화 유산은 대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오늘의 수준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해 시기의 사회 력사적 조건에서 어떤 선진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보다 선행한 시기의 문화에 비하여 어떤 새로운 점을 보여 주느냐를 문제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은 문화 유산에 대한 주관주의적 과찬도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작가 예술인들을 교양하고 있다.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 하더라도 시대와 력사가 그어 놓은 계선 밖으로 공중 비행할 수는 없다. 엥겔스는 일찌기 18 세기 계몽 학자들의 거인적 업적을 찬양하면서도 그들 자체로서는 어쩌는 도리가 없었던 력사적 제약성을 명확히 지적하였던 것이다.

한편 당은 력사주의적 원칙이 현대성의 원칙과 통일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견지하여 왔다.

그것은 문화 유산의 계승이 혁신과 불가분적으로 통일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계승을 떠난 혁신이란 있을 수 없으며 혁신을 떠난 계승은 무의미하다. 우리 나라의 과거에 대한 풍부하며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도 그 목적은 구경 우리 나라 혁명을 잘 하자는 데 있으며 당면한 사회 정치적 과업을 더 잘 수행하자는 데 있다. 문학 예술 분야에서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도 우리 나라 문학 예술 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러한 과거 예술의 사상과 형식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의를 가지지 못 한다.

우리 나라 작가 예술인들은 민족 고전 문화 유산의 계승 문제와 관련하여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 하에 줄기차게 발전해 나간 조선 문학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것은 이 문학이 바로 선행 시기의 모든 우수한 문학 전통을 직접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문학인 동시에 특히는 이 문학 전통이야말로 해방 후 당 문학의 직접적 뿌리로 되기 때문이다.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 하에서 창조된 문학 예술이 보여 주는 심오한 진실성과 높은 사실주의, 당성, 인민성, 계급성,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원쑤 격멸의 영웅적 투쟁 정신, 랑만적이며 락천적인 전망과 기백, 고전적 전통에 대한 충실성과 대담한 혁신—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 문학 예술의 중요한 원칙들이며 더욱 새롭게, 더욱 풍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전통적 재보들이다.

문학 예술에 대한 지도에서 우리 당이 견지한 주체적 립장은 외국의 선진 문화를 섭취하는 측면에서도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당은 주체를 세운다 하여 외국의 것은 일체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릇되게 인식할 수 있는 경향을 엄격히 경계하면서 외국의 선진 문화, 특히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이 창조한 우수한 경험들을 광범히 배울 것을 강조하였으며 한편 그것을 섭취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주체적 견지에서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을 엄밀히 선택하여 도입하도록 하였다.

문학 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당은 문학 예술과 현실 생활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현실 생활은 문학 예술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바탕이며 현실 생활과의 련계는 문학 예술의 사회 계급적 성격, 그의 당성과 계급성을 가장 뚜렷이 표현해 주는 척도로 된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조선 혁명이 제

기하는 현실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우리 인민의 현실 생활에 굳게 발을 붙임으로써만 항상 시대와 함께 전진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의 하나로서 충실히 복무할 수 있다.

《자기의 당 중앙 위원회와 자기의 당 대회가 제시한 로선에 따라 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며 당의 로선과 위반되는 온갖 사상과 경향을 배격하여야 한다. 이것이 주체이다》(김 일성).

우리 문학 예술에서의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당의 사상은 바로 우리 나라의 현실 생활의 중심적 내용인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튼튼히 뿌리를 박을 것을 요구하며 조선 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나라 인민의 투쟁과 거기에서 달성한 위대한 성과를 반영하며 발전하는 인민들의 정치 도덕적 장성과 그리고 현실 발전의 중요한 계기와 특질을 훌륭히 발현할 것을 요구한다.

이로부터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창작 사업에서 생활에 대한 문학 예술의 련계를 강화함에 항상 주의를 돌려 왔다.

이와 관련하여 절실하게 제기된 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당'적 사상 체계로 확고히 무장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세계관의 높이, 사상 미학적 리상의 높이가 작품의 사상적 높이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되기 때문이다.

작가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작가의 현실 파악과 체험이다. 그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경우 그 세계관의 형성에서는 세계에 대한 리론적인 견해와 함께 사물과 현상에 대한 형상적 파악이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은 항상 작가 예술인들이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문제를 생활에 대한 완전하며 풍부한 지식으로 무장하는 문제와 분리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생활의 단순한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생활 개조의 투사로서 현실속에 깊이 침투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1960년 11월 27일 교시에서 바로 작가 예술인들의 현실 침투의 문제를 다시금 중요하게 강조하였으며 작가 예술인들은 이 교시의 정신을 받들어 현실 생활에 대한 문학 예술의 련계를 다방면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생활에 대한 문학 예술의 긴밀한 련계는 현실 생활에 대한 문학 예술 작품의 적응성을 제고하며 그 사회 개조자적 기능을 강화하며 작가 예술인 자신들이 옳은 세계관을 소유하게끔 하는 등의 문제들을 내포하면서 총체적으로 주체가 선 문학 예술을 창작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주체성 있는 문학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이 또한 심중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은 문학 예술 작품들이 민족적 특성을 충분히 구현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인민들의 민족적 성격, 생활 양식 일반을 형성하는 기본 바탕으로 되는 민족 생활의 제반 사회 력사적 조건은 그것이 사회 계급적 성격을 띠면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조선 혁명의 리익에 복무하는 우리 문학 예술 작품들의 주인공들이 혁명의 투사, 공산주의자들이면서 다름 아닌 조선의 혁명 투사,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문학 예술이 민족적 특성을 구현함에 있어서는 언어, 운률, 률동, 색채 등에서 그 특성을 붙잡고 거기에서 전통적인 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문학 예술의 민족적 특성은 여기에만 귀착되지 않는다. 매개 민족의 문학 예술은 민족적 성격의 특성, 민족의 풍습, 세태, 형상적 사유의 특성을 반영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민족적 특성은 민족 생활의 장구한 력사적 행정에서 형성되여 온 그 민족의 정신적 풍모이다. 그것은 영구 불변의 것이 아니다. 그 공고한 측면은 계속 알맹이로 전승되면서도 사회 발전의 력사적 과정의 제반 구체적 조건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모하며 발전한다.

때문에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작품에서 민족적 특성을 체현하기 위해서는 현실 생활 속에 전승되여 내려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새 것의 창조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면서 부단히 장성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알맹이가 무엇인가를 심중히 탐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김 일성 동지의 다음과 같은 교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 사람은 어렵게 살았지만 실상 유식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째서 유식하다고 말하는가? 조선 사람의 지식은 마치 깨끗한 백지에 써 놓은 글과 같이 분명하여 흐리멍텅하지 않다. 그러므로 조선 사람은 한 가지를 알아도 똑똑히 알고 있다. 조선 사람은 어렵게 살아 왔기 때문에 배우자는 욕망이 또한 남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옷은 허술하게 입고 집은 오막살이에서 살아 왔지만 우리의 사상은 남만 못지 않게 진보적이며 빨리 나아가겠다는 각오가 남보다 더욱 높으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혁명적 기질이 아주 풍부하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빨리 나아가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김 일성 선집 제 6 권, 118 페지).

민족적 토양 우에 뿌리 박은 이러한 특성을 심오하게 예술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은 문학 예술의 민족적 특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된다.

문학 예술 작품에서 민족적 성격은 민족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문학 예술 작품들의 형상이 보여 주는 민족적 성격은 어디까지나 사회 계급적 성격과의 통일 속에 있다. 사회 계급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진 순수한 민족적 성격이란 본질 상 실현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문학 예술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족적 특성, 그 집중적 표현으로서의 민족적 성격은 우리 나라의 혁명 사업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다른 모든 민족,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대한 혈연성과 밀접히 결합되여 있다.

이리 하여 오늘 우리 문학 예술의 민족적 특성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의 일반적 임무 즉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며 다른 민족 및 인민들과의 단결의 강화와 세계 혁명의 위업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복종된다.

3

문학 예술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은 실천에서 맺어진 빛나는 결실에 의하여 유감없이 증시되였다.

문학 예술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주체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되였으며 창작의 사상 예술적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문학 예술로 하여금 우리 인민을 주체 사상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 데 더욱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당 사상 사업의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본래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서 우선 지적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문학 예술이 어디까지나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제반 원칙을 철저히 옹호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부르죠아 미학, 반인민적 형식주의의 온갖 조류가 이러저러한 형태로 성행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문학 예술은 당의 정확한 령도 하에 철두철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치를 고수하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진실로 혁명적이며, 애국적이며 인민적인 문학 예술에 대한 긍지감에 고무되면서 예술에 있어서 정치 사상성을 거부하는 온갖

종류의 반동적 견해들을 반대하였으며 당면한 혁명 과업으로부터 문학 예술을 분리시키려는 온갖 시도를 견결히 배격하였다. 이리 하여 우리의 문학 예술은 어떠한 《바람》이나 《류행》에도 흔들림이 없이 일편단심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대로를 따라 전진하였다.

우리 문학 예술의 성과는 생활의 긴요한 문제에 대한 민감한 반응, 현실의 새로운 특질에 대한 능숙한 파악, 예술적 시야의 넓이와 높이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해방 후 사회 발전의 매개 단계의 특성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예술적 화폭의 창성 과정에서 여실히 실증되며 특히 혁명적 주인공들을 생동하게 보여 준 최근 년간의 일련의 방대한 서사시적 화폭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실로 광범한 령역의 주제들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한결같이 조선 인민의 가장 절실한 현실적 소망과 지향을 대변하고 있다. 가령 천 세봉의 장편 소설 《석개울의 새봄》, 영화 《정방공》 등은 애국적 인간들의 창조적 위업의 주제를 그들의 휘황한 승리에 대한 전망과 결부시키고 있는가 하면 영화 《성장의 길에서》는 조국 통일의 주제를 인간 장성의 론리와 결부시키고 있다. 한편 림 춘추의 장편 소설 《청년 전위》와 영화 《폭풍 시절》은 1930 년대의 항일 빨찌산 투사, 공산주의자의 형상을 통하여, 석 윤기의 장편 소설 《시대의 탄생》은 항일 빨찌산 투사와 그들의 영향 하에서 자라난 새로운 력량들이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발휘한 영웅적 위훈의 형상을 통하여 다 함께 혁명 전통의 풍부한 내용과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바로 이처럼 다양한 사상 주제적 내용을 가지고 해방 후 조선 혁명의 매 발전 단계에서 당이 해결하고저 한 초미의 현실적 문제들에 그 때마다 예술적 해명을 주면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과침에로 대중을 불러 일으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 문학 예술의 주체성은 현대적 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력사적 주제의 작품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작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의 숭고한 사상의 높이에서 《력사적 과거》를 고찰하는 데서 이룩되였는바 리 기영의 장편 소설 《두만강》, 최 명익의 장편 소설 《서산대사》, 박 태원의 장편 소설 《계명 산천은 밝아 오느냐》 등을 비롯한 일련의 력사적 주제의 작품들은 우리 인민에게 자기 민족의 과거와 슬기로운 애국 전통을 알려 줌으로써 그들을 조국과 향토에 대한 사랑, 민족적 자부심과 주체 의식으로 교양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체 사상의 생활력과 관련된 우리 문학 예술의 성과는 형상적 화폭의 중심에 내세운 인간 그 자체의 구체적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문학 예술 작품들은 혁명적 주인공들의 생활과 리상을 명확히 보여 주면서 혁명의 승리는 항상 많은 난관과 시련을 동반하며 영웅적인 강의성을 요구하는 긴장된 투쟁을 거쳐서만 쟁취된다는 사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 문학 예술의 혁명적 주인공들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오직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원쑤를 물리치며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 혁명 투사들, 당이 맡겨 준 성스러운 초소에서 계속 혁명의 기치를 들고 만난을 이악하게 극복하면서 오직 사회주의 건설에 정열을 쏟고 있는 시대의 영웅—천리마 기수들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영웅적 강의성을 훌륭히 체현하고 있다.

우리 문학 예술의 긍정적 주인공들의 또 하나의 성격적 특징은 다름 아닌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다.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스스로 노력하여 앞당겨야 하는 것이다.

우리 문학 예술의 긍정적 주인공들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철저히 반대하면서 자기를 우리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 철저히 인식하고 있으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 자기 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에 고무되고 있다. 자기 힘에 대한 신뢰와 신심, 그것은 곧 자기의 생명이며, 희망이며 등대인 우리 당에 대한 신뢰와 신심이며 무한한 헌신성이다.

우리의 문학 예술이 그 주제의 여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조선 로동당의 향도적 역할과 그 령도 하에서의 인민 대중의 자주적이며 집단주의적인 투쟁을 훌륭히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은 긍정적 주인공들로 하여금 항상 의의 깊은 사업의 한가운데 나서게 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격을 더욱 다양하고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의 문학 예술은 우리 인민의 과거와 현실 속에서 조국과 혁명에 충실한 수 많은 인물들을 발견하여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전형들을 창조해 냈으며 그 하나하나의 전형을 통하여 바로 그들처럼 살며 일하는 새로운 수백, 수천의 조선의 혁명 투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키워 내고 있다.

문학 예술 창작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음악, 창극, 미술, 무용 등의 예술 분야에서도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우수한 특성들을 살리면서 오늘의 우리 인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선률, 새로운 언어 구사, 새로운 률동, 새로운 선과 색조를 창조함으로써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음악 부문만 놓고 보더라도 민족 악기를 개량하며 남녀 성부를 구분하고 탁성을 제거하여 조선 음악의 특성을 살리며 새로운 시대적 미감에 맞는 성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창극 분야에서 고전적 형식을 통하여 현대적 주제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과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나타나기도 하였다. 창극 《강 건너 마을에서 새 노래 들려 온다》는 그러한 성과의 하나이다.

민족 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살리면서 새 시대의 미감에 맞는 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은 무대 예술 형식을 풍부히 하며 새롭게 개척하는 측면에서도 성과를 과시하고 있는바 음악 무용 서사시적 형식의 창조 등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이런 것은 예술 형식 분야에서 우리 인민이 창조한 독창적인 것이다.

수천 년의 조선 력사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민족 예술이 오늘 로동당 시대에 와서 창조된 것은 바로 예술 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 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은 멀리 해외에서까지 실증되였는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민의 예술을 가리켜 《황금의 예술》이라고 칭송하는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해방 후 당의 령도 밑에 우리 문학 예술이 장성 발전하여 온 력사는 주체를 확립하는 길이야말로 문학 예술의 참다운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강력한 담보라는 것을 힘 있게 보여 주고 있다.

《한국사》를 평함 (2)

—3국~고려 시기를 중심으로—

원 사　김　석　형
력사학 학사　김　세　익

고구려, 백제, 신라 등 3국의 성립에서 19 세기 중엽에 이르는 약 2,000 년간의 우리 중세 력사는 우리 나라가 대내 대외적으로 힘찬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장구한 기간에 우리의 민족 문화와 애국 전통은 더욱 풍부화되였다. 고대를 계승한 우리의 중세 문화는 일정한 개화기를 경과함으로써 일반 중세사에서 보기 드문 높은 발전 수준을 이룩하였으며 마침내 단일한 국가 생활을 하게 된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원쑤들에게도 굴할 줄 모르는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한국사》는 중세사 서술 부분에서도 역시 고대사 서술에서 가졌던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지 못 하고 시비를 전도하면서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애국 전통을 도처에서 깎고 헐뜯었다. 조선 사람의 손으로 씌여졌다고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파렴치한 서술과 표현을 다 들어 론평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시기를 14 세기 말(고려 말)까지로 우선 국한하고 거기서 나타난 가장 엄중한 몇몇 측면을 중심으로 론평하려 한다.

1

《한국사》는 3 국에서 도달한 높은 생산력 발전 수준을 외국의 침략과 외국 기술의 수입의 결과처럼 외곡하고 우리의 찬란한 문화를 다른 나라 문화의 《이식》과 영향의 결과라고 모독하였다.

《한국사》의 편자는 우리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이 3국 시기에도 락후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할 목적으로 신석기 시대에 처해 있던 우리 나라에 《한(漢)의 철기 문화가 수입된 이래 기술 문화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았》(고대편, 567 페지)다고 하고는 계속하여 4 세기 이후 《고구려는 락랑군을 취득하여 그 고도한 기술을 얻고 또 한의 료동군의 철관(鐵官)을 주재시켰던 평곽(平郭, 현 안산 부근)을 점령하여 철의 제련이나 철제 무기 기타 기구의 제조가 더욱 성하》였다고 썼다. 이것은 고대 서술 부문에 대한 론평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사람은 자체로 청동기의 제작이나 제철 기술을 가지지 못한 락후한 상태에 있었으나 한나라의 침략으로 비로소 문명 시기에 들어 섰다는 일제 어용 학자들의 날조를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사》의 편자들이 이렇게 외곡하여 쓴 것은 해방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남조선에서 고고학적 발굴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더 중요하게는 일제의 외곡 날조에 더 없는 권위를 부

여하려는 그들의 노예적인 굴종 때문이다.

력사적 사실은 우리 나라 3국 시기가 선행한 고대 사회에 비하여 생산력이 현저히 발전하고 왕성하던 새 시기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은 제철, 제강 기술을 비롯한 고조선 이래의 과학, 기술, 문화를 계승하여 이를 훌륭히 발전시켰다.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의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압록강 상류 지역에서는 고구려 시기의 련철 장소들이 여러 개소 발굴되였으며 발굴된 무덤들과 집자리들에서는 그 질이 매우 높은 강철들이 발견되였다. 이와 류사한 련철 장소 혹은 강철 유물들이 남반부 지역에서도 발견되리라는 것은 마한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였다는 기록과 또한 일본의 《고분 시대》의 무덤들에서 조선 계통의 철제품들이 수다히 발견된 사실로써도 확증된다.

높은 제철, 제련, 제강 기술의 발전은 사회 생산력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바 우리의 우수한 3국 문화는 그 기초 우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한국사》의 편자는 3국 문화의 터전을 《원래의 동북 아세아 계통의 원시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철기 문화를 수입하는 데서 성립된 것이다》(고대편, 532 페지)라고 철기 문화 수입론의 황당한 거짓말을 또다시 늘어 놓은 다음 고구려의 문화는 《중국계, 인도계, 북방계 등의 잡다한 제종 문화를 일시에 수입》(고대편, 533 페지)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백제의 문화는 《문약(文弱)이라 할 만큼 란숙한 남조(남중국—필자) 계통의 것을 받아 들이면서 개성의 뚜렷한 표현은 보지 못》한 것인데 그것은 백제 주민 구성이 북방에서 흘러 든 류이민으로 구성되였기 때문에 《비순수한 혼성체 사회는 전통의 정신적 가치와 독자성을 결여》(고대편, 534, 533 페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신라 문화에 대해서는 《신라 문화의 발달은 대개 3 단계의 전환을 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제 1 단계는 오래 동안의 금석 병용기를 거친 신라가 나물왕 시기부터는 고구려와 고구려를 통한 중국 북조 계통의 문화를 받아…국가적 기초를 확고히 한 시기였다… 제 2 단계는 소지마립간시 전후부터… 고구려보다는 일층 세련된 백제 문화와 백제를 통하여 들어 오는 중국 남조계 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였다…진흥왕 시기에는…제 3 단계의 전환을 본 것이다…려, 제 량국에 대한 문화적 부용성에서 탈피하여 직접 동양 문화의 본거지와 련결하여 수 당 문화를 받아 들이게 되였다》(고대편, 534～535 페지).

이와 같이 《한국사》의 서술 대로 하면 우리 3국의 문화는 잡동산이의 혼혈종 문화이며 거기에는 아무 전통 계승도, 당대 인민들의 슬기도 반영된 것이 없는 것이다. 이리 하여 우리의 문화의 독자성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되고 말았다. 《한국사》 편자에게는 고구려의 고분과 거기에 그려진 벽화도, 백제의 독특한 탑 형식도, 신라의 금관도 모두 중국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물론 초기에 백제나 신라는 고구려에 비하여 발전이 다소 뒤늦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3～4 세기 경에는 생산력의 발전 수준에서 3국은 벌써 비슷해졌으며 이에 기초하여 그 문화 발전의 수준도 비슷해졌다. 각자가 다 일정한 지방적 특징은 가지기는 하였으나 통털어 한 개 독특한 조선 중세의 첫시기 문화로서의 훌륭한 내용을 구비할 수 있게 되였던 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이웃 나라 문화에서 자기들에게 맞는 긍정적인 것을 섭취하였으나 여기서 기본으로 된 것은 그 바탕으로 된 전통적인 자기들의 문화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3국 문화에는 지방적 특징이 있으나 공통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갈래의 겨레가 세운 고대 국가를 계승한 데서 유래한, 다시 말하면 같은 겨레가 세운 같은 사회 제도 하에서 온 공통성인 것이다.

《한국사》에서 우리 신라의 문화를 《부용성(附庸性)》의 문화라고 모독한 것은 결코 편자의 《창견》이 아니다. 이런 《창견》이 조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 일제 어용 학자들은 3국의 문화가 일본 문화 발전에 준 영향의 의의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조선 문화는 중국 문화의 이식에 불과한 것이며 조선은 다만 중국 문화를 일본에 전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껄였다. 그들은 결국 조선에서 얻고 배운 것은 없다는 것이였다.

《한국사》는 일제 어용학자들의 이 날조를 그 대로 좇아서 3국 시기의 문화를 이와 같이 모독하고 외곡한 것이다.

통합 신라 시기의 문화에 대해서는 일제 어용학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사》의 편자도 감히 그것이 외국 문화의 이식이라고는 단정하지 못 하였으나 발해 문화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변경 문화를 토대로 하여 성당(盛唐) 문화를 받아 들이면서 재구성된 것이였다》라고 비방하고는 《고대 국가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신라보다 뒤떨어져 그 문화적 압력》(고대편, 654 페지)을 받았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 유민의 나라이며 그 문화의 수준은 결코 통합 신라에 못지 않았다. 과거 일제 어용학자들이 발해의 문화 유물을 략탈할 목적으로 동경성(상경 룡천부)을 《발굴》하고 《성당 문화의 영향》을 강조하는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일제 어용학자에게 순종한 《한국사》의 편자는 이 《보고서》에 매여달려 발해 문화를 외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년간에 동경성에서 진행된 발굴 사업에 의하면 고구려 시기의 평양성의 도시 구획과 궁궐, 성벽, 성문들을 방불케 하는 유지들, 우수하고 다양한 각종 공예품들, 불상 조각품들이 발견되였다. 초보적인 연구에 의하더라도 발해의 문화는 신라의 문화와 같은 수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려 문화와도 련결되여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발해의 력사적 사명은 고구려 문화를 직접 고려와 련결시킴으로써 고려가 3국 이래 우리 인민이 창조한 문화적 성과를 통일적으로 계승 발전시켰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는 《발해의 력사적 사명이라든지 그 성격은 주로 고구려의 산하에서 성장하던 말갈족으로 하여금 후일 금제국을 형성시킬 만한 기반과 자기 위치에 대한 자각을 가지게 하였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대편, 664 페지)라고 규정 지음으로써 발해의 력사적 존재가 가지는 의의와 그 문화를 남의 나라에 넘겨 주고 있다. 이런 망설은 바로 일찌기 일제가 《만주국》을 조작할 때에 떠들어 대던 말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고려 문화는 신라 및 발해 문화를 계승하여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전도하여 《한국사》는 겉으로는 고려가 신라 문화의 주류를 이었다고 하면서도 《특히 전반기에 있어서는 당, 북송 및 료(거란—필자)의 영향을 받음이 많았고 후반기에 있어서는 남송 및 원(몽골—필자)의 영향을 입음이 컸었다》(중세편, 704 페지).

그리 하여 신라 및 발해의 도자기 기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고려 청자의 제조도 11 세기 말에 송나라 자기 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제조되기 시작한 것이고(중세편, 722 페지) 우리 나라 자체의 필요에 의하여 대규모적으로 진행되던 출판 사업에 뒤따라 이루어진 인

쇄 기술의 발전과 금속 활자의 발명은 《송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송의 그것을 릉가할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중세편, 8~9, 310, 326 페지 참조)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사》의 편자는 외국의 영향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식 문화》, 《부용성》의 문화라는 망설을 류포시키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이 마치 외국인들의 부단한 《귀화》에 의하여 《민족의 구성 요소》가 풍부해진 결과에 이루어진듯이 묘사하기에 애쓴 나머지 고려 시기의 특성을 외국인들에 대한 이른바 관용에서 찾고 《이러한 관용성에서 발해인, 거란인, 녀진인, 일본인, 중국인, 몽골인, 서역인 등등 외민족의 귀화를 환영, 포섭하여 민족의 구성 요소를 풍부히 하였다》(중세편, 10 페지)라고 썼다. 이런 말은 결코 《한국사》 편자의 우연한 망발이 아니다.

《민족의 구성 요소》의 풍부성에 대해서는 이미 고대사 서술에 대한 론평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새삼스럽게 또 론평하게 되는 것은 편자가 계통성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모독하면서 오늘 남조선의 문화를 양키식, 왜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자들에게 거듭 아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써도 《한국사》가 결국 누구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는가가 명백하다.

《한국사》의 편자들이 우리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준 영향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 리 없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료(거란) 나라에서 신라 학자 중 원효의 불교 관계 저서를 류포시킨 사실들을 들면서도 료에서 우리 원효나 고려의 학자 중 의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결론을 줄 대신에 오히려 《직접, 간접으로 고려는 그(거란—필자)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중세편, 286 페지)라고 쓴 것은 그러한 실례이다.

《한국사》의 견해 대로 한다면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세계적인 다채로운 문화에 접촉할 수 있게 되며 또 조선 민족 혼자로서는 아무 것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외래 침략자에 대해서도 《관용성》을 발휘하여 종족의 혼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미 제국주의의 남조선 강점을 력사적으로 감싸 주고 그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감수할 것을 설교하고 있음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한국사》가 어떻게 말하든 우리 인민들은 3국~고려 시기를 통하여 외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고수하면서 더욱 창조적이며 다양하고 풍부한 자기의 문화를 이룩하여 이 시기의 세계 문화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2

《한국사》는 우리 중세사를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한 영웅적 인민의 력사로서가 아니라 외래 침략자에 의하여 유린되고 예속된 력사로 날조하였다.

3국 이후 고려 말에 이르는 우리의 대외 관계사는 한 마디로 말하여 침략자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들의 영용한 투쟁으로 일관되여 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완전히 전도하여 《한국사》 편자는 3국 시기부터 우리 나라는 남의 부용살이나 해온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심지어 편자는 일본 사람들이 조작한 이른바 미마나(任那) 설을 접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미마나 설》이란 일본 군국주의의 어용사가들이 19세기 말 이래 떠들어 오던 망설의 하나로서 그 내용인즉 고대 일본이 남조선 일대를 몇 세기 간 《지배》 또는 《경영》했다는 것이다. 미마나는 락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3국 시기에 존재하였던 김관 가야국의 별칭 임나(任那)에 대한 일본식 독법이며 여기에 일

본의 통치 기관인 《미야께》라는 것이 있었고 이를 거점으로 해서 일본 세력이 남조선 일대에 펼쳐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미마나의 미야께》의 장관을 《야마도노 미꼬도모찌》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마치 명치(明治) 년간에 조선에 설치한 통감과 같은 것이였다고 생각된다》(오다 《조선사 대계》 상세편, 152~153 페지, 1927년 판)고 말했다.

일제 어용 학자들의 이러한 맹랑한 날조물인 미마나 설은 저들이 패망한 이후에도 계속 류포되고 있고 오늘 일제의 남조선 재침 기도와 관련해서 저들의 학계에서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다.

그런데 《한국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서술하였던가?

《일본 사상(史上)의 소위 임나부(府)란 것은…본질적으로 경제적 리익(무역)을 주로 하던 일종의 공적 상관(商館)(후일의 왜관(倭館)과 같은 것) 이였던 것이, 후에 차차 정치적 내지 군사적 활동을 겸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대편, 403 페지)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편자는 광개토왕릉비를 일제 어용학자들이 제멋대로 읽은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또 제멋대로 《미마나》의 령토로 규정한 지명 비정에 대해서도 장광설을 늘어 놓고 531년 김관 가야국 멸망 후에는 《남가라(본가야) 재건 문제가 왜인 및 다른 잔존 가야 제국과 백제와의 사이에 여러 차례 론의되였으나(541, 544년—필자)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남가라 재건 문제에 관하여는 일본서기 흠명기(欽明紀)에 신용하기 어려운 설화적 기재도 많이 실려 있으나 대체로 이 문제를 둘러 싸고 제국 간에 론의가 진행되다가 말았던 것은 사실인듯 하다》(고대편, 445~446 페지)라고 썼다. 이것은 당시에 왜인들이 우리 가야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다.

일제 어용학자들은 김관 가야국 멸망 후 562년(진흥왕 23년)까지 락동강 류역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미마나노 미야께》가 이 해에 멸망한 데 대하여 무척 슬퍼하였는데 《한국사》의 편자도 이들과 거의 같은 심정으로 《이 때 왜인은 자국과 리해 관계가 깊은 임나 제국의 부흥을 위하여 무한 노력하였으나 신라의 비약적 발전 세력 앞에는 마침내 수포로 돌아 가고 말았던 것이다》(고대편, 449 페지)라고 썼다.

8. 15 해방 후에도 일본 부르죠아 학자들은 약간 음조를 달리하면서 그러나 집요하게 《미마나 설》에 매여 달리고 있다. 《고대에 우리의 조선 경영(지배—필자)에 있어서와 또한 최근세의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정복주의도 아니고 리기주의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예로는 백제나 임나를 보호함으로써 그들에게 국가를 수립시키는 데 있었고 그것은 진실로 평화적이며 또한 공존적 지배라고 할 것이며…일본의 지배는 주정(主情, 인정의 뜻—필자)주의적 공존주의적이여서 피차 간의 차별을 초월한 더 좋은 공동 세계의 건설을 념원하는 것이였다. 이것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끝내 변함 없는 근본 정신이다》 (미시나 《조선사 개설》, 6 페지, 1953년 판). 구식민주의에 약간 다른 색칠을 한 이런 신식민주의 관 《미마나 설》은 오늘 일본 학계의 통설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사》는 여기에 슬며시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력사적 사실은 기원 후 수세기까지 조선에서 건너 간 이주민들이 일본 국가 형성과 문화 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이주민 집단은 자기 고국의 이름을 그대로 쓰기도 하면서 거기서 수세기 간 독립한 세력을 형성하고 고국인 3국, 가야 등과도 일정한 련계를 가지였다. 괴아의 고문헌들과 유물들은 이러한 관계를 전하고 있으며 일본 부르

죠아 력사가들 가운데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극히 단편적으로나마 말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후 일본 렬도를 통일하게 된 야마도의 왕은 원주민 계통 및 조선 계통 《소국》들을 정복 또는 통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 《소국》들을 통제하고 수탈하기 위하여 《미야께》를 일본 렬도 내 각지에 설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고문헌에는 가야국(미마나)에 뿐만 아니라 《시라기(신라)》, 《구다라(백제)》, 《고마(고구려)》 등 《소국》에도 이를 설치하여 공물을 받아내었다고 하였던 것이다. 오래 동안 침략 습성에 물젖어 있는 일부 일본 학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출토된 이 시기 유적 유물들에 외면할 뿐만 아니라 고문헌도 제대로 읽지 않으려 하면서 이 《소국》들을 우리의 3 국과 가야라고 날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 사람 아닌 《한국사》의 편자가 무엇 때문에 이에 발을 맞추고 있는가는 짐작할 만 한 일이다.

편자의 이런 립장은 우리 중세 력사를 아름답게 수 놓고 있는 우리 인민의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을 서술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우리 인민의 반침략 전쟁에 대하여는 내외의 력사 문헌들이 비교적 많이 전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료들은 거의 모두가 봉건 대국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의 손에 의하여 씌여지고 엮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사료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의 편자는 침략자들이 자기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감추기 위하여 기어 둔 기록들을 그 대로 베껴 놓음으로써 우리의 력사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침략자의 력사를 서술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도 길게 론할 것 없이 다만 몇 가지 실례만을 들어도 명백해진다.

645년 당나라 침략자를 반대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편자는 이 전쟁을 지휘한 고구려의 총사령관인 연개소문 장군에 대해서 《사나운 독재자》로 묘사하였는가 하면 침략군의 괴수인 당 태종에 대해서는 《실전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져 용군여신(用軍如神)하다는 평을 듣던》(고대편, 400 페지) 천재적 전술가이며 화살에 맞은 부하의 《상처의 독혈을 빨아 주는》 정도로 부하를 아끼는 인자한 임금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안시성을 지킨 장수(양 만춘)는 성 우에 올라 패주하는 당 태종에게 미안하다는 절을 했다고 쓰고 절을 받은 당 태종은 그에게 비단 백필을 선물로 주고 그의 애국심을 높이 찬양하였다고 썼다. 이 글은 당 태종이 자기의 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비단 백필을 내던지고 몸을 뺀 사실을 당나라의 봉건 어용사가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그 대로 옮긴 것이다. 이와 같이 사대주의 사상에 잠겨 있고 외세에 아부하기에 비롯된 《한국사》의 편자는 이 글을 그 대로 옮겨 놓음으로써 침략자의 패배를 감싸 줄 뿐더러 우리 인민들에게 침략자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아량 있게 대하라는 투항주의 사상을 은연 중에 류포시키려고 한 것이다.

10 세기 말 11 세기 초 고려에 대한 거란의 침략에 대해서도 《한국사》의 편자는 일제의 어용 학자의 《연구》에 기초하여 침략자를 미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13~14 세기 고려-몽골 관계에 대한 서술을 보기로 하자. 13 세기 초~중엽 몽골 침략군이 아세아와 동구라파 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단시일 내에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나 고려에 대해서는 40 년 간 침략을 거듭하면서도 고려 인민의 완강하고 영웅

하 항전으로 패배를 당하였다는 것은 《한국사》의 편자도 감히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종결된 후(13 세기 후반기~14 세기 전반기)의 약 90 년 간 지속된 고려-몽골 관계에 대하여서는 일제 어용 학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의 서술을 뒤따르면서 《몽골의 위력에 굴복한 고려는 드디여 자주성을 잃고 말았다. 즉 고려는 몽골의 간섭과 징구(徵求)와 감시에서 면할 수 없는 복속 국가로 화하여 결국 그 명령에 의해 움직일 때가 많았다》(중세편, 601 페지)고 썼다. 이것은 력사적 사실이라기보다도 《한국사》 편자의 선입견이다. 이 시기 고려-몽골 관계에서 강조되여야 할 것은 간고한 력사적 조건 하에서도 고려가 주권 국가로서 자기 존재를 계속하였으며 우리 인민이 횡포한 침략자로부터 자기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몽골의 침략 대상으로 되였던 광대한 아세아 및 구라파 대륙 일대에서는 극히 보기 어려운 현상이였다.

물론 이 시기 고려 지배 계급 내부에 반역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이 있었던 만큼 몽골(원) 침략자들의 고려 내정에 대한 간섭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 고려 왕실과 몽골 왕실 간에 결혼 관계가 맺어졌고 친원적인 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왕위 계승 문제를 가지고 몽골의 음모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고려 측의 항의에 의하여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그럴 때마다 고려 정부가 몽골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음모를 꾸민 반역자들을 엄격히 처단한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한편 《한국사》의 편자는 몽골 침략자를 반대하는 고려 인민의 력사를 정당하게 서술할 대신에 이 기간 봉건 통치배들의 권력 쟁탈과 기타의 사말적인 사건들을 서술하는 데 많은 지면을 돌렸으며 또 삼별초의 항전(1270~1273년)을 반란으로 묘사함으로써 몽골 침략자를 반대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 위업을 말살하고 있다.

14 세기 말 왜구의 침략을 반대하는 고려 인민의 투쟁을 정확히 서술하는 것은 왜구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며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을 밝히는 데 있어서나 다음의 15 세기의 대내외 정책을 리해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의 편자는 왜구의 침입을 반대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은 거의 서술하지 않았으며 지어 왜의 침입을 합리화하고 있다. 즉 왜구의 우리 나라 침략 리유를 《충렬왕 때에 고려가 원과 더불어 일본을 정벌하여 그 서해 제도를 공략한 후로부터 왜구의 성질은 매우 악화하여 고려의 연해는 물론 원의 연해 지방도 그 해를 자주 입었다》(중세편, 655 페지)고 쓰고 있다. 또 1369년 전라도 원수 김선치 등이 투항을 가장하고 들어 온 왜구들을 처단하려다가 그만 놓치고 만 사건이 있은 후 《그들은 이로부터 크게 격노하여 입구(入寇)할 때마다 인물을 살해하고 재화를 략탈함이 전일의 비가 아니였다》(같은 책, 679 페지)라고 썼다. 1350 년대로부터 시작된 왜구의 침략은 고려가 70~80 년 전에 일본을 공격한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야수적인 학살과 만행을 함부로 저지르게 된 책임도 고려 측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는 왜구의 후예들이 쓴 《조선사 대계》의 망설을 오늘에 와서까지 되풀이함으로써 재생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아부하고 있으나 조선 인민은 조국의 력사에 대한 이와 같은 모독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3

《한국사》 편자는 현대 부르죠아 사가들의 《객관성》과 《무당성》의 가면조차 벗어 던지고 공공연히 봉건 지주의 립장을 대변하면서 피착취 계급의 정의의 해방 투쟁을 모독하였다. 여기서는 이 사실을 지면 상 관계로 다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편자가 즐겨 사용한 계급과 심히 모독한 계급 투쟁에 대하여 일별하겠다.

《한국사》의 편자가 계층과 계급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은 국가의 개념이나 력사의 시기 구분에 대한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 그리 이상할 것이 못 된다고 치더라도 통합 신라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경주)에는 상하 계급을 물론하고 호화, 안일, 환락, 유흥의 습성이 날로 늘어 가 그칠 줄 몰랐다》(고대편, 716~717 페지)라고 한 《상하 계급》은 아무 근거도 없이 편자가 안출해 낸 괴이한 것이다.

《한국사》에서 더욱 엄중한 것은 봉건 시대 우리 인민의 계급 투쟁 력사 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9~10 세기 초의 약 100 년 간의 농민 폭동들을 몇 마디로 넘겨 버리면서 《동란은 점점 확대되여 전국에 미쳤다. 기회에 승한 반란자 중에는》라고 하면서 원종, 애노 등이 농민 폭동의 지도자와 이러한 폭동에 편승한 자들을 동일시하였을 뿐 아니라 9 세기 말 붉은 바지 농민 폭동군은 서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계급 투쟁이 력사 발전에서 노는 거대한 의의를 부정하는 반동적 립장에 선 《한국사》의 편자의 외곡과 말살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농민 폭동은 신라 봉건 통치 계급에 심대한 타격을 주어 마침내는 부패한 신라 왕조의 멸망을 불가피하게 하는 전제를 조성하였으며 그 후 통치 계급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농민들에 대한 착취를 완화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12 세기 말~13 세기 초의 대농민 폭동은 그 규모와 범위 및 완강성으로 하여 봉건 시대 우리 인민의 계급 투쟁 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힘 있게 추동하였다.

그러나 《한국사》는 농민 폭동 서술에서 자유와 권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정당성과 사회 경제 발전에서 그것이 논 거대한 역할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만 부패한 봉건 통치배들을 옹호하며 폭동군을 모욕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12 세기 말~13 세기 초의 대농민 폭동에서 봉화를 든 공주의 망이에 대하여 취한 고려 봉건 통치배들의 배신적 행위를 옹호하면서 《한국사》의 편자는 망이 등이 재차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토벌군이 농민군의 가족을 체포 구금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 왜적한 시비 전도임은 《고려사》를 잠간 훑어 보기만 하여도 곧 명백해 질 것이다.

력사적 사실은 망이 농민군의 투쟁에 겁을 집어 먹은 집권자들이 착취 계급의 상투 수단인 회유와 기만책으로 망이 폭동군과 화약을 체결한 다음 틈을 타서 비밀하게 농민군 지도자들의 가족을 체포 투옥하는 비렬한 행위를 감행하였던 것이다.

《한국사》는 다시 더 나아가 폭동군의 지도자들이 고려 왕정의 미관 말직이라도 얻어 하기 위하여 폭동에 일어 선 것으로 사태를 외곡하였다. 《이 때 만일 처부로서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래항(來降)을 포상(褒賞)하는 의미로 공명첩(空名牒〈名譽職牒〉)이라도 주는 아량을 베풀었다며는 문제는 달랐을지도 모를 것이다》(중세편, 482 페지)라고 썼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이는 농민군 지도자들에 대한 파렴치한 모욕이

다.

망이가 봉건 통치배들의 야비한 속임수에 격분하여 죽을지언정 항복은 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개성)까지 쳐 올라 가고야 말겠다고 다짐한 것은 《고려사》에서도 어느 정도 강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의 편자는 농민 폭동군들이 《략탈》, 《살인》, 《파괴》 등을 일삼았다고 썼으며 노비들이 자기 해방을 위하여 상전들과 착취자들을 처단한 것을 《잔인한 행동》, 《변태적인 살인귀적 행동》이라고 비방 중상하였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력사적 사실은 정권을 잡은 착취 계급들이 《법》의 이름을 빌어서 혹은 비법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민들에게 악독한 형벌을 가하였으며 무참히 학살하였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지배 계급이야말로 흡혈귀였으며 잔인한 살인귀적 행동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피착취 계급 인민들에 대해서 악의에 찬 비방을 늘어 놓은 《한국사》가 착취 계급에 대해서는 얼마나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가 대조적으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편자는 6 세기 신라에서 《화랑》을 귀족 계급에서 선택한 것은 《아마 이러한 부유 계급의 자제가 대개 용모가 수려하고 교양이 다른 계급의 사람보다 우월하였던 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대편, 600 페지)라고 썼는가 하면 착취 계급의 《인자성》을 선교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비의 대우가 가혹하여 물건 동양의 취급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의 법률 상의 보호는 물론 재산의 소유, 부의 축적 또 특수한 공훈으로 관로(官路)에 오른 일도 있고 또 량반의 비첩(婢妾)도 되는 등 인격적 취급을 받았던 것이》(중세편, 343 페지)라고 하였다. 여기서 《한국사》의 편자는 부르죠아 사학에서 강조하는 인도주의, 리성, 공정성과 같은 개념으로부터도 멀리 물러 섰다. 량반의 첩으로 되는 것을 인격적 대우를 받은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오늘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 인민을 노예화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마음에 드는 서술이며 남조선의 인신 매매 제도에 대한 합리화인 것이다.

4

어떤 력사 서술이 비록 부르죠아 사가들에 의하여 집필되였다고 하더라도 민족적 량심에서라도 출발하고 사료에 대한 정확한 고증에 기초하였다고 하면 일정하게 참고로 될 수도 있은 것이다.

《한국사》에 대하여 말한다면 거기에는 민족적 량심의 편린도 반영되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제 어용 학자들의 유물을 아무 고증도 없이 되는 대로 엮어 놓은 잡동사니이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 상 몇 개 실례만 드는 데 그치겠다.

《한국사》는 3국의 성립 시기를 수백년간 늦게 잡음으로써 우리 인민이 오래 동안 락후한 상태에 있었던듯이 날조하기에 모진 애를 다 쓰면서 고구려는 태조왕(53～146), 백제는 고이왕(234～286), 신라는 나물 마립간(356～402) 통치 시기에 성립되였다고 단정하였다. 그리고는 이 시기 이전의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 등의 기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때의 3국을 《부족 국가》, 《원시 국가》 등의 모호한 개념으로 얼버무려 버리고 있다. 이 부문을 서술하면서 편자는 마치 자기의 《창견》을 피력하는듯이 묘사하고 있으나 그 《창견》의 근본을 따져 보면 역시 과거 일제 어용 학자들이 내놓은 《설》을 그 대로 따랐거나 표면 상으로는 《비판》한다고 하면서 내용인즉 슬그머니 그 대로 따라 갔다.

일제 어용 학자들은 특히 백제, 신라

의 성립 시기를 규정함에 있어서 이 나라들에 관한 기사가 중국 사서에 있는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하는 것 등을 그 기준으로 잡았다. 《한국사》의 편자는 바로 이 전대미문의 방법론에 선 일본 사람들의 그것을 좀 올렸거나 그 대로 따른 것이다.

신라의 성립 시기를 4 세기 말~5 세기 초로 잡는 《한국사》의 편자는 《어떻든 루한(樓寒)은 마립간(麻立干)에 상당한 칭호로서 나물시에 이미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신라의 집권정치도 이 즈음에 형성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리 하여 나는 나물을 신라의 국가(고대 국가)적 건설의 태조라고 보고 싶다》(고대편, 399 페지)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 책의 편자가 가장 높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일본 부르죠아 학자들의 말을 들어 보자. 《신라 본기의 나물왕 이전의 기사는 력사 상의 사실을 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나물왕 시대의 기년(紀年)과 같은 것도 갑자기 신용하기는 곤난하다》(이께우찌 《일본 상대사의 한 연구(日本上代史의 一硏究)》, 24 페지)라고 하였으며 또 《신라의 한 나라로서의 력사적 출현의 년대는 크게 말해서 진 송(晉宋)의 사이 즉 4 세기의 중엽을 내려 오지는 않는다. 사기(삼국)의 신라 본기에서는 나물왕의 시대(356~402)에 해당한다》(스에마쯔 《신라사의 제 문제》, 120 페지)라고도 하였다.

《한국사》 편자의 일제에 대한 추종은 일제 어용 학자들조차 그 년대에 한해서는 신빙할 수 없다고 한 《일본 서기》의 기사와 년대를 그 대로 따르는 추태까지 벌리게 되였다. 즉 《삼국 사기》 백제 본기에는 동성왕 때(479~500) 이전에 탐라(제주도)가 백제에 속하였다고 하였는데 《일본 서기》에는 계체 2년(백제 무녕왕 8년에 해당한다고 한다) 즉 508년에 탐라인이 처음으로 백제와 통했다고 하였으니 《어느 쪽이 옳은지 후고를 요한다》(고대편, 460 페지)라고 썼다. 과거 일본 어용 학자들은 《일본 서기》를 뜯어서 《삼국 사기》에 맞춤으로써 《일본 서기》의 과학적 신빙성을 높이려 하다가 미처 이루지 못 하고 말았는데 해방 후 《한국사》의 편자는 우리의 《삼국 사기》를 《일본 서기》에 갖다 맞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 어용 학자들의 비위를 거슬릴가 봐 몹시 걱정하는 《한국사》의 편자는 일제 어용 학자들이라면 《고려사》를 그 대로 베껴 옮긴 글까지 아무 씨, 아무 박사의 《연구》라 하여 소개하면서도 우리의 선행 학자들의 이름을 들어 볼 용기를 내지 못 한다. 편자의 눈에는 우리 조선의 선행 학자들은 선배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한국사》 편자가 일본 학자들의 뒤를 따라 가면서 《삼국 사기》의 백제 본기 고이왕 이전의 기사와 신라 본기 지증왕 이전의 기사는 믿기 어렵다느니 뭐니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고려사》가 고려 시기 우리 력사뿐 아니라 동북 아세아의 국제 관계 연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료라는 것을 내외의 학자들이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의 편자는 《선배》가 《심한 두찬(杜撰)》(이께우찌 《만선사 연구》 중세 1 책, 183 페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두찬》이라고 단정하였다(중세편, 206 페지 참조).

《한국사》 편자의 구역질 나는 사대주의 사상의 표현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고려 문종왕에 대하여 편자는 《한(漢)의 문제에 비길 만 한 현명한 임금으로서 그는 신하들 중에서 적재를 뽑아 적당한 자리에 앉히고 제도의 개혁, 빈민의 구제 기타 문치(文治)에 힘을 썼》(중세편, 209 페지)다고 하였다. 이 서술에서 그릇된 점들은 여기서 다 말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만 지적할 것은 어찌하여 고려 문종은 오직 한나라의 문제와 비교해야만 그의 현명성이 정확

히 평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편자의 한나라 문제에 대한 숭배 사상은 골수에 박혀 있어서 《이 때 송에, 인어서도 역시 한 문제와 병칭되는 인종이 재위하여…》(같은 책, 209 페지)라고 쓰고 있다. 이에 이르러서는 사대주의 봉건 사가들을 무색케 할 정도이다.

또한 《한국사》의 《고대편》에서는 한강 류역을 차지하여 중국과의 교통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것이 3국의 사회 경제 발전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졌다는 맹랑한 《지정학》의 반동적 《설》을 류포시키기에 힘쓰는가 하면 《중세편》에서는 겉으로는 관념적인 유희라고 하면서도 봉건 통치배들이 저들의 착취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작하고 류포시킨 풍수 도참 사상과 지배 계급 내부의 정권 쟁탈전에 지나치게 많은 지면을 돌리고 었다. 반면에 사회 경제적 발전과 그것을 보여 주는 경제 제도에 대해서는 극히 단편적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정확한 내용과 본질을 구명하지 못 하고 있다.

* *

이상에서 우리 나라 3국～고려 시기의 력사 서술에서 《한국사》가 외곡하고 날조한 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론평하였다.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한국사》에서는 《이식》된 경제, 문화의 력사로, 침략자와 봉건 통치배들의 력사로 되고 말았다. 기본 체계와 기본 립장에 있어서 《한국사》는 까놓고 말한다면 해방 전 일제 어용 학자들이 그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날조한 《조선사 대계》와 다른 것이 없다.

매국적인 봉건 지주 및 예속 자본가의 립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 《한국사》 편자의 사관과 수법은 지난날에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에 복무하였으며 오늘에는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2중 식민지로 남조선을 팔아 넘기는데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급속히 장성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이 책이 노는 역할에 일정한 기대를 걸고 장려금까지 주고 있음은 비밀이 아니다.

미제와 그의 주구들이 제아무리 교활한 수법으로 우리 력사를 외곡하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민족 자주 의식과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려 하여도 오늘의 우리 인민은 결코 거기에 속아 넘어갈 인민이 아니다. 미제와 그 사환군들은 심히 오산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 세력은 파멸을 재촉하고 있다

—년간 국제 정세를 개관하면서—

류　　영　　표

인류의 기나 긴 력사에서 1년이란 시간적으로 한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로 특징 지어지는 우리 시대의 한 해는 얼마나 많은 혁명적인 사변들로 가득차 있는가!

1965년 한 해 동안에 국제적 범위에서 벌어진 모든 복잡한 사변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 간에 가장 첨예하고 긴장된 투쟁이 벌어졌으며 이 투쟁을 통하여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사회주의 력량, 민족 해방 력량, 평화 력량은 더욱 장성 강화되였고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 세력은 그들의 허장성세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나락에 더 깊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1965년의 국제 정세 발전의 주되는 특징은 무엇이며 그 발전의 요인은 무엇인가.

*　　*

지난 1년 간의 국제 정세 발전의 주되는 특징의 하나는 미제의 군사 전략적 패배가 최근 어느 해보다도 가장 심각하였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 의하여 미제가 세계적 범위에서 극도로 고립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미제의 군사 전략적 패배에 대해서 말할 때 웰남에서의 미제의 침략 전쟁을 념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미제는 4년 간 계속하여 온 남부 웰남의 《특수 전쟁》에서 더는 수습할 수 없는 군사, 정치적 참패를 당하게 되자 극도의 위기감에 사로잡혀 종전에는 주로 괴뢰들을 통하여 진행해 온 전쟁에 미군을 직접, 대량적으로 투입하고 전쟁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로 나아갔다. 그들은 남부 웰남에서의 군사, 정치적 《우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른바 《존슨주의》를 실천에 옮겨 왔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의 결과는 《락천적》이라고 떠들어 왔다.

이 《존슨주의》는 군사적으로는 《계단식 확대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랭전》으로부터 전면적 핵 전쟁에 이르는 전쟁의 단계와 계단을 구분하고 《적이 굴복할 때까지》 그 계단을 점차적으로 따라 올라 가면서 전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트루맨의 《랭전 정책》, 아이젠하워의 《전쟁 접경 정책》, 케네디의 《평화 전략》을 집대성한 것이며 양키 세계판에 근저를 둔 잔인성과 악랄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계단식 확대 전략》에 근거하여 남부 웰남 전쟁을 북부 웰남에로 확대하고 나아가서 인도지나 반도 전 지역에 《계단식》으로 확대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였다. 그들은 년초에 2만 3,000 명이였던 미군 주둔 병력을 근 20만 명으로 대폭 증가시켰

으며 매일 200만 딸라씩 투하하던 전쟁 비용을 1천만 딸라로 증대하였다. 이 외에 태평양의 최대의 주력 함대인 미 제 7 함대 무력의 거의 전부를 웰남 전쟁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앞으로 남부 웰남 파견 병력 수를 수십만으로 증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미제는 웰남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에 핵 무기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최신식 무기를 대량 투입하면서 해방 지역에 대한 《초토화 작전》과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또 감행하고 있다.

《계단식 확대 전략》에 의해 2월부터 본격화된 민주 웰남에 대한 폭격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였으며 전쟁 도발 책동은 광란성을 띠는 데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은 미제가 남부 웰남에서뿐 아니라 웰남의 전 지역에 전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수 전쟁》의 한계를 넘어 《국부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는 남부 웰남에서는 지상전과 공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부 웰남에서는 주로 공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리 하여 웰남 전쟁은 이미 조선 전쟁의 규모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국제 반동과 국제 혁명 력량 간의 일대 격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제가 이 전쟁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난 1 년 간의 웰남 전쟁의 행정은 기계적 계산과 단순한 수'자적 대비에 습관된 미제 침략자들의 이른바 《기술적 우세》와 《물량의 우세》는 맥을 출 수 없었으며 궁지에서 허덕이는 침략자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하였다.

핵 공갈을 강화하면서 하늘과 바다에서 북부 웰남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며 남부 웰남에서 전면적인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싸우는 웰남 인민의 전투적 의지를 꺾으며 그들을 굴복시킬 것을 타산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망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웰남에서 수세를 만회하기 위한 미제의 《계단식 확대 전략》은 종전의 모든 전략과 마찬가지로 파산의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아무런 효과도 가져 올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명백히 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부 웰남에서의 군사 작전의 강화와 함께 북부 웰남에 대한 도발 행동을 본격화한 작년 8월 5일 이래 금년 11월 말까지 격추 당한 비행기 수는 북부 웰남 지역에서만도 800여 대에 달한다. 금년 초부터 11월 말까지 살상된 미군 수만 하여도 1만 6,416명에 달하고 있다.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의 지도 하에 남부 웰남 해방군과 유격대는 전투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높은 기동성과 집중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함으로써 미제와 그 괴뢰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해방 지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미제와 그 괴뢰들은 웰남의 대해 속에서 사실 상 봉쇄 당하고 있으며 《섬》으로 고착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지는 《계단식 확대는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가일층의 확대 역시 파탄될 것이며 가장 준엄한 위험을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썼고 주간지 《타임》은 《전도가 더욱 암담하다》고 실토하였다. 전 남부 웰남 미국 대사 테일러조차 지난 8월 4일에 《승리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웰남 전쟁에서의 미제의 군사 전략적 패배는 단순히 웰남 한 지역에 국한된 국부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조선 전쟁 이후 미제의 군사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사변으로 된다.

지난 1 년 간의 웰남 전쟁 행정은 미

제가 지금의 몇 배의 무력을 투입한다 해도 《계단식 확대 전략》보다 그 어떤 더 모험적인 전략을 만들어 낸다 해도 저들의 군사적 수세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미제는 웰남 침략 전쟁에서 극복할 수 없으며 메울 수 없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미제 침략자들이 전체 웰남 인민을 반대하는 극히 반동적인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전쟁에서 《성과》를 달성하려면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미제와 반동들에게는 그것이 없으며 또 있을 수 없다. 도덕적인 파산은 그들의 근본적인 약점이다. 무기와 딸라의 힘만 쳐다 보며 기계적인 뇌수를 가진 양키들은 또한 웰남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창발성과 지혜를 당해 낼 수 없는 것이다.

미제는 금년 1년 동안에 군사 전략적으로 심각한 참패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반동적인 침략 정책으로 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범한 인민들로부터 더욱 고립되였다.

군사 독재를 반대하고 헌법 제도를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지난 4월에 폭동에 궐기한 도미니카 인민들에 대하여 존슨은 《서반구에 또 하나의 꾸바가 생겼다》, 《미주에 또 하나의 공산주의 정권이 생겼다》고 떠벌리면서 3만 8,000여 명의 침략 군대와 24척 이상의 군함을 동원하여 폭동 진압에 반광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싸우는 도미니카 인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도미니카 인민들은 미군과 그 추종 국가 군대들의 철거를 계속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외세의 간섭이 없는 자주적인 선거를 실시할 것을 강경하게 요구하여 싸우고 있다.

민족적 독립의 흉악한 교살자로 등장한 미제는 금년에도 도처에서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을 꺼 보려고 망상하였으며 신생 독립 국가들의 자주적인 발전을 저애하고 세계 인민들을 계속 예속시켜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라오스의 해방 지역에 대한 폭격을 로골화하면서 국내 전쟁을 다시 도발하고 인도지나에서 제 2 전선을 형성하려고 발악하였으며 반제 전선에 견결히 서 있는 캄보쟈를 반대하는 무장 침범을 빈번히 도발하였다. 콩고(레)에서 애국적 인민들을 반대하는 《토벌 작전》을 계속 감행하였으며 우간다, 콩고(브)에 대한 무장 간섭을 계통적으로 감행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애국적 무장 부대들을 반대하는 《토벌대》를 직접 지휘하였다. 이렇듯 미제는 《공갈 정책》과 《기만 술책》을 배합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고 허물어져 가는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를 유지해 보려고 날뛰였다.

그러나 금년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피압박 인민들의 치렬한 투쟁은 도처에서 벌어졌으며 무장 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격전이 전개되여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계급 투쟁이 격화되면 많은 경우에 그것이 무장 투쟁으로 넘어 가게 된다. 전쟁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결코 혁명적 군중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군중을 탄압하는 착취 계급들에게 달려 있다. 지배 계급이 폭력으로 혁명 군중을 탄압하기 때문에 혁명 군중이 폭력으로써 대항해 나서는 것이다》 (김 일성).

침략 세력과의 투쟁에서 일층 강화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반제 투쟁은 지난 1년 간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비상히 발전하였는바 그 중에서도 혁명 투쟁의 가장 치렬한 형태인 무장 투쟁이 주되는 추세로 발전한 것이다.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애국적 인민들이 단합된 력량으로 진출하면 어떠한 침략의 아성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힘 있게 보여 주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남부 웰남

인민들은 발톱까지 무장한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 집단들의 발광적인 책동을 물리치면서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있다. 그들은 미제를 완전히 수세에 빠지게 하였으며 그들의 위기를 일층 격화시켰다. 이것은 그 어떠한 현대적 무기와 기술적 장비로써도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단결되고 각성된 혁명적 인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금년에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민족 해방 투쟁은 더욱 심화 발전되고 있다. 특히 투쟁의 불'길은 적도 이남 지역에서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데 꽁고(레)에서 애국 력량은 자기 세력을 확대하면서 계속 용감하게 싸우고 있으며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 기네 인민들의 무장 투쟁은 큰 전과를 올리였다.

싸움은 드디여 악명 높은 인종주의자들이 류혈 통치를 벌려 놓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남로데시아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반미 반독재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과떼말라, 꼴롬비아, 뻬루 등에서 무장 투쟁이 치렬히 전개되고 있다.

이렇듯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활한 지역에서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이 날을 따라서 확대되고 있으며 투쟁에서 커다란 전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안식처》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순수 군사 전략적 견지에서만 보더라도 미제의 침략의 마수는 너무도 길게 뻗어 나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 전 세계 혁명 력량을 반대한 목적 밑에 자기의 무력을 극도로 분산시킴으로써 전략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있다. 후방은 멀고 병력 집중이 곤난한 조건에서 미제는 모든 전선에서 녹아 나지 않을 수 없다.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미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나라들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 기세가 비상히 높아진 것이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식민주의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정치적 독립을 달성함으로써 자기 력사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선 인민들이 자기의 보람찬 생활을 개척함에 있어서 가장 정당한 길이다. 왜냐 하면 정치적 독립의 달성은 민족 해방의 첫 걸음에 불과하지 결코 그 종국적 승리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이러한 투쟁은 금년에 미국식 《원조》의 배격, 자체 자원에 의한 경제 건설, 외국 독점 기업의 몰수,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사상 문화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식 《원조》를 단연 거부하고 자주적 경제 발전을 지향하여 온 캄보쟈 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거듭되는 무력 침범에 격분하여 미국과의 국교 관계 및 경제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만약 원쑤들이 계속 덤벼 든다면 무력으로 물리칠 결의를 천명하였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도구인 《말레이시아 변방》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은 금년에 미국인 소유 재배원과 석유 회사를 몰수하였으며 미국 공보원을 폐쇄하고 《평화군》을 축출하였으며 유엔에서 탈퇴하였다. 싱가포르의 탈퇴로 《말레이시아 련방》의 붕괴 과정은 촉진되고 있다.

아프리카 나라들 속에서도 아랍 련합 공화국과 같이 미국식 《원조》를 배격하며 나이제리아와 같이 외국 상품을 배

적하며 딴자니아나 말리와 같이 자립적인 민족 경제 건설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투쟁 행정에서 인민들의 각성은 더욱 제고되고 경제는 자주적으로 일층 발전되고 있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금년의 반제 투쟁에서 특징적인 것은 또한 반제 전선, 특히 반미 전선이 가일층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 인민들은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공동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주되는 예봉을 미제에게 돌리고 있다.

미제의 웰남 침략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뿐 아니라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지어 미국 내에서까지 반전 운동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웰남 민주 공화국과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의 요구에 의하여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도미니카에 대한 미제의 파렴치한 무력 간섭은 전 세계 인민들 특히는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격분케 하였으며 《양키는 나가라》는 구호 하에 도처에서 반미 투쟁이 전개됨으로써 침략자들을 결정적으로 고립시켰다. 이스라엘을 침략 수단으로 리용하려는 미제의 책동에 아랍 국가들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지원 하에 남로데시아의 백인 인종주의자들이 일방적인 《독립》을 선포한 것과 관련하여 아프리카의 전체 인민들은 무력 투쟁까지 전개할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특히 미제의 적극적인 사촉 하에 조작된 범죄적인 《한일 조약》을 반대하는 투쟁은 도처에서 치열히 전개되고 있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한일 조약》을 무효화하며 박 정희 파쑈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면서 투쟁의 예봉을 직접 미제에게 돌리고 있다. 또한 《일한 조약》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들의 투쟁에는 로동 계급을 비롯한 농민, 청년, 학생, 근로하는 도시 주민 등 각계 각층 인민들이 대중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서로 단합하면서 투쟁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국제 반동을 규합하여 혁명적 인민들을 공격하고 노예화하며 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세계 인민들의 단합된 투쟁은 국제 혁명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 담보로 된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전개하고 있는 이와 같은 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세계 도처에서 배격 당하고 있으며 고립당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수백 수천만의 주민들이—사실 상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가—독자적이며 적극적인 혁명 력량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박두하는 세계 혁명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최초에는 민족 해방을 지향하였던 세계 인구의 대다수 운동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게 되여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혁명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레닌 전집 제 32 권, 629 페지)라고 한 레닌의 예언을 더욱 확증해 주고 있다.

* *

금년의 국제 정세 발전의 주요한 특징의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 진영 내부의 모순이 종전의 보조의 불일치, 부분적 리해 관계의 충돌로부터 서방 블럭 자체를 부정하는 데로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 내부에서 미제의 고립 과정이 촉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시기 제국주의 렬강 간의 충돌과 모순은 그 어떤 개별적인 나라 또는 개별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거의 모

든 제국주의 국가들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면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과 프랑스 간의 모순이 날카롭게 대두하고 있다.

사실 미제는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 웬남 침략 전쟁을 추켜 세우는 데 한량없이 드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맹국》들에서 지원 받아 보려고 그의 《국제화》를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서구라파 《동맹국》 중에서 어느 한 나라도 미국의 갈망을 풀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어 프랑스는 《웬남의 중립화》, 더 나아가서 《동남 아세아의 중립화》를 내세우면서 미제의 전쟁 확대 정책에 맞서 나섰다. 이로 인하여 《반공 집단 안전 체계》를 표방하면서 미제가 힘 들여서 만들어 놓은 군사 블럭들이 사실에 있어서는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프랑스는 나토를 개편하지 않으면 1969년 기한 만기를 계기로 거기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미제는 프랑스의 반대에 봉착하여 세아토를 써먹지 못 하고 있으며 쎈토도 지금 와해 상태에 있다. 미제의 침략 도구가 자기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미주 국가 기구》에서도 폭로되였다. 미제는 도미니카에 대한 무장 간섭을 감행한 이후 세계 인민들로부터 일치한 규탄과 배격을 받고 고립되자 교활한 술책으로 《미주 상설군》 조직을 들고 나왔으나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현 통치 집단의 반대까지 받아서 결국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지 못 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미제의 립장은 더욱 곤경에 처하였다. 국제 수지 면에서의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미국은 서구라파 나라들의 금융 도전에 봉착하여 재정 위기는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구라파 《공동 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시장 쟁탈에 격분하여 《공동 시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탈퇴한 형편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구라파인의 구라파》를 표방하는 프랑스의 반대로 하여 미국의 《구라파 통합》의 구상은 깨여져 나가고 있으며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옛지위를 도로 찾으려는 《동맹국》들의 태도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이렇듯 전후 초기에 미국과 기타 서부 렬강 간에 형성되였던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금년에 더욱 허물어져 가고 제국주의 진영은 사분오렬되였으며 미국과 프랑스의 정면 충돌은 미제를 더 심한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죤슨이 《미국의 우방 중 몇 개 나라는 우리의 적국과 손을 잡고 이 우방들이 일부의 적국 이상으로 많은 난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비명을 지른 것이나 미국 출판물이 《전 세계에서 미국은 수세에 빠져 있으며 그 영향력은 격이 떨어져 감퇴되고 있다》고 한탄한 것은 모두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오늘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실증해 준다.

오늘 제국주의 렬강 간의 투쟁과 충돌이 더욱 첨예화되여 가는 것은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이 날로 장성되고 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민족 해방 혁명이 급속히 앙양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세력권과 시장이 대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적 법칙으로 하여 금년에는 특히 미국의 지배적 지위가 붕괴되였다. 제국주의 렬강들에서의 과잉 생산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자기의 살'구멍을 찾기 위하여 더욱더 해외 시장을 찾으려고 약육강식의 본성을 그 대로 드러내 놓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 진영은 수습할 수 없는 분렬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미국의 지배적 지위는 붕괴의 일로를 줄달음치고 있으며 고립 무원한 가운데서 《세계 전략》을 실현해

보려고 망상하고 있다. 이것은 틀림 없이 미제가 더욱더 무서운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는 징조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 경제 형편도 위기를 배태하고 있다. 미국에서 계급적 및 사회적 모순은 격화되고 있으며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로동 계급과 기타 계층의 진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앙양되고 있다.

금년에 들어 와서 동부 해안 6만 부두 로동자들이 일으킨 55 일 간에 걸친 장기 투쟁은 독점 자본가들에게 20억 딸라의 손해를 주었으며 2월에 일어 난 6만 금속 로동자들의 파업, 5월에 있은 해원들의 2 개월에 걸친 파업, 9월에 들어 와 뉴욕 신문들을 장기간 정간시킨 뉴욕 출판 일'군 파업 등이 있었다. 이리 하여 금년 상반년에 85만 2,000 명이 참가한 2,020 건의 파업이 전개되였는데 이것은 1955년 이래의 최고 기록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중요한 파업들이 황색 로조 상층 지도부의 통제를 박차고 지방의 기층 조직들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진행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로동 계급이 일층 각성되였으며 독점의 공세를 물리치기 위한 투쟁이 더욱 대규모적으로, 더욱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년 8월에 폭발된 미국에서의 흑인 폭동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변이다. 로스안젤스에서 발단한 흑인 폭동은 삽시간에 전국을 휩쓸었으며 존슨의 《위대한 사회》의 파산을 선고하였다. 파쑈적인 탄압 하에서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빼앗기고 밑바닥 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는 흑인들의 투쟁은 단순한 인종 차별을 반대하고 인권 옹호를 위한 데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슨 정부의 침략 정책과 전쟁 행위를 반대하는 데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다.

10월에는 미국 인민들의 력사 상 류례 없는 반전 투쟁의 봉화가 올랐다.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는 전국을 휩쓸었으며 청년들은 징병 반대 운동을 일으켜 징병 명장을 불살랐으며 분신 자살자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미제는 국내에서도 배격 당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금년에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첨예화되였으며 동시에 미제가 국내적으로도 헤여 날 수 없는 깊은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제국주의 특히 미제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있다.

* *

지난 1 년 간의 국제적 사변들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이미 멸망에 직면한 저들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및 도덕적 힘도 가지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 인민들을 반대하는 반동적 정책으로 하여 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되였으며 인민들의 강력한 반제 투쟁에 의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인민들의 각성, 혁명 력량의 급격한 장성에 대처할 힘은 없으며 이것은 우리 시대를 전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이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의 이 전진 운동을 가로막으려고 계속 책동한다면 그들은 마침내 종국적인 파멸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1965년 《근로자》 차례 묶음

문 헌

편집국 론설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관철을 위하여

당 건 설

정치 및 철학

경제 건설

남조선 및 국제 관계

평론 및 서적 해제

문답 학습

근 로 자 제 24 호(루계 286 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 쇄 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12월 17일　　발 행 · 1965년 12월 20일

ㄱ—530663　　값 40 전